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박사학위논문

명리학(命理學) 기반
한국형 단기상담 모형 개발

제주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하 은 희

2020년 2월

명리학(命理學) 기반 한국형 단기상담 모형 개발






지도교수 김성봉

하은희

이 논문을 교육학 박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9년 12월

하은희의 교육학 박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김 대 영	
위 원	박 정 환	
위 원	하 진 의	
위 원	신 영 대	
위 원	김 성 봉	

제주대학교 대학원

2020년 02월

A Study on Developement of Korean Short-term Counseling Model Based on Meungrihak

Eun-Hee, Ha

(Supervised by Professor Sung-Bong Kim)

A thesis submitted for the Doctor of Education

2020. 2

This thesis has been examined and approved

DEPARTMENT OF EDUCATION
GRADUATE SCHOOL
JEJU NATIONAL UNIVERSITY

<국문초록>

명리학(命理學) 기반 한국형 단기상담 모형 개발

하 은 희

제주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지도교수 김 성 봉

본 연구는 명리학 기반 한국형 단기상담 모델을 개발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명리학의 상담적 활용요소로서 초기 접수면접 자료들을 고찰하고, 단기상담을 위한 핵심기술은 무엇인지를 파악하여 한국형 단기상담의 모형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명리학의 초기 접수면접 자료들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

연구문제 2. 한국적 단기상담을 위한 명리상담의 핵심기술은 무엇인가?

연구문제 3. 명리학에 기반한 한국적 단기상담은 무엇인가?

본 연구는 위의 연구문제를 위해 명리학의 고전 문헌연구를 통해 상담에 필요한 초기 접수 자료를 고찰하였고, 명리상담가들의 실제 경험담을 근거이론 및 현상학적 해석학으로 접근하여 명리상담만이 가지고 있는 기술을 추출하였다. 문헌연구에서는 상담을 위한 내용적인 면을 다루었으며, 현상학적 해석학의 입장에서는 명리상담가들의 실제 상담 경험담을 통해 상담의 기술적 측면을 다루었다. 그리고 한국형 단기상담의 모델을 제시하면서 명리상담의 형태적 측면에서 보완해야 할 과정이나 절차를 체계화시키고자 하였다. 이러한 새로운 도전들과 함께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명리상담에서만 볼 수 있는 상담의 초기 접수면접 자료를 탐색해 보았다. 육친론(六親論)을 통해서 사주의 주인공인 일간(日干)을 중심으로 가족관계의 역동을 파악하였다. 아울러, 일주론(日柱論)을 통해서 사주의 주인공인 일간의 성격 성향 및 직업 적성을 탐색할 수 있었다. 이러한 자료들을 통해서 명리상담에서 일간의 태어난 생·년·월·일·시만으로도 상담의 활용할 초기 접수면접의 자료를 확보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둘째, 명리상담은 동양철학으로서 철학치료의 가능성을 확인하고 상담의 치료적 의미

를 고찰해 보았다. 단지 운명론적 범주만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상담의 활용요소로서 치료적 의미를 살폈다. 음양오행론, 중화론에서는 핵심적인 명리학의 치료적 차원을 엿볼 수 있었다. 다른 한편으로는 일반인들이 명리학 이론을 이해하는 일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연구자의 실제 명리학 공부를 통한 통찰경험을 소개하였다. 아울러 『주역』의 상황점과 명리학 공부 경험을 통해서 숙명론적 한계상황에 처한 내담자들을 위해 어떠한 치료적 접근이 가능한지를 살펴보았다.

셋째, 명리상담의 단기상담적 요소를 탐색하였다. 명리학의 여러 이론들 중에서 『궁통보감(窮通寶鑑)』에서 갑목의 생로병사를 다루어 보았다. 그리고 십이운성론을 차용하여 2018년(戊戌年) 세운에 따른 천간과 지지의 변화 등 운의 흐름을 살펴보았다. 이렇게 운의 희기를 파악하여 명리상담가들은 내담자에게 가장 힘든 부분을 말할 수 있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이러한 탐색작업을 통해 명리상담자들은 사주원국과 더불어 세운, 대운의 향방 속에서 명리상담은 “내담자가 오늘 여기에 왜 왔을까?”에 대한 답을 예측될 수 있다는 단기상담의 가능성을 확인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넷째, 명리상담의 기술적 요소들을 탐색하였다. 도박중독자의 명리사주분석에서 상담에 필요한 기술을 위한 이론을 형성하기 위하여 근거이론적 접근으로 개방코딩, 축코딩, 선택코딩을 하여 ‘핵심 던지기’기술을 축출하였다. 현상학적 해석학으로 8인의 명리상담자들의 실제 상담경험에서 나오는 ‘핵심 던지기’기술에 대한 견해를 통해 상담기술로서 응용 가능성을 고찰해 보았다. ‘핵심 던지기’기술은 단도직입적으로 단기상담을 가능하게 한다. 이러한 기술은 인간중심의 서양 내담자들에게는 직선적이고 강한 표현이 될 수 있으나, 감정을 억압하는 고맥락 사회의 한국인 내담자에게는 저항감을 줄일 수 있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다섯째, 명리학 기반 한국형 단기상담 모델을 제시하였다. 실제로 이루어지는 명리상담의 사례를 소개하고 서양상담의 관점에서 슈퍼비전을 통해 명리상담의 단기상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명리상담 사례에 대한 축어록 풀기, 상담의 사례개념화와 더불어 서양의 주요 상담이론 중 정신분석, 인지행동, 인간중심, 게쉬탈트 상담적 관점으로 명리상담의 사례를 재해석하였다. 본 연구자는 서양상담의 다각적인 분석틀을 통해 명리상담의 향후 개선점과 더불어 보완점등을 고려한 대안제시와 함께 한국 내담자를 심층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명리학 기반 한국형 단기상담 모형’을 개발하였다.

주요어: 명리학, 한국적 상담, 단기상담, 육친론, 일주론, 십이운성론, 음양오행론, 중화론

목 차

I. 서론.....	1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1
2. 연구문제 및 연구내용.....	9
3. 연구방법 및 절차.....	10
4. 연구의 범위.....	13
5. 용어의 정의.....	14
II. 이론적 배경.....	16
1. 선행연구의 검토.....	16
가. 한국적 단기상담을 위한 선행연구.....	16
나. 명리학 관련 선행연구.....	17
다. 상담관련 명리학의 선행연구.....	17
라. 명리학 기반 상담관련 연구의 방향성.....	18
2. 명리학(命理學).....	20
가. 명리학의 고전 문헌.....	20
나. 역(易)의 자연관.....	24
다. 역(易)의 주요원리.....	26
라. 사주팔자(四柱八字)의 구조.....	33
마. 형(刑)·충(沖)·회합론(會合論).....	37
III. 명리상담의 초기 접수면접을 위한 자료	44
1. 육친론(六親論)을 통한 가족의 역동 탐색.....	44
2. 일주론(日柱論)을 통한 성격 성향 및 직업 적성 탐색.....	68

IV. 명리상담의 치료적 의미	86
1. 음양오행론(陰陽五行論)과 중화론(中和論).....	87
2. 『주역(周易)』의 ‘상황점’과 명리학의 ‘운명점’.....	105
V. 명리상담의 단기상담 요소	137
1. 십이운성론(十二運星論).....	137
2. 『궁통보감(窮通寶鑑)』에서 말하는 갑목(甲木)의 십이운성의 변화...142	
3. 십이운성론을 활용한 상담의 핵심 주제.....	160
VI. 명리상담의 기술적 요소	178
1. 도박중독자 사주에서 본 ‘핵심 던지기’.....	178
2. 명리상담가들의 ‘핵심 던지기’기술에 대한 견해.....	221
VII. 명리학 기반 한국형 단기상담 모형 제시	252
1. 명리상담 사례	252
2. 명리상담 사례에 대한 슈퍼비전(Supervision).....	270
3. 명리학 기반 한국형 단기상담 모형 제시.....	321
VIII. 논의 및 제언	334
1. 논의.....	334
2. 제언.....	345

참고문헌.....	349
영문초록.....	373

표 목 차

표 II- 1. 명리학 고전문헌 시대 연도표.....	21
표 II- 2. 육십갑자표.....	26
표 II- 3. 오행의 성정과 배속.....	31
표 II- 4. 사주의 위치별 통변 내용.....	36
표 II- 5. 형(刑)의 종류.....	43
표 III- 1. 육친 정하는 방법.....	47
표 III- 2. 육친 조건표.....	50
표 III- 3. 천간오행의 체(속심리)와 용(겉심리).....	75
표 III- 4. 체·용·합의 개념으로 본 오행의 개념.....	77
표 III- 5. 체·용·합의 개념으로 본 일간의 복합성향.....	78
표 III- 6. 천간의 특성 비교.....	79
표 IV- 1. 연구참여자의 인적 사항.....	108
표 IV- 2. 역점(易占)저널 양식.....	113
표 IV- 3. 주역 ‘상황점’과 명리학 ‘운명점’의 치료적 의미(意味).....	130
표 V- 1. 궁통보감의 십간(十干)의 월별 조후용신.....	157
표 V- 2. 십이운성표.....	158
표 V- 3. 천간의 십이운성 변화표 1.....	161
표 V- 4. 천간의 십이운성 변화표 2.....	162
표 V- 5. 2018 무술년-2019 기해년의 천간(天干)의 작용.....	172
표 V- 6. 2018 무술년-2019 기해년으로 연결되는 접목운의 흐름 변화표.....	173
표 VI- 1. 연구참여자의 인구학적 특성.....	178
표 VI- 2. 명리상담가의 인구학적 특성.....	179
표 VI- 3. 개방코딩, 축코딩 및 선택코딩 결과.....	182
표 VII- 1. 단회상담의 원리 비교	308

그림 목 차

그림 I - 1. 연구 모형.....	12
그림 II - 2. 달, 지구, 태양과의 관계.....	24
그림 II - 3. 24절기 표.....	25
그림 II - 4. 태극 진화도(太極 進化圖).....	27
그림 II - 5. 팔괘의 진화도(八卦 進化圖).....	28
그림 II - 6. 오행(五行)의 상생(相生)과 상극(相剋).....	29
그림 II - 7. 역-태극-음양-오행의 분화에 대한 물리적 모형.....	30
그림 II - 8. 사주원국과 대운·세운의 구조 예시.....	33
그림 II - 9. 삼합(三合)의 구조.....	39
그림 II - 10. 방국(方局)의 구조.....	39
그림 II - 11. 육합(六合)의 구조.....	40
그림 II - 12. 지지충(地支沖)의 구조.....	42
그림 III - 1. 육친의 개념도.....	45
그림 III - 2. 육친의 생극제화.....	46
그림 III - 3. 【실제사례 III-1】의 육친 구조.....	48
그림 III - 4. 육친의 속성.....	54
그림 III - 5. 가계도 그리기.....	63
그림 III - 6. 【실제사례 III- 3】의 가계도.....	65
그림 IV - 1. 천간(天干)의 운동 속성.....	93
그림 IV - 2. 지지(地支)의 운동 속성.....	95
그림 IV - 3. 수용전념치료 개념도.....	106
그림 IV - 4. 중산간괘.....	115
그림 IV - 5. 중산간괘 풀이.....	115
그림 V - 1. 갑목의 십이운성의 변화.....	159
그림 V - 2. 천간합의 변화도.....	164
그림 V - 3. 甲·乙木 일간의 천간 변화도.....	165
그림 V - 4. 丙·丁火 일간의 천간 변화도.....	165
그림 V - 5. 戊·己土 일간의 천간 변화도.....	166
그림 V - 6. 庚·辛金 일간의 천간 변화도.....	166
그림 V - 7. 壬·癸水 일간의 천간 변화도.....	167
그림 V - 8. 무년술(戊戌年)과 지지(地支)의 변화.....	170
그림 VI - 1. 도박중독자 사주의 핵심주제 도출과정.....	218
그림 VII - 1. 【실제사례 VII- 1】의 사례개념도.....	277
그림 VII - 2. 명리학 기반 한국형 단기상담 모형	321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미국의 심리치료자들은 단기상담 전략을 선호한다. 이는 각종 보험회사들이 상담료 지불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장기상담보다는 단기상담을 그 대안으로 찾고 있기 때문이다. 4,000여 명의 정신 건강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 연구(levenson & davidovitz, 2000)에서 미국 전 지역의 치료자 중 약 90%가 치료시간을 줄이고 목표에 제한을 두는 심리치료를 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또한 정신 역동적 치료방법을 따르는 치료자 중 4분의 1이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단기 심리치료를 선호한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러한 시도는 정신분석적 치료방법에 대한 도전장으로 볼 수 있다.

미국에서 수행되는 심리치료 대부분은 20회기 미만인 단기 심리치료에 기반을 두고 있다(안명희, 전현수 역, 2016; fosh, 1995). 시간에 따른 호전도를 볼 때 상담의 회기 수에 제한없이 심리치료를 받은 내담자의 50% 정도가 8~16회, 75%가 단기상담의 상한선인 26회 이내(hanson & lambert, 2003; kadera, lambert & andrews, 1996)에 임상적으로 좋은 결과를 보고하였다. 특히, 시간 제한적 역동치료(Time-Limited-Dynamic-Psycho therapy: TLDP) 조차도 내담자들을 병자가 아니라 틀 안에 매여있는 것으로 보면서 기존의 장기상담 방식을 탈피하고 단기상담 전략을 선호하고 있다. TLDP의 연구에서 내담자의 약 60~70%가 13회 이내에 호전되고 있다고 보고된 바 있다(hanson, lambert & forman, 2002).

이와 같이 단기상담이 발전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단기상담 학계에서는 다문화적 측면에 대한 고려와 적용이 부족하다고 지적한다. 시대적 요청에 따라 1970년대부터는 비교문화적 상담이 대두되었다. 오늘날 다문화상담은 ‘상담의 제 4세력’으로 명명될 만큼 그 영향력이 증가하고 있다(안형근, 2002). 한국 내담자들을 위한 상담의 질적연구들은 의존적이고 답을 구하려는 내담자의 상담에 대한 기대, 눈치를 봐야 하는 집단문화, 정서표현 방식의 차이(주은선 등, 2007), 가족문화, 효(孝), 한민족의 한(恨)과 서러

움 등으로 한국 내담자의 특성을 언급한다(강진령, 2005; 이은경, 양난미, 서은경, 2007).

이처럼 다문화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는 상담풍토 속에서 한국인의 특성을 감안한 한국적 상담은 필요하다. 서양식의 상담이론이나 기술들이 감정표현이 어눌하고 집단주의의 고맥락 사회이면서 몇 천 년의 유교가치관으로 뿌리 내려온 한국 내담자들의 마음을 온전하게 읽어줄 수 있을지 자문하게 된다. 상담자들이 문화적, 혹은 소수인들이 금기시 하는 사회적 통념과 가치관에 대한 매너리즘에 빠져 있지는 않을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국 현실에서 개인의 성장과 더 나아가 성숙한 사회가 되기 위해 관계-문화적 상담이론(Relational Culture Therapy: RCT)적 접근이 시도되고 있다(유성경, 1998; 이은진, 이지연, 2013; tomson, 1996).

한편, stein(1983)은 모든 인간은 인간성에 있어서 근본적으로 소통적이라고 말한다. 즉, 인간이 추구하는 삶과 어려움을 해결하는 방식은 공통적이기 때문에 문화에 따라 각기 다른 상담모델을 개발한다는 것은 불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아리스토텔레스가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이라고 말했듯이 사회적 관계를 통해 개인은 내면화 되기 마련이다. 그러므로 한 사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정신치료는 본래적으로 그 사회의 가치관들을 통합하고 있기 때문에 상담도 내담자가 속한 문화에 조화하고 수용될 수 있는 방식으로 변화되도록 유도되어야 할 것이다(murase, 1982; 이은경 외, 2007). 이러한 시점에서 한국인들의 사회적 특성과 문화양식, 가치관과 성격 및 집단무의식 등을 대표할 수 있는 상담개념의 정립은 필요하다. 다시 말해, 한국적 신도불이 상담모형 개발이 필요한 시점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한국인의 문화적 특성을 무엇으로 규정지을 수 있을까? 본 연구에서는 한국인을 대표할 수 있는 집단무의식(이부영, 2012), 유교주의의 수직적 집단주의(조궁호, 2007), 정서억제(주은선 등, 2007) 등을 초점으로 한국인의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김경훈, 1996; 김충렬, 2010).

우선, 샤머니즘이다. 한국 종교계에서 불교는 산신각을 두고 기본 원시종교와 샤머니즘적 기복신앙을 아우르며 한국적 불교의 형식을 받아들이고 있다. 문창우는(2008) 교회가 천주교인들에게 점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자들이 점복행위를 유지하는 이중적 신앙태도의 사회적 요인을 밝혔다. 이처럼 불교를 비롯하여 기독교와 천주교도 서양에서 들여올 때와는 다르게 샤머니즘을 바탕으로 하는 민속신앙을 아우르는 등 집단무의식을 반영하면서 한국적 종교의 기틀을 다진 바 있다(이은순,

1989).

다음으로, 유교가치관에 따른 수직적 집단주의이다(심경섭, 2013). 한국 문화에 가장 강력한 영향력은 불교와 더불어 유교를 빼 놓을 수 없을 것이다. 유교는 관계에 역점을 둔 실천철학이다. 유교의 전통은 예를 근본으로 하는데, 예는 사회적, 도덕적, 종교적인 사회 규범이며, 극기복례(克己復禮)는 이들 규범에 단순히 순응하는 차원이 아닌 적극적 참여라고 말할 수 있다(이장호, 1986). 이렇게 유교주의적 집단주의(조공호, 2007; 신창호, 2012)로서 고맥락 사회에 살고 있는 한국인들은 자신의 감정이나 의사를 표현함에 있어서 제한적일 수 있다. 개인의 자아실현을 중시하는 서양인의 가치관과 달리 한국인은 나보다 타인을 배려하는 민족적 특성을 갖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한국인들은 정서면에서 감정을 억제하는 측면이 있다. 정신질환 진단 및 통계 매뉴얼인 DSM-5에 'Wha'라는 정식 명칭이 붙을 정도로 한국인의 문화적 특성을 “푸는 문화”(주은선 등, 2007: 581)라고 말하고 있다. 한국인들은 유교적 가치관을 통해 나의 힘듦과 고통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다른 주변 사람들이 힘들어 질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개인적 감정을 잘 드러내는 서양인들과는 대조적으로 정서표현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이는 집단주의의 구성원들은 자기가 속한 집단으로부터 인정받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며 집단으로부터 배척될 경우를 두렵게 생각하기 때문이다(유성경, 유정이, 2000; 성수진, 유순화, 2006).

한편, 2016년 점복산업은 점복산업 종사자 수 45만명, 추정매출액 6-9조원대로 발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황금옥, 2017: 479). 이러한 발전 양상에는 익명성이 보장되는 인터넷의 급속한 발전과 확산도 일조했을 것으로 보인다. 점복시장 관련 수치는 비공식적 통계지만 영화산업의 3배 이상으로(황금옥, 2017)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신세대 계층은 과거 점복문화를 터부시하고 미신시화 했던 기성세대들에 비해 점복을 하나의 문화적 양상쯤으로 이해하는 것 같다. 이들이 점복을 선호하는 이유는 종교와 상관없이 샤머니즘과 같은 토착신앙과 점복(占卜)에 대한 기대(박은경, 2008)처럼 집단무의식(김진숙, 2010)이 반영된 결과일 수 있다.

명리학(命理學)은 동양오술(東洋五術) 중 대표적 점복(占卜)상담으로서의 가치를 갖는다. 그 역사를 살펴보면, 명리학을 다루는 국가기관으로 고려조에서는 서운관이 있었고, 조선조에 들어와서는 1430년 세종12년에 서운관을 관상감으로 고쳐 부르기도 하였다. 관상감에 종사하는 기술관에는 잡과가 있었는데 잡과에는 역과, 의과, 음양과,

율과 4과가 설치되어 있었으며, <음양과>내에는 천문학, 지리학과 함께 명과학이 포함되어 있었다(이희승, 2006; 하은희, 2015: 23-24). 명과학(命課學)은 사주명리학을 지칭한다. 고려시대, 조선시대를 거치면서 명리학은 중화(中和)와 음양오행을 근본으로 한의학, 유교, 노자사상, 논어, 맹자, 중용, 풍수, 관상, 주역과 함께 동양철학의 한 분야로서 무구한 역사를 갖고 있다(심규철, 2002).

사실 점복문화에 대해 그동안 부정적 견해가 많았다. 우리민족과 뿔레야 뿔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지만, 사극이나 연속극조차도 운명론에 좌지우지하는 나약한 인간들이나 점을 친다던지 자신의 고민거리를 푸는 정도로 치부되어 왔다. 일제시대 무라야마 지준은 1919년부터 1941년까지 조선총독부의 위촉을 받아 부락제, 귀신, 무속, 점복, 풍수, 안택, 기우 등 조선의 민간신앙 뿐만 아니라, 조선사회에 대한 총11권의 방대한 분량으로 『조선의 점복과 예언(朝鮮의 占卜と 豫言)』(1933)이라는 연구를 발표한 바 있다(김만태, 2018). 그것은 조선이라는 나라를 식민지화하는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는데, 거기에서 대대손손 상담의 기능을 맡아 왔던 우리의 고귀한 정신적 맥을 차단시키려는 의도가 숨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여러 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김희영, 2008)

예컨대, 무라야마 지준은 한국의 점복에 대하여 저급성과 원시성의 문화로 몰아갔다. 그는 굿거리 중에 제일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영신(迎神), 합신(合神), 송신(送神) 등의 과정(이부영, 2012)을 통해 서민의 애환과 감정을 달래 주었던 민족 고유의 상담 기능을 맡아왔던 장면만을 빼내고, 동물점·몽점·식물점과 같이 우연적이고 신비적 속성의 것들만을 강조하면서(김만태, 2018)로만 표현했다. 더불어 명리학이나 『육임(六任)』, 『자미두수(紫微斗數)』, 『기문둔갑(寄門遁甲)』 등은 『고려사』, 『조선왕조실록』과 같은 정사(政史)에 자주 등장한 바 있는데 그러한 고급 점법들을 전혀 거론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김만태, 2010). 이를 통해 명리학은 논리적인 학문이 아니라, 미개인들이 운명론만을 운운하는 저속한 문화로 몰락하며 수난을 겪게 된다.

사향길에 들었던 점복문화가 최근 새롭게 호조를 맞이하고 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선거철이나 입시철에 상담센터를 찾기 보다는 사주팔자를 묻는 철학관을 찾는다면, 무속인들을 찾아 답답한 심정을 토로하는 등 점복에 대한 선호도가 높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 문화의 산물인 서양상담이 한국인들에게 부합되는 정도와 한국문화에만 존재하는 문화적 특징과 독특한 장·단점들을 고려하지 않고 상담장면에 그대로

적용해 왔다는 점에 대해 몇몇 연구자들은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이미선, 1997; 강진령, 2005; 장성숙, 2005; 손난희, 김은정, 2007).

서양상담적 기법으로 한국 내담자들을 상담할 때, 서양의 상담기술과 방식은 어색하거나 낯설게 느껴질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면서 1960년대 부터는 미국사회에서 개발되어 발전된 다양한 접근방법들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 즉 접근방법들이 백인 4대 중산층(WASP; White-Anglo-Saxxon-Protestant)의 문화적 가치에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다른 민족이나 인종들에게는 적합하지 않다는 주장이 나오기 시작했다(sue & sue, 1977; atkinson & gim, 1989; altman, 1995).

뿐만 아니라, 한규석 등(1999)은 한국사회의 문화가 전통의 수직적 집단주의에서 수평적 개인주의로 변화되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는데(고영복, 2000; 조공호, 1993, 2003), 이러한 변화는 신세대들의 서구화된 교육과 더불어 개인주의 성향이 많아지는 상황으로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이부영(2011)이 주장하듯, 집단무의식을 분명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또한, 시대의 흐름에 거역하지 않는 변화와 함께 서구 지향적으로 변화하는 신세대의 문화적 특징은 반영되어야만 할 것이다. 이러한 문화양상을 볼 때, 점북 상담권에 있는 한국의 내담자들을 위한 새로운 상담적 접근은 필요해 보인다.

워싱턴 대학의 마이클 칼튼(M. Kalton, 1998, 2009) 교수는 사단칠정(四端七靜)을 논했던 퇴계 『성학십도』의 현대적 의의를 살펴 ‘경(敬)’에 대한 서구인의 새로운 시각으로서 동양의 마음공부의 심오함을 해석한 바 있다. 서명석도 “물심 평행론”(2013: 80)을 언급하면서 서양의 물학(物學)과 동양의 심학(心學)은 21세기 교육계에서 일종의 평행선을 그어야 한다고 언설한 바 있다. 이러한 생각은 동, 서양의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를 인정하면서 함께 화합하고자 하는 노력일 것이다. 이러한 학문적 통섭을 위한 노력은 필요하다(정진배, 2008; 하은희, 김성봉, 2019a).

그동안 이러한 노력이 일각에서 진행되어 왔다. 김기석(1967)과 이동식(1994)은 동양인으로서 주체적인 입장을 취하면서 기존 심리치료의 철학적 배경이나 이론은 한국의 도(道) 사상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이라고 평가하면서 상담이론은 결국 도(道)를 지향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호균(1982)도 동양사상에서 불교와 정신분석, 인간중심을 비교하면서 한국적인 상담의 토착화를 시도하였다. 이러한 주장과 시도가 있었던 이유는 이상적인 인간상으로 겸손을 강조하는 우리와는 달리, 서양 문화권에서는

증상을 형성하는 방식에 있어 우리와 다르게 자기실현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수직적 인간관계보다는 수평적 관계(안형근, 2002)를 더 바람직한 관계로 보기 때문이다.

이러한 연구 이외에도 우리의 집단무의식을 반영하듯 한국의 기복신앙과 샤머니즘을 선호하는 한국의 내담자를 위한 연구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이 중에는 점복문화 배경의 여성 내담자를 위해 점복행위를 경험한 참여자들의 체험내용의 의미를 이해하고 전통적인 점복문화의 특성을 고려한 다문화주의적 접근의 상담전략을 모색하기도 하였다(김태곤, 1995; 김종대, 1996; 김영재, 2004; 양정은, 2015; 양준영, 2018;). 그리고 향후 한국 내담자를 위한 다문화적 상담전략은 미래의 점복 행위를 특징짓는 예언적 요구를 담아낼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이러한 동서학문의 통섭을 위한 노력이 명리학계에서 없었던 것은 아니다. 교육계에서 김성봉(2004)이 하워드 가드너(H. Gardner, 1983)의 다중지능을 활용한 환경 교수-학습 프로그램의 개발을 통해 학습자의 개인 변인의 다양성을 고려한 교육방법을 제안하였다면, 명리학계도 십성(十星)의 개념을 통해 에니어그램의 성격심리를 비교하였다(김경희, 2008). 서양 진로상담계에서 대학생의 부적응적 완벽주의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김종학, 최보영, 2016)를 분석하는 등 보다 인간의 심리를 세분화하는 양적 연구의 쉐거를 보였다면, 명리학계에서도 격국(格局), 용신(用神)과 전공선택과의 상관관계를 살펴 기존 진로상담의 방식과 차원이 다르게 명리학을 진로상담이나 학교 생활지도에 응용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있었다(이문정, 2007; 박영창, 2011).

또한 명리학과 공학적 측면의 접근도 있었다. 교육공학계가 공학적 시스템을 활용하여 내담자가 언제 어디서든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이브리드 코칭 시스템(홍미선, 박정환, 조정원, 2014)을 개발하여 웹기반의 코칭 시스템을 도입하였다면, 명리학계에서도 이러한 추세와 더불어 상담분야의 활성화 차원에서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한 명리학의 직업연구를 통해 명리학을 인터넷 시장으로 확대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다. 그러나 다각적으로 통섭을 위한 노력은 많았지만, 한국적 상담의 새로운 대안이나 상담 전략에 있어서 동서양의 장점을 아우를 수 있는 구체적인 상담전략에 대한 연구는 미흡해 보인다.

명리학은 이러한 연구에 시사되는 바 적지 않아 보인다. 예컨대 명리학은 상담에 활용 가능한 다양한 초기 접수면접의 자료들을 수집하는데 효과적일 수 있다(소재학,

2005). 명리학의 여러 이론들 중 육친론(六親論)은 비견(比肩)· 겁재(劫財), 식신(食神)· 상관(傷官), 정재(正財)· 편재(偏財), 정관(正官)· 편관(偏官), 정인(正印)· 편인(偏印) 등을 통해 가족관계, 진로적성, 재물부분, 건강 등 인간의 생로병사(生老病死)를 말해준다. 일주론(日柱論)은 사주의 주인공인 일간의 성격 성향, 진로 적성, 부부관계의 특성을 알게 하며, 용신론(用神論), 격국론(格局論)은 직업 적성이나 진로의 향방을 예측하게 하는 등(김기승, 2013; 이석영, 1996; 박영창, 2011; 소재학, 2011) 상담에 필요한 초기 접수자료를 확보할 수 있다.

다른 차원으로 명리학은 상담의 치료적 접근이 가능하다. 명리학은 한국 내담자의 특성을 반영하며 상담자 역할을 하는 하나의 민속문화로 불려왔다(심귀득, 2011). 교육계에서는 역학(易學)의 핵심개념이라 볼 수 있는 음양오행(陰陽五行)을 집단상담 프로그램에 응용한 바 있다(김성준, 김성봉, 박정환, 2009). 명리학계에서도 음양오행과 중화(中和)의 원리를 통해 수양을 위한 학문임을 입증한 바 있다(조규문, 2005). 게다가 명리학은 운명 결정주의이나 숙명론을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김만태, 2013: 392), “숙명론적 한계상황의 수용”(하은희, 김성봉, 2019b: 1275)을 통해 자유의지를 발현하는 실존적 인간상을 언급하면서 철학적인 ‘치료의 의미’도 내포하고 있다.

한편, 서양 상담의 주요 이론으로서 정신분석은 무의식을 다루게 된다. 인간은 원초적 자아(id)와 의식에서 도덕적 자아(super ego)가 갈등을 하면서 현실에서 하면 안 되는 수많은 감정 표현들을 페르조나(persona)라는 현실에 대한 가면을 쓰고 무의식에 억압한다(정옥분, 2014). 정신분석 치료자들은 내담자가 수없이 억압시킨 미해결된 감정들을 수용하고 무의식과 의식의 끊임없는 갈등을 다룬다. 그러다 보니 ‘뿌리치료’라고 할만큼 내담자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많은 회기 수의 작업을 하게 되므로 비용이나 시간적으로 내담자에게 부담을 주게 된다.

또한 정신분석 치료 중에 내담자는 자신의 심리적 갈등문제와 맞닥뜨릴 때 닥쳐올 불안으로 인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방어기제’를 사용하면서 저항할 수 있다. 상담자는 내담자의 ‘내적 참조 틀’(김성봉 역, 2016)을 받아 들여 공감적 이해를 해야 하지만 그 과정은 쉽지 않다. 내담자의 저항은 상담을 조기 종결이나 상담을 지연하면서 상담자에게도 심리적 소진을 겪게 하며 상담을 위기에 처하게 한다(권혜경 등, 2013). 그렇다면 이러한 과정을 해소시킬 방안을 없을까?

이러한 서양상담의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대안으로 명리학의 십이운성론을 들

수 있다. 십이운성론(十二運星論)에서는 장생(長生)· 목욕(沐浴)· 관대(官帶)· 록(綠)· 왕(旺)· 쇠(衰)· 병(病)· 사(死)· 묘(墓)· 절(絶)· 태(胎)· 양(養)이라는 주기 속에서 사주팔자의 주인공인 일간이 처한 환경의 운(運)의 희기(喜忌)를 알 수 있다(백영관, 2006). 즉, 지금 내담자가 가장 힘들어 하는 것이 무엇인지 예측 가능하다(이석영, 1996; 신영대, 2003; 변만리역리연구회, 2011). 이는 감정표현이 많지 않은 한국 내담자들에게 현재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해 상담의 목표설정 및 상담 방향을 수립할 수 있기 때문에 저항없이 단기상담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

한국인의 특성을 반영하고 단기상담 추세와 뜻을 같이하는 상담전략에 대한 문제제기와 함께 동서문화의 특성을 감안한다면, 명리학은 단기상담을 위해 답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명리학은 상담 적용에 대한 많은 장점과 함께 점복상담으로서 오래전부터 한국의 상담문화를 이끌어 온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정병석, 2012). 뿐만 아니라, 명리학은 동양철학으로서 인간에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에 대해 해석할 수 있다. 명리학을 기초로 한 인터넷 사주 운세풀이는 부정적이고 미신이라고 생각하는 한국인의 의식 속에서 점복문화, 샤머니즘적 집단 무의식을 반영하면서 저변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황오석, 2016). 상담은 해당 지역의 문화에 합당한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적절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이는 다문화 주의의 기본인 것이다.

“이론은 안경이다.”(고전, 김민호, 서명석, 송재홍, 2015). 이론은 세상을 바라보는 틀로서, 본 연구는 이러한 논의들과 함께 명리학이라는 이론적 안경을 쓰고 명리학에서 상담에 활용할 초기 접수면접 자료들과 상담의 기술적 접근을 통해 숙명론적 한계 상황에 처한 한국 내담자를 위한 새로운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시도이다. 다시 말해, 한국인의 문화적 특성을 감안한 ‘명리학 기반 한국형 단기상담 모형’을 개발하는데 본 연구의 주된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자는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다루어 보고자 하였다.

2. 연구문제 및 연구내용

본 연구의 목적달성을 위해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연구문제 1. 명리학의 초기 접수면접 자료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
- 연구문제 2. 한국적 단기상담을 위한 ‘명리상담의 핵심기술’은 무엇인가?
- 연구문제 3. 명리학에 기반한 한국적 단기상담은 무엇인가?

위의 연구 문제를 다루기 위한 연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첫째, 명리 고전이론을 통해 명리학의 초기 접수면접 자료로 활용할 요소들을 고찰하였다. 특히, 육친론(六親論)에서는 가족관계를, 일주론(日柱論)에서는 성격 성향 및 진로적성을 파악할 수 있었다. 또한 음양론(陰陽論)과 중화론(中和論)을 바탕으로 명리상담에서 통찰 가능한 상담적 기능으로서 ‘치료적 의미’를 살펴보았으며, 십이운성론(十二運星論)을 통해서 단기 상담적 요소를 탐색해 보았다.

둘째, 한국적 단기상담을 위한 명리상담의 핵심기술로서 ‘핵심 던지기’라는 상담기술을 추출하였다. 그리고 현상학적 해석학적 접근으로 8명의 명리상담가들의 심층인터뷰 속에서 그들이 말하는 ‘핵심 던지기’에 대한 견해를 살펴 보았다. 이러한 내용은 서양상담이론과 고전 명리학 이론의 이론적 분석틀을 가지고 비교 분석을 하였다.

셋째, 한국적 단기상담으로서 명리상담만이 가지는 절차 및 특성을 반영한 모형을 개발하였다. 현상학적 해석학을 통해 실제 명리상담의 특징을 중심으로 서양상담과 차이점을 찾고, 서양상담과 명리상담의 다각적 검토와 다차원적 분석틀을 근거로 명리상담의 상담과정과 특징을 파악하였다. 아울러 그 특징과 상담 절차, 상담 과정의 흐름도를 파악하여 ‘명리학 기반 한국형 단기상담 모형’을 개발하였다.

3. 연구방법 및 절차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고전 명리이론인 『자평진전평주』, 『적천수천미』, 『연해자평』, 『삼명통회』, 『궁통보감』 등을 중심으로 문헌을 고찰하였다. 다음으로는 실제 명리상담가들의 실제 상담에서 사용하고 있는 상담방식을 통해 한국적 단기상담으로서 명리학의 적용가능성을 살펴 보고자 하였다. 이러한 한국형 단기상담 모형을 개발하기 위한 구체적 연구 절차는 다음과 같다.

첫째, 상담 초기 접수면접의 자료 확보 차원의 탐색이다. 고전 명리이론을 중심으로 상담의 초기 자료에 활용할 요소들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문헌을 통해 고찰하였다. 특히 명리학의 주요 이론들 중 본 연구에서는 육친론, 일주론, 십이운성론, 음양론, 중화론을 중점으로 다루었다. 질적 연구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해 명리학의 주요 이론들을 소개하면서 이론적 통합을 시도하였다. 이를 통해 신법 명리이론의 다양한 차원을 조명하면서 주관적 편견이나 독단에서 벗어나려고 하였다.

둘째, 한국적 단기상담을 위한 명리상담의 상담기술적 차원을 탐색하였다. 여기서는 리퀘르(Recoeur, 1974)의 해석학적 입장에 따라 전형상화(pre-figuration), 형상화(configuration), 재형상화(re-figuration)와 같이 세계의 미메시스(mimesis)를 통한 재현을 통해 행동, 사건, 이야기를 형식적 측면만이 아니라, 명리상담에서만 볼 수 있는 핵심기술을 탐색하고 나아가 가치와 의미적 측면에서도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 특히 타당도와 신뢰도를 위한 노력으로는 린컨과 구바(Guba & Lincon, 1994)의 타당도 준거를 바탕으로 서양 상담이론과 명리이론의 다양한 분석틀을 제공하면서 연구자의 심층적 기술을 시도해 보았다. 또한 추적 조사와 더불어 상담관련 전문가 및 명리학관련 전문가 등 주변 동료의 동료검증(peer debriefing)을 시도하였다. III장, IV장에서 명리상담의 초기 접수면접 자료 탐색부분과 V장의 ‘핵심 던지기’ 부분은 명리학의 주요 이론인 육친론, 일주론, 십이운성론 등 이론적 통합을 통해 타당도를 확보하였다면, VI장에서는 명리상담의 핵심기술을 탐색하는 부분으로서 실제적인 명리상담가들의 심층 인터뷰를 통해 명리이론을 현장 검증하는 등 방법적 통합을 하였다(Mathison, 1988).

셋째, VII장에서는 명리학 기반 한국형 단기상담 모형을 제시하였다. 실제 명리상담의 사례연구를 통해 서양 상담이론과 명리상담을 비교 분석하고 장점과 단점을 파악하였다. 특히, 동·서양의 상담적 이론의 보완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한국적 단기상담으로서 명리상담의 절차 및 과정, 핵심기술 등 명리상담에서만 볼 수 있는 특성을 파악하여 모형을 제시하였다. 레이더(Lather, 1986a)의 포스트모던 타당도의 입장을 수용하면서 해체적 관점과 함께 연구자의 분석틀이 주관적 편견이 되지 않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연구자의 자기반성을 통한 주관적 객관성을 확보하려고 하였다. 연구 모형은 그림 I-1. 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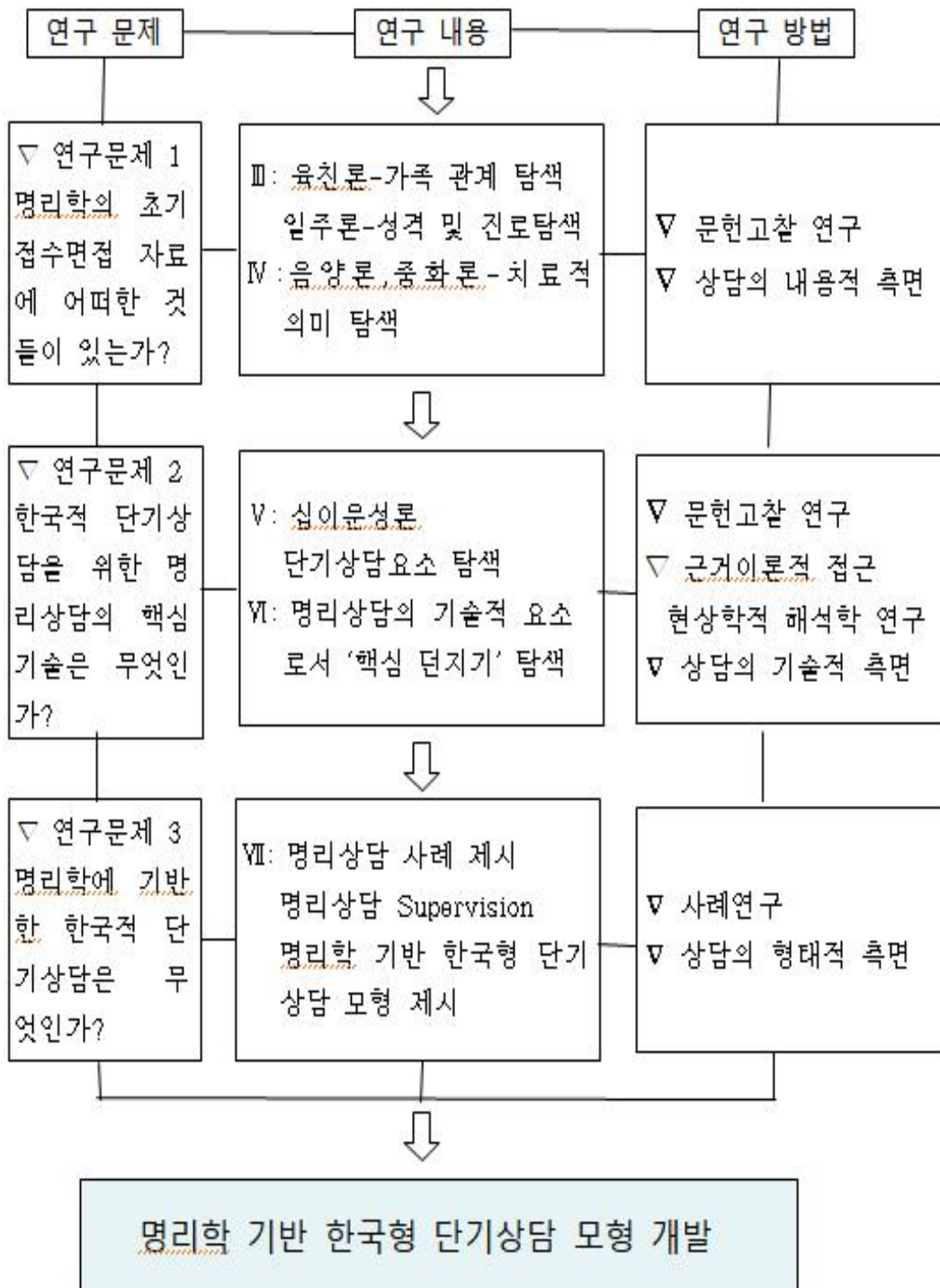


그림 I - 1. 연구 모형

4. 연구의 범위

본 연구는 명리학 기반 한국형 단기상담 모형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로서 연구의 범위는 다음과 같이 한정한다.

첫째, 본 연구에서 말하는 한국적 단기상담은 한국을 대표하는 여러 점복상담 중 명리상담만을 다루었다. 모든 점복상담을 다루기에는 그 범위가 너무 방대하기 때문이다. 특히, 년주(年柱) 중심의 고법 명리학이 아니라, 일간(日干) 중심의 신법 명리이론이라 할 수 있는 『자평진진정해(子平眞詮精解)』, 『연해자평(淵海子平)』, 『궁통보감(窮通寶鑑)』, 『적천수천미(適天隨闡微)』, 『삼명통회(三命通會)』의 내용을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뿐만 아니라, 이석영(1996)의 『사주첩경』, 박제완(1985)의 『명리요강』을 비롯한 현대의 명리 상담가들의 이론들도 다루었다.

둘째, 본 연구는 8인의 명리상담가 위주로 이론을 다루었다. 비록 8인의 명리상담가들의 인터뷰라고 할지라도 연구자가 원하는 목표에 대한 포화상태에 다다를 수 있는 결과를 추출할 수 있었기 때문에 8인으로 제한하였다. 그러한 제한은 명리학이 인간의 생년, 월, 일, 시를 기준으로 분석방법은 다를 수 있으나, 명리사주 분석에 대한 결과는 같을 것이라 생각되므로 그 한계에 대한 차이를 줄일 수 있었다.

셋째, 본 연구에서의 내담자는 비교적 심리적 증상이 경미하거나, 숙명적 한계로 인한 현실적인 문제로 고민하는 자로서, 그로 인해 비교적 경미한 일시적 우울이나 다른 심리적 증상을 동반하는 자로 제한하였다. 일반적으로 한국 내담자들은 문제의 통찰적 접근보다 문제 해결적 접근의 상담방식을 선호하며, 상담자의 즉각적 개입을 원할 수 있다(이은태, 2019). 중증이상의 심리적 외상이나 ADHD, 자폐, 성격장애 등의 심리적 특성을 가진 내담자는 본 연구에서 제한할 것이다. 그러므로 명리학 기반 한국형 단기상담이 모든 내담자를 대상으로 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5. 용어의 정의

가. 단기상담

서양상담에서는 단기상담의 범위를 20-25회기로 말하고 있다. 김계현(1993)은 비교적 건강한 내담자인 한국 청소년을 위한 상담은 10회기를 넘지 않아도 좋다고 말한다. 본 연구에서의 내담자는 심한 중증의 심리적 외상을 갖고 있는 내담자보다 심리적 외상이 경미하거나 비교적 건강한 내담자를 말하며, 현실에서 겪는 문제로 인해 일시적이고 경미한 수준의 심리문제를 갖고 있는 대상자를 말한다. 내담자의 현실 문제에 대한 핵심화두 제시와 함께 그것으로 인한 감정의 정화까지 이를 수 있다면 비록 1회기 즉, 단회기 상담이라도 단기상담이라고 말할 수 있다.

나. 명리상담

명리상담은 내담자의 태어난 생년, 월, 일, 시를 바탕으로 사주팔자를 파악하여 인간의 생노병사(生老病死)의 향방을 분석하고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상담의 형태다. 이러한 상담은 육친론(六親論), 일주론(日柱論), 음양론(陰陽論), 십이운성론(十二運星論), 용신론(用神論), 격국론(格局論), 중화론(中和論), 천간(天干)과 지지의 합(合), 형(刑), 충(沖), 파(破), 해(害), 지지(地地)의 삼합(三合), 육합(六合), 방합(方合) 등 여러 명리이론을 바탕으로 사주분석을 통해 내담자의 고충을 들어 주는 상담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말하는 명리상담은 기존 철학관 상담에서 내담자의 문제에 대한 운명적 결과를 제시하는 것과는 달리 내담자가 숙명적 한계상황으로 인한 심리적 문제를 동반할 때 내담자의 감정과 욕구와 희망을 다룰 수 있는 상담으로서, 기존의 명리상담과 서양의 심리상담이 융합된 형태의 상담이다.

다. 한국적 상담

일반적으로 한국적 상담이라 하면 점복(占卜)상담을 일컫는다. 점복상담은 예로부

터 실생활에 필요한 실용술수 분야로서 동양오술을 말하는데, 명(命)·복(卜)·의(醫)·상(相)·산(山) 등의 복술(卜術)을 통한 상담이다. 예를 들면, 명리상담, 주역상담, 관상, 족상, 풍수, 무속인들이 점을 치는 신점(神占) 등이 있다. 유교와 불교뿐만 아니라, 민간신앙의 대표적인 형태로 남아있는 ‘굿’은 빈부귀천이나 종교와도 상관없이 우리 전통사회 안에 있었던 하나의 의례이기도 하였다. 또한 현대에서도 사라지지 않고 한국 내담자들의 문제를 푸는 사회적 메카니즘이 되고 있다(최길성, 1994; 홍희기, 2002; 오진미, 2001). 그러나 본 연구에서 말하는 ‘한국적 상담’은 신(神)이 들러 점을 치는 신점(神占)으로 보는 상담이 아니라, 명리학(命理學)을 기반으로 인간의 생로병사를 예측하는 상담을 말한다(박진미, 2014).

II. 이론적 배경

1. 선행연구 검토

가. 한국적 상담을 위한 선행연구

문화란 인간의 적응, 동화, 그리고 성장을 위한 목적으로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전해지고 공유되어 온 학습된 행동이며(Piaget, 1937), 조건화된 감정반응이다(Linton, 1936). 이영희(1982)는 문화지향적인 상담(Culture-oriented counseling)이라는 상담의 토착화 문제에 관심을 가졌다(이은진, 이지연, 2013).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상담이론과 기법이 개발되기 위해서는 먼저 불교, 도교, 유교를 이해하고 그것이 한국문화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상담의 ‘문화 의존성’이라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한국문화, 한국인의 특성, 사고방식, 언어, 경제조건, 상담에 대한 인식, 한국인의 의식구조와 성향, 가치관 등 문화적 특수성을 바탕으로 한 적합한 상담이론이나 기법을 개발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김계현, 1992).

한국인과 한국문화에 대하여 ‘푸는 문화’(주은선 등, 2007)로 규정짓는다. 이러한 생각은 마음의 맺힘 즉, 한(恨)을 의미하는데, 몇몇 상담자들은 서양인들이 추구하는 인본주의 상담과는 차별된 ‘한국적 인본주의 상담모형’의 필요성 및 활용방안을 주장하였다. 오진미(2001)도 굿의 치료적 과정을 적용한 상담모형에서 한국 내담자의 정서의 특징으로 한(恨)에 주목하였고, 그에 접근하는 상담전략을 보고한 바 있다. 이처럼 몇몇 연구들(신혜경, 1991; 설기문, 1993)은 한국인의 문화와 정서에 기반한 구체적 상담의 대안들을 통해 동·서양의 상담적 접목을 시도하고 있다.

최근 「한국 명리학(命理學)의 메타분석학적 고찰」에서 황금옥(2017a)은 2000년 이전 연구들은 저서가 223편, 학술지가 3편, 석, 박사논문은 전무하며, 문헌연구를 중심이 많았다면, 2000년 이후는 타분야와 명리학이 결합된 형태의 연구가 늘어나고 있다

고 언설하였다. 이러한 연구들 중에 김영재는 역리점복을 경험한 체험연구(2003a), 한국 여성 내담자를 위한 상담전략(2004) 등을 통해 점복 내담자의 독특한 심리상태는 한국인의 기질적 특성의 일부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러한 연구는 전통적인 점복문화의 특성을 고려한 문화주의적 상담전략이다(Peterson, & Ivey, 1993; 김영재, 2004; 표인주, 2010).

한국 내담자들은 로저스보다 엄부자모(嚴父慈母)의 상담자상을 바랄지도 모른다(장성숙, 1999, 2010). 더불어 소수의 점복문화(占卜文化) 배경의 내담자들은 단도직입적으로 본론으로 들어가는 무속인과 같은 상담자를 원할 수도 있을 것이다(Jung, 1981; 김영재, 2004; 박은경, 2008; 진성기, 2008). 한국의 내담자들은 고리타분하고 이야기하고 싶지 않은 치부를 어린시절과 결부시켜 말을 해야만 하는 외당지 않는 장기상담은 원하지 않을 수 있다.

나. 명리학 관련 선행연구

명리학은 논리적 학문이며 수천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최성수(2007)는 명리학의 음양오행을 적용하여 거주자의 사주팔자를 분석하여 용신개념을 도출하였고, 한옥을 건축하는데 있어서 거주자 맞춤형 설계를 통해 취약한 부분을 보충하는 음양의 원리를 응용하였다. 이는 명리학을 건축학에 대입한 연구로 독창적인 발상이다. 한편 한의학에서는 『황제내경(黃帝內經)』, 『오운육기(五運六氣)』 등을 통해 환자의 사주팔자에서 부족한 오행의 허와 실을 찾아 부족한 부분을 보충한다던지 질병을 예측하고 병을 예방하는데 쓰고 있다(김홍경, 1989; 문재호, 2009). 풍수에서도 풍수 인테리어라고 하여 거주자의 부족한 기운을 보호할 수 있는 색깔이나, 방위 등 여러 각도로 명리학을 응용하고 있다. 그동안 암흑기를 거처온 명리학은 학문적으로 많은 변화와 성장을 하였다. 명리학의 이론적 고찰 및 사상연구, 명리학의 활용분야, 타 분야와 명리학의 결합적 측면에서 학문적 관심이 한 분야에만 편중되지 않고 고르게 분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 상담관련 명리학의 선행연구

명리학과 상담을 접목시킨 연구는 다수가 있다. 상담분야에서도 팔목상대 할 연구물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정국용(2004)은 성격 특성의 예측을 위한 사주명리학에 관한 연구를, 송병근(2005)은 정신분열에 관한 연구에서 정신분열(Scizophrenia)과 전광에 대한 사례를 중심으로 명리학의 심리학적 접근을 시도한 바 있다. 구만호(2000)는 한국인의 직업 선택요인 연구를, 김기승(2010)은 명리이론을 활용한 선천적성도구 개발에 관한 연구를 통해 진로상담의 활용방안을 제시하였으며, 명리학과 서양의 심리학자 칙센트 미하이의 몰입(flow)이론과 함께 사주의 십성에 의해서 학습몰입의 중요한 변화작용이 일어난다는 서양심리를 접목시킨 연구도 등장하고 있다(나경미, 2014).

박영창(2011)도 진로지도에 있어서 명리학적 보완 가능성에 관한 연구를 하였다. 최왕규(2014)는 명리학의 심리학적 위상(心理學的 位相)에 관한 연구(研究)에서 프로이트· 융· 아德勒의 심리학 중심(心理學 中心)으로 서양상담이론과 명리학의 통섭을 통한 활용방안을 언설하였다. 또한, 차현희(2015)는 역학(易學)과 예술치료학의 상관성 연구와 『주역(周易)』 팔괘(八卦)의 상징과 심리치료의 상관성연구를 통해 한국 내담자를 위한 역학의 활용방안을 말한 주장하였다. 한편, 사회복지 차원에서도 로저스의 인간중심상담을 다루면서 사주명리학적 적용가능성을 살폈고(이은태, 2019), 사회복지사의 자기효능감과 직무만족의 상관성에 관한 사주명리학적 연구를 통해 명리상담을 사회복지 차원과 연결시키고자 한 연구물도 있다(나경미, 2018). 이처럼 명리학과 상담을 접목시킨 연구는 변화과정을 거치면서 발전양상을 보이고 있다.

라. 명리학 기반 상담관련 연구의 방향성

21세기는 융합과학(fusion science)의 시대다. 이러한 흐름은 물리학의 발전과 발맞추면서 동양사상의 원리와 논리를 새롭게 조명하는 연구를 가속화시키고 있다. 동양철학으로서 오랜 역사를 지닌 명리학은 한국적 상담에 적용 가능한 많은 장점을 갖고 있고 그러한 상담의 도구(tool)로서 활용하는 연구들은 늘어나고 있지만, 실제적 상담의 대안 모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교육계에서는 교육과정 담론으로 포스트모더니즘적 시도와 접근은 많으나, 구체적인 교육적 대안이 없다고 비판을 가하고 있다(김대영, 우옥희, 2016). 마찬가지로 상황으로 명리학계가 아직은 포스트모더니즘적인 자세로 상담에 대한 다양한 프리즘을 갖고 도전하기에는 기본 연구가 미흡한 실

정이다(조규문, 2005; 이문정, 2007; 이명재, 2009; 김만태, 2010; 박영창, 2011; 김인순, 2014; 안상호, 2014; 박상연, 2014; 나혁진, 2017; 양준영, 2018; 남기동 등, 2018; 이은태, 2019).

이러한 일환으로 본 연구자는 점복문화 배경의 한국 내담자들을 위해 명리학의 사주분석으로 폐업한 자영업자 100명의 재물과 관련 있는 재성(財星) 및 대운과 세운을 검토하여 폐업시기를 예측하기도 하였다(하은희, 2015). 그러나 폐업시기만을 예측하는 일은 상담과 관련하여 고전문헌의 이론들에 대한 타당도나 신뢰도를 검증할 뿐이지 상담을 위한 방법이나 대안으로 삼기에는 부족한 수준이었다.

그로 인해 상담의 구체적 모형이나 명리상담 방식을 구안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현상학적 해석학의 방법론을 차용하여 한국적 단기상담을 위해 ‘핵심화두 던지기’, ‘직언 직설을 통한 저항 다루기’, ‘직면을 통한 공감적 이해’, ‘물상론적 바라보기’ 등 네 가지 명리상담의 핵심기술(하은희, 김성봉, 2019a: 858-868)을 언급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명리학 공부경험에서 ‘숙명론적 한계상황의 수용’(하은희, 김성봉, 2019b: 1275)을 통해 상담의 치료적 의미를 살펴보기도 하였다.

그러나 상담의 치료적 차원이나 기술적 내용은 있으나, 명리상담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상담방식이나 절차 등에 대해 미비함을 느끼게 되었다. 명리학은 내담자의 태어난 생년, 월, 일 시만을 가지고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리고 단기상담을 하는데 응용할 도구들이 많다. 아쉽게도 대중이 명리학을 이해하기에는 어렵기도 하고 다가서는 것이 쉽지 않다. 명리상담의 장점을 아우르며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연구와 다각적 시도는 한국 내담자를 심층적으로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2. 명리학(命理學)

가. 명리학의 고전문헌

최성수(2007: 28-31)가 정리한 명리학의 발생과 이론적 성립과정을 보면, 크게 서자평(徐子平) 이전의 고법 사주 삼명학과 서자평 이후의 신법 사주 자평학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귀곡자(鬼谷子)의 『귀곡자유문(鬼谷子遺文)』, 낙록자(珞瑜子)의 『낙록자 소식부(珞瑜子消息賦)』, 음양오행설(陰陽五行說)의 제창자인 추연(鄒衍)이 쓴 『추자(鄒子) 49편』, 『추자시종(鄒子始終) 56편』, 음양오행론을 논리정연하게 정리한 음양오행론의 경전이라 할 수 있는 동중서(董仲舒)의 『춘추번로(春秋繁露)』 그리고 사주(四柱)라는 용어를 최초로 사용한 곽박(郭璞)의 『옥조신응진경(玉照神應辰經)』, 이허중(李虛中)의 『이허중명서(李虛中命書)』 등이 고법사주(古法四柱)인 삼명학(三命學)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리고 서자평(徐子平)의 낙록자 『삼명소식부주(珞瑜子 三命消息賦註)』와 『옥조신응진경주(玉照神應眞經註)』, 『명통부(明通賦)』 등을 시작으로 류기(劉基)의 『적천수(敵天隋)』를 시작으로 하는 신법사주(新法四柱)로서 사주자평학(四柱子平學)으로 구분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신법사주라 볼 수 있는 대승 서승의 『연해자평(淵海子平)』, 류기 백온의 『적천수』, 육오 만민영의 『삼명통회(三命通會)』, 침효담의 『자평진전』, 임철초의 『적천수천미(滴天髓闡微)』, 서락오의 『자평진전 평주(子平眞全精解)』, 『궁통보감(窮通寶鑑)』을 참고로 하여 분석을 할 것이다. 명리학의 시원(始元)과 역사를 통사적(通史的) 입장에서 개괄하는데 있어서 명리학의 고전들을 출현시기에 따라 시대연도표로 작성하고 분석하면 다음 표 II-1.(이용준, 2004: 97-98)과 같다

표 II- 1. 명리학 고전문헌 시대 연도표¹⁾

성명	자(字),(號)	시대	저서	참고사항
1. 귀곡자 (鬼谷子)	본명-왕우	전국시대(초) (戰國時代 楚)	귀곡자유문 (鬼谷子遺文)	이허중이 주석하여 이허중명 서(李虛中命書)를 편찬함.
2. 낙록자 (珞璣子)		연대미상	낙록자소식부 (珞璣子消息賦)	서자평이 주석을 달아 신법자 평학의 이론을 정립한 계기가 됨. 이 밖에도 이동(李叟), 왕 정광(王廷光), 석담명(釋曇瑩) 등이 주를 달아 낙록자부주 (珞璣子賦註)를 저술함.
3. 추연 (鄒衍)		전국시대(초)	추자(鄒子) 49편 추자시종(鄒子始終) 56편	음양오행설(陰陽五行說)의 제창자
4. 동중서 (董仲舒)		전한(前漢) BC 170-BC 120?	춘추번로 (春秋繁露)	음양오행론을 논리정연하게 정리한 음양오행론의 경전이 라 할 수 있다.
5. 경방 (京房)		전한(前漢) BC 77-BC37?	경씨역전 (京氏易傳) 3권	오행력(五行易) 납갑(納甲)의 창시자
6. 반고 (班固)		후한(後漢) 32-92	한서(漢書), 백호통의(白虎通義)	문학작품에 양도부(兩都賦)가 있음.
7. 왕충 (王充)	중임 (仲任)	후한 (後漢)	논위(論衡) 53편	양생서(養生書)를, 정무서(政 務書) 등의 저술은 현존하지 않음.
8. 곽박 (郭璞)	경순 (京純)	진(晉) 275-324	옥조신응진경 (玉照神應真經), 유선과(遊仙誇), 강부(江賦)	이아(爾雅), 산해경(山海經), 방언(方言), 초사(僬事) 등에 주(註)를 달았음. 풍수지리설 의 창시자로 청오경을 저술 함.
9. 소길 (疏吉)		남북조(南北 朝), 수(隨)	오행대의 (五行大義)	고금의 융탕서(隆湯書)를 연구 하여 저술함.
10. 원천강 (袁天綱)	본명- 수성(守成)	당초(唐初), 수말(隨末)	원천강오성삼명지남 (袁天綱五星三命指 南)	서지학상 착자(著者)의 진위가 불확실하다는 논란이 있음.
11. 려재 (呂才)		당(唐), ?-665	방역위(方域圍) 교비기전장도 (教飛騎戰障圖)	술객의 흑세무민을 방지하고 진정 가치있는 술서(術書) 100권을 선별함.
12. 일행 (一行)	본명-장수 (張遂)	당, 683-727	대연주역본의 (大衍周易本義) 1권, 대일경소(대일경소) 20권	시호(諡號), 대노선사(大怒禪 師), 밀교승려, 천문학자, 개 원대술층(開元 大術曆)을 완성 함.

성명	자(字),(號)	시대	저서	참고사항
13.이허중 (李虛中)	상용(常容)	당, 761-813	이허중명서 (李虛中命書)	귀곡자의 유문(遺文)에 주석을 달 친 고법 사주학의 중요한 개념을 체계 적으로 저술함. 사주를 태월 일시(胎月日時) 로 정의함.
14. 서자평 (徐子平)	본고(本 考)-거역 (居易) 사 척선생 (沙滌先生) 한노(漢努)	오대(五代)- 송초(宋初)	낙록자삼명소식부주 (珞珠子三命消息賦 註) 명통부(明通賦), 옥조신응진경주 (玉照神應眞經註)	자평명리학(子平命理學)의 창 시자. 사주의 체(體)를 년월일 시로 정립하고 일간(日干)을 위주로 사주를 감명하는 신법 (新法)을 창시함.
15. 서승 (徐升)	대승, 공승(公升)	송말(宋末)	연해자평(淵海子平)	서자평의 이론을 발전시키고 육친(六親), 십신(十神)론의 체 계를 세움.
16. 류기 (劉基)	백온 (伯溫)	명초(明初)	적천수(滴天隨)	임철초, 원수산 증주(增註)-적 천수천미(滴天隨闡微)서락오 (徐樂吾)증주(增註)-적천종수 보주(滴天綜隨補註)
17. 만민영 (萬民英)	육오 (育吾)	명대(明代) 1522년생	삼명통회(三命通會)	고법(古法)에서 신법(新法)에 이르기 까지 명리학 자료를 망라한 명리학 백과사전 임.
18. 장남 (張楠)	신봉 (神峯)	명대(明代) 1609년생	신봉통고 명리정종 (神峯通考 命理正宗)	병약설에 의한 용신취용법을 밝힘. 동정설(動靜說), 개두절 각설(蓋頭 截脚說)의 이론을 전개함.
19. 저자미 상	색암 (索庵)	명대(明代)로 추측, 청대 (清代)에 간 행	난강망(欄江網) 혹은 궁통보감(窮通寶鑑) 이라고 함.	저자미상이나 청대에 여춘대 (余春臺)가 간행, 조후용신(調 候用神) 이론의 금자답이라고 함.
20. 진지린 (陳之遴)	본명-택빈 (澤燐) 호-산음(山 陰)	명말(明末)- 청초(清初)	명리약언 (命理約言)	억부용신법(抑扶用神法)이 핵 심 내용, 저자의 진위(眞僞)문 제로 논란이 있음.
21. 침효담 (沈孝瞻)		청대(清代)	자평진전 (子平眞詮)	책의 원명은 자평수녹(子平手 錄). 오행의 일반이치로 사주 를 논하고 격국과 용신의 원 리를 체계적으로 정리함.
22. 임철초 (임鐵樵)		청대 1773년생	적천수천미 (滴天隨闡微)	억부(抑扶)위주로 강약을 중시 함. 각종격(脚從格)의 독창적 학설을 주장함. 512개의 사주 실례와 해석 수록, 신살(神殺) 을 부정함.
23. 원수산 (袁樹珊)		청대 1881년생	명리탐원(命理探原) 명보(命譜) 적천수천미증주	근대 명리학 연구가이며 직업 술사임. 명리탐원은 명리학의 연원(淵原)과 역사를 정리한

성명	자(字),(號)	시대	저서	참고사항
			(滴天隨關微增註)	저서임.
24. 서락오 (徐樂吾)	동해 (東海)	청대 1886-1948	자평수언(子平粹言) 명리심원(命理尋源) 적천수보주(滴天隨補 註) 고금명인명감 (古今名人命鑑) 자평진진평주 (子平眞詮評註) 명리입문(命理入門) 외	근대 중국 사주명리학계의 최 고 거두. 용신정법 5원칙 이 론을 최초로 정립함(자평수 언).명리학을 체계적인 논리구 조를 가진 학문으로 정립함.
25. 위천리 (葦千里)		청대 1911-1934	명학강의(命學講義) 팔자제요(八字提要) 천리명고(千里命稿) 고고집(呱呱集)	서락오와 함께 근대 중국 사 주명리학계에 큰 공헌을 함.
26. 박재완 (朴在玩)	도계 (陶溪)	한국 1903-1992	명리요강(命理要綱) 명리사전(命理辭典)	명리요강은 위천리의 명학강 의를 번역한 책이며 명리사전 은 위천리의 팔자제요에 일주 론을 추가하고 한국인의 사주 를 삽입해서 저술함.
27. 이석영 (李錫暎)	자강 (自疆)	한국 1920-1983	사주첩경 (四柱捷徑)	육친통변에 탁월한 내용을 담 고 있으며 '연해자평'의 학설 을 취했다. 신살이론을 상세 히 기록하였으며 직업론의 독 창적 이론, 추명가를 수록함.

1) 이용준(2004). 사주학 역사와 격국용신의 변용과정 연구. 경기대학교 국제문화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p97-98.

나. 역(易)의 자연관(自然觀)

1) 음력과 양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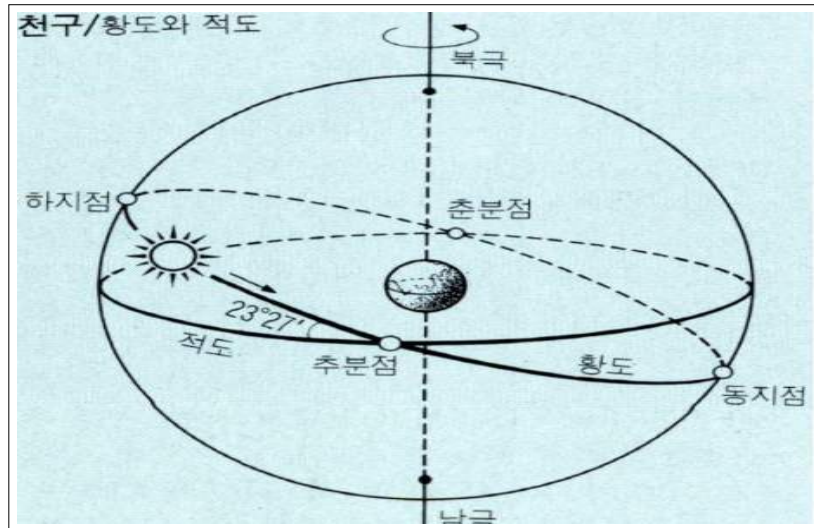


그림 II- 2. 달, 지구, 태양과의 관계(KAI 한국천문연구원)

그림 II- 2.는 달과 지구와 태양과의 관계를 보여준다. 음력은 지구를 중심으로 달이 한 바퀴 도는 시간을 기준으로 생성되는데 보통 한달(30일)이 걸린다. 달이 1년 동안 지구를 도는데 걸리는 시간은 354일 정도다. 양력과 11일의 차이를 3년 모이면 33일이 모자라므로 3년마다 한번씩 윤달을 두었다. 그리고 우리가 현재 쓰고 있는 양력인 태양력은 서양의 그레고리력으로서 지구가 자전하면서 태양을 공전하는 주기를 말한다. 지구는 15도씩 시계 반대방향으로 24시간을 자전하면서 1년동안 태양을 공전한다. 이렇게 지구는 자전과 공전을 하면서 태양의 주위를 도는데 걸리는 시간은 365일 5시간 48분 소요된다. 결과적으로 매년마다 생기는 오차 때문에 4년 1번씩 1일이 늘어나는 윤년을 두게 된다(이문규, 1997; 김일권, 2007; KAI 한국천문연구원, 2019).

2) 24절기

지구에 사는 우리는 태양계에 속해 있고 달과 태양의 많은 영향을 받게 된다. 우리 조상들은 그러한 자연의 주기와 변화상태를 세밀하게 관찰하여 농경사회에서 좀 더

풍요로운 생활을 영위하고자 기록하게 되었다. 특히 24절기는 농경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잣대가 되었을 것이다. 24절기에는 입춘, 우수, 경칩, 춘분, 청명, 곡우, 입하, 소만, 망종, 하지, 소서, 대서, 입추, 처서, 백로, 추분, 한로, 상강, 입동, 소설, 대설, 동지, 소한, 대한 등이 있다. 24절기는 매달 15일 간격으로 기후 조건 등이 설명되어져 그들이 그 시기에 무엇을 해야만 하는지 상세하게 실천할 수 있는 알림판의 역할을 한 것으로 보여진다. 그림 II- 3.을 보면 24절기를 파악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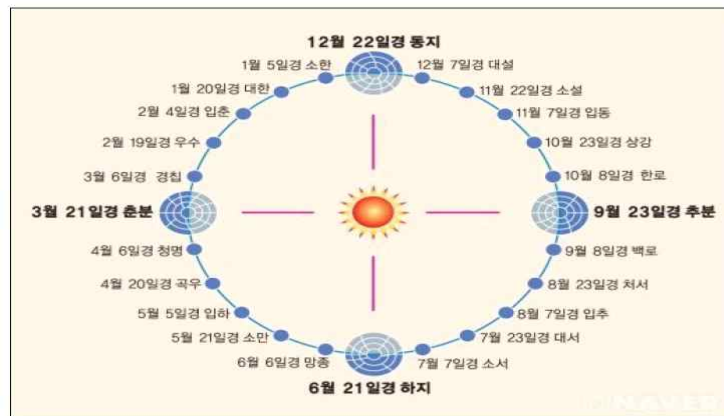


그림 II- 3. 24절기 표

3) 육십갑자(六十甲子)

24절기는 한 해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역사적인 경험과 착오를 바탕으로 수많은 노력에 의해 한해 한해 기록이 되었다. 그것이 바로 인간의 수명과 관련이 있는 60년간의 반복되는 하늘의 기운(干)과 땅의 기운(支)을 상세하게 자연의 현상을 상징화시킨 부호체계인데, 이를 일컬어 육십갑자라고 한다. 육십갑자는 표 II- 2.와 같다.

육십갑자는 육십가지의 간지(干支: 천간과 지지)의 결합을 모두 이르는 말로 십간(十干)과 십이지(十二地)가 서로 대입되어 60개의 간지 결합이 이루어진다. 예전에 수명이 짧을 때에는 60년을 산다는 것을 축복하는 의미로 무병장수를 기리기 위해 ‘회갑잔치’를 벌였었다. 요즘은 100세 시대로 과학의 발전과 의학의 발달로 인해 수명이 연장되다 보니 이러한 풍속은 사라지는 형국이지만 60년 인생을 한바퀴 모두 돌고 삶을 체험한 것이므로 육십갑자의 의미는 있다. 매년 새해가 시작되면 언론 매체들은 이구

동성 육십갑자를 운운한다. 예를 들어 보면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천간은 색깔로, 지지는 동물을 붙여서 말할 수 있다.

2016년: 丙申年 붉은 원숭이의 해
 2017년: 丁酉年 붉은 닭의 해
 2018년: 戊戌年 누런 개의 해
 2019년: 己亥年 황금돼지의 해
 2020년: 庚子年 흰 쥐의 해

표 II- 2. 육십 갑자표

甲子	乙丑	丙寅	丁卯	戊辰	己巳	庚午	辛未	壬申	癸酉
甲戌	乙亥	丙子	丁丑	戊寅	己卯	庚辰	辛巳	壬午	癸未
甲申	乙酉	丙戌	丁亥	戊子	己丑	庚寅	辛卯	壬辰	癸巳
甲午	乙未	丙申	丁酉	戊戌	己亥	庚子	辛丑	壬寅	癸卯
甲辰	乙巳	丙午	丁未	戊申	己酉	庚戌	辛亥	壬子	癸丑
甲寅	乙卯	丙辰	丁巳	戊午	己未	庚申	辛酉	壬戌	癸亥

다. 역(易)의 주요 원리

1) 태극설(太極設)

태극설은 우주 창조에 대한 원리이다. 우리가 국기(國旗)로 사용하고 있는 태극의 모양은 무극(無極)에서 일기시대(一氣時代)를 거쳐 양의 시대(兩儀時代)로 진화한 모습을 상형(象形)화한 그림이다(신창호, 2012). 무극(無極)은 태초(太初)로 우주가 탄생

되기 이전의 상태를 말한다. 이는 숫자로 헤아릴 수 없는 영원한 과거다. 무극은 형(形)도 색(色)도 기(氣)도 없는 무(無) 그 자체를 말한다. 그러나 이 무극은 장구한 세월이 지난 후에 유(有)를 창조할 수 있는 대원인(大原因)을 지니고 있다. 불가(佛家)에 서는 이러한 상태를 ‘공(空)’의 상태라고 불리운다. 무극의 상태는 죽어 없어져서 아무런 작용을 하지 않는 상태가 아니라, 장차 만유(萬有)를 생성할 수 있는 힘을 지닌 상태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무극의 상태에서 술한 세월이 지나 일기시대(一氣時代)로 진화된다. 이 시기도 형과 색은 없으나 기(氣)만 응결되어 있다. 이 일기(一氣)는 음양(陰陽)과 오행(五行)의 기가 하나로 뭉쳐 만물을 생성할 수 있는 간접적인 원인이 된다. 양의(兩儀)란 음과 양과 같이 두 개의 기로 구성된다. 일기시대에서 수많은 세월이 지나 음양 두 기(氣)로 나뉘고 만물이 창조되는 직접적 기(氣)의 근본이 된다. 모든 만물에 신(神)은 기를 기르고, 기는 형(形)을 생성하는 것이므로 기가 없는 것은 살아있는 것이 아닌 것이다. 태극의 원리는 아래 그림 II- 4. 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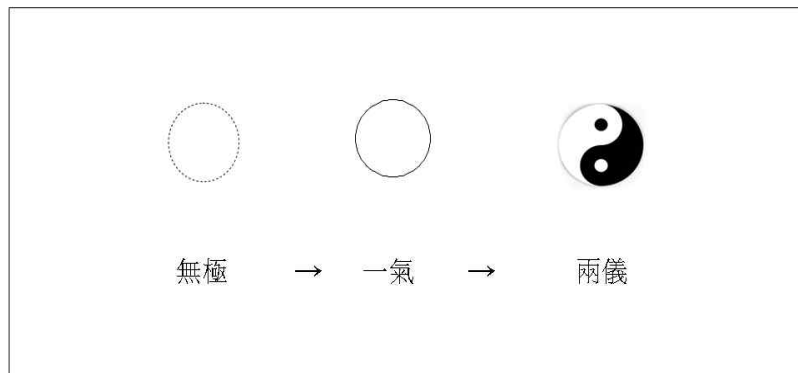


그림 II- 3. 태극 진화도(太極 進化圖)(이종인, 2010)

2) 팔괘(八卦)의 구성원리

태극일기(太極一氣)에서 음과 양으로 나뉘어 양의가 되었고 이것은 음양이론의 시초가 된다. 이 일음(一陰)과 일양(一陽)이 거듭 생성하여 노양, 소양, 소음, 노음이라는 사상(四象)을 형성하고, 다시 사상은 건(乾), 태(兌), 이(離), 진(震), 손(巽), 감(坎), 간(艮), 곤(坤) 등 팔괘(八卦)로 진화된다(최성수, 2007). 원리는 그림 II- 5. 팔괘의 진화도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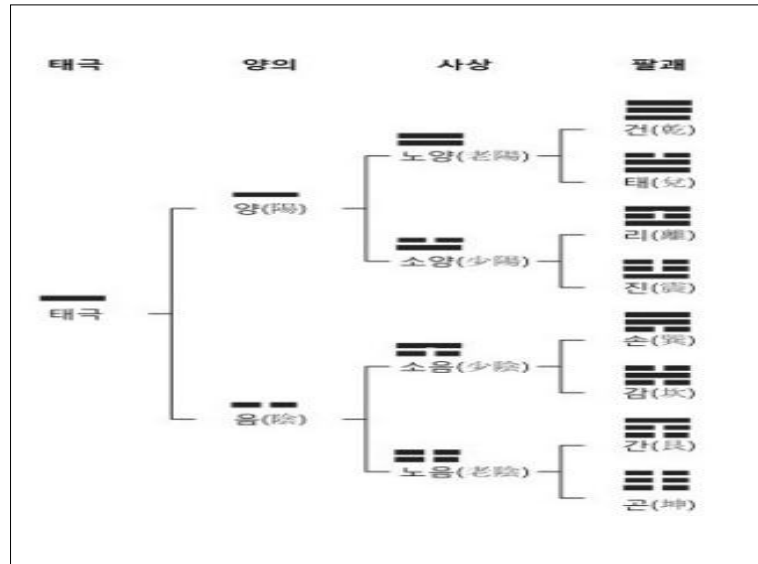


그림 II- 5. 팔괘 진화도(八卦 進化圖)

3) 오행(五行)의 상생(相生)과 상극(相剋)

역의 주요 원리에는 음양과 더불어 오행의 상생과 상극을 들 수 있다. 오행은 목, 화, 토, 금, 수가 있다. 상생(相生)은 생(生)을 해주는 역할로서 목은 화를 생해 주고(木生火), 화는 토를 생해 주며(火生土), 토는 금을 생한다(土生金). 그리고 금은 수를 생하고(金生水), 다시 수는 목을 생하며(水生木) 순행(順行)을 한다. 상극은 극을 하는 역할인데, 목은 토를 극하고(木克土), 토는 수를 극하며(土克水), 수는 화를 극한다(水克火). 다시 화는 금을 극하며(火克金), 금은 목을 극하는 관계이다(金克木). 이는 자연의 원리에 입각하여 표현되었다. 그림 II- 6.은 오행의 상생과 상극을 표현하였다.

4) 음양오행(陰陽五行)의 원리

양(兩儀)은 거동이나 모습 등의 잉태를 뜻하는 것으로 태극(道)이 한번은 양이 되고(變) 한번은 음이 되는(化) 시간성과, 태극이 음양으로 나뉘었다는 동시적인 공간성을 포함하는 말이다. 즉 양의는 태극의 양과 음의 두 가지 양태로서 실제적 운동을 하나 양(陽)의 경청한 기운이 위로 올라 하늘의 예(禮)를 이루고, 음의 중탁(重濁)한 기운이 안으로 엉겨 땅의 형(形)을 갖추어 천지가 창조되며, 음이 변해 양이 되고 양이

화해 음이 되는 순환과정으로 낮과 밤, 나가서 사시(四時)가 이루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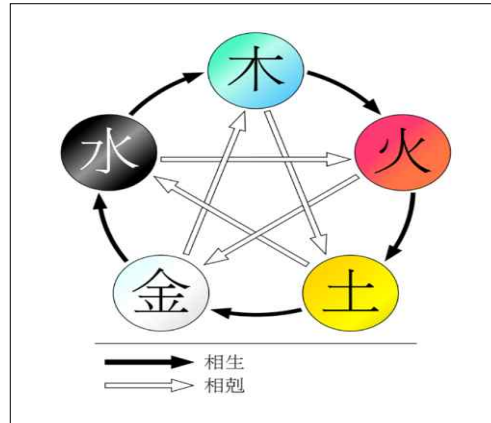


그림 II- 6. 오행(五行)의 상생(相生)과 상극(相克)

태극설(太極設)은 우주 창조의 원리이다. 무극(無極)은 태초로 우주가 창조되기 이전의 상태를 말한다. 무극은 형(形)도 색(色)도 없는 무(無) 그 자체를 말한다. 그러나 무구한 세월이 지난 뒤, 유(有)를 창조할 수 있는 대원인(大原因)인 것이다(주광호, 2007). 일기(一氣)는 음양과 오행의 기(氣)가 하나로 뭉쳐 만유를 생성할 수 있는 간접적 원인이며, 양의(兩儀)는 일기(一氣)에서 음과 양의 두 기로 나뉘었으니 만유가 창조되는 직접적인 기의 근본이 된다.

김상일(2005)은 『한의학과 러셀 역설 해의; 음양론으로 현대논리학의 난제 풀어보기』에서 음양의 논리적 구조와 그 속성을 설명한다. 그의 표현을 빌리자면, “대립물의 한쪽 측면의 증가는 다른 측면의 감소를 가져오게 되는데, 과도한 증가는 사(瀉)를 해야 하고, 과도한 감소는 보(補)를 하는게 자연의 이치이며, 이러한 율동성 역시 음양이 증가하고 감소하는데서 비롯되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음양의 기는 무수한 순환과 반복을 하는데, 이를 음양의 무한성이라 한다. 그러나 무한성은 직선적 개념이 아니다. 즉 가무한(potential infinite)이 아닌 제한속의 무한인 초한무한(transfinite)인 것이다.”(최성수, 2007: 71)라고 한층 과학화 된 서양의 관점으로 동양의 음양의 변화 원리에 대해 언설한다. 음양의 변화원리를 과학화하여 그림 II- 7. 에 표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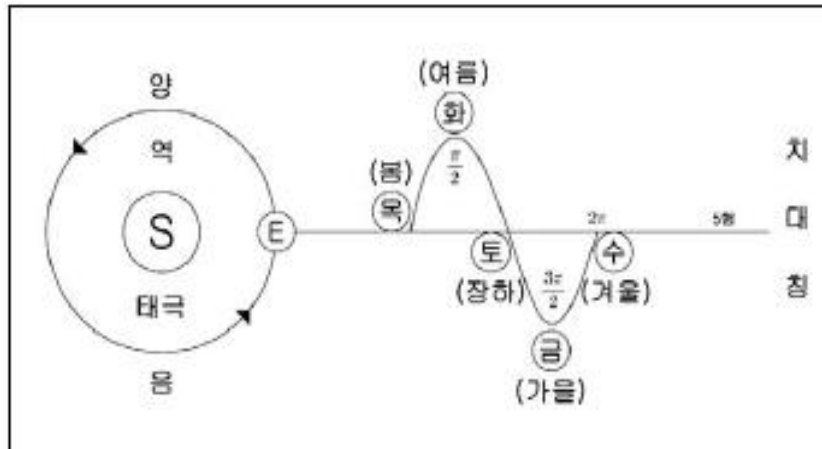


그림 II- 7. 역-태극-음양-오행의 분화에 대한 물리적 모형 (최성수, 2005: 71)

음양관계는 다음과 같은 법칙을 가지고 있다. 첫째, 음양의 상대성(相對性)이다. 음양이란 하나 속에 들어 있는 둘로서 언제나 함께 붙어 다니는 뿔 수 없는 짝이다. 하늘이 있으면 땅이 있고, 낮이 있으면 밤이 있으며, 남편이 있으면 아내가 있듯이 우주의 삼라만상은 음양이란 상대성으로 이루어져 있다.

둘째, 음양의 변화성(變化性)이다. 음양이란 항상 고정되어 있지 않고 끊임없이 변화한다. 음이라고 해서 항상 음을 상징하거나 음으로 굳어지는 것이 아니라, 음지가 양지가 되고 여당이 야당이 되는 것처럼 때와 장소와 쓰임새에 따라 음을 상징했던 것이 양으로 변하고 양으로 평가되었던 것이 음으로도 변한다.

셋째, 음양의 공존성(共存性)이다. 음양은 항상 함께한다. 밝은 곳이 있으면 반드시 어두운 곳이 함께 한다는 사실이다. 즉, 어둠이 있기 때문에 낮을 알 수 있다는 논리가 자칫하면 쉽게 흘러 버리기 쉬운 사실일 수 있다. 행복해 보이는 사람도 반드시 말 못할 고민이나 불행의 씨앗을 지니고 있으며, 흉악범도 마음 속에는 약한 사람을 돕거나 보호하려는 선한 생각도 있는 이치이다(한수애, 2010).

5) 오행(五行)의 성정과 배속

다음은 오행에 대한 설명이다. 오행은 목, 화, 토, 금, 수를 일컫는다. 각자의 성정과 특징은 아래 표 Ⅱ- 3. 과 같다.

표 Ⅱ- 3. 오행의 성정과 배속

구분	木	火	土	金	水
계절(季節)	春	夏	四季	秋	冬
방위(方位)	東	南	中央	西	北
천간(天干)	甲, 乙	丙, 丁	戊, 己	庚, 辛	壬, 癸
지지(地支)	寅, 卯	巳, 午	辰, 戌, 丑, 未	申, 酉	亥, 子
수(數)	3, 8	2, 7	5, 10	4, 9	1, 6
색(色)	靑	赤	黃	白	黑
성(性)	仁	禮	信	義	知
오장(五臟)	간	심장	비장	폐	신장
육부(六腑)	담	소장	위장	대장	방관
조후(調候)	溫	熱	燥濕	冷	寒
오수(五獸)	청룡	주작	구진, 백사	백호	현무
기타	생명체, 희망적	진취적, 정열적	사교적, 조직적	혁신적, 비관적	현실적, 본능적

표 II-3. 에서 볼 수 있듯이 오행의 성정과 배속오행은 목· 화· 토· 금· 수 한 가지 의미만을 지칭하지 않고 많은 속성을 갖는다. 그러한 속성들은 계절, 방위, 천간, 지지, 수(數), 색(色), 오성(五性), 신체의 기관인 오장과 육부, 조후(燥候), 전설의 동물인 오수(五獸) 등으로 표현할 수 있다. 사계(四계)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말하는데 오행으로 표현하면, 봄(寅卯月)은 목(木), 여름(巳午月)은 화(火), 가을(申酉月)은 금(金), 겨울(亥子月)은 수(水), 사계월(四季月-辰戌丑未月)은 토(土)이다. 동서남북과 중앙의 다섯 방위에도 오행이 있는데, 동(東)은 목, 서(西)는 금, 남(南)은 화, 북(北)은 수, 중앙은 토로 말할 수 있다. 천간과 지지에서는 갑을(甲乙)· 인묘(寅卯)는 목, 병정(丙丁)· 사오(巳午)는 화, 무기(戊己)· 진술축미(辰戌丑未)는 토, 경신(庚辛)· 신유(申酉)는 금, 임계(壬癸)· 해자(亥子)는 수로 말할 수 있다.

숫자에도 오행이 있다. 1과 6 은 수(水), 2와 7은 화(火), 3과 8은 목(木), 4와 9는 금(金), 5와 10은 토(土)로 말할 수 있다. 색깔도 오행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청(淸)은 목, 적(赤)은 화, 황(黃)은 토, 백(白)은 금, 흑(黑)은 수로 나눌 수 있다. 사람이 갖추어야 하는 5가지 덕성인 인(仁)은 목, 의(義)는 금, 예(禮)는 화, 지(智)는 수, 신(信)은 토로 말한다. 신체의 오장육부를 비교하면, 간· 담은 목, 심장· 소장은 화, 비장· 위장은 토, 폐· 대장은 금, 신장· 방광은 수로 나눌 수 있다. 조후(調候) 관계를 보면 바람· 열· 습· 건조함· 추위는 순서대로 목· 화· 토· 금· 수로 본다. 다섯 가지 신령스러운 동물로 5수가 있다. 청룡은 목,朱雀은 화, 구진이나 백사는 토, 백호는 금, 현무는 수로 말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뿐만 아니라, 오행은 그 자체로 목은 생명체 혹은 희망을 의미하며, 화(火)는 열기로서 진취적이고 정열적인 성정을 갖는다. 토는 사교적이고 조직적이며, 금은 혁신적이고 칼날 같은 비판의식으로 설명이 가능하며, 수는 현실적이고 본능적인 의미 등의 성정을 갖는다. 이처럼 오행은 많은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라. 사주팔자(四柱八字)의 구조

1) 사주원국(四柱原局)

사주원국은 태어난 생년· 월· 일· 시를 바탕으로 년주(年柱), 월주(月柱), 일주(日柱), 시주(時柱) 등의 구조를 갖는다. 사주팔자의 구조는 크게 천간(天干)과 지지(地支)로 구성된다. 이는 여덟글자로 표현되므로, 일명 사주팔자(四柱八字)라고 한다.

2) 대운(大運)· 세운(歲運)· 월운(月運)· 일운(日運)

대운은 10년의 환경, 세운은 1년의 환경, 월운은 1개월의 환경, 일운은 1일의 환경이다. 그림 II- 8.은 사주원국과 대운, 세운의 구조이다.

상관		비견		비견		겁재					
辛		戊		戊		己					
酉		寅		辰		酉					
상관		편관		비견		상관					
庚		戊		乙		庚					
		丙		癸							
辛		甲		戊		辛					
111	101	91	81	71	61	51	41	31	21	11	1
庚	己	戊	丁	丙	乙	甲	癸	壬	辛	庚	己
辰	卯	寅	丑	子	亥	戌	酉	申	未	午	巳
2024	2023	2022	2021	2020	2019	2018	2017	2016	2015	2014	2013
甲	癸	壬	辛	庚	己	戊	丁	丙	乙	甲	癸
辰	卯	寅	丑	子	亥	戌	酉	申	未	午	巳
12	11	10	9	8	7	6	5	4	3	2	1
丙	乙	甲	癸	壬	辛	庚	己	戊	丁	丙	乙
子	亥	戌	酉	申	未	午	巳	辰	卯	寅	丑

⇒ 사주원국

⇒ 지장간

⇒ 대운

⇒ 세운

⇒ 월운

그림 II- 8. 사주원국과 대운· 세운의 구조 예시

3) 대운의 방향성과 성질

소재학(2015)은 사주명리의 세운해석방법에 관한 연구에서 시간의 주기성을 근거로 하여 세운 10년을 인생 4계절로 치환하여 해석하는 방법이 규칙적인 삶의 흐름을 찾을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라는 것을 검증하였다. 운이 상승하는 기간에는 노력 이상의 성과가 나고, 운이 하락하는 기간의 행위는 노력에 비해 성과가 저조하거나 주변의 환

경이 불리하게 진행된다. 그의 표현을 빌리자면, 세운 10년의 흐름은 5년씩 상승하는 기간과 하강하는 기간이 있다. 세운이 시작하는 시점과 그 세운을 느끼는 시점과 차이가 있다. 세운의 흐름을 자연의 4계절과 같이 인생에도 4계절로 느낄 수 있는 리듬이 있음을 알 수 있다(최찬주, 2013; 하은희, 2015). 예컨대, 한국 정치인들의 예에서 여름과 가을은 유리하게 작용하였고 겨울과 봄은 불리하게 작용하였다.

4) 10천간(天干)과 12지지(地支)

10천간은 하늘의 기운으로 甲, 乙, 丙, 丁, 戊, 己, 庚, 辛, 壬, 癸가 있고, 12지지는 땅의 기운으로 子, 丑, 寅, 卯, 辰, 巳, 午, 未, 申, 酉, 戌, 亥가 있다. 각각 천간과 지지는 오행을 상징하며, 양과 음으로 나누어진다. 예를 들면, 천간의 갑목(甲木)과 을목(乙木)은 목(木)의 기운인데, 갑목(甲木)은 양의 성질을 갖고 있으며 을목은 같은 목의 기운이지만 음의 속성을 갖는다. 한편, 지지(地支)에는 인목(寅木)과 묘목(卯木)이 목을 상징하는데, 인목은 양의 성질이고 묘목은 음의 성질로 말할 수 있다. 같은 원리로 화(火)의 오행으로는 천간은 병화(丙火)와 정화(丁火)가 있는데, 병화는 양을 상징하고 정화는 음을 상징한다. 지지에서 화의 기운은 사화(巳火)와 오화(午火)를 말할 수 있는데, 사화는 양을, 오화는 음을 상징한다. 토(土)의 오행으로 천간에는 무토(戊土)·기토(己土)가 있다. 무토는 양을 기토는 음의 성질로 표현된다. 지지에서 토의 오행으로는 진술(辰戌)과 축미(丑未)가 있다. 진·술토(辰戌土)는 양을, 축·미토(丑未土)는 음의 기운을 지닌다. 금(金)의 오행으로 천간에는 경금(庚金)과 신금(辛金)이 있다. 경금은 양을 신금은 음의 성질을 말한다. 지지에서 금의 오행으로는 신금(申金)과 유금(酉金)이 있는데, 신금은 양을 유금은 음의 성질을 말한다. 마지막으로 수의 오행으로 천간에는 임수(壬水)와 계수(癸水)가 있다. 임수는 양을 계수는 음의 성질을 나타낸다. 지지에 수의 기운은 해수(亥水)와 자수(子水)가 있는데, 해수는 양을 계수는 음의 성질을 나타낸다.

5) 사주의 위치에 따른 사주분석

태어난 생년·월·일·시를 중심으로 년주(年柱)는 초년기, 월주(月柱)는 청년기, 일주(日柱)는 중·장년기, 시주(時柱)는 말년기로 표현이 가능하다. 년주는 조상궁을 말하기 때문에 조상의 은덕을 알 수 있는 공간이며, 월주는 부모의 덕을 들여다 볼 수

있고 일주에서는 배우자와의 상관성을 찾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시주는 자녀궁으로 자손의 덕을 간명할 때 주로 볼 수 있는 공간이다. 한편 년주, 월주, 일주, 시주의 순서대로 국가관, 사회적 위치, 가정적 위치, 원하는 자리를 알 수 있다. 나머지 내용은 표 II- 4. 사주의 위치별 통변 내용과 같이 여러 가지 속성을 가지고 있으며, 나무가 자라고 꽃이 피고 열매 맺고 시드는 반복과정을 거치듯 원형이정(元亨利貞), 근묘화실(根苗花實)의 단계를 거치게 되며, 각 단계에는 주어진 여러 가지 속성들이 있다. 표 II- 4를 참고하면 이들의 이치를 알 수 있을 것이다.

표 II- 4. 사주의 위치별 통변 내용(최성수, 2007: 108)

구분/사주		時柱	日柱	月柱	年柱	
인성주기		말년기	장년기	청년기	초년기	
양 (陽)	陽氣	심리, 마음	時干	日干	月干	年干
		심리, 마음 심리, 사고	후천적 시간	행복, 불행	청탁, 관리	드러냄, 노출
	性向	陽간지	陽간지	陽간지	陽간지	
		노인답지 않게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거나, 활동범위가 넓다.	사회적으로 자신의 입지를 크게 구축하며, 실리보다는 명예를 앞세운다.	적극적이며 추진력이 좋고 활동반경이 넓으며 대인관계의 폭이 크다.	초년부터 성격이 활달하고 활동이 왕성하며 리더쉽과 승부욕이 강하다.	
陰氣	심리, 마음	時支	日支	月支	年支	
	물질, 육체 행동, 실천	후천적 공간	억부, 조력	강약, 조후	선천적 운폐	
음 (陰)	性向	陰간지	陰간지	陰간지	陰간지	
		말년을 조용하고 안정되게 설계하며 자기역할을 겸손히 한다.	사회활동을 섬세하게 하며, 활동무대를 안정되고 실리적으로 구축해간다.	청년기에 소극적이거나 계획성이 뛰어나고 침착하게 실행하며, 미래를 관망한다.	어린시절 조용한 성격으로 ekn의 의견에 잘 따르며, 다소 소심한 편이다.	
용신에 따른 분류		정(貞)	이(利)	형(亨)	원(元)	
		조후와 인성의 중심	억부와 재성의 중심	격국과 관성의 중심	음양과 기세의 중심	
근묘화실		실(實)	화(花)	묘(苗)	근(根)	
기세에 따른 분류		세가 몰린곳 지지향 마음, 행동이 머뭇 후생	기와 세의 혼합처 의지향 마음, 행동이 발생 후천성의 맥	기가 몰린곳 양택을 주관 태어난 환경 선천의 맥	영이 몰린 곳 음택을 주관 조상과 가문 전생	
위치		원하는 자리	가정적 위치	사회적 위치	국가관	
신분관계		제자, 부하, 손아래	동료, 후배, 참모, 동반자	상사, 라이벌, 선배, 기획자	대표자, 주인, 스승, 후원자	
육친		식상	재성	관성	인성	
세월/시간		미래의 계획, 희망사항, 미래, 후세	현재의 상황, 진행중인 일, 현재, 현실	나의 역사 의식의 과거 급세, 의식	집안의 역사 오래된무의식 전생, 과거	
의식의 공간		약속, 비밀	현재, 활동범위	기억, 생활	경험, 근본	
개념		창의력	관리력	통제력	사고력	
능력		창조능력	실천능력	기획능력	동기부여	
심리상태		희망, 예견, 고독	행복, 불행, 갈등	그리움, 의지	동심, 추억	

마. 형·충·회합론(刑沖會合論)

1) 천간(天干)과 지지(地支)의 형충회합

천간합에는 갑기합(甲己合) 토(土), 을경합(乙庚合) 금(金), 병신합(丙辛合) 수(水), 정임합(丁壬合) 목(木), 무계합(戊癸合) 화(火)가 있다. 보통, 갑기합은 중정지합(中正之合)으로, 을경합은 인의지합(仁義之合), 병신합은 위엄지합(威嚴之合), 정임합은 인수지합(仁壽之合), 무계합은 무정지합(無情之合)으로 불리워지며, 흔히 부부지합, 애정지합이라 한다. 또한 천간충(天干沖)은 무임충(戊壬沖), 갑경충(甲庚沖), 정계충(丁癸沖), 을신충(乙辛沖), 병임충(丙壬沖) 등이 있다. 천간충은 자극정도로 해석해도 무방할 것이다(고순택, 2012; 강헌, 2016).

합(合)은 간지의 속성이 변하거나 상실을 말하며, 형(刑)은 형벌과 같은 뜻으로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각종 규범이나 제재 조치와 같은 작용을 한다. 형에는 인사신(寅巳申) 삼형(三刑), 축술미(丑戌未) 삼형, 자묘형(子卯刑), 자형(自刑) 등이 있고 법적 소송, 형벌 등 구조조정의 의미를 갖는다. 충(沖)은 충돌, 해산, 분리, 파괴, 살상 등의 부정적인 작용도 하지만 발동, 시작, 개척, 가속의 의미로 현재 상태에서 변화를 의미한다. 대체로 부정적인 변화를 일으키지만 운의 향방과 주변의 형국에 따라 그 회기를 잘 살펴야만 하며,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2) 지지합(地支合)

지지합에는 크게 삼합(三合), 방합(房合), 육합(六合), 암합(暗合) 등이 있다. 삼합(三合)에는 해묘미(亥卯未) 목국(木局), 인오술(寅午戌) 화국(火局), 사유축(巳酉丑) 금국(金局), 신자진(申子辰) 수국(水局)이 있다. 방합(房合)에는 인묘진(寅卯辰) 목국(木局), 사오미(巳午未) 화국(火局), 신유술(申酉戌) 금국(金局), 해자축(亥子丑) 수국(水局)이 있다. 육합(六合)에는 자축합(子丑合), 인해합(寅亥合), 묘술합(卯戌合), 진유합(辰酉合), 사신합(巳申合), 오미합(午未合) 등이 있다. 암합은 지장간 내에서 소리 소문 없이 이루어 지는 합인 일종인데, 자술(子戌), 축인(丑寅), 묘신(卯申), 인미(寅未), 오해(午亥)가 있다(김배성, 2003).

삼합은 지지에 오행 3개가 모여 국을 이루는 일이다. 쉽게 설명하자면, 서로가 모여 정당을 세우는 것과 같이 큰 의미가 있다. 『삼명통회(三命通會)』에서 말하는 삼합을

살펴보도록 하자.

“역가(歷家)는 신자진(申子辰)의 최초의 기(氣)는 일각(一刻)에서 흘러나와 이루어짐을 살펴 보고 사유축(巳酉丑)의 최초의 기는 이십육각(二十六刻)에서 일어나고 인오술(寅午戌)의 최초의 기는 곧 오십일각(五十一刻)에서 일어나고, 해묘미(亥卯未)의 최초의 기는 칠십육각(七十六刻)에서 일어난다. 기는 모두 같이 각(刻)에서 일어나는 것은 천지자연의 이치다. 그러므로 삼합(三合)이라 이르며 삼합으로써 사람의 일신을 운용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정(精)은 곧 기(氣)의 근원이며 기는 곧 신(神)의 근본이니 이리하여 정이 기의 모(母)가 되는 것이고, 신은 기의 아들이 되며 자모(子母)가 서로 상생(相生)하여 정(精), 기(氣), 신(神) 모두가 흩어지지 않고 합(合)이 된다.

대개 지지의 인원에 속함을 이르는 것이다. 이것을 논하면 가령 신자진의 신(申)은 자(子)의 어머니이며, 진(辰)은 곧 수고(水庫)이니 생(生) 즉, 낳으며 왕(旺)한 즉 이루고 고(庫)한 즉, 곧 수렴하는 것이다. 낳음과 이루어짐과 수렴이 있으니 만물이 시작과 종결을 얻으니 곧 자연의 이치이다. 그러므로 신자진(申子辰)이 수국(水局)이 된다. 만약 세 글자중에서 한가지만 빠지면 국(局)을 이루어도 화(化)하지 않으니, 삼합화국으로 논하기에는 불가능한 것이다. 대개 천지간에 도리(道里)는 이(二)가 곧 화(化)하는 것으로 일음일양을 말하며 삼(三)이 곧 화하면 삼(三)은 만물을 생함을 말한다. 사유축, 인오술, 해묘미 등은 모두 그러하다. 오행토를 말하지 않는 것은 사행(四行)은 모두 토(土)에 의지하여 국을 이루며, 만물은 모두 토(土)에서 귀장을 하기 때문이다. 진·술·축·미는 모두 스스로 토국(土局)을 만들어 내는 것이다.

무릇 명(命)을 논할 때에는 합이 있으면 국을 얻어 아름답기를 요구하는 것이니, 가령 병정(丙丁)일생이 해묘미(亥卯未)를 보면 인(印)이 되고, 사유축(巳酉丑)은 재(財)이니 재국(財局)을 얻는 것이 된다. 그리고 인오술(寅午戌)을 보면 화(火)의 본국이 되고, 신자진이 수(水)로서 관국(官局)이 되며 진·술·축·미·토는 식상(食傷)국이 된다. 또 병(丙)이 사유축을 보며 정(丁)이 인오술을 보면 삼회록격(三會祿格)이 된다. 이른바 병(丙)은 사(巳)로써 록(祿)이 되고, 정(丁)은 오(午)로써 녹이 되며 유축(酉丑)은 사(巳)를 합하고 인술(寅戌)은 오(午)를 합하는 때문이다.”²⁾

신자진(申子辰)은 거대한 수국(水局)이 된다. 인오술(寅午戌)은 각자의 글자들이 합하여 화국(火局)이라는 정당을 세우는 것이다. 해묘미(亥卯未)는 목국(木局)이다. 마지막 막으로 사유축(巳酉丑)은 금국(金局)이다. 삼합은 세 개의 글자의 성분을 볼 때 생지

2) 萬育吳 (2008). 『三命通會』, 「論支元六合」, 臺灣: 育林出版社. p104.

(生地), 왕지(王地), 고지(庫地)가 모여 회국(會局)을 이루고 있다. 이는 각기 다른 요소들이 모여 이루는 이상주의적인 합이다(강 현, 2016). 그림 II-9.는 삼합의 구조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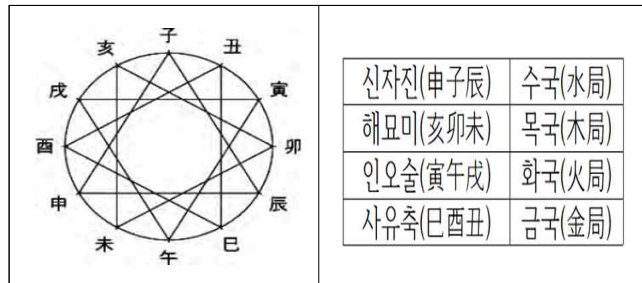


그림 II- 9. 삼합(三合)의 구조

방합(方合)은 같은 방향, 같은 계절적 성분의 합이므로 강력한 방향성이 형성되는 것으로서 바로 실행으로 옮길 수 있는 강한 추동적인 힘을 갖는 성질을 갖는다(강 현, 2016). 방합은 4가지의 종류가 있는데, 인묘진(寅卯辰)은 목국(木局)이며, 사오미(巳午未)는 화국(火局)으로, 신유술(申酉戌)은 금국(金局)으로, 해자축(亥子丑)은 수국(水局)으로 분류할 수 있다. 그림 II-10. 는 방국의 구조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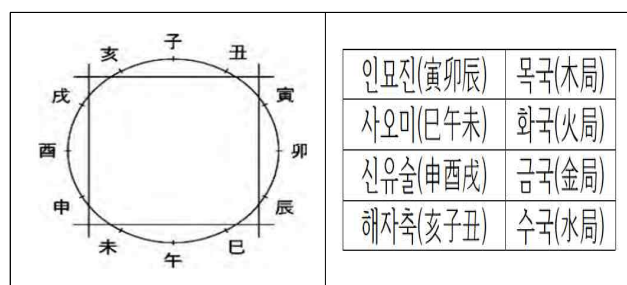


그림 II-10. 방국(方局)의 구조

“무릇 합이라는 것은 곧 음양이 서로 그 기(氣)를 스스로 합하는 것이다. 자, 인, 진, 오, 신, 술(子·寅·辰·午·申·戌) 여섯 글자는 양이 되고, 축, 묘, 사, 미, 유, 해(丑·

卯·巳·未·酉·亥) 여섯 글자는 음으로, 하나의 음과 하나의 양이 화하는 것을 합이라 이른다. 자(子)는 축(丑)을 인(寅)은 해(亥)를 합하고 자(子)는 해(亥)를 합하지 않고 인(寅)은 축(丑)을 합하지 않는다. 어떠한 연유인가? 조물(造物)하는 중에서 비록 음양이 합하는 것이지만 기수(氣數) 중에서 양기(陽氣)가 우선하려고 하는 것이다. 자(子)가 일양(一陽)이 되고 축(丑)은 이음(二陰)이 되며 일과 이로써 삼수(三數)를 이루고, 인(寅)은 삼양(三陽)이 되고 해(亥)는 이것이 육음(六陰)이니 삼과 육이 구수(九數)를 이루고 묘(卯)는 사양(四陽)이며 술(戊)은 오음(五陰)이니 사와 오가 구수를 얻으며, 진(辰)은 오양(五陽)이 되고 유(酉)는 사음(四陰)이라 오와 사가 되어 구수를 얻고 사(巳)가 육양이 되고, 신(申)이 삼음(三陰)이 되니 육과 삼이 되어 구수를 얻고 오(午)가 일음(一陰)이 되고 미(未)가 이양(二陽)이 되니 일과 이가 삼수를 얻어서 자축(子丑)과 오미(午未)는 각각 삼을 얻어 삼(三)이 만물을 생하며 나머지 모두가 구(九)를 얻으니 이것이 곧 양수(陽數)가 극에 달한 것이다.”³⁾ 육합을 정리하면 그림 II-11. 과 같다 (변만리 역리연구회, 2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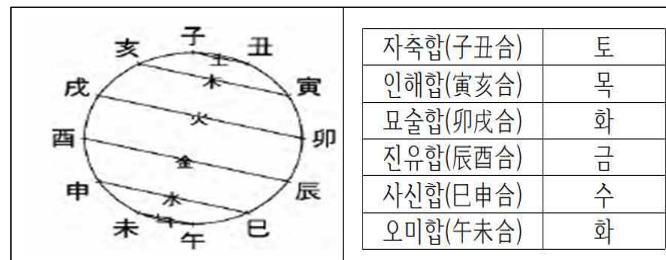


그림 II-11. 육합(六合)의 구조

3) 萬育吳 (2008). 『三命通會』, 「論支元六合」. p104, 臺灣: 育林出版社.

“夫合者之也 乃陰陽相和其氣自合子寅辰午申戌六者爲陽丑卯巳未酉亥六者陰是以一陰一陽和而胃之合子合丑 寅合亥却不子合亥寅合丑 夫何故造物中雖是陰陽爲合氣數中要占陽氣爲尊子爲一陽丑爲二陰一二成三數寅爲三陽亥是六陰 三六成九數 卯爲四陽成是五音四五得九 數辰爲五陽酉是四陰五四得九數 巳爲六陽申爲三陰六三得九數午爲一陰未爲二陽一二得三數 子丑午未各得三者三生萬物餘皆得九者乃 陽數極也.”

3) 지지충(地支沖)

“지지는 7번째를 취하여 충을 한다. 마치 천간이 7번째를 취하여 살(殺)이 되는 것과 같은 의미이다. 자오대충(子午大沖)과 같이 자(子)는 오(午)에 7번째 해당한다. 갑(甲)은 경(庚)을 만나서 살이 되고, 갑(甲)은 경(庚)에 7번째에 이른다. 수중에 여섯번째는 합이 되고 7번째는 허물이 된다. 그러므로 충격하여 살이 되는 것이다.

역(易)의 곤원을 살펴보면, 6을 이용하고 그 수가 6은 있고 7은 없다. 7은 곧 천지의 궁(窮)한 숫자이며 음양의 기가 극의 이름이다. 지금 책들의 조(昶)자는 칠(七)자를 본으로 하였고 이것은 대개 색상이 검은색이 되면 극이 되는 것이다. 변하지 않는 것이다. 역에서 말하기를 7은 되돌아 오는 것이다. 7일은 뒤쫓아 가지 않는 것이다. 상충이라는 것은 십이지지의 격돌의 신(神)으로 대개 흉으로 한다. 그러나 복(福)으로 하는 것은 십이지지의 격돌의 신(神)으로 대개 흉으로 한다. 그러나 복으로 하는 것은 좋은 것이고 곧 충에는 상생이 있는 것이다.”⁴⁾

지지충(地支沖)에서 자오충(子午沖), 축미충(丑未沖), 인신충(寅申沖), 묘유충(卯酉沖), 진술충(辰戌沖), 사해충(巳亥沖) 등이 있다. 지지의 충은 지지끼리 충돌하는 일인데, 지지가 충으로 어지러우면 뿌리가 뽑혀 버린다(장 현, 2016). 충은 글자 그대로 충돌, 변화, 이사, 자리 이동, 이혼, 별거 등 여러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특히 배우자 궁이 충을 받는다면, 배우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기존의 방식과 다르게 새로운 환경으로 조정이 될 일이 생길 수 있다. 특히 이혼의 상황을 말할 때도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충의 의미가 부정적으로 들릴 수도 있겠으나, 현재의 환경이 극에 처한 상태이므로 변화가 되지 않으면 안되는 새로운 환경으로의 개선을 의미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충을 말할 때 사주의 여러 글자들과의 맥락적 해석을 통해 긍정적 변화인지 아니면 부정적 변화를 의미하는지 파악해야 할 것이다. 그림 II-12는 지지충의 구조이다. 즉, 충의 관계는 서로 반대되는 글자끼리 만난 것으로 새로운 변화적 속성을 의미하는 것이다.

4) 萬育吳 (2008). 『三命通會』, 「論衝擊」. 臺灣: 育林出版社, p112.

“地支取七位衝 猶天干取七位殺之義 如子午對沖子至午七數 甲逢庚爲殺甲至庚七數 數中六則合 七則過故相衝擊爲殺也 觀易地元用六其數有六無七 七乃天地之窮數陰陽之極氣也 今書皂字從七 本此益色至於皂色之極矣 不可變矣易曰七日來復 勿逐七日得時 也 相衝者十二支戰衝之神 大概爲凶然 有爲福之甚者 乃沖處相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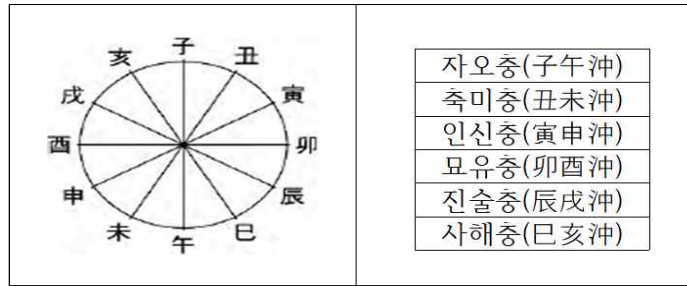


그림 II-12. 지지충(地支沖)의 구조

4) 지지의 형(刑)

“형(刑)은 삼형(三刑)이 있고, 자묘형(子卯刑), 사묘형(巳卯刑), 사신형(巳申刑) 등이 있다. 충(沖)은 육충(六沖)이니 자오충(子午沖), 묘유충(卯酉沖) 등이 된다. 회(會)는 삼회(三會)를 말하니 신자진(申子辰) 등이 된다. 합(合)은 육합(六合)을 말하는데 자축합(子丑合) 등을 말한다. 이 모두는 지지궁에서 나누어져 나온 말인데 비유하면, 충은 상대를 치고 쏜다는 의미이고, 삼방(三方)은 친구들이 모인 것을 의미하며, 나란한 합(삼합, 회)은 친한 이웃을 의미한다. 삼형의 뜻은 알기 어렵지만, 비록 모를지라도 명리를 이해하는데에 지장은 없다.”⁵⁾

위의 내용에서는 합(合)과 충(沖)은 거론하고 있으나, 형(刑)에 대해 특별하게 언급을 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형의 작용은 실제 생활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조용준, 2012; 박성희, 2016; 김재덕, 2017). 형은 수술, 사고, 송사, 형옥, 계약, 주선 등 복잡한 의미를 품고 있다. 형을 만나면 기존의 관계나 형태의 생김새가 모양이 일그러지고 깨지고 엇나가는 형상으로 표현할 수 있다. 그것은 곧 새로운 일을 위한 조정으로 나타난다. 형에는 삼형살이라 하여 축술미(丑戌未) 삼형, 인사신(寅巳申) 삼형이 대표적이다. 그 해에 형살(刑殺)이 있으면 특히, 교통사고, 수술, 이혼 등의 증조가 있을 수 있어 각별히 조심할 필요가 있다. 형(刑)은 오히려 충(沖)보다 더 격렬한 운동성이 있을 수 있다(유경진, 2005; 강 현, 2016). 그러나 부정성과 함께 긍정의 의미

5) 심효침 저, 서상덕 역(2011). 『자평진진정해(子平眞詮精解)』, 「論刑沖會合解法」, p81.
 “刑者, 三刑也, 子卯巳者申之類是也. 沖者, 六沖也, 子午卯酉之類是也, 會者, 三會也, 申子辰之類是也. 合者, 六合也, 子與丑合之類是也. 此皆以地支宮分而言, 斜對爲沖擊射之意也. 三方爲會, 朋友之意也. 並對爲會, 比鄰之意也. 至於三刑取義, 姑且闕疑, 雖不知其所以然, 於命理亦無害也.”

도 있을 수 있어서 그 희기를 반드시 잘 파악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표 II- 5. 는 형의 종류이다.

표 II- 5. 형(刑)의 종류

인사신(申子辰)	삼형(三刑)
축술미(亥卯未)	삼형(三刑)
자묘(子卯)	상형(相刑)
진진(辰辰), 오오(午午), 유유(酉酉), 해해(亥亥)	자형(自刑)

III. 명리상담의 초기 접수면접을 위한 자료

1. 육친론(六親論)을 통한 가족의 역동 탐색

가. 육친론

명리학은 태어난 생년, 월, 일, 시를 바탕으로 인간의 생로병사에 대한 희기(喜忌)를 예측할 수 있는 학문으로써 인간의 삶을 해석하기 위해 여러 이론을 가지고 있다. 그러한 이론에는 육친론(六親論), 용신론(用神論), 격국론(格局論), 중화론(中和論), 일주론(日柱論), 십이운성론(十二運星論), 형충회합론(刑沖會合論) 등 다양하다. 이들은 각자 사주의 주인공인 일간(日干)이 처한 상황을 여러 각도에서 조명한 분석틀로 말할 수 있다. 그 중에서 육친론은 ‘사주 간명(看命)의 꽃’이라 부를 수 있는데, Ⅲ장에서는 고전 명리학 문헌속에 있는 육친론, 일주론을 통해 상담의 초기 접수면접 자료로서 가계도를 통한 가족의 역동, 성격 성향 등을 살펴볼 것이다.

1) 육친의 개념

“사람에게는 육친(六親)이 있는데, 팔자(八字)에 배합하는 것도 또한 명에 존재하는 것이다.”⁶⁾

육친은 비견(比肩), 겁재(劫財), 식신(食神), 상관(傷官), 정재(正財), 편재(偏材), 정관(正官), 편관(偏官), 정인(正印), 편인(偏印) 등이 있다(신영대, 2003). 육친은 다른 말로 십신(十神)이라고 하기도 한다. 육친은 가족관계뿐만 아니라, 성격·성향을 표출하는 일간(日干)의 심리 그리고 재물을 창출하는 힘으로 식상(食傷), 재물의 능력인 재성(財星), 직업을 나타내는 관성(官星), 문서운이나 시험운을 볼 수 있는 인성(印星) 등 여

6) 심효철 저, 서상덕 역(2011). 『자평진진정해(子平眞詮精解)』, 「논궁합분용신배육친(論宮分用神配六親)」, p318-324: “人有六親, 配之八字, 亦存於命”

러 가지 의미를 갖는다. 여기서는 육친의 여러 의미들 가운데 가족관계를 중심으로 육친이 어떠한 기능을 하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우선, 비견은 나와 어깨를 나란히 겨룰 수 있는 친구, 가족, 동료 등으로 말할 수 있으며, 겁재는 경쟁자나 동료로 불리운다. 식신과 상관은 여자에게는 자식을 말하며, 남자에게는 장모로 말할 수 있다. 정재와 편재는 재물에 대한 능력을 말하는데, 정재는 남자에게 정부인을 뜻하며, 편재는 애인, 첩이나 소실을 말하기도 하며 아버지, 시어머니를 의미한다. 정, 편관은 남자에게 자식으로 여자에게 정관은 남편, 편관은 애인 등을 말한다. 마지막으로 정, 편인은 학문의 별, 문서, 도장 등의 의미가 있듯이 나를(生)하는 역할을 하므로 어머니를 상징한다. 정인은 친모에 해당하고 편인은 의붓 어머니, 서모(庶母)나 편모(偏母)등을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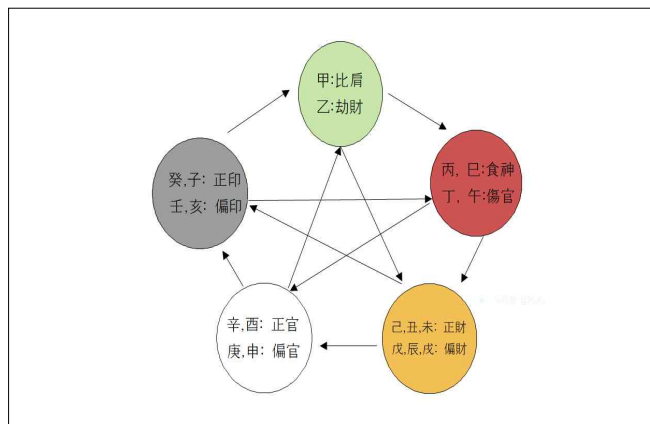


그림 III- 1. 육친의 개념도

예컨대, 그림 III- 1. 육친의 개념도를 살펴보자. 갑목일간(甲木日干)으로 본다면, 목생화(木生火)는 목이 화를 생한다는 의미로 갑목일간에게는 화의 기운이 식상(食傷)이며, 화생토(火生土)로 토가 재성(財星), 토생금(土生金)으로 금이 관성(官星), 금生水(金生水)로 수가 인성(印星)의 육친으로 표현할 수 있다.

2) 육친의 상생과 상극(相生相剋)

육친의 개념도 오행의 상생상극(相生相剋)과 같이 작용하며 그림 III- 2. 와 같다.

비겁은 식상을 생(生)하는데, 비겁은 모(母)의 역할과 기능을 하며, 식상은 비겁의

기운을 설기(洩氣)하는 기운으로 자(子)의 역할과 기능을 한다. 다시 식상은 재성을 생하고, 재성은 관성을, 관성은 인성을 상생시킨다. 생해주는 기운은 모요, 설기하는 기운은 자의 역할을 하게 된다. 또한 비겁은 재성을, 재성은 인성을, 인성은 다시 식상을, 식상은 관성을, 관성은 비겁을 극(剋)하면서 상생과 상극작용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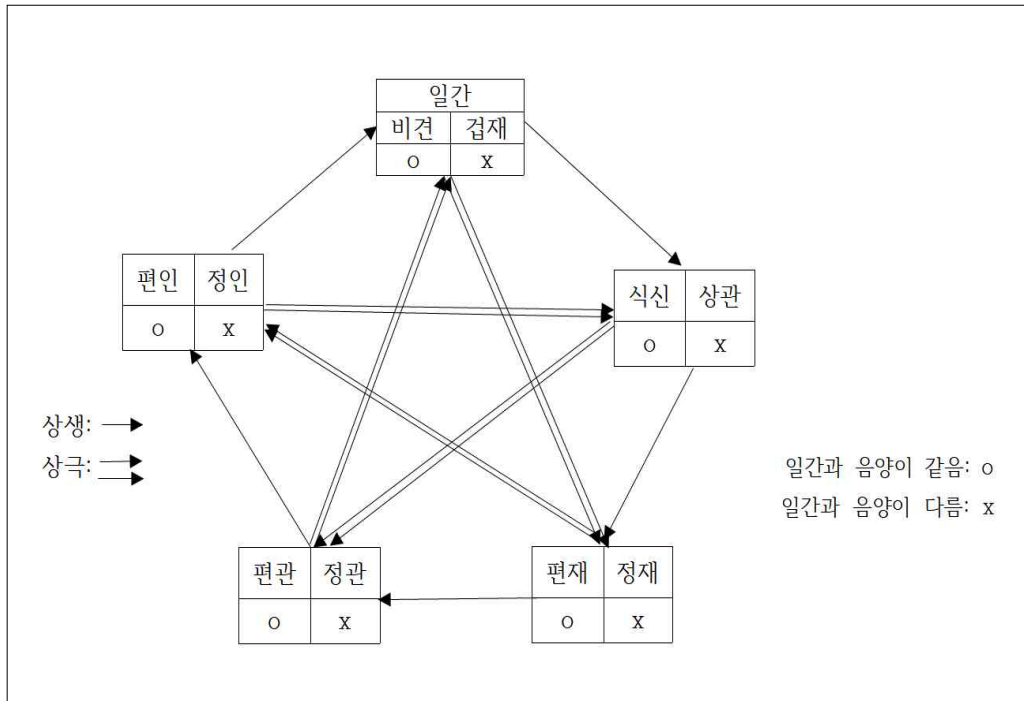


그림 III- 2. 육친의 생극제화

3) 육친을 정하는 방법

해당하는 육친이 일간과 음양(陰陽)이 같으면 비견(比肩)이고, 다르면 겁재(劫財)로 표현한다. 마찬가지로 일간과 오행이 같으면 식신(食神)으로, 다르면 상관(傷官)으로 표현한다. 재성(財星)의 경우에는 일간과 음양이 같으면 편재(偏財), 다르면 정재(正財)로 표현한다. 마찬가지로 관성(官星)인 경우 일간과 같으면 편관(偏官)이며, 다르면 정관(正官)이며, 인성(印星)도 일간과 음양이 같으면 편인(偏印), 다르면 정인(正印)으로 말한다. 육친의 관계는 표 III-1. 과 같다.

표 Ⅲ-1. 육친 정하는 방법

구분	甲	乙	丙	丁	戊	己	庚	辛	壬	癸
子	정인	편인	정관	편관	정재	편재	상관	식신	겁재	비견
丑	정재	편재	상관	식신	겁재	비견	정인	편인	정관	편관
寅	비견	겁재	편인	정인	편관	정관	편재	정재	식신	상관
卯	겁재	비견	정인	편인	정관	편관	정재	편재	상관	식신
辰	편재	정재	식신	상관	비견	겁재	편인	정인	편관	정관
巳	식신	상관	비견	겁재	편인	정인	편관	정관	편재	정재
午	상관	식신	겁재	비견	정인	편인	정관	편관	정재	편재
未	정재	편재	상관	식신	겁재	비견	정인	편인	정관	편관
申	편관	정관	편재	정재	식신	상관	비견	겁재	편인	정인
酉	정관	편관	정재	편재	상관	식신	겁재	비견	정인	편인
戌	편재	정재	식신	상관	비견	겁재	편인	정인	편관	정관
亥	편인	정인	편관	정관	편재	정재	식신	상관	비견	겁재

【실제사례 Ⅲ- 1】 육친 정하는 방법(乾命)

시간	일간	월간	년간
편재	일간	정재	편재
壬	戊	癸	壬
子	申	卯	寅
정재	식신	정관	편관
시지	일지	월지	년지

【실제사례 Ⅲ- 1】은 남자의 사주로서 일간(日干)은 무토(戊土)이다. 년간(年干)의 임수(壬水)는 무토에게는 재성(財星)인데, 무토인 양일간(陽日干)과 같은 양의 성질이

므로 편재(偏財)가 된다. 월간(月干)의 계수(癸水)는 같은 재성이지만 무토의 양일간과 다른 음의 성질이므로 정재(正財)가 되고 시간의 임수도 편재를 나타내는 육친(六親)이 된다. 같은 방법으로 지지를 살펴보면, 년지(年支)는 인목(寅木)으로 무토 일간에게 목극토(木剋土)를 하는 관성의 기운이다. 즉, 인목은 양목(陽木)이므로 편관(偏官)이 되며, 월지(月支)의 묘목(卯木)은 같은 관성이라도 무토와 다른 음의 성질이므로 정관(正官)이라고 말한다. 마지막으로 시지(時支)는 자수(子水)로서 재성에 해당하는데, 음의 성질이므로 정재(正財)로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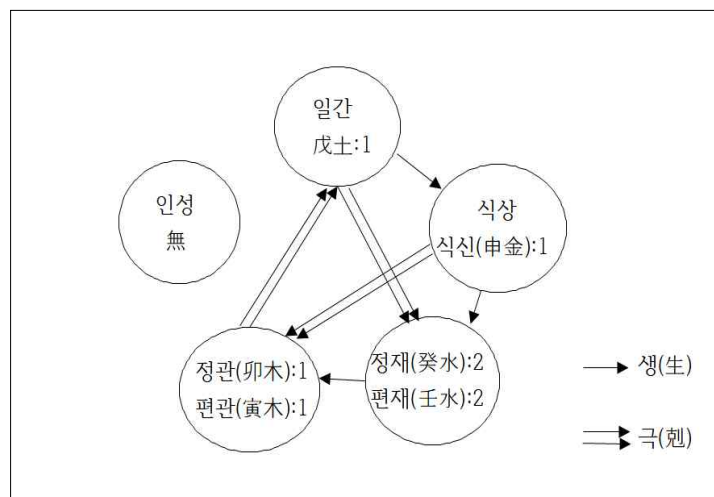


그림 III- 3. 【실제사례 III- 1】의 육친 구조

위의 사주구성은 무토(戊土)를 중심으로 금(金)인 식신이 1개, 수(水)인 재성이 4개, 목(木)인 관성이 2개, 일간인 토(土)가 1개로 이루어져 있다. 특히 화(火)인 인성(印星)은 없으며 수(水)인 정, 편재가 혼잡되고 편중된 사주 구조이다.

“육친에 비유하면 남자 사주는 재성(財星)이 처가 되고, 일간 이외의 천간과 합하면 재성이 사라지니, 재물과 처가 어떻게 남편과 친할 수 있으랴? 여자 사주는 정관(正官)이 남편인데 일간 이외의 천간(天干)과 정관이 합하여 정관이 사라지면 남편이 어떻게 아내를 사랑하겠는가? 이것이 바로 천간의 배합으로 나타나는 성정이다.”⁷⁾

7) 심효침, 서락오 평주, 박영창 역 (2007). 『子平眞詮平註』, 서울: 청학출판사, p81.

【실제사례 Ⅲ- 1】은 남자의 사주로서 사주원국만 본다면 재다신약(財多身弱)의 사주구조로 일간은 약한데 재성은 비대하고 정, 편재가 혼잡된 사주이다. 이러한 사주 구조는 여자복이 약하거나 있다고 하여도 인연이 짧을 수 있고, 비록 아내가 있어도 온전한 나의 정부인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어려운 형식적 아내일 수 있다. 여자와 인연이 전혀 없거나 여럿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다자무자(多者無者), 무자다자(無者多者)의 원리로서 많은 것은 없는 것이요, 없는 것은 많은 것과 같다는 의미가 된다.

“만약 갑일(甲日)이 일주(日柱)가 되면 무진술(戊辰戌)은 부친과 첩이고, 기축미(己丑未) 글자는 무와 쟁탈하면서 또 계수(癸水)를 손상하므로 모친을 극하는 것이 분명하다. 갑인(甲寅) 글자는 부친과 첩을 극하고, 경신(庚申) 글자는 주로 형과 누나를 극하고 신유(申酉) 글자를 보면 아우와 누이를 극한다. 병오(丙午) 글자는 자녀를 극한다. 나머지도 이와 같다. 이런 것은 반드시 세운에서 어떤 글자가 오는지를 보아야 한다. 그런 즉 어떤 사람을 극하게 되는지 알 수 있고, 충(沖)하고 극(剋)하는 것과 쇠(衰)하고 왕(旺)한 것의 향배(向背)를 보아야 하는데, 장차 올 것은 진(進)이 되고 공을 이룬자는 퇴(退)가 된다. 아울러 고진(孤辰), 과수(寡守), 순(旬)의 공망(空亡)이 있는 것을 꺼린다.”⁸⁾

위의 『淵海子平』에서 말하는 것과 같이 이 사주는 어머니에 해당하는 인성이 없는 관계로 모친과의 인연이 없을 것으로 보이며, 내 사주에 아버지가 많으므로 부친과의 인연도 그리 좋지 않다. 만약 인성이 있으면 과한 힘을 가진 재성이 인성을 극하면서 강한 기운을 빼낼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부모의 덕을 바라기는 아쉬운 형국일 수 있다. 대체로 사주 구성상 없는 오행이 있을 때는 그 부분이 병(病)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 그러나 사주원국상의 해석이고 대운과 세운의 변화를 함께 회기(喜忌)를 논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없던 오행이 대운이나 세운에서 용신으로 들어와서 사주의 일그러진 모양새를 중화(中和)로서 균형을 잡게 되면 발복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六親言，如男以財爲妻，而被別干合去，財妻能親其夫乎。女以官爲夫，而被別干合去，官能愛其妻乎。此所謂配合之性情也。”

8) 徐升 (1985). 『淵海子平』 권2, 臺灣: 瑞成書房, p60. “甲日爲主，見癸爲母，見戊辰戌爲父及妻，見己丑未午者，則與戊字相爭奪，又傷癸水，克母之義明矣。見甲寅字，克父及妾。見庚申字，主克兄弟也。見乙卯字克弟妹。見丙巳字克子女也。余仿此。此必以歲運見何字，則克何人。更將沖克衰旺向背，將來者進，功成者退。兼有孤神，寡宿，旬中有空亡者忌。”

나. 육친의 속성

1) 육친과 가족관계

육친 관계를 확장시켜 본다면, 비견은 친구, 동료, 형제자매, 선·후배처럼 나와 견줄 만한 등급의 경쟁자로 표현할 수 있다. 식상은 식신과 상관으로 나뉘고, 내가 생해 주는 그룹으로 여자에게는 자식이고 남, 녀 공히 아랫사람, 부하 등을 의미한다. 정재, 편재는 아버지 시어머니를 나타내며, 정관·편관인 관성은 남자에게 있어서는 자식에 해당하고 여자에게는 남편이나 애인을 의미한다. 정인이나 편인은 인성으로 나를 생조(生助)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모친이 나를 돕는 성분으로 스승이나 할아버지 등으로 표현이 가능하다(정재현, 2011). 표 III- 2. 육친 조건표(고순택, 149: 149)를 참고 하면 이해가 쉬울 것이다.

표 III- 2. 육친 조건표

비견	男	형제장자매, 친구, 동창생, 선후배, 며느리
	女	형제자매, 시아버지, 동창생, 선후배
겹재	男	형제자매, 이복형제, 며느리, 동서간, 라이벌, 선후배
	女	형제자매, 이복형제, 시아버지, 동서간, 라이벌, 선후배
식신	男	손자, 장모, 사위, 생질녀, 증조부, 아랫사람, 제자
	女	아들, 증조부, 아랫사람, 제자
상관	男	할머니, 손녀, 외할아버지, 외숙모, 아랫사람, 제자
	女	딸, 할머니, 아랫사람, 제자
편재	男	아버지, 첩, 애인, 형수, 종업원
	女	아버지, 시어머니, 외손녀, 종업원
정재	男	처, 종업원
	女	외손자, 시어머니, 형제간, 시할아버지, 종업원
편관	男	아들, 조카딸, 외할머니, 매부, 손님
	女	애인, 정부, 시형제간, 손님
정관	男	딸, 조카, 증조모
	女	남편, 며느리, 증조모
편인	男	계모, 이모, 외삼촌, 할아버지, 외손녀, 아들의 장모, 스승, 윗사람
	女	계모, 이모, 외삼촌, 할아버지, 손자, 사위, 시할머니, 스승, 윗사람
정인	男	어머니, 외손자, 장인, 부처님, 하느님, 신앙, 스승, 윗사람
	女	어머니, 손녀, 부처님, 하느님, 신앙, 스승, 윗사람

“부모, 형제, 부부, 자녀가 육친이다. 육친의 관건은 부부에 있다. 만약 부부가 없으면 자녀가 어떻게 오겠으며, 만약 자녀가 없으면 부모가 어떻게 오겠는가? 그러므로 육친을 연구함에는 반드시 부부가 우선이 된다.”⁹⁾

위의 내용은 진심양(陳心讓)의 『명리진적(命理眞蹟)』 중 육친(六親)에 대한 내용이다. 가정의 가장 근본은 부부로부터 시작하고 그 근본이 바로 서야 부부는 사랑을 나누고 자식을 생산할 수 있으므로 육친 중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언급한다.

“일음일양(一陰一陽)이 배합되어 부부가 형성된다. 부부가 있는 후에 부자(父子)가 있고 부자가 있는 후에 형제가 있다. 갑(甲)은 기(己)를 취하여 처를 삼고 갑기(甲己)가 합한 후에 경신(庚辛)의 자식이 생긴다. 남자 사주는 일간을 극하는 것을 후사로 삼고, 여자 사주는 일간이 생하는 것을 자녀로 삼는다.”¹⁰⁾

갑목(甲木) 일간 남자에게 정재(正財)는 기토(己土)이며 경금(庚金)은 편관(偏官)으로 자식을 의미하는 육친이다. 반대로 갑목일간 여자에게 기토는 재성이므로 아버지, 재물 등으로 말할 수 있으며, 경금은 편관이므로 남편이나 애인 등으로 말할 수 있다.

다음의 사례는 평생 해로하기 어려운 사주의 남자이다. 특히 아내의 별인 재성은 사주의 시간에 떠 있으나, 군집쟁재(群劫爭財)로 나의 재물을 놓고 나와 견줄 수 있는 비견과 겁재들의 소굴에서 남아 나지 않을 것이다. 사주를 살펴 보자.

【원문예시 III- 1】 무자식 팔자 사주(乾命)¹¹⁾

편재	일간	비견	편인
戊	甲	甲	壬
辰	寅	辰	午
편재	비견	편재	상관

9) 陳心讓 (1979). 『命理眞蹟』, 臺灣: 三民書房, p468.

“父母, 兄弟, 夫妻, 子女, 是爲六親. 六親之關鍵, 在於夫妻. 如無夫妻. 何來子女. 如無子女. 何來父母. 所以研究六親. 必先夫妻”

10) 萬育吾 (2008). 『三命通會』, 臺灣: 育林出版社, p420. “一陰一陽配成夫婦 有夫婦然後有父子 有父子然後有兄弟 甲取己爲妻 甲己合而生庚辛爲子男取剋干爲嗣 女取干生爲息”

11) 이을로 (2007). 『궁통보감강해(窮通寶鑑講解)』. 서울: 동학사, p76.
“四柱木旺金缺 非僧道 則無子”

정관	편관	정재	편재	상관	식신	겁재
辛	庚	己	戊	丁	丙	乙
亥	戌	酉	申	未	午	巳
편인	편재	정관	편관	정재	상관	식신

갑목일간(甲木日干)이 신왕(身旺)한데, 이를 제어할 편관인 경금이 없고, 설기시킬 수 있는 식상의 기운이 없다. 팔자가 조화롭지 못하고, 왕한 비겁이 재성을 치는 군겁쟁재의 상이므로 승도지명(僧道之命)이다. 년지(年支) 오화(午火)의 지장간에 있는 정화(丁火)는 일간(日干)과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 무정하고, 천간(天干)의 임수는 수극이 되어서 용신으로 삼기가 어려운 사주이다. 남자에게 관성(官星)은 육친상 자식으로 볼 수 있는데, 관성(官星)인 금(金)의 성분이 없으므로 무자식 팔자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관성의 다른 뜻으로는 관직, 직업 등의 의미도 있다. 이런 경우 직장을 다니는 일은 크게 발복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

【실제사례 III- 2】 평생 해로하기 어려운 남자의 사주

편재	일간	편인	비견
庚	丙	甲	丙
寅	午	午	午
편인	겁재	겁재	겁재

위의 남자 사주는 보는 바와 같이 ‘활활 불 타는 사주 구조이다.’ 가뜰이나 갑목(甲木)이 일간인 병화(丙火) 옆에서 불난데 부채질을 하는 형국으로, 일간의 바로 옆에서 목생화하여 강한 일간을 더욱 강하게 하고 있다(김종만, 2006). 이로 인해 편재(偏財)인 경금(庚金)은 ‘용광로 속에서 쇠가 녹아 나고 있는 모습이다.’ 이 사주안에서 재성에 해당하는 육친(六親)인 아내가 어떤 상황이 될지 걱정스럽다. 심리적으로도 관살에 못이겨 힘든 난국을 겪고 있을 것이다. 이 사주가 나의 사윗감의 사주라면, 절대로 딸을 내줄 수 없을 정도로 불운한 사주임을 들여다 볼 수 있다.

“용신으로부터 육친을 배합하는 것은 곧 정인은 어머니가 되고 본신이 친히 나온 곳이니 나를 생하는 것을 취한다. 만약 편재가 나의 극제를 받는 것이라면 어찌하여 반대로 아버지가 되겠는가? 편재란 어머니의 정부이다. 정인이 어머니

가 되면 편재는 아버지가 된다. 정재는 처가 되고 나의 극제를 받는다. 남편은 처의 버리이니 처는 남편을 따른다. 만약 관살이면 나를 극제하는 것인데 어찌 하여 반대로 자녀가 되는가? 관살이란 재성이 생하는 바이니 재성이 처첩이 되면 관살은 자식이 된다. 비견이 형제가 되는 것도 또한 이치가 분명한 것이다.”¹²⁾

【원문예시 Ⅲ- 2】 자식이 없는 사주 (坤命)¹³⁾

편재	일간	겁재	정관
戊	甲	乙	辛
辰	戌	未	巳
편재	편재	편재	식신

편인	정관	편관	정재	편재	상관	식신
壬	辛	庚	己	戊	丁	丙
寅	丑	子	亥	戌	酉	申
비견	정재	정인	편인	편재	정관	편관

위의 사례는 『궁통보감(窮通寶鑑)』에 나오는 여자 사주로 세번 시집을 가고 자식이 없었다. 이유를 살펴보자. 오행 중 금, 수가 희용신(喜用神)이며, 희신으로 신금이 년간에 투간(透干)되어 있어 남편과 인연이 없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갑목(甲木)을 생해줄 계수(癸水)는 암충(暗沖)이 되고 무토(戊土)가 개두(蓋頭) 되었다. 또한 팔자에 조토(燥土)의 세력이 강해 용신인 계수(癸水)를 생극하니 ‘생기가 전혀 없는 갑목’이 되었다. 즉, 용신이 무력하여 자식이 없었다.

【원문예시 Ⅲ- 2】의 여자 사주에서 자식은 식상(食傷)으로 말할 수 있는데, 사주 원국에 사화(巳火) 식신(食神)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한 재성의 설기(洩氣)로 인해 조후(調候)가 맞지를 않아 자식이 될 수 없는 사주이다. 세 번이나 시집을 갔어도 아이를 갖지 못한 여자의 팔자로 사주의 중화(中和)를 통한 균형의 중요성을 가히 짐작할 만하다. 만약, 사주상 병(病)이 있다면 그것을 고칠 수 있는 약(藥)으로서 용신(用

12) 심효침 저, 서상덕 역 (2011). 『자평진진정해(子平眞詮精解)』, 「論宮分用神配六親」, p318-333: “其由用神配之者, 則正印爲母, 身所自出, 取其生我也. 苦偏財受我剋制, 何反爲父? 偏財者, 母之正夫也, 正印爲母, 則偏財爲父矣. 正財爲妻, 受我剋制, 夫爲妻綱, 妻則從紉. 若官煞則 剋制乎我, 何以反爲子女也? 官煞者, 財所生也, 財爲妻妾, 則官煞爲子女矣. 至於比肩爲兄弟, 又理之顯然也.”

13) 이을로 (2007). 『窮通寶鑑講解』. 서울: 동학사, p99. “女命 三嫁乏子”

神)의 활약이 있었다. 삶이 고되지는 않았을 것이다(이을로, 2007). 이 또한 인간 의 생로병사에 길흉(吉凶)이 있어 가히 미래를 예측하고 짐작할 수 있겠다.

2) 육친의 심리적 속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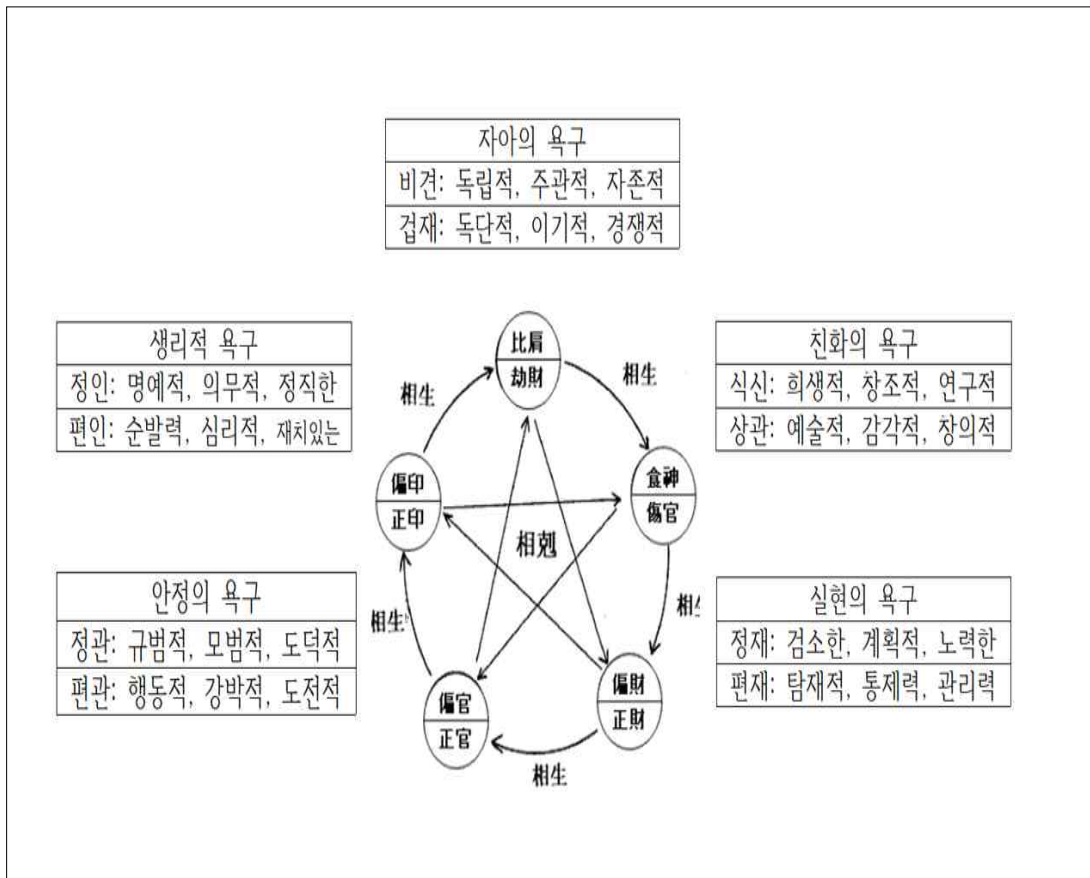


그림 III- 4. 육친의 속성

그림 III- 4와 같이 육친은 가족관계 뿐만 아니라, 심리적 속성도 표현이 가능하다. 비견은 자아의 욕구를, 식신은 친화의 욕구를, 재성은 실현의 욕구로 설명이 가능하다. 그리고 관성은 안정의 욕구로 인성은 생리적 욕구로 말할 수 있다. 좀더 세부적으로 말하면, 비견은 동질과 독립적 성향, 주관성, 자존심을 의미하고, 겁재는 독단적 성향, 이기적, 경쟁적인 의미를 갖는다. 식신은 희생과 창조적인 성향을 갖으며, 창의성과 연구적인 속성을 갖는다. 그것에 반해 상관은 예술성, 감각성, 친화력, 표현능력 등을 의

미한다. 정재는 노력과 실리성을 추구하며 검소하고 계획적이며, 편재는 통제적, 관리적, 유통적이면서 탐재(貪財) 성향이 강하다. 정관은 모범적, 규칙적, 도덕적, 합리적 성향이 강하며, 편관은 규범적이고 모범적인 성향과 강박적, 합리적 성향을 갖는다. 정인은 명예와 의무감이 강한 성향과 직관력이 있다면 편인은 재치와 추구의 성향, 심리적, 순발력을 의미한다.

육친의 개념은 가족, 심리적 속성 이외에 직업적인 부분, 지위와 명예, 대인관계 등도 말할 수 있다(함혜수, 2008). 보통 비겁(比劫)이 많은 사람은 경쟁심리가 발달하여 무엇에 관심을 두면 매진하고 일이 끝날 때까지 진행할 수 있는 추진력, 끈기가 많을 수 있다. 일간(日干)인 나를 돕는 비견과 겁재가 있다보니 내 힘이 강하게 되기 때문일 것이다. 대체로 운동선수들도 이러한 구조가 많다(석길균, 김복희, 2011).

식상(食傷)이 발달한 사람은 교육, 필설, 서비스업, 영업 등 대체로 실천성이 강한 업무에 강할 수 있다(김기승, 2010). 특히 예술적 기질로도 표현이 가능한데, 이는 식상이 일간의 힘을 설기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처럼 표출 능력이나 표현 능력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최은경, 2013). 한편 식상은 남녀 공히 생식 능력이나 생식기와 관련하여 해석이 가능하다. 다른 의미로 식상은 여성에게 생식기로 자궁이나 유방 등으로 표현이 가능한데, 식상이 좋지 않거나 대운과 세운에서 합, 형, 충으로 변화가 있을 때는 부인과 검사를 받아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재성(財星)은 돈과 재물적 의미로 해석이 가능하므로 그런 계통의 직업이 적합하다. 예컨대, 은행·금융업, 경영·경제나 사업적 속성과 관련한 업무 등 일반적으로 계산 능력이 뛰어날 수 있어서 재무, 회계 방면과 관련성 있는 직업에 흥미를 갖을 수 있다. 특히 정재는 규칙적으로 벌어들이는 월급의 개념과 의미가 통하는데, 편재성이 강한 사람은 투기, 부동산 등 굵직한 사업과 같이 위험성을 동반하지만 한꺼번에 벌어들이는 재능과 관련이 있다(김경희, 2006).

다음은 관성(官星)이다. 관성이 두드러지거나 사주 구조가 잘 짜여진 사람은 공무원, 대기업과 같은 직장 등 공적인 관공서와 관련된 일들에 소질이 있을 수 있다(김중하, 2014; 김용섭, 2014). 잘 짜여진 사회의 구조 속에서 안정적인 것을 추구하는 일과 관련지어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정관은 규칙적이고 바른 체계 등으로 표현한다면 편관은 권력성이 있는 기관과 같이 군, 경찰, 법무계열, 판·검사 등 무시무시한 힘과 관련 있는 일과 더욱 맞을 수 있을 것이다. 사주구조가 잘 짜여진 사람이라면 판·검사가

될 것이고, 사주가 좋지 않고 중화를 이루지 못했다면 깡패와 같은 조직 폭력배로 비유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인성(印星)이 발달한 사람은 문서나 공부, 학문 등과 관련이 있는데, 바른 어머니와 같은 마음으로 표현되므로 상담, 심리, 사회복지 관련 업무, 교사나 학자, 성직자 등의 직업군과 관련이 있다. 이처럼 육친은 가족관계 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속성과 성격성향, 직업적 속성으로도 설명이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사주를 분석시 여러 방면으로 확대해석이 가능하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사주원국과 대운·세운을 유심히 관찰하여 분석해야 할 것이다. 아래 예를 통해 육친이 가족적 개념, 심리적인 의미와 기능, 직업적인 부분으로 해석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궁통보감(窮通寶鑑)』의 예를 보자.

【원문예시 III- 3】 편관(偏官) 경금(庚金) 용신운에 시랑(侍郎)이 된 사주(乾命)

상관	일간	식상	식상
丁	甲	丙	丙
卯	寅	申	午
겁재	비견	편관	상관

정인	편인	정관	편관	정재	편재	상관
癸	壬	辛	庚	己	戊	丁
卯	寅	丑	子	亥	戌	酉
겁재	비견	정재	정인	편인	편재	정관

“7월의 갑목(甲木)은 정화(丁火)가 귀하고 경금(庚金)을 그 다음으로 하나 경금이 적어서는 안 된다. 화(火)가 수(水)의 사이에서 떨어져 있으면, 금(金)을 녹일 수 없다. 그러므로 丁火가 금을 녹이려면 반드시 갑목이 끌어서 도와주는 것에 의존해야 비로소 용광로를 이룬다. 만약 계수(癸水)가 막아서 떨어지게 되면, 바로 정화를 제거시킨다. 임수(壬水)는 장애가 없지만 정화와 합하기 때문에 단지 마땅히 무토(戊土)를 보아서 수를 억제해야 정화를 보존할 수 있다.”¹⁴⁾

14) 이을로 (2007). 『窮通寶鑑講解』 「論申月甲木」. 서울: 동학사, p107. “七月甲木, 丁火爲尊, 庚金次之, 庚金不可少, 火隔水能鎔金, 故丁火鎔金, 必賴甲木引助, 方成洪爐. 若有癸水阻隔, 便滅丁火, 壬水無礙, 且能合丁, 但須見戊土, 方可制水存火.”

【원문예시 Ⅲ- 3】은 『공통보감(窮通寶鑑)』에서 음력 칠월의 갑목(甲木)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이제 갑목은 열매를 보다 견고하고 충실하게 익기를 기다리게 된다. 가을이 되어가면 갑목(甲木)에게 가장 중요한 기운은 화기(火氣)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화의 기운을 지켜야 하므로 계수(癸水)인 수기운은 정계충(丁癸沖)으로 상관인 정화(丁火)의 역할을 할 수 없게 한다. 갑목(甲木)이라는 성정과 상태를 계절의 기후에 맞추어 신월(申月) 갑목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혹은 꺼려 하는지를 표현한다.

이러한 원리를 바탕으로 앞의 건명(乾命)의 사주를 분석해 보자. 사주의 주인공인 일간은 신월의 갑목이다. 정화(丁火)가 천간에 떠 있어 기쁘나, 병화(丙火)까지 2개나 천간(天干)에 투출되고 년지(年支)에 통근(通根)을 하고 있기 때문에 화기가 너무 많다. 화의 기운은 갑목 일간을 설기시키는 역할로서 식상(食傷)의 기운이다. 식상이 많으면 병(病)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바로 편관(偏官)인 관성을 용납하지 않기 때문이다. 일명 식신제살(食神制殺)이다. 월지(月支)에는 신금(申金)이 잘 자리 잡고 있으나 강한 식상인 화(火) 기운으로 인해 신금이 녹아 나고 있어 힘든 형국이다. 다만 월지에 있어 그 힘이 결코 약하지 않다.

대운을 보자. 대운에서는 이를 돕는 용신으로서 힘든 신금을 돕는 금의 기운이나 토생금(土生金)으로 금을 돕는 운이 올 때 발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사주에서는 특히 무토운(戊土運)에 벼슬길에 들었고, 경금운(庚金運)에 시랑(侍郎)이라는 벼슬에 올랐다고 한다. 즉, 지나친 화기운을 설기할 수 있는 토운(土運)이 좋았고, 경금운(庚金運)은 갑목을 제련하고 제어할 수 있는 힘이 있으므로 관성이 제 역할을 발휘한 예가 될 것이다. 갑목은 집을 지을 때 쓰이는 대들보가 될 수 있는 동량지목(棟梁之木)으로 낙락장송(樂樂長松)의 성정으로서 도끼 등이 제련을 하면 훌륭하게 제 역할을 하게 되는 이치로 본다면 이해가 쉬울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관성은 육친적으로 남자에게 자식, 여자에게는 남편이라는 가족적 의미로 설명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직업, 관직 등으로도 해석이 가능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라면 이 일간이 자식복도 있을 수 있다고 해석이 가능하다.

다. 육친(六親)을 통한 가족의 역동

이번에는 명리이론 중 육친론을 통해 식상, 재성, 인성, 관성을 파악하여 가족의 역동을 살펴볼 것이다. 이혼한 여명의 명리사주분석을 통해 어떠한 심리적, 감정적 교류가 있을지 들여다보겠다. 사주속에서 내담자의 가족의 역동과 더불어 더 나아가 서양 상담에서 말하는 가계도¹⁵⁾를 탐색할 것이다. 이러한 작업은 가족들간의 역동을 한 눈에 파악하고 이해 할 수 있게 한다. 또한 이러한 명리학의 탐색작업은 명리학 기반 한국형 단기상담으로서 활용 가능한 초기 접수면접 자료를 확보하는데 여러 가지 장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무릇 육친이란 부모, 형제, 처, 자녀, 손자를 말한다. 일간을 위주로 삼아 정인은 친모이고 편인은 편모이고 또 조부도 된다. 편재는 부친이니 모친인 부성이기 때문이다(갑일주는 계수가 정인이니 갑일의 편재와 합하여 무토가 부성이 된다). 편재는 또 편처(첩, 외처)이며 정재는 처가 되고 비견은 형제자매가 된다. 칠살은 아들이 되고, 정관은 딸이 되며, 관살의 양은 남자이고 음은 여자가 된다. 식신은 남손이 되고 상관은 여손이 되며 또 조모도 된다.”¹⁶⁾

지금까지는 명리학에서 사주 분석을 하는데 핵심적 이론일 수 있는 육친론에 대해 고찰해 보았다. 여기서는 그러한 육친의 개념과 의미를 바탕으로 명리학에 기반한 한국적 단기상담으로서 어떠한 부분에 주목해야 할지, 육친론을 통해 실제 상담장면에서 응용 가능한 요소들을 살펴 볼 것이다. 또한 명리학의 개발 가능한 요소들을 찾아 서양의 상담이론과 비교하면서 한국적 상담을 위한 상담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아래의 사주에 주목해 보자.

15) 가계도는 이영분, 김유숙, 정혜경(2005)의 개념을 소개할 것이다.

16) 徐升 (1985). 『淵海子平』, 券3, 臺灣: 瑞成書房. p1.“夫六親者, 父母兄弟妻財子孫是也. 用日干爲主, 正印正母 偏印偏母及祖父也. 偏財是父乃母之夫星也, 亦爲偏妻, 正財爲妻, 偏財爲妾, 爲父是也. 比肩爲兄弟姊妹也 七殺是男, 正官是女, 陽爲男陰爲女, 食神是男孫, 傷官是女孫及祖母也.”

1) 명리사주분석 속에 나타난 가족의 역동

【실제사례 Ⅲ- 3】 이혼한 여자의 사주, 1966년 2월 1일 20시생(음력), 坤命.

편관	일간	비견	편관
丙	庚	庚	丙
戌	戌	寅	午
편인	편인	편재	정관

65	55	45	35	25	15	5
상관	편재	정재	편관	정관	편인	정인
癸	甲	乙	丙	丁	戊	己
未	申	酉	戌	亥	子	丑
정인	비견	겁재	편인	식신	상관	정인

위의 사주는 여명(女命)의 사주다. 화극금(火剋金) 즉, 화는 금을 녹인다는 의미로 나를 제어하는 역할을 한다. 화의 기운은 이 여명에게 관성(官星)으로 육친상 남편에 해당한다. 지지(地支)에 인목(寅木)과 술토(戌土) 편인(偏印)이 있으나, 인오술(寅午戌) 삼합국(三合局)을 형성하여 온통 화국(火局)으로 뒤덮힌 형국으로 관살혼잡(官殺混雜)의 사주구조이다. 인목(寅木)인 재성은 목생화(木生火)로 관성인 화(火)를 생하게 된다. 재성에 힘을 받은 강력한 화의 기운은 일간(日干)인 나를 바로 쳐버리는 형국이 될 수 있다. 만약 이 사주가 강한 화기운을 설기시킬 식상이 있다면 제어가 될 수 있으나, 식상이 없어서 이러한 막강한 화의 기운을 누를 수가 없다. 또한 일간이 신강하다면 사주가 뒤바뀔 수도 있을 것이다. 신약(身弱)한 사주로서 토금(土金)이 용신(用神)일 수 있으나 용신이 무력해 보인다. 게다가 무술년은 관고(官庫)의 해로 남편인 화(火)의 기운이 술토(戌土)의 묘고지로 들어가고 인성이나 문서인 토(土)의 기운도 몰락하는 형상으로서 남편으로 인한 문제가 있을 수 있을 것이다.

인목(寅木) 편재(偏財)가 월지(月支)에 자리잡고 있어 사업성이 있기도 해서 현재 모 호텔의 관리직을 맡으며 평생 직장에서는 큰 활약을 하며 지내오고 있다. 또한 사업 수완도 좋아 수익 돈을 가지고 사채 등 금융업을 하여 돈을 벌고 있다. 그러나 그렇게 번 돈을 남편이 없애는 상황으로 간다. 이혼의 결정적인 사유가 된 것은 남편이 바람을 피워 다른 여자와 살림을 차리게 되었던 것이다. 재성(財星)이 남자에게는 육친상 여자, 아버지로 해석할 수 있으나 육친의 다른 의미로는 일반적으로 재물이나 돈으로

도 해석이 가능하다. 이 여명에게 관심이 많다고 함은 내 남편이 여럿이라는 말이기도 하고 오히려 인연이 없는 경우도 있다. 여기서도 ‘무자다자(無子多者), 다자무자(多者無子)’라는 말이 맞다. 듚직한 내 남편이 없다는 이야기가 될 수 있다. 남자와 인연은 여러 번 있으나 올 끝은 내 남자가 없다.

이 여명은 육친 중 식상(食傷)이 없는데, 식상은 표현 능력, 예술적 감성, 교육, 필설, 서비스업, 영업직 등의 직업과도 인연이 있다. 또한 부부관계에서 중요할 수 있는 생식기 능력과도 관련이 있다. 그러다보니 이 여명은 어떠한 부부간의 불화가 있는지 알수는 없으나 2018년 결국 이혼을 하였다. 자식에 해당하는 식상(食傷)도 사주원국상 없고 화국(火局)으로 온통 불바다 형국으로서 조후(調候)가 중화(中和)를 이루지 못하여 자식이 없는 여명(女命)이다. 현재 살고 있었던 남편 사이에 아이가 없어서 갓난장이 때 현재의 아들을 입양하여 키우고 있었다. 그녀는 이혼 이후, 입양한 아들에 대한 미안함과 남편에 대한 상처로 인해 힘들어 하고 있다.

2) 가족역동을 이해하기 위한 가계도

가족정서체계(Family Emotional System) 이론은 한 사람의 변화에 의해 전체 가족의 변화가 시작될 수도 있다고 보았다. 이 말은 문제의 가정을 치료하는데 있어서 가족 구성원 모두를 치료하는 방법도 좋을 수 있으나, 건강한 가족내의 일원 중 한 사람이라도 가족 내에서 벌어지는 가족문제의 규칙을 깰 수 있다는 것이다. 가족문제의 규칙으로는 삼각관계, 가족 투사과정, 다세대의 전수과정, 암묵적 가족 규칙들, 역기능적인 소통의 방식, 출생순위, 정서적 단절 등을 일컫는다. 지속되는 가족의 단절과 문제를 해결하고자 많은 가족 상담적 노력들이 있었다(김유숙, 2006).

보웬의 다세대 가족치료에서는 가족문제에 대한 관점을 원가족과의 관계에 의한 기능손상, 낮은 분화수준, 불안, 삼각관계 형성 및 정서적 단절로 보았다. 뿐만 아니라, 미누친(S. Minuchin, 1921-2017)은 구조적 가족모델체계를 통한 경계선, 제휴와 위계구조를 통해 역기능적 가족구조를 변화시켜 증상을 제거하거나 문제를 해결하였다. 이러한 가족치료적 접근과 더불어 사티어(V. Satir, 1916-1988)의 경험적 가족치료 모델, 헤일리의 전략적 가족모델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상담자의 역할이 가족내에서 일어나는 내담자의 정서를 다룰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상담자

는 정서적 창조나 부정적인 삼각관계 등을 파악하여 내담자가 가지고 있는 심리적 문제를 파악할 수 있도록 탐색을 도와야 한다.

그러므로 내담자를 둘러싼 환경으로서 가족의 역동을 이해한다는 것은 상담에 있어서 필수적인 단계로 볼 수 있다. 서양상담에서는 가족의 역동 속에서 내담자가 정서, 감정, 세상을 바라보는 인식의 틀이 이미 정해질 수 있다고 말을 하면서 가계도의 개념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대부분의 상담학회에서 상담자들은 상담한 상담사례들을 점검하는 ‘슈퍼비전(Supervision)’을 상위의 상담 감독자인 슈퍼바이저(Supervisor)에게 의뢰를 한다. 그 안에서 가계도를 그리는 작업은 사례준비를 위한 필수사항이다. 왜냐하면 상담자는 가족도를 보면서 객관적 입장에서 내담자의 심리적 역동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내담자도 가계도를 보면서 자신의 문제를 객관적 자기, 맥락적 자기 등 다양한 관점에서 관찰하면서 자신을 수용하고 통찰하는 계기를 제공받을 수 있다. 그러한 가계도를 이해하는 작업을 통해 상담자는 내담자가 현재 직면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고 자신 안에 있는 힘을 발견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사례개념화는 상담을 위한 설계도면과 같은데, 내담자가 사례개념화를 통해 어떠한 이론과 치료방법이 필요할 것인지 알려준다. 이는 마치 집을 짓는 목수가 설계도면을 보고 어떤 기본 뼈대를 만들고 어떠한 재료들을 이용해서 몇 층으로 지을 것인지 파악하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내담자의 가계도를 파악하는 일은 상담과정에서 중요한 일이다.

가계도는 3세대 이상에 걸친 가족 구성원에 관한 정보와 그들간의 관계를 도표로 작성하는 방법이다(McGoldric et al., 1999). 가족에 관한 정보가 도식화된 가계도를 통해 가족 속에서 반복되어 나타나는 유형이나 사건들을 파악할 수 있다. 또한, 이전 세대부터 주어진 가족 신화, 가족 규칙, 정서적으로 부과된 문제, 가족력을 통해 내담자는 자신이 어떤 입장에 있었는지 지금까지 가족내에서 일어났던 일들의 관련성을 쉽게 알 수 있다. 여기서는 이영분 등(2005)의 가계도의 개념을 통해 명리상담을 소개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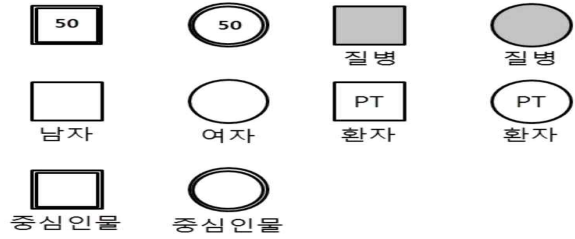
가계도 작성방법은 첫째, 가족구조를 도식화한다. 여기서는 한 세대에서 다음의 세대까지 생물적, 법적으로 어떻게 관련이 되고 있는지 도표를 통해 묘사한다. 서양의 상담에서는 한 개인을 이해하고자 많은 노력을 하였다. ‘동도서기(東道西器)’라고 서양인들은 어려운 개념들을 현실적으로 사용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이론화하는 것을 잘

한다. 특히 가계도와 같이 체계화된 이론이나 틀은 명리상담에 응용하면 내담자의 이해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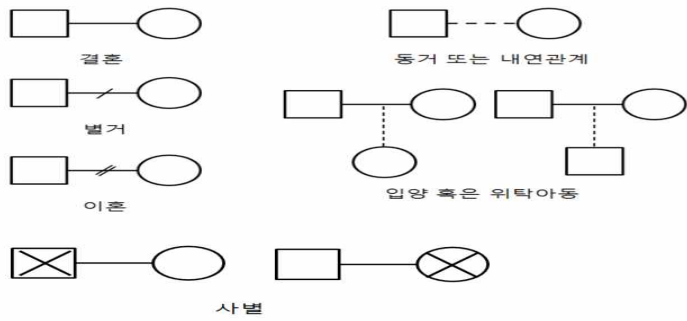
둘째, 가족에 관한 정보를 기록한다. 가계도의 뼈대인 가족구조를 도식화하면 가족의 이력, 가족의 역할, 가족생활의 중요한 가족 사건 등에 관한 정보를 덧붙인다. 또한 상담자는 가계도를 통해 많은 세부사항을 수집하는 것이 가능하다. 예컨대, 각 가족의 이름, 별명, 가족애칭, 출생, 사망, 질병, 결혼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중요한 정보의 날짜, 각 가족의 종교, 확대가족의 접촉 횟수와 접촉방식, 각 가족의 선호하는 표현 방식, 가족끼리의 친밀 또는 소원한 정도, 정서적 단절의 유무 등을 기록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가족관계를 표현한다. 가족에 대한 가장 유용한 정보는 가족구조가 아니라, 구조를 구성하는 관계의 본질이다. 상담자는 가족이 자신들의 가정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근본적인 것을 이해해야 하는 것이다. 예를들어, “당신의 부모는 당신에게 어떻게 애정 표현을 하나요?”, “내가 생각 하기에 부친의 삶을 어떻게 이해하셨나요?”, “가족 구성원들의 의사소통 방식은 어떤가요. 그러한 방식을 몇 가지 형용사로 표현해 볼 수 있을까요?”, “부친의 화와 분노를 사물로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모친의 비난이 나에게 어떻게 들리나요?” 등 개방형의 질문들은 청각적, 시각적, 행동적인 표현을 통해 내담자가 느끼는 방식에 대해 이해를 돕는다. 가계도는 가족 구성원의 성별, 질병, 사망구분, 결혼상태, 성격 등 많은 정보를 객관적 입장에서 파악할 수 있다. 그림 III-5.는 가계도를 그리기 위한 준비작업으로서 참고하면 이해가 쉬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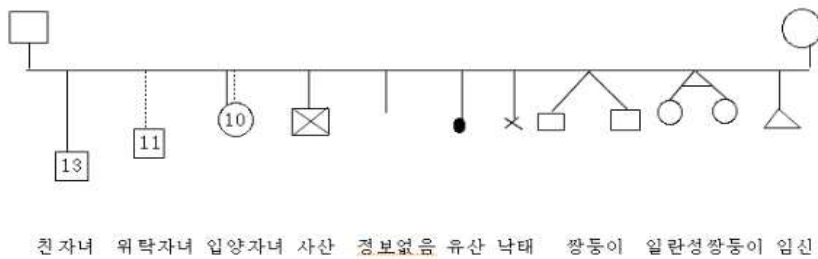
성별, 질병 및 사망구분



결혼 상태



자녀의 상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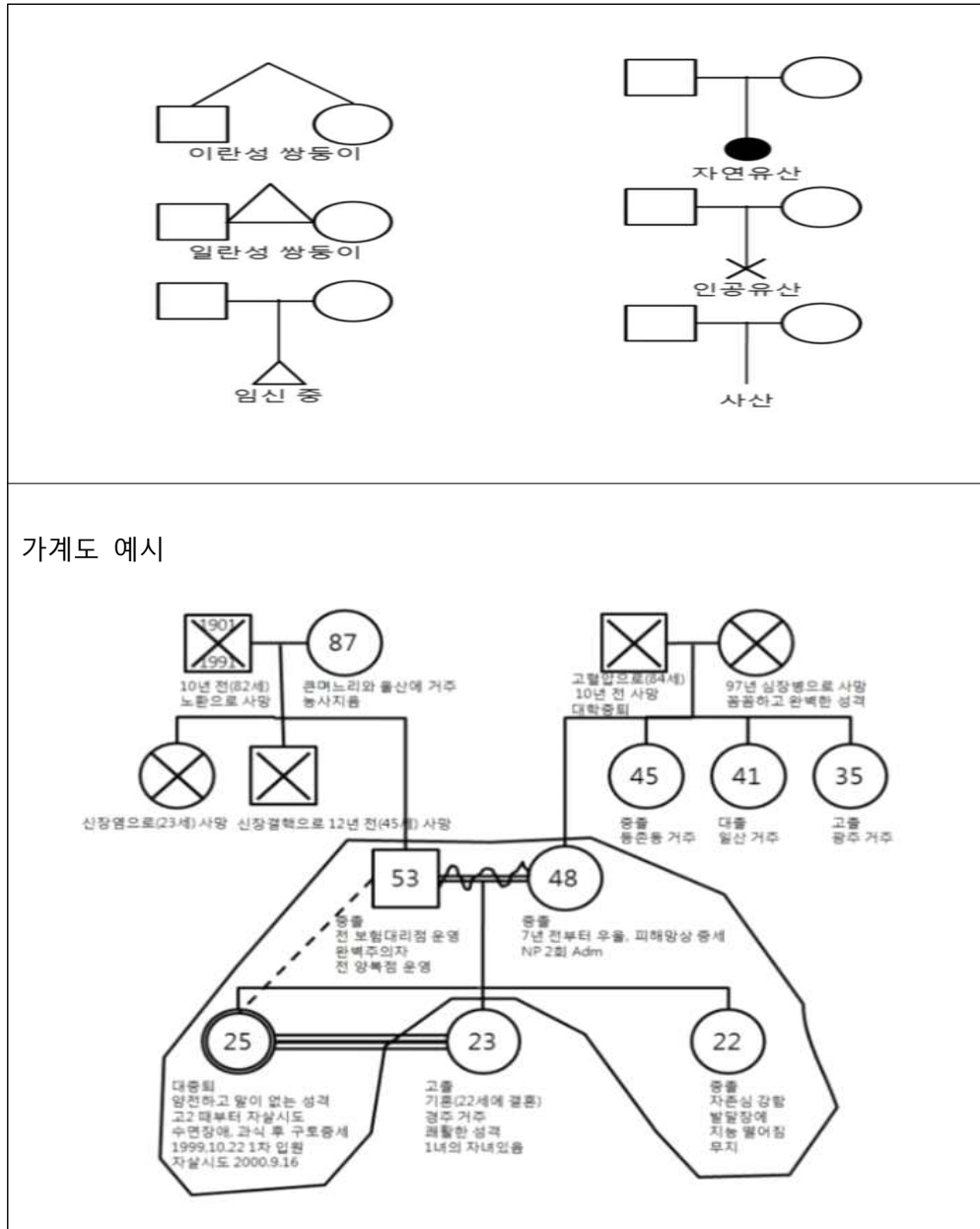


그림 III- 5. 가계도 그리기(이영분 등, 2005)

3) 명리사주분석과 가계도를 통한 사례 개념화

가) 가계도를 통한 평가

가족 구성원은 세대, 연령, 성 등의 가장 일반적인 요인에 의하여 가족 체계내에서 어떤 위치를 갖게 된다. 그러한 위치로 인해 내담자는 자신의 성장 중에 그 가족의 체

계 안에서 맡아야 하는 역할이 있게 마련이다. 예컨대, 문제아가 아니라 문제아가 생기기 이전에 그 가족의 체계상에서 볼 때, 문제아가 탄생하게 된 가족사가 있게 마련인 것이다. 아마도 내담자는 역기능적인 상황과 가족갈등의 희생양(Scapegoat)인 셈이다. 그러므로 가족도의 파악을 통해 내담자의 정서 상태나 감정상태, 역기능적인 심리도식의 이해를 통한 접근은 필요해 보인다. 내담자를 위해서는 가족의 구성원들 사이에서 벌어 질 수 있는 삼각화 문제에 대한 탐색, 핵가족의 정서체계, 가족투사 과정, 다세대간의 전수과정, 출생 순위, 정서적 단절, 사회적 정서과정 등을 위주로 내담자를 위한 이해의 작업이 선행되어야만 할 것이다.

나) 명리상담의 사례 개념화

앞의 【실제사례 III- 3】의 여명의 사주를 통해 가계도를 그려보고 단순히 철학관식의 숙명론적 사주분석보다는 그러한 어려움에 처한 내담자를 위해 ‘사례 개념화’가 필요하다. 가계도를 통해 이 내담자의 심리적 상태를 유추해 보고 그것에 맞는 내담자의 역동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 여명의 가계도는 그림 III- 6.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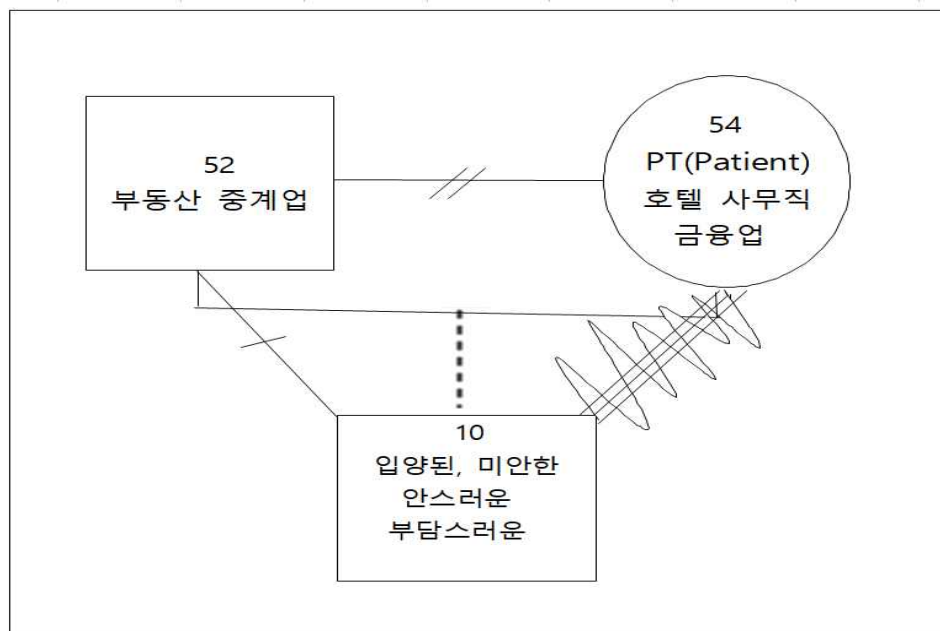


그림 III- 6. 【실제사례 III- 3】의 가계도

【실제사례 Ⅲ- 3】 여명의 사례는 아쉽게도 사주분석만으로 끝났기 때문에 위의 그림처럼 단순한 정보만 알 수 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하였듯이 친조부모, 외조부모를 비롯하여 부모의 상태, 나이, 성별, 성격, 직업, 내담자가 경험하는 내담자 이외의 가족들로부터 느끼는 감정상태, 심리적 거리감 등 가계도에 표기를 많이 하면 할수록 내담자의 정보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말은 기존 철학관 상담의 숙명적 사주팔자에 대한 분석뿐 만 아니라, 이 내담자의 심리적인 역동까지 이해할 수 있도록 여러가지 ‘개방형의 질문’을 비롯하여 구체적인 질문을 통해 내담자와의 거리를 좁혀가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여명의 사례에서 내담자를 이해해 보자면 다음과 같다. 내담자는 이혼이라는 일생의 중대 사건을 겪게 되면서 남편에 대한 화와 분노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우선, 이혼한 남편에 대한 화와 분노 혹은 그의 감정들을 다룰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사주의 주인공인 여명은 운명상으로 배우자인 관(官)이 하나도 아니고 여럿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이는 “다자무자(多者無者)로 많은 것은 없는 것이다.”라고 표현 할 수 있어서 남자문제로부터 겪을 수 있는 많은 한(恨)이 예상된다. 이러한 운명적인 결과에 대해 내담자 스스로 고백하고 이해하는 남성상에 대한 문제, 그러한 일들로 부터 겪어야만 하는 인생의 굴곡사, 남편의 외도로 인한 배신감 등 감정의 정화는 상담의 장면에서 다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

뿐만이 아니라, 남편 이외의 가족으로서 양아들에 대한 감정도 다루어야 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양아들은 이 이혼 가정의 ‘희생양(Scapegoat)’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문제아가 문제가 아니라 그러한 문제아가 나올 수밖에 없는 가정과 사회적 환경에서 자랄 수 있기 때문이다. 친 자녀도 아니고 양아들에 대한 여러 가지 양가감정은 이혼이외에 제3의 문제로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 여명의 감정들은 내담자에게 미안함으로 다가올 것인지, 안타까움, 분노의 감정 등 내담자의 핵심감정에 따라 여러 가지로 나타날 수 있다.

특히 이 여명은 사주 팔자상으로 자식이 귀할 수 있다. 왜냐하면 식상이 사주 원국 상으로도 없고, 대운에서도 협조를 하지 않으므로 자식에 대한 한(恨)을 예상할 수 있다. 부부에게 있어서 자식이라 함은 부부라는 나무에서 만들어진 ‘사랑의 열매’라고 표현할 수 있다. 그러한 “부부의 문제는 부부만이 알 수 있다.”는 말이 있듯이, 이들 부부간의 성(性)과 관련한 여러 문제가 있을 수도 있을 것이다. 여명에게 식상의 기운이

없다는 의미는 여러 가지 의미를 갖는다. 식상은 자식이라는 육친적 의미를 갖지만 생식 기능의 의미도 이야기 할 수 있다. 그러한 사주의 부족한 부분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한 탐색작업은 내담자의 울분을 달래는 기능과 더불어 내담자 스스로 합리적인 삶의 방향성을 갖게 하는데 있어서 중요하게 다루어야만 하는 사안이다.

정리하면, 육친의 개념을 통해서 내담자가 처한 가족관계 및 역동들을 이해할 수 있다. 명리상담에서는 단순히 운명적 분석뿐만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 벌어질 수 있는 내담자의 환경과 상황들을 맥락적으로 이해하고 공감적 이해를 시도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탐색자료로 이용할 수 있다. 이렇게 육친론(六親論)은 명리상담을 하는데 있어서 가족 관계로부터 역동을 파악하여 상담을 위한 초기면접 자료를 보여준다(김동환, 2010). 이러한 접근은 기존 철학관 상담보다 내담자를 이해하기 위한 명리학의 접근 방법에 대한 초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서양상담 측면에서는 내담자를 이해하는데 있어서 많은 자료를 사용하며, 검사지들도 무수히 많다. 그러나 그러한 인간을 이해하기 위해 검사지들은 유용하지만, 하나하나를 쓸 때마다 상담자들은 비싼 외국의 로열티를 지불해야만 하는 번거로움과 경비 지출에 대한 내담자들의 부담감이 많아질 수 있다. 그러나 명리상담은 용신론, 격국론, 일주론, 육친론을 통해 사주의 주인공인 일간의 성격성향, 가족역동, 진로 적성 등 여러 가지 다양한 검사지를 대용할 만한 도구들이 있어서 일석이조(一石二鳥)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러한 관점으로 본다면, 상담계에서는 상황과 맥락에 따라 상담의 도구로서 명리사주분석을 통해 ‘통합 절충주의적 접근’으로서 활용도를 타진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2. 일주론(日柱論)을 통한 일간의 성격 성향 및 직업 적성 탐색

여기서는 상담의 초기자료 중 내담자의 성격 성향을 탐색하기 위해 명리학의 일주론(日柱論)을 살펴보고자 한다.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고 하듯이 인간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심리상태를 파악하는 일은 무척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명리학의 여러 이론들 중 일주론은 사주의 주인공인 일간의 성격 특성을 잘 말해준다. 일간이 천간의 성격 특성과 그것이 지지에 어떠한 모습으로 그 운기가 놓여있는 지에 따라 성격 성향이나 직업 적성 등을 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육친론과 더불어 일주론은 상담의 초기 접수면접 자료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내담자의 여러가지 정보를 말해준다. 이러한 정보들을 통해 상담자는 내담자의 심리상태 및 성격 성향, 진로 적성, 배우자와의 관계를 유추할 수 있기 때문에 단기상담을 위한 효율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먼저, 천간의 특성을 보자.

가. 천간의 성격 성향적 특성¹⁷⁾

1) 갑목(甲木)

갑목은 10개의 천간 중 첫 글자로서 ‘선봉자’(박주현, 2004)의 물상(物象)이다. 항상 선두를 달리고 싶어 하는 마음이 크다. 인체에서는 머리를 상징하며, 시작, 개척, 상승, 발전 등으로 표현된다. 이러한 갑의 성정은 진취적, 리더십, 인자한 성품처럼 곧은 절개나 손구치는 기상 등으로 말할 수 있는데, 다른 한편으로는 자기 생각을 굽히지 않고 은연중에 관철시키려는 성격특성도 있을 수 있다. 또한 구속 받는 것을 싫어하고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는 절개가 있으나, 지나치게 자신을 내세우거나 나서기를 좋아해 공격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갑목은 집을 지을 때 유용하게 쓰이는 동량지목(棟梁之木)에 비유될 수 있다. 갑목은 에니어그램으로 ‘8번 지도자’(정준범, 2013)와 같다.

17) 천간의 성격, 성향적 특성은 박주현(2004)과 명리학을 서양상담의 에니어그램과 관련지은 정준범(2013)의 연구를 바탕으로 소개하였다.

2) 을목(乙木)

을목은 ‘임기응변이 능한 자’(박주현, 2004)와 같은 물상이다. 갑목이 앞으로만 밀고 나가는 성정이라면 이와 달리 을목은 좀더 실속파에 속할 수 있어서 부드럽고 겸손하며 배려하는 마음이 있다. 을목은 화초나 꽃, 잡초 등으로 비유할 수 있다. 그러다 보니 생활력이 강하고 강자 옆에서 등나무 줄기를 타고 올라가듯 적응력이 강하다. 을목은 강하지 않아서 사람들과 두루두루 어울리기를 좋아할 수 있고 환경에 적응력이 뛰어나며 임기응변이 좋다. 그러나 외부의 자극에 민감하며, 남에게 간섭하는 것을 싫어하며, 은근히 다른 사람을 이용하거나 은근히 의지하려는 경향이 있다. 을목은 에니어그램으로 ‘7번 낙천가’(정준범, 2013)와 같다.

3) 병화(丙火)

병화는 ‘카리스마’로 말할 수 있다. 마치 태양처럼 만물을 두루두루 비추듯이 해야 직성이 풀린다. 그만큼 카리스마가 있고 자신의 감정을 숨기지 않고 시원하게 표현을 하는 스타일이다. 갑목처럼 양간의 속성답게 자기주장이 강하며 타인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 누구든지 나를 막으면 그냥 두지 않을 것이라는 힘이 느껴질 정도다. 매사 태양의 이글거림처럼 정열적인 성격이며 이상과 포부가 넓고 원대하다. 자신을 태양처럼 가장 높이 있다는 생각 때문에 이상과 현실사이에서 갈등을 겪을 수 있다. 병화는 에니어그램으로 ‘3번 성취자’(정준범, 2013)와 같다.

4) 정화(丁火)

정화는 ‘선비’(박주현, 2004)의 형상이다. 촛불처럼 조용하고 차분한 학자의 상으로 말할 수 있다. 정화의 촛불처럼 따뜻하고 온화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예민하고 민감하지만 침착하고 절제력이 있는 편이다. 이러한 특성은 잘 드러나지 않는 자기중심적인 성향을 갖는다. 타인에 대한 배려가 깊고 조용하지만 내면적으로는 자존심과 집념이 대단하다. 또한 촛불의 성향처럼 헌신적이고 봉사정신이 강할 수 있으며 정신력이 강하지만 실리를 챙기지 못하는 성향으로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망망대해에 혼자 서있는 등대처럼 고독을 많이 느끼며, 부드럽고 조용하지만 폭발적인 면도 가지고 있다. 정화는 에니어그램으로 ‘2번 조력가’(정준범, 2013)와 같다.

5) 무토(戊土)

무토는 ‘지리산’(박주현, 2004)과 같은 물상으로 표현할 수 있다. 태산 혹은 대지의 어머니처럼 포용력이 있으며 신뢰감을 준다. 중후하고 품격이 있으며 주관이 강하여 흔들림이 없고 리드를 하는 스타일이다. 행동이나 대처 능력은 느리나,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는 능력이 있으며, 목표한 바를 꾸준히 밀고 나가는 성정을 지녔다. 남에게 나의 속내를 잘 드러내지 않아서 음흉해 보일 수 있다. 이러한 성정은 남이 나를 간섭하는 것도, 내가 남을 간섭하는 것 역시 원하지 않아 외면적으로 보면 거만해 보일 수 있다. 또한 자신의 판단을 과신하여 남의 말을 잘 귀담아 들으려 하지 않는 단점도 있다. 무토는 에니어그램으로 ‘5번 사색가’(정준범, 2013)와 같다.

6) 기토(己土)

기토는 ‘정자’(박주현, 2004)와 같은 물상이다. 이러한 물상은 누구든 쉬어가고 싶은 정자처럼 스스로 크게 돋보이지 않으려는 사양지심(辭讓之心)이 많은 성품이다. 옥토, 화분의 흙이라고 표현이 가능하다. 자기 주장이 있으며 끈기가 있고 계획적이며 치밀함을 가지고 있다. 자신의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고 감추는 것이 많다. 기토는 순박하고 부드러우며 자신의 생각을 타인에게 잘 드러내지 않는다. 어머니와 같은 자애로움과 포용력이 있다. 언행일치 스타일로 하고자 하는 일과 주장을 끝까지 신중하게 처신한다. 단점은 자신의 실속을 다 챙기는 이기주의적인 성격이며 까다로운 면이 있어 터놓고 지내기가 곤란한 점이 단점이다. 기토는 에니어그램으로 ‘6번 충성가’(정준범, 2013)와 같다.

7) 경금(庚金)

경금은 ‘바위’(박주현, 2004)의 물상이다. 초지일관(初志一貫)하는 원리원칙주의자로 표현이 가능하다. 처음 세운 마음을 여간해서는 변경시키지 않는다. 그러한 자세는 정의감과 성실성 및 책임감이 강한 성정으로 말할 수 있다. 타인의 의견을 무시하고 독선적인 경향이 있고 용감한 성격으로서 어떠한 일을 하고자할 때 강하게 밀어 부치는 추진력이 있다. 경금은 그 자체로 바위의 성정과 같이 의협심이 강하고 지도력과 통솔력이 있다. 그러나 너무 의리를 따지다 보니 자기 실속은 약하고 타인에게는 잘하는 사람이나 집안 식구들에게는 등한시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다. 가끔 금의 속성처럼 무

뚝뚝하고 명예욕이 강해 독선적인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다. 경금은 에니어그램으로 '8번 지도자'(정준범, 2013)와 같다.

8) 신금(辛金)

신금은 '외고집'(박주현, 2004)과 같은 성정으로 말할 수 있다. 성격이 예민하고 까다롭고 섬세하며 안정적이다. 타인에 대해 칼날처럼 비판적이고 날카롭게 대하는 경향이 있으며, 원칙적이고 계획을 하는데 있어서 치밀한 편이다. 말은 소임을 정확하게 계획하고 남에게 싫은 소리를 듣고 싶지 않아 한다. 그러나 자기중심적 성향이 강하고 양보심은 부족하다. 단점으로는 자존심이 무척 강한 편으로 야유와 독설이 강하여 한쪽으로 치우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오히려 주변인들은 매우 조심을 하게 된다. 너무 청백하거나 순수함이 지나쳐 냉정하거나 까칠해서 비유를 맞추기 어려울 수 있다. 신금은 에니어그램으로 '1번 개혁가'(정준범, 2013)와 같다.

9) 임수(壬水)

임수는 '치밀한 연구가'(박주현, 2004)와 같은 성정이라고 말할 수 있다. 바다처럼 깊이가 있고 마음이 넓으며 포용력이 있다. 큰 강물과도 같아서 쉽없이 노력하는 자세로 새로운 것을 탐구하여 다 방면에 박식하며 매사에 서두르지 않고 느긋하게 계속 전진하려는 의욕이 강하다. 임수는 전후의 상황에 대해서 치밀하게 궁리를 하는 연구가의 스타일이다. 물의 속성상 담는 그릇에 따라 변화가 가능하듯 임기응변이 좋다. 단점은 심해와 같이 그 속을 잘 드러내지 않아 그 마음을 알 수가 없다. 그렇게 속마음을 잘 이야기 하지 않는다. 또한 남을 이용하려 하거나 권모술수가 지나쳐 사기성으로 변할 수 있다. 임수는 에니어그램으로 '9번 중재자'(정준범, 2013)와 같다.

10) 계수(癸水)

계수는 '생동감이 있는 사람'(박주현, 2004)과 같은 물상이다. 안개나 빗물로도 말할 수 있는데, 호기심이 넘치는 성품이라서 항상 새로운 것을 보면 관심을 보이기도 한다. 계수는 자기의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으므로 속마음을 알지 못한다. 주변의 변화에 민감하고 예민한 편이며 음울한 생각이 많다. 지모가 뛰어나며 매사에 조용하며 순종하는 자세와 애교를 겸비해서 상대방의 심리를 잘 파악하기도 한다. 단점은 짓대가

없을 수 있고 변덕스러울 수 있으며, 이중적인 성격구조로서 비밀을 감추는 모습을 보일 수 있고 신비스럽게 보여질 수 있다. 에니어그램으로 ‘4번 예술가’(정준범, 2013)와 같다.

이상과 같이 10개 천간의 성격 성향적 특성을 살펴보았다. 그러나 이러한 개념은 보편적인 개념에 불과할 수 있고 좀 더 세분화된 특성적 요인을 찾아야 할 것이다. 사주 팔자 여덟 글자로 인간의 생로병사를 파악하는데 있어서 천간만이 아니라, 천간과 지지의 관계, 지지와 지지끼리의 합·형·충 등의 작용을 통해 글자들끼리 서로 원래의 의미에서 벗어나 다른 속성이 되기도 하고 전혀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하며 변신을 하게 된다. 이러한 작용들의 형태와 변화를 파악하여 마치 악세사리처럼 단순한 천간의 특성이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되어 질 수 있다.

나. 천간의 새로운 해석 방법

앞에서는 천간을 전통적 개념으로 소개하였다. 여기서 소재학(2015)¹⁸⁾은 천간 대해에 대해 새로운 해석을 하고 있다.

“기(氣)를 가지고 논하면서 갑(甲)이 을(乙)보다 왕하고, 질(質)을 가지고 논하면서 을이 갑보다 견고한 것이다. 속서(俗書)에서 갑은 무성한 대림(大林)이니 쪼개야 좋다하고, 을은 미약한 싹이니 상하면 안된다는 따위의 말을 하는 것은 음양의 이치를 모르고 하는 소리일 뿐이다. 목의 이치를 가지고 나머지 오행의 이치도 유추할 수 있으리라.”¹⁹⁾

위의 내용은 심효침의 『자평진전(子平眞詮)』의 한 구절이다. 여기서 심효침은 갑과 을이 같은 천간이지만, 갑은 기의 측면이 강하고 을은 질적인 측면이 강하다고 말한다. 일부 속인들이 갑(甲)은 동량지목이요, 을(乙)은 화분의 꽃으로 표현하면서 기적

18) 소재학 (2015). 동양미래예측학 ‘석하명리(奭廈命理)’의 일간(日干) 해석방법에 관한 연구. 선도 문화, 19, p441-500.

19) 박영창, 김배성 (2005). 적천수강독, 서울: 명운당. “以氣而論, 甲旺於乙, 以質而論, 乙堅於甲, 而俗書謬論, 以甲爲大林, 盛而宜斲, 乙爲微苗, 脆而莫傷, 可爲不知 陰陽之理者矣. 以木類推, 餘者可知.”

인 차원을 무시하고 겉으로 나타난 실제적 형상을 해석하는 것에 대해 비판하고 있다(소재학, 2015: 461). 이러한 개념은 음양의 이치를 모르는 처사라고 걱정스러움을 말하고 있다. 이러한 의견에 대해 소재학(2008)의 입장을 따르자면, 그는 십간의 물상적 개념이 부분적으로 요긴하게 활용될 수 있으나, 천간 역시 자연의 물상만으로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기(氣)적인 차원을 등한시해서는 안 된다고 언설한 바 있다. 그의 주장을 살펴보자.

여기서는 천간의 물상적 개념보다 기적인 접근을 말하고 있다. 예컨대 갑과 을의 기질적 특성을 살펴본다면 갑은 동량지목으로 을은 화초의 개념으로 분류한다. 뿐만 아니라, 갑을 기의 형상으로 나무에 비유를 한다면, 봄에 파릇파릇한 새싹들이 땅을 비집고 나오는 전진하는 개념으로, 을은 그러한 싹이 나오고 난 이후 가지로 벌어지면 서 입을 무성해지는 형국의 기적인 개념으로 설명하는 것이다.

1) 오행(五行)의 기질적 특성

오행은 원운동을 하면서 한 해 동안 목· 화· 토· 금· 수의 과정을 거쳐 제자리로 돌아온다. 목 운동은 처음과 시작을 의미하므로 인생을 시작하는 유아기의 특성을 갖는데 멈추어 있다가 처음으로 움직이게 된다. 화 운동은 청소년기로 비유할 수 있고, 자연계의 사물 중 분산되는 특성을 갖는다. 토 운동은 성인기에 해당하며 앞의 목과 화의 성장하는 운동보다는 수렴이 시작되는 기운을 갖는다. 이는 운동의 방향을 바꾸는 실체로서 변화를 주재하게 된다. 금 운동은 장년기의 위치로 해석할 수 있는데, 변화나 혁명을 의미하듯이 직진으로 분산되어 가던 운동이 갑자기 180도 변하는 운동의 속성을 갖는 것이다(박청화, 2015). 마지막으로 수 운동은 마지막인 원점으로 돌아가려는 운동의 속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노년기에 비유할 수 있다. 이곳은 새로운 분출을 위한 응축이 일어나는 자리인 것이다(소재학, 2015: 468-470). 이와 같은 식으로 십천간은 목· 화· 토· 금· 수의 음양운동을 통해 1주기를 마치고 원형이정(元亨利貞)의 과정을 거친다.

목은 처음으로 시작하는 힘으로 말할 수 있으므로 무관적 특성을 갖는다. 마치 전장의 장군과도 같은 기세를 의미한다고 본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순수무관’(소재학, 2015: 473)이라고 말한다. 화운동은 목의 강렬한 직선 운동속성을 받지만 지속적으로

뻗어나가는 것 보다는 종적이 아닌 횡적인 운동을 하면서 소위 분산 운동을 감행한다. 이러한 운동속성은 목보다는 그 운동성이 약하므로 정적이라 말할 수도 있으므로 학자적 특성을 갖는다고 하여 ‘창조학자’(소재학, 2015: 473)라는 이름을 갖는다. 토(土)운동은 현실과 이상의 차이를 깨달은 인생의 중년기와 같은 역할로써 일년 중 결실을 맺기 시작하는 시기로서 실리적 특성이 있으므로 ‘실리특성’(소재학, 2015: 473)이라는 이름으로 불린다. 다시 금운동은 복귀운동을 시작하는 시기로 목화의 직진운동을 멈추었다가 다시 복귀하여 원상으로 돌아오는 기운을 가지므로 무관적 특성을 갖게 되므로 ‘통제무관’(소재학, 2015: 474)으로, 마지막 수운동은 인생의 노년기에 비유할 수 있고 한해를 다 보낸 지혜를 갖고서 여유를 간직하는 학자특성이 있다고 하여 ‘논리학자’(소재학, 2015: 474)라는 이름으로 불릴 수 있을 것이다.

2) 체·용(體用)의 개념으로 본 오행의 특성

체(體)와 용(用)의 사전적 의미는 ‘사물의 본체와 작용’, ‘사물의 본체와 현상’으로 말할 수 있다(소재학, 2015: 475). 쉽게 말하면, 체는 실제적인 모습 이면의 본질을 말하며, 용은 실제적, 외면적으로 겉으로 나타난 형상을 말한다. 체는 내면적, 용은 외면적인 것이라 말할 수 있다. 예컨대, 오행은 목·화·토·금·수이다.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로 끊임없이 원운동을 하며 돌고 돈다. 목은 원(員) 운동의 시작이지만 원운동의 마지막 단계인 수운동의 여기로 이해할 수 있다. 마치 400미터 단체 릴레이 달리기 할 때, 수라는 운동선수가 목이라는 선수에게 baton을 넘겨주는 원리이다.

이처럼 갑목은 계수(癸水)의 기운이 남아있으므로 형태인 용은 갑의 물상이나 그 내면은 수의 성질이 강하다는 논리이다. 다시 갑목은 을목에게 넘겨준다. 을목은 갑목의 성정과는 달리 갑목의 목기운을 그대로 인수인계 받았기 때문에 진정한 목의 기운이 응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이다. 즉, 체와 용 모두 겉과 속이 모두 목의 기운임을 알 수 있다. 병화는 을목의 기운이 넘어 온 것으로서 체는 목이요, 용은 화의 기운인 것으로 온전한 화의 기운이 아니다. 이와 같은 식으로 생각하면 정화(丁火)는 온전한 화의 기운임을 알 수 있다. 다시 무토(戊土)는 속은 화요, 겉은 토일 것이요, 기토(己土)는 온전한 토의 속성일 것이다. 경(庚)은 기토에서 넘어온 기운이므로 속은 토요, 겉인 용은 금의 속성이다. 신금(辛金)은 오롯한 금의 속성이며, 임수(壬水)는 속은 금이요 겉은 수의 속성을, 계수(癸水)는 온전한 수의 운동성을 갖는다(소재학, 2015).

이러한 원리로 본다면 양간(陽干)인 갑목, 병화, 무토, 경금, 임수는 혼합물과 같이 이전의 오행의 운동속성이 섞여진 성향과 성격특성을 갖는다는 것이다. 한편 음간(陰干)인 을목, 정화, 기토, 신금, 계수는 겉과 속이 같은 즉, 체와 용의 쓰임새가 같은 ‘응축된 기운’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접근은 같은 목운동을 하는 갑목과 을목은 그 성정이 다를 수 있고, 병화와 정화, 무토의 운동성인 무토와 기토, 금의 운동속성인 경금과 신금, 수의 운동 속성인 임수와 계수의 운동적 특성은 세분화시켜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정리하면 표 III- 3. 과 같다.

표 III- 3. 천간오행의 체(속심리)와 용(겉심리)(소재학, 2015: 479)

십간	甲	乙	丙	丁	戊	己	庚	辛	壬	癸
用(겉)	木	木	火	火	土	土	金	金	水	水
體(속)	水	木	木	火	火	土	土	金	金	水
복합오행	水+木	木+木	木+火	火+火	火+土	土+土	土+金	金+金	金+水	水+水
순수오행		木		火		土		金		水

즉, 갑목은 외목내수(外木內水), 을목은 외목내목(外木內木)이며, 병화는 외화내목(外火內木), 정화는 외화내화(外火內火), 무토는 외토내화(外土內火), 기토는 외토내토(外土內土), 경금은 외금내토(外金內土), 신금은 외금내금(外金內金), 임수는 외수내금(外水內金), 계수는 외수내수(外水內水)(소재학, 2015: 478-479)의 의미를 담고 있으며, 그 기능은 다를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해석은 단순히 오행의 일반적인 물상적 개념보다 좀더 세분화한 개념으로 이해가 가능하며, 사주의 주인공인 일간의 심리적 특성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3) 체(體)· 용(用)· 합(合)의 개념으로 본 오행의 특성

십천간은 갑· 을· 병· 정· 무· 기· 경· 신· 임· 계이다. 이러한 십천간은 외관상의 표현이다. 앞서 언급한바 있듯이 어떠한 물체나 사물은 음양(陰陽)의 원리를 따르게 된다. 즉, 공간적 의미로서 합(合)의 개념과 함께 설명되어질 수 있다. 음양은 변화성, 상대성, 지속성의 원리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동양의 역학에서 말하는 철학적 의미를 두자면 갑은 갑만으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기토(己土)를 동반하고 있다는 원리인

것이다. 즉, 천간의 합작용을 말하는 것이다. 천간의 합작용으로는 갑기합토(甲己合土), 을경합금(乙庚合金), 무계합화(戊癸合火), 병신합수(丙辛合水), 정임합목(丁壬合木) 등이 있다. 이들은 늘 함께 붙어 다니는 존재라 볼 수 있기 때문에 어떠한 물질이나 사물의 겉 심리와 더불어 속심리를 들여다 볼 수 있는 것처럼 공존한다. 예컨대 강한 성정의 갑목(甲木)과 같이 외면적으로 볼 때 양(陽)한 성향을 가진 사람은 기토(己土)와 같이 음적인 부분이 함께 공존한다고 이해하면 쉬울 것이다. 이처럼 공간적 개념으로 십간(十干)의 심리적 특성을 살펴 보도록 하자.

갑목은 외목내수(外木內水)이다. 갑은 합(合)의 개념으로 기토(己土)와 합하는 작용을 하므로 용인 겉심리는 목이나 합작용으로 기토를 동반하므로 토의 성향이 내재되어 있고 그것은 성향으로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을목은 겉인 용은 외목내목(外木內木)이고, 합작용으로 경금(庚金)을 동반하므로 금의 성향이 내재되어 있다. 이와 같은 식으로 본다면, 병화는 외화내목(外火內木)으로 겉은 화기운이지만 신금(辛金)을 합하므로 금의 성향이 내재하며, 정화는 외화내화(外火內火)로 겉은 화지만, 임수(壬水)를 합작용으로 동반하므로 수의 성향을 갖는다. 무토는 외토내화(外土內火)로 겉은 토요, 계수(癸水)를 합하므로 수의 성향을, 기토는 외토내토(外土內土)로서 겉은 토이나, 갑목(甲木)을 합작용하므로 목의 성향을 갖는다. 경금은 외금내토(外金內土)로 겉은 금이요, 을목을 합하므로 목의 성향을 갖을 것이며, 신금은 외금내금(外金內金)으로 겉은 금이요, 병화를 합작용으로 동반하므로 화의 성향을 갖게 된다. 마지막으로 임수는 외수내금(外水內金)으로 겉인 용은 수요, 정화를 합작용하므로 화의 성향적 특징을 갖게 되며, 계수는 외수내수(外水內水)로서 겉은 수이지만, 무토를 합작용하여 동반하니 토의 성향을 갖을 수 있을 것이다.

종합해 보면, 갑목의 체(體)인 속 심리는 계수, 합은 기토, 용은 갑목이므로 수(水)·토(土)·목(木)의 성향이 혼재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겉으로는 목이라 할 수 있으나, 수(水)와 토(土)의 내면적 특성을 갖게 되는데, 가장 강한 특성은 속심리인 체의 작용으로 수의 성향이 클 수 있다. 을목은 목(木)·금(金)·목(木)으로서 체는 갑목, 합은 경금, 용은 을목(木)으로서 목의 성향이지만, 내면으로는 금의 특성을 가질수 있다. 병화는 목(木)·금(金)·화(火)로 속 심리는 목이요, 합은 신금으로 금이요, 겉심리인 용은 병화이다. 병화의 강한 특성은 내재된 목의 성향이다. 정화는 화(火)·수(水)·화(火)로 체인 내면은 병화, 합은 임수, 겉 심리인 용은 정화로서 화이지만 내면으로는

화와 수의 특성을 가지며 특히 화의 속성이 더 강할 수 있다. 무토는 화(火)·수(水)·토(土)로 체는 정화, 합은 계수, 용은 무토로서 가장 큰 내면의 특성은 화의 성향이다. 기토는 체는 무토, 합은 갑목, 용은 기토로서 토(土)·목(木)·토(土)로 표현된다. 내면적으로도 토의 속성이 강하다. 경금의 체는 기토, 합은 을목, 용은 경금으로서 토(土)·목(木)·금(金)이 결합되어 나타날 수 있으며, 내면적으로 토의 속성이 강하다. 신금은 체가 경금, 합이 병화, 용이 신금으로서 금(金)·화(火)·금(金)의 성향이며 강한 특성은 금이다. 임수인 경우 체는 신금, 합은 정화, 용은 임수로 금(金)·화(火)·수(水)의 성향이 혼재되어 나타난다. 가장 강한 특성은 내면의 심리로서 금의 성향이 많을 수 있다. 계수는 체가 임수, 합이 무토, 용이 계수로서 수(水)·토(土)·수(水)의 배열적 특성을 갖는다. 가장 강한 특성은 수의 심리적 성향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앞의 내용을 정리하면 표 III- 4와 같다.

표 III- 4. 체·용·합의 개념으로 해석한 오행의 개념(소재학, 2015: 485)

십간	甲	乙	丙	丁	戊	己	庚	辛	壬	癸
用(겉)	木	木	火	火	土	土	金	金	水	水
체(속)	水	木	木	火	火	土	土	金	金	水
합(합)	土	金	金	水	水	木	木	火	火	土
주(主)	水	木	木	火	火	土	土	金	金	水

4) 체(體)·용(用)·합(合) 개념을 통해 분석하는 일간의 복합성향

이번에는 체, 용, 합을 연결해 보자. 갑목(甲木)은 체가 계수, 합이 기토, 용이 갑목으로 수·토·목의 성향이 혼재되어 있다. 가장 강한 내면의 심리는 체인 수이다. 여기에 오행의 기질적 특성을 대입해 보면 갑목은 체가 논리학자, 합은 실리특성, 용은 목으로 순수무관의 성향을 띠지만, 용보다는 합의 특성이 강할 수 있고 체의 특성인 ‘논리학자’의 성향이 주를 이룰 수 있다. 을목(乙木)은 체가 갑목, 합이 경금, 용이 을목으로 목·금·목의 구조다. 이를 표현하면 순수무관, 통제무관, 순수무관일 수 있는데, 여기서의 합의 기능보다 체와 용의 기능이 더 강하여 ‘순수무관’으로 불릴 수 있다. 병화(丙火)는 체가 을목, 합이 신금, 용이 병화로서 목·금·화의 구조이다. 이를 표현하면, 순수무관, 통제무관, 창조학자이다. 그러므로 병화는 내면의 체의 심리적 성향이 클 것

이므로 ‘순수무관’이라 할 수 있다. 정화는 체가 병화, 합이 임수, 용이 정화로서 화·수·화의 구조이다. 이는 창조학자, 논리학자, 창조학자로 표현이 가능한데, 체와 용의 성향이 강하므로 ‘창조학자’로 표현이 가능하다.

다음은 무토(戊土)이다. 무토의 체는 정화, 합은 계수, 용은 무토로서 화·수·토의 구조이다. 이를 일간의 특징에 대립을 하면, 창조학자, 논리학자, 실리특성의 특징적 성향을 가진다. 이중 내면적 성향이 클 수 있어서 ‘창조학자’이다. 기토(己土)는 체가 무토, 합이 갑목, 용이 기토로서 토·목·토의 구조이다. 합이 특징보다는 체와 용의 성향이 크므로 ‘실리특성’으로 말할 수 있다. 경금(庚金)은 체가 기토, 합이 을목, 용이 경금이므로 토·목·금의 구조이다. 이는 실리특성, 순수무관, 통제무관의 성향이 혼재되어 있으나, 체와 합이 기능이 클 것이므로 ‘실리특성’의 특징을 갖는다. 신금(辛金)은 체가 경금, 합이 병화, 용이 신금으로서 금·화·금의 구조이다. 이를 풀어보면, 통제무관, 창조학자, 통제무관으로 말할 수 있으나 체와 용의 작용이 크므로 ‘통제무관’이다.

임수(壬水)는 체가 신금, 합이 정화, 용이 임수로서 금·화·수의 구조이다. 이는 통제무관, 창조학자, 논리학자의 성향이 혼재되어 있는 구조이다. 특히 체에 해당하는 ‘통제무관’의 성향이 클 것이다. 마지막으로 계수(癸水)는 체가 임수, 합이 무토, 용이 계수로서 수·토·수의 구조이다. 이는 논리학자, 실리특성, 논리학자의 성향이다. 그러나 체와 용의 기운이 강할 수 있기 때문에 ‘논리학자’이다(소재학, 2015: 490-494). 위의 내용을 정리하면 표 III- 5와 같다.

표 III- 5. 체·용·합의 개념으로 분석한 일간의 복합성향(소재학, 2015: 494)

십간	甲	乙	丙	丁	戊	己	庚	辛	壬	癸
용(겉)	순수 무관	순수 무관	창조 학자	창조 학자	실리 특성	실리 특성	통제 무관	통제 무관	논리 학자	논리 학자
체(속)	논리 학자	순수 무관	순수 무관	창조 학자	창조 학자	실리 특성	실리 특성	통제 무관	통제 무관	논리 학자
합(숨)	실리 특성	통제 무관	통제 무관	논리 학자	논리 학자	순수 무관	순수 무관	창조 학자	창조 학자	실리 특성
대표적 복합성향	논리 학자	순수 무관	순수 무관	창조 학자	창조 학자	실리 특성	실리 특성	통제 무관	통제 무관	논리 학자

종합하면, 이처럼 천간은 실제적인 물상적 개념과 기(氣)적인 천간의 개념을 더하니 좀 더 풍부하게 일간(日干)의 심리적 특성을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천간론을 상담에 활용한다면, 개인의 성격 성향적 특성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이장영, 1997; 한수애, 2010; 김학목, 2011). 이는 내담자의 특성을 파악하는데 있어서 육친론 함께 상담 초기의 접수면접 자료로서 내담자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천간의 특성을 통해 자기이해 및 타인이해 등 상담교육의 자료로서 활용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10개의 천간에 대한 여러 특성을 세가지 관점으로 요약하면 표 III- 6.과 같다.

표 III- 6. 천간의 특성 비교

천간	박주현	정준범	소재학
甲	선봉자	8번 지도자	논리학자
乙	임기응변에 능한 자	7번 낙천가	순수무관
丙	카리스마	3번 성취자	순수무관
丁	선비	2번 조력자	창조학자
戊	지리산	5번 사색가	창조학자
己	정자	6번 충성가	실리특성
庚	바위	8번 지도자	실리특성
辛	외고집	1번 개혁가	통제무관
壬	치밀한 연구가	9번 중재자	통제무관
癸	생동감 많은 사람	4번 예술가	논리학자

다. 십이운성을 통한 일간(日干)의 성격 성향 및 직업 적성 탐색

1) 십이운성을 통한 일간의 성격 성향적 특성

사주 분석시 용신과 격국은 가장 중요한 사주의 중화를 다루는데 없어서는 안되는 중요한 이론일 것이다(박정화, 2005; 안태욱, 2012; 강 현: 2016). 그러나 용신을 구분하는데 있어서 정확하지 않은 애매한 사주구조도 있다. 용신론은 중요한 이론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용신론, 격국론에 대한 시비로 인해 명리학이 논리적인 학문으로 발전하는데 여러 제약이 있다(심귀득, 2011). 앞에서 말한 육친론이 명리학의 척추에 해당하는 이론이라면, 여기서는 십이운성론을 언급하고자 한다. 특히 십이운성은 십이신살로 볼 수 있는데, 추명학의 권위자인 일본의 아부태산이 그 개념을 중요하게 다룬바

있다(안태옥, 2012).

다음 장에서 설명하겠지만, 십이운성이라는 개념은 사주를 평면적 분석이 아닌 입체적으로 해석을 가능하게 하므로 본 연구는 한국적 단기상담을 위한 도구적 차원의 요소를 살펴보는 작업이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이러한 십이운성의 개념은 단기상담을 하는데 있어서 도움이 될 것이다. 명리학이라는 이론 중에 특히 십이운성론은 상담에 쉽게 적용할 수 있는 방법론이 될 수 있으므로 본 장에서 일주론에 대입하여 그 개념을 소개하고자 한다.

십이운성은 우주 만물의 생성과 소멸의 원리를 12단계로 해석한 이론이다. 절(絶), 태(胎), 양(養), 장생(長生), 목욕(沐浴), 관대(官帶), 건록(建祿), 제왕(帝旺), 쇠(衰), 병(病), 사(死), 묘(墓)를 거치면서 춘하추동의 기(氣)적인 변화와 질(質)적인 변화를 통해 순행한다는 원리이다. 말하자면 아무것도 없는 시기(절)에서 시작하여 마치 인간의 출생과 사망의 과정을 거치듯이 부모의 정자와 난자의 결합으로 잉태되어 아기의 씨앗이 생기고(태), 모체의 자궁 속에서 길러지며(양) 세상에 태어나고(장생) 아장아장 유아기의 시기를 지나(목욕), 사춘기를 거치고(관대), 성년기를 지나(건록), 장년기에 전성기를 누리고(제왕), 다시 그 기운이 쇠하는 노년기를 거쳐(쇠), 병이 들고(병), 죽음을 맞이 한다(사). 죽어서 묘지에 갖히게 되면서(묘), 완전하게 존재가 없는 단계(절)를 거치게 된다. 이는 자연현상을 그대로 옮겨 놓은 원리라 말할 수 있다. 구조적으로 볼 때, 장생·목욕·관대·건록·제왕은 상승하는 운동적 속성이며, 쇠·병·사·묘·절·태·양은 하강하는 운동적 속성을 갖게 된다. 경신일주(庚申日柱)의 예를 들어보자.

시주(時柱)	일주(日柱)	월주(月柱)	년주(年柱)
戊	庚	辛	丁
寅	申	亥	亥

년주(年柱)는 정해(丁亥)인데, 정화(丁火)가 해수(亥水) 위에 앉아 있으므로 ‘태(胎)’에 해당한다. 태의 개념은 인간에 비유하면, 태아가 막 잉태는 되었으나 실제적인 힘은 없는 상태로 말할 수 있다. 경금일간에 정화는 정관(正官)을 의미하는데 관의 기운이 약하다고 볼 수 있다. 여명에게 정관은 남편으로 말할 수 있다. 정관의 힘이 약하니 남편의 하는 일이 순조롭지 못함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좌하의 십이운성

만으로 따진 후에 월지와와의 관계도 살펴보고 십이운성으로 해석을 하기 전에 사주의 용신과 격국을 따져서 일간의 강, 약을 살핀 후, 보조의 수단으로 십이운성의 개념을 쓴다면 내용을 보다 자세하게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월주(月柱)는 사회적 격(格)을 보는 자리로 일간의 특성을 설명하는데 있어서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경금일간에게 월주는 신해(辛亥)이다. 신금은 경금에게 겁재라는 육친의 성분으로 경쟁자가 된다. 그 경쟁자가 좌하에 해수(亥水)를 깔고 있으니 십이운성으로는 ‘목욕(沐浴)’이다. 목욕의 기운이라면, 마치 어린 유아기의 아이가 이곳저곳 호기심을 가지고 돌아 다니는 형상이라고 표현 할 수 있을 것이다. 아직은 어른의 모습이 아니므로 그 기운은 강하지 않으나, 운기가 나쁜 형국은 아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판단하면 오류가 생길수 있는데, 신금과 일지의 관계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신금이 일지의 신금(申金)위에 있다고 본다면 ‘제왕(帝旺)’이다. 좌하에는 목욕, 일지로는 제왕으로서 경금에게 겁재인 신금의 기운이 결코 약하지 않다.

일주(日柱)는 천간의 경금(庚金)이 일지 좌하(座下)에 신금(申金)을 지지에 두고 있다. 위의 십이운성표를 참고하면 경금이 신금 위에 있으면 그 기운이 ‘건록’이라는 명칭을 얻는 것이다. 건록은 앞에서 말을 했듯이 성인기와 같은 시기로 해석할 수 있으므로 제왕 다음으로 그 기운이 강한 상태임을 알 수 있다.

시주(時柱)는 무인(戊寅)이다. 무토가 인목(寅木)위에 있으므로 ‘장생(長生)’이라 말한다. 장생은 마치 어린 아기가 세상에 태어난 상태로 비유할 수 있다. 형체는 있으나 아직은 시작에 불과하므로 건록이나 제왕처럼 그 기운이 왕성하지는 않으나, 좋은 기운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장생은 다른 의미로는 막 태어난 아기이므로 주위에서 돌봐주는 사람이 많을 것으로 생각되므로 불로소득이 있을 수도 있다. 경금일간에게 무토는 편인(偏印)이다. 편인은 계모나 서모를 뜻하기도 하고 정인이 없는 경우 모친으로도 해석할 수 있으므로, 모친으로부터 덕이 있을 수 있다. 또한 편인은 종교, 철학, 상담, 심리, 외국어 공부 등 정태의 공부보다는 신비로운 속성의 공부가 될 수 있어서 그러한 기능으로 볼 때, 편인의 운기가 좋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방식으로 일주론에 십이운성론을 접목하면, 사주의 주인공인 일간의 성격 성향 및 진로 적성까지도 유추해 볼 수 있다. 특히 성격 성향을 보는데는 일지(日地)와 월지(月地)가 거의 80%는 좌지우지 할 수 있다(임한석 생활역학 교실, 2011).

2) 일간의 성격 성향 찾기

시주(時柱)	일주(日柱)	월주(月柱)	년주(年柱)
	庚		
①戌	②寅	③亥	④子

- ①은 경금(庚金) 일간과 시지의 관계이다. 경금이 술토(戌土) 보면 ‘쇠(衰)’이다.
- ②는 일주로서 경금일간과 일지의 관계이다. 경금이 인목(寅木)를 본다면 ‘절(絶)’이다.
- ③은 일간인 경금과 월지의 관계이다. 경금이 해수(亥水)를 본다면 ‘병(病)’이다.
- ④는 경금일간과 년지의 관계이다. 경금이 자수(子水)를 보면 ‘사(死)’이다.

일반적으로 일지와 월지가 사주의 주인공인 경금의 성격 성향을 70-80이상 결정할 수 있다. 월지는 병이고 일지는 절에 앉아 있다. 병에 앉아 있다는 것은 자신이 아파 본 경험이 있어서 상대의 힘듦을 마치 나의 일처럼 마음 아파할 수 있는 성정을 지닐 수 있다. 또한 일지가 절이라는 의미는 삶에 있어서 한번 정도는 바닥을 치는 상황을 경험할 수 있다. 그것은 그 만큼 세상을 살아가는데 있어서 강인함이 있을 수 있다. 나머지 년지와 시지의 관계는 크게 작용하지는 않으나, 부분적으로 일간의 성격 성향을 결정할 수 있다. 전체적으로 일간의 기운이 사, 병, 절, 쇠에 놓여 있으므로 기운이 약할 수 있다. 그러나 전체적인 용신과 격국을 살핀 후 해석이 가능하다. 응용을 해보자.

시주(時柱)	일주(日柱)	월주(月柱)	년주(年柱)
	丙		
	①戌	②戌	

병화일간이 일지는 묘(墓), 월지도 묘(墓)이다. 이러한 성격 성향이라면 잔돌이 일수 있다. 묘라는 의미는 내가 무덤속으로 들어 가는 형국으로서 세상과 담을 쌓고 있다. 그러므로 지금 가지고 있는 것으로 다음 태어날 때까지 아끼고 절약해야 하는 상황으

로 설명이 가능하다. 그러한 의미를 부여하면 현실적으로 절약하는 이미지로 해석이 가능하다. 자린고비를 여기에 두고 말할 수 있다. 묘에 들어가 있으므로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살아야만 하는 형상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런 성향을 가진 사람이라면 모임에서 총무를 시키면, 임무를 잘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묘(墓)의 십이운성은 아무래도 움직임이 없는 공간으로서 성향이 활동적이지 않고 느리거나 사색적이고, 과거에 화려한 환경을 뒤로하고 몽근히 들어 앉아 있는 환경을 의미한다. 이는 저술이나 종교적인 활동, 연구활동 처럼 혼자 웅크리고 묘에 갇혀서 활동을 하는 직업속성과 관련이 있다.

3) 일간의 직업적성 찾기

시주(時柱)	일주(日柱)	월주(月柱)	년주(年柱)
	己		
	丑		

癸
辛
己

위의 사주는 기축(己丑) 일주이다. 기토(己土)가 축토(丑土)라는 지지위에 앉아 있으니 십이운성으로 ‘묘지(墓地)’이다. 지장간은 지하에 갇혀있는 천간의 기운이다. 일지의 축은 지장간에 계·신·기(癸辛己)를 갖고 있다. 우선 지장간의 계수(癸水)를 천간에 대입하면 계축(癸丑)이 되므로 십이운성으로 ‘관대(官帶)’다. 계수는 기토일간에게 편재인 재성에 해당하는데 관대의 기운에 있으므로 재성적인 일에서는 운기가 좋다. 신금을 천간에 대입하면 신축(辛丑)으로서 신금(辛金)이 축(丑)을 보면 ‘양지(養地)’이다. 기토에게 신금은 식신(食神)에 해당하는데 그 기운이 양지이므로 속성상 교육하고 기르는 직업과 연관지어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다시 기토를 천간으로 놓으면 ‘묘(墓)’에 해당한다. 기토일간에게 기토는 비견인데 비견이 묘에 해당한다. 이러한 방법은 봉법(逢法), 좌법(座法)에 의한 십이운성적 해석이다(안태옥, 2012).

하나 더 진보하면, 인종법(引從法)이 있다. 이는 지장간의 없는 오행을 일지에 놓고 12운성을 비교하는 방법이다. 만약 지장간에 관성의 기운이 없는데 기토에게 관성은 갑목과 을목이다. 정관인 갑목은 관대이며 을목은 편관으로 쇠지이다. 아주 좋은 기운

은 아니지만, 좋은 편에 들 수 있다. 인성의 흐름을 보자. 기토에게 인성은 병화와 정화이다. 병화를 일지의 축에 대입하면, ‘양’이다. 정화는 ‘묘’에 해당한다. 기토일간에게 식상인 신금은 양지, 상관인 경금은 묘지다.

정리하면 재성, 관성은 나쁘지 않다. 인성이나 식상은 그저 그렇다. 이처럼 일주의 내용만으로도 일간인 기토의 성향을 어느 정도 읽을 수 있어 십이운성의 개념은 깊은 명리학의 이해가 없이도 적용이 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십이운성의 적용양식에 대한 교육을 통해 짧은 시간 내에 내담자의 성격 성향과 직업적 특성을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담의 초기자료를 확보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다음은 일주론에 십이운성을 적용하여 사주를 분석해 보자.

4) 일주론의 사례

【실제사례 III- 4】 1949년 10월 20일 18시생, 음력, 건명(乾命)

편인	일간	정재	편관
辛	癸	丙	己
酉	酉	子	丑
편인	편인	비견	편관

계유(癸酉)일주는 십이운성으로 볼 때, 병지에 있다. 편인이 병지에 처해있으므로 편인에 해당하는 학문과 인연이 있다. 편인의 공부는 종교, 철학, 상담, 심리 등의 학문에 소질이 있을 수 있다. 병지 자체에 놓여있다고 함은 자신이 병에 든 사람과 같이 그 아픔을 이해하고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불쌍한 사람을 보면 도와줄 수 있는 성정을 갖출 수 있다.

편인(偏印)인 인성(印星)이 여럿이 있으므로 인성이 너무 많아 일간인 계수는 그 성정이 도가 지나치듯 거들먹거린다거나 잘난척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인성이 많다함은 오히려 학문과 인연이 짧을 수도 있거나 없을 수도 있다. 인성은 육친상 어머니로서 어머니가 많다는 것은 제대로 어머니의 사랑을 받기보다 이집저집 여러 어머니를 둘 수 있다. 즉, 모친의 덕이 없는 상황일 수도 있다. 그리고 배우자 자리에 편인인 어머니가 있으니 배우자인 병화(丙火)를 인종범으로 본다면 사지에 놓이게 된다. 이는 부부관계에 있어서 좋은 관계이기 어렵다.

일지 유금(酉金)의 지장간을 십이운성에 대입해 본다면, 식상에 해당하는 목의 기운은 절, 태지에 놓이기 때문에 재물을 창출하는 능력은 좋지 않다. 재성이 될 수 있는 재성인 화의 기운과 관의 기운인 토의 기운은 사지에 놓이므로 사업이나 관직을 얻는 일에는 좋지 않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글과 학문은 록, 왕지에 해당하므로 길함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이 건명의 진로 적성으로는 공부 쪽이 길할 수 있다. 특히 편인의 공부는 길하다. 현재 이 내담자는 철학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30년 넘게 이혼을 하지 않은채 아내와 자식들과 별거하여 살아오고 있다. 과거 30대부터 술집을 크게 운영하다가 사업이 망한 후 장뜰배기로 시장통을 전전하며 살아왔다고 한다.

이와 같은 식으로 일주만으로도 일간의 성격 성향, 직업 적성, 부부관계 등 상담에 필요한 기초자료들을 확보할 수 있다. 나머지 육십갑자에 있는 60가지 일주는 이와 같은 식으로 대입하여 성격 성향 및 직업 적성을 판별하면 될 것이다. 이러한 정보들은 서양의 상담이론 중 인간의 성격특성을 16가지로 나누어 체계화시킨 MBTI의 성격이론이나 에니어그램 등과 같이 상담의 교육현장에서 응용이 가능하다. 예컨대, 10천간으로 갑· 을· 병· 정· 무· 기· 경· 신· 임· 계가 있다. 10천간별 혹은 갑자(甲子)에서 계해(癸亥)까지 60개의 일주별로 나누어 분임조 활동을 통해 상담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의 활용은 나의 성격과 더불어 타인의 성격 성향도 알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할 수 있으므로 상담교육 장면에서 그 적용법을 강구할 수 있을 것이다. 사주팔자 여덟글자에서 육친론이나 일주론은 성격 성향, 직업 속성, 부부관계 등 다양한 초기 면접자료를 얻을 수 있다. 이러한 장점은 비싼 로열티를 지급하지 않아도 여러 정보를 얻을 있게 한다. 이는 검사지를 쓸 때마다 드는 검사비용에 대한 내담자의 부담감을 덜어줄 수 있다.

IV. 명리상담의 치료적 의미

앞의 장에서는 명리학이라는 학문 속에서 상담의 초기 자료로서 육친론을 통한 가족 관계 및 가족의 역동을 살폈고, 일주론을 통해 일간의 성격 성향 및 진로 적성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내용과 함께 본 장에서는 명리학이 또다른 상담적 활용요소 차원에서 ‘자신의 문제를 이해하고 통찰하게 하는 학문’임을 알게 한다. 이러한 관점은 상담에 응용할 수 있는 여러 요소 중 특히, ‘치료적 의미’의 접근이 될 것이다.

심귀득(2011)은 명리학의 수양적 차원에서 활용 가능한 재료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주역의 연구에 미치지 못한다고 그 한계를 지적하면서 명리학의 성향이론을 응용한 구체적 수행법을 제안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명리학 분야에서는 이러한 수양적 의미로서 접근한 연구물은 그리 많지 않다. 몇몇 명리학 관련 연구에서는 명리학 공부를 통한 “숙명론적 한계상황의 수용”(하은희, 김성봉, 2019b: 1275)을 언급하면서 서양의 실존철학에서 말하는 인간의 마지막 상황에서 태동하는 인간의 자유의지가 생김을 언설한 바 있다. 삶의 불확정성 앞에서 주저하지 않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고자 하는 인간의 의지의 발현 등 철학적 접근을 말하기도 하였다(김만태, 2013).

실용 술수학으로 인간의 생로병사를 파악하는 일은 이미 사회적으로도 여러 점복 산업 중에 우리나라 내담자를 위해 입지를 확보한지 오래되었다(심귀득, 2011). 그러나 명리학 안에는 잡다한 일상만을 다루는 일보다 마음을 수련하고 숙명적인 한계에 대한 자기이해 및 통찰과 더불어 타인이해가 가능하다는 형이상학적인 차원이 있다. 이러한 의미를 상담에서는 ‘치료적 의미’라고 말할 수 있다. ‘치료적 의미’는 명리학 공부를 통해서 자기수련과 수양의 덕을 갖추어 줄 수 있는데, 예컨대 이는 비가 올 것 이라는 일기예보를 듣고 ‘우산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미래의 문제를 대처할 수 있는 지혜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장에서는 특히, 음양론과 중화론을 통해 이러한 치료적 의미를 다루어 보고, 한걸음 더 나아가 명리학의 철학치료적 접근 가능성을 말하고자 하였다.

1. 음양오행론(陰陽五行論)과 중화론(中和論)

가. 음양오행론을 통한 치료적 의미

“한번 음하고 한번 양한 것이 도이다.”²⁰⁾

위의 말은 공자(孔子)가 한 말이다. 이것이 어떤 의미일지 그 뜻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이미 공자는 『주역』에서 형이상학적인 측면에서 ‘마음의 닦음과 수양’을 통해 역점을 통한 자기수양과 성찰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말했다. 일반적으로 명리학은 동양 오술(東洋五術) 중 명학(命學)이라 하여 『자미두수(紫微斗數)』처럼 실용 술수의 학문으로서 더욱 알려져 있다. 특히, 음양오행론과 중화론은 우리에게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많은 지혜를 준다.

한마디로 말하면, 절처봉생(絶處逢生)의 의미를 알 수 있다. 내가 바닥을 치는 상황에 있다면, 그것은 마지막이 아닌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는 곳으로서 ‘절망과 희망이 공존 하는 곳’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을 쉽게 정리하자면, 만약 삶의 환경에서 바닥을 칠 정도로 어려운 고비에 있는 사람들은 보통 모든 것을 포기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음양은 끊임없이 돌고 돈다. 그곳은 절망과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기 시작하는 시작점일 수 있다. 그러한 음양오행의 원리를 안다면, 아무리 바닥을 치는 상황이라도 인내하면서 새로운 긍정의 불씨가 일어날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여유를 갖을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은 막무가내로 기다리는 차원이 아니라, 알고 기다리는 것이기 때문이다. 비가 올것 이라고 예상을 하면서 편안한 마음으로 우산을 가지고 집을 나서는 사람과 준비 없이 소나기를 흠뻑 맞는 불상사를 당하는 사람과는 그 마음부터 출발이 다를 수 있다. 이러한 의미로 본다면 명리학 공부 자체는 삶의 지혜를 줄 것이다. 이는 곧 치료적 의미라고 말할 수도 있겠다. 그러한 의미들을 음양오행론과 중화론에서 찾아보자.

20) 『周易』 「繫辭轉」：“一陰一陽之爲道”

1) 음양의 속성

“역(易)에는 태극(太極)이 있으니, 이것이 양의(兩儀)를 낳고 양의는 사상(四象)을 낳고 사상은 팔괘(八卦)를 낳고 팔괘로 길흉(吉凶)을 정한다. 역소(易疎)에 이르기를 태극은 천지가 아직 나뉘기 전으로 원기(元氣)가 섞여서 하나로 되어 있는 것이다.”²¹⁾

앞서 언급한바 있듯이 세상의 모든 사물은 음과 양으로 존재한다. 양원석은 음양의 성질로 다음의 세 가지 특성을 들었다(양원석, 전개서; 한수애, 2010) 첫째, ‘음양의 상대성’(최성수, 2007: 72)이다. 예컨대, 하늘이 있으면 땅이 있고, 낮이 있으면 밤이 있으며, 남편이 있으면 아내가 있다. 또한 어른과 아이, 키가 크고 작고, 뚱뚱하고 날씬하고, 딱딱함과 부드러움 등 대립관계에 있는 것이다. 이처럼 우주의 삼라만상은 음양이란 상대성으로 이루어져 있다.

둘째, ‘음양의 변화성’(최성수, 2007: 72)이다. 예컨대, 연예인들도 천년만년 그 인기가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그들의 인기도가 어느 순간 뚝 떨어진 상태가 되는 경우를 여러 번 보아왔다. 그래서 옛말에도 올라갈 때가 있으면 내려갈 때도 있다고 말했던 것이다.

셋째, ‘음양의 공존성’(최성수, 2007: 72)이다. 음양은 항상 붙어 다니는 성향이 있다. 예컨대, 우리의 신체도 튀어져 나온 부분이 있으면 들어간 곳도 있다. 그리고 머리와 같이 딱딱한 부분이 있으면 물렁물렁한 부분도 있다. 즉 음과 양은 마치 자웅동체(雌雄同體)처럼 함께 있다. 이러한 원리를 확장시키면 행복해 보이는 사람도 반드시 말 못할 고민이나 불행의 씨앗을 지니고 있으며, 흉악범도 마음 속에는 약한 사람을 돕거나 보호하려는 선한 생각도 있다는 이치이다. 예컨대 성격이 무척이나 괴팍하고 신경질적인 사람이 있다고 가정한다면, 그 사람의 내부에는 외면적인 부분과 반대되는 따뜻하거나 부드러운 성정이 있을 수 있는 것이다.

기원전 3세기 만들어진 기(氣)의 관념은 음양의 특성에 의거하여 두 종류의 기(二氣)를 설정함으로써 천지자연(天地自然)의 법칙을 설명하게 되었다. 다시 말해, 음양이

21) 萬民英 (2009). 『三命通會』 「原造化之始」. 臺灣: 武陵出版社.

“易曰 易有太極 是生兩儀 兩儀生四象 四象生八卦 八卦定吉凶 易疎云 太極謂天地 未分之前 元氣混而爲一”

란 암(暗)과 명(明)의 변화를 나타내는 두 가지 요소로서 대자연의 운동법칙인 상대성의 원리로 말할 수 있다. 따라서 음과 양이라는 두 요소의 작용으로 인해 낮과 밤과 사계절이 순환·반복되며, 만물을 낳게도 하고 [生], 늙게도 하고 [老], 병들게 하고 [病], 죽게도 하는 것이다 [死]. 만물의 변화는 곧 음양의 조화인 것이다(김홍경 역, 1983; 노병한, 2005). 이러한 음양오행의 논리를 확장한다면, 나에게 화를 내는 사람에게 오히려 즐겁고 기꺼이 이해하려는 자세를 가질 수 있다.

2) 오행의 상생(相生)과 상극(相剋)

오행은 목·화·토·금·수다. 이 다섯 가지 오행은 상생과 상극작용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여러가지 기능을 하게 된다. 먼저, 오행의 상생작용을 보자.

목은 화를 생하고(木生火), 화는 토를 생하며(火生土), 다시 토는 금을 생하고(土生金), 금은 수를(金生水), 수는 목을 생하게 된다(水生木). 이를 쉽게 설명하면, 목은 땀감으로 불을 일으키는데 도움이 되며, 불이 모두 타고 나면 재가 남듯이 토인 흙이 생기게 된다. 이러한 방식으로 토는 다시 굳어져 바위인 금의 성분이 되며, 산골짜기에 비가 내리면 바위들을 통해 침수했다가 암반수가 생성이 되는 것처럼 금을 통해 광물질이 풍부한 수(水)가 이루어진다.

박청화(2005, 2014, 2015) 식으로 표현하면, 이러한 원리는 자연현상의 법칙을 말하면서 좀더 형이상학적인 의미를 갖는다. 목(木)은 나무의 운동이라 할 수 있는데, 이러한 목운동의 극단에는 화(火)운동이 일어나고, 화운동의 극단에는 토(土)로 간다. 다시 토운동이 극단에 이르면 금(金)운동, 금운동의 극단은 다시 수(水)의 운동으로 나아간다는 것이다. 이러한 원리는 자연법칙의 규칙적인 운동성이라고 말할 수 있다. 여기서 목은 솟구치고 활력적이듯 ‘치솟아 오르는 기운’을 의미하는데 사계절로 본다면, 봄(春)의 운동성을 말한다. 그리고 화는 ‘꽃이 피어나는 형상’으로 설명할 수 있어서 여름(夏)으로 말할 수 있다. 그리고 금은 다시 응축하고 마치 나무에 비유한다면 ‘열매를 맺는 형상’과 같은 기운으로서 가을(秋)의 속성과 같다. 마지막으로 수는 ‘저장하고 모으고 가뉘두는 기의 흐름’이라 할 수 있는데, 그것은 겨울(冬)의 운동성으로 말할 수 있다. 일명 목·화·토·금·수 오행이란 사물이 계절의 방향성을 가지고 움직이고 변화하는 춘하추동(春夏秋冬)의 운동성을 의미한다. 이처럼 모든 사물은 춘하추동과 같

은 규칙성과 방향성을 갖는다. 이는 곧 어떤 일이나 행동의 시작은 일정한 우여곡절을 거치지만 끝이 나고 치료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내가 처한 상황이 바닥을 치는 상황이라면 그곳은 절처봉생(絶處奉生) 하는 자리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원리를 아는 것만으로도 치료적 요소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은 오행의 상극작용을 보자.

목은 토를 극하고(木剋土) 토는 수를 극한다(土剋水). 다시 수는 화를 극하고(水剋火) 화는 금을 극하는 원리이다(火剋金). 마지막으로 금은 목을 극하면서(金剋木) 상극작용을 통해 통제하는 기능을 한다. 물상적 자연현상으로 설명하자면, 나무인 목은 땅인 흙을 헤집고 나오므로 목극토라 하였으며, 토는 수의 범람을 막을 수 있으므로 토극수라 한다. 다시 수는 불을 끌 수 있으므로 수극화, 화는 금을 녹일 수 있는 기운이므로 화가 금을 극한다고 하여 화극금이라고 표현한다.

기(氣)적인 의미로 본다면, 토(土)는 봄, 여름의 양운동이 극단으로 상승하는 것을 잡아서 양운동과 음운동을 중매하는 자리로서 그 형상으로 표현할 수 있다. 이렇게 토는 가두려는 기운으로서 더이상 극단으로 가지 않도록 만들지만 목은 이러한 토의 기운을 뚫고 땅 밖으로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목극토이다. 토의 기운은 양기가 크므로 수의 기운을 전부 들어 올리면서 극단인 천장에 맺게 한다. 그런 의미로 토극수로서 토는 수를 통제한다고 하여 토극수라고 말한다. 수는 겨울의 기운으로 여름에 발산하는 화의 양한 기운을 더이상 올라가지 못하게 하므로 수극화이다. 다시 화는 금의 강함을 녹이면서 제어가 가능하다 하여 화극금이라 한다. 마지막으로 목의 솟구치는 형상을 제어하기 위해 도끼의 성정과도 같은 금의 기운이 과하게 솟구치는 형상을 더이상 펼치지 못하도록 조절하므로 금의 성질이 목을 통제할 수 있어서 금극목(金剋木)이라 한다. 이처럼 모든 사물은 음양오행의 원리처럼 서로 어울어지면서 상생과 상극을 하며 돌고 돈다(한동석, 1966; 박청화, 2005). 오행은 『상서』, 「홍범」에서 오행의 분류와 성질 및 역할에 대해 말해진다(한지연, 2018).

“첫째 오행이라는 것은 첫째는 물이고, 둘째는 불이고, 세 째는 나무이고, 네째는 쇠이고 다섯째는 흙이다. 물은 <윤하성을 지녀> 아래로 젖어들고, 불은 <연상성을 지녀> 위로 타오르고, 나무는 <곡직성을 지녀> 굽거나 뺨는 것이고, 쇠는 <중혁성을 지녀> 주변 상황에 따라 따르거나 바뀌는 것이고, 토는 <가색

성을 지녀> 식물을 심어 가꾸어서 거두는 것이다. 아래로 젖어 들어 짠맛을 만들고, 위로 타올라 쓴맛을 만들고, 굽으면서 곧아 신맛을 만들고, 따르거나 바뀌면서 매운맛을 만들고, 심고 거두어 단맛을 만든다.”²²⁾

오행은 목·화·토·금·수가 지니는 성정과 더불어 맛을 표현하기도 하는 등 자연의 이치를 그대로 옮겨 놓았다.

“오행의 상생(相生)은 금생수(金生水), 수생목(水生木), 목생화(木生火), 화생토(火生土), 토생금(土生金)이며,... 나를 생하는 사람은 부모이고, 내가 생하는 자는 자손이다.”²³⁾

목은 화를 생해 주므로 어머니인 모(母)로 표현이 가능하며, 화는 어머니의 기운을 설기시키는 역할을 하므로 자식의 개념으로서 자(子)로 말할 수 있다. 여기서 목은 모요, 화는 자식으로써 자에 해당한다. 여기서 모자(母子)관계가 성립한다.

“목은 동쪽을 관장하고 봄에 해당한다. ... 수는 동쪽을 향해 흘러 목을 생한다. 목은 위로 발현하여서 다시 아래로 발현한다. 이것이 자연의 본질이다. 화는 남쪽을 관장하고 여름에 해당하며 변화를 태우는 것을 말한다. 양기가 위에 있고 음기가 아래에 있는데 태워서 무성하여져서 만물을 변화시킨다. 나무를 뚫어서 불을 취하고 목이 생하는 것이다. ... 금은 서쪽을 관장하고 가을에 해당하며 금지하는 것을 말한다. 음기가 시작하여 만물을 금지시키고 모아서 거두는 것이다. ...수는 북쪽을 관장하고 겨울에 해당하고 윤택한 것을 말하는데, 음기가 적셔지고 윤택하여 임무는 만물을 기르는 것이다. ...토는 중앙에서 주로 겹하여 서쪽과 남쪽에 자리하며 긴 여름(장하:음력 6월)에 해당하고 토하는 것을 말한다. 만물을 머금고 토하면서 생한 것을 나오게 하고 죽은 것을 돌아가게 하여 만물의 지체가 된다.”²⁴⁾

22) 『尙書』 「洪範」: “一, 五行, 一曰水 二曰火 三曰木 四曰金 五曰土 水曰潤下 火曰炎上 木曰曲直 金曰從革 土爰稼穡. 潤下作鹹 炎上作苦 曲直作酸 從革作辛 稼穡作甘.”

23) 徐 升 (2011). 『연해자평(淵海子平)』 「論五行相生相剋」. 臺灣: 武陵出版社.

“論五行相生 金生水 水生木 木生火 火生土 土生金. 生我者爲父母 我生者爲子孫.”

24) 『三命通會』, 「論五行生剋」 “木主於東應春...水流趨東以生木也. 木上發而覆下, 乃自然之質也. 火主于南 應夏. 火之爲言化也, 毀也, 陽在上. 陰在下毀然盛而變化萬物也 鑽木取火, 金主于西, 應秋. 金之爲言禁也, 陰氣始禁止萬物而收斂, ...水主于北, 應冬. 水之爲言潤也. 陰氣濡潤, 任養萬物也... 土

오행은 앞서 언급한바 있듯이 성정, 맛에 대한 표현 뿐만 아니라, 계절의 형상도 언급하고 있다. 이 이외에도 숫자, 방위, 오장육부, 천간과 지지 등 여러 함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천간의 음양오행 작용

“목은 동방의 시작이고, 양기가 처음으로 동하여, 나무가 껍질을 쪼개고 나오는 부갑(浮甲)의 형상이다. 을은 봄에 초목이 억눌려서 굽어 나오는 모습을 본뜨고 있으니, 음기가 아직 강하여, 그 나오는 상태가 구부러져 있는 것이다. <아래로 부터 통하는> ‘|’과 같은 뜻이다. 을은 갑을 이어 사람의 목을 본뜨고 있다. 병(丙)은 남방으로 만물이 성숙되어 음기(陰氣)가 나오기 시작하고, 양기(陽氣)가 이그러지기 시작하려 한다. 종일입문(從一入門)하니 일자(一者)는 양(陽)이라, 병은 을(乙)을 이어 사람의 어깨를 나타내고, 정(丁)은 여름에 만물이 썩썩하게 자라 충실(充實)해지는 때이다.

무(戊)는 기(己)와 함께 오행에서 중궁(中宮)인 토(土)에 속한다. <소전(小篆)의 무자(戊字)는> 육갑(六甲)과 오룡(五龍) [五行]이 서로 잡고 엮어서 꼬여진 모습을 하고 있다. 기(己)는 중궁으로 만물이 반벽(盤壁)하여 수렴하는 모습으로 글자의 모습은 결굴(結誦)되어 있는 형태를 하고 있다. 경(庚)은 서방으로 가을에 만물이 단단하게 열매를 맺는 것이다. 신(辛)은 가을에 만물이 성숙하는 것이다. 금은 강하고 맛은 맵고, 매우면 눈물이 난다는 것이다.

임(壬)은 북방으로 음이 극도에 이르러 양이 생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역의 곤(坤) 상육효(上六爻)에서 ‘용이 들에서 싸운다.’라고 하였으니 전(戰)이라는 말은 접(接)한다는 뜻으로, 음이 극하여 양이 계승하는 것이다. 사람이 임신한 모습을 본떴다. 해(亥)는 임(壬)을 이어서 자식이 태어나는 차례이다. 임이 무(巫)와 같은 뜻이라는 것은 무(巫)는 사람이 양소매로 춤추는 모습을 본떴고, 임은 사람의 배가 커진 모습을 본뜬 것이다. 임은 신(辛)을 이어서 사람의 장딴지를 상징하니, 장딴지는 임신한 것처럼 불룩 튀어 나왔다. 계(癸)는 겨울에 수토가 활동을 그치고 고요히 있어 새로운 봄을 맞아 다시 생명을 소생할 것을 헤아릴 만하니 물이 서방으로부터 땅속으로 유인(流人)되는 모습을 본뜨고 있다.”²⁵⁾

그림 IV- 1.을 보면 천간의 운동속성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主於中央, 兼位西南, 應于長夏. 土之爲言吐也, 含吐萬物, 將生者出, 將死者歸, 爲萬物家,”

25) 『設文解字』, 「甲部」; 한지연 (2018). 음양오행과 천간지지의 명리적 적용에 관한 연구. 대구한의대학교대학원, 문학석사학위논문. p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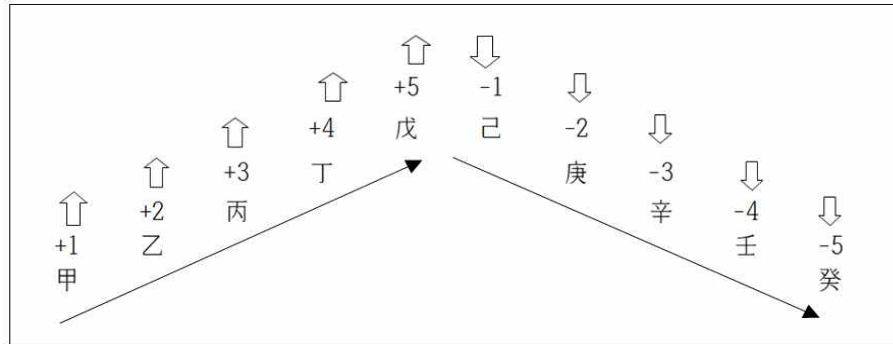


그림 IV- 1. 천간(天干)의 운동 속성(박청화, 2005: 243)

그림 IV- 1.에 대해 박청화(2005)는 천간(天干)의 운동적 속성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천간은 갑·을·병·정·무·기·경·신·임·계(甲·乙·丙·丁·戊·己·庚·辛·壬·癸)로 10개가 있다. 갑(甲)은 1양(一陽)의 힘으로 위로 솟아 오르려는 형상이며, 을(乙)은 갑의 솟아오르려는 기운이 다하면 이어서 을이라는 물상적 운동성이 생기는데, 을은 2양(二陽)의 힘으로 운동성으로 진행한다. 마치 을의 글자 모양처럼 나무에 새싹이 피어나면 이제 가지가 생겨 나가는 형상으로 볼 수 있다. 병(丙)은 3양(三陽)으로 정(丁)은 4양(四陽)의 운동성이다. 이는 꽃이 피는 상황으로 설명이 가능하다. 갑에서 시작한 운동성은 갑·을·병·정(甲·乙·丙·丁)을 거쳐 최극단인 무토(戊土)까지 이르게 된다. 마치 더는 뛰어 넘을 수 없는 마지막 극단으로 제한속의 무한인 “초한무한(transfinite)”(김상일, 2005, 최성수, 2007: 74)의 상태로 볼 수 있다.

이는 마치 끓는 냄비의 물이 가열로 인해 정점에 이르게 되는 형상으로 냄비뚜껑이 압력을 받으며 누르고 있는 모양으로 설명할 수 있다. 무토의 상황은 이처럼 냄비의 뚜껑에 수증기가 맺고 있듯이 수(水)의 기운을 모두 끌어당기는 역할을 한다. 이미 언급했듯이 토극수(土剋水)라 하여 토는 수를 극할 수 있는 원리인 것이다. 정점에 이르면 자연의 현상처럼 그 기운은 더 이상 오르지 못하고 이제 양운동은 종식되고 음운동이 시작된다. 이는 일종의 주객전도와 같은 현상으로 마치 애벌레가 나비로 변신하는 창발성(創發性: Emergence Properties)의 원리라고도 말한다(최성수, 2007: 75).

최극단까지 치달은 양의 운동속성은 다시 무, 기토를 정점으로 음의 작용으로 하강하는 흐름을 갖게된다. 그 작용은 기·경·신·임·계(己·庚·辛·壬·癸)인 것이다. 나무에 비유하면, 어느덧 꽃도 피고 꽃이 지고 나면 초록의 무성함이 다하게 되고 과

실수는 꽃이 저버린 자리에 열매를 키우기 위해 정진을 하게 된다. 경금(庚金)은 그러한 역할을 하면서 내부적으로 열매가 무르익을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한다. 유금(酉金)은 그러한 열매를 이제 수확하고 거두는 작용을 하는 이치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임(壬)과 계(癸)인 수(水)의 운동성은 그러한 열매를 저장하고 가두는 형상으로 표현이 가능하다. 이러한 방식으로 나무가 1년간 춘하추동(春夏秋冬)을 거치며 자라기 시작해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낙엽이 지고를 매해마다 반복한다.

인간의 삶도 이처럼 천간의 흐름을 맞이한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명리학은 이러한 자연현상을 근거로 인간의 태어난 생년·월·일·시의 천간의 기운과 지지(地支)의 기운인 사주팔자를 가지고 그 운기를 예측하는 학문이기 때문에 이러한 운동적 속성을 이해하는 것은 중요하다. 이러한 법칙을 이해하면서 좀 더 확장시켜 인간삶에 대해 입해 본다면, 지금 처해진 불운한 상황이 언제쯤 끝날 것인지 암담하기만 한 내담자에게는 희소식이 아닐 수 없다. 왜냐하면 자신의 운명을 예측해 볼 수 있기 때문이고, 무슨 일이든 시작을 하면 그 기운은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끝이 난다는 원리가 생긴다. 기다릴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것이다. 무한정 손꼽아 기다리는 것과 계절의 주기성을 알면서 때를 기다리는 것과는 사뭇 다를 것이다. 이러한 차원이라면 미리 우산을 준비하는 마음으로서 삶에 대한 태도 면에서 여유가 생길 수 있다. 그것은 소위 상담적 차원과 연결한다면 ‘치료적 의미’로 다가온다. 이러한 작용은 지속적으로 양은 음으로 음은 양의 단계로 변화하면서 상생(相生)과 상극(相剋)을 한다. “한번 양하고 한번 음한 것이 도이다.” 라고 말한 공자의 말을 음미할 수 있을 것이다.

4) 지지(地支)의 음양오행 작용

지지의 운동성도 천간의 운동성과 마찬가지로의 원리이다. 지지는 12지지라 하여 자·축·인·묘·진·사·오·미·신·유·술·해가 있다. 이러한 12지지는 12개월을 의미한다. 다음 그림 IV- 2. 을 살펴보자. 그림 IV- 2. 는 지지(地支)의 운동 속성을 말해준다. 이것은 음력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음력 1-3월은 봄, 4-6월은 여름, 7-9월은 가을, 10-12월은 겨울로 표현할 수 있다. 자월(子月)인 음력 11월은 24절기 중 동지(冬至)가 된다. 동지부터는 밤의 길이 보다 낮의 길이가 길어지기 시작한다는 것은 이미 알고 있을 것이다. 즉 어둠 속에서 1양(一陽)의 기운이 태동하는 시기임을 알 수 있다. 음력

12월인 축월(丑月)은 2양(二陽), 인월(寅月)은 3양(三陽), 묘월(卯月)은 4양(四陽), 진월(辰月)은 5양(五陽), 음력 사월(巳月)은 육양지처(六陽之處)로서 양한 기운이 가장 극에 다다른 시기이다. 다시 오월(午月)은 1음(一陰)이 생기게 되는데, 이때는 절기상 하지(夏至)가 되면서 다시 길었던 낮의 길이보다는 밤의 길이가 길어지기 시작한다. 다시 미월(未月)은 2음(二陰), 신월(申月)은 3음(三陰), 유월(酉月)은 4음(四陰), 술월(戌月)은 5음(五陰), 해월(亥月)은 육음지처(六陰之處)로서 음기가 극에 이르는 시기라고 말할 수 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1월	2월	3월	4월	오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寅	卯	辰	巳	午	未	申	酉	戌	亥	子	丑
+3	+4	+5	+6	-1	-2	-3	-4	-5	-6	+1	+2

그림 IV- 2. 지지(地支)의 운동 속성(박청화, 2005 : 232).

그림 IV- 2.의 십이지지를 주역괘로 보면, 확연히 지지의 규칙적인 운동속성을 발견할 수 있다. 우리가 수학시간에 배운 싸인 곡선처럼 주기적인 방향성을 갖는다. 그러므로 사주팔자 여덟 글자에서 일간인 주인공이 어떤 계절에 태어났는지 사주를 분석하는 일은 중요하다. 그러한 논리는 만약 갑이라는 일간이 1년 12개월 중 봄에 태어난 나무인지 한 여름에 태어난 나무인지, 가을인지 혹은 겨울인지에 따라 성격 성향, 직업 속성 등 많은 차이를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사주팔자 여덟글자에서 월지(月支)의 중요성이 그만큼 크다는 의미이다. 일간이 태어난 달인 월지(月支)는 사주분석시 사회적 격(格)과 활동을 알 수 있는 곳이므로 사주의 주인공인 일간에게 많은 정보를 주는 곳이기도 하다. 명리학의 이론을 모른다고 할지라도 위의 운동성을 보면서 인간의 삶에 대입이 가능하다. 그 사람의 성격 성향, 직업 속성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내담자의 정보를 유추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먼저 성격·성향적으로 접근해 보자.

예컨대, 어떤 사람이 지지에 인묘진(寅卯辰)처럼 봄의 인자를 가지고 태어났다고 가정해 보자. 앞의 천간(天干)처럼 봄의 기운은 오행 중 나무의 속성으로서 목의 기능

을 하게 될 것이다. 목은 위로 솟아오르고 길러내고 쌓아 올리는 등의 물상적 개념으로 설명이 가능하다. 인월은 삼양삼음지처(三陽三陰之處)로서 양함과 음함이 반반씩 조화롭게 걸려있어서 크게 극단을 치닫는 속성은 아닐 것이다. 인(寅)이라는 글자의 속성상 호랑이라는 동물적 특성이 있을 것이고, 인(寅)은 인오술(寅午戌) 삼합(三合)의 운동인 화기운이 태동하는 시작하는 인자이므로 전성기나 완성의 역할보다 선발대와 같은 역할을 잘할 수 있다. 또한 역마성이 있어 분주히 움직이는 형상으로 설명이 가능하다.

만약 사(巳)는 육양지처(六陽之處)로서 그 운동성이 빠를 것이라고 예측이 가능하다. 왜냐하면 육양지처로서 마지막 양기가 극에 다다른 상태이기 때문에 일음으로 변모하기 위한 물밑 작업이 많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한 글자를 여럿 지닌 사람이라면 행동 특성도 빠르고 다각적으로 기능하는 사람일 수도 있을 것이다. 반대로 해(亥)라는 육음지처의 글자 속성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러한 사(巳)의 기운을 가진 사람과는 극과 극인 상황일 수 있으므로 관계 면에서 여러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을 것이다. 반대되는 성격의 소지자라면 부딪힐 수도 있으나, 오히려 서로 부족한 부분은 보완하고 보충하는 관계일 수 있기 때문에 나쁘지 않을 수 있다.

물론 단편적으로 글자 한자를 가지고 인간의 성격성향을 예측할 수는 없을 것이다. 여러 지지와 지지끼리의 합, 형, 충 등을 통한 글자끼리의 조합을 우선 보아야만 할 것이다. 이처럼 지지 글자의 운동적 속성만으로도 상대방의 성격 성향이나 특성을 이해할 수 있다면 “지피지기 백전백승(知彼知己 百戰百勝)”으로 나를 알고 남을 알면 백번 전쟁에 나가서도 백번을 이긴 다는 말이다. 이러한 측면은 자기이해 및 타인이해가 가능할 수 있으므로 치료적 의미면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나. 중화론을 통한 치료적 의미

1) 『적천수(適天隨)』의 중화론

이번 장에서는 음양오행론과 더불어 사주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중화론이 명리 고전 문헌 속에서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지 그 의미를 파악해 볼 것이다. 중화론은 육친성의 강약을 판별하는데 필요하다. 중화론은 명리학의 요체로서 사주구조 속에서 일간의 강약에 따라 약하면 일간을 돕는 용신이 필요하고 일간이 강하면 이를 제지할 수 있는 용신의 역할을 통해 사주의 균형을 맞추는 일이다.

“사주 중에 오행이 조화되고 용신(用神), 병신(病神), 약신(藥神) 등의 구조가 중도를 지키고 있으면 이것을 중화라고 한다. 즉 일주가 약하지 않고 용신이 유기하며 천간과 지지가 서로 생조(生助)해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유정하여 한자 한자가 그 정신이 뚜렷하고 기화원결(氣和團結)하여 한중유운(寒中有溫)하고 열중유윤(熱中有潤)하여 충파(沖波)가 없으면 대부대귀할 사주로서 길운을 만나면 발달하며 불길한 운을 만나더라도 대화(大禍)는 없다.”²⁶⁾

적천수의 중화론에서는 다음과 같이 논하고 있다.

“중화의 참다운 이치를 알면 오행의 묘리를 능히 말할 수 있다.”²⁷⁾

이는 체용(體用), 정신(精神), 쇠왕(衰旺), 중화(中和) 등의 개념을 알고 이해하게 되면 오행에 대한 역부의 희기(喜忌)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중화를 잘 이룬 사주를 보자.

26) 박재완 (1985). 『명리요강』, 서울: 역문관서우회, 94-95.

27) 김찬동 (2008). 적천수정설. 삼한출판사, 389-390: “能識中和之定理, 而於五行之妙, 有全能言”

【원문예시 IV- 1】 중화를 잘 이룬 사주²⁸⁾

시일월년

戊甲甲甲

辰子戌戌

戊己庚辛壬癸

辰巳午未申酉

위 사주는 갑목(甲木) 일간(日干)이 술월(戌月)에 출생하였다. 편재격(偏財格)의 사주가 비견이 강하게 투간(透干)하여 매우 흥한 명으로 보인다. 그러나 목오행과 토오행이 중화를 잘 이루어 신왕재왕(身旺財旺)한 사주가 되니 부유한 명이 되었다.

【원문예시 IV- 2】 중화를 이루지 못한 사주²⁹⁾

시일월년

庚庚丁乙

辰戌亥丑

辛壬癸甲乙丙

巳午未申酉戌

위의 사주는 경금(庚金) 일간이 해월(亥月)에 출생하니 한습(寒濕)하다. 천간에 경금이 둘 있고 지지에 축(丑), 술(戌), 진(辰)으로 인성(印星)이 강하여 신강하므로 년간의 정화(丁火)로 억부 및 조후용신하고 을목(乙木)으로 정화를 도우니 매우 좋은 사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해월의 을목은 무력하여 해월의 정화를 생조(生助)할 수 없으니 무력한 정화가 일간을 통제하는 것이 불가하다. 이 사람은 도박으로 전재산을 탕진하고 길거리를 나다닐 수도 없었던 사람이다.

28) 鮑黎明 (1995). 적천수 완전풀이. 예원, 96

29) 鮑黎明 (1995). 적천수 완전풀이. 예원, 96-99.

궁극적으로 적천수의 중심사상은 중화에 있다. 운명의 부귀빈천(富貴貧賤)과 길흉수요(吉凶壽夭)도 중화에서 오는 것이니 중화는 명리학의 핵심사상으로 말할 수 있을 것이다(박재범, 2018: 23). 일반적으로 사주가 중화를 이루면 부귀하고 순탄하며, 반대로 중화를 잃으면 빈천하고 곤궁하다.

이와 같이 중화는 인명(人命)의 거의 모든 부분을 관장하는 중요한 개념인데 그 대상과 원리는 사주팔자의 음양오행이나 한난조습(寒暖燥濕)의 균형을 맞추어 조화롭게 하는 것이다. 이는 음양오행 간에 강한 것은 덜어내고 약한 것은 더해주니 역부이며 사주가 조열하거나 한습하면 중화를 잃으니 이를 조화롭게 하는 것이 조후이고 또한 만약 수(水)와 화(火)가 서로 대치를 이룰 때는 목(木)으로서 소통을 시키니 이는 곧 통관(通關)이며 사주에 어느 한 오행이 태과하여 병(病)이 될 때, 이를 극제하여 다스리니 약(藥)이 되므로 이와 같이 일반적으로 평행을 이루어 조화롭게 하는 것이 중화인 것이다(고순택, 2012).

2) 『삼명통회(三命通會)』의 중화론

만민영은 중화의 개념을 저울의 평평한 상태에 비유하여 설명한다

“마치 인간 세상을 저울질 하는 것과 같으니 수평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다. 조그만 경중의 차이가 있어도 수평이 되지 않는다. 인생 팔자는 선천의 기운이 되는데 비유하면 저울추와 같다. 이것이 바로 수평을 쓰는 의미이다.”³⁰⁾

“오행은 중화를 이룬 것을 증시하니 하나라도 치우치거나 부족하면 불가한 것이니 부족 한 것을 돕고 지나친 것은 억제하고 요점은 중화가 되도록 하면 길하다.”³¹⁾

30) 만민영, 『삼명 통회(三命通會)』 자평설변(子平說辯).

“如人世用秤稱物 以平爲準 稍有重輕 則不平焉 人生八子 爲先天之氣 譬則坪也,此用平之意也.”

31) 萬民英 (2009). 『三命通會』臺灣: 武陵出版社, p.355.

“五行俱要中和 一物不可偏枯 或補其不足 或挾其太過 要造化中和爲吉”

“병이 있어야 바야흐로 귀하게 되는 것이며 상함이 없는 것이 기이한 것이 아니다. 격(格) 중에서 병을 제거하면, 재물과 복록이 따른다. 중화이론으로 보면 치우친 사주가 중화가 될 때 비로서 부귀해진다는 사실이다.”³²⁾

3) 『연해자평(淵海子平)』의 중화론

“대저 사람이 나면 재관록마로써 귀함을 삼는데 그 중화의 기는 복의 두터움을 말하고 치우친 편당의 기는 재앙이 된다.”³³⁾

“오행은 너무 지나치면 안되고 팔자는 모름지기 중화를 얻어야 한다.”³⁴⁾

다음의 예를 살펴보자.

【원문예시 IV- 3】³⁵⁾

시일월년

癸丙庚辛

巳子子巳

癸甲乙丙丁戊己

巳午未申酉戌亥

이 사주는 관성(官星)이 왕하니 병신대운(丙申大運)에 병화(丙火)가 신금(申金)에 임하여 살중(煞重)하게 되니 갑자년 10월에 죽었다. 상기의 명조는 병화(丙火) 일주가 자월(子月)에 생하여 수세가 당권하고 천간에 경신금이 수(水)를 생하고 년지(年支)와 시지(時支)의 사화(巳火)가 금(金)을 생한다. 시상의 계수(癸水)는 지지(地支)에 있는

32) 위의 책, “有病方爲貴 無傷不是奇 格中如去病 財祿喜相隨”

33) 徐升 (2011) 『연해자평(淵海子平)』

“大抵人生以財官祿馬爲貴, 取其中和之氣爲福厚, 偏黨之剋爲殃.”

34) 徐升 (2011). 『淵海子平』, 「五行原理消息賦」, 臺灣: 武陵出版社.

“五行不可太甚, 八子須得中和.”

35) 위의 책, 「喜忌論」, 臺灣: 武陵出版社.

“辛巳 庚子 丙子 癸巳 此八子官旺行 丙申丙臨申爲殺重之位, 甲子年 十月, 不祿.”

자수(子水)에 통근되고 금으로부터 생조를 받으니 수(水)가 왕(旺)하다. 그러므로 목, 화가 용신이다.

사주에 목(木)이 없으니 왕한 수를 화하지 못하고 관중신경(官重身輕)의 신약한 사주가 되었다. 병신(丙申) 대운에 금이 왕해지니 수가 더욱 기승을 부려 왕수와 신자수국(申子水局)하고 일간이 뿌리가 되는 사화(巳火)가 사신합(巳申合)으로 수(水)로 변화하였다. 그러한 이유로 일간은 의지를 하지 못하고, 물이 넘치게 되므로 점점 쇠약해져서 갑자년(甲子年) 해월(亥月)에 갑목(甲木)이 들어오지만, 경금이 극제를 하여 왕수를 감당하지 못하고 44세 젊은 나이에 사망하였다. 위에서 설명하기를 일간이 쇠약한데 다만 운이 관왕지로 행하면 오히려 화가 된다고 하였는데, 중화가 되지 않으면 왕한 오행(五行)이 더욱 왕해질 때 오행이 중화를 잃어 흉하게 되니 이 사주가 그렇다(서준원, 2013).

이처럼 사주에 병이 있는데 그것을 치료할 수 있고 통제가 가능한 오행이 있다면 약을 구할 수 있는 형국이 되는 것이다. 그러한 사주는 강함을 누그러뜨리고 사주의 균형인 ‘중화’를 얻을 수 있으므로 귀한 사주가 될 것이다.

“인명의 영고득실(榮枯得失)은 모두가 오행의 생극에 있으니 부귀빈천 또한 팔자의 중화를 떠나서 있는 것이 아니다. 먼저 절기의 심천(深淺)을 살피고 다음으로 재관(財官)의 향배를 살펴야 한다.”³⁶⁾

4) 『자평진전평주(子平眞詮評註)』의 중화론

“비유컨대, 영웅호걸이 때를 얻는 것과 같아 그 때를 얻으면 자연히 적은 노력으로 많은 효과를 거두지만, 때를 얻지 못하면 비록 기이한 재주가 있을지라도 성공하기 쉽지 않은 것이다.”³⁷⁾

36) 徐升, 『淵海子平』, 「碧淵賦」.

“人命榮枯得失 盡在五行生剋之中 富貴貧賤, 不出乎八子中和之外, 先觀氣節之淺深, 後看財官向背”

37) 徐樂吾, 『子平眞詮評註』, 「論用神配氣候得失」.

“譬如 英雄豪傑 生得其時 自然事半功倍 遭時不順 雖有奇才 成功不易”

【원문예시 IV- 4】 장퇴엄(張退嚴)의 사주³⁸⁾

시일월년

辛壬己辛

午午亥亥

壬癸甲乙丙丁戊

辰巳午未申酉戌

비록 기토(己土)인 정관(正官)이 천간에 투출하였으나, 일지 오화(午火)의 지장간에 정화가 없었다면 무용지물이 되었을 것이다. 또한 조후(調候)의 원리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병약용신은 본래의 사주에 병을 제거하는 약이 없으면 대운에서 약이 오기를 기다려 비로소 발달하는데, 조후용신 또한 그러하다. 아마도 격국(格局)이 변화하는 경우에 이런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원문예시 IV- 5】 대만의 재무부 장관을 지낸 왕극민의 사주³⁹⁾

시일월년

乙壬壬丙

巳申辰子

戊丁丙乙甲癸

戌酉申未午巳

위의 사주는 임수(壬水) 일간이 진월(辰月)에 출생하여 지지에 신자진(申子辰) 수국(水局)을 이루고 비견 임수가 월간(月干)에 투출하여 비견격으로 너무 신강(身強)하다. 비견격은 관성을 극제하거나 관성이 없을 때는 식상으로 설기(洩氣)하여 성격(成格)을 시키니 시간에 투출한 을목(乙木)을 상신으로 삼는다.

38) 徐樂吾. 『子平眞詮評註』, 「用神論」:

“雖己土官星透干 無午支丁火 則官星無用 亦調候之意 乃南通張退嚴命造 病藥用神如原局無去病之神 必須運程彌敷缺 方得發展 調候亦然 倘格局轉變則不在此例.”

39) 심효침 저, 서락오 평주, 박영창 역 (2007). 『자평진전평주』, 서울: 청학출판사, p119.

【원문예시 IV- 6】 대만의 재무부 장관을 지낸 왕극민의 사주⁴⁰⁾

시일월년

乙癸丁己

卯丑丑卯

戊丁丙乙甲癸

戌酉申未午巳

위 사주는 계수(癸水) 일간이 축월(丑月)에 출생하고 년간의 기토(己土)가 투출하여 편관격(偏官格)이다. 편관격은 4대 흉신이므로 을목 식신을 상신으로 삼아 칠살을 억제 하여야 한다. 월령의 살이 너무 강하여 역용하는 것을 상신으로 삼는 경우이다.

【원문예시 IV- 7】 구응(救應)의 사주⁴¹⁾

년월일시

丁庚己丁

亥子酉巳

癸甲乙丙丁戊

卯辰巳午未申

위의 사주는 경금 일간이 유월 출생하여 양인격으로 정화 정관을 용신으로 삼아야 한다. 그러나 정관이 좌우로 중첩되어 귀할 수 없다. 그런데 년간의 정관 정화가 기토를 사이에 두고 일간과 떨어져 관인상생(官印相生)이 되어 정관의 중첩으로 인한 혼잡을 면하게 되었다. 이 사주에서는 기토(己土)가 구응지신(救應之神)이다.

40) 심효첩 저, 서락오 평주, 박영창 역 (2007). 『자평진진평주』, 서울: 청학출판사, p119.

41) 심효첩 저, 서락오 평주, 박영창 역(2007). 자평진진 평주, 서울: 청학출판사, p149.

“무릇 팔자에서는 중화(中和)를 이루어야만 귀하게 되는 것이며, 한쪽으로 편중되어 왕성하고, 조화롭게 배합하는 신이 없으면 비록 성격(成格)이 되고 성국(成局)을 이룬다 하더라도 역시 좋은 격이 되지 않는 것이다.”⁴²⁾

이상으로 명리고전 속에 있는 사주의 균형인 중화가 어떠한 치료적 의미가 있는지를 밝혔다. 명리학의 중화론은 스스로 자신을 해체하여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기준점을 제시한다(심귀득, 2011). 중화를 맞추는 일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사주의 주인공 일간이 이러한 원리를 안다면 성격 성향적 약점이든, 부족한 부분을 메우고 균형을 잡기 위해 노력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비록 사주원국, 대운, 세운 어디에도 중화를 맞출 수 있는 성분으로 용신이 없다고 하더라도 인위적으로라도 노력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말은 그 자체로서 이미 치료의 의미와 성격을 갖는다고 말할 수 있다. 이는 기존의 나의 모습과 다른 생각의 변화를 주었기 때문이다. 그로 인해 나 자신에 대한 이해와 통찰과 더불어 가족이나 친구 등 사회적 환경 속에서 자신의 가치를 갖고 조화롭게 대처해 가면서 자아실현을 할 수 있는 지혜를 갖을 수 있기 때문이다.

앞의 내용을 정리하면, 명리학이라는 학문은 음양오행론과 더불어 중화론을 통해 사주의 균형인 중화를 이루기 위해 어떤 심리검사보다도 주체적·능동적으로 자신을 성찰하여 자기 스스로 문제의 해결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게 한다. 명리학의 사주 분석을 통한 자료들은 결론론적인 점(占)의 판단자료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행동패턴과 고통 등이 어떤 성향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인지를 해석하는데 활용할 수 있다. 나의 삶에 도움이 되는 성향이 어떤 성향이고, 내 고통의 원인이 되는 성향은 어떤 것인지를 스스로 찾아보고 해석해 볼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내 사주에 병이 있다면, 그것을 알고 약을 찾아서 대처하는 지혜를 준다. 그러한 이치를 아는 것만으로도 ‘치료적 의미’의 차원으로 해석이 가능하며, 한걸음 더 나아가 동양식의 구체적 수행법도 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심귀득, 2011).

42) 徐樂吾 (1989). 『子平眞詮平柱』 臺灣: 武陵出版社, p14.“凡八字必以中和爲貴 偏旺一方 而無調劑之神 有成格成局 亦不爲美”

2. 『주역』 ‘상황점’과 명리학 ‘운명점’

앞에서는 명리학의 음양론과 중화론을 통해 어떠한 치료적 의미가 있는지 고찰해 보았다. 일반인들이 그러한 이론들을 쉽게 이해하는데 제약이 있을 수 있어서 이해를 돕기 위해 이번 장에서는 명리학의 다른 차원으로서 치료적 의미를 소개해 볼 것이다. 여기서는 최근 서양상담의 심리치료로 성행하고 있는 마음챙김기반 인지행동치료인 수용전념치료(Acceptance Commitment Therapy)적 관점에서 본 주역의 ‘상황점’과 명리학의 ‘운명점’의 치료적 의미를 살펴볼 것이다. 수용전념치료(ACT)는 동양 초기불교의 사띠(Sati)의 개념(정준영, 박성현, 2010; 신진욱, 2007)을 바탕으로 존 카바진(Jon. Kabat-zinn, 1982, 1994)이 창시한 ‘마음챙김’으로서 고급 인지치료 중 하나이다. 이 방법은 비합리적 신념체제(believe system)를 논박하는 기존의 인지치료와는 달리 탈융합, 수용, 맥락적 자기, 현재와 접촉하기, 가치 및 전념에 이르기까지 인지의 탈융합 과정을 벗어난 메타인지 방법이다. 이는 의식수준의 변환이라 할 수 있는 수용(Acceptance)을 통해 전통적 인지치료를 넘어선 제3의 인지치료적 동향이다.

이 연구에서 『주역』의 ‘상황점’은 고흥(1900-1986)이 고증하고 감상섭이 정리한 것으로 춘추전국시대에 시행했던 점법(筮法)을 서명석(2017: 200-205)이 말한 ‘춘추점법’을 따를 것이다. 명리학(命理學)의 ‘운명점’에 대한 견해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명리학도이면서 서양상담을 하는 본 연구자의 명리학 공부경험에 대한 내러티브(narrative)를 소개할 것이다. 명리학 공부를 통한 ‘운명의 받아들임’과 같은 깨달음을 얻고 삶을 보다 적극적으로 살 수 있는 의식의 변화과정에 대해 말하고자 한다. 이 연구를 통해 역학(易學)의 모태이자 동양철학으로서 수양이라는 형이상학적 치료적 의미를 다루고 있는 『주역』의 ‘상황점’과 명리학의 ‘운명점’의 다름과 같음이 무엇인지 비교, 분석하여 특히 수용전념치료(ACT)적 관점으로 어떤 치료적 의미가 있는지 탐색할 것이다. 더불어 철학치료적 관점에서 명리학의 활용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가. 문제제기

홉킨스(Hopkins)박사는 『의식혁명』에서 운동역학의 실험을 통해 1-1000의 수준으로 의식에 대한 그래이드를 표명한 바 있다(이종수 역, 1997). 일반인들이 200- 300

정도의 수준이라면, 500이상이면 사회를 이끌어가는 리더그룹에 해당한다고 한다. 예수나 석가모니는 그 수준이 가장 높은 단계로 1000의 수치를 가지고 있음을 모든이들은 알고 있다. 홉킨스 박사 식으로 말하면 인류전체의 평균의식 수준은 오늘날 204에 도달한다. 오로지 0.4%의 인구가 500 혹은 그 이상의 에너지장으로 측정되며, 1000만 명 중 한명만이 600이상의 수준에 도달한다. 600대에 가까워지면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눈뜸에 관심을 갖게 되고 인간의 선과 깨달음을 위한 추구가 삶의 기본적인 목표가 된다. 참고로 사랑은 500정도 수준으로 말하고 있다. 특히, 인간은 평생을 살아가면서 5정도의 의식의 성장을 이룬다고 하였다. 당신은 과연 어느 정도의 의식수준을 갖고 있는가?

한 개인에게 있어 인류의 정신적 리더그룹은 아닐지라도, 얼마든지 실존적 인간으로서 삶에 대한 깨우침의 순간은 많고 다양하다. 도를 닦는 사람들이나 경험할 법한 깨달음의 순간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주역』의 ‘상황점’과 명리학의 ‘운명점’을 비교·분석하면서 동양철학에서 말하는 ‘깨달음의 순간’을 마음챙김에 기반한 인지행동치료인 ACT(수용전념치료)의 맥락에서 관련성을 찾을 것이다. 물론 ‘의식의 전환’이라는 인지과정의 변화의 깊이는 다를수 있다. 스스로 주체가 되어 마음 안에서 마음의- 닦음과- 배양으로써 일어나는 내재적인 마음의 질적-변화(metanonia)이라는 동양의 초월적 마음공부에 대해 언설하였다(서명석, 2013). ACT(수용전념치료)에 대한 이해를 위해 그림 IV- 3.을 참고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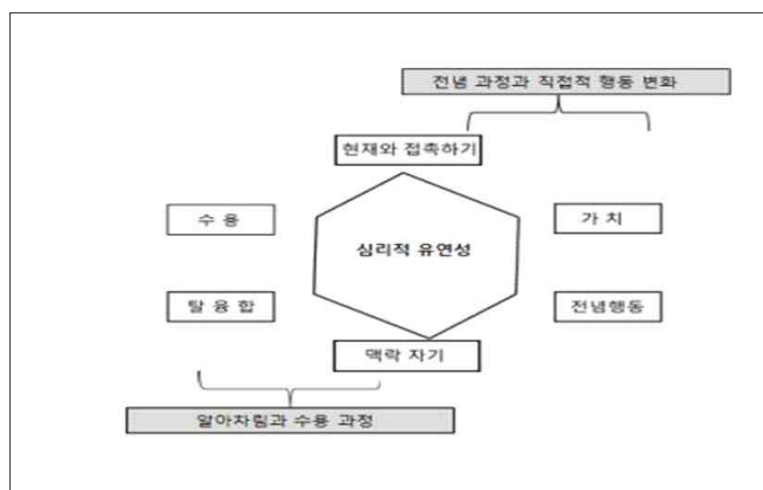


그림 IV- 3. 수용전념치료 개념도

특히, 연구자는 치료적 의미를 찾기 위해 ACT의 주요 기제인 수용, 탈융합, 현재와 접촉하기, 맥락적 자기, 가치, 전념행동을 통한 심리적 유연성의 치료적 체계를 다루고자 한다.

철학치료의 핵심은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의 본질을 이해 하도록 하는 치료’, ‘자기 자신을 통찰하도록 만들어 주는 치료’, ‘자기 문제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게 만드는 치료’에 있다(정병석, 2007). 야스퍼스와 니체 등은 실천이 없는 철학치료에 대한 강한 비판의식을 갖는다. 이러한 비판의식은 철학이 구체적인 치료의 철학으로 거듭 태어나야 한다는 현실참여와 실천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남덕(2004)은 명리학이 운명감정에만 국한되어 운명에만 집착하는 역술가(曆術家)로의 전락이 아니라, 수양(修養) 학문으로서 발전 승화시키며 나아가서는 국가의 발전에 활용해야 한다고 말한다 (김석수, 2006).

이러한 필요성을 인식하면서 이 연구가 비록 한 개인의 단일사례지만, 명리학과 함께 음양론의 모태가 되는 『주역』의 ‘상황점’과 더불어 명리학의 ‘운명점’에서 어떤 치료적 패러다임이 존재하는지 탐색하는 시도와 과정은 역학(易學) 발전에 의미가 있다. 포스트모더니즘(Post-modernism) 사회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렌즈를 확장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 해체작업의 일환으로 이러한 동양 철학의 우수성을 알고 있으면서도 어려운 학문으로 범접할 수 없는 영역으로 낙인 시키고 행하지 않는 것은 진정한 앎이 아닐것이다. 진정한 앎은 아마도 실존적 삶에서 가치(Virtue)를 두고 전념(Comittment)하는 것이다. 이러한 지식인의 책임과 의무임을 의식하며 연구에 들어갔다. 본 연구는 주역과 명리학에 대한 부정적 편견과 미신적 행위로 치부하는 소수의 편견을 줄이고, 한층 더 나아가 ‘숙명론적 한계상황’을 겪고 있는 내담자들을 위해 명리학의 ‘치료적 의미’를 찾고자 하였다.

나. 연구방법 및 분석방법

1) 『주역』 ‘상황점’

『주역』은 동양 최고의 지혜서다. 영어로는 ‘Book of Changes’라고 말한다. 크게 상수학(象數學)과 의리학(義理學)으로 나눌 수 있다. 우선, 상수학의 관점에 따라 살핀 후 의리학적으로 접근할 것이다. 즉, 상황점을 치면서 치료적 의미를

과약할 것이다.

가) 연구참여자

연구참여자는 연구자로서 스스로 ‘불안한 상황’에 대한 주제로 『주역』의 ‘상황점’을 친다.

나) 점치는 방법

고형(高亨, 1900-1986)이 고증하고 김상섭이 정리한 것으로 춘추전국시대에 시행했던 서법(筮法)을 서명석(2017)이 정리한 ‘춘추점법’을 따랐다. 50개의 서죽(筮竹)을 이용해 6세트까지 하여 괘를 뽑는다. 그리고 ‘역점저널 양식’에 내용을 기입한다. 점치는 순서는 ①괘엮기→ ②변효찾기→ ③괘사찾기 또는 효사찾기 순이다. 역점저널 양식은 ①점친 장소 및 일시→ ②문제상황 및 문제설정→ ③문점(問占)내용→ ④점괘표 작성→ ⑤괘사와 효사의 도출과정→ ⑥괘사와 효사의 판단 및 해석→ ⑦자기통찰 순으로 하였다.

2) 명리학의 ‘운명점’

가) 연구참여자

연구참여자는 명리학을 15년이상 공부하고 현재 00기관에서 서양상담을 하는 상담사 1명이다. 단일사례 연구로 연구 참여자의 인구학적 특성은 표 IV-1. 과 같다.

표 IV- 1. 연구참여자의 인적 사항

이름	성별	나이	직업	학력	종교	결혼 유무	명리학 공부기간
연구자	여	51	00기관 전문상담사 5년	상담심리 박사과정 수료	천주교	결혼 23년	15년

나) Narrative 탐구

내러티브연구는 개인의 이야기에 초점을 맞추는 질적 연구방법이다(Polkinghorne,

1983). 내러티브로 인간을 바라본다는 것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희망이나 두려움, 꿈이나 관점, 심지어는 세상에 대한 인식 등을 독자들과 서로 공유할 수 있는 방식을 취한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Moustakas, 1994; 김영천, 2009) 이 연구방법은 한 인간의 개인적인 기록이나 사실에 기초한 파편적인 관점보다 전체적 그림을 제공하고자 한다. 또한, 사실적인 인생그림을 묘사할 수 있도록 작업하였다(김영천, 2009).

다) 연구 분석

본 연구에서 연구자는 Van Manen의 해석학적 현상학 분석방법 중 정상원, 김영천 (2014)이 질적연구에서의 현상학적 글쓰기의 전략과 방법을 차용하였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데이터를 살펴 체험(lived experience)의 의미를 최대한 추출하여 매력적 문장으로 개념화시켜라. 둘째, 추출주제들 사이의 관계를 밝혀 이를 포괄하는 중심주제로서의 체험을 구성하라. 셋째, 일화(Anecdote)의 형태로 자료를 재구성하여 제시하라. 넷째, 구체적인(concrete) 묘사를 통해 독자들의 현상과 자신의 관련성을 느끼게 하라. 다섯째, 성찰의 과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독자들이 ‘깨달음’에 이르게 하라. 여섯째, 강조의 기법을 사용하여 의미를 강화하라. 일곱째, 생생한 언어를 사용하라. 마지막으로 독자에게 말을 걸며 대화하는 것과 같은 어조(tone)를 유지하라. 이상과 같은 사항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포스트모더니즘적 글쓰기에서 말하는 ‘나’ 라는 화자를 쓰면서 연구자의 자기반성을 통한 주관적 객관성을 확보할 것이다. 이러한 시도는 최근 주목 받는 자기-내러티브를 사회과학 연구에 적용하고 있는 자문화기술지(autoethnographer)에서도 언급하고 있다. ‘나’ 라는 화자를 쓰는 것은 독자가 저자의 의식의 흐름과 정체성의 구성과정을 대신 체험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힘을 가지기 때문이다(이동성, 2019). 또한 저자의 위치성, 의식의 반영을 통해 보다 생생한 타자와의 상호작용을 일으키기 때문이다.

다. 『주역』의 ‘상황점’과 명리학의 ‘운명점’분석

1) 『주역』 ‘상황점’

“1799년 여름, 40대 의욕에 불타 있다 좌절을 겪기 시작한 다산 정약용(1762-1836)은 이가환(1742-1801)을 방문하여 주역을 터득할 수 있는 방법을 물었다. 이가환은 그 동안 수 많은 해설서를 읽었지만 주역은 잘 알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충고했다. “역학은 어리석은 자나 하는 거요, 자네같이 총명한 사람은 역학을 하지 말게나. 시골에서 평생 주역을 읽어 노주역이니 최주역이니 하는 자들이 수없이 많은데, 자네도 그런 무리가 되려하나?”(심경호, 1994: 서명석, 2017; 33)

위 단서에서 다산(茶山)이 역점(易占)에서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 이 부분에 나의 시선을 장착한다. 이가환의 말에 의하면 주역점에 대해 노주역이니 최주역이니 하는 사람들조차 알고 있고, 그 사회에서 대중적으로 저변확대가 되고 있었는지 궁금하다. 조금은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느낌으로 들린다. 굳이 그렇게나 하찮은 학문이라면 왜 다산은 주역을 터득하고자 하였을까? 좌절을 겪는 어려운 시기에 무엇을 위하여 『주역』 공부를 하고자 했는지 살펴보고 싶다. 한번 다산의 마음을 따라가 보자. 주지하다 싶히 이미 퇴계 이황과 율곡 이이도 『주역』을 마음의 심학(心學)으로서 사단칠정(四端七情)을 통해 늘 중용(中庸)의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이 선비의 자세로서 『주역』의 치료적 의미를 언급한 바 있다. 명리학도이자 상담자인 나는 요즘 성행하고 있는 마음챙김 기반 인지행동치료인 수용전념치료(ACT)의 개념적 렌즈를 통해 재조명하고 싶다. 여기서 다산은 요즘의 마음 챙김을 언급한 것 같다.

앞의 예시에서 이가환은 주역점에 대한 부정적 편견에 따라 주역공부를 향간에 떠돌듯 최주역이니 노주역이니 점괘만으로 모든 삶을 판단하려는 속인들의 점술서로서만 평가하고 다산이 하고자 하는 『주역』 공부를 만류한바 있다. 그런 부정적 평가에도 불구하고 다산은 주역공부에 매진하지 않았는가? 명리학적 ‘운명점’의 깊이를 알고있는 나로서는 이러한 상황점이 시시한 생각도 없지 않다. 그러나 잘 살펴보면, 아마도 똑똑한 다산이 역점에 단순한 관심을 가질리는 만무하다. 아마도 작금의 상황과 같지는 않았을지 싶다. 요즘 명리학이든 주역이든 남들보다 먼저 공부한 짧은 지식을 가지고 허왕되게 과장하거나, 마치 자신이 하는 학문이 피나 큰 학문으로 나대는 경우를 많이 본다. 역학을 예로 들면 마치 족집게 도사들인양 천기누설하고 있는 세대와 흡사

한 사회적 상황은 아니었을까? 아마도 다산은 그 당시 주역점이 인생사 잡다한 부분까지 읽어내고 철학관 늙은이가 점사를 보고 그것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대중들에게 일침을 가할 심산이었을 것이다. 실존의 거룩함보다 자신의 운명에 대해 ‘콩이요 팥이요’하며 숙명론자로 타락하는 그들에게 일격을 가하고 싶지는 않았을지 되묻고 싶다.

<상황 #1, 연구자의 실제상황> 2017년 11월 26일(일), 새벽 5시(寅時)

나는 박사과정 4학기생이다. 학술지 게재가 원활치 않아 무척이나 조바심이 나고 조금만 시기를 놓치면 아마도 박사과정을 포기해야만 하지는 않을까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요즘 나의 고민은 ‘박사공부를 계속해 나가는 것’이 맞는 것인지 무언가 스멀스멀 불안감이 올라오는 긴장감과 긴박함을 느낀다.

본 연구자는 이러한 상황에서 주역시간에 배운 상황점을 쳤다. 새벽 인시(寅時)에 정확히 마음을 가라 앉히고, 우리의 성스러운 하늘의 계시와 조언을 기대하며 몸과 마음을 가지런히 하며 “물비소시(勿秘昭示!)”하며 주문을 읊조렸다. 물비소시는 ‘지금 점을 치려하니 숨기지 말고 모든 것을 다 보여 주십시오!’라는 주문으로 점(點)을 치기 위한 의식인 ‘서의(筮儀)’다(김석진, 2009). 하늘이 나의 정성을 받아들여 지혜로운 판단과 답을 줄 것이라고 기원하며, 다음의 역점(易占)저널 양식에 하나하나 기입하였다.

패엣기-설시법(서명석, 2017: 200-205)은 다음과 같다.

<준비: 1-2>

- ① 점대인 서죽 50개를 준비하고, 자리를 정돈한 다음 책상위에 담요를 깔고 마음을 정갈하게 한다.
- ② 묻는 내용을 역점저널에 기입하고 담요 위에 놓는다.

<실행: 3-12>

- ③ 준비한 50개의 점대를 두 손으로 움켜쥘다. 그 중에서 무심히 하나를 뽑아 담요 중앙 상단에 가로로 놓는다. 이때 뽑은 점대 하나는 태극을 상징한다.

<일변(一變): 4-9>

- ④ 두 손으로 움켜쥔 49개의 점대를 무심히 두 손에 나누어 쥘다. 왼손에 쥔 점대는 천책을 뜻하고, 오른손에 쥔 점대는 지책을 뜻한다. 이때 천책은 하늘〔양〕을 뜻하고, 오른손에 쥔 점대는 지책을 뜻한다. 이때 천책은 하늘〔양〕을 상징하고, 지책은 땅〔음〕을 상징한다.
- ⑤ 왼손의 천책은 그대로 들고 있고, 오른손의 지책은 담요 오른쪽 위에 내려 놓는다. 바닥에 내려놓은 지책중에서 점대 하나를 뽑아 왼손의 새끼손가락과 넷째 손가락 사이에 끼운다. 이때 뽑은 점대 하나는 인책을 뜻한다. 인책은 인간을 상징한다. 이렇게 해서 천·지·인 삼재를 구성한다.
- ⑥ 춘하추동의 사시를 작은 소리로 읊조리면서 왼손에 쥐고 있는 천책을 네 개씩 떨어낸다. 이때 내려놓은 지책과 섞이지 않도록 중앙에 담요를 놓는다. 왼손에 남은 점대가 1-4개가 남을 때까지 계속한다. 최종 남은 점대(1-4개)를 왼손의 가운데 손가락과 넷째 손가락 사이에 끼운다.
- ⑦ 이번에는 오른 쪽에 미리 내려놓았던 지책을 들어 왼손에 쥐고 춘하추동의 사시를 작은 소리로 읊조리면서 다시 네 개씩 떨어낸다. 왼손에 남은 점대가 1-4개가 남을 때까지 계속한다. 최종 남은 점대를 왼손의 가운데 손가락과 둘째 손가락 사이에 끼운다.
- ⑧ 왼손 손가락에 끼웠던 모든 점대를 손가락에서 빼서 모두 합친다. 이때 합친 점대 수는 5 또는 9가 된다. 5 또는 9가 아닌 경우는 과정이 틀린 것이니 유의해야 한다.
- ⑨ 이렇게 해서 일변이 끝난다. 5 또는 9의 점대는 가로로 놓았던 태극을 상징하는 점대 위 위쪽에 세로로 놓는다. 남은 점대와 섞이면 안된다.

<이변(二變): 10>

⑩ 남은 점대 44개 또는 40개를 가지고 ④부터 ⑨번까지의 방식으로 점대를 다룬다. 왼쪽 손가락에 끼웠던 모든 점대를 손가락에서 빼서 모두 합친다. 이때 합친 점대 수는 4또는 8이 된다. 4또는 8이 아닌 경우는 틀린 것이니 유의해야 한다. 4또는 8의 점대는 일변에서 두었던 점대 옆 오른쪽에 나란히 세워둔다. 역시 남은 점대와 섞이지 않도록 주의한다. 이렇게 해서 이변이 끝난다.

<삼변(三變): 11>

⑪ 남은 점대 40개 또는 36개 또는 32개를 가지고 ④부터 ⑨번까지의 방식으로 점대를 다룬다. 왼쪽 손가락에 끼웠던 모든 점대를 손가락에서 빼서 모두 합친다. 이때 합친 점대 수는 4또는 8이 된다. 4또는 8이 아닌 경우는 과정이 틀린 것이니 유의해야 한다. 4또는 8의 점대는 이변에서 두었던 점대 옆 오른쪽에 나란히 세워둔다. 이렇게 해서 삼변이 끝난다.

⑫ 일변·이변·삼변 후 바닥에 네개씩 떨어진 점대를 모두 더한다. 그리고 더한 값을 4로 나누어 6·7·8·9중 하나의 수를 얻는다. 이것이 하나의 효를 얻은 것이다. 이렇게 해서 1세트가 종료된다.

태극은 그대로 두고 2세트부터 6세트까지 49개의 점대를 가지고 ④번부터 ⑫번까지 동일하게 실행한다. 이런 과정을 총 6세트를 해서 하나의 괘를 얻는다 『주역』의 ‘상황점’의 결과는 표 IV- 2. 와 같다.

표 IV- 2. 역점(易占)저널 양식

역점(易占)저널 양식	박사과정 4학기: 하은희
1. 점친 장소 및 일시	
㉠장소: 집(거실)에서	
㉡일시: 2017. 11. 26(일) 새벽 5시(寅時)	
2. 문제상황 및 문제설정	
㉢ 학술지 게재가 순조롭지 않아 박사 4학기생으로 조급한 상황임.	

3. 문점(問占)내용

- ㉠ 계속 박사공부를 하는 것이 맞는지요?

4. 점괘표

육효/ 항목	세트구분	획득한 영수	음양표시	변할수 있는 효 표시
꼭대기효	6세트	(36)÷4= 9	+	6 7(변효) ←
다섯째효	5세트	(32)÷4= 8	-	5
넷째효	4세트	(32)÷4= 8	-	4
세째효	3세트	(28)÷4= 7	+	3
둘째효	2세트	(32)÷4= 8	-	2
처음효	1세트	(32)÷4= 8	-	1

5. 과사와 효사의 도출과정

- ㉠ 55(천지의 수)- 48(영수의 합)=7
- ㉡ 여섯 효중 9 또는 6인 경우에 해당⇒ 변효의 효사로 점을 판단함.

6. 과사와 효사의 판단 및 해석

- ㉠ 중산간(重山艮)괘⇒ Keeping still(신체를 살펴보다)
- ㉡ 꼭대기효(+2)⇒ 생각을 치밀하게 하라. 그러면 일이 술술 풀릴 것이다

7. 자기통찰

- ㉠ “치밀하게” 라는 말이 가장 눈에 들어옴 ⇒ 논문내용의 질적향상!
- ㉡ 중산간(重山艮)괘에서 “신체를 살펴보라.” ⇒ 건강CHK, 운동필요!

위 과사와 효사의 도출과정은 이렇다. 천지의 수인 55에서 영수의 합 47을 빼면 7이다. 비고이진(卑高以陳)으로 처음 효부터 수를 헤아려 아래에서 위로, 위에서 아래로 자리한다. 여섯효 중 '9 또는 6'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꼭대기 효의 여섯번째 변효의 효사로 점을 판단한다. 이렇게 나온 주역 상황점의 결과는 그림 IV- 4. 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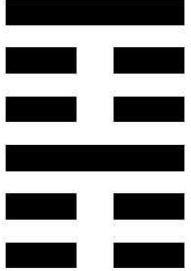
신체를 살펴보다	
	52
	중산간(重山艮)
	Keeping Still
	<p>등을 살펴다가 그 몸을 보호하지 못한다. 뜰을 거닐어도 그 사람을 보지 못한다[그래도] 허물은 없다. 艮其背 不獲其身 行其庭 不見其人 无咎</p>

그림 IV- 4. 중산간괘⁴³⁾











6양 上九		머리를 살펴니 길하다. 敦艮 吉	+2	생각을 치밀하게 하라. 그러면 일이 술술 풀릴 것이다.
5음 六五	 	얼굴을 살펴니 말에 조리가 있어 뉘우침이 없어진다. 艮其輔 言有序 愷亡	0	전후상황을 잘 살펴서 말을 조리있게 하라. 그래야 후회할 일이 없을 것이다.
4음 六四	 	가슴과 배를 살펴니, 허물은 없다. 艮其身 无咎	0	매사 주의 깊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추진하라.
3양 九三		허리를 살펴니 옆구리살이 위태롭다. 속이 탄다. 艮其限 列其夤 癘 熏心	-1	원하는 대로 되지않아 상심하게 될 것이다.
2음 六二	 	장딴지를 살펴니, 살이 더 찌지 않아 마음이 불쾌하다. 艮其趾 不拯其隨 其心不快	-1	생각대로 일이 풀리지 않아 기분이 좋지 않지만, 억지로 일을 풀려고 하지마라.
1음 初六	 	발을 살펴니, 허물은 없다. 오랜일이 걸리는 일에 대한 점은 이롭다. 艮其趾 无咎 利永貞	+1	현재 하는 일을 기초부터 잘 살펴보라. 그러면 오랫동안 이로울 것이다.

그림 IV- 5. 중산간괘 풀이

43)서명석 (2017). 주역상담과 주역치료: 길을 잃다 묻다 답을 얻다, 경기 용인: 책인숲. p199-231. 『주역』 상황점은 고흥(1900-1986)이 고증하고 김상범이 정리한 것으로 춘추전국시대에 시행했던 서법(筮法)을 서명석(2017)이 말한 ‘춘추점법’으로 쉽게 점치는 방법을 소개하였다.

위에 나온 주역 ‘상황점’의 과사와 효사의 결과에 대한 나의 통찰은 다음과 같다.

“중산간(重山艮)괘로 “Keeping still”이다. 이는 ‘신체를 살펴보다.’는 뜻이다. 나는 요즘 건강검진에서 과체중과 운동부족이라는 결과를 받았다. 그것에 빗대어 해석해 보니 아마도 박사공부 중, 운동부족의 심각성을 느낀 탓에 몸을 잘 관리 해야겠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 또한, 꼭대기효는 +2로 ‘생각을 치밀하게 하라. 그러면 일이 술술 풀릴 것이다.’ 라는 말이다. 가뜩이나 학술지도 내지 못하고 있는 조급하고 불안한 상황에서 다시 한 번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여기서 얻은 자기통찰은 이렇다.

“‘치밀하게’ 라는 말이 가장 눈에 들어오고 ‘논문내용의 질적 향상!!’ 이 필요하다는 나름의 각오가 생겼다. 왜냐하면 논문의 질이 평이하고 시시하고 유치한 것 같아 아쉬움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이러한 서법(筮法)과정을 진행하면서 “내가 지금 학술지 게재 문제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불안하고 조급해 하고 있구나!” 현재에 처한 나의 상황을 ‘알아차림’ 하는 순간 처음의 불안상황은 종료되었다.”

위의 주역의 상황점은 본 연구자가 박사과정 중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로 인해 상당 공부를 하는 학도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문제를 늘 알아차리고 통찰하려는 의지와는 달리 생활상 불안해지는 상황을 다루고자 하였다. 명리학을 공부하는 학도로서 현재 나의 운기가 어디에 놓여있을지 대체로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인지라 무의식적으로 불쑥불쑥 올라오는 불안은 대처하기가 막막하고 도리가 없다. 단순히 『주역』의 상황점을 치면서 자세한 나의 마음의 불안상태를 읽어 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으나, 의외로 자기 통찰까지 이어지는 체험을 얻었다. 결국 점괘를 읽고 분석하는 일은 나의 몫이었다. 나의 선택이었다. 그러나 그러한 나를 위한 제사의식과 같은 일련의 상황점을 헤아리며 하는 절차 속에서 “내가 박사공부를 하면서 노심초사하고 있구나!” 그것으로 인해 조드라지고 있고, 무의식적 불안감으로 헤매는 나의 모습을 보게 되었다.

이러한 부분은 최근 서양상담계에서 각광을 받고 있는 수용전념치료(ACT)의 입장 과도 비슷하다. ACT는 불안이나 우울 등 심리적 증상이 일어나는 경우에 당연히 일 어나는 자동적 사고를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방법적 접근이다. 우리는 어떤 좋지 않은 상황에 접할 때, 자동적 사고가 일어나고 그것으로 인한 심리적 불편감을 느낀다. 그 러나 ACT의 입장은 ‘그냥 바라보기’를 말하고 있다. 본래 남방불교의 수행법으로서 사띠 (Sati)수행은 증세의 완화나 심리적인 위안을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무아(無我)의 가르침에 바탕을 두고 있다. 예컨대 내담자가 자신의 개념적 자기에 집착하게 되면 무아의 문맥적 자아의 상태로 가기가 어려울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내담자는 먼저 집착된 개념적 자기의 내용을 인식하게 하고, 다음 단계에서는 현재에서 경험한 과정적 자아에 접촉하게 하고 문맥적 자아에 이르는 과정적 절차를 거치게 된다(인 경, 2009).

이는 떠오르는 자동적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그냥 흘려보내는 방법을 통해 인지의 탈융합을 시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김철호, 2017; 하은희, 김성봉, 2019b). 이 에 반해 네프와 거머는 마음 챙김을 “매 순간 있는 그대로 우리의 감각, 감정, 사고를 경험하려는 의식적 선택”이라고 말하면서 ‘자기연민을 통한 수용’의 태도를 보이고 있 다(Germer & Siegel, 2002; Neff, 2013b). 자기 연민이란 수용의 한 형태인데, 수용이 우리한테 일어나고 있는 것, 곧 감정이나 생각을 받아들이는 일을 가리킨다면, 자기연 민은 그런 감정이나 생각이 일어나고 있는 사람을 수용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자기연 민이란 고통스러워 하는 자신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헤이즈(Heyes)는 수용전념치료에서 ‘그 순간에 방어 없이 온전히 받아들임’과 함께 ‘기꺼이 경험하기 (willingness)’를 시도하였고, 앞서 언급한 치료자들과 다른 차원의 수용을 주장하였다.

이처럼 심리적 수용은 자극에 대한 통제전략이며 인지의 탈융합적 측면으로 설명될 수 있는데, 상황이나 사건의 결과로 생기는 행위들을 그대로 지켜보면서 허용하는 일 이며 생각이나 감정에 대해 아무 것도 하지 않는 것이다. 생각하고 느끼는 것을 통제 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감정을 경험하고 단지 바라볼 뿐이다(정종진, 2014; 김 철호, 2017).

이처럼 ‘마음 챙김’은 불쾌한 경험과의 거리를 마련해 주고, 스스로 ‘객관적인 자기’, ‘맥락적 자기’를 만나게 한다. 이러한 만남은 그동안 처리하기 어려웠던 자기 생각과 감정에 대하여 친절, 공감, 이해로 반응할 수 있게 한다. 자기연민을 가지고 자신 이외

의 또 다른 부정적 상황에 부딪친 자신을 인정하고 ‘마음 챙김’ 할 때 불안과 스트레스 상황은 종료된다. 왜냐하면 마음 챙김의 상태는 ‘가슴이 가득한 상태(heartfulness)’가 되며, 이것은 삶의 매순간 자기 자신이 중심에 놓이면서 단절되지 않는 접촉상태 (being in touch)를 의미한다. 이러한 과정은 심리적 유연성과 관계가 있다(박태수, 2008; 안희영, 2012; 김철호, 2017; 하은희, 김성봉, 2019b).

본 연구자가 체험한 『주역』의 ‘상황점’은 타라블랙보다는 네프와 거머의 입장이 더욱 효과적이다. 그렇게 불안감을 갖고 있는 본 연구자에 대한 끌어 안음과 수용이라고 이해하였다. 단순한 점괘였지만 주역의 상황점을 치면서 겪은 나의 통찰은 이것으로 종료되었다. 통찰(洞察)은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인식하게 되는 것으로 자신의 동기조성이나 욕구를 달성할 수 있는 카타르시스를 동반하여 감정적 통찰력을 갖게 한다(김영혜, 2001; 김정호: 2011). 『주역』의 ‘상황점’은 형식에 불과한 서의(筮儀)라고 볼 수 있겠으나, 본 연구자에게 매순간 심리적 불편감이 올라올 때, 차분히 앉아서 나의 내면의 목소리, 참자기인 Self의 목소리를 듣게 한다. 그리고 이러한 작업은 나에게 생활에 도움을 주고 안정감을 찾을 수 있는 도구로서 치료적 의미를 갖게 하였다.

2) 명리학의 ‘운명점’

다음은 20여년 철학관을 운영하고 계시는 명리상담가가 심층인터뷰에서 스스로 본인의 명리학의 ‘운명점’을 통해 사주팔자를 말한 내용이다(하은희, 김성봉, 2018: 71). 주역의 상황점과는 다른 면모를 볼 수 있다.

【실제사례 IV- 1】 1949년 10월 20일 18시생, 음력, 건명(乾命)

편인	일간	정재	편관
辛	癸	丙	己
酉	酉	子	丑
편인	편인	비견	편관

81	71	61	51	41	31	21	11	1
丁	戊	己	庚	辛	壬	癸	甲	乙
卯	辰	巳	午	未	申	酉	戌	亥

“사주에 이렇게 다 적어져 있어요. 이걸 몰라서 그렇지. 내가 살아온 과거를 비추어 보면 다 맞아요. 앞으로 올해가 정유년(丁酉年)이니까 6, 7년 남았네요. 그래서 난 적어놨어요. 화요(만세력을 가리키며) 나같은 경우는 교통정리가 됐으니 준비를 해야겠지요? 2024년도 3월달에 죽을꺼니까 무진년(戊辰年)에 죽을꺼예요. 갑진일(甲辰日) 죽게 될꺼요. 봄에... 다가는 것인데, 누구는 안 갑니까? 좋을 때 가는 것이지 여기 제사라 써놨잖아요. 나는 내 제삿날을 잡아놨어요. 나는 그러니까 진토(辰土) 대운(大運)에 염라대왕 앞으로 가는 거라? 진토가 고장지 아닙니까? 그때 다 들어가 버려요.”

위의 말을 일반인들이 듣는다면 자신의 죽는 날까지 꼽고 있다는 말에 섬짓할 수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명리학은 미래를 예측할 수 있어 자신의 숙명론적인 한계에 대한 내려놓기를 가능하게 하며, 인간의 생로병사를 자세하게 알 수 있게 한다. 상황점보다는 사주원국과 더불어 대운(大運)·세운(歲運)을 통해 지금 이 순간 처해진 삶의 희비(喜悲)를 가려낼 수 있다. 위의 내용을 바탕으로 명리학 공부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연구자의 입장을 말하고자 한다. “숙명론적 한계상황의 수용”(하은희, 김성봉, 2019b: 1275)을 통한 ‘깨달음’처럼 명리학의 치료적 의미를 밝혀 보고자 한다. 여기서는 인지 변화, 즉 생각의 변화를 통한 심리적 유연성에 초점을 둔 수용전념치료(ACT)적 관점으로 살펴보겠다.

본 연구자는 15년 전부터 명리학을 공부해 오고 있는 명리학도이면서 J대학교 대학원에서 상담심리를 전공하였고, 박사과정을 수료하였다. 또한 현재 00기관에서 서양상담을 하는 5년차 전문상담사이기도 하다. 본 연구자는 상담사이기 이전에 한 인간으로서 명리학 공부경험을 통해 삶에 대한 깨달음과 같은 ‘의식의 변환’을 확립해 가고 있다. 명리학을 공부한 명리학도로서 본 연구자가 느낀 명리학적 수용(Acceptance)과정을 통한 ‘실존적 인간’으로서 거듭나는 인지변화를 경험하였다. 아래 내용은 본 연구자의 사주로서 사주팔자에서 운명의 받아들임을 통한 통찰경험이다.

【실제사례 IV- 2】 상관(傷官)이 많은 사주. 1969년 03월 17일, 저녁 6시, 坤命

상관	일간	비견	겁재
辛	戊	戊	己
酉	寅	辰	酉
상관	편관	비견	상관

61	51	41	31	21	11	1
정관	편관	정재	편재	상관	식신	겁재
乙	甲	癸	壬	辛	庚	己
亥	戌	酉	申	未	午	巳
편재	비견	상관	식신	겁재	정인	편인

가) 숙명론적인 한계에 대한 ‘맥락적 자기 이해’

“결혼생활 23년간 남편의 지속되는 사업실패를 통해 나 역시도 계속해서 정진하지 못하고, 직업이 수시로 바뀌는 등 한길을 걷지 못하였다. 매번 사업체는 벌어지고 문닫고 끝이 길지가 못했다. 남편이 20년간 여러 차례 사업을 시작했지만, ‘백전백패(百戰百敗)’를 경험하였다.”

“수차례 나의 의사와 상관없이 식당업에 뛰어 들었으나, 거듭 실패를 경험하게 되었다. 그럴 때마다 좌절감과 세상에 믿음을 주지 못한 나의 나약한 모습을 이해할 수 없었다. 세상이 펼쳐주는 대로 열심히 내일만을 하며 정진해 온 죄밖에 없는데, 늘 죄인처럼 세상에 거짓말을 하는 나의 모습을 도대체 이해할 수 없었다. 나의 신용과 재정상태가 바닥을 치는 상황, 좌절만을 경험하고 사기꾼으로 거짓말만 앞세웠던 ‘빛 좋은 개살구’였다.”

“예전의 밝은 나의 모습, 성실하고 모범적인 나는 없어져 버렸다. 결혼생활 23년을 더듬어 보면 나는 ‘관속에 갇혀 움썅달썅도 하지 못하는 나’, ‘언덕 길을 짐을 가득 채우고 리어카를 킁킁대며 올라가는 삶에 버거워 하는 나의 모습만 기억 속에 남아 있다. 나의 30-40대는 기억속에 남아있지 않다. 삶은 나를 그렇게 바보처럼, 못난 사람으로 몰아갔다. 도대체 나의 삶이 왜 이렇게 펼쳐지는 것일까? 나의 삶이 왜 그렇게 되었는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왜? 왜? 그것을 속시원히 알고 싶었다.”

본 연구자가 명리학 공부를 통해 얻은 답은 이렇다. 상관(傷官)이 많은 사주다. 상관은 글자 그대로 관(官)을 상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사주구조라면 관성(官星)이 힘들어 보인다. 관성은 여자에게 남편으로서 지나친 상관의 극제로 인해 타격이 클 것이다. 왜냐하면 이러한 상관의 지나침을 설기할 수 있는 재성(財星)의 기운이 있다면 금생수(金生水), 수생목(水生木)으로 해서 관성을 돕겠으나, 아쉽게도 재성(財星)이 없다. 그러한 이유로 상관은 바로 관을 치는 형국이 될 수 있다. 게다가 31 임신(壬申)대운은 일지(日支) 편관(偏官)인 배우자를 충(沖)하는 상황이며, 41 계유(癸酉)대운에는 강한 상관의 기운에 설상가상(雪上加霜)으로 그 강함이 더해지니, 가뜰이나 무력한 관성이 걱정스럽다.

31, 41 대운에서는 일반적으로 관적인 일에 종사하지 못하고 천간에 정재(正財), 편재(偏財)가 떠서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돈을 벌어야만 하는 상황이 펼쳐졌다. 비견과 겁재가 많아서 돈을 많이 벌어들여도 여러 상황상 내돈으로 쌓이지 못하고 뺏어갈 사람이 너무 많았다. 또한 상관의 기질상 관을 상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데, 한자리에서 진득하게 하는 일 보다는 변화가 있는 창의적인 일들을 더욱 선호한다. 어느 정도 직장생활을 하다보면 새롭고 획기적인 아이디어가 생겨나기 때문에 전업 등도 할 수 있다. 상관은 자신을 변신시키는데 탁월한 능력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속성들로 인해 한 자리에 지속적으로 정진하게 만들지 못하는 부정적 기능도 있다. 그리고 상관의 기운이 많으면 법적인 문제로 소송이 많거나, 관을 무시하는 처사로서 여러 가지 교통법규를 어긴다던가 소송에 휘말릴 수 있는 여지도 많다.

게다가 월지의 진토(辰土)는 흙의 성분이지만, 신(申)년이나 자(子)년이 오면 신자진(申子辰) 수국(水局)으로 삼합국(三合局)을 형성하여 재성(財星)을 추구한다. 다시 인묘진(寅卯辰) 방합(方合)을 하면 목국(木局)을 이루게 되어 관성(官星)이 기능을 할 수 있다. 이처럼 어떤 세운(歲運)이나 대운(大運)이 들어오느냐에 따라 여러 기능을 가질 수 있다. 소위, 재관잡기격(財官雜氣格)이라고도 불리워진다. 31 임신(壬申) 대운은 배우자 자리마저 인신충(寅申沖)으로 깨지는 형국이고, 41 계유(癸酉) 대운은 인유(寅酉) 원진(怨憤)이 들기 때문에 배우자 궁에 불편감이 있다. 이러한 경우는 남편과의 이혼이나 사별, 별거, 불화 혹은 남편이 질병에 걸리는 등 여러 굴곡사가 예측 된다. 금목쌍전(金木雙戰)으로 결혼 생활 20년간은 관성의 기운이 크게 상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부부관계를 유지해 온 것이 놀라울 따름이다. 그 인고의 세월을 겪었을 무토

(戊土) 일간인 나 자신에게 격려의 박수를 보낸다. 잘 참으며 살아왔다고 안아주고 싶은 마음이다. 사주 자체로 이러한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이다. 남에 의해 내 사주가 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사주가 이러한 것이다.

나) 명리학 공부를 통한 ‘인지의 탈융합’(defusion of cognitive)

“남편때문에 고생도 많았고 사업도 망하고 해서 경제적 부분에서 가장 노릇을 많이 했고, 정신적으로 의지할 때도 없어서 힘들었었죠. 수시로 짜증이 올라오고 버럭 화도 많이 났어요. 그러나 힘든 남편 앞에서 자식들 앞에서 나약해지기 싫어서 꺾꺾 억압하면서 참아왔지요. 서글픔, 좌절감, 외로움 등 여러 감정들이 올라옵니다. 요즘도 사주팔자에 대해서 어느 정도 통찰이 되었다고 생각했지만, 인간인지라 불쑥불쑥 화와 분노감들이 올라오곤 한다.”

“상관은 관을 상하게 하는 역할로 못되게 행동을 할 것 같지만, “많은 것은 없는 것이요, 없는 것은 많은 것이다”라는 말처럼 일반적인 괴로움조차 토로하지 못하며 살아왔다. 현재에도 상관은 나의 표현력이며 말을 강하게 이야기 하는 스타일이다. 그래서 나는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상관적인 기질로 인해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 노력을 한다.”

“남편이 사업부도로 힘을 잃게 되자, 나는 집안의 가장 역할을 하면서 20년을 지나왔다. 상관이 많은 여자는 남편에게 못한다는 속설과는 달리 오히려 남편의 사업과 연쇄적인 실패를 겪게 되고 삶에 지치고 경제적 궁핍함과 함께 시달리다 보니 남편에게 막대하는 상황도 벌어지게 된다. 고단한 삶이 날카롭고 강한 상관의 특징을 갖고록 몰아간다.”

본 연구자는 이러한 상황에서 상담공부를 한 덕에 빨리 ‘마음챙김’을 한다. 화가 나고 있는 나의 모습을 빨리 천장에서 나를 바라보려고 노력하고 있다. 바로 나만의 이미지를 떠올린다. 명리학(命理學) 공부를 통해 터득한 나만의 그림을 떠올린다. 도끼를 가지고 가너린 나무를 베어버릴 기세를 하고 있는 나의 상관들에 둘러싸인 남편을 보려고 하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은 어려운 말로 ‘관찰자로서의 나’가 되는 것이다. 그

순간 나의 화와 분노는 사라지곤 한다. 자동적 사고로 이어져 화풀이를 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그런 화와 분노감이 일고 있는 나 자신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또 “화가 나고 있구나!”하고 마음챙김을 하는 순간 나의 감정 상태는 평상심으로 돌아온다.

이러한 나 자신의 삶에 대한 굴곡과 고난은 어떻게 원상태로 돌려 줄 수 없는 나의 인생길이다. 그것을 뜯어 고칠 수는 없다. 지난 과거를 타박만 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시시때때로 그러한 나만의 심리적 불편감에 대한 ‘내적 작동모델’을 알고 그때그때마다 마음 챙김하는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것은 단언컨대, 얇은 방어기제처럼 회피나 도피가 아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나자신을 그대로 수용하고 인정했기 때문이다. 이것은 엄청난 치유적 효과를 갖게 한다. 내 사주속에서 보면 남편이 나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내 사주속에서 내 팔자를 알게 되었고, 남 탓이 아닌 내 탓으로 하니까. 그 부분만을 안다는 자체에서 나도 이해하고 타인도 이해하니까. 통찰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상관은 관을 상하게 하여 4대 흉신(凶神)으로 일컬는다(최은경, 2013). 하지만 그러한 부정적 의미보다는 또 다른 특징으로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아이디어가 많으며, 실천적이면서 응용 학문 등에서 유능감을 발휘할 수 있다. 남들과 똑같이 하는 행동이나 방식을 거절하며 특이성을 찾는다. 다른 일반 사람들과 다르게 예술적 기질도 있고 특이한 것들을 좋아하고 평이한 것들은 식상해한다. 그러다 보니 현재 쓰고 있는 ‘명리학 기반 한국형 단기상담 모형 개발’이라는 연구주제를 가지고 씨름을 하고 있다. 그래서 나에게 박사 타이틀은 큰 의미가 있다. 박사공부는 그동안 쳐 박혀진 ‘나의 자존심의 극복이며 회복 과정’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자랑하며 뽐내고 개성 있고 겸손하지 못한 것이 바로 상관적 성향이다. 그러나 부정적으로 상관을 쓰지 않기 위해 늘 나의 언행에 대해 마음 챙김한다. 내 말이 다른 사람에게 독이 될 수 있으니까 오히려 말에 주의를 하는 편이다. 왜냐하면 나의 말에는 독기가 서려있을 수 있고, 직면의 성질이 강할 수 있으므로 평상시 조용하고 차분하게 가더라도 한마디 한마디에 무게감이 실릴 수 있는 말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다) 현재와 접촉하기(Being present)

“평소 부드럽게만 이야기 하다가 한번 화가 나면 말에 독기가 서려있고 독설을 일삼을 수 있으니, 가히 상관이 공망이라 하여도 상관은 상관인 것이다.”

“아들 둘을 낳았으나 무인(戊寅)일주에 신유(申酉)가 공망(空亡)의 인자로서 무토(戊土) 일간에게 유금(酉金)은 자식에 해당한다. 자식은 말썽없이 잘 자라고 있으나, 중학교 시절부터 불편한 상황과 힘든 한국의 환경을 등지고 멀리 다른 나라로 가서 유학 중이다. 이 역시 공망의 인자이다 보니 자식과는 무정하게 떨어져 살아야만 하는 팔자는 막지 못할 것 같다.”

“그동안 나락으로 떨어지는 가정살림에도 남편과 가정을 책임지지 못하는 남편에게 상관짓을 하며 하대한다는 소리를 듣지 않으려고 현모양처로 20여년을 고달픔조차 불편조차 털어 놓지 못하고 살아왔다. “남편복이 없음을 인정한다.”

상관은 표현능력이 뛰어나고 말을 잘할 수 있는 직업적 속성과 연결을 할 수 있다. 강사 등 말을 잘하는 교육계통의 직업과 관련이 있다. 하나를 배우면 오히려 살을 붙이고 장식하여 10개로 응용이 가능하듯 포장능력이 뛰어나고 활용을 잘한다. 머리로 영리하고 영특한 면이 있어 머리가 잘 돌아가고 회전이 빠른 편이다. 직업적으로는 실천적인 일을 할 수 있는 서비스직이나 영업도 잘 맞을 수 있겠다. 왜냐하면 식상은 표출하는 능력이며 말을 잘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연예인, 운동선수, 연구직 등 예술성과 독특성을 대표하는 직업과 인연이 있다. 그러나 상관의 속성상 일반적인 일은 실증을 내거나 흥미를 느끼지 못한다. 자식은 공망(空亡)으로 멀리 떨어져 살아야 더 좋다고 한다. 그 그리움은 절절하지만 껴안고 산다고 해서 자식들이 잘되는 것이고 효자 자식은 아니다. 예로부터 잘난 자식은 내 자식이 아니고, 사회와 국가의 자식이라는 말이 있듯이, 앞으로 내 사주의 천간과 지지에 ‘바지저고리를 입은 상관’이 자리 잡고 있어서 튼실한 자식의 활약을 희망해 본다.

무인(戊寅) 일주이다. 무인 일주는 글자 그대로 ‘숲속에 어린 호랑이’로 표현이 가능하다. 장생지에 앉아 있기 때문이다. 인(寅)이라는 인자는 우선 학당귀인(學堂貴人)이다. 이는 글과 학문을 좋아하고 학교와 관련된 일인 교육계통의 일을 할 수도 있다. 역마성이 있는 직업도 좋고 건축, 공무원 등 ‘호랑이 깃발이 나부끼는’ 국가 기관과 연관성이 있을 수 있다. 무인 일주상 배우자도 그러한 속성이 있을 수 있으므로 교육,

건축업 등과 관련된 배우자와 인연이 있을 수 있다. 남편이 건설회사를 크게 운영한바 있다. 그리고 결혼전 모 항공사 전직 스튜어디스 출신이다. 역마성이 있는 직업은 잘 맞을 수 있다. 여러 풍파를 겪고 난 후, 늦게 상담공부를 시작해서 현재는 00국가기관에서 상담일을 하고 있다. 앞으로 51 갑술(甲戌) 대운과 61 을해(乙亥) 대운에서 20년간 천간에 관(官)이 떠 있으니, 그동안 기능을 하지 못했던 관의 움직임을 희망적으로 기대해 보겠다.

또한 육친상 인성(印星)이 없다. 인성은 일간인 나를 돕는 기운이나 나에게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수운(水運)은 재성운으로 말할 수 있지만, 재(財)가 들어와 관(官)을 돕는다 하더라도 그 기운을 유통시킬 인성이 없으므로 관성이 바로 일간인 나를 치는 형국이 될 수 있다. 사람이 자신에게 없는 오행은 부단히 무의식적으로 따라가게 마련이다. 나의 사주에서 용신은 인목(寅木)의 지장간에 있는 병화(丙火)이다. 공부가 없으니, 나에게 학문 등의 글 공부는 없는 인성의 기운을 채울 수 있고 보완할 수 있기 때문에 나를 편안하게 해주는 인자로 볼 수 있다. 즉, “공부가 답을 줄 것이다.” 현실의 삶은 객관적으로 만족할 수 없으나, 공부를 하면서 자신의 정해진 팔자에 대한 이해와 통찰은 큰 힘이 될 것으로 믿는다. 현재 상담일을 하면서 큰 꿈을 가지고 박사공부까지 하는 것을 보면 어지간히 사주에 없는 화의 기운을 찾아 헤매는 것 같다. ‘나는 나다.’ 상관이 많은 여자여도 개성이 있는 사람이어서 참 좋다. 이러한 숙명론적 한계상황이 있지만, 그것에 굴하지 않고 불굴의 삶에 대한 투지가 생겼고, 비겁(比劫)이 종종 해서 한번 마음을 먹은 생각은 끝까지 밀고 나가는 의지가 용솨음 친다. 강하기 때문에 많은 삶의 풍파를 겪었지만 그래도 “나는 내가 정말 좋다.” 나답게 나에게 가치를 부여하며 하루하루를 소중히 살아갈 것이다.

라) 명리학공부를 통한 ‘운명적 받아들임(Acceptance)’

“사주 여덟 글자에서 상관의 강한 구덩이 속에 갇힌 남편의 형상을 보게 된다. 그 자체로서 내가 남편을 탓할 것이 아니라 “내 사주팔자가 이러하니 이런 사람이 들어 올 수밖에 없었구나!” 하는 통찰을 경험한다.”

“오히려 남편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극한 상황 속에 처해있는 남편, “마치 도

끼자루와 쇠망치를 들고 사방팔방 남편의 주위를 애워싸고 있는 상관의 깡패들 속에서 힘없는 나무와 같은 형상”인 것이다.”

“그리고 나 스스로 “20여년을 상관의 운속에서 얼마나 고되었을까?” 하는 생각으로 어쩔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힘들었던 ‘나에 대한 안아줌’ 즉, ‘나에 대한 수용’과 함께 나의 문제에 대한 통찰의 과정을 경험하였다.”

“나의 의지대로 펼쳐지지 않는 “숙명론적 한계상황”이라는 것이 있구나!, 아~ 그런 것이 있었구나!, 그랬구나! 내 잘못만은 아니었구나!”

삶에서 한계상황은 인간의 존재를 둘러싸고 늘 벌어진다. 물론 인간은 이러한 상황 속에 노출되어 있고 조절과 동화를 통해 어느 정도는 극복할 수 있다. 야스퍼스(K. Jaspers, 1883-1969)에 따르면 ‘한계상황’이란 누구나 쉽게 넘어 설 수 있는 소극적 상황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한계상황’은 우리가 부딪히고 거기에서 좌절하는 하나의 벽과 같은 존재로서 우리는 결코 이러한 한계상황을 변화시킬 수는 없을 것이다. 예컨대 죽음, 신체적 장애, 이혼 등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벌어지는 사건들을 말한다. 이러한 사건들은 명리학에서 말하는 ‘숙명적인 한계상황’이다.

비슷한 맥락으로 키르케고르(S. Kierkegaard, 1813-1855)는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말한 바 있다. 죽음이라는 것은 새로운 삶을 향한 통로로서 절망의 고통은 우리가 죽을 수 없다는 역설적 의미를 던져준다. 그에 의하면 절망은 부정적인 현상이 아니라 실존으로 도약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만 하는 과정이다. 절망은 인간에게 삶의 고귀한 가치를 돌아보게 하고 이를 통해서 자신의 진정한 실존으로 나아가게 할 것이다. 절망은 오히려 끝이 아니라, 자신과 진정으로 만나는 지점이 될 수 있고, 자신이 진정으로 무엇을 향해 나아가야 하는지 인식하는 자리이다. 그러므로 그가 말하는 절망은 자기 자신으로 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실존적인 사건이며 진정으로 신과 독대하는 순간일 수 있다(이서규, 2002).

오히려 남편의 입장이 되어서 이러한 옥조임이 어떨지 생각하게 되었다. 나의 사주 속에서 남편을 바라보며, 측은지심(惻隱之心)이 생겼고 안쓰럽게 남편을 보는 혜안이 생긴 것이다. 내 사주 속에서 보면 남편이 나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내 사주 속에서 내 팔자를 알게 되었고, 남 탓이 아닌 내 탓으로 하니까. 그 부분만을 안다는 자체

에서 나도 이해하고 타인도 이해하니까, 이것은 곧 ‘통찰’을 의미한다.

하이데거(M. Heidegger, 1889-1976)는 인간이 죽음이라는 마지막 종착역이 있기에 현존재로서 시간의 한계를 느끼며 삶을 보다 의미 있게 살 수 있음을 언급했다. 그것은 정해진 자신의 숙명론적인 인식의 틀에서 완전한 포기나 좌절이 아닌 새로운 의식의 탄생을 의미한다. 즉, 마지막이라는 상황은 실존적 인간으로서 창조적 미래를 펴기 위한 절망감으로서 야누스의 얼굴을 갖고있다(정영도 역, 2011; 박정태 역, 2008). 나는 명리학 공부를 하면서 풀꽃처럼 작은 존재임을 알게 되었다. 인간의 삶이 자연 그 자체로 느껴진다. 존재감도 없는 풀꽃이라도 ‘나는 나니까’, 사주팔자에 가지지 못한게 많은 나여도 인생을 포기하는 나약한 내가 아니라, 음양의 원리처럼 내가 없는 부분을 채우려고 노력할 줄 알고 삶에 치우침이 없이 살아가려는 노력을 한다는 것이다.

마) ‘가치(Virtue)’

“명리학 공부경험은 나에게 자기통찰과 수용을 주었다. 또한 삶에 대한 무기가 되어 병(病)을 치유할 약(藥)을 얻게 하였다. 지나간 한스러움을 공부로서 승화시키자. 명리학 공부를 통해 자신을 바라보고 성찰을 하는 가운데 자기 이해를 통한 치유적 기능을 발견하게 된 것이다.”

“20여 년 간 노력만으로 세상의 모든 일들이 해결되고 풀어질 줄 알았었다. 남은 것은 실패 속에서 빗더미에 남겨진 나, 보잘 것 없는 나밖에 없었다. 그러나 아무도 그것에 대한 답을 제시해 주지 않았다. 결국 나는 나의 삶의 문제를 명리학 공부에서 답을 찾을 수 있었다. 명리학 공부는 나에게 치유를 선사해 주었다. ‘도피’나 ‘회피’가 아니라, ‘나 자신에 대한 치료’였다.”

숙명론적 한계상황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시점이다. 예컨대, 부모 자식사이에 문제가 생기면, 사주만으로 답만 듣지 말고, 그 원인이 무엇인지 근본적인 것을 봐야 할 것이다. 사주의 문제가 아니라, 성격이 좋지 않다면 “그러한 사주구조구나!” 하면서 인정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물론 인정을 하는데 까지는 어려울 것이다. 인정을 하면 마음이 편해지는 것은 뻔한 일이다. 그러한 사주결과가 나오게 되는 과정을 들여다 보고 내가 왜 이렇게 화가 날까? 내가 왜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을 하는 것

일까?하는 자기문제에 대한 심리분석이 필요하다. 그것을 알고 접근하면 인정하기가 쉬울 수 있다. 그 이후 불쑥불쑥 무의식적으로 올라오는 감정들을 『주역』의 상황점을 가지고 ‘마음챙김’하면 쉬워진다.

일체유심조(一切唯心造)라고 억지로 하는 마음이 아니라, 나에게 대해 나의 심리적 기제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일어나는 사람인지를 알면, 그 감정에 대한 바라봄이 쉬울 수 있다. 숙명론적 한계상황에 대한 결과만을 답하는 것은 아닌 것이다. 명리학이라는 학문분야에서도 이러한 이유들을 알고 접근을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변한 마음은 참으로 중요하다. 일체유심조(一切唯心造)라고 했듯이 결과에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라, 죽대있게 ‘실존적 나’, ‘나 다운 나’로서 자아실현을 하는 자랑하며 강인한 나의 모습이 필요하다. 이는 태풍이 오는 것을 막아내는 그런게 아니라는 것이다. 내가 노력한다는 것, 기도하는 것은 내가 ‘우산을 쓰고 장화를 준비하자’는 마음상태로 말할 수 있다.

솔직히 상관이 나쁜 것만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내가 알고 있는 상관은 꽤나 독특하다. 일반적인 생각 따위는 거절하는 것이 상관의 특징이다. 유금(酉金)이 나에게서 상관이기도 해서 말에 치료적 의미가 있다고 말하기도 한다. 그래서 나는 상관의 기질을 좋아한다. 조선시대에는 흉신으로 불렸다면 요즘 세상에서는 유별나고 특별함과 개성이 있는 별이라고 말하고 싶다. 유금은 그 자체로 침, 수술용 칼, 세밀하고 정교한 도구처럼 유용하게 쓰면 치료적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글자의 속성을 갖는다. 나에게 유금은 표현 능력과 표출 능력으로서 식상에 해당하므로 말하는 능력, 언변이라고 말할 수도 있다.

상담 중에 남들과 다르게 좋은 말 보다 더욱 공감적 지지와 이해를 위해 ‘직면’과 같은 핵심을 찌를 수 있는 능력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유금은 십이운성(十二運星)으로 사지(死地)이기도 해서 종교, 철학, 상담, 심리 등에 흥미와 적성이 있다. 그래서인지 현재 하고 있는 상담공부, 명리학 공부를 흥미롭게 생각을 하는 것 같다. 그 만큼 걸어온 삶의 고된 여정상 슬픔과 고난이 있었지만, 그러한 어려움은 상담을 하는데 있어서 자양분 역할을 해온 것 같다. 상관적 기질은 상담을 잘 할 수 있는 사주구조이며 남편의 덕은 없지만, 업무분야에서 남들보다 탁월한 유능감을 갖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한 나의 상관적 성향을 부정적으로 보다는 긍정적인 부분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겠다.

바) 명리 상담자로서의 ‘전념행동(committed action)’

“그러나 빨리 ‘마음챙김’을 하죠. 화가 나고 있는 나의 모습을 빨리 천장에서 나를 바라보려고 합니다.”

“도끼를 가지고 가녀린 나무를 베어버릴 기세를 하고 있는 나의 상관들에 둘러 쌓인 남편을 보려고 합니다. 어려운 말로 ‘관찰적 자기’가 되는 것이죠. 그 순간 화와 분노는 사라집니다. 자동적 사고로 이어져 화풀이를 하지는 않죠.”

“다른 사람들보다 빨리 알게 되서 감사해요. 이런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정말 감사했어요. 내 남편이, 내 상황이, 힘든 현실이 말이죠. 명리학 공부를 하면서 많이 울었습니다.”

“지나간 한스러움을 공부로서 승화시키자.”

마지막 상황에 대한 경험은 자기 생성을 방해하는 경직된 세계관적, 제도적 틀로부터 인간을 자유롭게 하고, 인간에게 자기 존재의 깊은 영역으로 나아갈 것을 지시한다. 이는 인간으로 하여금 참자기를 돌아보게 하는 계기를 제공할 것이며, 자신의 삶에 대한 의문을 갖게 하고 인간으로서 능력의 한계를 지각하는 순간으로서 철학적 사고를 하도록 만든다. Jaspers는 한계상황을 긍정적으로 경험하는 일은 자기자신을 넘어서는 것이며, 그것은 즉 초월을 가능하게 한다고 언설하였다(이서규, 2002).

명리학 공부를 통해 자신을 바라보고 성찰하는 가운데 자기 이해를 통한 치유적 기능을 발견하게 된 것이다. 23년간 노력만으로 세상의 모든 일들이 해결되고 풀어질 줄 알았었다. 남은 것은 실패 속에서 ‘빚더미 위에 남겨진 나’, ‘보잘 것 없는 나’ 밖에 없었다. 그러나 아무도 그것에 대한 답을 제시해 주지 않았다. 결국 나는 나의 삶의 문제를 명리학 공부에서 답을 찾을 수 있었다. 그런 고통이 없었다면,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런 삶에 대한 철학적 깊이는 전혀 맛보지 못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내가 경험한 명리학 공부를 통해 세상에 나와 비슷한 문제로 씨름하고 힘들어 하는 내담자를 위해 알릴 생각이다. “명리학 공부는 치료다.” 라고...

3) 『주역』의 ‘상황점’과 명리학의 ‘운명점’의 치료적 의미(意味) 비교

연구자는 앞의 주역 ‘상황점’과 명리학 ‘운명점’을 통해 다음 그림 IV- 3. 과 같은 치료적 의미(意味)를 탐색할 수 있었다.

표 IV- 3. 주역 ‘상황점’과 명리학 ‘운명점’의 치료적 의미(意味)에서의 비교

한계상황에 부딪히다.	
周易 ‘상황점’	命理學 ‘운명점’
작은 틀	큰 틀
즉시성(right-now)	영원성(Pemenently)
부분	전체
길 or not 길, 흥 or not 흥	숙명적 받아들임을 통한 수용(Acceptance)
맥락적 자기이해	실존철학적 절대적 한계상황
時-中찾기(마음챙김-알아차림),	인지의 탈융합
늘 깨어 있음(현재와 접촉하기)	의식전환
일시적 불안 및 갈등해소	가치, 전념행동
심리적 유연성(치료적 요소)	

가) 『주역』 ‘상황점’의 치료적 의미

춘하추동(春夏秋冬), 춘하추동.. 6세트까지 지속적인 읊조림은 만트라송과 같이 치료적 의미의 기능이 있는 것 같다. 김태희(2016)는 만트라 명상법 중에 가장 오래되고 가장 신성한 소리 또는 단어는 절대자를 상징하는 음절 ‘옴(OM)’으로 베다시대부터 ‘OM’이라는 말은 신비한 힘을 나타내는 말로 알려져 있다. 또한 만트라 명상은 베다시대부터 고대 리쉬들을 통해 반복적인 염송이 창조적인 영적능력을 활성화시키며 그 결과 그들에게 전인적인 조화로움이 나타난다고 믿었다. 그리고 오직 명상수행을 통해서만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언급하며 치료의 의미를 말했다. 원정혜(2003)는 ‘만트라 요가’라고 해서 성스러운 소리를 반복해서 내고, 들어줌으로서 삼매의 상태로 들어감을 말한다. ‘OM’이라는 소리는 우주를 진동하는 소리로서 그만큼 성스럽고 자신에게 맞는 소리는 단순한 소리의 차원을 지나서 몸과 마음, 나아가서 영혼의 상태까지도 변화를 줄수 있는 의미있는 일이라고 말한바 있다.

불교에 있어서 관음주송(觀音呪誦)은 곧 관세음보살을 주송하는 신앙행위이다. 이와 같은 맥락으로 주역 상황점을 칠때, 6세트까지 50여번 ‘춘하추동(春夏秋冬)’을 읊조림

하면서 가지고 있던 불안상황이나 갈등상황을 잊어 버리고 오직 점대를 카운팅하는 나를 ‘마음챙김’한다. 이런 상황이라면 일시적인 불안을 해소하는데 있어서 치료적인 의미를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서법을 진행하는데 의식인 서의(筮儀)는 우리 조상들이 천지신명의 신성스러움을 불러내는 의식은 아니었을까? 마치 제사의식에서 신(神)을 불러들이는 절대적 하늘의 힘을 부르기 위한 절차였을 것이다. 관음주송을 지속하면 여러 효과가 있는데, 삼매에 들어가기도 할 뿐더러 심리적 안정을 얻을 수 있고 주송을 생활화하면 바로 불교의 참선수행과 내용이나 목적이 동일하다고 말한다(최기표, 2009; 김영태, 2010). 그러나 문을식(2011)은 제(祭)의 중심의 사고는 쇠퇴하게 되고 철학적 사색의 경향이 자리 잡게 되면서 사색 또는 명상을 중시하는 경향으로 가게 되었다고 말한바 있다.

인시(寅時: 새벽 3시-5시)에 일어나 마음과 몸을 가지런히 모으고 앉아 ‘물비소시(勿秘昭示)’하는 것은 그 자체가 주술적 의미가 있으며, 제를 신성시하기 위한 절차이다. 그리고 보다 의식적인 행동으로서 내안의 신성한 영성을 만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단계이기 때문에 치료적 의미가 있을 것이다. 점괘에 따라 희비는 엇갈릴 수 있다. 명상의 주요 효과에 있어서 ‘객관적 자기’로서 기계적인 접근이 아니라 나쁜 생각은 하나의 생각일뿐이지 그 이상이나 이하가 아닌 것이다(조옥경, 2009; 정종진, 2014). 그것은 곧 ‘그저 바라보기’로서 맥락적인 상황속에 있는 나를 지켜보는 것이다. 자기 관찰 태도는 심리치료에서도 치료적 통찰이 일어나기 위한 중요한 자아의 기능임을 말한 바 있다(Deikman, 1982; 하은희, 김성봉, 2019b).

이처럼 메타인지 차원에서 ‘관찰적 자기’로서 자기자비는 특히 성인 애착불안으로 인해 부적응적인 반응을 하게 될 때, 외상사건에 대한 의미를 재해석하고 수용을 가능하게 하는 유용한 대처자원이 될 수 있다(Neff, 2003a; 하진의, 2013). 또한 Assagioli(1974)가 주장한 ‘탈동일시’라는 기전을 통해 환자들로 하여금 부적응적 감정, 사고 행동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 그렇다면 상황점은 내 안의 영성인 참나를 찾기 위한 방법론의 일환은 아니었을까? 왜냐하면 우리의 하늘은 서양의 하나님과 다른 의미로 봐야하기 때문이다. 동·서양의 사고의 다름인 것이다. 요즘 심리치료식으로 말하면, 마치 지금의 ‘초월명성’이나 ‘마음 챙김’과 같은 수준일 것이다.

정병석(2007)은 나타난 궤효사는 하나의 자료로서 설문자의 특수한 상황과 결합되면서 설문자 자신에게 필요한 결과를 산출할 수 있다고 이미 언설하였다. 명리학의 ‘운

명점'처럼 『주역』도 상황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주역』은 크게 경학 즉 심학(心學)으로 마음의 질성을 깨우는 학문으로 일컫는 『주역』과 점서로서의 『주역』으로 나눌 수 있다. 하락리수(河落理數) 등 운명점의 형태도 있다. 특히, 명리학의 ‘운명점’을 통해 숙명적 한계를 알게 되고 좌절이 아닌 실존적 인간으로 사는 긍정적 나를 알 수 있다. 또한 숙명적 받아들임을 통한 내려놓기가 가능하다. 그러나 인간인지라 매 순간순간 모두 깨어 있지는 못할 수도 있을 것이다. 삶은 늘 고통스럽고 불안하다. “물비소시(勿秘昭示!)”하며 정갈한 마음으로 하늘과 교신을 통해 나온 점괘를 통해 객관적인 나, 맥락적인 나를 보는 작업 즉, ‘나를 알아 차리고 마음챙김하며 늘 깨어있음’에 대한 권유는 아니었을까? 그렇다면 다산은 일명 시-중(時中)찾기로서 여러 기로 선상에 놓여있을 때, 수양점(修養占)의 의미로 다가선 것일 것이다(정병석, 2012).

루마리노프(Lou Marinoff)도 64괘를 통하여 우리가 살아가는데 있어서 자신을 돌아보게 만드는 조언이나 명상거리를 제공하고, 그 괘가 말하고 있는 내용을 재료로 삼아 자기 스스로 대답을 찾아 스스로를 치료해 가도록 만드는 일련의 단계가 있다고 언급한바 있다(정병석, 2007). 주역은 64괘, 384효로 구성되어 있다. 점괘에 따라 희비는 엇갈릴 수 있다. 선택은 오직 나의 몫이 된다. 점괘를 취하든 버리든 그건 나 자신의 선택이고 개인에 따라 다른 답이 될 수도 있다. 이미 자신의 잠재의식 속에 들어 있던 것으로서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거울처럼 비춰주므로 그 속의 지혜는 당신의 지혜와 서로 울림이 되어 관계를 가질 수 있다(정병석, 2012). 그러나 그러한 선택은 자기 스스로 책임을 지도록 한다. 이 과정을 치러가는 상황에서 보통은 자신의 문제를 쉽게 바라볼 수 있다. 티벳의 티벳의 스님도 ‘알면 없느니라.’라고 언설한 바 있다. 점괘를 통한 나 자신의 모습을 마치 ‘천장에 떠서 나를 바라볼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맥락적 자기, 객관적 자기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다. 자기 안에 있는 두 사람, 즉 행위하는 자와 그 행위를 지켜보는자가 함께 존재(박태수, 2008)한다는 것을 자각하고 마음챙김을 해야 한다. 치유를 위한 시중(심귀득, 2011)의 기본원칙은 일상 속에서 자신이 처한 때의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이다.

위대한 다산은 『周易』의 상황점에서 아마도 현대인들의 ‘불안한 시대’를 앞질러 대중들에게 지금-여기(here and now)에서 늘 깨어있는, 선택의 기로에서 자신의 선택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인간 즉, “지혜로운-실존적-인간으로서-늘-거듭나라!”는 외침이 있었을 것이다. 하나의 상황점이지만 맥락적인 자기, 객관적 자기를 알아차릴 수 있다는

것은 인지 변화의 작용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은 일시적 불안과 갈등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는 자신에 대한 수용이며, 그것과 함께 상황 대처를 위한 심리적인 유연성을 통해 새로운 나 스스로 선택한 길로 진로를 결정할 수 있다는 것에 가치를 두며, 실천으로 이끄는 원동력이기 때문이다. 다산은 우리에게 주역의 수양적 측면을 외면하고 점사만을 보는 소인배들로 전락하는 모습이 아니라, 희·노·애·락·애·오욕(喜·怒·哀·樂·愛·惡·欲)과 같이 사람에게 일어날 수 있는 감정으로서는 늘 일어날 수 있는 칠정(七情)의 혼란 속에서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중용(中庸)을 찾으라는 메시지를 말하고 있다. 이는 곧 ‘시중 찾기’로서 큰범위에서 본다면 치유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나) 명리학 ‘운명점’의 치료적 의미

처음에 나는 23년 결혼생활 동안 내 의지대로 펼쳐지지 않는 삶을 수용하지 못했다. 정해진 운명이 있다는 것은 어불성설(語不成說)이라고 하며 미래를 예측하는 일은 단지 점술이라는 편견을 가졌었다. 그리고 나는 주어진 사주팔자대로 아무 영문도 모른채 주어진 환경과 여건에 반응을 하면서 산 죄 밖에는 없었다. 현모양처로 한 남자의 아내로 두 아들의 엄마로 살아왔다. 경제적인 부분이 바닥까지 간 상태로 세상 사람들에게 나의 의지와 다르게 거짓되게 행동을 하게 되었고 많은 상처를 주었던 것 같다. 결혼 전에는 경험해 보지 못한 삶의 풍파들이 몹시 버거웠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훌훌 털어 버리고 싶은 마음도 있었다.

그러나 명리학 공부를 통해 내 자신의 사주팔자에서 남편을 이해하고 나의 삶의 굴곡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었다. 나의 의지대로 펼쳐지지 않는 “숙명적 한계상황이라는 것이 있구나!, 아~ 그런 것이 있었구나!, 그랬구나! 내 잘못만은 아니었구나!”하고 그동안 안간힘을 다해서 밀리지 않는 무거운 수레를 끌고 언덕길을 올라가야만 하는 나의 모습, 어떤 것을 해도 성공이라는 것은 없었던 암울한 현실들, 경제적으로 바닥을 치는 상황들, 사기꾼으로 몰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불신감을 주기만 하는 나의 모습들이 안스럽게 느껴졌다. 스스로 나를 끌어안는 용기가 생겼다. 나 스스로도 거절한다, 자존심이란 저 밑바닥에 내버려질 수 밖에 없었던 나, 울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계기를 맞는다. “아~ 이거였구나! 그랬구나!” 지나간 지워진 과거들이 뒤엎겨진 실타래처럼 버려져 있다가 하나씩 실타래가 풀려지듯 정리되기 시작했다.

한편, 나 자신에 대한 수용과 안아줌과 함께 사주 여덟 글자에서 상관의 강한 구덩이 속에 갇힌 남편의 형상을 보게 된다. 그러한 형상은 마치 “도끼자루와 쇠파치를 들고 사방팔방 남편의 주위를 에워싸고 있는 상관의 강패들 속에서 힘없는 나무와 같은 형상”인 것이다. 안타깝고 안스러웠다. 내가 잘못 알았구나! 나는 늘 남편 때문에 “내 팔자가 이렇게 축대밭으로 변했어. 내 탓이 아니라 너의 탓이야.”라고 남편에게 돌렸었다. 물론 그 배경은 맞다. 남편이 벌려 놓은 것은 맞는 일이다. 그러나 “내 사주팔자가 이러하니 이런 배우자가 들어올 수밖에 없었구나!”하는 통찰을 경험한다. 명리학 공부에 헛되지만은 않았다. 이러한 깨달음은 물론 고승들이 하는 오도송에는 미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한 순간의 성찰은 나를 전혀 다른 사람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는 계기를 선물해 주었다. 오히려 남편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극한 상황 속에 처해있는 남편을 이해하고 수용하게 된다. 이러한 순간은 나에게 깨우침의 순간인 것은 확실하다.

그리고 나 스스로 “20여년을 상관의 운속에서 얼마나 고되었을까?”하는 생각으로 어쩔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힘들었던 ‘나에 대한 안아줌’ 즉, ‘나에 대한 수용’과 함께 나의 문제에 대한 통찰의 과정을 경험하였다(인 경, 2009; 장경화, 조원경, 2019). 스스로 나 자신을 인정하게 되었다. 그 다음 부터는 쉬웠다. “이러한 과정이 있었구나! 그래서 힘들었겠구나!”하는 맥락적으로 나의 상황과 행동을 인정하는 나, 객관적인 나로서 나의 문제를 먼발치에서 바라보는 관찰적인 내가 되어있었다. 이러한 과정은 심리적 유연성과 관계가 있다. 나를 인정하고 수용하며, 나의 문제에 대한 통찰경험은 더 이상 괴로워 하지않고 실존적 인간으로서 거듭 태어날 수 있도록 촉매제의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더 이상 내 운명에 대한 불평불만은 없다. 이것은 단순한 깨달음이라고 할지라도 기존에 가지고 있던 인지의 체계를 획기적으로 탈바꿈하는 ‘혁명적 변화’인 것이다(조수동, 최지승, 2007; Steven. C. Hayes, Kirk. D. Strosahl, & Kelly. G. Willson (2012).

이처럼 개인에 따라 그 깨달음의 순간은 천차 만별일 수 있다.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거역할 수 없는 ‘운명적인 받아들임’내지 ‘내려놓기’인 수용은 나의 삶에서 많은 변화를 가져다 주었다. 자신의 상황을 이해한다는 것은 인간이 행위와 그 태도에 대해 변화를 가능하게 하며 이미 그것은 상황을 변경시키는 것과 같다. 어떤 상황을 인정한다는 것은 그 상황을 진두지휘하는 사령관이 되기 시작하는 것이다(이서규, 2002). 고

차원의 의식수준에 이르면 인간은 지금까지 살아온 과거를 반성하고 궤도를 수정하면서 비약적인 성장을 준비한다. 고도의 의식상태를 한순간 경험했을지라도 그 순간의 경험은 인생에 대한 생각에서 고차원적으로 진화하도록 만든다(소광희, 2003; 박상주, 2007). 나는 감사하고 또 감사하다. 지금 이렇게 살아 있다는 것에 감사하고 나의 힘겨웠던 삶이 인성도 없는 내가 남들이 하기 어렵다고 하는 박사공부를 하는 계기가 되었으니 이 어찌 감사하지 않을 것인가! 거친 세상에 내 던져져 상관의 기질로 잘 버텨왔다고... 나를 꼭 안아 주고 싶다.

정리하면, 동양철학인 『주역』과 명리학 이 두 영역은 모두 ‘때’를 아는 방법의 모색이다. 다산(茶山)은 ‘때’에 따라 부단히 변화해 가는 상황에 주체적으로 대응하고자 ‘시중론(時中論)’을 제시하였다(심귀득, 2011). 명리학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자연의 변화와 개인 삶의 주기가 일치한다는 사상을 전제로 ‘때’를 찾는 이론임을 피력하고 있다(심귀득, 2011). 이미 명리학의 용신오행(用神五行)과 기신오행(奇神五行)을 모두 성향으로 바꾸어 성향의 측면에서 자신을 알고 때의 주기와 성질을 읽어낼 수 있고, 스스로 돌아보고 어느 성향에 걸려 고통스럽고 병이 들었는지 알아낼 수 있는 동양 수행법의 가능성을 이미 언설하였다(정병석, 2007). 또한 명리 사주분석적인 “숙명론적 한계상황의 수용”(하은희, 김성봉, 2019b: 1275)을 통해 자신의 성향을 바라보고 고통을 일으키는 성향을 읽어내는 자각(自覺) 과정속에서 자신을 이해하고 인정하며 화해하는 과정을 통한 치유가 가능하다. 서명석(2013, 2016)도 주역점을 통해 심학(心學)의 ‘시 - 중 (時中)찾기’로서 인생이라는 리듬에 튜닝하며 살라고 주역점의 지혜를 알리고 있다.

이처럼 동양철학으로서 음양의 논리를 안다면, 우리는 이분법적으로 최주역이니 김주역이니 하는 자들처럼 자신의 인생살이를 왈가불가하는 얇은 학문이 아니라, ‘운명적 받아들임’을 통해 실존적 인간으로 거듭날 수 있다는 원리를 알아야 할 것이다(송지나, 2011). 늦깎이로 명리학 공부를 하게 된 것이 아쉽지만, 나는 인생의 남은 시간을 오히려 나에게 주어진 사주팔자를 인정하고 적극적으로 살 것이다. 그렇다면 ACT적 요소로서 자신의 주어진 사주팔자를 통해 ‘운명적 받아들임’을 한 나는 이제부터 새로운 제2의 인생을 꿈꾸며 가치를 부여하고 ‘진정한 삶의 실천’에 전념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명리학도로서 명리학에 맹신하듯 논리적 비약을 했는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나에게 - 명리학-공부경험은 - 치료적 의미로-다가온다.”

명리학이라는 학문은 균형이 깨어지는 흉한 시기가 되면 세상에 나아가기보다는 칩거한 채 자신을 갈고 닦으면서 앞날을 준비하는 독선기신(獨善其身)의 자세를 지녀야 함을 말하고 있다. 명리학에서 자연 에너지인 오행의 기운이 자신의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시기에만 세상에 나아가 건강하게 자신의 뜻을 펼칠 수 있다는 관점은 주역의 때에 맞게 행하고 대처한다는 시중 사상의 구체적 적용(심귀득, 2011)이라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삶의 여유와 함께 내가 생긴대로 내가 갖고 있는 만큼을 알고 자신에게 가치를 부여하는 일은 진정한 자아실현이요, 삶을 원활하게 하는 지혜이므로 ‘치료적 의미’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V. 명리상담에서의 단기상담 요소

1. 십이운성론(十二運星論)

미래를 불안해하는 사람들은 상담센터를 방문하기 마련이다. “오늘 왜 여기에 와서 상담을 하려는 것일까?” 명리학에는 그에 대한 답을 줄 수가 있다. 오늘 무슨 이유로 상담을 받으러 왔는지를 알고 있다면 상담은 바로 단기상담으로 갈 수도 있을 것이다. 한 시간일지라도 그날에 맞닥뜨린 천간과 지지의 운기를 통해 화두를 제시할 수 있다. 순탄하게 잘 펼쳐지는 상황과 불편한 상황을 동시에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장에서는 명리학의 주요이론으로서 십이운성론의 고찰을 통해 단기상담을 위한 주제인 ‘핵심 던지기’에 대한 답을 제시할 것이다.

가. 십이운성의 개념

십이운성은 천간의 기(氣)가 땅에 미치는 순환의 원리이며 변화의 법칙을 뜻하는 것으로서 일명 포태법(胞胎法) 또는 장생법(長生法)이라고도 한다. 다시 말하면 10천간(天干)이 12지지(12地支)와 만났을 때 생왕(生旺)의 기(氣)를 얻거나, 반대로 사절(死絕)이 되는 과정을 말한다.

“오행은 십이궁에 기생하고 있으니 장생, 목욕, 관대, 임관, 왕, 쇠, 병, 사, 묘, 절, 태, 양이 그것이다. 처음에 시작하여 끝에 다다르면 다시 처음으로 되돌아와서 끝없는 순환을 반복하고 있는 것이다. 자연의 조화가 인간의 운명과 거의 유사하다고 할 것이니 순환하는 오행의 십이궁 역시 인간의 윤회와 같다고 하였다.”⁴⁴⁾

44) 萬民英 (2009). 『三命通會』, 「論五行旺相休囚死並寄生十二宮」. 臺灣: 武陵出版有限公司, 104- 105: “五行寄生十二宮 長生 沐浴 冠帶 臨官 帝旺 衰 病死 墓絕胎養 循環無端週而復始 造物大體 與人相似 循環十二宮 亦苦人世輪迴也”

십이운성은 마치 출생에서 죽음에 이르는 생노병사(生老病死)의 과정을 그려 놓은 것과 같은데, 태어나서 자라고, 결실을 맺고, 결실을 맺은 후에 모체는 병들어 죽어 없어지며 이러한 순환은 반복된다. 사주 분석을 할 때 일간이 놓여진 환경의 운기를 파악하는데 참고한다. 십이운성은 절(絶)→ 태(胎)→ 양(養)→ 장생(生)→ 욕(浴) → 대(帶)→ 건록(建祿)→ 왕(王)→ 쇠(衰)→ 병(病)→ 사(死)→ 묘(墓)의 순으로 변화된다. 청대의 명리 연구가였던 심효침은 전통 명리서의 학설을 받아들여 음포태를 인정하고 있다. 특히 양생음사(陽生陰死), 음생양사(陰生陽死)를 주장하는데, 이는 양이 생(生)하는 곳에서는 음이 사(死)하고, 음이 생하면 양이 사하는 원리에 대해 말하는 것이다.⁴⁵⁾ 예컨대, 낮은 양(陽)이고 밤은 음(陰)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낮은 양의 기운이 지는 저녁이 되면 비로소 밤의 그늘이 드리우는 것으로 말할 수 있을 것이다(심문국, 2012). 이처럼 동양의 음양론은 그 안에 많은 함축적 의미를 품고 있다.

『연해자평』⁴⁶⁾에서 이러한 음양의 원리를 바탕으로 ‘양간과 음간의 다름’을 바탕으로 음포태를 인정하면서 십이운성의 개념을 설명한다. 음양오행론은 명리학의 핵심적 이론으로서 음양의 대칭성, 상생·상극의 작용성, 주객 전도성이라는 작용의 3대 현상을 중요시한다. 오행의 상생(相生)과 상극(相剋)작용을 단순한 물질 반응 작용이 아닌 성장과 지지의 순환, 역동적 운동의 반복적 변화 작용으로 해석하고 오행사이에 기울어진 성쇠인 비정상적인 현상이 생기면 그 본래의 형평성을 유지할 수 없어 이상상태(異常狀態)가 발생하는 원리로 이해된다(김상일, 2005; 최성수, 2007: 72). 이러한 음양의 변화원리에 입각한다고 본다면, 십이운성의 순환관계에 대한 매커니즘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45) 심효침(沁孝瞻) 저, 서락오(徐樂吾)평주, 박영창 역 (2007). 『자평진진평주(子平眞詮平柱)』, 「論陰陽生死」:

“陽主聚 以進爲進 故主順; 陰主散 以退爲退 故主亦. 此長生 沐浴等項 所以有陽順陰逆之殊也. 四時之運 成功者去 待用者進 故每干流行於十二支之月 而生王墓絕 又有一定. 陽之所生 卽陰之所死 彼此瓦換 自然之運也.”

46) 『연해자평(淵海子平)』, 「論天干生旺死絕」: “甲木生亥, 沐浴存子, 冠帶在丑, 建祿在寅, 帝旺在卯, 衰在辰, 病在巳, 死在午, 墓在未, 絕在申, 胎在酉, 養在戌. 乙木生午, 沐浴在巳, 冠帶在辰, 建祿在卯, 帝旺在寅, 衰在丑, 病在子, 死在亥, 墓在戌, 絕在酉, 胎在申, 養在未. 丙火生寅, 沐浴在卯, 冠帶在辰, 建祿在巳, 帝旺在午, 衰在未, 病在申, 死在酉, 墓在戌, 絕在亥, 胎在子, 養在丑. 丁火生巳, 沐浴在申, 冠帶在未, 建祿在午, 帝旺在巳, 衰在辰, 病在卯, 死在寅, 墓在丑, 絕在子, 胎在亥, 養在戌. 庚金生巳, 沐浴在午, 冠帶在未, 建祿在申, 帝旺在酉, 衰在戌, 病在亥, 死在子, 墓在丑, 絕在寅, 胎在卯, 養在辰. 辛金生子, 沐浴在亥, 冠帶在戌, 建祿在酉, 帝旺在申, 衰在未, 病在午, 死在巳, 墓在辰, 絕在卯, 胎在寅, 養在丑. 壬水生申, 沐浴在酉, 冠帶在戌, 建祿在亥, 帝旺在子, 衰在丑, 病在寅, 死在卯, 墓在辰, 絕在巳, 胎在午, 養在未. 癸水生卯, 沐浴在寅, 冠帶在丑, 建祿在子, 帝旺在亥, 衰在戌, 病在酉, 死在申, 墓在未, 絕在午, 胎在巳, 養在辰.”

나. 십이운성의 의미

십이운성은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자연현상에 따른 생왕사절을 나타내는 말이다. 인간에게 비유하자면 갓난 아기부터 유아기, 성장기, 노년기를 거쳐 병들고 죽고 묘지에 묻혀 자취도 없이 사라졌다가 다시 엄마의 뱃속에서 태아가 잉태되는 원리와 같은 것이다. 장생, 목욕, 관대, 건록, 왕, 쇠, 병, 사, 묘, 절, 태, 양의 순으로 변화과정을 거치게 된다. 각각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각론으로 들어가 보자.

‘절(絶)’은 세상과 모두 단절되어진 상태로 아무것도 없이 세상과는 인연이 끊어진 상태로 존재가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 ‘태(胎)’는 엄마의 모체 속에서 정자와 난자가 만나 수정이 되어 착상한 상태로 본다. 이러한 모습은 생명체가 전혀 없는 것이 아니라 이제 막 생명의 씨앗이 막 태동하기 시작한 상태로 말할 수 있다. 다음으로 ‘양(養)’은 엄마 뱃속에서 자라고 있는 그런 태아의 상태로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장생(長生)’은 마치 갓난아이와 같은 형국이다. 이제 막 태어난 아기의 모습처럼 유순하고, 착하고 어린 모습이다. ‘목욕(沐浴)’은 걷기를 시작한 아이처럼 호기심도 많고 사물의 이것저것에 흥미를 갖는 모습이며, 글자 그대로 멋도 잘내고 행동이 가벼울 수도 있을 것 같은 철이 없는 모습으로 비유해 볼 수 있다. ‘관대(冠帶)’는 갓을 쓰고 도포를 입는다는 이야기처럼 이제 어른으로 성숙해 가는 모습으로, 사춘기 청소년을 비유하면 좋을 것 같다. 그들은 소위 ‘상상적 청중’(정옥분, 2014)이라는 말처럼 자신이 마치 연애인이 된 것처럼 으스스대고 아직은 성숙하지 않은 단계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한 이유로 관대는 도도하고 거만한 모습과 비유할 수 있겠다.

다음은 ‘건록(建祿)’이다. 이는 20대 성인이라 볼 수 있다. 성인으로 들어와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게 되는 형상이지만, 아직은 완벽하거나 완숙미에는 이르지 못한 상태로 볼 수 있다. ‘제왕(帝旺)’은 성인의 중년기에 비유해 볼 수 있다. 어느 정도 자신의 능력을 통해 인생을 살아가는 노하우도 생겼고 인생에 있어서 가장 전성기라고 부르는 시기이다. 여유도 있고 성숙한 어른의 모습이다. ‘쇠(衰)’는 글자가 의미하고 있듯이 전성기를 지나서 흥함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노년기로 비유할 수 있다.

‘병(病)’의 의미는 병들고 늙고 인생의 하향 곡선을 그리는 시기와 같다. ‘사(死)’는 죽는다는 의미이므로 죽은 사람에 비유를 할 수 있는데, 어떠한 일을 시작하고 전성기

를 겪고 모든 것을 끝내는 정리의 느낌이 강하다. ‘묘(墓)’는 사람이 죽어서 묘지에 묻히는 모습으로 표현할 수 있다. 현생에서의 삶을 마감하는 상황이다.

여기서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인간의 성장과정으로 표현했으나, 모든 만물은 태양과 달의 변화의 주기속에서 1년 12개월을 거치면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이러한 변화를 갖는다는 것을 그대로 옮겨 놓은 것이 바로 십이운성이라고 말할 수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개념들을 바탕으로 단기상담을 위해 내담자가 현재 어떠한 운기속에서 어떠한 성장과 쇠퇴의 운로를 겪고 있는지 가장 힘든 상황은 무엇인지에 대한 답을 줄 수 있는 것이다. 예컨대, 갑(甲)과 을(乙)을 보자.

“갑(甲)은 목 가운데 양이므로 하늘의 생기가 되는데 만목에서 그 기가 흐르는 것이다. 그러므로 해(亥)에서 생(生)하고 오(午)에서 사(死)한다. 을(乙)은 목 가운데의 음이므로 목의 지엽이 되는데 하늘의 생기를 받아들인 것이다. 그러므로 오(午)에서 생하고 해(亥)에서 사하게 된다. 무릇 나무는 해월(음력 10월)이 되면 잎이 지지만 생기는 그 속에 저장되어 있다가 봄이 오면 다시 피어날 준비를 한다. 그 생기는 해에서 생하는 이치라고 하겠다. 나무는 오월이 되면 잎이 무성하게 되는데 어찌해서 갑(甲)이 사한다고 하는가? 겉으로는 비록 무성하지만 그 속의 생기는 이미 밖으로 다 발설되어 기진맥진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오에서 사하는 것이다. 이것은 질(質)과 기(氣)의 다른 점을 논한 것이다. 갑과 을의 예를 들었으니 여타의 천간도 이렇게 유추하길 바란다.”⁴⁷⁾

위의 내용을 통해서 갑목(甲木)과 을목(乙木)의 생왕사묘(生旺死卯)를 정리해 보자. 갑은 해(亥)에서 장생, 자(子)에서 목욕, 축(丑)에서 관대, 인(寅)에서 록, 묘(卯)에서 제왕, 진(辰)에서 쇠, 사(巳)에서 병, 오(午)에서 사, 미(未)에서 묘, 신(申)에서 절, 유(酉)에서 태, 술(戌)에서 양에 이르는 과정을 순환적, 반복적으로 겪는다(박청화, 2015).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삼합(三合)의 논리가 나타난다. 해묘미(亥卯未)는 목(木)의 삼합

47) 심효침, 박영창 역 (2007). 『자평진전평주(子平眞詮平柱)』, 「論陰陽生死」. 서울: 청학출판사, p33: “甲爲木之陽 天之生氣流行於萬木者 是故生於亥而死於午. 乙爲木之陰 木之枝枝 葉葉 受天生氣 是故生於午而死於亥. 夫木當亥月 正枝葉剝落之候 而甲何以生不知 甲爲木之生氣 外雖落而內之生氣 已收藏飽足 可以爲來春發洩之機 此所以生於亥也. 木當午月 正枝葉繁盛之候 而甲何以死? 不知外雖繁盛 而內之生氣發洩已盡 此所以死於午也. 乙木反是午月枝葉繁盛 卽 爲之生 亥月枝葉剝落 卽爲之死 以質而論 自與氣殊也. 甲乙爲例 餘皆可推.”

국으로서 갑목은 해(장생지), 묘(제왕지), 미(묘지)라는 운동의 속성을 지닌다는 것이다. 이것은 단순 논리가 아니라, 무슨 일이든 시각이 되면(長生), 어느 정도 성장하려는 과정을 거쳐 절정기에 이르게 되고(帝旺), 다시 내리막길에 이르면서 끝나는 시기가 있다는 의미일 것이다. 옛 말에도 정상에 올라가면 내리막길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말이 있듯이 모든 이치는 이와 같은 반복적 과정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부분은 상담계에서는 ‘치료적 의미’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는데, ‘앞’은 이전에 가지고 있는 사고의 변화를 갖어다 주기 때문이다. 만약 비가 올것을 미리 예측한다면 ‘비옷이나 우산을 준비하는 마음’처럼 삶의 여유를 가질 수 있는 논리인 것이다. 내 사주 속에서 가족이든, 직장이든, 자식이든 혹은 재물이든 지금 처한 십이운성의 상태를 파악한다면 자신을 비롯한 주어진 환경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고 통찰이 가능하다. 아마도 생활 속에서 이러한 어려움들에 대해 얼마든지 대처할 수 있을 것이다. 나머지 갑을 제외한 천간들도 이러한 변화과정을 겪게 된다.

2. 『궁통보감(窮通寶鑑)』에서 말하는 갑목(甲木)의 십이운성의 변화

이번 장은 십이운성의 개념을 쉽게 이해하기 위해 『궁통보감』에서 말하는 갑목(甲木)을 중심으로 각론으로 들어가 그 의미를 파악할 것이다. 『궁통보감』은 조후(調候)를 중심으로 자연의 원리에 입각하여 10천간의 생왕사절(生旺死絕)에 대해 잘 설명하고 있다. 여기서는 조후적 차원보다 갑목이라는 나무가 춘하추동을 거치면서, 성장하고 변화하는 과정을 들여다 볼 것이다.

가. 해월갑목(亥月甲木)

“갑은 해에서 장생하고 자에서 목욕, 축에서 관대, 인에서 건록, 묘에서 제왕, 진에서 쇠하며, 사에서 병들고 오에서 묘지로 행하며, 신에서 절지, 유에서 태지, 술에서 양지에 이른다.”

위의 내용은 10개의 천간으로 갑·을·병·정·무·기·경·신·임·계 중에서 천간(天干)의 가장 첫 글자인 갑목(甲木)에 대한 『연해자평』의 해석이다. 갑은 목가운데 양이므로 하늘의 생기가 되는데 만목에서 그 기(氣)가 흐르는 것이다. 그러므로 해(亥)에서 생(生)하고 오(午)에서 사(死)한다. 10월의 갑목을 보자. 여기서는 음력의 10월을 말하는데, 이때는 초겨울이다. 초겨울의 나무를 상상해 보면 이해가 쉬울 수 있다. 어떤 나무로 보이는가? 아마도 사람들은 번성했던 녹음의 무성함은 잊은지 오래 된 나무, 앙상한 가지만 남고 낙엽이 진 볼품없는 나무의 물상(物象)을 떠올릴 수 있다. 갑은 물상적으로 볼 때 낙락장송, 큰 고층빌딩처럼 우뚝 솟은 형체로 표현할 수 있다. 한편 여기서 갑은 어떤 기(氣)의 흐름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역동적으로 운동하는 추동력이나 대지를 거스르고 나오는 힘을 생각하면 이해가 쉽다.

음력 10월의 나무는 겉으로는 가지만 앙상해서 힘이 없을 것 같지만, 얼마 남지 않은 봄을 대비하여 땅 밑에서는 많은 물을 머금고 있는 나무로서 겉과는 다르게 안에서는 분주히 봄을 준비하는 에너지가 가득 찬 생기가 막 생기기 시작한 상태의 나무라고 볼 수 있다. 예컨대, 우리가 고로쇠 수액을 채취하는 시기도 아마 이와 비슷한

시기가 될 것이다. 6음(六陰)까지 간 나무의 형체는 죽은 것 같고 힘이 없는 나무로 보이나, 그 안에서는 1양(一陽)으로 양의 기운을 향하여 준비하는 시기로 보면 될 것이다. 이제 나무의 일생을 시작하기 위해 막 ‘태어난 아기’와 같은 이미지로 볼 수 있다. 고로 이 시기를 ‘장생(長生)’이라고 말한다. 곧 갑목은 음력 10월인 해월에서 장생한다는 의미인 것이다. 이처럼 음양의 변화원리는 십이운성의 개념이 자연스럽게 녹아 있음을 알 수 있다. 해월갑목(亥月甲木)에 대해 『궁통보감(窮通寶鑑)』에서는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자.

“10월의 갑목(甲木)은 경금(庚金)과 정화(丁火)가 필요하고, 병화(丙火)는 그 다음이다. 임수(壬水)는 기피하는바 물이 많으면 나무가 뜨게 되기 때문에 무토(戊土)로 물을 제어해야 한다.”⁴⁸⁾

위의 내용으로 본다면 일간이 음력 1월부터 12월까지 어느 달에 태어났느냐에 따라 그 성향과 기질이 달라질 것이며 무엇을 보충해 주어야 하는지 사주속에서 어떤 용신(用神)을 가지고 있어야 자연의 섭리를 거스르지 않고 잘 성장해 나아갈 수 있을 지를 쉽게 설명하고 있다. 그러한 지혜를 설명하기 위해 다음의 사례를 살펴보자.

“만약 경금(庚金), 정화(丁火)가 투출하고, 다시 또 무토(戊土)의 천간 투출을 더한다면, 이름 하여 탁함을 제거하고 맑은 것이 남는다고 하며, 부귀가 극에 이를 것이다. 가령 정화가 없다면 조금 부귀할 따름이다. 혹은 갑(甲)이 많아 무토를 제하는데 경금이 뿌리가 없으면 보통 사람이나 경금과 무토가 통근하여 투출되었다면 비록 비겁(比劫)이 나온다 해도 반드시 부유하고 장수한다.”⁴⁹⁾

48) 이을로 역 (2007). 『窮通寶鑑講解』, 「論亥月甲木」. 서울: 동학사, p133.:
“十月甲木 庚丁爲要 丙火次之 忌壬水泛身 須戊土制之”

49) 위의 책. p134.: “若庚丁兩透 又加戊出干 名曰去濁留清 富貴之極 卽乏丁火亦 稍有富貴 或甲多制 戊庚金無根 平常人也 庚戊若透 雖出比劫 必定富而壽.”

【원문 예시 V- 1】 화, 토가 있어 정일품 벼슬에 오른 사람의 사주⁵⁰⁾

시일월년(乾)

甲甲乙己

子子亥巳

戊己庚辛壬癸甲

辰巳午未申酉戌

해월에 태어난 갑목일간의 사주이다. 가뜩이나 물기운이 충천한데 지지까지 해자(亥子)로 방합(房合)하여 물이 범람하고 있다. 그러나 기토(己土)가 천간에 뜨고 지지의 사화(巳火)에 통근(通根)하고 있으며, 사화 중 무토(戊土)와 병화(丙火)를 써서 물기운을 막고 있다. 다행인 것은 대운이 초년에는 금기운으로 향하여서 금생수(金生水)하여 물기운을 더 돕는 형국이었으나, 운의 후반기부터는 화(火)의 기운으로 향하게 됨을 알 수 있다. 일품(一品) 벼슬을 하였다고 한다. 이처럼 사주자체가 불균형 상태일 경우는 병이 될 수 있다. 다행히 약(藥)이 될 수 있는 용신(用神)이 사주에서 힘을 발하고 있어서 벼슬에 오르는 영광을 얻을 수 있었다.

나. 자월갑목(子月甲木)

“11월의 갑목은 목이 차가와지므로 우선 조후(燥候)를 위해 정화를 먼저 쓰고 경금을 나중에 쓰며, 병화(丙火)인 식신(食神)으로 계수(癸水)인 정인(正印)을 다스린다. 경금(庚金)으로 갑목을 쪼개서 정화(丁火)로 갑목을 쓸 수 있게 하는 것이 용신(用神)의 본질이다. 경금과 정화가 투출하고 지지에 사화(巳火)와 인목(寅木)을 본다면, 풍수가 도와주지 않아도 공명을 이룬다. 만약 계수가 투출하여 정화(丁火)를 손상시키게 되는데 이때 무기토(戊己土)가 돕지 못하면 질병이 있는 사람이다. 혹시 임수(壬水)가 중하고 정화(丁火)가 없는 사람이라면 병화(丙火)를 득해서 병임충(丙壬沖)을 하면 임수가 있어도 정화를 쓸 수 있는 묘함이

50) 이을로 역 (2007). 『窮通寶鑑講解』, 「論亥月甲木」. 서울: 동학사, p135:
“火土得位 官之一品.”

있다.”⁵¹⁾

【원문 예시 V- 2】 물에 빠져 죽은 사람의 사주⁵²⁾

시일월년(乾)

壬甲戌乙

申辰子巳

辛壬癸甲乙丙丁

巳午未申酉戌亥

지지(地支)가 신자진(申子辰) 수국(水局)이고 임수(壬水)가 투출하였다. 무토(戊土)가 도도한 물기운을 막지 못하여 수범목부(水泛木浮)가 된다. 갑목이 수가 많아 떠내려갈 형국인 것이다. 신운(申運)은 원명에 물기운이 강한데 신자진 삼합국을 형성하여 워낙 물기운이 강한 상태에 설상가상(雪上加霜)으로 더 강하게 하는 운이므로 물에 빠져 죽었다. 이러한 상황은 수(水)가 많아서 병(病)이 되는데, 다시 수가 범람하여 독(毒)이 된 상황인 것이다.

다. 축월갑목(丑月甲木)

“십이월 갑목은 천기가 춥고 얼어 있어 목의 성질은 극에 처해있고 만물이 생하는 것이 없다. 먼저 경금(庚金)을 써서 갑목(甲木) 쪼개면 정화(丁火) 상관을 이끌어 쓸 수 있고 목화통명(木火通明)의 상이 된다. 따라서 축월갑목에게는 경금이 우선이고, 정화가 그 다음에 사용한다.”⁵³⁾

51) 위의 책, 『窮通寶鑑講解』, 「論子月甲木」, p143:

“十一月甲木 木性生寒 丁先庚後 丙火佐 癸水司權 爲火金之病 庚丁兩透 支見巳寅 科甲有准 風水不及 選拔有之 若癸投 傷丁無 戊己 備求 殘疾之人 或壬水重出 丁火 全無者 庸人也 得丙方妙。”

52) 이을로 역 (2007). 『窮通寶鑑講解』, 「論子月甲木」. 서울: 동학사, p147:

“一派水局 申運溺死.”

53) 위의 책, p151: “十二月 甲木 天氣寒凍, 木性極寒, 無發生之象, 先用庚劈甲, 方引丁火, 始得木火有通明之象 故丁次之.”

【원문 예시 V- 3】 남편 덕이 없는 사주⁵⁴⁾

시일월년(坤命)

庚甲丁甲

午寅丑子

庚辛壬癸甲乙丙

午未申酉戌亥子

위의 사주는 1925년생 여자의 명이다. 남자에게 경금(庚金)은 관성(官星)으로 귀함을 나타내고 정화(丁火)는 재물을 만드는 원신(原神)이 되지만, 여자에게 정화는 상관(傷官)으로서 너무 강하면 갑목의 수기를 표출하는 것을 버리고 관을 상하게 하면서 상관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이 사주에서 여자에게 남편궁은 월지(月支)가 되는데, 월지의 축토는 금의 묘지(墓地)가 되니 관고(官庫)로 부성입묘(夫星入墓) 되었다. 관고인 경우는 여러 가지로 해석이 가능한데, 남편으로 인해 시름이 그치지 않을 수 있다. 예컨대, 남편이 직업적으로 제역할을 하지 못한다던지, 아프다던지 속을 썩힌다던지 그러한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

또한 칠살인 경금이 시(時)에 있으나 앉은 자리가 인오술(寅午戌) 화국(火局)으로 극을 당하고 있어 경금은 자신의 할일을 못할 수 있다. 월간(月干) 정화(丁火)는 인오술(寅午戌) 화국(火局)과 년일(年日)에 있는 갑목(甲木)의 생조(生助)로 인해 강한 화기운이 더욱 강해진다. 상관이 이러한 형국으로 강하고 실제로 남편을 잃고 재혼을 하였으나 재혼한 남편도 요절하였다고 한다. 궁합(宮合)을 볼 때, 상관(傷官)이 많은 식상다자(傷官多者)는 남편궁에 많은 문제가 있을수 있으므로 부부가 해로하기 어렵다(남 덕, 2004).

라. 인월갑목(寅月甲木)

“정월 갑목은 이른 봄의 차가운 기운이 남아 있으므로 천간에 병화(丙火)와

54) 이석영 (1996). 『사주첩경(四柱捷經)』. p156.

계수(癸水)가 투출되어 부귀를 얻는다. 만약 병화와 계수가 숨어 있으면 차가운 나무가 햇빛을 보는 것과 같아 풍수(風水)가 안 좋아도 준수함을 잃지 않지만, 만약 병화와 계수가 없으면 보통 사람이다.”⁵⁵⁾

【원문 예시 V- 4】 진사(進士) 벼슬을 한 사주⁵⁶⁾

시일월년(乾命)

丙甲戊庚

寅寅寅申

甲癸壬辛庚己

申未午巳辰卯

사주가 위와 같고, 운이 금수(金水)로 흐르면 진사의 공명은 이를 수 있다. 천상삼기인 갑무경(甲戊庚)을 갖추었으며, 인월(寅月)의 갑목(甲木)이므로 용신의 개념으로 강한 나무의 기운을 설기시킬 병화(丙火) 식상(食傷)이 천간(天干)에 떠있어 힘을 받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강한 갑목을 제화시킬 경금도 천간과 지지에 통근하여 멋지게 년주(年柱)에 우뚝 솟아있어 멋지다. 대운도 전성기에 화국(火局)으로 흐르니 강한 목기를 설기시킬 약(藥)이 있어 절묘하다.

마. 묘월갑목(卯月甲木)

“2월의 갑목이 경금을 얻었다면 양인가살(羊刃駕殺)이라 하여 조금 귀하게 되거나, 다른 길로 현달할 수 있다. 만일 명주(命主)가 무직(武職)이라면, 재물의 뒷받침이 필요하게 되는데 주중에 재성이 있는 경우는 홀로 만인을 압도할 수 있는 영웅이 된다. 만약 계수가 보여 재성과 칠살을 곤란하게 한다면 명주는 약삭

55) 이을로 역 (2007). 『窮通寶鑑講解』, 「論正月甲木」. 서울: 동학사, p54: “正月甲木 初春常有餘寒 得丙癸透 富貴雙全 癸藏丙透 名寒木向陽 主大富貴 倘風水不及 亦不失儒林俊秀 如無丙癸 平常人也.”

56) 이을로 역 (2007). 『窮通寶鑑講解』, 「論卯月甲木」. 서울: 동학사, p56: “若庚申 戊寅 甲寅 丙寅 一行 金水運 發進士 或甲午日 庚午時 此人 必貴 但要好運相催不宜制了 庚丁 或支成金局 多透庚辛此又不吉 號曰木被金傷 弱戊丙丁破金 必主殘疾.”

빠른 건달이 되며, 양인이 중첩되었다면 반드시 흉한 일을 만나게 되고, 성정 또한 흉폭하게 된다.”⁵⁷⁾

【원문 예시 V- 5】 비겁(比怯)이 무력한 재다신약(財多身弱)의 팔자⁵⁸⁾

시일월년(乾命)

庚甲丁己

午戌卯未

庚辛壬癸甲乙丙

申酉戌亥子丑寅

묘월갑목(卯月甲木)에 제극하는 경금(庚金) 칠살(七殺)과 목화통명(木火通明)을 이루는 정화(丁火) 상관(傷官)이 모두 투출하여 과거에 급제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경금이 묘월에 있어서 약하고 정화가 투출하였으나, 정화가 오화(午火)를 깔고 있어 식상이 관살(官殺)을 너무 심하게 제어하고 있다. 갑목일간이 오화를 봐서 홍염살(紅艷殺)이 있으므로 색(色)으로 인해 재앙이 있게 된다(박주현, 2014). 또한 비겁이 무력한 재다신약(財多身弱)의 팔자이다. 그러나 금수(金水)운으로 흘러 부귀는 잃지 않았다.

바. 진월갑목(辰月甲木)

“삼월의 갑목은 목기가 더욱 고갈되어 먼저 경금(庚金)을 취하고 다음으로 임수(壬水)를 쓴다. 경금과 임수가 두 개가 같이 투출하면 지위가 높게 상승할 수 있으나, 단지 운(運)의 쓰임이 서로 상생하는 것이 중요하다. 풍수음덕이 있으면 장차 부귀할 수 있다. 혹은 한 두 개의 경금이 보이면 오직 임수만을 취하니 임수가 투출하면 청수한 사람이며, 재주와 학식이 있고 반드시 부유하다. 혹은 천간에 두 개의 병화가 투출하고 경금이 지지 아래에 감추어져 있으면 이와 같은

57) 위의 책, p66: “二月甲木, 庚金得所, 名陽刃駕殺, 可云小貴, 異途顯達. 或主武職, 但要才資之 柱中逢才, 英雄獨壓萬人若見癸水. 困了才殺, 主爲光棍, 重印必定遭凶, 性情凶暴.”

58) 이을로 역 (2007). 『窮通寶鑑講解』. p68: “庚丁兩透 選拔定然 爲忍色重招殃 兄弟無力.”

것은 도끼가 날이 무디어 지거나 쇠붙이가 없는 격이라 부귀를 구하기가 어렵다. 만약 임계수가 있어서 병화를 깨트린다면 수재정도는 된다..”⁵⁹⁾

【원문 예시 V- 6】 높은 벼슬에 오르는 귀한 사주⁶⁰⁾

시일월년(乾命)

丁甲壬丙

卯辰辰寅

己戊丁丙乙甲癸

亥戌酉申未午巳

위의 사주는 경금(庚金) 칠살(七殺)이 없으므로 정화(丁火) 상관(傷官)을 써서 왕성한 갑목(甲木)의 기운을 빼내어 목화통명(木火通明)을 이룬다. 높은 벼슬에 오르는 귀한 사주이다. 만약 정화가 없으면 보통 사람에 불과했을 것이다.

사. 사월갑목(巳月甲木)

“사월의 갑목은 목의 기운이 물러나고 병화(丙火)가 권한을 맡으니 먼저 계수(癸水)를 쓰고 난 후에 정화(丁火)를 쓴다.”⁶¹⁾

사월갑목(巳月甲木)에 계수(癸水)와 정화(丁火)와 경금(庚金)이 모두 천간에 투출한 경우는 경금의 생조(生助)를 받는 계수가 자윤(滋潤)하고, 정화가 갑목의 수기(秀氣)를 나타내게 하여 벼슬을 하며, 풍수(風水)가 나쁘더라도 탁월한 재주가 있다. 정화와 경

59) 위의 책, 「論辰月甲木」. 서울: 동학사, p72.: “三月甲木, 木氣相竭, 先取庚金, 次用壬水 庚壬兩透, 一榜壻圖, 但要運用相生. 風水陰德方許富貴. 或見一二庚金, 獨取壬水, 壬透清秀之人, 才學必富. 或天干透出二丙, 庚藏支下, 此鈍斧無鋼, 富貴難求. 若有壬癸破火, 堪作秀才.”

60) 이을로 역 (2007). 『窮通寶鑑講解』, p76. : “此命用丁 乏丁常人也.”

61) 위의 책, 「論巳月甲木」. 서울: 동학사, p79.: “四月甲木退氣 丙火司權 先癸後丁”

금은 투출하였으나 계수가 투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재물로 벼슬을 사거나 다른 방법으로 관직에 나아간다. 사월갑목에 임수가 투출하면 큰 부자다. 만일 수가 전혀 없는데 경금과 정화도 없고 한 무리의 병화와 무토만 있으면, 불기운은 강해지고 땅은 메마른 형세라 하천한 위인이다. 이렇게 사월은 열기가 많아지는 계절이고 그러한 열기가 과하지 않도록 식힐 수 있는 계수라는 물의 기운과 동량지목(棟梁之木)으로 오만하지 않도록 제어하는 경금(庚金)의 기운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원문 예시 V- 7】 거지의 사주⁶²⁾

시일월년(乾命)

丙甲癸丙

寅子巳午

庚己戊丁丙乙甲

子亥戌酉申未午

화토(火土)가 계수(癸水)를 말려서 오운(午運)에 눈이 상하고, 이후 거지가 되었다.

아. 오월갑목(午月甲木), 미월갑목(未月甲木)

“5월과 6월의 갑목은 목의 기운이 허하고 불타는 계절이므로 오미월을 같은 이치로 본다. 오월갑목은 먼저 계수 정인을 쓰고 정화 상관으로 보조한다. 다음 경금칠살을 쓴다. 미월갑목은 삼복중에 찬기운이 생겨서 정화가 물리나므로 먼저 정화상관을 쓰고 경금칠살로 보조한다. 팔자 중 계수가 없어도 이 방법을 쓴다. 혹은 오월갑목에 계수 정인이 부족할 경우 정화 상관을 사용할 수 있지만 운의 흐름이 수(水)로 흘러야 한다.”⁶³⁾

오월(午月), 미월(未月)의 갑목은 뜨거운 열기가 충천한 시기이고 갑목으로서

62) 이을로 역 (2007). 『窮通寶鑑講解』, p83: “此命火土煞乾癸水 行午運損目 後作乞丐.”

63) 위의 책, 「論午,未月甲木」. 서울: 동학사, p90: “五六月甲木 木性虛整 一理共推 五月先癸後丁 庚金次之 六月三伏生寒 丁火退氣 先丁後庚戌癸亦 可 或五月乏癸 用丁亦可 要運行北地爲佳.”

힘이 모두 소진되어 있는 형국이다. 사월의 갑목과 같은 이치로 이러한 열기를 식힐 수 있는 계수인 수기운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갑목에게는 경금의 금의 기운으로서 제어하는 일이 필요해 보인다. 만약 이러한 조건이 되지 않는다면 정화 상관을 대신 쓸 수는 있겠지만 대운이 수(水)의 기운으로 향하여야 사주가 중화를 이룰 수 있다.

여기서도 계절의 ‘조후(調候)에 따른 평형을 유지’하는 것이 복을 얻기 위해 가장 중요한 길임을 알 수 있다.

【원문 예시 V- 8】 평생 부귀한 사주⁶⁴⁾

시일월년(乾命)

辛甲乙甲

未子未辰

戊丁丙乙甲癸壬

寅丑子亥戌酉申

양간부잡격(兩干不雜格)으로 일지 자수(子水)를 써서 평생 부귀(富貴)하였다. 자수(子水)는 일간을 유력하게 하고, 미토(未土)를 운택하게 하여 신금(辛金)을 생한다. 사주가 중화되고 대운이 서북(西北)으로 달려 금수(金水)의 기운으로 향하니 운이 용신을 도왔다.

자. 신월갑목(申月甲木)

“삼추갑목(三秋甲木)인 가을에 나무를 설명하면, 가을갑목은 금토(金土)가 왕성해서 나무가 마르고 시드는 시기이므로, 정화(丁火)를 주용신으로 하고 경금을 보조로 사용한다. 정화와 경금(庚金)이 온전하면 가을 갑목은 훌륭한 창이 된다.

64) 이을로 역 (2007). 『窮通寶鑑講解』, p97.:
“兩干不雜 專用子水 一生富貴.”

신월갑목(申月甲木)인 경우는 그렇다. 정화가 없으면 경금을 단련할 수 없고, 경금이 없으면 갑목을 다듬을 수 없다. 따라서 천간에 정화와 경금이 모두 투출하면 반드시 벼슬을 한다. 경금이 신금(申金)의 녹지(綠地)에 있는 경우 신금에 지장간 임수(壬水)가 있어 살인상생(殺印相生)이 되므로 운이 금수(金水)로 흐르면 어진 임금을 따르는 것과 같다. 경금이 투출하고 정화가 없으면 경금을 제련할 수 없으므로 귀함과는 거리가 있고 단지 부자일 뿐이다. 명주는 지나치게 조심성이 많아서 즐거움을 누리지 못한다. 만약 정화가 투출하였는데, 경금은 지장간에 숨어 있으면 너무 단련되므로 벼슬은 못하고 공부만 하거나 작은 재물만 있다. 경금이 많고 정화가 없으면 칠살이 무리를 이루어 병이 들기 쉽거나 승도(僧道)가 되거나 재앙으로 인한 불운인 재액(災厄)을 피할 수 없다.”⁶⁵⁾

“7월의 갑목은 경금(庚金) 칠살(七殺)보다 정화(丁火) 상관(傷官)이 중요하지만, 경금(庚金)이 약해도 안된다. 정화가 경금을 제련하기 위해서는 수(水)의 방해가 없어야 한다. 수의 방해가 있을 때에는 갑목(甲木)이 수의 기운을 끌어가서 정화의 상관을 도와야 금을 녹일 수 있다. 만약 계수(癸水) 편인(偏印)이 있으면 바로 정화의 역할을 못하게 하고, 임수(壬水)는 정임합(丁壬合)을 할 수 있다. 무토(戊土)인 정재(正財)가 있는 경우에는 무계합(戊癸合)으로 수(水)를 제어하고 정화(丁火)를 살릴 수 있다.”⁶⁶⁾

【원문 예시 V- 9】 진(辰)운에 재앙을 맞은 사주⁶⁷⁾

시일월년(乾)

乙甲甲乙

亥子申未

65) 위의 책, 「論三秋甲木」. 서울: 동학사, p103.:

“三秋甲木 木性枯槁 金土乘旺 先丁後庚 丁庚兩全 將甲造爲畫戟 七月甲堪爲戟 非丁火不能造庚 非庚不能造甲 丁庚兩透 科甲定然 庚祿居申 殺印相生 運行金水 身伴明君 或庚透無丁 一富而已 主爲人操心太重 不能坐享 或丁透庚藏 亦主青衿小富 或庚多無丁 殘疾病人若爲僧道 災厄可免.”

66) 이을로 역 (2007). 『窮通寶鑑講解』, 「論申月甲木」. 서울: 동학사, p107. “七月甲木 丁火爲尊 庚金次之 庚金不可少 火隔水能鎔金 故丁火鎔金 必賴甲木引助 方成洪爐 若有癸水阻隔 便滅丁火 壬水無礙 且能合丁 但須見戊土 方可制水存火.”

67) 위의 책, p106. “孝廉 辰運災.”

丁戊己庚辛壬癸

丑寅卯辰巳午未

효렴(孝廉) 벼슬을 하였다. 진대운(辰大運) 지지에 신자(申子) 삼합(三合)으로 수국(水局)을 형성하여 수(水) 인수가 강하고 천간에 목(木) 비겁(比劫)이 강하여 신왕(身旺)한데, 정화(丁火)로 설기함이 없다. 게다가 진(辰)대운에 신자진(申子辰) 삼합으로 인해 수(水)의 삼합국이 형성되었다. 설상가상(雪上加霜)의 상태이다. 강한 목을 더욱 강한 나무로 만드는데 그러한 강한 기운을 설기할 용신이 없으니 병(病)이 되었다.

차. 유월갑목(酉月甲木)

“유월(酉月)의 나무는 수(囚)의 상태이며, 유월의 쇠는 왕하다. 그러므로 왕성한 금을 제련하기 위해 우선 정화 먼저이고 다음으로 병화(丙火)를 쓴다. 그 다음에 경금(庚金) 칠살을 쓴다.”⁶⁸⁾

【원문 예시 V-10】 孝廉 卯終 ⁶⁹⁾

시일월년(乾命)

丁甲丁丙

卯寅酉戌

甲癸壬辛庚己戊

辰卯寅丑子亥戌

천간(天干)에 병화(丙火) 식상(食傷)이 투출하여 관살을 지나치게 제극하므로 크게 귀하지 않다. 다행히 대운(大運)이 해자축(亥子丑)으로 흘러 효렴(孝廉)벼슬을 하였으며, 묘(卯)운은 기신운으로 사망하였다.

68) 이을로 역 (2007). 『窮通寶鑑講解』, 「論午, 未月甲木」. 서울: 동학사, p111.:

“八月甲木 木囚金旺 丁火爲先 次用丙火 庚金再此.”

69) 위의 책, p116.: “孝廉卯終.”

카. 술월갑목(戌月甲木)

목기운이 사라지는 조토(燥土)의 달에 있다. 정화 상관으로 관살을 제극하고, 계수정인으로 자윤(滋潤)하며, 무토(戊土) 편재와 경금(庚金) 정관으로 보좌한다.

“9월 갑목은 목기운이 쇠락하고 조토(燥土)의 달이므로 정화(丁火) 식상만 좋다고 할 수 없다. 임계 인수가 적시고 도와 쥐야 한다. 정화와 임계(壬癸)수, 무기(戊己) 재성이 투출하면 중화가 되므로 귀하게 될 수 있다. 또한 경금(庚金)칠살이 자리를 잡으면 크게 귀하게 된다.”⁷⁰⁾

【원문 예시 V-11】 문학에 소질이 있는 귀한 사주⁷¹⁾

시일월년(乾命)

壬甲丙庚

申申戌申

술월(戌月)의 갑목이다. 갑목이 많고 경금(庚金) 칠살(七殺)이 투출하면 크게 귀하고, 경금이 감취지면 그 귀함이 작다. 또한 팔자 중에 경금이 많을 경우 정화(丁火)를 쓰면 부귀하다(이을로, 2007). 예컨대 위의 사주는 귀하게 되어 발전하며 문학에 소질이 있는 사람이다. 만약 경금(庚金)과 병화(丙火)가 년월에 없고 병정(丙丁)이 천간에 투출하지 않으면, 공부하는 것을 좋아하지만 공명을 떨치기 어렵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강한 것이 병이라면 그것을 제어하거나 설기할 수 있는 약이 되는 인자가 있으면 행운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술월갑목에 병정(丙丁) 식상이 무리를 지어 금관살을 손상하면 가짜 학자에

70) 위의 책, p121.:

“九月甲木 木星凋零 獨愛丁火 壬癸滋扶 丁壬癸透 戊己亦透 此命配得中和 可許一榜庚金得小 科甲定然.”

71) 위의 책, p126.:

“凡甲多庚透 大貴 庚藏 小貴 若柱中多庚 則又以丁爲奇 富貴人也 女庚中年 丙戌月 甲申日壬申時 此主功名顯達 有文學 若無庚丙年月 又無火出干 雖曰好學 終困名場.”

불과하다. 이 경우 임·계(壬·癸) 인수가 있어서 병정(丙丁)이 경금(庚金)을 손상하는 것을 막아도 단지 기예(技藝)를 하는 자에 불과하다. 이미 계수(癸水)인 인수가 화(火)를 제극하지 않고 지지가 화(火) 재성국(財星局)이면 화가 강해서 나무가 말라 죽으므로, 경금(庚金) 칠살(七殺)이 있어도 아무 소용이 없다. 이 경우 남녀 모두 외롭고 가난하며 하천한 사람이다.”⁷²⁾

【원문 예시 V-12】 용신(用神)이 제대로 작용하지 못한 사주⁷³⁾

시일월년(乾命)

乙甲甲甲

亥寅戌子

壬辛庚己戊丁丙乙

午巳辰卯寅丑子亥

술월의 갑목이 천간에 비겁이 중중하여 신강(身強)한 나무이다. 전형적인 군겁쟁재(群劫爭財)의 사주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는 재물을 작은데, 빼앗아 갈 사람이 너무 많으므로 용신은 재성(財星)이며, 용신을 돕는 식상(食傷)이 희신(希神)이 될 것이다. 대운에서 보면 초년은 해자축으로 강한 갑목을 돕는 운이오니 더욱 갑목이 비대해지고 사주의 구조가 심하게 균형을 잃게 되었다. 이때는 일간이 매우 힘든 상황이나 환경이 펼쳐졌을 것으로 예측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정축(丁丑) 대운은 용신과 희신이 들어오는 대운으로 집안을 일으킬 수 있다. 그러나 무인(戊寅), 기묘(己卯) 대운은 비겁(比劫)과 함께하니 기신운으로 상황이 나쁠 수 있다. 인묘(寅卯) 대운에는 비겁이 중중하니 집안이 망하고 처자를 잃었으며, 묘운에 왕성한 목의 수명을 의미하는 재성을 극하여 사망하였다고 한다.

72) 이을로 역 (2007). 『窮通寶鑑講解』, 「論午,未月甲木」. 서울: 동학사, p124:

“或見一派丙丁傷金 不過假道斯文 有壬癸破了丙丁 技藝之流無壬癸破火 支又成火局乃爲枯朽之木 有庚亦何能爲力 定作 孤貧下賤之輩 男女一理.”

73) 이석영 (1996). 『사주첩경』

지금까지 『궁통보감』의 고전 명리이론에서 말하는 갑목(甲木)의 생로병사(生老病死)에 대해 소개하였다. 『궁통보감』에서는 1년 12개월 동안 계절의 변화에 따른 갑목의 변화를 자세하게 밝히고 있다. 다시 정리해 보자.

갑목은 해(亥)에서 장생(長生)하므로 겉으로는 음력 10월의 나무로 양상한 가지만을 남은 죽은 나무처럼 보일 수 있다. 해(亥)라는 6음(六陰)까지 극에 이른 나무는 사람으로 비유하자면, 세상에 막 태어난 갓난아기와 같은 형상으로 말할 수 있다. 자(子)에서는 목욕이다. 이는 해수(亥水)인 육음(六陰)의 상태에서 1양(一陽)으로 변하는 과정이다. 대지에 뽕족 나온 새싹은 비로소 세상에 나오게 되고 눈과 비를 맞게 된다. 이러한 작용은 과거 땅속 깊은 곳에서 묻었던 흙을 씻어 내고 새로운 도약을 위해 얼굴을 씻는 자리인 것이다. 아직은 어린 나무로서의 성정이 아닌 유아에 해당하는 시기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축(丑)에서 갑목은 관대(冠帶)이다. 관대는 사춘기 청소년기에 비유할 수 있다. 아직은 좌충우돌 어른이 되지 않은 상태지만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나무가 된다.

다음은 인(寅)에서, 건록(建祿)으로 성인이 된 나무이다. 아직은 세련되지는 않으나 힘을 발휘하는 성인 초기의 나무이다. 갑목은 다음 단계로 묘(卯)에서 제왕(帝旺)이 된다. 가장 전성기를 달리는 성인의 중흥기라고 표현할 수 있다. 어느덧 노련함도 있으며, 가장 힘이 왕성한 상태를 일컫는다. 이제 갑목은 진(辰)에서 쇠(衰)에 머물게 된다. 겉모습은 아직은 건록, 제왕의 기운에 대한 여기가 남아 있으므로 현실적으로는 힘이 없는 나무 같지는 않으나, 나무의 내부에서는 쇠퇴기로 들어서는 형국이 된다. 이러한 모습은 노년기에 해당할 수 있겠다.

갑목은 다시 사(巳)에서 병(病)이 들고, 오(午)에서 사(巳)에서 죽게 되는 상황이다. 계속해서 결국 해월에 태어난 나무는 그 기운을 묘월에 다 쏟아 붓고 쇠(衰), 병(病)을 지나 미(未)에서 묘(墓)로 들어간다. 현실에서의 삶을 마감하는 것이다. 이어서 절(絶)에 해당하는 신(申)에서는 아무것도 없는 무(無)의 상태로 표현이 가능하다. 절지는 절망의 죽은 존재가 아니라, 절처봉생(絶處逢生)으로 새롭게 도약하는 자리라고 말할 수 있다(박정화, 2014). 다음으로 태(胎)는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엄마의 자궁에 착상을 시작하게 되는 것에 비유할 수 있다. 다음으로 나무의 배아는 자라서 술(戌)에서 양(養)인데, 엄마의 뱃속에서 태아가 무럭무럭 자라듯이 아직은 세상 밖으로 나오기 전

에 물밑작업이 한창인 상태의 나무인 것이다.

이와 같은 식으로 갑목은 나고, 자라고, 성장을 하며 다시 쇠하고 병들고 죽고, 묘에 묻히고 탄생을 위해 주기적인 순환을 거치면서 나무의 삶을 펼쳐 가는 것이다. 이처럼 십이운성은 자연을 그대로 옮겨 놓은 지혜인 것이다. 표 V- 1. 은 『궁통보감』의 십간의 월별 조후용신을 정리한 내용으로 음력 1월부터 12월까지 10개의 천간이 처해진 환경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용신을 정리한 내용이다.

표 V- 1. 궁통보감의 십간월별 조후용신(송유성, 2012)

일간	월지	寅	卯	辰	巳	午	未	申	酉	戌	亥	子	丑
甲	용신	丙	庚	庚	癸	癸	癸	庚	庚	庚	庚	丁	丁
	보조	癸	丙戌 丁巳	丁壬	丁庚	丁庚	庚丁	丁壬	丁丙	甲壬 丁癸	丁戌 丙	庚丙	庚丙
乙	용신	丙	丙	癸	癸	癸	癸	丙	癸	癸	丙	丙	丙
	보조	癸	癸	丙戌		丙	丙	癸己	丙丁	辛	戌	戌己	
丙	용신	壬	壬	壬	壬	壬	壬	壬	壬	甲	甲	壬	壬
	보조	庚	己	甲	庚	庚癸	庚	戌	癸	壬	戌庚 壬	戌己	甲
丁	용신	甲	庚	甲	壬	壬	甲	甲	甲	甲	甲	甲	甲
	보조	庚	甲	庚	甲庚	甲庚	子	庚丙 戌	庚丙 戌	庚戌	庚	庚	庚
戊	용신	丙	丙	甲	甲	壬	癸	丙	丙	甲	甲	丙	丙
	보조	甲癸	甲癸	丙癸	丙癸	甲丙	丙甲	癸甲	癸	丙癸	丙	甲	甲
己	용신	丙	甲	丙	癸	癸	癸	丙	丙	甲	丙	丙	丙
	보조	庚甲	癸丙	癸甲	丙	丙	丙	癸	癸	丙癸	甲戌	甲戌	甲戌
庚	용신	丙	丁	甲	壬	壬	丁	丁	丁	甲	丁	丁	丙
	보조	甲丙 壬丁	甲丙 庚	丁壬 癸	戌丙 丁		甲	甲	甲丙	壬	丙	甲丙	丁甲
辛	용신	己	壬	壬	壬	壬	壬	壬	壬	壬	壬	丙	丙
	보조	壬庚	甲	甲	甲癸	己癸	庚甲	甲戌	甲	甲	丙	戌壬 甲	壬戌 己
壬	용신	庚	戌	甲	壬	癸	辛	戌	甲	甲	戌	戌	丙
	보조	丙戌	辛庚	庚	辛庚	庚辛 癸	甲	丁	庚	丙	丙庚	丙	丁甲
癸	용신	辛	庚	丙	辛	庚	庚	丁	辛	辛	庚	丙	丙
	보조	丙	辛	辛甲		庚壬 癸	辛壬 癸		丙	甲壬 癸	辛戌 丁	辛	丁

일반적으로 용신론(用神論), 격국론(格局論)만을 주장하는 일부 명리학계의 대가들 사이에서는 십이운성이라는 개념을 신살(神殺)의 일종으로 그리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십이운성론을 터부시하는 것보다는 중요한 이론이므로 주의 깊게 살펴서 사주의 희기를 논해야 할 것이다(박재완, 1985; 이석영, 1996; 김동 화, 2011; 안태옥, 2012; 박청화, 2015; 강 현, 2016). 아래 표 V-2. 를 참고하면 쉽게 십이운성의 변화과정을 파악할 수 있다.

표 V-2. 십이운성표

區分	甲	乙	丙	丁	戊	己	庚	辛	壬	癸
長生	亥	午	寅	酉	寅	酉	巳	子	申	卯
沐浴	子	巳	卯	申	卯	申	午	亥	酉	寅
冠帶	丑	辰	辰	未	辰	未	未	戌	戌	丑
建祿	寅	卯	巳	午	巳	午	申	酉	亥	子
帝旺	卯	寅	午	巳	午	巳	酉	申	子	亥
衰	辰	丑	未	辰	未	辰	戌	未	丑	戌
病	巳	子	申	卯	申	卯	亥	午	寅	酉
死	午	亥	酉	寅	酉	寅	子	巳	卯	申
墓	未	戌	戌	丑	戌	丑	丑	辰	辰	未
絕	申	酉	亥	子	亥	子	寅	卯	巳	午
胎	酉	申	子	亥	子	亥	卯	寅	午	巳
養	戌	未	丑	戌	丑	戌	辰	丑	未	辰

만약, 병(丙) 일간의 내담자가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해도 되겠느냐?”고 물으러 상담실에 찾아 왔다고 가정해 보자. 정일간(丁日干)에게 재성(財星)은 경금(庚金)의 기운인데, 올해 기해년(己亥年) 금의 기운은 병지(病地)에 놓여 있다. 다음은 해, 자, 축, 인, 묘, 진년으로 십이운성으로는 사, 묘, 절, 태, 양으로 향하기 때문에 사업에 해당하는 재성의 기운은 하향세를 달리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사업을 하지 않는 편이 낫을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반대로 금의 기운이 양지, 장생, 목욕, 관대, 건록, 제왕의 방향으로 향한다면, 당연히 사업을 천천히 시작해 보라고 조언이 가능하다. 몇 년은 고생하겠지만, 그래도 지속적으로 재물의 기운이 성장하게 되기 때문이다.

물론 십이운성만으로 희기를 정확하게 논할 수 없는 사례들도 있을 수 있다. 그러므로 지지의 형·충·회·합 등 여러 상황들을 참작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처럼 십이운성을 바탕으로 생왕사절을 통해 육친의 희기의 방향성을 참고하면 내담자가 가장 힘들어 할 부분이 무엇인지 호황기를 겪는 부분이 무엇일지 예측이 가능하다. 내담자의 운의 흐름이 장생, 목욕, 관대, 건록, 제왕으로 향한다면 좋은 시기에 해당할 것이고, 그와 반대로 병, 사, 묘, 절, 태로 흐른다면 안 좋은 시기에 해당할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상담 시 십이운성을 통한 간지의 운기의 상태를 보면서 육친에 해당하는 기운의 향방을 알 수 있다. 즉, 이러한 논리를 상담에 접목한다면, 상담자는 내담자가 현재 힘들어하는 육친을 예측함으로써 상담주체에 대해 ‘핵심 던지기’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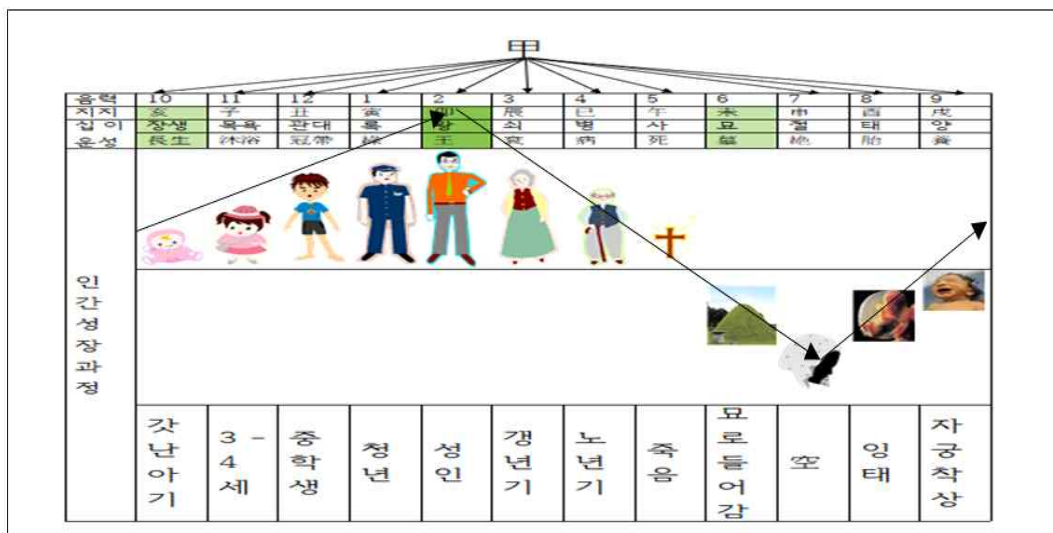


그림 V-1. 갑목의 십이운성의 변화

그림 V- 1. 은 앞의 내용에서 십이운성의 개념을 인간의 생로병사에 비유하여 대입해 본 그림이다. 마치 갑목이 어느 계절에 어떠한 힘을 발휘하는지 알 수 있는 것처럼 내담자에게도 갑목의 상황처럼 자신의 육친별로 각각의 운기가 상향세를 달리고 있는지, 혹은 하향세를 걷는지 쉽게 정리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육친은 비겁, 식상, 재성, 관성 및 인성이 있다. 내가 재물이 좋지 않다면 반대로 나를 극하는 비겁이나 인성적인 측면은 좋은 호조를 떨 수가 있다. 하나가 좋으면 하나는 좋지않은 구조가 된다. 왜냐하면 음양오행은 일정한 법칙과 규칙 속에서 상생과 상극을 하면서 계속해서 변화하고, 인간은 스스로 사주의 평형을 이루려고 하기 때문이다.

물론 사주의 여러 가지 형태에 따라 분석을 하는데 있어서 주의를 기울일 필요는 있다. 다음 장에서는 위의 『궁통보감(窮通寶鑑)』에서 언급한바 있는 갑목(甲木)에 대한 십이운성론을 통해 실제적으로 상담의 장면에서 특히 ‘한국적 단기상담’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그 방안에 대해 검토해 보자.

3. 십이운성론을 활용한 상담의 핵심 주제

본 장에서는 십이운성을 활용하여 현재 내가 가장 힘든 부분은 무엇인지 앞에서 이해된 내용을 가지고 상담에서의 활용방안을 검토할 것이다. 사주의 구조에는 사주원국과 더불어 10년의 환경인 대운(大運), 1년의 환경인 세운(歲運), 한 달의 환경으로 월운(月運), 1일의 환경(日運) 등 일간의 처해진 환경을 세세하게 볼 수 있다. 세운은 현재 내가 처한 운기를 그대로 보여주기 때문에 인간의 생로병사에 대해 십이운성적으로 방향성을 갖고 역동적으로 변화과정을 예측하게 한다(소재학, 2005; 김재성, 2005; 김경희, 2006; 박성희, 2012; 하은희, 2013). 만약 내가 호황기를 보이는 육친이 있다면, 불황을 보이는 육친도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누구든지 음양오행이 돌고 돌기 때문에 관성이 올라가면 식상이 좋지 않을 수 있고 돈은 잃었지만 가족의 건강은 괜찮다던지 올라간 것이 있으면 내리막을 달리는 육친이 있다는 것이다. 본 장에서는 지난 2018년 무술년(戊戌年)을 기준으로 예를 들어 보겠다.

가. 십이운성(十二運星)을 통한 천간(天干)의 변화

표 V- 3. 천간의 십이운성 변화표 1

천간	십이운성의 변화			
	2016년(丙申)	2017(丁酉)	2018(戊戌)	2019(己亥)
甲	절지	태지	양지	장생
乙	태지	절지	묘지	사지
丙	병지	사지	묘지	절지
丁	목욕	장생	양지	태지
戊	병지	사지	묘지	절지
己	목욕	장생	양지	태지
庚	건록	왕지	쇠지	병지
辛	왕지	건록	관대	목욕
壬	장생	목욕	관대	건록
癸	사지	병지	쇠지	왕지

표 V-3. 은 2016년인 병신년(丙申年)부터 2019년 기해년(己亥年)에 이르는 과정에서 10천간의 변화를 표로 나타내어 보았다. 매년 육십갑자대로 1년에 해당하는 세운(歲運)이 찾아온다. 세운은 매년 바뀌게 되는 1년의 개인에게 주어지는 환경이다. 올해가 기해년이라도 사람마다 천간의 기토(己土)가 무슨 역할을 할지 지지인 해수(亥水)가 오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예상컨대 천태만상이 될 것이다. 세운은 가장 현실적으로 일간이 받는 사주의 환경을 클로즈업한 것으로 정해진 사주팔자가 있어도 세운이 왕 노릇을 하게 된다. 그 해의 가장 직접적으로 펼쳐지는 운이 될 수 있다. 이를 감안한다면, 내담자가 자신의 사주팔자인 사주원국과 10년의 대운, 그리고 세운이라는 환경속에서 어떤 상황들이 벌어질 것이며, 각 육친들의 희기의 방향성을 예측해 볼 수 있다. 바로 십이운성의 개념이 이러한 상황에서 적용되는 것이다. 특히 천간은 정신적인 일, 지지는 현실적으로 벌어질 일들을 예상할 수 있다.

아래의 표 V- 4. 천간의 변화표에서 볼 수 있듯이, 갑목(甲木)은 절, 태, 양, 장생으로 가고 있으며 해가 바뀌면서 지속적으로 호조의 영향권 안에 들어가는 것을 알 수 있다. 을목(乙木)은 태지, 절지, 묘지, 사지로 하향세를 타고 있다. 병화(丙火)나 무토(戊土)는 ‘화토동법(火土同法)’이라고 하여 같은 십이운성의 궤도를 가게 되는데, 병, 사, 묘, 절로 향하면서 하향세로 간다. 마찬가지로 정화(丁火)나 기토(己土)도 같은 궤적을 그리게 되는데, 목욕, 장생, 양, 태의 방향성을 갖으며 쇠퇴기를 걸는다.

임수(壬水)는 장생, 목욕, 관대, 건록의 기운이 흐르면서 상승세를 타고 있다. 마지막으로 계수(癸水)는 사, 병, 쇠, 왕으로 지속적으로 상승세를 타고 있음을 알수 있다. 아래 표 V- 4. 의 천간의 십이운성 변화표의 흐름을 살펴보기로 하자.

표 V- 4. 천간의 십이운성 변화표 2

	장생	목욕	관대	건록	왕지	쇠지	병지	사지	묘지	절지	태지	양지
甲	⇒④									⇒①	⇒②	⇒③
乙								⇐④	⇐③	⇐②	⇐①	
丙							⇒①	⇒②	⇒③	⇒④		
丁	⇐②	⇐①									⇐④	⇐③
戊							⇒①	⇒②	⇒③	⇒④		
己	⇐②	⇐①									⇐④	③⇐
庚				①⇒	②⇒	③⇒	④⇒					
辛		⇐④	⇐③	⇐②	⇐①							
壬	①⇒	②⇒	③⇒	④⇒								
癸					⇐④	⇐③	⇐②	⇐①				

① 2016년 ② 2017년 ③ 2018년 ④ 2019년 십이운성의 변화

1) 양간(陽干)의 십이운성의 변화

위의 표 V- 3., 표 V- 4. 를 보면, 우선 양간의 십이운성의 변화를 보자. 갑목은 절지, 태지, 양지, 장생의 순으로 변화의 흐름을 보인다. 이것은 나에게 해당하는 갑의 기운이 절, 태지의 어려운 환경에서 벗어나 세상밖에 막 태어난 어린 아기의 모습에 비유하듯 좋은 기운으로 바뀌고 있다. 예컨대 무토, 기토 일간인 남자에게 갑목은 자식으로 볼 수 있는데, 지난 신(申)·유(酉)·술(戌)년을 거치면서 자식이 하는 일이 좋지 않은 환경에 놓여 있었다면, 기해년(己亥年)은 갑목(甲木)이 장생하므로 희망을 갖고 자식이 잘 펼칠 수 있는 기운이 도래하고 있음을 알리는 것이다. 무토일간에게 갑(甲)은 관성(官星)으로서 직업적인 일, 관직 등은 희망적이다. 그러나 무술년에 갑목은 양지(養地)에 있어 그 활동에 있어서 제한이 있을 수 있다. 왜냐하면 아직 엄마의 자궁속에서 자라고 있는 태아의 형상으로서 그 존재는 있으나 아직은 현실에서 두곽을 내지는 못할 수 있는 상태로 말할 수 있다. 그러나 2019년 기해년(己亥年)부터 갑목은 장생지에 이르기 때문에 새싹정도의 수준으로, 향후 3년은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될 것이다.

병화(丙火)와 무토(戊土)는 병지, 사지, 묘지, 절지로 사향곡선을 그리고 있다. 병화나 무토가 기신(忌神)이면 일간에게는 좋은 일들이 벌어질 것이요, 용신(用神)이라면 희망적이지 못할 것이다. 경금(庚金)은 건록, 왕지, 쇠지 병지로 전성기를 지나 쇠퇴기로 들어가는 형국인데, 그래도 여전히 금의 기운은 남아 있기 때문에 힘은 있을 것이다. 십이운성의 흐름도에서 특히 임수(壬水)의 향방을 살펴보면, 장생, 목욕, 관대, 건록 등 흐름이 좋은 운에 해당한다. 무토(戊土), 기토(己土) 일간에게 임수(壬水)는 육친상 재성(財星)으로서 여자요, 재물일 수 있다. 재성의 흐름은 원활할 수 있다.

2) 음간(陰干)의 십이운성의 변화

이번에는 음간의 십이운성을 보자. 우선 을목은 태지, 절, 묘지, 사지의 흐름이다. 놓여진 형국으로 '어둠의 공간'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다. 무토, 기토 일간인 여자에게 있어서 을목은 남편이나 직장 등으로 일컬는데, 이런 상황이라면 남편이 하는 일이 잘 풀리지 않는다고 하는 등 고전을 면치 못할 수도 있을 것이다. 정화(丁火)와 기토(己土)는 목욕, 장생, 양지 태지로 향하는데, 어둠의 시련이 있을 수 있을 것이다. 경금, 신금일간에게 기토는 인성에 해당하는데, 학업운이나 시험운, 문서운 등이 하락세를 달리고 있어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란 어려울 수도 있다.

신금(辛金)은 왕지, 건록, 관대, 목욕으로 달려가지만 아직은 그 흐름이 성한 공간에 있어 다행으로 보인다. 크게 나쁘거나 하지는 않을 수 있다. 예컨대 무토, 기토 일간에게 신금은 식상에 해당하므로 표현능력과 재를 창출하는 능력은 여전히 좋은 흐름을 갖고 있을 것이다. 계수(癸水) 일간은 사지, 병지, 쇠지, 왕지로 그 기운이 나쁜 곳에서 좋은 쪽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갑(甲), 을(乙) 일간에게 계수(癸水)는 인성으로 공부운이나 학업운, 시험 및 인허가 등의 운은 그 흐름이 원활할 수도 있다. 그러나 단편적으로 십이운성만 좋고 사주의 전체 흐름을 단언하는데는 무리가 있다. 사주형국과 다른 천간과 지지의 여러 작용을 함께 따져서 그 희비를 판가름 해야할 것이다.

나. 천간합(天干合), 지지(地支)의 합·형·충을 통한 세운(歲運) 해석 방법

사실 매년마다 들어오는 세운(歲運)을 적용할 때, 천간의 십이운성만으로 사주의 희기를 논할 수는 없을 것이다. 십이운성은 어떤 기(氣)의 방향성을 줄 수는 있으나, 세

세하게 펼쳐지는 인간의 희노애락은 천간과 함께 지지에서 많은 일들이 합, 형, 충 등을 겪으면서 여러 가지 변수들이 생길 수 있다. 그러므로 지지의 변화를 또한 세심히 살펴야만 할 것이다. 이번에는 지지의 형·충·화·합을 통해 천간과 지지에 일어날 수 있는 상황들을 예측해 보겠다.

1) 무술년(戊戌年) 천간합(天干合)의 작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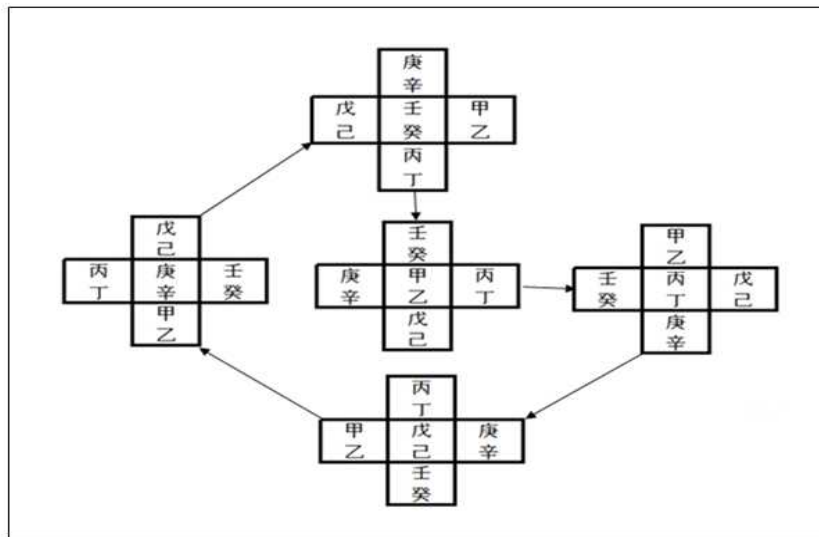


그림 V- 2. 천간합의 변화도

가) 무술년 천간합(天干合)의 종류

천간의 합은 갑기합(甲己合) 토, 을경합(乙庚合) 금, 병신합(丙辛合) 수, 정임합(丁壬合) 목, 무계합(戊癸合) 화가 있다. 합이 되면 여러 상황들이 생길 수 있는데, 평소 합으로 묶여진 육친의 기능이 합을 하느라 제 역할을 못하는 형국이 될 수도 있다. 하지만 다른 여러 가지 변화의 사례도 있을 수 있으므로 그 형국을 잘 관찰해야 할 것이다. 대체로 합은 죽은 합이라는 의미로서 제기능을 못하는 사합(死合)으로 일컫는 경우가 많다. 보통 갑기합은 중정지합(中正之合)으로, 을경합은 인의지합(仁義之合), 병신합은 위엄지합(威嚴之合), 정임합은 인수지합(仁壽之合), 무계합은 무정지합(無情之合)으로 불린다. 합은 여러 형태로 얽히고 묶임으로써 각자의 독립성이나 가능성들이 무력화되기도 한다. 특히 용신이 묶이는 형국이면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강헌, 2016).

나) 무술년에서 천간합의 작용

천간의 무토(戊土)는 암묵적으로 계수(癸水)를 무조건 동반하게 된다. 그러한 이유는 음양의 상보적 원리로 해석이 가능할 것이다. 그러므로 무계합화(戊癸合火) 하려는 성향이 강하다. 그러므로 무술년에서 천간 즉, 하늘의 기운은 정신적인 작용을 의미하므로 ‘무계합’을 하여 화(火)의 작용을 하려는 정신적 흐름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무술년 천간합을 통해 일간의 정신적 욕구를 살펴 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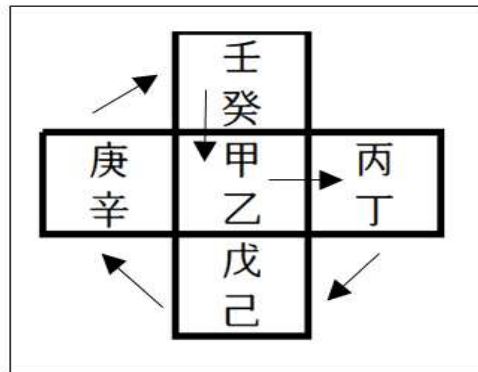


그림 V- 3. 甲·乙木 일간의 천간 변화도

갑목(甲木)은 인성인 계수(癸水)와 편재인 무토(戊土)가 합(合)을 하여 화(火)의 작용인 식상(食傷)을 확장하는 일을 하려는 정신적 작용들이 보일 수 있을 것이다. 즉, 나의 자격증과 글과 학문 등과 합하여 내가 먹고 살 수 있는 능력을 만들어 나가기 위한 활동들이 벌어질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천간의 흐름은 정신적인 작용을 의미한다. 이는 일간의 욕구나 희망, 바람을 말한다(박청화, 20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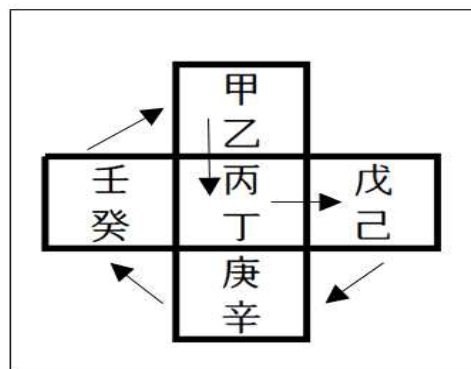


그림 V- 4. 丙·丁火 일간의 천간 변화도

병화(丙火), 정화(丁火)일간을 보자. 병, 정화 일간들은 무술년 수(水)의 기운인 정관(丁官) 계수(癸水)와 무계합(戊癸合)을 하여 화(火)의 작용을 도모할 것이다. 화는 병, 정화 일간에게는 나와 어깨를 견줄만 한 비견(比肩)의 역할로 비견과 함께 자신의 힘을 비축하고 키우는 일들을 정신적으로 도모하게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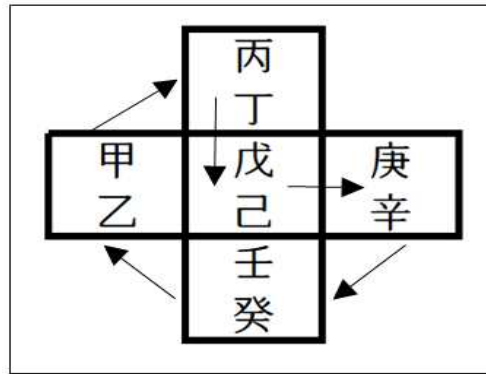


그림 V- 5. 戊·己土 일간의 천간 변화도

무토(戊土), 기토(己土) 일간들은 무계합화하려는 현상들이 일어나는데, 정재(正財)인 계수와 나의 비견들과 합작용을 통해 화의 작용을 일으킬 것이다. 예컨대, 돈을 들여 공부를 하려고 한다든지 돈을 들여서 문서나 자격증을 취득하는 일들이 생길 것이며, 정신적으로 그러한 활동에 전념하는 상황이 될 수 있다. 예를들어, 박사과정생이라면 무토와 기토 일간들에게 무술년은 나의 친구들인 비견들과 합세하여 그러한 흐름에 나도 받을 맞추어가기 위해 부단히 뛰어가는 해가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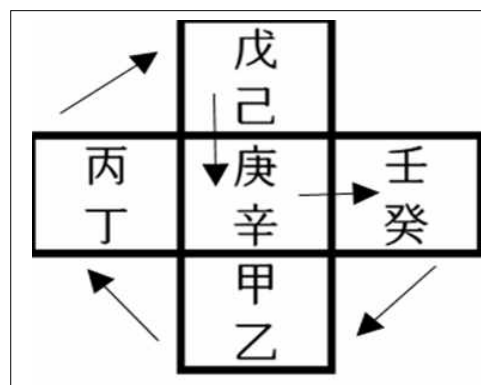


그림 V- 6. 庚·辛金 일간의 천간 변화도

경금(庚金), 신금(辛金) 일간들을 보자. 그들은 무토인 나의 인성 및 글과 학문 및 자격증과 나의 식상인 수(水)의 기운이 합하여 부단히 화(火)의 작용을 하는데, 여기서 화의 작용은 경금(庚金) 일간에게 관성(官星)에 해당한다. 이러한 정신적 상황들은 직업이나 나의 일자리 즉, 관직을 창출하려는 노력이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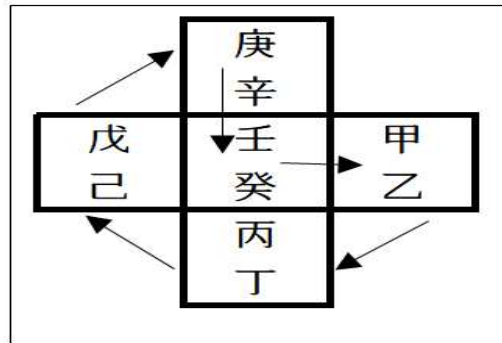


그림 V- 7. 壬· 癸水 일간의 천간 변화도

마지막으로 임수(壬水), 계수(癸水) 일간들이다. 그들은 무토(戊土)인 관직이나 직업 혹은 일과 자신의 비겁(比劫)들과 합하여 화의 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데, 그것은 재물을 일구어 내려는 정신적 작용을 예측할 수 있을 것이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천간의 합작용을 통해 무술년 각 일간들은 정신적으로 천간의 기운이므로 머릿속으로는 이러한 천간합의 작용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실제 생활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지지(地支)에서 파악이 가능하기 때문에 천간의 합작용과 더불어 지지의 변화 등 사주구조를 잘 살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정신적 작용들이 지지에서도 힘을 받아 일어날 수 있는지, 아니면 실제로는 영향력이 없는 것인지 희기(喜忌)를 반드시 따져 보아야 할 것이다. 다음은 무술년 지지의 활동들을 살펴 볼 것이다.

2) 무술년 지지(地支)의 작용

무술년에 주요롭게 보아야 할 것은 지지의 합, 형, 충, 파, 해와 더불어 공망, 격각 등 지지의 변화를 유심히 살펴야 할 것이다. 특히 지지의 합, 형, 충의 작용은 많은 연

구에서도 검증된 바 있으므로 회기를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육친이 합이 되어 묶이거나 형이되어 그 모양이 일그러지고 충으로 인해 깨지면 본래의 기능을 하는데 있어서 제 역할을 할 수 없을 것이다(김재성, 2005; 김경희, 2006). 여기서는 인오술 삼합, 묘술 육합, 축술미(丑戌未) 삼형살(三刑殺)을 위주로 살펴볼 것이다.

가) 인오술(寅午戌) 화국(火局), 삼합(三合)

우선 삼합(三合)은 인오술(寅午戌) 화국(火局), 사유축(巳酉丑) 금국(金局), 신자진(申子辰) 수국(水局), 해묘미(亥卯未) 목국(木局)로 크게 4가지의 형태가 있다. 이들은 각각, 인오술은 화국(火局)을, 사유축은 금국(金局)을, 신자진은 수국(水局), 해묘미는 목국(木局)을 이루게 된다.

인·오·술(寅·午·戌) 삼합(三合) 중 반합(半合)의 작용이 일어난다. 활동이 급격하게 활발해 진다. 午火가 잠자고 있는 용(龍)인 술토(戌土)를 깨워낸 것처럼 술토에 저장된 무궁무진한 능력이 오화(午火)로 인해 상품화가 되는 것이다. 술토가 오화(午火)만을 만나면 판매촉진 계획을 세우는 것이고, 신금(申金)까지 있다면 실행에 옮기는 것으로서, 오·신·술(午·申·戌)의 결합은 물건을 만들어 세상에 내어놓는 작용까지 포함한다. 인오술 삼합이면 화의 기운과 힘이 하나의 집단화되어 커지는 상황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이 인성이면 나의 글과 학문의 세력이 커지고 문서운도 커지는 형국이 된다. 그것이 돈이면 재물적인 부분에서도 큰 이득을 얻을 수 있게 된다. 그것이 관성으로 작용하는 일간에게는 직업면에서 큰 변화가 생길 수 있다(고순택, 2012).

나) 묘술합화(卯戌合火), 육합(六合)

육합은 6개의 합을 말하는데, 부부지합(夫婦之合)이라고도 말한다. 자축합(子丑合) 토나 수, 인해합(寅亥合) 목, 묘술합(卯戌合) 화, 진유합(辰酉合) 금, 사신합(巳申合) 수, 오미합(午未合) 화를 말한다. 특히 인, 오, 술, 묘, 자, 신, 축, 미의 글자들을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돌보는 대상이 생긴 것이다. 묘술(卯戌) 육합(六合)은 상대에게 필요한 것을 제공하며 돌보는 과정이다. 특히 월지(月支)가 술토(戌土)인 경우, 묘목(卯木)은 정성을 드려 키워야 하는 대상이다. 육합의 특징은 실력자간의 경쟁이 부각되는 대인관계이다. 그런데 육합 중에서 가장 활인성(活人性)을 많이 포함하고 있는 육합(六合)이 묘술합(卯戌合)이다. 술토(戌土)에게 있어 묘목(卯木)은 희망을 거는 대상, 내

눈으로 성장을 지켜보고 싶은 꿈나무에 해당된다. 술(戌)은 가을의 추살(秋殺)의 기운이므로 묘술합화(卯戌合火)가 되지 않고 묘(卯)의 기능은 신금(辛金)에 의해 그 뚜렷한 뜻을 펼치기가 어렵다.

그러므로 술년(戌年)에 묘(卯)가 어떤 육친에 해당하는지 각 일간(日干)마다 여러가지 다른 현상들을 경험할 수 있다. 예컨대, 병·정화 일간에게 묘목은 육친상으로 인성(印星)에 해당한다. 인성에 해당하는 글과 학문, 자격증, 문서 등의 일들은 묘술합이 되어 묶이는 형국이 될 수 있어 그 뜻을 펼치기 힘이 들수 있다. 경·신금 일간에게 묘목은 재성(財星)으로 정재(正財)나 편재(偏財)에 해당한다. 합이 되면 돈과 재물, 혹은 재성은 부친으로 해석할 수도 있으므로 부친이 하는 일이 막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혹은 남자에게 재성은 아내나 애인으로 말할 수 있는데, 묘술합(卯戌合)이 되면 합을 하느라 바빠 본래의 기능을 하지 않는 현상이 벌어지며, 본연의 일에 소원해지고 그 기능이 저조해 질 수 있다. 또한, 임·계수 일간에게 묘목은 식상에 해당한다. 식상은 나의 표현능력이나 표출능력으로서 밥벌이가 원활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다.

다) 축·술·미(丑·戌·未) 삼형(三刑)

축술미 삼형에는 축형술(丑刑戌), 축형미(丑刑未), 술형미(戌刑未)이 있다. 이것은 분쟁, 조정이나 소송, 관재 구설수, 이혼, 토(土)의 기운이므로 간혹 부동산에서 매매나 매각, 거래 및 조정 등으로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다. 건강으로 말하면 토는 위의 기능이나 장기의 문제로 말할 수 있으므로 수술이나 위장병 등에 관련한 주의가 필요할 수 있다.

다음 그림 V-8. 은 무술년 지지(地支)의 변화 양상을 살펴본 것이다. 무술년의 지지 글자인 술(戌)이 각각의 지지와 만나면 다음과 같은 작용이 벌어진다. 자(子)는 술(戌)과 만나 격각(隔角)이 되고, 축(丑)은 축술형(丑戌刑)이 된다. 인(寅)을 만나면 인술(寅戌)로 삼합까지는 이루지 못하고, 반합(半合)정도의 합을 이룬다. 묘(卯)를 만나면 묘술합(卯戌合)이 되고, 진(辰)을 만나면, 진술충(辰戌沖)으로 붕충(朋沖)이 성립된다. 사(巳)를 만나면 사술(巳戌)이 원진(怨嗔)이 되며, 오(午)를 만나면 오술(午戌) 화국의 반합이 형성된다. 미(未)를 만나면 술미형(戌未刑)의 현상들이 벌어지겠고, 신(申)을 만나면 격각되며, 유(酉)를 만나면 유술(酉戌) 반합으로 금(金)의 방국(方局)을 이루게

될 것이다. 술(戊)은 술술(戊戊)로 봉충(朋沖)을 하게 되며, 해(亥)를 만나면 천로지망(天羅地網)으로 묶이는 일들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방식으로 지지 글자들이 나에 게 어떤 육친인지를 파악하고 그것이 무술년에 술(戊)과 만나서 합(合)을 하는지 형(刑)을 하는지 아니면 충(沖)을 하는지에 따라서 그러한 육친의 기능이 변화게 됨을 알 수 있다. 그림 V- 8. 은 무년술(戊戌年) 지지(地支)의 변화를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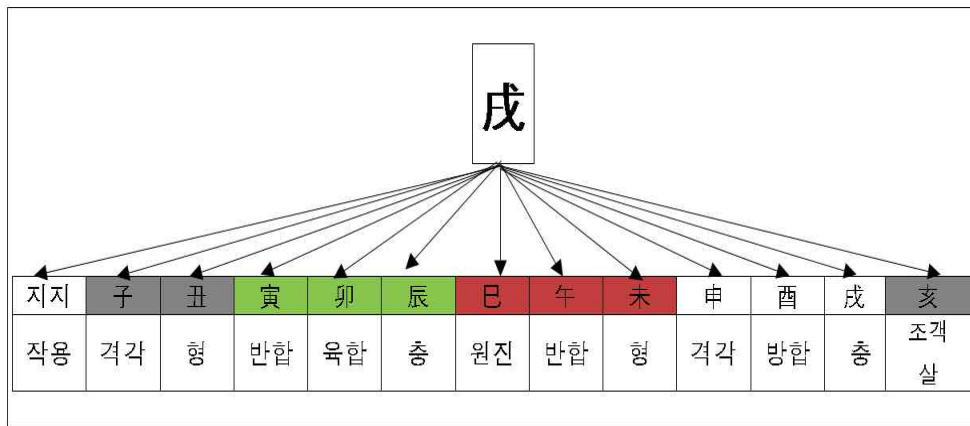


그림 V- 8. 무년술(戊戌年) 지지(地支)의 변화

라) 무술년 이전과 이후의 향방

2019년은 기해년(己亥年)으로 지지의 해수(亥水)를 잘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특히 수(水)의 기운이 강하게 유입되는데, 사실상 표 V-5.에서도 볼 수 있듯이 월운을 참고한다면, 기해년의 기운은 이미 2018년 무술년 음력 11월부터 이미 와있는 상황으로 이해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진·술·축·미는 토의 성분이지만, 묘고지의 역할로서 어떠한 상황들이 끝나고 마무리하고 있음을 암시하는 사건이 일어날 수 있다. 술년(戊年)인 경우는 병화(丙火)와 무토(戊土)의 고장지이기 때문에 그것에 해당하는 육친의 기능이 묘(墓)로 들어가는 형국이 되는 것이다.

예컨대, 무토(戊土)와 병화(丙火) 일간에게 화(火)의 기운은 인성, 공부, 어머니라는 인성의 별이다. 그것들과의 이별을 의미할 수 있다. 만약 무토일간이 그동안 열심히 공부를 준비해 온 학생이라면 그것에 대한 결과물들이 있을 것이며, 지금까지 일관되게 추진하였던 일들이 마무리되는 시간인 것이다. 가끔 이런 질문도 받을 수 있을 것

이다. “공부가 끝난다는 것은 공부를 전혀 하지 않는다는 것인가? 아직도 나는 기해년에도 공부를 하고 있는데, 공부가 끝이 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라고 분석에 대해 저항감을 보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꾀직한 공부는 마무리가 되고 나머지는 마치 여기와도 같은 정리의 시간으로 생각하면 될 것이다.

오히려 무토 일간에게는 기해년부터 갑목(甲木)이 장생(長生)하면서 재성이 좋아지는 시기이므로 취직이나 합격 등으로 인해 업그레이드 된 상황이 펼쳐지는 것이다. 즉, 시험을 준비만 하다가 이제는 직장에 취직해서 돈을 벌어야 하는 시기가 도래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누구에게나 이 상황은 아닐 것이고, 열심히 자신의 갈 길을 준비한 사람이야 그 복을 얻게 된다. 나머지 일간들은 이와 같은 원리를 적용하면 될 것이다. 무술년 천간과 지지의 변화를 통해 내용을 종합하면 아래 표 V-5. 와 같다.

표 V- 5. 2018 무술년-2019 기해년의 천간(天干)의 작용

日干	2018년	天干合		合和五行	2019년 기해년(己亥年)) 육친의 강약
	무술년(戊戌年)	戊	癸	火	
甲乙	나의 재성(財星)과 문서나 자격인 인성(印星)이 합하여 식상(食傷)을 창출하려는 노력이 많아진다.	財星	印星	食傷	식상약 재성약 관성중 인성강
丙丁	나의 식상(食傷)과 관성(官星)이 합하여 비겁(比劫) 등으로 나의 세력을 넓히게 된다.	食傷	官星	比劫	식상약 재성중 관성강 인성중
戊己	나의 비겁(比劫)과 재성(財星)을 합하여 문서나 자격(印星)을 얻으려고 한다.	比劫	財星	印星	식상중 재성강 관성중 인성약
庚辛	나의 글, 자격, 학문성인 인성(印星)과 식상(食傷)을 합하여 관성(官星)을 창출하려고 한다.	印星	食傷	官星	식상강 재성중 관성약 인성약
壬癸	나의 관성(官星)과 비겁(比劫)이 합하여 재물인 재성(財星)을 만들어 내려고 한다.	官星	比劫	財星	식상중 재성약 관성약 인성중

2017년 정유년부터 2019년 기해년에 이르기까지 지지가 금운에서 수운으로 가는 방향성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수의 기운은 강해지는 반면, 오행 중 그와 반대의 기운으로 토의 기운과 화의 기운은 쇠퇴기를 겪을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십이운성론을 바탕으로 나에 해당하는 육친 중 수(水)의 기운은 상승곡선을 토 기운이나 화기운의 육친성은 쇠퇴기를 겪는다는 것이다. 만약 무토(戊土) 일간이라면, 수의 기운은 재성에 해당하므로 재성의 흐름이 원활하게 바뀌는 운로를 겪을 것이며, 인성인 공부에 해당하는 화(火)의 기운은 쇠퇴할 것으로 예측이 가능하다. 그러나 단편적인 부분만으로 판단은 어렵고 우선, 용신과 격국 등의 행방을 잘 따져서

사주분석을 하는데 있어서 참고를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결과들을 통해 십이운성의 개념은 운의 희기를 예측할 수 있으므로 “내담자가 현재 무슨 일로 상담을 받으러 왔을까?”라는 질문에 답을 제시할 수 있다. 표 V- 6.을 살펴보면, 운의 방향성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표 V- 6. 2018 무술년-2019 기해년으로 연결되는 접목운의 흐름 변화표

年	2017년 丁酉	2018년 戊戌						2019년 己亥
月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2		
月 運	癸 丑	甲 乙 丙 寅 卯 辰	丁 戊 己 巳 午 未	庚 辛 壬 申 酉 戌	癸 甲 乙 亥 子 丑	丙 寅		

다. 십이운성을 활용한 사례

앞에서는 십이운성(十二運星)과 천갑합(天干合), 지지의 형·충·화·합 (刑沖會合) 작용을 통해 이론적 의미를 검토해 보았다. 이번 장에서는 실제 명리상담의 사례를 소개하면서 2018년 무술년에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고전 이론에서 말하는 내용들이 실제 상황 속에서도 그대로 펼쳐지고 있는지 ‘다름과 같음’은 무엇인지 탐색해 볼 것이다. 아래 사주를 보자.

【실제사례 V- 1】 1966년 02월 01일 17시 30분생, 음력, 곤명(坤命)

편관	일간	비견	편관
丙	庚	庚	丙
戊	戊	寅	午
편인	편인	편재	정관

85	75	65	55	45	35	25	15	5
辛	壬	癸	甲	乙	丙	丁	戊	己
巳	午	未	申	酉	戌	亥	子	丑

천간작용으로는 무계합화의 현상이 일어난다. 나의 글과 학문, 자격과 재물을 창출하는 능력인 식상이 합하여 관의 기능을 창출하고자 하는 정신적 작용이 일어날 수 있다. 2018년 무술년은 인오술(寅午戌) 화국(火局)으로 가뜩이나 화의 기운이 강한데, 옆친 데 덮친 격으로 남편이나 관적인 일로 신경을 쓰일 수 있을 것이다. 올해 남편과 이혼소송 중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무술년은 인성(印星)과 관성(官星)이 입묘(入墓)되는 시기이므로 남편과의 관계가 불길하다.

【실제사례 V- 2】 1969년 03월 17일 18시생, 음력, 곤명(乾命)

상관	일간	비견	겁재
辛	戊	戊	己
酉	寅	辰	酉
상관	편관	비견	상관

81	71	61	51	41	31	21	11	1
丁	丙	乙	甲	癸	壬	辛	庚	己
丑	子	亥	戌	酉	申	未	午	巳

천간(天干)은 정신적으로 무계합 화의 현상으로서 비견인 무토와 재물인 계수가 합하여 화의 기운인 문서나 자격, 글과 학문 등에 관심을 둘 수 있다. 박사과정생으로 동료무리들과 어울려 학술지를 내려고 부단히 돈을 들여서라도 애쓰는 형국이다. 지지는 인오술(寅午戌) 삼합(三合)이 형성되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무술년(2018년)은 병화와 무토가 입묘되므로 중중한 비견들이 사라지게 되어 경쟁자들이 사라지는 형국이다. 2019년 기해년을 앞두고 재성은 살아나고 가을부터는 진술충으로 해서 사회궁에서 새로운 관직과 일자리가 생길 수도 있을 것이다.

【실제사례 V- 3】 1969년 03월 13일 04시 30분생, 음력, 곤명(乾命)

식신	일간	편재	정재
丙	甲	戊	己
寅	戊	辰	酉
비견	편재	편재	정관

82	72	62	52	42	32	22	12	2
丁	丙	乙	甲	癸	壬	辛	庚	己
丑	子	亥	戌	酉	申	未	午	巳

무술년 천간에서는 무계합(戊癸合) 화의 작용이 일어나게 된다. 갑목일주는 나의 글과 학문, 문서와 큰돈인 편재가 합하여 식상을 창출하기 위해 정신적 작용이 일어날 수 있겠다. 지지로는 배우자궁을 진술충으로 충하고 있어 배우자와의 관계가 불길하다. 지지의 작용으로는 진술충으로 사회궁이 변하게 되는데 편재의 돈이 입고하는 현상이 벌어져 많은 돈의 손실이 있을 수 있을 것이다. 진술충으로 건물의 사고 파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을 것이다. 무술년은 무토인 편재와 병화인 편인이 입고될 수 있어 사업을 하여 재성을 창출하는 기운은 약하다. 내년은 기해년으로 문서운이 강하게 들어오므로 공부나 학업은 혹은 인허가업이 더 맞을 것이다. 현재 무리하게 몇 채의 건물 들을 인수하면서 큰돈을 빚을 지고 있어서 현금유통에 어려워하고 있고 커피숍을 운영하고 있으나 사업이 어려운 상황이다. 다행히 원룸에 대한 임대 수익은 간신히 유지 중이다.

【실제사례 V- 4】 1965년 06월 20일 23시 30분생, 음력, 곤명(坤命)

갑재	일간	비견	식신
壬	癸	癸	乙
子	酉	未	巳
비견	편인	편관	정재

87	77	67	57	47	37	27	17	7
壬	申	庚	己	戊	丁	丙	乙	甲
辰	卯	寅	丑	子	亥	戌	酉	申

천간의 작용으로는 나의 정태의 일과 비견인 동료나 친구와 합하여 재물을 추종하는 작용이 일어날 것이다. 미혼 여자에게는 남자의 기운으로도 살펴볼 수 있으나, 2019년인 기해년이 오기 때문에 겁재운으로 펼쳐지므로 깊은 관계보다는 친구정도로 가볍게 만나는 편이 낫을 수 있다. 지지로는 술미형이 되면서 미(未) 중 을목(乙木)이 나올 수 있는데 이미 을목이 천간에 투출되어 있으므로 이 경우는 을목의 입묘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식신은 나의 밥그릇이므로 생활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지지에서는 토의 기운인 술미형(戌未刑)으로 땅의 매매에 있어 형살 작용이 예측된다. 소송이나 시비에 걸려들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비겁이 태왕한데, 기신인 수의 기운이 향후 2019년부터 해자축으로 펼쳐지므로 건강도 주의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무술년은 무토인 관성과 병화인 재물이 입묘(入墓)하는 현상이 벌어지므로, 남편이 하는 일이 잘 되지 않는다면, 교통사고 등 남편과의 형살이 의심스럽다. 월지는 부모의 자리이기도 해서 친정 부모의 집이 재건축으로 인해 보상금 문제로 소송 중에 있었다.

【실제사례 V- 5】 1995년 01월 15일 16시 30분생, 음력, 건명(乾命)

비겁	일간	식신	정인
丙	丙	戊	乙
申	子	寅	亥
편재	정관	편인	편관

83	73	67	53	43	33	23	13	3
己	庚	辛	壬	癸	甲	乙	丙	丁
巳	午	未	申	酉	戌	亥	子	丑

병일간에게 무술년에 무계합 화의 현상으로서 나의 관직인 일과 식상이 합쳐져서 비겁을 만들어서 나의 힘을 키우려는 노력이 일어날 수 있다. 다음해에는 기해년으로 관직의 운이 좋아 무술년 한해는 나의 힘을 키우는데 노력을 하게 될 것이다. 무술년에는 무토(戌土)인 식상의 기운과 화의 기운인 비겁이 입묘하므로 밥그릇이 제대로 움직이는 것이 어려울 수 있을 것이다. 무술년 지지에서는 편재인 배우자 궁을 격각을 시키므로 편재를 격각시키므로 재물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 향후 3년간은 재성인 금의 기운이 약할 시기이므로 경제적 절약이 필요한 시기이다. 내담자는 미혼남으로 부단히 여자 친구를 찾고 있으나 경금(庚金)이 해자축(亥子丑)으로 병(病), 사(死), 묘지(墓)에 놓여 기운이 좋지 않으므로 교제는 어려울 수 있을 것이다. 현재 현역 병장이나, 9월 전역 후 전문하사를 원하고 있다. 이성교제를 원하나 만나고 헤어짐을 반복하고 있다.

이처럼 명리학의 여러 이론 중에서 십이운성론을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육친이 운기가 좋고 나쁜지 그것의 방향성을 알 수 있다. 특히 매년 바뀌는 세운은 많은 정보를 주는 환경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내담자를 만나는데 있어서 많은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예컨대 2019년 기해년, 2020년 경자년은 수(水)의 기운이 좋을 수 있다. 만약 수가 나의 공부운이며 문서운에 해당한다면, 특히 목일간에게는 인성이 빛을 발할 시기일 것이며, 그와 반대가 되는 토(土), 화(火)에 해당하는 육친은 절지, 태지를 향할 것이다. 이러한 원리를 대입한다면, 명리상담자는 내담자가 현재 가장 힘들 수 있는 환경을 예측할 수 있고 단도직입적으로 상담의 방향성을 찾는 일이기 때문에 단기상담을 가능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VI. 명리상담의 기술적 요소

1. 도박중독자 사주에서 본 ‘핵심 던지기’

이번 장에서는 명리상담의 기술적 특성을 살펴볼 것이다. 명리상담가들의 심층 인터뷰를 통해 실제 상담 현장에서 명리이론들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명리상담에서만 볼 수 있는 핵심적인 상담기술의 특징을 살펴보고자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선정하였다.

첫째, 명리상담가들은 도박중독자의 사주에서 어떠한 ‘핵심 던지기’를 할 것인가?

둘째, 명리상담가들은 ‘핵심 던지기’기술에 대해 어떠한 견해를 가질 것인가?

가.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참여자

가) 도박 중독자 1명

연구 대상자는 도박 중독자 1명으로서 명리사주분석에 필요한 생·년·월·일·시를 정확히 아는자를 선정하였다. 연구 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성은 표 VI- 1. 과 같다.

표 VI- 1. 연구참여자의 인구학적 특성

이름	성별	나이	직업	학력	종교	결혼상태	명리학 공부기간	도박 경력
박00	남	70	철학관 30년	고졸	불교	별거 30년	30년	40

연구 대상자의 사주팔자는 아래와 같다.

1949년 10월 20일 18시생, 음력, 건명(乾命)

편인	일간	정재	편관
辛	癸	丙	己
酉	酉	子	丑
편인	편인	비견	편관

81	71	61	51	41	31	21	11	1
丁	戊	己	庚	辛	壬	癸	甲	乙
卯	辰	巳	午	未	申	酉	戌	亥

나) 명리 상담가 8인

명리상담가들은 명리학을 공부한지 10년 이상 된 자, 혹은 현재 철학관, 점집, 혹은 절 등에서 명리상담을 하고 있는 명리 상담가 8명이다. 종교나 신내림 등 변인은 명리 사주분석에 결격사유가 될 수 없으므로 배제하지 않는다. 명리 상담가들의 인구학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표 VI- 2. 명리상담가의 인구학적 특성

이름	성별	나이(세)	종교	직업	명리학공부 기간(년)
1. 경산	남	51	불교	절 운영(스님)	15
2. 성타	남	62	불교	철학관 운영	20
3. 만공	남	73	카톨릭	평생교육원 명리학강사	30
4. 태인	여	59	불교	요양원 운영	15
5. 순형	남	72	기독교	명리상담실 운영	20
6. 연화	여	54	불교	점집 운영(무속인)	15
7. 민경	여	51	카톨릭	전문 상담사	15
8. 명심	여	61	불교	절 운영(무속인)	13

2) 자료수집

본 연구를 위한 심층면담은 2016년 9월부터 2017년 6월까지 총10개월간 8인의 명리 상담가들과의 심층면담 내용을 바탕으로 수집하였다. 명리상담가 8인에게 블라인드로

아무런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도박중독자 1인의 생년· 월· 일· 시만을 제시한 후, 명리사주분석을 요청하였다. 명리사주분석 후, 실제 명리상담시 ‘핵심 던지기’와 ‘명리상담의 핵심기술’은 무엇인지 명리 상담가들과 심층면담을 3회 실시하여 그들의 의견을 리코더를 통해 수집하였다.

심층면담은 1인당 3회, 1회당 60-90분 정도 연구의 목적이 충족될 수 있도록 포화상태에 이를때까지 실시하였다. 원자료를 구성한 후, 이를 지속적 비교방법으로 검토하고 추가로 심층면담을 수행하여 자료를 포화상태에 도달하게 한다. 심층면담의 내용은 연구자가 준비한 구조화 질문 20문항과 비구조화 질문을 함께 진행하며, 주제에 벗어나지 않도록 주의를 연구자의 수준에서 통제하며 진행하였다. 심층면담시 연구목적, 방법, 개인신상에 대한 피해가 없음을 소개하며 대상자로부터 연구참여 동의서를 받았다. 그리고 모든 리코딩된 자료들은 전사하여 원자료를 만들었다.

3) 분석방법

가) 근거이론(Grounded Theory)적 접근

근거이론 접근은 사회적· 문화적 맥락에서 참여자가 실제적 경험과정에서 어떻게 상호작용하고 반응하는지 밝혀내는데 널리 쓰이는 방법이다. 특히 Strauss와 Corbin의 근거이론 접근방법은 어떤 특정한 사회적 상황속에서 일어나는 현상에 대해 실제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분석하여 이론을 발견하거나 형성하기 위해 사용된다. Strauss와 Corbin(1998)이 제시한 개방코딩의 개념을 밝히고, 그 속성과 차원을 자료안에서 발견해 나가는 과정이며, 축코딩은 개방코딩 과정에서 도출된 범주들을 중심으로 범주들 사이를 연결시키는 범주분석과 과정분석이 이루어진다(김수지, 신경림 역, 2000). 선택코딩은 핵심범주(Core category)를 중심으로 모든 범주를 통합시키고 정교화하는 과정으로서 이에 따른 경험의 유형화가 이루어진다(Creswell, 2003; 김수지 등 역, 2000; 신경림 등, 2004; 조홍식 등 역, 2010; 김영희, 2014). 본 연구에서는 내담자에게 명리사주분석을 통해 현재 가장 힘든 핵심화두가 무엇이며 어떻게 단기상담으로 적용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명리상담자들의 근거를 바탕으로 이론을 형성하고자 근거이론적 접근방법을 활용하였다.

나) 명리학적 분석틀

‘핵심 던지기’에 쓰일 수 있는 명리학 고전문헌을 통해 단기상담의 가능성을 타진할 것이다. 명리학의 고전으로 자평진전, 궁통보감, 적천수천미, 연해자평, 명리요강, 삼명통회를 비롯해서 최근 활약 중인 명리상담가들의 귀중한 동영상자료 및 강의, 교재들도 활용하여 다양한 각도로 타진하는 문헌 해석학적 접근이다. 또한 이러한 명리사주 분석내용을 서양의 상담기술 및 기법의 이론적 틀을 갖고 접근해 보았다. 이를 통해 명리상담의 ‘핵심 상담기술’을 축출할 수 있었다.

4) 연구의 타당도와 신뢰도

연구참여자인 명리상담가 선정은 10년이상 명리학을 공부하고 현재 평생교육원이나 공신력있는 사설 교육기관에서 다년간 명리강의 경력이 있는 강사, 현직 철학관을 운영하는 자로 명리학 대한 소신을 말할 수 있는 자로 선정하였다. 최대한 참여자들의 경험을 그대로 반영하고자 심층면담시 연구자의 편견과 주관은 배제하려고 노력하였다. 자료분석(개방코딩, 축코딩, 선택코딩 등)과 연구결과에 대한 객관성을 확보를 위해 상담심리 전공 박사과정 동료 및 10년이상 상담경력을 가진 상담전문가 2명 및 명리학과 사회복지 관련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은 명리상담 관련 전문가 2명의 피드백으로 보충하였다.

나. 도박 중독자 사주의 핵심문제

블라인드 방식을 통해서 8명의 명리상담가들은 도박중독자의 사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핵심문제를 말하였다. 그 내용을 정리하면 표 VI- 3. 과 같다.

표 VI- 3. 개방코딩, 축코딩 및 선택코딩 결과

개방코딩	축코딩	선택코딩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계수(癸水)가 자월(子月)에 태어나서 건록(建錄)에 위치하고 있으니 강합니다(순형). 2. 목은 식신(食神)과 상관(傷官)으로 식·상이 없다. 식·상(食傷)은 먹을 복이며, 경제능력이다(태인). 3. 금(金), 수(水)가 태과(太過)하다(명심). 4. 유금(酉金)이 2개에다 신금(辛金)이 하나 편인, 편인, 또 편인이라 물이 굉장히 많은 사주다(경산). 5. 금은 인성이고 수는 비·겁(比·劫)으로 금수가 많으므로 사주가 강하다(만공). 6. 인성이 많아 일간이 신강하니까 좋은 말로는 몰입이고, 어떤 일을 하면 끝까지 집중하는 성향도 있겠죠(민경). 7. 오행이 조화가 되는지를 살펴보면, 토는 토생금, 금생수, 수생목 이렇게 조화가 되는건데, 이 사주는 금생수, 화생토는 되지만 조금 부조화스럽네요(민경). 8. 금수(金水)가 많아 일간이 대단히 썩다!(태인). 9. 아무래도 계수(癸水)라서 임수(壬水)보다는 그 양이 작겠죠? 또 인수가 3개씩 있으므로 물의 양이 작지만은 않을 꺼예요(경산). 10. 남자 사주에서 목은 식신, 상관인데 목이 없네요. 그 자체로 먹을 복이고 그 다음으로는 예술성, 또 하나는 관을 통제하는 능력이라고 봅니다(만공). 	<p>가) 오행의 태과 불급(太過不級)</p> <p>“수(水) 일간에 금수(金水)가 많고, 목(木)이 없다.”</p>	<p>■ 오행이 편중되어 균형이 맞지 않는 사주 구조이다.</p>

개방코딩	축코딩	선택코딩
<p>11. 식신, 상관이 목이잖아! 이게 부족하다는 거지(태인).</p> <p>12. 이 사주는 제일 좋은것이 목생화, 화생토로 되었을 때, 다행히 화생토(火生土)는 되잖아요? 단지 목이 없어서 이 화를 좀더 키워줄 수 있는 목이 오면 좋겠지요. 수생목, 목생화가 되면은 말이죠(민경).</p> <p>13. 식신·상관은 생재(生財)를 해서 재성을 생하지요. 그런데 식상이 없으니까 또 경제능력도 없다는 것입니다(만공).</p> <p>14. 비견·겁재가 강하고 식신·상관이 없다. 그러면 대단히 고집이 세고 자기만 안다(연화).</p> <p>15. 이게 재성인데 이 뿌리가 목인데 목인 식신·상관이 없으니까 재(財)가 떠버렸지요. 수(水)로 모두 되버렸어요(경산).</p> <p>16. 재성(財星)이 여기 위에서 거쳐할 곳이 없어요(성타).</p> <p>17. 수극화(水克火)하고 있죠. 이 수(水)는 대단히 센 수입니다. 월지(月支)에 자수(子水)까지 있으니...(태인).</p> <p>18. 화는 토기 강력한 토 속에서 화생토(火生土)하여 설기 당하고 있어요(성타).</p> <p>19. 재(財)는 흙속에 매몰됐어. 흙속에 묻혀 버렸어요(만공).</p>		
<p>20. 지금 목(木)은 길신쪽이 돼(만공).</p> <p>21. 대단히 금수가 강하니까 용신은 토가 되어야죠. 왜냐하면 토극수(土剋水) 하니까 토가 됩니다(민경).</p> <p>22. 길신(吉神)은 화(火)입니다(만공).</p> <p>23. 용신이 있으면 화는 그냥 따라 가지요. 자~~ 그러면 용신인 토는 여기 있어요(만공).</p> <p>24. 용신이 토다(순형).</p> <p>25. 용신이 토인데 힘이 있느냐 없느냐를 봐야 해</p>		

개방코딩	축코딩	선택코딩
<p>요. 토는 토인데 화생토(火生土)해서 용신은 힘은 있어요(만공).</p> <p>26. 토극수(土剋水)로 관성(官星)은 강한 일간을 제어할 수 있는 성분인데, 일간이 워낙 강하니 약한 관성은 일간을 제어하기엔 역부족인 상황입니다(경산).</p> <p>27. 용신이 이 정도면 저 위치에서는 중상급은 됩니다. 힘을 받으니까 말이죠. 용신은 힘이 있습니다(만공).</p> <p>28. 화생토(火生土)는 하지만 토가 다시 자축합(子丑合)이 되잖아요(만공).</p> <p>29. 그런데 여기서 이 토(土)는 토로서 역할을 못합니다(민경).</p> <p>30. 축토(丑土)는 토가 아니라, 사유축(巳酉丑)해서 금국(金局)으로 가버리거든요(태인).</p> <p>31. 자축합(子丑合)이 되면 토(土)나 수(水)가 된다고 하지요. 여름의 자축합은 토가 되죠(만공).</p> <p>32. 그러나 겨울의 자축합은 물이 돼요. 여름 토에 물을 뿌리면 흙이 빨아들이잖아요. 먹어 버리니까 그냥 토(土)가 된다는 겁니다(만공).</p> <p>33. 겨울에 흙 위에 물을 부으면 그냥 퐁퐁 얼어버립니다. 그럼 그냥 물이 되죠(연화).</p> <p>34. 게다가 금국이 되요. 토는 토이지만, 토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겁니다(민경).</p> <p>35. 그래서 용신은 기토(己土)지만, 여기서 기토(己土)는 생해지는 역할을 못합니다(만공).</p> <p>36. 그럼 기신(忌神)은 당연히 금·수(金水)지요(민경).</p> <p>37. 목은 여기서 천간으로 목이 올 때는 갑기합(甲己合)이 됩니다(경산).</p> <p>38. 갑목(甲木)이 올 때와 을목(乙木)이 올 때가 틀려요(경산).</p> <p>39. 여기서 목(木)이 오면, 계수(癸水)의 기운을</p>	<p>나) 용신(用神)의 역할이 약하다.</p> <p>■ 용신의 역할</p> <p>용신: 토 한신: 목 희신: 화 홍신: 수 기신: 금</p> <p>“용신은 토(土)이다.”</p>	

개방코딩	축코딩	선택코딩
<p>빨아들이지요(민경).</p> <p>40. 목은 원래 한신(閑神)인데 길신(吉神)역할을 하고 있습니다(만공).</p>		
<p>41. 그리고 예민해요 자유(子酉)파니까요(태인).</p> <p>42. 성격을 볼때 계수(癸水)인 일간(日干)을 봅니다(민경).</p> <p>43. 자유(子酉) 귀문관으로 자기감정을 스스로 컨트롤하는 걸 잘 못해(연화).</p> <p>44. 계수는 음수(陰水)입니다. 사회 적응력은 굉장히 빨라요. 약삭빠를 정도로 아주 빨라요(태인).</p> <p>45. 닭‘유’자가 물수변을 찍으면 술주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분은 음주를 즐길겁니다(순형).</p> <p>46. 계유날 낳으니까 “음지를 즐긴다.” (순형).</p> <p>47. “예술방면에 길하다.” 음지를 즐기는 사람을 우리가 술(術)이나 예능 쪽으로 생각을 하지. 음주 쪽으로 생각을 하거든요(순형).</p> <p>48. 혼자 조용히 몰두도 할 줄압니다(순형).</p> <p>49. 물은 흘러야 빠르지요. 그런데 몇 월에 태어났어요. 12월 9일이죠. 그나마 제주도에서 태어났으면 다행인데 서울에서 태어났으면 얼었겠죠(만공).</p> <p>50. 그나마 이게 자월(子月)이지만, 10월 초니까 어느 정도 수(水)가 수의 역할은 하겠지요(만공).</p> <p>51. 자월생이지만, 어느 정도 자기가 사회생활 정도는 괜찮고 적응은 한다고 말할 수 있죠. 표현도 잘 하지는 않아요. 표현을 많이 해야 해요(태인).</p> <p>52. 물상론(物象論)으로 불 적에 계수는 비구름과 같은 성정을 지녔죠(민경).</p> <p>53. “습한 곳에서는 벌레가 깍니다.”(성타).</p> <p>54. 하늘에 태양이 떴어요(성타).</p>	<p>다) 일주(日柱)의 성격특성</p> <p>“어떤 일을 시작하면 끝까지 집중하고 몰입하는 성향이다.”</p>	<p>■ 인성태과로 제어 안되고 올인 하기 쉽다.</p> <p>■ 식상(食傷)이 없어 표현능력이 떨어진다.</p>

개방코딩	축코딩	선택코딩
<p>55. 그러니까 기토(己土)는 뭐야? 무토(戊土)가 태산이면 기토(己土)는 밭입니다. 기토는 들판의 밭인데 거기 계수(癸水)가 흘러가고 있지요 (만공).</p> <p>56. 그림상 계수(癸水)가 이리 흘러가는데, 갑목(甲木)이나 을목(乙木)이 같이 있어야 되잖아요 (만공).</p> <p>57. 계수는 역할이 없어요. 수생목(水生木)을 해야 하는데 목이 없으니까 해줄게 없는거죠(민경).</p> <p>58. 또 여기 밭이나 들판도 있어요. 거기 뭐 나무 같은 것을 키워야 하는데, 이 계수의 역할이 없다는 겁니다(만공).</p> <p>59. 수(水)가 넘쳐서 자기가 할 일을 찾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민경).</p> <p>60. 이 분은 수(水)예요. 금생수(金生水)해서 수(水)가 많으면 어떤 끼도 많다는 겁니다. 예능적인 끼죠. 수의 기운이 좀 그런 기능이 있어요 (경산).</p> <p>61. 그러면 바람끼도 있고요. 쉽게 말하면 도박, 예술성, 서예, 그림 등 그런 것에는 흥미가 있어요(경산).</p> <p>62. 이 사람은 어떤 성격이나? 계수인데 자기가 췌요. 자기가 세니까 거들먹거리겠지요(민경).</p> <p>63. 관이 수국(水局)으로 변해 버리거든요. 이게 굉장히 극도로 예민한 사람이야(연화).</p> <p>64. 거들먹거린다는 것은 능력이 있는데, 안타깝게도 운(運)이 따라주지는 않는 겁니다(태인).</p> <p>65. 이 분은 사회적으로 불평불만이 많으실 거예요 (경산).</p> <p>66. 이 물은 계곡수도 되고 비구름도 될 수 있는데, 비구름이 되면 구름만 되면 안되고 밑으로 내려야 되잖아요. 또는 계곡물은 흘러가야 되잖아요(민경).</p> <p>67. 물이라는 것은 얼어 있으면 쓰임새가 없는 물이에요. 물이란 우리가 농업용수로 쓰던지, 식</p>		

개방코딩	축코딩	선택코딩
<p>수로 쓰던지 담수를 쓰던지... 일단 얼어 있으면 못쓰는 것이죠(경산).</p> <p>68. 흐르려면 목(木)이 있어야 흐르겠죠(태인).</p> <p>69. 목(木)이 없으니까 정체된 물이라 이겁니다. (태인).</p> <p>70. 단지 목이 없어서 이 화를 좀 더 키워줄 수 있는 목이 오면 좋겠지요. 수생목, 목생화가 되면은 말이죠(경산).</p> <p>71. 정체된... 그러니까 답답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태인).</p> <p>72. 이 사주에 목이 있었다면 수생목(水生木), 목생화(木生火), 화생토(火生土)로 잘 흘러가는데 말이죠(명심).</p> <p>73. 초년에만 잠시 목이 왔어요(민경).</p> <p>74. 특히 수(水)일간은 목(木)이 있어야 흐르지요 (민경).</p> <p>75. 목화운(木火運)이 와야 하는데 목화(木火) 운이...(태인)</p> <p>76. 초년에 그러니까 한 20살까지는 그나마 부모 슬하에서 제대로 교육을 받았을 겁니다(만공).</p> <p>77. 유일하게 목이 천간에 이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꼭 막혀있는 풀리는 일이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성타).</p> <p>78. 목이 있어야지(민경).</p> <p>79. 다른 금·수, 화·토, 토·금 이런 것들은 식·상(食·傷)이 없어도 사는데, 유일하게 수(水)는 흘러야 되거든요(만공).</p> <p>80. 임수(壬水)도 그렇고. 수의 기운은 유통이 되어야 합니다(민경).</p> <p>81. 이 사람을 보면 인성이 많으니까 일간(日干)은 극신강(極身強)이 됩니다(명심).</p> <p>82. 이 사람은 극신강이면서도 식상이 없는 극신강입니다(만공).</p>		

개방코딩	축코딩		선택코딩
<p>83. 그러니까 자기고집만 세우는 극신강이죠(태인).</p> <p>84. 대단히 심하게 잘난 척하고 그러다 보니 일을 그르칠 경우가 많이 생기는 겁니다(만공).</p> <p>85. 또 인성(印星)이 너무 많아요(민경).</p> <p>86. 인성은 알다시피 학문, 인품 등 여러 가지의 미가 있습니다(명심).</p> <p>87. 그런데 인성이 이렇게 많으면, 이건 인품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건방지고 아는 척하고 똑똑한척하면서 시건방을 떠는 겁니다(만공).</p> <p>88. 또 여기에 이건 부모성이잖아요. 이렇게 인성이 많으면 무슨일이든 내가 스스로 움직이지 않아요(연화).</p> <p>89. 여자관계는 모성이 그리운 사람이에요. 년상의 여자와 인연이 있고, 어머니가 많다는 것은 이모 밑에 살던지 할머니 밑에 살던지 계모 밑에서 살 수 있어요(명심).</p> <p>90. 한군데도 아니고 이렇게 많으면 노력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민경).</p> <p>91. 사주가 뭐든지 물질되는 사주야. 음양오행(陰陽五行)이 골고루 있는 것이 풍파 없이 고루 살아(연화).</p>			
<p>92. 그리고 예민해요. 자유(子酉)파니까요(태인).</p> <p>93. 오히려 인성이 이렇게 많으면, 반대로 모친의 덕이 없을 수도 있어요(태인).</p> <p>94. 효신살(梟神殺)은 엄마의 근심 자식으로서 반드시 엄마가 두 분이야(태인).</p> <p>95. 효신살이 있어서 엄마랑도 인연이 없고, 엄마를 가슴 아프게 하는 일이 중년 이후에 생기니 부부 이혼 등도 예측 가능한 것 같아요. 아버지는 도움이 되지만, 엄마하고는 맞지 않아 보입니다(명심).</p>			

개방코딩	축코딩	선택코딩
<p>96. 이걸 마마보이가 되거나 어머니의 덕이 전혀 없거나 하겠지요(명심).</p> <p>97. 극신강자(極身强者)는 자기 밖에 몰라요(연화).</p> <p>98. 인성이 많아요. 태과즉불급(太過卽不及)입니다. 많은 것은 오히려 없는 것과 같다고 합니다(민경).</p> <p>99. 이 사람은 주체성이 없어. 왜냐면은 계속 차가운 물이고 내가 없어졌잖아. 나는 한방울의 물인데 바닷물로 가면 그냥 바다가 되버리는 것이지(연화).</p> <p>100. 이런 사주는 모친의 덕이 없다고 봐야할 거예요. 식신·상관이 없으니까 갈 때 없겠죠(태인).</p> <p>101. 세 분의 어머니. 아버지나 어머니가 재혼을 해도 두 분으로 보거든요. 세 분의 어머니를 볼 수 있어요(태인).</p> <p>102. 불행하게도 년지의 축(丑)의 지장간(地藏干)이 계신기(癸辛己), 월지의 자(子)도 임계(壬癸)로 지장간에 조차도 목(木)의 기운이 하나도 없네요(민경).</p> <p>103. 식상이 지장간(地藏干)에도 하나도 없어(민경).</p> <p>104. 그러니까 아까 식신·상관은 먹을 복인데, 먹을 복이 없는 겁니다(태인).</p> <p>105. 식상은 생재(生財) 활동이니까 경제활동인데, 이것을 도와 줄 목(木)이 하나쯤 이라도 있으면 좋을 텐데 말이죠(만공).</p> <p>106. 재성(財星)인 병화(丙火)는 초겨울에 ‘빛을 잃은 태양의 형상’입니다(성타).</p> <p>107. 여기서 강한 수(水)의 기운이 수극화(水克火)하니까 갈 곳을 잃은 태양이겠지요(성타).</p> <p>108. 재물에 해당하는 병화(丙火)가 자수(子水)에 있으니까 태지(胎地)로서 힘이 약하겠죠(명심).</p> <p>109. 부인을 볼때 재성도 보고, 일지(日支)도 보고 또 용신도 봐야죠. 재성도 재성이지만 이 세가</p>	<p>라)육친(六親)과의 관계</p> <p>“극신강자 자기 밖에 몰라요”</p> <p>■비겁 인성이 강하여 극신강하다.</p> <p>■식상 목(木)이 없어 답답하고 생재(生財)를 할 수 없다.</p> <p>“꼭 막혀 풀리는 일이 없다.”</p>	

개방코딩	축코딩	선택코딩
<p>지 부분을 다 봐야 되는 겁니다(만공).</p> <p>110. 일지(日支)는 금(金)인데 흉신(凶神)이죠. 부인이 흉신역할을 하겠지요(만공).</p> <p>111. 일지는 배우자 궁(宮)으로 볼 수 있는데, 배우자가 도움이 안 되는 겁니다(성타).</p> <p>112. 이 분의 부인 자리가 유금(酉金)으로 용신이 아닌 기신이잖아요. 나의 부인 자리도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경산).</p> <p>113. 배우자가 있기는 있어요. 이 사람 부인 이 있기는 해요(만공).</p> <p>114. 이 상황에서 재물이나 부인이 그렇게 썩 도와주는 상황은 못되는 상황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태인).</p> <p>115. 계수일간에 토는 관성이죠. 관성은 우리가 사회성, 직장, 직업 뭐 이런 것인데, 년지의 축토(丑土)가 있고 화생토(火生土)를 하니까 두 각을 발휘할 수 있겠습니다(만공).</p> <p>116. 그래도 관직을 이끌어 나가겠지요(태인)</p> <p>117. 관(官)이 년간의 천간(天干)에 떠 있으니까 바지저고리를 입은 형국이니 좋거든요(민경).</p> <p>118. 그런데 이 축토(丑土)가 배신을 때렸네요(태인).</p> <p>119. 재성은 재물이고 사업이나 재성이 사업이나 돈과 같지요. 그런데 약해 보이네요(민경).</p> <p>120. 재가 계수(癸水)의 옆에 있으니 돈에 대한 욕심은 있어요(경산).</p> <p>121. 우리가 막말로 인성을 가방끈이라고 말하지요. 글과 학문, 공부말입니다. 이게 너무 많아서 오히려 가방끈이 길지가 못하다 이겁니다. 공부와 인연이 없을 겁니다(태인).</p> <p>122. 이걸 제자 팔자라고 해. 왜냐면 자유 귀문관이야. 귀신이 왔다갔다 해. 기분도 등락폭이 커요(태인).</p> <p>123. 계유(癸酉) 일주이고 편인이니까. 이 공부가</p>	<p>■ 재성 : 약 본 처와 30년 간 별거중</p> <p>“공공 열은 동지 첫 달에 병화(丙火)가 무슨 힘이 있어.”</p>	

개방코딩	축코딩	선택코딩
<p>화개공부야. 공부가 도화, 도화, 도화잖아(연화).</p> <p>124. 정재(正財)가 아주 극(極)을 받고 있어요(민경).</p> <p>125. 월(月)에 병(病)이 있잖아요. 그 여자가 도화를 깔고 있으면 두번째가 왔거나 이게 그런 거예요(태인).</p> <p>126. 사주(四柱)가 한쪽으로 편중되었으니 도둑놈이죠(명심).</p> <p>127. 어쨌든 재물복은 없습니다(민경).</p> <p>128. 40대, 50대까지도 화(火)의 기운은 볼 수가 없어서 병화(丙火)가 일간에게 정재이기도 해서 아버지와 인연도 짧겠고, 배우자와도 관계가 좋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민경).</p> <p>129. 그리고 일간이 썬니까 돈을 잡아먹는 역할만 하겠죠. 군겁쟁재(群劫爭財)의 재성구조입니다(민경).</p> <p>130. 비겁이 많아서 사과하나를 4쪽으로 나눠야 되잖아요. 사(巳)인 정재가 나혼자 독차지하지 못하고, 경쟁자가 많으니까 피는 사람이 많겠죠. 돈과 관련해서요. 그러다 보면 이것이 손재인거야(명심).</p> <p>131. 수극화(水剋火) 해서 돈을 쓰는 일만 하게 되는데, 주색잡기나 도박 등 크게하면 잡기(雜技)에 능하겠지요(태인).</p> <p>132. 인성이 이리 많으면 인품(人品)이 결여됐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민경).</p> <p>133. 자유 귀문관이 만약에 잘못되어서 운에서 또 유(酉)를 만나면, 자유 귀문에다가 이때 신경쇠약에 걸리던지 정신과 치료를 받는다던지 하지(연화).</p> <p>134. 여기서 재물을 완전히 뺏아 내리잖아요(태인).</p> <p>135. ‘늘 재(財)를 (貪)하는 형상’이다. 내 사주에 부족하니까 없는 오행을 자동적으로 채우려고 하겠죠(민경).</p>	<p>■ 관성 : 세력은 있으나 대운에서 합, 형, 충으로 관의 역할을 하지 못함.</p> <p>‘관성은 년지에 바지저고리를 입고 있는 형상’이다.</p>	

개방코딩	축코딩	선택코딩
<p>136. 더 시급한 것은 한 겨울에 병화(丙火)인 재(財)가 어디 뿌리를 박을 때가 없는 것입니다. 지지(地支)에도 없고 지장간(地藏干)에도 뿌리를 박을 때가 없습니다(경산).</p> <p>137. 병화(丙火)가 천간(天干)에 떠 있으나, 지지(地支)에 통근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병화(丙火) 자체가 아주 약한 사주입니다(민경).</p> <p>138. 사유축(巳酉丑) 금국(金局)이 되고, 금생수(金生水)해서 재물을 더 누르죠(민경).</p> <p>139. 그리고 자오충(子午冲)으로 재물을 사정 없이 충(冲)을 해서 없어지죠(태인).</p> <p>140. 사오미(巳午未)운이라든지 여자의 운이 온다고 해도 일시적으로 여자 기운이 들어올 수 있지만, 그 운이 온다고 해도 운이 가면 인연이 없는 형국입니다(성타).</p> <p>141. 만일 화운(火運)이 오는데, 사주에 화가 없다면 군검쟁재의 재성구조는 늑대들이 먹을 것이 이거 하나거든요. 달려들어서 완전히 없어지게 만들겠죠. 재물이 들어오는 데로 잡아먹히는 형국이니 까 게임은 끝나는 겁니다(태인).</p> <p>142. 때문에 재성이 힘을 쓰지 못하니까 없는 것과 다름이 없어요(성타).</p> <p>143. 어쨌거나 병화(丙火)는 수극화(水剋火) 당해서 감감절벽에 불하나 떠있어 봐야 죽어. 수극화(水剋火)를 당해서...(연화)</p> <p>144. 천간(天干)에 떠 있기 때문에 최악은 아니더라도 힘이 조금 있기는 합니다(만공).</p> <p>145. 그 정도의 군검쟁재의 상황은 아니어도 안 좋을 수 있습니다(민경).</p> <p>146. 화운(火運)이 여기서부터 오는데. 화운이 여기서 자오충이 되니 재물이 없어 버렸겠지요(태인).</p> <p>147. 수(水)에 사유축하면서 재물이 변해 버리잖아요. 돈인 줄 알았는데 말입니다(태인).</p>	<p>■ 인성 : 너무 많음.</p> <p>“가방끈(학업상태)이 짧을 수 있다.”</p>	<p>■ 돈이 안 된다.</p>

개방코딩	축코딩	선택코딩
<p>148. 여기에 화운이 재성운이지만, 전혀 도움이 안되는 겁니다(태인).</p> <p>149. 재물복이나 재물운이 없는데, 그나마 여기에 있으려고 하다가 그냥 망가진 겁니다. 변질이 되는 거예요(민경).</p> <p>150. 일반적으로 사업을 하면서 못 버는 경우도 생길 수 있어요(태인).</p> <p>151. 대부분 주색잡기(酒色雜技)처럼 노는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탕진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아니면 돈을 빌려주고 받지도 못하는 상황도 될 수 있습니다(만공).</p> <p>152. 이게 도박, 술, 여자야. 사주 구성이 다 암흑 세계잖아. 다 도화잖아(연화).</p> <p>153. 재성인 배우자도 역할을 못합니다. 배우자 자리조차 흉신(凶神)노릇을 하니깐요(민경).</p> <p>154. 정재(正財)는 돈도 되고, 아내로 보기도 하잖아요. 어쨌든 안 좋다. 이 사람은 이 사주속에서 화(火)가 살 수가 없어요(성타).</p> <p>155. 병화(丙火)가 자수(子水)위에 있어 재살(災殺)이니 수옥살(囚獄殺)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정재는 감옥에 갇혀 움썅 달싹을 하지도 못하는 형국으로 보입니다. 이는 감옥을 가거나 감옥에 갇힌 죄수처럼 몸이 아파 병원 신세를 지는 형국이 되겠죠(민경).</p> <p>156. 이 분은 사회적으로 불평불만이 많으실 거예요. 성격이 조금 뼈뚫거리겠죠. 그것은 내가 극신강(極身強)하잖아요. 금생수해서 수가 굉장히 왕(旺)하잖아요. 그럼 뭐야. 내가 극신강 하니까 나의 뜻은 크다고 봐야겠지요(경산).</p> <p>157. 그리고 활력도 넘쳐요. 아무리 화(火)가 없어 흐르지는 못한다 해도 말이죠(경산).</p>		<p>■ 늘 재(財)를 탐하는 형상이다.</p>

개방코딩	축코딩	선택코딩
<p>158. 대운을 보면 인생의 60여년간 금운(金運)과 화운(火運)으로 흐르지요(민경).</p> <p>159. 초년(初年)은 금·수(金水)로 흐르고 있어요 (명심).</p> <p>160. 지지(地支)는 금(金)이고 천간(天干)은 수(水)니까(민경).</p> <p>161. 초년에는 흉신운(凶神運)으로 왔지요(순형)</p> <p>162. 41세 대운(大運)부터 천간은 금(金)이 왔지만, 지지는 화운(火運)으로 왔지요(태인).</p> <p>163. 대운을 보면 초년, 중년에는 상당히 안 좋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태인).</p> <p>164. 서서히 41세 대운부터는 풀리기 시작했어요 (만공).</p> <p>165. 이 사람은 초년엔 고생했을 것 같아요(민경).</p> <p>166. 초년엔 고생했겠지요. 금수가 이리도 강한데 설상가상(雪上加霜)으로 또 금·수가 밀려오니까요(만공).</p> <p>167. 노년(老年)에 들어오면서 그래도 상승곡선을 탄거야! 대박이 터졌잖아(만공).</p> <p>168. 기토(己土), 사화(巳火) 그런데 이 사화(巳火)가 만일 이 오화(午火)가 오면 참 좋았는데, 사화가 금국(金局)으로 바뀌었잖아. 흉신(凶神)으로 변해서 좋았다가 말았다는 거지(성타).</p> <p>169. 사(巳) 대운이면 재운(財運)이네요. 사화(巳火)는 사유축 삼합(三合)으로 금이 되잖아요. 사유축합 금이 되면 이 돈이 들어와서 뭔가하려고 하는데 묶여 버린 거예요. 그래서 기신(忌神)인 인수로 변해버리잖아요(경산).</p> <p>170. 그러면 60세 이후에는 좋다가 말았다는 겁니다. 토(土)는 자기가 사업이나 직업, 혹은 자식으로도 봅니다. 관이니까요(태인).</p> <p>171. 그 대신 노년에 가서는 좋다 말았지만, 그런</p>	<p>마) 대운(大運)의 향방</p> <p>“일생 크게 피는 꽃(재성)을 못 본다.”</p>	<p>■ 31임신 대운: 사업 실패 후 장뜰 배기로 유랑</p> <p>■ 41신미 대운: 자미원진, 유미격각, 화의 기운은 있으나 제역할을 못함</p>

개방코딩	축코딩	선택코딩
<p>테로 막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경산).</p> <p>172. 어쨌든 이게 사유축(巳酉丑)하면서 사화(巳火)는 이게 웬만하면 뛰하는데 여기서도 휘까닥 가 버렸어요(만공).</p> <p>173. 여기에 경금(庚金)이 있잖아. 사(巳)는 지장간이 무경병(戊庚丙)으로 “갸다”(만공).</p> <p>174. 전체적인 흐름으로 볼 때, 초년운인 30대까지는, 30대 중반, 30대 말까지는 “고생을 많이 했다.” “어려웠다.”고 말할 수 있지요. 강한 것을 건드리면 노하게 되요. “왕자충쇠쇠자발 쇠신충왕왕자발(旺者冲衰衰者拔 衰神冲旺旺者發)”라고 적천수에서 말했죠(민경).</p> <p>175. 근데 41세 신미(辛未)대운부터 20년동안 재성(財星)인 화토운(火土運)이 왔어요. 그러나 애석한 것은 신금(辛金)이 오면서 병신합(丙辛合)을 해버렸어요(경산).</p> <p>176. 병신합을 하면서 재성(財星) 병화(丙火)가 길신(吉神)인데, 길신의 역할을 못한 것이죠. 즉, 이것이 재물인데 재물에 대한 곡절이 있다 이거지(만공).</p> <p>177. 41 신미(辛米) 대운에서 신금(辛金)이 병신합(丙辛合)해서 수(水)가 되어 가지고 병화를 못쓰게 해요. 그러면 더더욱 출겠죠(경산).</p> <p>178. 재물이죠. 이것이 아주 길신 역할을 하고, 희신(喜神)역할을 하는데 신금이 와서 꼬여 가지고 제 역할을 못하면서 병신합해서 수(水)쪽으로 가니 흉신(凶神)으로 변해 버린 겁니다(만공).</p> <p>179. 뽕뽕 얼은 동지 첫달에 병화(丙火)가 무슨 힘이 있어(연화).</p> <p>180. 좋다가 말았죠. 41대 대운도 그나마 초년보다는 낫지만, 이때도 확 트이지는 못했을 겁니다(만공).</p> <p>181. 그 다음에 이 때보다는 낫지만, 이 때도 확</p>	<p>■ 51경오 대운: 화의 작용력은 강하나 축오원진, 자오충으로 원활하지 못한 형국임</p> <p>■ 61기사 대운: 사유축삼합으로 재성이 금국으로 변하여 흉함</p>	

개방코딩	축코딩	선택코딩
<p>트이지는 못했지요. 그 다음에도 천간(天干)에는 경금(庚金), 지지(地支)는 오화(午火)가 왔어요. 그런데 자오충(子午沖)을 당하네요(경산).</p> <p>182. 여기서 자수(子水)가 이깁니까? 오화(午火)가 이깁니까? 자수가 이깁니다(민경).</p> <p>183. 여기서 자수가 엄청 쎬요. 그러니까 오화가 길 신(吉神)이었는데, 제 역할을 못하는 겁니다(태인).</p> <p>184. 사화도 사유축(巳酉丑)으로 바뀌면서 일생에서 크게 피는 꽃을 못본다는 말이죠(만공).</p> <p>185. 재물에 해당하는 병화가 자수에 있으니 태지에 앉아 있으니 힘이 약하겠죠(명심).</p>		
<p>186. 도화잖아요. 자유직업도 괜찮고 돌아 다니는 직업이지. 물은 흘러 줘야지(태인).</p> <p>187. 여기서 인성(印星)이 많으니까 기획을 한다던지, 예능 쪽 아니면 화류계보다는 레크레이션 같은 그런 쪽 머리를 써서 뭔가 계획을 해 가지고 자기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할 수 있을 겁니다(경산).</p> <p>188. 극신강자는 수도 생활을 하면 딱 좋아요. 마음 공부하는게 좋아(연화).</p> <p>189. 편인(偏印)을 깔고 있는 사주는 이런 역학공부, 철학공부와도 인연이 있었어요(태인)</p> <p>190. 직업적 속성으로는 병화가 뭐예요. 하늘에서 내려다보는 것이죠. 그렇게 말을 할 수도 있구요. 또 술토하고 신금(辛金), 술토(戊土), 무토(戊土), 경신(庚辛金) 등 이런 속성은 일반적으로 스님이 되거나 그런 팔자를 말한다고는 합니다. 종교계통의 일과 관련지어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도 머리가 그러한 것들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경산).</p>	<p>바) 진로 및 직업 적성</p> <p>“수도 생활을 하면 딱 좋아요.”</p>	<p>■ 종교, 철학공부에 흥미, 적성이 있다.</p>

개방코딩	축코딩	선택코딩
<p>191. 요즘에는 뭔가를 바꿀 줄 안다. 내가 부동산에도 능합니다. 사고파는 것에도 능합니다. 꼭 부동산하면 땅만 생각하는데, 물건이고 움직이는 것에 능합니다(순형).</p> <p>192. 부동산을 하면 내가 주축이 되어서 하는 것이지요. 줄병도 있지만, 자기 위엔 아무도 없으니까 위에 별을 붙이고 있다가 내가 생각을 해서 부동산을 하면, 내가 주축이 되어서 해나가게 됩니다(순형).</p> <p>193. 직업을 볼 때, 우선 격국(格局)을 봅니다. 월지의 자(子)가 있지만 비견·겁재격은 없잖아요. 이 자체로 잡아야 하니까 격국이 상급은 아닙니다(만공).</p> <p>194. 여기서는 이렇게 잡아야죠. 다 금(金)이까 격국은 인성격(印星格)이 됩니다(성타).</p> <p>195. 그런데 격이라는 게 격(格)이 완전히 무너지잖아요(태인).</p> <p>196. 격이 상·중·하격으로 하면 뭐겠어요. 하격(下格)이야!(만공)</p> <p>197. 왜냐하면 월지(月支)에서 잡지를 못했고, 금이 있기는 한데 너무 많습시다(만공).</p> <p>198. 비견격으로는 격을 잡을 수 없어요(민경).</p> <p>199. 이것이 술토(戌土) 같으면 여기서 잡을 수 있겠죠(만공).</p> <p>200. 차오묘유(子午卯酉)가 아니더라도 술토(戌土)나 묘목(卯木)같으면 잡지요(만공).</p> <p>201. 자·오·묘·유인 경우는 힘이 있겠죠(태인).</p> <p>202. 여기서 해수(亥水)가 월지에 있으면 계수(癸水)는 힘이 있겠죠(민경).</p> <p>203. 그런데 비견·겁재인 경우는 없으니까. 그냥 격국으로 넘어 가는 겁니다(만공).</p> <p>204. 금이 너무 많고 개판이지요. 그래서 격국으로 직업을 잡으면 안 돼요(만공).</p> <p>205. 격국으로 잡는 것은 일반적으로 소질이 있는</p>	<p>■ 봉사하는 일에 적합하다.</p>	

개방코딩	축코딩	선택코딩
<p>분야를 말해요(만공).</p> <p>206. 용신은 내가 나가야 할 분야를 말합니다(민경).</p> <p>207. 이 사주에서 용신은 토(土)잖아요(태인).</p> <p>208. 화·토가 용, 희신인데, 토는 편관(偏官)으로서 용신 쪽으로 잡으면 용신은 관성이 됩니다(만공).</p> <p>209. 또 재성(財星)도 희신(喜神)이잖아요(민경).</p> <p>210. 그나마 중(中)에서 중하급(中下級)이야. 장사를 하든 자영업을 하든(만공).</p> <p>211. 어디 조그만 직장 생활을 하는게 좋지요. 근데 크게 되지는 못합니다(만공).</p> <p>212. 이 사주를 딱 보면 어디 한군데 정착해서 살기는 좀 힘이 들겠다. 그러면 재가 당연히 약할 것이고 그런 분들은 관(官)도 좀 약하니까 관이 좀 있다고 해도 튼실하지는 않으니 아주 좋은 직장에 가기에는 힘이 들겠다고 하지요(경산).</p> <p>213. 그래! 방랑생활 하면서 떠돌이예요. 물이 많으면 부랑자 사주잖아요(민경).</p> <p>214. 재(財)나 관(官)쪽이 용신인데 토(土)가 아까 하급(下級)으로 변해 버린 거지(만공).</p> <p>215. 동업도 안 됩니다. 절대 안되요. 동업하면 백전백패(百戰百敗)합니다(명심).</p> <p>216. 극신강자(極身强者)는 자기 밖에 몰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수도 생활을 하면 딱 좋아. 마음 공부하는게 좋아(연화).</p> <p>217. 그나마 할 수 있는게 화·토(火土)에서는 목(木)도 괜찮고, 목이 식상인데 세게 나갈 때는 예를들어, 연애, 문학계통, 식신, 상관, 제성 등의 일이 좋겠지요(만공).</p> <p>218. 이 분은 수(水)예요. 금생수(金生水)해서 수(水)가 많으면 어떤 끼도 많다는 겁니다. 예능적인 끼죠. 수의 기운이 좀 그런 기능이 있어</p>	<p>■ 도박중독자이며, 일명 ‘꾼’, ‘기술자’ 임. 현재는 경마도박을 주로 함.</p>	

개방코딩	축코딩	선택코딩
<p>요. 그러면 바람끼도 있고요. 쉽게 말하면 도박, 예술성, 서예, 그림 등 그런 것에는 흥미가 있어요(태인).</p> <p>219. 토(土)쪽에서 진로를 찾아야 되는데, 찾아 봐야 크게 되기는 힘들니다(만공).</p> <p>220. 물이 많으니까 불로 가기가 쉬워. 용신(用神)이고 뛰고를 떠나서 사주에 많은 것은 많은 걸로 가. 물이 많으면 물과 관계된 직업을 갖고, 금이 많으면 금속제품을 다루는 곳으로 가고. 완전히 가버리면서도 뭔가 투덜투덜 하면서 가지. 말하자면 특별 격국처럼 많은 쪽으로(연화).</p> <p>221. 기토(己土)가 축토(丑土) 위에 있고 뿌리를 박고 있어서 그리 약하지는 않은데, 물의 양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음~ 또, 겨울이다 보니까 약한 면이 좀 있네요(경산).</p> <p>222. 술해(戌亥) 공망이어서 이 사람은 도문의 학문과도 관련이 있어 보입니다. 이런 중년 이후 편인의 공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제 직업이나 명리학과도 관련됩니다(민경).</p> <p>223. 인성으로 볼 때 편인성(偏印星)인데 그것은 맞지가 않아요(만공).</p> <p>224. 격국은 직업·진로와 맞는다 했지요. 여기에 서 인성은 편인격이잖아요(만공).</p> <p>225. 종교계통의 일과 관련지어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도 머리가 그러한 것들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경산).</p> <p>226. 격국용신(格局用神)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관(官)이 용신이니까. 관이 살아 있어서 자식은 잘 된다고 봐야지요(태인).</p> <p>227. 그 쪽에 소질은 있기는 한데 거기서도 한계 다 이말입니다(만공).</p> <p>228. 사주에 금(金)이 많으면 자존심도 높고 잘난 척을 많이 해요(순형).</p>	<p>■ 현재 철학관을 운영중이다.</p>	

개방코딩	축코딩		선택코딩
<p>229. 물이 많으면 긴 병 알아보는 거야. 이것은 나중에 얼어 버리지. 피가 멈춰 버려! 그래서 이 사람은 땀도 빼질빼질 나오고, 피가 얼어 버린다구. 뽕뽕 얼은 동지 셋달에 병화(丙火)가 무슨 힘이 있어(연화).</p> <p>230. “정신적으로 아프다” 또, “신체적으로도 아프지.” 실제로 말이지요. 이 사람은 심장이 약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이고 “몸에 병이 들어 있다.”고 볼 수 있죠. 먼저 음(陰)하기 때문이에요(성타).</p> <p>231 사주가 음하면 계속 불안하고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고 종합적이야. 그래서 습한지 건조를 먼저 보는 겁니다(성타).</p> <p>232. 이 사람 눈 시력 괜찮아요?(태인)</p> <p>233. 겨울에 물은 춥거든요. 그래서 피계통에서 오는 병으로 혈액 순환이 잘 안 되요. 요로결석. 그런 방광이 좋지 않아요. 초겨울의 물은 차갑잖아요. 초겨울에 볼 때 우리 몸은 차갑고 피는 유통이 되어 하는데, 유통이 안 되니까 피 계통에서 오는 병을 조심해야 되요(태인).</p> <p>234. 효신살(梟神殺)이 자기 자리에 있으면, 나하고 부모 간에 나의 문제로 우울증 같은 부분으로 힘들지요(태인).</p> <p>235. 사주가 습하고 음하다(성타).</p> <p>236. 올해도 수족이 많이 안 좋아요. 이런 사람은 우리가 선천적인 불구도 있지만, 불구가 아니면 어깨, 허리, 관절염으로 고생을 한다고 해요(태인).</p>	<p>사)건강 “음한 곳에서 는 별 레 가 깍니다.”</p>	<p>■ 2017년 정유년: 심근경색으로 입원</p>	

1) 개방코딩 결과

도박중독자의 사주특성은 개방코딩을 통해 236개의 의미있는 내용을 추출하였다. 개방코딩의 내용은 표 VI- 3.과 같다.

2) 축코딩 결과

표 VI- 3.과 같이 축코딩으로 범주화한 내용은 가) 오행의 태과 불급(太過不級), 나) 용신(用神)의 작용, 다) 일주(日柱)의 성격 특성, 라) 육친(六親)과의 관계, 마) 대운(大運)의 향방, 바) 진로·적성, 사) 건강 등 7개의 영역이다.

가) 오행의 태과 불급: “수(水)일간에 금, 수(金水)가 많고 목(木)이 없다.”

“먼저 사주를 풀이해 볼게요. 유금(酉金)이 2개에다 신금(辛金)이 하나 편인(偏印), 편인, 또 편인이어서 물이 굉장히 많은 사주입니다.”(경산)

“계수(癸水) 일간(日干)인데, 금수(金水)가 태과(太過)합니다.”(명심)

“금은 인성이고 수는 비겁으로 금수가 많으니까 사주가 강합니다.”(만공)

“계수가 자월(子月)에 태어났으니까 건록(建錄)에 위치하고 있으니 강합니다.”(순형)

“아무래도 계수(癸水)라서 임수(壬水)보다는 그 양이 작겠죠. 또 인수가 3개씩 있으므로 물의 양이 작지만은 않을거예요. 그 물의 양에 비해서 관(官)이 약한 면은 있어요.”(경산)

“수(水) 일간 중심으로 목(木)이 없어요.”(연화)

“계수에게 목(木)은 식신(食神)과 상관(傷官)으로 식상이 없네요. 식상(食傷)은 먹을 복이며, 경제 능력이잖아요.”(태인)

“오행이 조화가 되는지를 살펴보면, 토(土)는 토생금(土生金), 금생수(金生水), 수생목(水生木) 이렇게 조화가 되는 건데, 이 사주는 금생수, 화생토는 되지만 조금 부조화스럽네요. 식상인 목이 강한 일간을 설기(洩氣)를 시켜야 하는데 말입니다. 그것이 병이네요. 소통이 필요해요.”(민경)

“식신, 상관이 목이잖아요! 이것이 부족하다는 거예요.”(태인)

“이 사주는 제일 좋은 것이 목생화(木生火), 화생토(火生土)로 되었을 때, 다행히 화생토는 되잖아요. 단지 목이 없어서 재물인 화(火)를 좀더 키워줄 수 있는 목(木)이 오면 좋겠지요. 수생목(水生木), 목생화가 되면 좋겠죠.”(민경)

“식신·상관은 생재(生財)를 해서 재성(財星)을 생하지요. 그런데 식상이 없으니까 또 경제 능력도 없다는 것입니다.”(만공)

“기토(己土)가 축토(丑土) 위에 있고 뿌리를 박고 있어서 그리 약하지는 않은데도, 물의 양이 워낙 많다 보니까. 또 겨울이니까 약한 면이 좀 있네요.”(경산)

“재성(財星)이 여기 위에서 거쳐할 곳이 없어요.”(성타)

“목의 기운이 없으니, 바로 강한 수(水)가 재성인 화(火)를 수극화(水克火)하고 있죠. 이 수(水)는 대단히 센 수입니다. 월지(月支)에 자수(子水)까지 있으니...(태인).

재(財)는 흙속에 매몰됐어. 흙속에 묻혀 버렸어요. 재성인 화의 기운이 약하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화생토로 관성을 돕지 못하는 것이지(만공).”

“재성의 뿌리가 목(木)인데 목인 식신, 상관이 없으니까 재(財)가 떠버렸지요. 수(水)로 모두 되버렸어요.”(경산)

“비견·겁재가 강하고 식신·상관이 없다. 그러면 대단히 고집이 세고 자기만 안다고 말할 수 있어요.”(연화)

“인성이 많아 일간이 신강하니까 좋은 말로는 몰입이고, 어떤 일을 하면 끝까지 집중하는 성향도 있겠죠.”(민경)

어쨌든 금수(金水)가 많아서 일간이 썩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태인)

나) 용신(用神)의 작용: “용신은 토(土)이다.”

“대단히 금수(金水)가 강하니까 용신은 토가 되어야죠. 왜냐하면 토극수(土剋水)를 해서 일간을 제어할 수 있으니까 토가 용신이 되겠지요.”(민경)

“길신(吉神)은 화(火)가 되지요. 용신이 있으면 화는 그냥 따라 가잖아요. 용신이 토다. 용신이 토인데 힘이 있느냐 없느냐를 봐야겠죠. 화생토, 화생토해서 용신은 힘은 있어요.”(만공)

“토극수(土剋水)로 관성(官星)은 강한 일간을 제어할 수 있는 성분인데, 일간이 워낙 강하니 약한 관성이 일간을 제어하기엔 역부족인 상황입니다.”(경산)

“용신이 이 정도면 중상급은 됩니다. 힘을 받고 있으니 말입니다. 화생토로 토도 또, 자축합(子丑合)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 토(土)는 토로서의 역할을 못하지요.”(만공)

“축토(丑土)는 토가 아니라, 사유축(巳酉丑)해서 금국(金局)으로 가버리잖아요.”(태인)

“자축합이 되어 자축합은 토 혹은 수(水)가 된다고 하지요. 그런데 여름의 자축합(子丑合)은 토가 되지만, 겨울의 자축합은 물이 됩니다. 여름 토에 물을 뿌리면 흙이 빨아들여요. 그럼 그건 토가 된다는 겁니다.”(만공)

“그런데, 겨울엔 퐁퐁 흙 위에 물은 그냥 얼어 버린다는 말이야. 그럼 그냥 물이 된다는 거야!”(연화)

“게다가 금국(金局)이 되지요. 그런데, 토는 토이지만, 토의 역할을 제대로 못해요.”(민경)

“그래서 용신이 기토(己土)지만은 이게 틀리는 경우가 많아요. 여기서 기토는 생해지는 역할을 못하지.”(만공)

“그럼 기신(忌神)은 금, 수가 되죠. 가뜰이나 금수가 태과한데 금, 수의 기운은 ‘설상가상(雪上加霜)’, ‘얹친 데 덮친 격’으로 일간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죠.”(민경)

“천간(天干)으로 목(木)이 올 때는 갑기합(甲己合)이 됩니다. 갑(甲)이 올 때와 을(乙)이 올 때가 틀려요.”(경산)

“일반적으로 불 때는 여기서 목이 오면, 계수(癸水)의 기운을 빨아들이지요.”(민경)

“네 맞아요. 그러니까 목이 원래 한신(閑神)인데 길신(吉神)의 역할을 한다구요. 지금 이 사주에서 목(木)은 길신쪽이 돼요.”(만공)

“정리하면, 사주의 중화를 위해 약(藥)이 되는 용신은 토(土), 용신을 돕는 희신(喜神)은 화(火), 흉신은 금(金)과 수(水), 나머지 한신이었던 목은 길신(吉神)인 거예요. 목은 식상의 기운으로서 식상이 생기면 자연적으로 인성(印星)은 식상을 극하는 현상이 벌어지니, 일간을 금생수로 돕기보다 먼저 식상을 제어하려고 신경을 써야 하므로 여러모로 일간의 강한 기운을 설기시키는 방법이 될 수 있는 겁니다.”(민경)

“아무튼 “용신은 토가 됩니다.”(순형)

다) 일주(日柱)의 성격 특성: “극신강자(極身强者)는 자기 밖에 몰라요.”

“성격을 볼 때 먼저 계수(癸水)인 일간(日干)을 봅니다. 물상론(物象論)으로 볼 때, 계수는 비구름과 같은 성정을 지녔죠. 이 물은 계곡의 물도 되고 비구름도 될 수 있는데, 비구름이 되면 구름만 되면 안 되고 밑으로 내려야 되잖아요. 또는 계곡물은 흘러가야 되잖아요. 수생목(水生木)을 해서 내려가고 흘러가야 하는데 목(木)이 없으니까 해줄 것이 없는 것이죠. 수(水)가 넘쳐서 자기가 할 일을 찾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초년에만 잠시 목이 왔어요. 특히 수(水) 일간은 목이 있어야 흐르지요. 임수(壬水)도 그렇지만 수의 기운은 유통이 되어야 합니다. 게다가 또 인성(印星)이 너무 많아요. 한군데도 아니고 이리 많으면 노력을 안하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거드름을 피우면서요. 이 사람은 어떤 성격이냐면, 계수(癸水)인데 자기가 썰요. 자기가 썰니까 거들먹 거리겠지요.”(민경)

“물은 흘러야 빠르지요. 그런데 몇 월에 태어났어요. 12월 9일이죠. 그나마 제주도에서 태어났으면 다행인데, 서울에서 태어났으면 얼었겠죠. 그나마 이게 자월(子月)이지만, 10월 초니까 어느 정도 수(水)가 수의 역할은 하겠지요. 그러니까 기토(己土)는 뭐죠? 무토(戊土)가 태산이면 기토(己土)는 밭입니다. 기토는 들판의 밭인데 거기에 계수(癸水)가 흘러가고 있지요. 그럼 상 계수(癸水)가 이렇게 흘러가는데, 갑목(甲木)이나 을목(乙木)이 같이 있어야 어울리잖아요. 밭이나 들판에 나무같은 것을 키워야 하는데, 목이 없으니까 이 계수의 역할이 없다는 겁니다.

다른 금·수, 화·토, 토·금 이런 것들은 식상(食傷)이 없어도 사는데, 유일하게 수(水)는 흘러야 되거든요. 그런데 인성이 이렇게 많으면, 이걸 인품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건방지고 아는 척, 똑똑한 척하면서 시건방을 떠는 겁니다. 이 사람은 극신강이면서도 식상이 없는 극신강입니다. 대단히 심하게 잘난 척하고 그러다 보니 일을 그르칠 경우가 많이 생기는 겁니다.”(만공)

“또 여기에 이걸 부모성이잖아요. 이렇게 인성이 많으면 무슨일이든 내가 스스로 움직이지 않아요. 사주가 뭐든지 물집되는 사주야. 음양오행(陰陽五行)이 골고루 있는 것이 풍파 없이 고루 살아요. 그리고 편관(偏官)이 기축(己丑) 이잖아요. 이 사람이 이것이 관인데 자축(子丑)으로 가버리잖아요. 관이 없잖아요. 관(官)이 수국(水局)으로 변해 버리거든요. 이게 굉장히 극도로 예민한 사람이야. 이 사람은 방랑생활을 하는 떠돌이예요. 물이 많으면 부랑자 사주잖아요. 만약에 인연이 온다면 수생목(水生木)으로 해서 물을 빼주니까 정착을 하지. 조금 앉아 있다가 묘(卯)가 오면, 또 정착을 해요. 인묘진(寅卯辰)으로 말이지. 그런데, 진년(辰年)이 오면 또 신자진(申子辰)으로 수국(水局)이 되니까 또 떠돌아 다녀. 이걸 부랑자 팔자야! 그리고 이 사람은 주체성이 없어. 왜냐하면 계속 차가운 물이고 내가 없어졌잖아요. 나는 한 방울의 물인데 바닷물로 가면 그냥 바다가 되버리는 것이지.”(연화)

“담유자가 물수변을 찍으면 술주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분은 술을, 음주를 즐길겁니다. 계유날 낚으니까 ‘음지를 즐긴다.’ ‘예술방면에 길하다.’ 음지를 즐기는 사람을 우리가 술(術)이나 예능 쪽으로 생각을 하지요. 음주 쪽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혼자 조용히 몰두도 할 줄 알아요.”(순형)

“이 분은 수(水)예요. 금생수(金生水)해서 수(水)가 많으면 어떤 끼도 많다는 겁니다. 예능적인 끼죠. 수의 기운이 좀 그런 기능이 있어요. 그러면 바람끼도 있구요. 쉽게 말하면 도박, 예술성, 서예, 그림 등 그런 것에는 흥미가 있어요. 단지 목이 없어서 이 화를 좀더 키워줄 수 있는 목이 오면 좋겠지요. 수생목, 목생화가 되면 말이지요. 이 분은 사회적으로 불평불만이 많으실 꺼예요. 물이라는 것은 얼어 있으면 쓰임새가 없는 물이에요. 물이란 우리가 농업용수로 쓰던지, 식수로 쓰던지 담수를 쓰던지. 일단 얼어 있으면 쓰지를 못하죠.”(경산)

“사주가 지극히 강한 극신강자(極身强者)는 자기 밖에 몰라요.”(연화)

“이 사람을 보면 인성이 많으니까 일간(日干)은 극신강(極身強)이 됩니다. 인성은 알다시피 학문, 인품 등 여러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 사주에 목이 있었다면 수생목(水生木), 목생화(木生火), 화생토(火生土)로 잘 흘러가는데 말이죠. 여자관계는 모성이 그리운 사람이에요. 연상의 여자와 인연이 있고, 어머니가 많다는 것은 이모 밑에 살던지 할머니 밑에 살던지 계모밑에서 살수있어요.”(명심)

라) 육친(六親)과의 관계

(1) 비겁(比劫): “경쟁자가 많으니까 꼬시는 사람이 많겠지?”

“첫 번째가 일단은 물로써 오행상 가치가 있어야 합니다. 두번째는 물을 쓰려면 물이 깨끗해야 되요. 그래서 오염된 물은 못 쓰니까요. 그런데 이 사주는 수량은 풍부한데, 결국은 흙탕물밖에는 안되거든요. 그러면 그 물 또한 못 쓰는 물인 겁니다.”(경산)

“비겁이 많아서 사과하나를 4쪽으로 나눠야 되잖아요. 사(巳)인 정재가 나 혼자 독차지하지 못하고, 경쟁자가 많으니까 꼬시는 사람이 많겠지. 돈과 관련해서요. 그러다 보면 그건 손재인 겁니다 사주(四柱)가 한쪽으로 편중되었으니 도둑놈이죠.”(명심)

“물이라는 것은 얼어 있으면 쓰임새가 없는 물이에요. 물이란 우리가 농업용수로 쓰던지, 식수로 쓰던지 담수를 쓰던지... 일단 얼어 있으면 못쓰는 것이죠. 성격이 조금 삐딱거리겠죠. 그것은 내가 극신강(極身強) 하잖아요. 금생수해서 수가 굉장히 왕하잖아요. 그럼 뭐야. 내가 신강하니까 나의 뜻은 크다고 봐야겠지요.”(경산)

이 사람은 주체성이 없어. 왜냐하면 계속 차가운 물이고 내가 없어졌잖아. 나는 한방울의 물인데 바닷물로 가면 그냥 바다가 되버리는 것이지. 이건 제자 팔자라고 해(연화).

(2) 식상(食傷): “꽉 막혀 풀리는 일이 없다.”

“단지 목이 없어서 이 화를 좀더 키워줄 수 있는 목이 오면 좋겠지요. 수생목, 목생화가 되면은 말이죠. 그리고 활력도 넘쳐요(경산).

“식신· 상관이 없으니깐 같 때가 없겠죠.”(태인)

“불행하게도 년지의 축(丑)의 지장간(地藏干)에 계신기(癸辛己), 월지의 자(子)도 임계(壬癸)로 지장간에 조차도 목(木)의 기운이 하나도 없네요. 인성이 많아요. 태과즉불급(太過卽不及)입니다. 많은 것은 오히려 없는 것과 같다고 합니다. 식상이 지장간(地藏干)에도 하나도 없어요.”(민경)

“꼭 막혀있어 풀리는 일이 없다”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성타)

“식상은 생재(生財) 활동이니까 경제활동인데, 이것을 도와 줄 목(木)이 하나쯤 이라도 있으면 좋을텐데 말이죠.”(만공)

(3) 재성(財星): “빛을 잃은 태양의 형상이다.”

“병화(丙火)가 힘이 없어 가지고 병화는 존재하지만, 지장간에도 뿌리를 박을 때도 없고 병화가 너무 약해요. 이 얼음물을 녹여 주기에는 좀 힘이 들고, 재(財)가 계수(癸水)의 옆에 있으니, 돈에 대한 욕심은 있어요.”(경산)

“재성(財星)인 병화(丙火)는 초겨울에 ‘빛을 잃은 태양의 형상’입니다. 여기서서는 강한 수(水)의 기운이 수극화(水克火)를 하니까 같 곳을 잃은 태양이겠지요. 사오미(巳午未)운이라든지 여자의 운이 온다고 해도 일시적으로 여자 기운이 들어올 수 있지만, 그 운이 온다고 해도 운이 가면 인연이 없는 형국입니다. 때문에 재성이 힘을 쓰지 못하니까 없는것과 다름이 없어요. 정재(正財)는 돈도 되고, 아내로 보기도 하잖아요. 어쨌든 좋지 않다. 이 사람은 이 사주 속에서 화(火)가 살 수가 없어요.”(성타)

“병화(丙火)가 재성(財星)인데 힘이 없는 병화니까 재물복도 없죠. 이 상황에서 재물이나 부인이 그렇게 썩 도와주는 상황은 못 되는 상황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태인)

“여기서 재물을 완전히 밟아 내리잖아요. 그리고 자오충(子午沖)으로 재물을 사정 없이 충(沖)을 해서 없어지죠. 화운(火運)이 여기서부터 오는데. 화운이 여기서 자오충이 되니 재물이 없어 버렸겠지요. 수(水)에 사유축하면서 재물이 변해 버리잖아요. 돈 인줄 알았는데 말입니다.

여기에 화운이 재성운이지만 전혀 도움이 안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을 한다고 해도 돈이 안되는 경우도 생길수 있어요.”(태인)

“병화(丙火)가 자수(子水)위에 있어 재살(災殺)이니 수옥살(囚獄殺)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정재는 교도소에 갇혀 움짱달짝은 하지도 못하는 형국으로 보입니다. 이는 교도소를 가거나 교도소에 갇힌 죄수처럼 몸이 아파 병원 신세를 지는 형국이 되겠죠. 재성인 배우자도 역할을 못합니다. 배우자 자리조차 흥신노릇을 하니깐요. 재물복이나 재물운이 없는데, 그나마 여기에 있으려고 하다가 그냥 망가진 겁니다. 변질이 되는 거예요. 그 정도의 군겁쟁재의 상황은 아니어도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병화(丙火)가 천간(天干)에 떠 있으나, 지지(地支)에 통근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병화(丙火) 자체가 아주 약한 사주입니다. 사유축(巴西丑) 금국(金局)이 되고, 금생수(金生水)해서 재물을 더 누르죠. ‘늘 재(財)를 탐(貪)하는 형상’입니다. 내 사주에 부족하니까 없는 오행을 자동적으로 채우려고 하겠죠.”(민경)

“더 시급한 것은 한 겨울에 병화(丙火)인 재(財)가 어디 뿌리를 박을 때가 없는 것입니다. 지지(地支)에도 없고 지장간(地藏干)에도 뿌리를 박을 때가 없습니다. 한 겨울의 물이라 병화는 약한데 일주(日柱)에 계수(癸水)가 병화를 극하니, 이것이 제일 시급하다고 봐야할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일단 병화는 겨울에 물을 녹여주는 역할은 해요.”(경산)

“수극화(水剋火)해서 돈을 쓰는 일만 하게 되는데, 주색잡기나 도박 등 잡기(雜技)에 능하겠지요.”(연화)

“40대, 50대까지도 화(火)의 기운은 볼 수가 없고, 병화(丙火)가 일간에게 정재이기도 해서 아버지와의 인연도 짧겠고, 배우자와도 관계가 좋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일간이 썩니까 돈을 잡아먹는 역할만 하겠죠. 군겁쟁재(群劫爭財)의 재성구조입니다. 어쨌든 재물복은 없습니다. 정재(正財)가 아주 극(剋)을 받고 있어요. 재성은 재물이고 사업이나 재성이 사업이나 돈과 같지요. 그런데 약해 보이네요.”(민경)

“대부분이 주색잡기(酒色雜技)처럼 노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탕진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아니면 돈을 빌려주고 받지도 못하는 상황도 될 수 있습니다.”(만공)

“어쨌거나 병화(丙火)는 수극화(水剋火)를 당해서 깜깜절벽에 불하나 떠있어 봐야 죽어. 수극화(水剋火)를 당해서요.”(연화)

“만일 화운(火運)이 오는데, 사주에 화가 없다면 군검쟁재의 재성구조입니다. 늑대들이 먹을 것이 털링 이거 하나거든요. 달려들어서 완전히 없어지게 만들겠죠. 재물이 들어오는 데로 잡아먹히는 형국이니까 게임은 끝나는 겁니다.”(만공)

“부인을 볼때 재성도 보고, 일지(日支)도 보고 또 용신도 봐야죠. 재성도 재성이지만 이 세가지 부분을 다 봐야 되는 겁니다. 배우자가 있기는 있다 이거지. 이 사람 부인이 있기는 있어요. 일지(日支)는 금(金)인데 흉신(凶神)이죠. 부인이 흉신역할을 하겠지요.”(만공)

(4) 관성(官星): “바지저고리를 입은 형국이다.”

“또 하나의 문제점은 화(火)가 들어 왔을 때, 기축(己丑)의 토(土)가 이 수량을 견뎌낼 수 있는냐는 것인데, 만약 견뎌 내지를 못한다면 결국 제방이 무너져. 이 사주의 주인공에게 제일 좋은것은 목생화(木生火), 화생토(火生土)로 되었을 때가 되면 좋아요. 그래도 화생토는 되잖아요.”(경산)

“그래도 관직은 이끌어 나가지 않겠어요?”(태인)

“관(官)이 년간의 천간(天干)에 떠 있으니까 ‘바지저고리를 입은 형국’이니 좋거든요.”(민경)

“계수(癸水) 일간에 토(土)는 관성(官星)이죠. 관성은 우리가 사회성, 직장, 직업 뭐 이런 것인데, 년지(年支)에 축토(丑土)가 있고 화생토(火生土)를 하니까 두각을 발휘할 수는 있겠습다.”(만공)

“천간(天干)에 떠있기때문에 최악은 아니더라도 힘이 조금 있기는 합니다.”(만공)

(5) 인성(印星): “가방끈이 짧다.”

“사주에 금(金)이 많으면 자존심도 높고 잘난 척을 많이 해요.”(순형)

“효신살(梟神殺)이 있어서 엄마와 인연이 없고, 엄마를 가슴 아프게 하는 일이 중년 이후에 생기니 부부 이혼 등도 예측 가능한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사주가 잘맞는 사람도 있지요. 아

버지는 도움이 되지만, 엄마하고는 맞지 않을 겁니다. 이젠 마마보이이거나 어머니 덕이 전혀 없거나 하겠지요.”(명심)

“이게 도박, 술, 여자야. 사주 구성이 다 암흑세계잖아. 다 도화잖아.”(연화)

“그리고 예민해요. 자유(子酉)과가 되니까요. 오히려 인성이 이렇게 많으면, 반대로 모친의 덕이 없을 수도 있어요. 효신살(梟神殺)은 엄마의 근심 자식로서 반드시 엄마가 두 분이야. 이런 사주는 모친의 덕이 없다고 봐야할 꺼예요.”(명심)

“우리가 막말로 인성을 가방끈이라고 말하지요. 글과 학문, 공부말입니다. 이게 너무 많아서 오히려 가방끈이 길지가 못하다 이겁니다. 공부와 인연이 없을 겁니다.”(연화)

“인성이 이리 많으면 인품(人品)이 결여됐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민경)

“게다가 자유 귀문관이야. 귀신이 왔다갔다 해. 기분도 등락폭이 커요. 계유(癸酉) 일주이고 편인이니까. 이 공부가 화개공부야. 공부가 도화, 도화, 도화잖아. 자유 귀문관이 만약에 잘못되어서 운에서 또 유(酉)를 만나면, 이때 신경쇠약에 걸리던지 정신과 치료를 받는다던지 하지.”(연화)

마) 대운(大運)의 향방: “일생에서 크게 피는 꽃(재물)을 못본다.”

“초년에는 흉신운(凶神運)으로 왔지요.”(순형)

“이 사람은 초년엔 고생을 했을 것 같아요. 전체적인 흐름으로 볼 때, 초년운인 30대 중반, 30대 말까지는 “고생을 많이 했다.”, “어려웠다.”라고 말을 할 수 있지요. 대운을 크게 보면 인생의 60년간은 금운(金運)과 화운(火運)으로 흐르지요. 21 계유(癸酉)대운, 31 임신(壬申)대운은 기신(忌神)인 금수(金水)가 태과합니다. 초년엔 고생했겠지요. 금수가 이리도 강한테 설상가상(雪上加霜)으로 또 금·수가 밀려오니까요.”(만공)

“41 대운(大運)부터 천간은 금(金)이 왔지만, 지지(地支)는 화운(火運)으로 왔지요. 대운을 보면 초년, 중년에는 상당히 좋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60세 이후에는 좋다가 말

왔다는 겁니다. 토(土)는 자기가 사업이나 직업, 혹은 자식으로도 봅니다. 관(官)이니까요.”(태인)

“41 신미(辛未) 대운부터 20년동안 재성(財星)인 화토운(火土運)이 왔어요. 그러나 애석한 것은 신금(辛金)이 오면서 병신합(丙辛合)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재가 묶여 버렸어요. 병신합(丙辛合)을 해서 재성인 화(火)가 수(水)가 되어 가지고 병화(丙火)를 못쓰게 해요. 그러면 더더욱 축겠죠.”(경산)

“41 신미(辛未) 대운에서 천간의 신금(辛金)이 병신합(丙辛合)을 하면서 재성(財星)인 병화(丙火)가 길신(吉神)인데, 길신의 역할을 못한 것이죠. 즉 병화가 재물인데, 재물에 대한 곡절이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초년엔 금수가 이리도 강한데 설상가상(雪上加霜)으로 또 금·수가 밀려 오니까 고생을 했을꺼예요. 그래도 서서히 41세 대운부터는 풀리기 시작했어요. 노년(老年)에 들어오면서 그래도 상승곡선을 탄거야! 이 사람은 초년엔 고생했지만, 노년에 들어오면서 그래도 상승곡선을 탄거예요. 자~ 박이 터졌어요. 그 다음 51 경오(庚午) 대운에서 천간은 경금(庚金) 지지도 오화(午火)가 왔죠. 불행하게도 자오충(子午冲)을 했지요. 자오충을 하니까 재물인 오화가 깨지잖아요.”(만공)

“51 경오(庚午) 대운은 지지로 오화(午火)가 왔죠. 여기서 월지(月支)의 자수(子水)와 오화(午火) 중 누가 이깁니까? 자수가 여기서 엄청 강해요. 그러니까 오화가 길신(吉神)이었는데 제 역할을 못합니다. 강한것을 건드리면 노하게 되요. “왕자충쇠쇠자발 쇠신추왕왕자발(旺者冲衰衰者拔) 이라고 적천수에 나와 있어요.”(민경).

“61 기사(己巳)대운에서 천간은 기토(己土), 지지는 사화(巳火)죠, 만약 이 사화가 오지 않고, 오화(午火)가 왔으면 참 좋았을 텐데, 사화가 아쉽게도 사유축(巳酉丑)으로 합(合)을 하여 금국(金局)으로 바뀌었잖아요. 흉신(凶神)으로 변해서 좋았다가 말았다는 거죠.”(성타)

“사(巳)대운이면 재운(財運)이네요. 사화(巳火)는 사유축 삼합(三合)으로 금이 되잖아요. 사유축합 금이 되면 이 돈이 들어와서 뭔가 하려고 하는데, 묶여 버린 거예요. 그래서 기신(忌神)인 인수로 변해버리잖아요. 노년에 가서는 그 대신 좋다 말았지만, 그런대로 막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경산)

“어쨌든 이게 사유축(巳酉丑)하면서 사화(巳火)는 이게 웬만하면 변하지 않는데, 여기서는
꽤까닥 가버렸어요. 여기에 경금(庚金)이 있잖아. 사(巳)는 지장간이 무경병(戊庚丙)으로 “갔다”
그 말입니다.”(만공)

“공공열은 동지 첫달에 병화(丙火)가 무슨 힘이 있어. 재물이 되냐구.”(연화)

“재물에 해당하는 병화(丙火)가 자수(子水) 위에 앉아 있으니까 태지(胎地)로서 힘이 약하겠
죠.”(명심).

“일생에서 크게 피는 꽃을 못 보는 겁니다.”(만공)

바) 진로 및 직업적성: “수도 생활을 하면 딱 좋아요.”

“이 사람은 수도 생활을 하면 딱 좋아요. 마음 공부를 하는 게 좋죠. 그리고 물이 많으니까
불로 가기가 쉬워요. 용신(用神)이고 뭐고를 떠나서 사주에 많은 것은 많은 걸로 갑니다. 물이
많으면 물과 관계된 직업을 갖고, 금이 많으면 금속제품을 다루는 곳으로 가고요. 완전히 가버
리면서도 뭔가 투덜투덜 하면서 가지요. 말하자면 특별 격국처럼 많은 쪽으로 갑니다.”(연화)

“내가 부동산 일을 하는데 능합니다. 사고파는 것에도 능합니다. 꼭 부동산하면 땅만 생각하
는데, 물건이고 움직이는 것에 능합니다. 밑에가 살이 장성살(將星殺)이 끼었어. 장성이라면 스타
별이라서, 별은 소령도 있고, 중령도 있고, 쫄병도 있지만, 부동산 일을하면 내가 주축이 되
어서 하는 것이지요. 자기 위엔 아무도 없으니까요. 위에 별을 붙이고 있다가 내가 부동산을
한다고 생각을 하면, 내가 주축이 되어서 해 나가게 됩니다.”(순형)

“여기서 인성(印星)이 많으니까 기획을 한다던지, 예능 쪽 아니면 화류계보다는 레크레이션
같은 그런 쪽 머리를 써서 뭔가 계획을 가지고 자기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할 수 있
을 겁니다. 직업적 속성으로는 병화가 뭐예요. 하늘에서 내려다 보는 것이죠. 그렇게 말을 할
수도 있고요. 또 신금(辛金), 숄토(戊土), 무토(戊土), 경신(庚辛金) 등 이런 속성은 일반적으로
스님이 되거나 그런 팔자를 말한다고는 합니다. 종교계통의 일과 관련지어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도 머리가 그러한 것들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주를 딱 보면 어디 한군데 정착해서
살기는 좀 힘이 들겠다. 그러면 재가 당연히 약할 것이고 그런 분들은 관도 좀 약하니까 관이
좀 있다고 해도 튼실하지는 않으니 아주 좋은 직장에 가기에는 힘이 들겠다고 하지요.”(경산).

“여기서는 이렇게 잡아야죠. 다 금(金)이까 격국은 인성격(印星格)이 됩니다.”(성타)

“격국으로 잡는 것은 일반적으로 소질이 있는 분야를 말해요. 용신은 내가 나가야 할 분야를 말합니다. 또 재성(財星)도 희신(喜神)이잖아요. 술해(戌亥) 공망이어서 이 사람은 도문(道門)의 학문과도 관련이 있어 보입니다. 이런 중년 이후 편인(偏印)의 공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제 역업이나 명리학 공부와도 관련됩니다.”(민경)

“인성(印星)이 도화(桃花)잖아요. 자유직업도 괜찮고 돌아다니는 직업이죠. 물은 흘러줘야 하니까요. 편인(偏印)을 깔고 있는 사주는 이런 역학공부, 철학공부하고도 인연이 있었어요. 이 사주에서 용신은 토(土)잖아요. 이 사주의 일간은 수(水)예요. 금생수(金生水)해서 수(水)가 많으면 어떤 끼도 많다는 겁니다. 예능적인 끼죠. 수의 기운이 좀 그런 기능이 있어요. 그러면 바람 끼도 있구요. 쉽게 말하면 도박, 예술성, 서예, 그림 등 그런 것에는 흥미가 있어요. 격국용신(格局用神)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관(官)이 용신이니까. 관이 살아 있는 것입니다.”(태인)

“직업을 볼 때, 우선 격국(格局)을 봅니다. 월지의 자(子)가 있지만 비견·겁재격은 없잖아요. 이 자체로 잡아야 하니까 격국이 상급은 아닙니다. 격이 하격(下格)인데, 비견·겁재인 경우는 없으니까. 그냥 격국으로 넘어 가는 겁니다. 금이 너무 많고 개관이지요. 그래서 격국으로 직업을 잡으면 안 돼요. 격국으로 잡는 것은 일반적으로 소질이 있는 분야를 말해요. 왜냐하면 월지(月支)에서 잡지를 못했고, 금(金)이 있기는 한데 너무 많습니다. 이것이 술토(戌土) 같으면 여기서 잡을 수 있겠죠. 자오묘유(子午卯酉)가 아니더라도 술토(戌土)나 묘목(卯木)같으면 잡지요. 화·토가 용, 희신인데, 토는 편관(偏官)으로서 용신쪽으로 잡으면 용신은 관성이 됩니다. 그나마 중(中)에서 중하급(中下級)입니다. 장사를 하던지 자영업을 하던지 말입니다. 어디 조그만 직장 생활을 하는게 좋지요. 그런데 크게 되지는 못합니다.”(만공)

“동업은 절대 안돼요. 동업하면 백전백패(百戰百敗)합니다.”(명심)

“재(財)나 관(官)쪽이 용신인데 토(土)가 하급(下級)으로 변해버린 것이지. 그나마 할 수 있는 것이 화·토(火土)에서는 목(木)도 괜찮고, 목이 식상인데 괜찮은 쪽으로 나갈 때는 예를 들어, 연애, 문학계통, 식신, 상관, 재성 등의 일이 좋겠지요. 토(土)쪽에서 진로를 찾아야 되는데, 찾아봐야 크게 되기는 힘듭니다. 그 쪽에 소질은 있기는 한데 거기서도 한계다 이말입니다.”

(만공)

“내가 계유(癸酉)일주로 유일(酉日)에 났으니, 여자 같으면 음수에 닭유를 붙이고 나면 ‘하늘이 놔둔 과부입니다.’ 당신은 남편하고 살더라도 주말 부부나 월말부부가 좋죠. 그러나 이 사주는 남자니까 ‘음지를 즐긴다.’, ‘예술방면에 길하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음지를 즐기는 사람을 우리가 술(術)이나 예능쪽으로 생각을 하지요. 음주 쪽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자 같으면 첩살이지요. 예술방면, 음주방면이니까, 첩살이를 하면 귀여움을 받습니다. 그런데 남자니까 그건 해당이 안되지요. 혼자 조용히 몰두도 할 줄 알아요.”(순형)

사) 건강: “음하고 습한 곳에서는 벌레가 끼는 법이지요.”

“첫째, 이 사람이 처음 왔을 때, 나는 ‘아프다’라고 먼저 말하지요. 제일 먼저 할 수 있다는 말이 “정신적으로 아프다” 또, ‘신체적으로도 아플 겁니다.’ 실제로 말이지요.”(성타)

“겨울에 물은 춥거든요. 그래서 피 계통에서 오는 병으로 요로결석, 방광 등 그런 쪽의 혈액순환이 잘 안되지요. 초겨울의 물은 차갑잖아요. 초겨울에 불 때 우리 몸은 차갑고 피는 유통이 되어 하는데, 유통이 안되니까 피계통에서 오는 병을 조심해야 되지요.”(태인)

“이 사람은 심장이 약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이고, “몸에 병이 들어 있다.”고 볼 수 있죠. 먼저 음(陰)하기 때문에, 구조 자체가 음하니까요. “음하고 습한 곳에서는 벌레가 끼는 법이지요.” 이것은 곧 자기만의 걱정거리가 있다고 해석할 수 있어요(성타).

“이 사람 눈 시력은 괜찮아요? 눈은 목(木)의 기운인데, 목이 없으니까요.”(태인)

“올해 정유년(丁酉年)이면 먼저 지지는 사유축을 하고 천간은 충(沖)이 되잖아요. 정계충(丁癸沖)이 먼저겠지요. 이 정화(丁火)가 그나마 살려 줄려고 하는데, 일간(日干)을 충(沖)하니까 목숨이 위험하지. 일간을 충할 때가 목숨이 위험해요. 이 사람에게 화(火)가 워낙 약한데, 정계충으로 도와주려다가 더 깨지잖아요. 그러면 누가 더 피해가 많나요. 정화가 더 피해가 많나요? 정화가 아니고 이 사람 사주에 불이 없잖아요. 그러면 심장마비니까 심장쪽이 터진다던지 무리가 온다는 거지. 그런 일이 오지. 그리고 올해는 년지(年支)가 사유축으로 조상과 합해서 조상이 데려갈 수 있어요. 정화가 꺼지면 심장이 꺼지겠지요.”(연화)

“효신살(梟神殺)이 자기 자리에 있으면, 나하고 부모간에 나의 문제로 ‘우울증’같은 부분으로 힘들지요.”(태인)

“사주가 음하면 계속 불안하고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고 종합적이야. 그래서 습한지 건조한지를 먼저 보는 겁니다.”(성타)

“일단 사주에 물이 많으면 긴 병을 알아보는 거야. 이것은 나중에 일어버리지. 피가 멈춰 버려! 그래서 이 사람은 땀도 빼질빼질 나오고, 피가 얼어 버린다고. 뽕뽕 얼은 동지 선달에 병화(丙火)가 무슨 힘이 있어.”(연화)

3) 도박중독자 사주의 핵심주제

선택코딩을 통해 재성이 약한 사주이며, 극신강한 사주구조임을 알 수 있었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재성이 약한 사주: ‘돈이 안된다.’

이 사주는 비견(比肩)· 겁재(劫財)가 강하고 식신· 상관이 없어요(태인). 그러면 대단히 고집이 세고 자기만 알고 식신· 상관의 수극화(水剋火) 하는데 이것이 재성이잖아요(연화). 이 뿌리가 목(木)인데 식신· 상관이니까 재가 떠버렸어요(경산). 수(水)로 모두 되 버려서(만공), 재성(財星)이 여기 위에서 거쳐할 곳이 없어요(성타). 수극화를 당하고 있잖아요(민경). 그런데 이 수(水)는 대단히 썩 수예요(만공). 월지(月支)도 있지만 금생수(金生水), 금생수해서 금수가 태과(太過)합니다(명심). 화(火)는 토기운이 강력한 토속에서 화생토(火生土)하여 설기당하고 있어요(태인). 흙속에 매몰 됐지요(만공). 흙속에 묻혀 버렸어요(만공). 사(巳) 대운이면 재운(財運)이네요(경산). 사화(巳火)는 사유축(巳酉丑) 삼합(三合)으로 금이 되잖아요(민경). 사유축(巳酉丑)으로 합(合)해서 금(金)이 되면 이 돈이 무언가 들어와서 뭔가 하려는데 묶어 버린거예요(경산). 재(財)가 말입니다(성타). 그래서 기신(忌神)인 인수로 변해 버리잖아요(만공). 그러면 일단 올해 정유년(丁酉年)에 왔으니까 ‘돈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경산).

이 사주는 목(木)이 없어서 이 화를 좀 더 키워줄 수 있는 목이 오면 좋을텐데요(민경). 목이 없기 때문에 여자와는 맞지를 않아요(성타). 초년에는 잠시 목운이 오긴 했

지만(민경), 재성인 화(火)는 강력한 토 속에서 화생토(火生土)하여 설기(洩氣)를 당하고 있어요(태인). 목생화(木生火)가 되어야 화가 살아날 텐데, 목이 죽어요(성타). 화인 재(財)가 토속에 매몰되어 죽어 있는 겁니다(만공). 말하자면 여자가 죽어 있는 거죠. 머릿속에는 돈과 여자 생각에 가득차 있다(성타). 그렇게 생각할 수 밖에 없는 거겠죠.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 왔어요(성타). 재성인 이 병화(丙火)가 근(根)이 없기 때문에 근을 항상 그리워하고 돈을 항상 필요로 하는 것이겠죠(민경). 목(木)은 여기서 한신(閑神)이 아니라 길신(吉神) 쪽입니다(만공). 목이 이 사주에서 어디 있어요(경산). 초년에만 잠시 목이 왔어요(민경). 그 이후에는 목 대운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병화가 살수가 없는 겁니다(태인). “돈이 안 된다.”이 말이에요(성타). 어쨌든 재물복은 없습니다(민경).

이 사람의 사주를 보았을 때 재성인 병화(丙火)가 천간(天干)에 떠 있으나, 지지(地支)에 통근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재성인 병화(丙火)는 매우 약하다고 봅니다(민경). 병화(丙火)는 이분에게 정재(正財)로서 재물이고 여자거든요(명심). 거기에 군겁쟁재(群劫爭財)로 나의 재물을 빼앗아 갈 사람이 득실거리고, 신강사주이므로 재성인 병화(丙火)는 꺼져버리는 형국이 되겠고요(만공). 전체적으로 볼 때, 병화(丙火)가 일간에게 정재이기도 해서 아버지와의 인연도 짧겠고, 배우자와도 관계가 좋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명심). 거기에 병화(丙火)가 자수(子水)위에 있어 재살(災殺)이니 수옥살(囚獄殺)에 해당한다(순형). 그러므로 정재는 교도소에 갇혀 움짱달짝은 하지도 못하는 형국으로 보입니다(연화). 이는 교도소를 가거나 교도소에 갇힌 죄수처럼 몸이 아파 병원 신세를 지는 형국이 되겠죠(민경). 이 내담자의 재물, 여자 돈에 해당하는 재성(財星)은 ‘초 겨울에 빛을 잃은 태양’의 형상으로 말할 수 있죠(성타).

나) 극신강의 사주: ‘늘 재(財)를 탐하는 형상’

인성이 많아서 일간이 극신강하니까 사과 하나를 네 쪽으로 나눠야 되잖아요(명심). 사주가 몰집되었어요(연화). 음양이 골고루 있어야 좋은데 말이죠(연화). 사(巳)인 정재를 나혼자 독차지하지 못하죠(만공). 경쟁자가 많으니까 꺾는 사람이 많겠지요(명심). 돈과 관련해서 손재인거죠(명심). 금(金)이 많으면 자존심도 높고 잘난 척을 많이 해요(순형). 인간으로 인한 손재를 의미합니다. “야! 돈 벌러 가자!”이게 도박일 수도 있겠죠?(명심).

초년에는 정재, 비견의 운이 들어서니 젊어서는 형제들때문에 집을 나간다고 말할 수 있지요(순형). 사유축(巴西丑) 금국(金局)으로 되고 금생수해서 더 누르조(경산). 그리고 자오충이 됐어요(연화). 그런데 만일 아까 화운이 올 때 만일 사주에 화가 없을 때 군겁쟁재는 화운이 올 때, 지금 동안 이 늑대들이 먹을 것이 이거 하나거든요(만공). 달려 들어서 완전히 없어지게 만드는데, 이젠 그래도 힘을 못 쓰니까 없는 것과 다름없지만, 천간(天干)에 떠 있기 때문에, 그런 형국까지는 아니더라도 조금은 힘이 있으니까 그 정도의 군겁쟁재의 상황은 아니어도 안 좋을 수 있다(민경).

화운(火運)이 여기서부터 오는데. 화운이 여기서 변해 버려요(연화). 이 화운은 자오충이 되어 없어 버렸겠죠(경산). 수에 사유축으로 삼합이 되면서 없어지잖아요(태인). 여기에 화운이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겁니다(만공). 어쨌든 군겁쟁재의 구조이고(민경), 끊임없이 대문간에서도 기토(己土)가 늘 화(火)인 재성(財星)과 목(木)인 식상(食傷), 즉 식상과 재성을 그리워하고 있기 때문에(성타), ‘늘 재(財)를 탐(貪)하는 형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민경).

4) 도박중독자 사주의 핵심주제 도출과정

명리상담가 8인의 심층인터뷰를 종합한 결과 근거이론을 통해서 도박중독자 사주의 핵심주제는 일주가 극신강자로서 재성이 약한 사주임을 알 수 있었다. 이는 군겁쟁재(群劫爭財)의 사주구조로 표현할 수 있다. 군겁쟁재는 마치 재물하나를 놓고 여러명의 비겁들이 재를 취하고자 하는 형상으로 말할 수 있다. 그림 VI - 1. 도박중독자 사주의 핵심주제 도출과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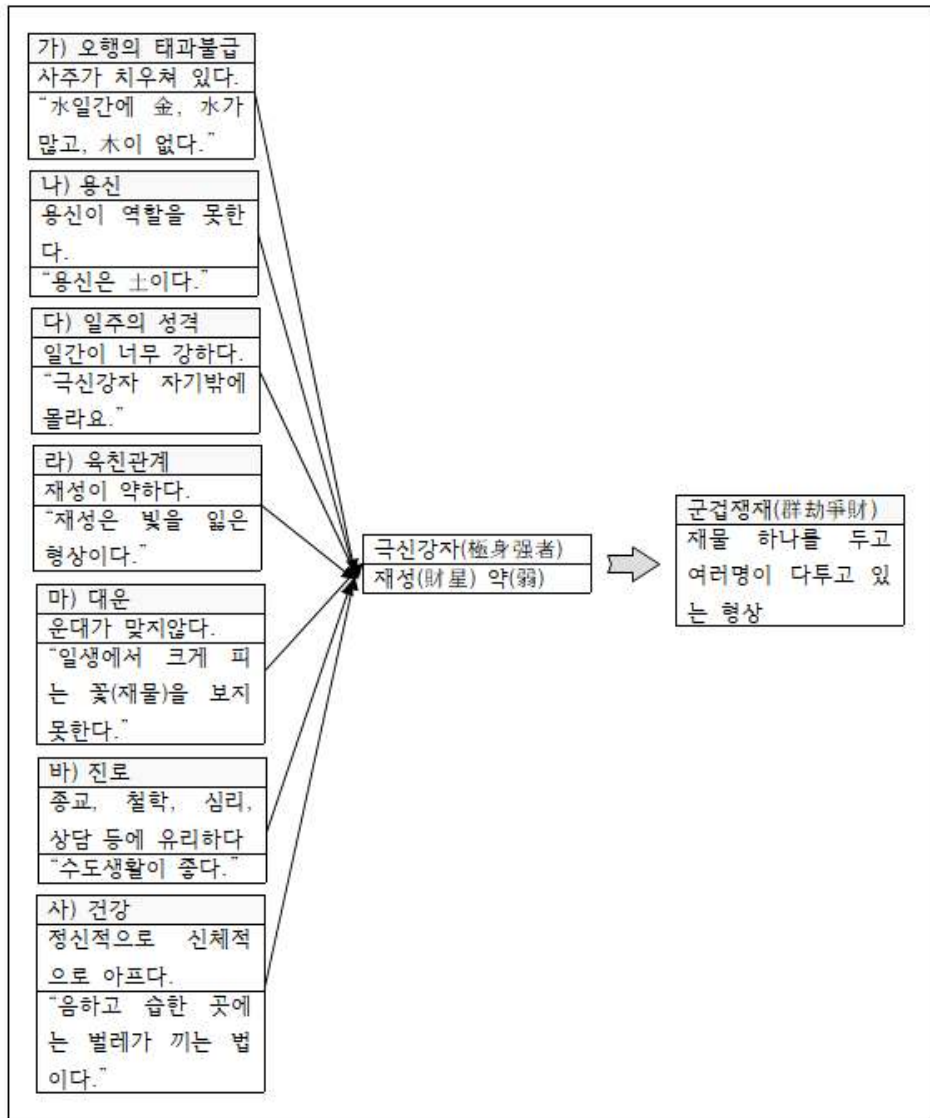


그림 VI- 1. 도박중독자 사주의 핵심주제 도출과정

위의 내용을 종합하면, 8인의 명리상담가들을 통해 명리사주분석 결과를 개방코딩, 축코딩, 선택코딩의 과정으로 내담자인 도박중독자가 현재 가장 힘들 수 있는 문제점을 추출할 수 있었다. 명리상담가들은 도박중독자의 사주를 보면서 이구동성(異口同聲) “극신강으로 재물의 별에 해당하는 재성이 매우 약한 사주구조다.”라고 언급하였다. 이를 쉽게 표현하면 ‘돈이 안된다.’, ‘늘 재(財)를 탐하는 형상’으로서 여러 육친 중 재성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명리상담시 상담자는 “내담자

가 여기에 왜 왔을까?”에 대한 답을 줄 수 있다. 즉, ‘핵심 던지기’가 가능한 것이다.

정리하면, 명리상담에서는 내담자가 가장 힘들어 하는 부분, 굵고 있는 부분부터 이야기를 시작한다. 우선 현실에서 부각된 가장 현안에 대해 상담의 화두를 제시할 수 있는 것이다. 예컨대 도박중독자인 경우 재물, 여자, 아내, 돈, 아버지에 해당하는 육친상의 기능이 힘들거나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왜냐하면 어떤 차원에서도 재성은 약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한 관계는 여러 양상으로 삶 속에 표출된다.

군겁쟁재 사주구조는 사주의 주인공인 일간은 강한데, 재성이 너무 약한 사주의 구조이다. 이러한 구조는 무슨 일을 하더라도 모양새를 따지고 무조건 뿔나게 사업체를 차려야 하므로 외면적인 부분에도 크게 신경쓰는 ‘폼생폼사형’의 스타일일 수 있다. 재물이 일간에 비해 약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사주의 중화를 맞추고 평형상태를 위해서 재물을 탐할 수 있다. 반대로 재다신약(財多身弱)의 사주구조는 재물은 많은데, 그것에 비하면 일간의 힘이 약한 사주의 구조이다. 이러한 사주의 구조라면 아무리 큰 돈이 들어온다고 한들 그 돈과 재물을 다룰 능력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의 재물로 지키기가 어렵다. 이러한 재다신약의 사주구조도 재물과는 인연이 없다. 이어서 재물 뿐만 아니라, 재성에 해당하는 육친의 속성들인 아버지 여자, 아내 등의 육친의 기능이 원활하지 못한 것이다(하은희, 2015). 나머지 구조는 일간의 힘도 약하고 재성도 없는 재성이 매우 약하거나 무재성(無財星)의 사주인 경우 재물과는 거리가 멀다.

재성은 재물외에 여자, 아내, 돈, 아버지 등 다른 육친적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육친들이 불편한 상황들은 없는지 상담과정에서 다룰 수 있어야만 한다. 예컨대, 상담자는 “재성이 약한데 아내와의 관계는 어떠신가요?”, “재물면에서 그 운기가 약한데, 최근 돈으로 인해 피해는 어떠셨나요?”, “아버지와 관련해서 지금까지 일이 잘 풀려왔다면 지금은 사업이 위축되거나, 축소하는 상황으로 고전하실 것 같은데 어떤 일들이 벌어졌나요?” 등 명리상담자는 내담자에게 단도직입적이면서 구체적으로 가장 약한 육친의 기능과 관련된 질문을 던질 수 있다. 그러나 기존의 철학관에서 하는 명리상담은 일반적으로 ‘폐쇄형 질문’을 하거나 숙명론적 결론을 짓는 답을 하게 된다. 단지 점을 보는 차원인 것이다. 그러나 인간의 심리는 복잡하고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르듯이 질문은 필요한 것이다. 내담자의 의식 혹은 무의식의 여러 부분을 탐색하기 위해서이다. 그러한 탐색은 폐쇄형의 질문보다 인간의 의지를 확장시킬 수 있는 오픈형의 질문이 내담자의 의지를 살피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만약, 이 시점에서 재성이 문제가 되어 명리상담 과정 중에 화두가 제시되었다고 가정해보자. 그것만으로 끝나면 그것은 단순한 내담자의 궁금증만을 푸는 행위이다. 그것으로 내담자가 상담에서 만족해 한다면, 비록 1회기 상담이어도 상담은 종결이다.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 우울이나 불안, 불면증, 심리적인 불편감을 호소한다면, 여기서부터는 서양의 상담 기술과 테크닉은 필수불가결한 요소가 된다. 내담자의 심리적 불편감을 일으키게 하는 요인들은 많다. 내담자의 자라온 환경에서 내담자가 가지고 있는 방어기제, 의사소통 방식, 핵심감정, 무의식의 여러 요인 등 어디서부터 그러한 심리적인 문제들이 발생하는지 우리는 물어보지 않고서는 알 수가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고들은 단순히 운명적 해석을 말해주는 상담의 차원을 넘어서 좀 더 깊이 있는 상담으로 들어 갈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재성에 대한 부분으로서 아내의 외도 문제로 고통을 받고 있는 남자 내담자가 있다고 가정을 해보자. 아내의 문제가 성장 배경상 그 내담자의 모친의 외도로 인해 부친과 이혼을 했다면, 이 내담자는 아마도 모친에 대한 분노와 적개심을 근본적으로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그러한 모친에 대해 그리움의 핵심감정을 갖는 내담자도 있다. 또한 그러한 가족사를 통해 나는 어떠한 시련이 와도 가정을 반드시 책임지고 건강하게 유지하고자 하는 내담자의 유형도 있을 수 있다. 그러한 와중에 아내의 외도는 가정을 유지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청천병력 같은 중대한 사건이 될 수도 있다. 그러한 개인의 가족사는 현실의 재성문제인 아내문제와 결합되어 마치 빙산의 일각처럼 외면상에 나타난 아내의 외도문제만으로 본다면 그것은 큰 오산이 될 수 있다. 외도문제 이면에 벌어질 수 있는 심리적 변수들을 우리는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부분이 기존 명리학을 바탕으로 하는 철학관 상담과 명리상담의 다른 점이다. 즉, 상담장면에서 ‘핵심 던지기’ 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인한 내담자의 감정(Feeling), 욕구(Desire), 바램(Want)을 읽어야만 하는 이유이다.

2. 명리상담가들의 ‘핵심 던지기’기술에 대한 견해

질적 연구방법으로서 내러티브 연구는 “자료가 스스로 말하게 하라”고 주장하며, 거기서 나온 자료들은 개인의 인생이야기 속에 담겨있는 그 사람의 정체성의 기반에 놓여 있던 사회적이고 문화적인 상황으로 우리의 시야를 확대시킬 수 있다고 하였다(김영천 2016). 여기서는 명리상담자 8인의 인터뷰 내용 중 실제담을 대화형식을 바탕으로 각색하였다. 명리상담가들의 ‘핵심 던지기’기술에 대한 견해를 듣고자 하였다.

리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장에서는 여러분들의 상담방식을 통해 명리상담에서만 볼 수 있는 상담기술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고, 명리학을 공부한 도반으로서 함께 생각하는 시간으로서 여러분들을 한 자리에 모셨습니다. 여기서는 한 내담자의 사주를 통해 여러분이 명리상담자로서 느끼는 느낌, 감정, 생각 등을 비롯하여 상담을 어떤 식으로 이끌어 나가는지 허심탄회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자리는 명리학 공부의 깊이를 따지거나 능력을 평가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다만 ‘명리학 기반 한국형 단기상담’을 위한 모형을 제안하기 위한 것이니, 진솔한 마음으로 참여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곳은 잘잘못을 따지는 곳은 아니니 다른 분들의 의견을 잘 경청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 어느 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경산: 일단 연세가 계시는데요. 뭐 사(巳) 대운이면 재운(財運)이네요. 사화(巳火)는 사유축(巳酉丑) 삼합(三合)으로 금이 되잖아요. 사유축합 금이 되면 이 돈이 무언가 들어와서 뭔가 하려는데 묶여 버린거예요. 재(財)가 말입니다. 그래서 기신(忌神)인 인수로 변해 버리잖아요. 그러면 일단 올해 정유년(丁酉年)에 왔으니까 ‘돈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리더: 경산은 이 사주의 일간이 현재 ‘돈 문제’가 있을 것이란 말군요

성타: 그렇지. 재물상의 문제는 있지요. “습한 곳에서는 벌레가 생깁니다.”라고 말해요. 금, 수(金水)가 태과(太過)하잖아요. 재물은 화(火)인데 말이죠. 나는 음양이 조화로

운지를 봅니다. 조후(調喉)가 일단 맞지 않아요.

리더: 아~ 그렇군요. 성타는 사주의 조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군요. “습한 곳에서는 벌레가 생긴다.”고 굉장히 우문현답식으로 말씀해 주시는 것이 인상적입니다. 내담자인 경우 그러한 내용을 이해할 수 있을지 수준 높은 내담자가 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만, 보다 임팩트 있는 답변 같습니다. 쉽게 설명이 가능한 분은 없나요?

만공: 처음 사주를 볼 때 뭘 보느냐? 오행의 유무를 보자구요. 일간을 중심으로 목(木)이 없다. 여기서 목은 식신·상관이지. 목이 없으니 식상은 없어요. 우선 육친중에 없는 것을 보았지만, 이번에는 조금 많은 것을 본다 이거지. 없는 것도 있지만. 많은 것은... 금수가 태과하지. 금수가 태과(太過)하다. 여기서 인성은 금이지. 금은 인성이고 수는 비견·겁재지. 이것으로 볼 때, 사주가 강합니다.

오행의 과급을 보고 두 번째는 조화가 되는지를 봅니다. 그런데 조화는 이리보면 토는 토생금(土生金), 금생수(金生水), 수생목(水生木) 이렇게 조화가 되는 것인데, 요건 이것은 금생수, 화생토지만 조금 부조화스럽지요. 일단 전체적으로 그림을 볼 때, 금수(金水)가 많아서 일간이 대단히 세다! 목이 없으니까. 목은 식신, 상관으로서 남자 사주의 식신·상관은 그 자체로는 먹을 복을 말해요. 목이 먹을 복이잖아. 그 다음에 예술성 또 하나는 관을 통제하는 능력이야. 왜냐하면 식신·상관이 목이잖아요. 이것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또 경제능력도 없고. 식신·상관은 생재(生財)를 하잖아. 재성을 생하지.

리더: 아~ 그렇군요. 만공은 꼼꼼하게 사주를 분석하시는군요. 아직 더 말씀하셔야 되는 거죠? 시간상 핵심을 말해 주실 수는 없을까요? 만공은 사주분석을 할 것이 더 있는가 봅니다. 더 말씀하시겠습니까?

민경: 리더님! 진행상 시간에 제약이 있는 것은 알지만, 너무 재촉하시는 것은 아닌가요? 그래도 끝까지 이야기를 들어 보셨으면 합니다. 상담을 할 때 가끔 내담자가 말이 많거나 질질 늘여서 말을 하는 내담자가 있기는 하거든요. 그것은 나름 그 사람의

내면의 문제와도 연결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속이 터질 때도 있지만 참고 듣다 보면 내담자를 이해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더라고요. 만공은 참 차분하고 완벽함을 추구하는 분으로 느껴집니다. 더 듣고 싶네요.

만공: 우선 용신은 대단히 금수가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용신은 토가 되어야지. 왜? 토극수(土剋水)니까. 토가 되는데, 길신(吉神)은 화(火)지요. 화가 되죠. 용신이 있으면 화는 그냥 따라가지요. 다행히 토는 여기 있어요. 그러므로 용신이 토다. 용신이 토인데 힘이 있느냐 없느냐를 봐야죠. 토는 화생토해서 용신은 힘이 있어요. 그래 용신이 이 정도면 저 위치에서는 중상급은 되요. 힘을 받고 있으니까 말이야. 화생토로서 토가 되지요. 토(土)도 자축합(子丑合)하여 토 혹은 수(水)가 되잖아요. 그런데 여름의 자축합은 토가 되요. 그러나 겨울의 자축합은 물이 됩니다. 여기서 토는 토로서의 역할을 못하지요. 왜냐하면, 축토(丑土)는 토가 아니라, 사유축(巳酉丑)해서 금국(金局)으로 가버리잖아요. 그리고 자축합이 되어 토 혹은 수(水)가 되겠지요. 그런데 여름의 자축합(子丑合)은 토가 되요. 그러나 겨울의 자축합은 물이 됩니다. 여름 토에 물을 뿌리면 흙이 빨아들이고 먹어 버리지요. 그럼 그건 토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겨울 흙 위에 물은 그냥 뽕뽕 얼어 버려요. 그러면 그것은 그냥 물이 된다는 원리입니다. 게다가 금국(金局)이 되지. 토의 역할을 제대로 못해요. 그래서 용신이 기토(己土)지만 여기서 기토는 생하는 역할을 못합니다. 그럼 기신(忌神)은 뭘까요? 일반적으로 볼 때, 여기서 목이 오면, 계수(癸水)의 기운을 빨아들이지요. 그러니까 목이 원래 한신(閑神)인데 길신(吉神)의 역할을 한다구요.

리더: 네 고생하셨습니다. 만공도 길게 표현하셨지만, 용신(用神)과 격국(格局)을 위주로 명리사주분석을 해도 경산과 비슷한 결과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결국 재성(財成)이 사주원국에서도 약하고, 대운(大運)에서도 비록 화인 재성운이 오지만, 지지(地支)의 여러 글자들과 합(合)도 되고, 충(沖)도 되면서 재물로서 들어오기가 힘이 들 것이라는 말로 이해가 됩니다. 맞습니까?

태인: 이 사람 시력은 괜찮아요? 세 분의 어머니, 혹은 아버지나 어머니가 재혼을 해도 두 분으로 보거든요. 세 분의 어머니를 보는데, 절대 객사는 안해요. 많이 돌아

다녀야 하구. 또 도화잖아요. 자유직업도 괜찮고 돌아다니는 직업이죠. 물은 흘러줘야 한다구요. 그래야 불치병이 안 걸려요. 목화운(木火運)이 오긴 오는데, 자오충(子午沖) 하네요. 이런 경우에 재물을 받쳐 주는 것이 없잖아요. 다 새나가요. 이럴 때는 연상의 여자와 인연이 있어요. 배우자인 여자가 시력이 좋지 않을 수도 있고요. 월주(月柱)를 보면 재성이 병(病)에 앓아 있잖아요. 만약, 그 재성이 도화를 깔고 있으면, 두번 째 여자가 인연이 될 수 있지요.

그리고 예민해요. 이게 언제냐면 20- 30대에 말입니다. 여기 자유(子酉)파가 되고 효신살(梟神殺)이 자기 자리에 있으면, 나하고 부모간에 나의 문제로 인해 우울증 같은 부분으로 힘들 수 있어요. 목화운(木火運)이 와야 하는데 말이예요. 다행히 화(火)운이 대운에서 오기는 하는데, 말년에 사(巳)운은 사유축(巳酉丑)해서 오히려 금국(金局)으로 가네요. 연하(年下)의 여자와 살았으면, 무조건 두 번 결혼을 하거든요. 아니면 한번 갔던 여자와 인연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런데 자유파(子酉破) 하나까 굉장히 예민해요. 또 무슨 생각을 하는지 말을 안해서 아무도 몰라요. 표현을 해도 거의 10% 밖에 이야기를 안해서 아무도 모르죠. 이 사람 입장에서는 말을 안 한다고 하지 않죠. 금전적인 부분은 힘이 있어요. 지킬 힘은 있죠. 그런데 뭐가 잘 되는 것은 아니지만, 재물을 지킬 힘은 없지 않아요. 사주가 약하면 지킬 힘이 없지만 그래도 강하니까 지킬 수는 있지요. 사유축(巳酉丑) 금(金)으로 문서운은 계속 오네요. 올해도 수족이 많이 안 좋아요. 이런 사람은 우리가 선천적인 불구도 있지만, 불구가 아니면 어깨, 허리, 관절염으로 고생을 한다고 해요. 격국용신(格局用神)은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관(官)이 용신이니까. 관이 살아 있어서 자식은 잘 된다고 봐야지요.

리더: 네. 태인은 내담자가 연세가 있으셔서 그런지 건강을 위주로 말씀해 주시네요. 부모관계, 그리고 부부관계에 관심이 있으시군요. 이렇게 듣다 보니 사주분석을 하면서 여러모로 내담자를 이해할 수 있는 도구인 ‘툭’이 많은 것 같습니다. 성격·성향이나 재물운, 부모, 형제 관계, 진로, 건강 등 다양하게 느껴집니다. 다른 쪽으로 분석이 가능하신 분은 없나요? 네. 순형님 말씀하십시오.

민경: 죄송합니다. 중간에 끼어 든 것 같은데, 태인의 사주분석을 듣다 보니까, 명리

상담자들도 자기가 관심이 많은 영역부터 해석을 하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서양 상담자들도 부부문제, 이혼, 자식이 문제가 된 경우, 원가족과의 문제 등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담공부를 시작한 분도 주변에 많거든요. 그러다 보면 자신의 문제를 통찰하고 자기이해를 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그 방면에는 전문가가 되더라구요. 제 사실이 길었네요. 순형 말씀하시죠.

순형: 그냥 순서대로 이야기하면, 내가 사주가 나와서 완성된 것을 볼 때 제일 처음에 일간(日干)을 봐요. 우리가 옛 말에 “엄마가 날 낳아서 왜 고생시키려고?”라고 하듯이 난 날의 하늘은 나요, 땅은 부인이 됩니다. 계유(癸酉) 날 낳았네요. 우리가 이것은 아버지 궁, 어머니 궁, 부부 궁, 자식 궁이라 하는데, 자식 궁이라는 것은 우리가 자식이 잘 되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자식이 장성해서 애 낳고, 나하고 자식과의 관계를 말합니다.

그런데 사주에서 나라는 일간이 있습니다. 난 해부터 난 시(時)가 완성되는데, 우리가 이제 다가올 운에 ‘병(病)’이라는 것은 요즘에 병하면, 병원이라는 뜻인데 병이라면 무얼 연상해요. 우리가 병을 앓면 짜낸다. 찢라내면 된다. 약 먹으면 좋아진다. 그러니까. “병은 아파 죽는다.”라고 했지만, 요즘에는 뭔가를 바꿀 줄 안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나이로 따지면, 51세- 61세 대운에 살고 있어요. 현재 이 분이 68세니까요.

내가 어떻게 살아왔느냐? 이것은 십신(十神), 육친(六親)으로 정재(正財), 비견(比肩)이 되서(참고 자료를 보면서) 정재, 비견이면 젊어서 형제들 때문에 집을 나간다. 나 때문이 아니고, 내가 주위에 보시를 많이 하고 살았다. 그래서 내가 돈을 빌려 오는 것은 실패요, 내가 내주는 것도 좋은 일이 없다. 즉 내가 어릴 때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왜 가난했냐면 그때는 머리 속을 먼저 읽어야겠지요. 내가 운에서 이롭니다. 내가 밑에서 땅에서 움직이는 데서는 육해살(六害殺)로, 살(殺)중에 가장 안 좋은 살입니다. 나를 굶어 내리는 것, 불신이 많다는 것은 내가 인덕이 없고 돈이 나간다. 내가 가난하게 살았는데, 나야 크게 돈을 벌라고 애를 썼지만, 내 발이 내 행동이 맞추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 내가 사는 것을 바꿔 가지고 내가 ‘병’으로서 부동산 같은 것을 하면 좋았을 텐데... 내가 덕을 못 볼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큰 부동산을 팔고사는 사업을 하면 내가 주인으로 돈을 벌었을 텐데, 그저 그랬습니다. 내가 이제 요단강

을 건너갈 때, 이제 나이가 60이 되 가면 내가 편인(偏印)에 편인이니까, 앞으로는 어떻게 끝까지 갈 것인지, 내가 어릴 때 한쪽 부모가 없는 것처럼 고생을 했듯이 내가 그렇게 충족하질 못했습니다. 내가 어릴 때, 부모가 없어서 내가 내적인 일, 집안적인 일에는 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부자가 못되고 있습니다.

그러한데 땅에서도 병에 ‘장성살’으로 오니까, 내가 무엇을 해도 팔고 사는 일을 크게 했어야 하는데 그것이 안 되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상대방에게 이야기를 하면 상대방이 “뭐를 해도 안 되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당신이 타고 난 것, 즉 용신은 편관(偏官)이다. 편관 용신이 되어 있으니, 편관 용신을 가진 사람은 리더쉽이 강하고 권모술수를 쓸 줄 아는 사람이다. 그런 것을 타고 났기 때문에 권모술수가 있다. 리더쉽도 강한 사람이기 때문에 혼자서 일을 못해서 뭔가 꿈만 크지, 행동을 못해서 젊었을 때는 누가 무시하고 알아주지 않았고, 중간부터는 내가 스스로 나가야 된다는 생각뿐, 상대방을 속일 줄만 알았지 스스로 해본 적이 없어요.

이 지장간 가지고는 크게 논하지를 않아요. 지장간은 우리가 지장간이 잘 받춰져야 좋다고 배웠는데 상담실에 오는 사람들이 이야기 하는 걸 들어보면, 지장간에 내가 만약에 수(水)가 없다. 만약 여기에 금, 토가 다 있으니 말하기가 뭐합니다. 여기 내가 없는 것이 있어요. 예를 들어, 내가 관(官)이 없어요. 여자에게 관(官)은 남편이나 직업으로 보고요. 식신이 없으면 자식복을 다루기가 어렵다고 말할 수 있지요. 여기 지장간중에서 여기(餘氣)가 있잖아요. 지장간에서도 여기에 붙으면 잠깐있다 지나가요. 만약, 나에게 계수(癸水)가 관인테 지장간에만 있으면, 우리가 땅 속에서 깨야 한다. 그 말은 내가 노력을 해야 된다. 내가 관이 부족하기 때문에 신량이 나타나지 않을 때, “내가 노력을 해야 잠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지장간을 해석해요. 난 내 방식으로 말을 해요. 그런 식으로 말하고 지장간에서도 여기에 붙어 있으면 좀 그렇고, 중기에 붙어 있으면, “노력을 하면 결과가 금방 있을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깊은 노력을 하라는 것은 사주팔자에 없는 글자를 설명할 때 그렇게 말해요. 사주팔자 중 지장간에도 없는 것은 “자식이 없다.” 그렇게 하면 자신을 하게 되고, 자식이 상당히 귀하겠다. 그 말은 “자식에게 상당히 신경을 써라.” 요즘에는 현대의학이 발달되어서 병원에 가봐라. 지장간은 그렇게 이용해서 쓰고 있지요.

우리가 배울 때 살(殺)들이 있잖아요. 여자가 합(合)이 많으면 안 좋다고 했어요. 사

람이 뭐 안 좋아진다고 했는데, 그렇게 함을 생각하지 말고 함하고 충(沖)이 있잖아요. 충이 더 많이 붙어있는 사람은 세상을 복잡하게 살았구나! 하는 것이고 뭐 안 좋은 일을 했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요. 이런 식으로 사주분석을 하면, 30-40분이 넘어가는 거라. 그런데, 손님들이 “나는 무엇을 보러왔다.”고 먼저 말을 해요.

이것은 올해가 병신년이잖아요. 운하고 사람하고 분리되기 때문에, 먼저 ‘욕(慾)’을 봅시다. 욕이라는 것은 “내가 목욕할 때 하듯 옷을 벗는다, 속이 핑크색이다, 사랑이 핑크색이다, 꿈 안에 사랑이다.”라고 말합니다. 우선, ‘겁살(劫殺)’, 이것은 삼재살이라고 해요. 삼재(三災)는 12년만에 한번 오는데, 1년은 12달이거나, 작은 삼재가 붙는 거예요. 겁살, 삼재살, 천살(天殺)이죠. 그렇게 하니깐 요게 사랑을 품어 안는데 겁살은 내가 좋은지 아닌지 확률적으로 50%의 확률이라는 겁니다. 건져 내지 못하느냐? 그것은 당신의 노력에 따라 다르다고 말해주죠. 그것은 그렇게 따지고 ‘생(生)’에 ‘재살(災殺)’이다. 내가 축하를 받는데 재살은 관재살이기 때문에 “영창을 갑니다.”라고 말을 하지요. 나쁘게 말하면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축하를 받고 영창을 갈 일이 있다. 문서를 받아야지. ‘재살’은 문서살인데 나는 문서로 봅시다. 위에서 좋으면 밑에가 ‘사(死)’니까 재살이 붙으면 “이건 파출소에 끌려갈 일이 있으니까 좀 걱정된다.”라고 말하죠. 이런 말을 하면 여기 유흥업소 다니는 분들은 기겁을 합니다. 단속이 나올 줄 알고요. 만약, 운이 좋으면 밑에 살은 따르라고 되어 있거든요. 내가 좋은 기(氣)가 오는데 밑에서 나쁘면 말입니다.

‘양(養)’에 ‘천살(天殺)’을 보면, 이 천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종교살이라고 해요. 종교살은 우리가 어떻게 푸느냐? 내가 생각해 낸 거예요. 종교라는 것은 가장 바르게 하는 것이 종교인데, 불교 다니는 사람은 나무아미타불을 하면서 절간 음식을 놓고 수없이 절하는 것이죠. “나 도둑놈 되게 해달라고 절을 합니까?” 어떤 복을 빌려고 절을 하지요. 교회에 가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가까이 가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살을 일명 종교살이라고 말해요. 우리 역학에서 그것은 내가 바른 생활하고 나가라. 내가 약하지 말고 강하게 내 일을 하면서 바른생활을 하면, 복이 온다고 하여 ‘복삼재’라고 말합니다. 중삼재 위에 축하를 받을 일을 3월, 4월, 5월이 되면 ‘지살(地殺)’이 오는데, 지살은 내 발로 직접 뛰라는 의미입니다. 5월에 이렇게 지살이 왔는데, 이것을 발로 생각하면 되지요. 5월에는 비등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내가 뭔가를 지고 노는데, 발 빠른 지살이 움직이라고 했으니까 ‘내가 빨리 서둘러라!!’ 그런 말입니다.

6월에는 내가 일을 크게 이루는데 ‘도화살(桃花殺)’로서 ‘육’, 혹은 ‘년살(年殺)’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사랑살이므로 사랑을 하는 운이라는 의미입니다. 만약, 여자가 년살을 만나면 도화살이라고 하지 말고, 내가 주위에서 나를 다 좋다고 한다. 내가 향기를 날릴 줄 안다. 그렇니까 내가 뭔가 사랑을 품어 안아라. 끌고 나가라. 그렇게 되면 8월이 되면 ‘사(死)’에 ‘망신살(亡身殺)’이 붙어요. 망신이 붙으면 사는 죽을 사인데, 이것이 죽는 것이 아니고 내가 바닥을 쳤다. 이 말은 우리가 바닥을 치면 어떻게 되나요? 바닥을 치면 올라가죠. 그러니까 지금은 최악의 상태를 말한다. 그러니까 너무 낙심하지 말고 올라갈 준비를 해라.

올라가는데 밑에가 망신이 붙으면 무속인들은 이런 쪽의 표현은 잠자리, 연애에 걸리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망신의 망은 잃어버릴 망자거든요. 우리가 망신이라는 것은 삼 더하기 삼은 육이 되어야 하듯이 여섯 발자국을 걸어서 건너야 되는데, 급한 마음에 두 발짝, 세 발짝 걸어가면 내가 2-3개를 손해 보는 상황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망신이라 해요. 꼭 남자가 실수해서 큰 각자에게 걸려서 매맞게 되는 일을 망신살이라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즉, 망신살이 오면 내가 서두르지 말고 대처를 잘하라는 뜻입니다.

만약, 올해 같으면 지금이 12월이니까. 정인하고 비견이죠. 내 육체와 내 일은 순탄한데, 형제나 타인을 도울 일이 생길 것이다. 그런데 타인을 돌봐도 큰 이익이 없다. 즉, 내가 크게 이루고자 하는데, 대망은 큰데 밑에는 ‘육해살(六害殺)’이니까 반대하는 살이죠. 그러니까 밑에 것들이 나를 끌어 내리니까 그 의미는 나를 도와주지 않고 좋은 일이 없다는 말입니다. 이익이 적은 것이죠. 순탄히 내 일을 이루려고 하는데, 내가 행함에 있어서 육해살(六害殺)이 있기 때문에 누구를 돕는 일에서 큰 이득은 없다는 말입니다.

리더: 와우. 민경에게 한소리 들을까봐 인내심을 가지고 잘 경청했습니다. 민경 잘했나요?(하하~) 길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이럴거란 말예요. “난 집을 팔러 왔어요.”, “남편이 바람을 피우는지 물으러 왔어요.” 등 이런 식으로 문제를 처음엔 얘기하지 않나요? 그럴 때는 그 부분만 이야기해줘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늘 이렇게 꼼꼼하게 말해주십니까? 십이신살과 십이운성은 신살(神殺)로서 용신(用神)과 격국론(格局論)을 위주로 하는 분들에게는 그리 중요하게 생각을 하지않는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십이운성과 신살만으로도 내담자를 읽을 수 있다는 것이 놀랍습니다.

민경: 리더가 저의 눈치를 본다고 말씀을 하시니 죄송합니다. 한마디 더 말씀을 드리자면, 내담자가 너무 장황하게 늘어 놓는 경우 가끔은 상담의 기술상 제어를 하기도 합니다. 내담자가 자신의 장황함을 잘 알아차릴 수 있도록 직면을 시키는 경우입니다. 가끔 행동수정이 필요할 때, 늘 말이 길어지거나 주요 요점을 말하지 못하는 내담자인 경우 말에 말을 붙이고 덧칠하는 식이 되니까 장황해져요. 그럴 때 상담자는 행동을 잘 수정할 수 있도록 “또, 길게 설명하시는군요.” 언어나 행동이 자신의 생각과 불일치를 할 때 쓰는 일종의 ‘직면’의 기술을 쓰기도 합니다. 가끔 제어할 필요도 있습니다. 리더를 위한 지지 발언입니다. 참고로 저도 장황하게 말하는 스타일입니다. 지금도 괜한 장황함이 있네요. 그러나 저는 그런 저의 장황하게 늘어놓는 모습을 마음 챙김하고 있습니다. 일반인들과 상담자의 약간의 차이가 있겠죠.

순형: 운(運)과 살(殺)공부를 우리가 교과서대로 보지 말고, 운도 탄 사람이 써 놓은 것을 보면 틀려요. 거기서 내가 잡은 것을 잡아 내서 만들어 가면서 해야지. 그 놈을 다 읽어 내리면 손이 부쳐! 나는 거의 꼼꼼한 편에 들어요. 손님들이 소문 듣고 와서 우리는 명함 들고 그렇게 오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리더: 연화님은 조용하신데 하실 말씀이 없나요?

연화: 자유(子酉) 귀문관(鬼門關)으로 자기 감정을 스스로 컨트롤하는 걸 잘 못해. 신강(身強)하고 이걸 제자 팔자라고 해. 왜냐하면 자유 귀문관이야. 귀신이 왔다갔다 해. 기분도 등락폭이 커요. 자유 귀문관이 만약에 잘못되어서 운에서 또 유(酉)를 만나면, 자유 귀문에다가 이때 신경쇠약에 걸리던지 정신과 치료를 받는다던지 하지. 그러니까 신경이 너무 예민해 보여요. 너무 예민하니까 거기 자신을 컨트롤하지 못하니까 신경성 안정제를 먹어 본다든지 할 수 있겠지. 자유(子酉) 귀문관, 사술(巳戌) 귀문관이니까요. 그리고 이것이 토(土)잖아. 이것이 관(官)인데, 관이 수국(水局)으로 변해 버리거든요. 이분은 극도로 예민한 사람이야. 정화가 꺼지면 심장이 꺼지지. 문서는 무슨

문서야. 심장이 꺼지는데. 문서가 와도 다시 갖다 버리는 거야.

리더: 결국 계수(癸水) 일간에 화(火)는 정재(正財)이며, 재물이 약하다 그 말씀이죠? 연화도 순형처럼 신살(神殺)을 위주로 쓰시네요. 경산이나 만공은 용신(用神)과 격국(格局) 등을 주로 쓰시고요. 성타는 조후론이나 물상론을 위주로 보는 것 같군요. 어쨌든 이리거나 저리거나 재성(財星)인 화의 기운이 약하다는 분석결과는 같군요. 모두 중요한 명리학의 이론들로 생각이 됩니다. 연화는 현재 무속인이신데 신(神)으로 점(占)를 봐도 좋을 텐데 명리학까지 응용을 하시니 금상첨화(錦上添花)가 따로 없는 것 같습니다. 조상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살짝 무속으로 빠지는 것 같은 분위기가 느껴집니다. 민경은 어떤 입장이신가요?

민경: 글자의 성분상 사주원국도 워낙 춥기도 하지만, 편인이 많고 그 속성상 종교와 역업을 하는 사람으로 볼 수도 있겠죠. 신유(申酉)는 글자의 속성상 치료적 의미도 있어요. 어쨌든 군겁쟁재(群劫爭財)의 구조이고, 끊임없이 대문간에서도 기토(己土)가 늘 화(火)인 재성(財星)과 목(木)인 식상(食傷), 즉 식상과 재성을 그리워하고 있기 때문에 늘 ‘재(財)를 추구하는 형상’으로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병화(丙火)라는 정재(正財)가 자수라는 태지(胎支)에 앉아 있는 형국이니 힘이 없죠. 또한 술해(戌亥) 공망이어서 이 사람은 도문의 학문과도 관련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중년 이후 편인의 공부에 있기 때문에 명리학 등의 공부와도 잘 맞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금전적인 것을 부당히 쫓아가는 형국이고, 인성(印星)이 많기 때문에 좋은 말로는 몰입이고 무슨 일이든 시작을 하면 끝까지 가는 사람이겠죠.

리더: 그렇군요. 민경도 병화(丙火)라는 정재(正財)가 자수라는 태지(胎支)에 앉아 있는 형국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 십이운성을 자주 쓰시는 모양입니다. 역시 재성의 운기가 약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계시군요. 서양상담을 하시면서도 이런 식으로 내담자에게 말하면 이해를 할까?하고 의아심이 생기는군요. 답변이 가능하십니까?

민경: 저는 내담자의 말문을 열 때 명리사주분석을 사용합니다. 명리학적 용어를 쓰면 내담자들은 이해를 못합니다. 내담자들이 명리학 전문용어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풀어서 이야기를 해야죠.

리더: 네 그렇군요, 좋은 아이디어가 될 것 같습니다. 명심은 어떻게 보십니까?

명심: 비겁이 많다. 인성도 많구. 어찌면 수옥살에 갖혀 있고. 비겁이 많아서 사과하 나를 4쪽으로 나눠야 되잖아요. 사(巳)인 정재가 나 혼자 독차지하지 못하고, 경쟁자가 많으니까 꼬시는 사람이 많겠지요. 돈과 관련지으면 그것은 손재입니다. 인간으로 인한 손재지요. 손재라는 것은 “야! 돈 벌러가자!”하고 주변 사람들이 꼬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분에게 재물이 없기 때문에 재물에 대한 탐심(貪心)이 분명 있을 겁니다. 비겁이 많으니까요.

여자관계는 모성이 그리운 사람이에요. 년상의 여자와 인연이 있고, 어머니가 많은 것은 이모밑에 살던지 할머니 밑에 살던지 계모 밑에서 살 수 있어요. 그런 여자를 찾을 것 같아요. 그리고 부모 자리에 여자가 자리 잡고 있으니까, 부모같은 여자를 찾겠요. 그리고 지지(地支)가 모두 도화잖아요. 그러니까 바람도 피웠겠지. 여기가 다 도화잖아요. 실체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사주상으로는 그래요. 그러면 재성이 재물도 되고 여자도 되니까 여자도 힘이 들겠지요.

대체로 사주가 맞아요. 70-80%는 맞고, 20%정도 남겨 두는 것은 집안환경, 집안 부모의 인연법 등 그 이외의 변수도 있어서 100% 다 맞지는 않는다고 생각돼요. 거의 동시에 나타납니다. 제가 본 케이스들은. 어쨌든 이런 일주가 편인(偏印)을 깔고 있어서 이런 역학 공부, 철학 공부와도 인연이 있어요. 효신살(梟神殺)이 있어서 엄마와도 인연이 없고, 엄마를 가슴 아프게 하는 일이 중년 이후에 생기니 부부 이혼 등도 예측 가능한 것 같아요.

리더: 네. 잘 들었습니다. 명심도 무속인이신데도 명리학을 적절히 혼용하시면서 점사를 보시니 참 부러워 보입니다. 그런데 왜 신점(神占)이 있는데도 명리학을 함께 응용하시게 되었는지 궁금한 마음이 일어나네요.

명심: 신(神)이 공수를 줄 때와 사주를 볼 때가 일치하는 경우가 많아요. 신이 공수를 줄 때, 내담자가 아픈 상황이라면 내 몸이 아픈 경우가 많거든요. 그럴 때가 많아

요. 내가 몸으로 오면 맞힐 수 있지만, 사주와도 그 내용이 맞으면 딱이지요. 영적인 세계에서는 문장으로 줄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비유적으로 줄 때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결혼할 사람이 왔어요. 그냥 하얀 웨딩드레스가 나타나다가 바람에 싹 날려 스쳐 지나가는 공수를 준다고 한다면, “결혼하겠습니다.”라고 해석을 할지 “결혼을 하지 말라.”고 해야 할지 헷갈리는 것이예요!” 이렇게 신이 내린 공수를 해석하는 과정에서 말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명리학 공부를 해서 사주분석과 함께 점을 보는 겁니다.

리더: 아~ 그런 애매한 부분이 많네요. 그러니까 점사의 정확도를 보충하고자 명리학 공부를 택하신 것이군요. 훌륭한 선택이시네요.

명심: 영(靈)의 세계니까요. 대화가 가능할 수도 있고 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지요. 공수를 주는 것은 순간적이고 찰라니까요. 스쳐 지나가는 것이 많아요. 물론 도력에 따라 쉽게 신의 뜻을 말하는 무속인도 있구요. 공부한 양에 따라 다르겠죠. 그런 것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신(神)이 주는 것은 다 맞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맞지 않는다는 것은 신은 공수를 주는데, 중간에 영매자인 무속인이 인간인지라 그것을 옮기면서 해석을 잘못해서 틀리는 것이지요. 그렇게 애매한 상황들에 대해 해석을 잘 못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요.

연화: 저 같은 경우 신(神)을 받고 꿈을 꾸는데, 키가 큰 할아버지가 머리에 하얀 띠를 두르고 머리와 수염도 길고, 온통 하얀 색이었어요. 그런데 그 할아버지가 나한테 책을 주더라고요. 신을 받고 삼일이 지난 날예요. 책이 이렇게 두꺼웠어요. 아마 그 꿈에서 네 개의 글자를 날려 보내줬거든요. ‘옛다 받아라!’라고 하면서요. 글자가 꿈틀 꿈틀 살아서 움직였고 까맣고 완전 명필이었어요. 그러면서 글자 하나하나가 나한테 날라 오더라고요. 네 자를 받았는데 두 자는 잊어버리고 두자는 ‘신(神)’하고 ‘해(解)’자였어요. 그러니까 “신을 이해하라”고 한 것 같아요. 앞에 두자는 뭘지 잊어 버렸어요. 그 당시 내가 노트에 적어 놓았어야 했는데, 아쉽게도 못했고 꿈의 내용을 잊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신해’라는 의미는 책을 썼고 ‘신을 이해하라.’는 것이고 신의 이치를 다 알라는 것으로 이해를 했어요. 아마도 신비로운 신, 이해할 해자로 기억하는데 “신을

이해하라!”는 말로 기억했어요. 이 공부하는 사람을 법사라고 해요. 그런 후 명리학 공부를 하게 되었는데, 자·축·인·묘...신·유·술·해 열 두 개잖아요. 그걸 반으로 나누었을 때, 이것하고 이것은 충이잖아요. 그럼 자시(子時)는 밤 열한시에서 새벽 한시~오시도 열한 시잖아요. 그냥 딱 머리에 입력이 되더라고요. 그건 외우기만 하는 게 아니고, 그 원리만 깨우친거죠. 처음엔 그냥 외웠어요. 춥고 배가 고프면 그냥 공부가 돼요. 등이 따듯하면 절대 이런 공부는 안돼요. 춥고 배가 고프면 때는 스펀지처럼 싹싹 흡수가 된다고요. 하얏튼 그런 식으로 응용이 되었지요. 나도 참 신기해요. 지금은 공부하라고 하면 안 들어 가요.

리더: 그건 그렇고 여덟 분 모두 제가 제시한 내담자의 사주에 대해 분석을 잘 해주셨습니다. 결국 이 내담자는 “재성이 약하다.” 라고 결론을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사주의 주인공은 경마에 빠진 도박중독자의 사주였습니다. 재산을 도박으로 탕진했죠. 아직 이혼은 하지 않은 상태로 30여년 별거 중이고 자식들과 거래 없이 혼자 살고 계십니다. 아니러니하게 이 분은 현재 철학관을 운영 중입니다. 요즘도 주말 경마가 있는 날은 재미삼아 경기장에 들른다고 합니다. 과거에는 ‘꾼’이라고 불릴 정도로 도박계에서는 셋다, 도리지꾸뎡, 윗판 등 도박이란 종류는 모두 섭렵했던 분입니다. 사설이 너무 길었네요. 첫 번째 관문은 잘 통과하셨습니다.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러한 사주분석 내용을 내담자에게 어떤 식으로 전달을 하는지 이것이 저의 두 번째 질문입니다. 어떤 식으로 접근하시는지요? 순서없이 먼저 말하고 싶은 부분부터 자연스럽게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공: 맹탕 와서, 뭐 알아 맞춰 봐 달라는 건 아니지! 제일 중요한 것은 내담자에게 물어 봐야겠지.

리더: 마치 의사한테 가면 어디가 안 좋으셔서 왔나요? 라고 묻고 하듯이 이것 저것 문진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시네요? 그 말은 사주 전체의 내용을 조금 전처럼 모두 이야기하기보다는 필요한 부분, 알고자 하는 부분부터 상담을 시작하겠다는 말인 것 같은데요. 맞습니까?

민경: 내담자들은 상담자 앞에 오면 자신의 문제를 모두 완벽하게 해결해 줄 것이라 생각을 하고 상담자라고 생각하며 답을 얻게 되길 바라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허니문 현상’이라 하여 상담초기 몇 회기 동안은 모든 기대를 안고 상담자에게 일거수 일투족 자신의 문제를 토해 내죠. 반응이 시원치 않은 상담자에게 “도대체 답은 언제 주십니까?”하며 상담에 다시는 오지 않는 등 조기 종결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상담자도 내담자의 문제를 잘 다뤄내지 못했다는 부분으로 심리적 소진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한 소진문제는 상담자의 내적인 문제가 결부되겠죠. 그래서 저는 사주를 보면 이 사람이 무슨 문제가 현재의 현안이 될지 알 수 있습니다. 내담자의 사주를 들여다 보면 내담자의 상태가 확 눈에 들어오기 때문에 말문을 틀 때 사용하면 큰 도움을 받습니다.

리더: 서양상담을 하시는 분도 계시네요. 상담을 여는 ‘틀’로서 응용을 하신다고 하니 참 획기적이고 신선한 접근인 것 같습니다. 그럼 명리상담인가요? 아니면 심리상담인가요? 뭔가 ‘짬짜면’을 연상시키는데, 이도 저도 아니면 어떻게 될까? 하는 의문을 제기하고 싶군요. “동도서기(東道西技)라.” 동양과 서양의 만남이라고 이해가 됩니다. 좀더 어떤 내용으로 전개 하시는지 궁금해집니다.

성타: 말이 많으면 거기서부터 틀려져요. 나는 제일 핵심만 이야기를 해요.

리더: 성타의 이야기를 들으니 실속 있게 등이 가려울 때 가려운 곳을 뽀뽀 긁어 주면 시원하듯이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내담자가 힘들어 하는 부분을 말한다는 말인가요? 그러면 민경이 심리상담을 할 때 내담자의 저항 때문에 힘이 든다고 언급하셨듯이 무언가 속전속결로 끝날 것 같군요. 그것도 급한대로 문제의 해결이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민경: 성타의 말도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서양의 상담에서도 요즘은 단기상담 추세예요. 상담비가 비싸기도 하고 예전에는 정신분석 상담인 경우 내담자의 무의식까지 다루는 작업이 필요하다 보니, 상담의 회기가 몇 백회기 아니면 평생 동안 자신의 문제를 들여다보는 방법을 선호했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동향은 20-40회기

정도의 단기상담을 원합니다. 사실상 저도 심리상담을 하지만 10회기 이상 가는 상담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물론 내담자의 심리적 문제의 상태에 따라 평생 치료가 필요한 부분도 있겠지만, 내담자에 따라 다르다고 볼 수 있죠. 성장을 하면서 겪은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일이 하루 이틀에 되는 문제는 아니죠. 그러나 성타의 말대로 부분적으로 쪼개서 이번 회기에는 어떠한 문제를 위주로 다루어 보겠다는 식으로 상담의 목표를 설정하게 됩니다. 한번에 모든 문제를 다룰 수 없으니까요. 현실적으로 가장 문제가 되는 내용을 다루는 것이죠.

만공: 00 역술인 협회 백00회장은 내담자가 상담실에 들어올 때, 대 여섯 걸음 들어오게 해요. 일부러 걸어오는 걸 보게 되요. 책상 앞까지 말입니다. 밖에서 대기하고 있으면, “들어 오세요”라고 불러요. 걸음거리부터 본다는 겁니다. 그럼, 같은 사업운을 보러 온다고 하더라도 벌써 걸음걸이가 다르다고 해요. 내담자가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사업운을 보러왔는지, 아니면 지금 망하기 직전에 오는 것인지 사주분석을 하기 전에 관상을 먼저 본다고 합니다. 또, 백00선생은 손금도 볼 줄 알아요. 특히, 백선생은 굉장히 목소리를 중요시 합니다. 예를 들어서 목소리가 깨갱깨갱하는 사람, 이런 사람치고 팔자 좋은 사람 못봤어요. 대부분 잘 된 사람들을 보면 목소리가 중후하지요. 그런 걸 본 다음에 사주를 보기도 해요.

리더: 아~ 만공은 명리학에다 관상까지 더해서 보시는군요. 대단하십니다. 뭔가 정확도면에서 좀 더 세세한 접근으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관상까지 배우신 것 같군요.

민경: 맞는 말입니다. 만공이 언급하셨듯이 관상은 명리사주분석 결과에 대한 오류를 보충해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서양의 심리상담에서도 그러한 방식을 응용합니다. 서양의 심리상담에서는 문장완성검사(SCT), MMPI-II(다면적 인성검사), MBTI, 에니어그램, HTP그림검사, 로샤검사와 같은 투사도 검사 등 검사지가 너무 많습니다. 서양 사람들은 이미 인간의 심리를 표현하고 읽어내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명리학적으로 사주를 분석하게 되면 운의 좋고, 나쁨에 대한 방향성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디테일함이라는 부분에서는 떨어질 수 있습니다. 물론 검사지를 하나하나 용도별로 쓰게 되면 비용이 많이 든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전문 상담학회에서는 상담

시 최소한 2-3개 이상의 검사지를 쓰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설령 상담자의 직관이나 축이 믿을만하다고 할지라도 상담자의 내담자에 대한 이해가 개인의 편견과 좁은 시야로 선불리 해석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죠.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속은 모른다.”는 말이 있잖아요. 거기에 비하면 사주분석으로 이 모든 것을 대신할 수 있을 정도로 인간의 생로병사의 대부분이 해석이 가능하니까, 명리학이 수준급에 이르는 데까지가 힘이 들지만, 3 in 1처럼 다기능을 갖는 면에서는 명리학적 접근이 최고죠.

태인: 저는 모든 걸 이야기 안 해주죠. 제일 궁금한 것부터 하죠. 사주를 잘 보는 건 아니었지만, 보다 보니까 말을 아껴야 되는 사주들도 있어요. 내가 한번은 변을 당했거든요. 사주에 나타난 대로 이야기를 했다가 봉변을 당한 적도 있었죠.

자식이 딸만 넷인 분인데, 신랑이 사업체를 하고 큰 딸이 여기서 통역을 해요. 외국 바이어들을 통역해 주는데, 딸의 사주가 엄청 큰거예요. 그래서 제주도에 이런 여자를 데리고 살 남자가 있겠느냐고 했죠. 이런 분들은 고향하고도 인연이 없어요. 육지로 많이 나가게 되요. 그랬더니 외국으로 많이 나갔다고 하더라고요. 직업을 그런 쪽으로 가지니까 뭐하는데 그런 식으로 해요. 그런데 이상하게 올해하고 내년엔 결혼을 하게 될 것 같더라고요. 자식을 가지고 오니까. 결혼을 해야 하는데... 하니까 “남자도 없는데 무슨 자식이냐?”고 그 엄마가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남자 있어요.”라고 직언을 했죠. 이런 사주는 “자식부터 낳게 되니 조심을 하라구 하세요.”했더니 그 말에 너무 화를 내면서 우리 딸을 어떻게 보고 그러냐면서 소개시켜 주었던 아는 언니한테 전화해서 저 따위 사람을 소개해 주었다고 악담을 퍼분더래요. 소개해 준 언니는 나한테 전화해서 도대체 무슨 말을 했길래 그러냐고 해요. 그래서 내가 그냥 “말실수를 했네요.” 하고 죄송하다고 말했어요.

경우가 없기는 한데, 그런 일이 벌어진지 한 달정도 지나서 새벽 한 여섯시쯤에 전화가 온거예요. 받을까 말까 하다가 받았지요. “이 시간에 무슨 일이냐?” 했더니, 지금 가도 되냐고 하길래, “안 됩니다! 지금 시간이 몇 시냐고 하면서 지금 우리도 잠에서 깨어 나지도 않았고, 새벽부터 전화하는 것이 실례고 난 당신 안 보겠다.”고 했어요. 그랬는데 꼭 찾아뵙고 상의할 일이 있다고 해서 할 수 없이 오라고 했죠. 그분이 아마 공항에서 육지로 큰 딸을 보내고 오면서 왔노라고 하더라고요. 사실 여기서 그 말을

듣고 가서 1주일 동안 잠을 못자고 힘들어 하는데, 막내딸이 “엄마, 요즘 왜 그러냐?”고 해서 “아! 어디 가서 네 언니보고 이래저래 이런 말을 듣고 오니, 내가 얼마나 분한지 잠이 다 안 온다.”고 얘기를 했데요. 막내 딸이 있다가 “엄마! 큰 언니 남자가 있어요.”라고 말하면서 엄마만 모르지, 엄마가 알면 까무라 칠까봐 말을 안하고 있는데, 자기가 늦게 학원을 갔다가 오니까 집 앞에 골목에서 어떤 남자하고 포옹하고 뽀뽀하는데, 뭐 저런 사람들이 있나?하고 나중에 보니까 그게 언니였더라는 거예요. 엄마한테 얘기를 하지 말라고 해서 딸들만 알고 있었데요.

아! 그 정도 되어 가면은 “그 사람 말도 틀린 게 아니네. 애가 생긴지도 모르잖아요!”라고 다시금 말을 해줬어요. 그래서 남자한테서 딸을 떼어 놓아야 된다고 하면서 막 남자 욕을 하는 거예요. 자기 회사에 근무하는 남자인데 세상에 남자가 없기로 서니 그렇게 지지리도 못한 놈을... 그래서 딸도 부모들이 너무 기대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자기도 사람인데... 퇴근해서 늦게 끝나고 술 한 잔하고, 야근을 하면서 하소연을 하다 보니까 둘이 정이 더 들어 버린 거라. 얘기를 들어주고 풀어주다 보니까 이 남자에게 정이 들어버린 거죠.

여자가 너무 잘나면 남자가 무능력한 사람이 와요. 잘난 년, 놈끼리 만나면 또 자식이 안 되는 겁니다. 절대로 부러워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래서 한 사람에게 오복은 안 준다는 그런 식으로 말을 해서 인생상담을 해줬어요. 그 때는 난리가 났었죠. 나중에 와서 사과는 했어요. 그런 사건을 계기로 안 좋은 것도 직언을 하면 안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에게도 내담자에게도 상처가 될 수가 있어서 무척 조심스러워요.

민경: 내담자에 따라, 상황과 맥락에 따라 적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단도직입적으로 강하게 이야기를 던질 때, 그것은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일지 아닐지 판단이 필요합니다.

연화: 인신사해(寅申巳亥)가 있으면 사건 사고가 있을 때마다 보상 받을 수 있는 거야! 이것만 말을 해줘도 돈을 벌어서 하게 하는 거야.

리더: 태인의 말대로 직언으로 사주 그대로 이야기를 한다면, 내담자뿐만 아니라 상담자조차 상처를 받아 힘들어 질 수도 있겠네요. 한편, 연화의 이야기를 들으니 직

언을 했을 때 유용하게 사주분석이 쓰일 수도 있군요. 연화의 말처럼 돈을 벌게 해 준다고 하니깐 귀가 솔깃해지네요. 이 어려운 세상에 말이죠. 아무튼 직언이 독도 되고 약도 되는군요.

연화: 그것만이 아니예요. 옛날에 나는 어릴 때부터 돈 욕심은 없었어요. 돈이 있으면 누군가 주기가 바빴지요. 엄마가 저 년 주머니에 돈 한푼 있는 걸 못 봤다고 했어요. 돈이 있으면 퍼돌린다고요. 그런데 돈이라는 것이 내가 벌어야지 한다고 해서 벌여 지지는 않아요. 그런데 열심히 하다 보면 되는 거야. 내가 애월살 때, “제발 내 통장에 10만원만 꼬히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했어요. 통장에 10만원이 없었어요.(하~하~)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30만원, 40만원이 모여졌더라구. 기분이 되게 좋더라고요. 10만원보다 많잖아요. 사람이 오지 않아도 100만원만 있어도 나 혼자니까 300이 순간 500만원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신령님, 정말 죄송한데요, 제가 사람 안 죽이고 1억만 있으면...”하고 빌었지요. 그 돈이 없으면 몇 달을 놀아도 살 수는 있잖아. 어느 날 보니까 1억 7천이 되있더라고요. 그러다 “5억만 벌게 해주세요.”라고 했어요. 그때는 집이 없었거든요. 내가 술을 안 먹잖아. 사람하고 만날 일이 없지. 갈 때가 없으니까. 화장품을 안 사쓰지, 무시하지는 못하지만, 그 돈은 신(神)이 벌여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딸이 대학을 다시 간다고 한 달에 100만원씩 붙여달라고 하더라고요. 딸이 학교에서 장학금 받아서 한다니깐 생활비를 100만원은 보내줬지. 어쨌든 내 사주에 정재(正財)인 진토(辰土)도 있고, 편재(偏財)인 축토(丑土)도 있지. 정재, 편재가 다 있어요. 그런데 재(財)는 축진(丑辰)이 파(破)를 일으키거든요. 축진파를 일으키니까 돈이 생기는 하는데, 내가 바르게 일해서 얻는 돈도 있고, 갑자기 생기는 돈도 있어요. 그런데 파를 일으키니까 돈이 자꾸 짜그라져. 내가 돈을 벌면 우리 엄마도 무당이잖아. 엄마가 기도하러 간다고 뭐 돈좀 달라고 하면 보내주지, 딸이 감기가 걸려서 아프다고 하면 또 보내줘요. 동생이 “언니, 돈 좀 2500만원 만 빌려줘라.”하면, “알았어”하고 빌려줘 버려. 그러니까 내 통장에는 돈이 없어요.

내가 돈을 주지 않으면 되지만, 나는 돈에 욕심을 내지 않지요. 그리고 진토, 축토. 어릴 때는 정직하게 버니까 관(官)의 돈을 버는 거야. 직장생활을 하면서 말이죠. 그런데 축토는 화개면서 편재잖아. 이걸 신명줄에서 주는 돈이야. 500만원도 되고 300만원

도 되고 갑자기 손님이 와서 주는 돈이야. 그 일이라는 것이 이번 달은 몇 개만 해야지가 아니고, 어느 날 갑자기 들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주팔자라는 것이 모두 “자기 운명대로 흘러가는구나!” 싶어서 느닷없는 욕심은 내지 않아요. 돈이 들어올 때가 되면 들어오겠지 하면서요. 우리 같은 사람은 얼마짜리 큰 돈을 주고 ‘굿’을 해달라고 들어올 때도 있어요. 손님들이 굿을 해달라고 해도 안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일을 안하는 사람이지요. 그 때는 그렇게 말해요. 손님들이 굿하는 비용을 물으면, 그냥 하지 말라고 조언을 해줘요. 그것이 방법이라고도 말해 주고, “굿같은 것은 안해도 돼요. 나가세요.”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자기 재물은 이미 정해져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더이상 재물에 욕심을 내지는 않죠. 명리학 공부를 하면서 그런 부분을 알게 된거지요. 이게 큰돈을 버는 것보다 더 큰 선물이 아닙니까?

태인: 저는 부모님이 행복한 결혼생활을 못하셨어요. 그러다 보니 결혼에 대한 부정적인 것이 무지 많았어요. 그래서 결혼을 안 하려고 생각을 하면서 독신자 생활을 하고 있었지요. 처음에 신랑을 소개받았을 때, 나는 하고 싶지 않았는데 계속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사람이 정열적인 사람인줄 알았어요. 그냥 그렇게 1년 이상을 끝다가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는 무지무지 싸웠어요. 나중에 살면서 “이혼만 해달라구...” 안 좋은 일이 있거나 하면 뭐든지 당신 탓, 무슨 탓 하면서 그렇게 했는데, 이 공부를 하면서 많은 것을 얻었지요.

남편에게 고마운 생각이 들었어요. 고마워서 그것을 실행에 옮겼어요. 신랑에게 “고맙다구”했지요. 그 동안 참아줘서요. 헤어질 상황이 무지 많았는데, 신랑이 그 때마다 댕구도 안하고 그냥 피해 버리고 했어요. 물론 맞부딪쳐 싸웠으면 헤어졌을 텐데 말이죠. 공부를 하면서 이제 내 사주가 이렇고, 내가 이런데 누구 탓을 하겠느냐? 결국에는 “내 탓이요! 내 탓이요!”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리고 신랑에게 감사했지요. 그 동안 신랑에게 퍼부었던 그런 얘기들이 많아 가지고 후회하면서 고마움을 표시했어요.

신랑은 처음에 내가 또 무슨 말을 하는가 싶어서 겁나 하더라구요. “이 사람이 왜 그러느냐구요.” 그것이 아니고 그 동안 내가 무슨 얘기를 해도 댕구를 안하고 참아 준 것에 대해 고마워 가지고 “앞으로는 잘 할게!” 라고 했어요. 물론 싸우지는 않았지만,

그 것처럼 막말은 하지 않고, 또 서로의 일을 갖다 보니까 요즘은 이제 편해요. 신랑과 사회복지일을 같이 하니깐 외롭지도 않고요. 나를 위해서 무조건 참아 주었다는 것에 대해서 고맙지요.

리더: 아~ 다들 한 도(道)를 깨우치셨군요. 원효대사가 해골 바가지 물을 마시고 ‘대오각성(大悟覺醒)’하듯 말이죠. 정말 명리학을 공부하면서 자신을 통찰하고 자기이해와 더불어 자기를 인정하고 타인을 받아 들일 수 있다는 것은 도인들이나 경험할 법하다는 생각이었는데, 큰 개인적 체험이 아닌가 싶습니다. 모두들 좋은 공부를 하셨군요.

성타: 그러니까 철학하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그 근심걱정이 뭐냐면, 자기 아빠가 철학하는데, 만약 우리 딸, 아들이 배우자를 잘못 선택했거나 배우자와 이혼했다면, 그때는 그러잖아요. “자기 아방이 철학을 하면서 그런 것도 제대로 골라주지 못하냐?”하면서 비난하잖아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민경: 운은 정해져 있는데요 뭐. 아무리 불구덩이로 뛰어들어가니 조심하라고 말해도 결국 듣지를 않더라고요. 어떤 말로 해도 지 운대로 살죠. 그 걸 인간이 무슨 힘으로 막을 수 있겠어요. 그것에 대해서 성타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타: 그건 “자기 인생살이다.”라고 이야기 해요. 뭐 아방 이야기한다고 안하지는 않잖아요. 자기네들이 좋으면 하잖아! 만약에 사업이 망할 것 같은데 뻘히 사주상으로도 운명이 그대로 흘러가잖아요. 말린다고 해서 안들어 먹지요. 어찌할 방법이 없지. 나도 마찬가지로 생각입니다. 그냥 자기 멋대로 조언을 무시하고 한하는데 어떻게 하냐구요. 말을 안들면 안되지. 우리 큰아들이 운이 좋지 않다고 작명을 해 주었어요. 이름을 바꾸라고 말을 해도 애가 안 바꾸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생살이는 내가 낳았지만, 니인생 니가 사는구나! 안될 인생살이로구나. 그나마 조금 보탬이 될까 해서 이름을 바꿔줬는데, 그것도 안 되는구나! 그나마 작은 아들하고 딸은 이름을 바꿨거든요.

그 이후 나는 큰 스님이 가르쳐 준대로 바꾼 이름을 하염없이 썼어요. 그것은 자기 수양이야. 여섯 달을 썼어요. 바꾼 이름인 ‘성타’를 6개월 동안 썼어요. 하루에 100번 씩요. 그걸 100번 쓸 때 염원을 담아서 해야 되는 거예요. “잘 되겠지” 하면서 쓰다가

도 나중에는 그냥 쓰는거야. 어쨌든 그것은 나의 마음을 모아서 나의 위안인데, 몰라요. 나는 모든 일이 안 되도 멍하니 앉아 있는게 좋더라. 이 이야기야!! “아무 생각없이... 멍하니 앉아 있는 것이 좋더라.” 뭘 외우거나 하면 그게 다른 생각으로 되버려요. 우리가 앉아 있다 보면 생각이 수 천 번 바뀌잖아요. 풀었다 쥐었다가 하면서요. 뭐 그런 잡념이 없게끔 해야 되는데요. 그러한 사주팔자의 운명은 못막는 거야!!

이런 공부하면 괜찮고 또 생각이 되잖아요. 다라니경 외우라고 하면, ~ 좋아지겠구나! 하고 생각하잖아요. 아까도 중간에 마음이 안정되었으면 하고 바뀐게 있잖아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안정을 그렇게 쉽게 취해요. 이해가 되는 거지. “내가 진다.”는 말입니다. 자연스럽게 내려 놓는 거지. “내가 이해가 되더라” 이 이야기지요. 어떤 사람이 어찌구 저찌구 하잖아. 그 때 내가 먼저 물러나 지더라 이거야. 그렇게 하면 싸우지 않더라는 말입니다.

경산: 명리학을 아주 깊이 들어가면 오행이 중요해요. 오행이 순환을 하다가 막히는 데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럼 그 막히는 것은 뚫어 주는 것이 용신의 역할이죠. 결국 사이좋은 세상을 만드는 거잖아요. 이게 좀 깊이 들어가면 우주가 오행으로 되어있고 그것은 태극에서 나온 거잖아요. 이것도 도(道)의 세계로 들어가는 그런 것과 비슷하죠. 그런 것에서 파생된 것이니 학문일 수 있는 거죠. 불교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간단히 말해서 태어나서 늙고 병든 후 죽고 하는 것, 그것이 인간에게 정해진 ‘틀’이죠. 마찬가지로 우주 만물도 모습이 바뀌고 바뀌어서 불교의 ‘연기설’처럼 영원한 것은 없거든요.

솔직히 나도 없는 거예요. 나의 존재도 영원하지 않다는 말입니다. 태어날 때의 내가 아니고,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고 순환하면서요. 나는 나인가요? 지금 내가 과거의 나와 같냐구요. 지금의 나도 내가 아닌 거죠. 죽게 되면 몸둥아리는 내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단지 몸둥아리를 놓고 돈, 명예, 건강 등 사람들은 모두 이런 걸 갖고 이야기 하거든요. 나 조차도 내가 아닌데요. 이 말은 여기서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소유라는 것은 집착하지 말라는 것이지 이것을 갖다가 쓰지 말라는 것은 아니에요. 예컨대, 내가 100억을 가지고 있어요. 일주일을 갖고 있어도 상관은 없어요. 100억을 갖고 있든지 1조원을 가지고 있든지, 거기에 집착하지는 말라는 겁니다. 어차피 들어온 것은 음양오행의 원리처럼 돌고 도니까요. 이는 어차피 나가야 되는 속성인거죠. 비록

나가더라도 그건 내것이 아니니까 속상하지 않죠. 당연히 나가야 되는 거예요.

민경: 저도 성타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솔직히 알아도 잘 안 돼요. 큰 스님이 바른 마음으로 계속 집중을 해서 쓰다 보면, 좋은 일이 많을 것이다. 그래서 그냥 새로 지은 이름을 백 번씩 쓰면서 아무런 잡념 없이, 아무 생각없이 그냥 써 갈 때 “그냥 좋더라.”고 하는 그 말씀이 귀에 들어 옵니다. 요즘 심리치료 방법으로 성행 하는 ‘마음 챙김(Mindfulness)’이라는 치료방법이 떠올랐어요. 자동적으로 자식이 뺄뚱 어지는 모습에서 사주팔자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안스럽고 그것으로 인해 자동적으로 자식에 대한 안타까움이나 여러 부정적인 감정들이 생길 것입니다. 그러한 자동적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어딘가에 집중을 하면서 한마디로 ‘무념무상(無念無想)’이 된다는 거죠. 이런 것이 요즘 서양상담에서 유행하는 치료방법입니다. 성타는 그런 마음으로 마음을 수련하시는군요.

경산: 그렇죠. 이제 사주공부를 하면, 글로만 보지 말고 수련까지 같이 가야합니다.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거기서 부터 들어갈 것이 아니고, 첫 번째 성타의 그 아들은 장남이죠. 그렇다면 아빠와 엄마가 애지중지 하면서 키웠겠네요. 부모가 그렇게 잘 키웠는데 왜 사이가 안 좋을까요. 왜 아들이 아빠 말을 안 들을까요. 왜 열번 말하면 열번 모두 ‘NO’라고 할까요. 그것부터 들어 가야겠죠.

그것은 원인이 있어요. 그 원인 제공은 누가 했겠어요. 당연히 부모가 했겠죠. 보통 90% 이상이 아빠가 원인 제공을 해요. 사주를 떠나서 둘 사이의 관계부터 해결을 해야지요. 아버지가 아들에 대한 서운함과 섭섭함을 억누르고, 백번 글을 써서 무념무상을 하면 마음은 편하겠지요. 그런데 생각해 보자구요. 아빠한테 이 아들은 빼놓아진 아이겠죠. 정서적으로 빼놓아져 있으면 의욕도 없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자존감도 약하겠네요. 그렇게 자존감이 약한 아이가 무슨 말을 하고 싶겠어요. 아무일도 안 되겠지.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을 수 있겠죠. 그런데 아빠는 이름만 백번씩 쓰고 있다면, 물론 그 시간은 아무한테서도 간섭을 받지 않을테니 좋겠죠. 회피가 아니었으면 합니다.

민경: 제가 느낀 그런 부분은 명리학 공부를 해서 인생이 내 의지대로 되지 않는 다

는 걸 알고 계시고, 자기이해 및 통찰을 통해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계실걸로 이해했습니다. 성타의 성향상 말이죠. 그래서 ‘회피’보다는 ‘통찰’로 받아들이고 싶네요.

경산: 그럼, 부모하고 자식문제 부터 봅시다. 말했듯이 아빠하고 아들 문제가 있다면, 대부분 부모들은 자식한테 무엇을 해주어도 아깝지 않다고 하겠죠. 보통 우리 부모들은 자식들만 좋다면 무엇이든 괜찮고, 그들이 잘 되어 주었으면 하는 마음이 크겠죠. 거기서부터 마음이 잘못된 겁니다. 부모 마음이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한국 부모들은 정서상 그렇지 않아요. 죽을 때까지 자식들을 돌봐야 한다고 생각하니까요. 아빠가 자식을 돌보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아빠는 자식이니까 편한 마음에서 말이죠. 반대로 자식들은 왜 나의 마음을 모르냐고 하면서 죽을 때도 내것을 다줘도 아깝지 않을 정도겠죠. 누가 보더라도 잘먹고 잘살고 어쨌든 좋은 집에서 말입니다. 내가 좀 못하는 것 같고, 부모라는 마음은 자식들에게 다 퍼주어도 아깝지 않죠.

그런데 반대로 나는 니들에게 이렇게 하는데 너희들은 나에게 이만큼은 보답을 해야하지 않느냐고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거기서 문제는 시작되죠. 그러면 거기서 아들들이 뭐라고 해요. “내 인생이에요.”라고 말하죠. “아빠는 부모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주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난 이런 것은 하고 싶지 않아요. 혹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어요. 왜 아빠 하자는 대로 해야 되나요?”라고 반문하면서 부모와 자식사이에 의견이 상충되겠지요.

민경: 경산 잘 들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사실 명리사주분석을 통해 운명을 말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한 숙명적인 한계 상황들에 대한 자기이해와 타인이해 그리고 통찰까지 간다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같은 경우도 상담 중 명리사주분석을 화두로 쓰고 운을 뚫는다던지 할 때 ‘툭’로 사용을 합니다. 입을 열기가 힘들어 하는 내담자인 경우 유용하게 쓰고 있습니다. 사주결과만 이야기하는 것은 의미가 없고 그러한 ‘운명적 받아들임’을 통해 벌어지는 불편함에 대한 감정들, 상황들을 읽어주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산도 지적을 하셨듯이 서양의 상담이론 중에는 애착이론에서 처럼 ‘분리 개별화’ 과정이 필요한 것처럼 나와 자식의 관계를 바라보는 입장이 정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우리의 민족은 고맥락 사회로서 나의 가치보다 타인이 1순위이고

내가 2순위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자아의 가치를 따지는 서양인들과는 확연하게 차이가 있는 것 같네요. 문화차이로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나와 자식을 분리하기 어렵죠. 인정하기가 참 어렵죠.

저도 사주에서 20년 결혼 생활 동안 처박힌 것을 인정을 못했었는데, 명리학 공부를 하면서 저 나름대로 인정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마 경산이 성타의 입장을 말씀하실 때, ‘회피’가 아니냐고 반문하셨지만, 저의 생각으로는 자식문제에 한해서 ‘도피’나 ‘회피’가 아니라 ‘성찰’로 이해를 했습니다. 성타는 아들과 자신의 운명에 대한 인정하기가 된 듯합니다. 충분히 이해할 것 같습니다.

경산: 부모 자식사이에 문제가 생기면, 사주만으로 답만 듣지 말고, 그 원인이 무엇인지 근본적인 것을 보자는 말입니다. 사주의 문제가 아니라, 성격이 좋지 않다면 “그러한 구조구나!” 하면서 인정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거죠. 인정하기가 어렵지요. 인정을 하면 마음이 편해져요.

명심: 이게 바로 일체유심조(一切唯心造)네요. 내 마음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너무 합당치 않은 욕심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대나무는 대나무인데 말라죽는 것을 말라죽지 않게 하는 것은 가능하지요. 그러나 대나무가 매화나무로 바뀌는 것은 아니란 말이죠. 태풍과 비바람이 친다고 합시다. 기도라는 것이 태풍이 오는 것을 막아내는 그런게 아니라는 거야. 내가 노력한다는 것, 기도한다는 것은 내가 우산을 쓰고 장화를 준비하자는 것입니다. 자연의 힘과 신(神)의 영역을 거부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것을 변화시킬 수는 있지요. 선천 50%, 후천 50%이라는 것은 50%는 바꿀 수 있다고 했잖아요. 사실 그 정도면 엄청난 노력인 것이죠. 그건 너무 힘들고 20-30%는 가능하다는 겁니다. 운명에 대한 사주분석이 70-80%정도는 되지만, 운명은 바꿀 수도 있지요.

리더: 자~ 이야기가 삼천포로 빠져 나갔군요. 명리학 공부에서 다들 훌륭한 경험들을 하셨습니다. “분위기를 정리합시다.” 여기서는 명리학 기반 한국형 단기상담 모형 개발이라는 주제로 앞에서 사주분석을 하면서 사주의 주인공인 일간이 처한 가장 힘든 부분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어떤 방식으로 내담자와 명리상담 장면

에서 펼쳐 가는지를 이야기 하다가 말았습니다. 본인이 하고 있는 좋은 방법적 아이디어는 없는지요?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민경: 저는 한마디로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어둠 속을 밝히는 촛불 같구나!”, “추운 광야에 외로운 소나무로구나!” 등 그런 식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 마디만 던져주면 내담자에게겐 핵심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긴 말이 필요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경산: 그렇죠. 그런 식으로 말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순형: 우리가 이제 밑의 운하고 그날 살은 항상 같이 갑니다. 십간, 십이지지만 바뀌지 이걸 바뀌지 않아요. 이 사주가 태극문양처럼 올라갔다, 내려갔다 내가 태극문양이 되는데, 올라갈 때가 있으면, 내려갈 때가 있는 겁니다.

연화: 학문(學問)을 잘해 놓으면, 원인을 알잖아요. 일운(日運), 월운(月運), 올해 세운(歲運) 대비하고, 일운(日運)을 넣어서 “오늘은 이 사람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겠다”라고 하면 되는 것이죠.

민경: 연화는 ‘직면(Confrontation)’을 참 잘 시키는군요. 직면을 잘 쓰지 못하면, 내담자는 감정이 섞인 것처럼 받아들일 수 있어서 꽤나 힘이 드는데 말이죠. 연화가 쓰면 참 구수하게 들리네요. 정말 부럽습니다.

태인: 일지(日支)가 술(戌)인 경우는 집안일은 못해요. 집안에서 대접은 못 받는데 밖에 나와서는 대접을 받아요. 옛날 고(故) 이병철 삼성회장이 면접을 볼 때도 사주팔자를 반영했다고 들었어요. 제가 경험이 많지 않지만, 저도 직원을 채용할 때, 생년월일을 물어봐요. 묻는 이유는 생일선물을 주려는 의도도 있지만, 깊은 뜻이 있기 때문이에요. 사주를 보면 그 사람을 알고 이해할 수 있어요. 내가 명리학 공부를 해보니까 거의 맞는 것 같아요. 직원들의 마음이나 성격, 성향 등을 파악할 수 있더라고요.

순형: 이 사주는 해마다 변해도 운(運)은 변하지 않으니까요. 십이운성(十二運星), 십이신살(十二神殺)을 쓰는 것은 그 사람의 가는 방향과 딱 맞아요.

민경: 저도 연화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명리학에서는 사주분석을 통해 지금 이 내담자가 무엇을 가장 힘들어 하고 있을지 그 답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담자가 가장 힘든 부분에 대해 상담자가 그날의 상담주제를 던질 수 있죠.

성타: 처음 상담할 때, 나는 사주가 나쁜 사람이 오거나, 희망이 없는 사람이 오면 “안 좋다!”하면서 과감히 이야기를 했었어요!

리더: 순형은 십이신살과 십이운성이라는 명리학 이론을 위주로 사주를 분석하시고, 성타도 솔직하게 진술성을 가지고 사주에 보이는 대로 쿨하게 말을 꺼내시는군요. 과감하게 말입니다. 모두 의미있는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연화: 사실, 상담에 왔으면 그 부분만 알아줘도 돼요! 그걸 바로 이야기 해주는 것 핵심만 찢어주면, 나머지는 자동적으로 술술 다 이야기 해요.

민경: 강한 이야기를 좋아하는 사람인 경우 예컨대 내가 남편과 이혼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강한 답을 듣고 싶어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사람들 속은 모두 다르고 그것으로 펼쳐질 심리적인 부분도 다양하겠지만 말이죠. 밀튼 에릭슨(M. Ericson)은 “만약 지구상에 70억의 내담자가 있다면, 70억개의 상담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내담자의 준거들에 따른 상담자의 탄력성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그러한 법칙이 적용되어야 하겠죠.

저도 예전에 힘든 상황일 때 무속인을 찾은 적이 있었어요. 일적으로 서양상담을 하는 입장이지만, 제가 내담자라면 저항이 심하고 나의 치부를 드러내는 것이 좀처럼 어려운 사람 중에 한 명이거든요. 저도 그런 체험을 했는데요. 무속인이 저의 제일 힘든 부분을 톡하니 말하는 거예요. 아무에게도 이야기하고 싶지 않은 부분을 말이죠. 그렇게 저는 사르르 너무도 자연스럽게 저항을 허물고 그동안 마음에만 억압시켜 왔던 속마음을 터놓고 울고 불고 감정정화까지 하고 나왔지요. 그 시간이 불과 한시간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속이 뻥 뜰리는 것처럼 시원하더라구요.

리더: 중요한 의견인 것 같습니다. 핵심적으로 내담자에게 말을 던지는 부분에 있어서 장점과 단점이 있을 수 있다는 것 맞습니까?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직언직설’이라는 말이 저항하는 내담자에게 오히려 도움이 된다고 하니 아이러니하군요. 상처가 될 것 같은데요. 어떤 원리가 적용되는지 궁금하게 만드네요.

민경: 그렇죠. 상담자가 천사표의 말만 한다고 다 좋은 것은 아니죠. 상담자의 ‘진솔성’은 무지 중요한 상담자의 자질 중 하나니까요. 느끼는 대로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 말입니다. 그리고 상담자의 직면의 기술은 내담자의 사고나 정서에 나타난 불일치, 모순, 생략, 변환 등을 지적해 주어 문제 또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맞닥뜨리도록 하는 상담개입 방법입니다. 이는 내담자로 하여금 스스로 내면의 깊은 성찰을 도울 수 있지요. 그러나 선부른 직면의 기술은 오히려 저항을 부를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해야 하며, 상담자 개인의 격한 감정이 실리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내담자에게 상처가 될 수 있으니까요.

순형: 응~ 살(殺)하고 운(運)하고 잘 풀줄 알면 그것이 최고지.

리더: 잘 들었습니다. 민경은 동, 서양을 아우르는 상담을 시도한다고 하니 대단한 발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편으로는 이도저도 아닌 것이 되지는 않을까 노파심이 일어나는군요. 지금까지 내용을 종합하면, “현재 내담자가 가장 고통스러워 하는 그 문제부터 이야기를 하자.”라는 말로 요약이 될 것 같습니다. 명리학이라는 학문안에서 “내담자가 오늘 여기에 왜 왔을까?”에 대한 답을 줄 수 있다는 것은 상담의 기술적 부분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아이디어가 될 것으로 봅니다. 이러한 명리상담에서의 장점은 민경도 이미 그 중요성을 언급했듯이, 상담에 있어서 단기 상담으로서도 좋은 ‘툴’로서 활용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해 주셨던 명리상담의 핵심기술들이 한국의 내담자들에게 유용하게 쓰이길 바라며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앞에서 명리상담가들은 명리상담에서만 볼 수 있는 ‘핵심 던지기’기술에 대한 견해를 말하고 있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명리상담자들은 명리사주분석을 통해 내담자가 현재 가장 힘들어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핵심 던지기’를 할 수 있다.

“사유축합 금이 되면 이 돈이 들어와서 뭔가 하려는데 묶여 버린거예요. 재(財)가 말입니다. 그래서 기신(忌神)인 인수로 변해 버리잖아요. 그러면 일단 올해 정유년(丁酉年)에 왔으니까 ‘돈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경산)

“너무나 말이 많으면 거기서 틀려져. “나는 제일 핵심만 이야기 하지!” 곳이 그렇게 많이 이 사람에 대해서 정보를 이야기 해 봐야 소용이 없어요. 그 사람이 제일 힘든 부분만 이야기 한다는 거지요.”(성타)

“학문(學問)을 잘해 놓으면, 원인을 알잖아요. 일운(日運), 월운(月運), 올해 세운(歲運) 대비해서 “오늘 이 사람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겠다”라고 말하면 되는 것이죠. 깔끔하게...”(연화)

“어쨌거나 병화(丙火)는 수극화(水剋火)를 당해서 깜깜절벽에 불하나 떠있어 봐야 죽어. 수극화(水剋火)를 당해서요.”(명심)

“재물은, “빛을 잃은 태양의 형상이다.”라고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어요.”(민경)

“여기서 재물을 완전히 밝아 내리잖아요. 그리고 자오충(子午沖)으로 재물이 사정없이 충(沖)을 해서 없어지죠. 사업을 한다고 해도 돈이 안돼요.”(태인)

둘째, 명리상담자들은 용신론(用神論), 격국론(格局論), 조후론(調候論), 물상론(物象論), 십이신살(十二神殺)과 십이운성(十二運星) 등 다양하게 명리학의 이론을 사용하면서 내담자에게 ‘핵심 던지기’ 기술을 응용하고 있었다.

“저는 한마디로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어둠속을 밝히는 촛불 같구나!”, “추운 광야에 외로운 소나무로구나!” 등 그런 식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 한 마디만 던져주면 내담자에게 핵심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긴 말이 필요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요.”(물상론)

“그렇지. 재물상의 문제는 있지요. “습한 곳에서는 벌레가 생깁니다.”라고 말해요. 금, 수(金水)가 태과(太過)하잖아요. 재물은 화(火)인데 말이죠. 나는 음양이 조화로운지를 봅니다. 조후(調喉)가 일단 맞지 않아요.”(조후론)

금수가 대단히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용신은 토가 되어야지. 용신이 이 정도면 중상급은 되요. 그러나 여기서 토는 토로서의 역할을 못하지요.”(용신론, 격국론)

“우리가 이제 밑의 운하고 그날 살(殺)은 항상 같이 갑니다. 십간, 십이지지만 바뀌지 이건 바뀌지 않아요. 이 사주가 태극문양처럼 올라갈 때가 있으면, 내려갈 때가 있는 겁니다.”(십이신살론)

“병화(丙火)라는 정재(正財)가 자수라는 태지(胎支)에 앉아 있는 형국이니 힘이 없죠.”(십이운성론)

셋째, ‘핵심 던지기’는 상담자가 내담자에게 단도직입적으로 상담의 주제를 던지게 되므로 상담을 촉진시킬 수 있다.

“그것은 묻는 사람의 실력차는 아닐까요? 예를 들어 여자들이 하기 싫어 하는 것 말인데, 자궁에 형살(刑殺)이 들어 있을 때, 이것을 스스로는 절대로 말을 하지 않아요. 처음 들어오면, “자궁 적출 했네요.”라고 딱 이야기를 해버려요. 이렇게 풀어 가는 거야. 그러면 그 사람 스스로 이야기를 다 해요!”(연화)

“저는 여덟글자로만 이야기해요. 그렇게 하니깐.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시원하다!”하고 가는 적도 있고. 또, 젊은 여자가 왔는데, “시어머니 때문에 못 사는구나!”라고 단숨에 말을 던졌더니 펑펑 울더라구. 그러니까 철학이라는 것은 그러한 것을 잘 짚어내야 한다는 거지...”(성타)

“인신사해(寅申巳亥)가 있으면 사건 사고가 있을 때마다 보상 받을 수 있는 거야! 축술미(丑戌未) 삼형살(三刑殺)은 배를 찌니까 임원비 많이 나오는 실손보험인가? 하는 걸 넣어 두면 좋지. 이것만 해도 돈을 벌어서 하는 거야.”(연화).

넷째, ‘핵심 던지기’ 기술은 직면적(直面的) 강하기 때문에 내담자에 따라 적절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

“딸이 “자식부터 낳게 되니 조심을 하라구 하세요.”했더니 그 말에 그 엄마가 너무 화를 내면서 우리 딸을 어떻게 보고 그러냐면서 악담을 퍼부었어요.”(태인)

“내담자에 따라, 상황과 맥락에 따라 적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단도직입적으로 강하게 이야기를 던질 때, 그것은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일지 아닐지 판단이 필요합니다.”(민경)

“처음 상담할 때, 나는 사주가 나쁜 사람이 오거나, 희망이 없는 사람이 오면 “안 좋다!”하면서 과감히 이야기를 했었어요!”(성타)

“사실, 상담에 왔으면 그 부분만 알아줘도 돼요! 그걸 바로 이야기 해주는 것 핵심만 찢어주면, 나머지는 자동적으로 술술 다 이야기 하니깐요.”(연화)

“이제 저는 모든 것을 이야기 안 해요. 내담자가 제일 궁금한 것부터 말을 해주죠. 다른 얘기는 하지 않는데, “뭐가 궁금해서 오셨어요?”라고 이제는 물어봐요.”(태인)

“왜 왔는지 알아맞춰 봐!”식 보다 의사들도 첨단장비 몇 억짜리를 갖고 내시경을 보고 해도 제일 중요한 것은 문진이야! 맹탕와서 내 문제를 알아 맞춰 보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공)

정리하면, 상담자는 명리사주분석을 통해 내담자가 현재 가장 힘들어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핵심 던지기’를 할 수 있다. 사주원국과 대운, 세운, 월운, 일운을 대입하면 내담자에게 어떤 육친의 기(氣)의 흐름이 좋고 나쁜지 파악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시도는 몇몇 내담자들에게 강하게 들릴 수 있는 직면적 요소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진정한 직면은 내담자의 방어막을 뚫고 공감적인 이해와 더불어 내담자의 심리적

저항감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미 언급한 바 있듯이 명리학에 대한 전문적이고, 이론적인 예리함은 반드시 수행되어야만 하는 과제가 될 것이다.

‘핵심 던지기’기술은 명리상담만이 가지는 상담기술로서 고맥락 사회의 집단주의의 유교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한국 내담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가족, 친구, 동료 등 타인에 대한 배려와 생각이 많기 때문에 자신의 감정을 세세하게 표현하지 못할 수 있다. 서양인들과는 달리 한국의 내담자들은 누군가 입가에 만 뱅뱅돌며 씩스립거나 어눌할 때, 편안하게 핵심을 짚어서 대신 말을 해준다면, 내담자는 이를 통해서 방어벽을 허물 수 있고, 내담자 자신의 심리적 문제에 몰입하고 집중하는 기회를 갖을 수 있다. 그러한 기회를 통해 나머지 상담의 내용은 저항없이 개방이 가능할 수 있다.

반면, 이러한 직면적인 ‘핵심 던지기’기술은 내담자가 개인의 치부를 건드리거나, 상담자의 내담자에 대한 판단이나 확인 등을 통해 심리적 위축감이나 전이감정을 느낄 수 있으므로 조심스럽게 다루어져야 한다. 내담자에 대한 충분한 탐색이 전제가 된 후에 상황과 내담자의 특성에 따라 상담을 자연스럽게 이끌어 나아가도 좋다. 그러므로 직면을 통해 내담자가 제2의 심리적 피해가 가지 않도록 다각적 노력이 필요하다. 즉, 명리사주분석과 더불어 서양상담을 절충할 내담자의 유형이나 접근 방법에 대한 고민들이 있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어떤 문제를 다루고자 하는지 내담자에게 선택의 기회를 준다거나, 내담자의 성향에 따라 강하고 센 이야기를 듣고 싶은지 그렇지 않으면 부드럽게 끌어가는 상담을 원할 것인지 상담자의 헤안이 필요할 것이다.

상담자는 숙명론적 결정론자와 같은 인간의 의지를 부정적인 의미로 해석하는 것은 고려해 볼 사안이다. 내담자들은 명리사주분석을 통한 결과에 대해 큰 의미로 받아들일 수도 있다. 마치 명리상담자가 나의 모든 치부를 알고 있을 것 같고 숙명적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으므로 희망적 메시지를 주는 일은 소수 내담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 명리상담에서 상담자가 상담의 주제에 대해 ‘핵심 던지기’를 하는 상담기술은 양면의 칼날처럼 독도 되고 약도 될 수 있다. 그러므로 ‘핵심 던지기’를 할 때, 상황과 맥락에 맞는 상담자의 융통성은 필요할 것이다.

VII. 명리학 기반 한국형 단기상담 모형

앞의 여러 관점과 주장을 종합하여 이번 장에서는 명리학 기반 한국형 단기 상담 모형을 개발하기 위해서 실제 명리상담 사례를 소개하면서 서양의 상담적 관점을 통해 기존의 철학관 상담의 장점과 단점을 비교 분석하고 보완하여 명리학에 기반한 한국적 단기상담의 모형을 제시할 것이다. 명리상담의 사례는 크게 두 가지 차원에서 접근할 것이며, 명리상담의 사례를 서양상담적 개념으로 슈퍼비전(Supervision)을 하여 명리상담의 새로운 모형을 제안하고자 한다.

1. 명리상담 실제사례

가. 내담자의 명리상담 경위

내담자 K는 현재 67세 남자로서 2017년 정유년 4월에 J시에 위치한 M철학관에 내방하였다. 키는 177-178센티미터쯤 보이며 건강하고 훗칠한 미남형이었다. 나이보다 10년은 젊어 보일 정도이며, 현재 부동산중개업을 하고 있다고 했다. 서글서글한 성격으로 보였으며, K는 현재 17세 정도 나이 차이가 나는 여성과 사귀고 있는 중으로 여성과의 관계가 지속될 것인지 아니면 끝내야 할 것인지에 대하여 알고자 하였다. 상담시간은 40분가량 소요되었으며, 상담비용은 1인당 2만원으로 책정되어져 있었다. 추가로 지인의 사주분석을 원할 때는 1인당 추가비용을 내야 하는 방식이었다. K는 본인과 여자친구분의 사주를 물었다.

연구자는 M철학관의 명리상담가와 인터뷰를 약속한 날로서 철학관을 방문하였고 절차대로 2시간 가량 논문에 필요한 인터뷰를 마친 상태였다. 지나가면서 들렀다고 하면서 내담자 M이 예약도 없이 철학관에 들어왔다. 철학관은 책상 하나를 놓고 앉을 수 있을 정도의 작은 평수의 규모였는데, 연구자가 연구를 목적으로 인터뷰 중이라는 말에 관심과 호의를 가졌으며 합석을 허락하였다. 운이 좋게

K는 최종적으로 상담내용을 녹취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었다. 연구자는 몇가지 윤리문제에 대한 약속을 한 후, 바로 상담을 허락하여 진행된 상담내용이었다.

나. 내담자 정보

다음은 명리상담을 의뢰한 내담자와 그의 여자 친구의 사주명식이다.

【실제사례 VII- 1】 1953년 10월 04일 22시생, 음력, 건명(乾命)

시	일	월	년
식신	일간	편인	편인
丁	乙	癸	癸
亥	丑	亥	巳
정인	편재	정인	상관

81	71	61	51	41	31	21	11	1
甲	乙	丙	丁	戊	己	庚	辛	壬
寅	卯	辰	巳	午	未	申	酉	戌

【실제사례 VII- 2】 1970년 03월 13일 12시생(정오), 음력, 곤명(坤命)

84	74	64	54	44	34	24	14	4
辛	壬	癸	甲	乙	丙	丁	戊	己
未	申	酉	戌	亥	子	丑	寅	卯

시	일	월	년
비견	일간	식신	식신
戊	戊	庚	庚
午	辰	辰	戌
정인	비견	비견	비견

다. 명리상담사례 축어록

상담자 1: 몇 년생 이세요?

내담자 1: 53년 계사생(癸巳生) 10월 3일 음력 2월 3일 뱀띠입니다.

상담자 2: 시간을 아세요?

내담자 2: 밤 10시 해시(亥時)입니다.

상담자 3: 기토(己土) 대운(大運), 이때는 돈을 많이 벌어요. 30대 중반 중에 돈 벌다가 30대 후반, 40대 전후로 해서 머리 아플 일이 생겼을 겁니다. 그리고 42, 43세 때에 문서로 인해서 돈을 손해 볼 수가 있어요. 형제들 간의 보증을 선다는지 말이죠. 그리고 올해가 65세, 본인 나이가 되게 많네요. 그런데 본인은 62, 63, 64, 65, 66세 때, 남들하고 좀 언짢은 시비나 구설수가 있을 수 있어요. 작년, 병신년(丙申年) 전에는 괜찮았어요. 그런데 사실은 별로였지요. 본인은 이제부터 내년 무술년(戊戌年)에 돈을 좀 벌꺼예요. 무토가 뜨면 정재(正財) 아납니까. 무술년은 정재(正財)의 해로서 기해년에는 돈은 잘 벌 거예요. 내년 내후년은 편재(偏財) 대운이니까 큰 돈이지요. 크게 본다면 말년에는 걱정 없이 잘 살 것 같아요. 본인은 사람이 정직하고 자존심도 강하고 손재주도 있어요. 왜냐하면 을목(乙木)일주는 손재주가 있거든요. 내가 힘들어도 남한테 부탁하지 않아요. 나 스스로 해결해 나가는 끈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격도 있고 자존심도 강해요. 그러나 대문간 상관(傷官)으로 할 소리는 다 하기도 하지요. 그래도 내가 이렇게 보았을 때는 굽이굽이 좋았다 나빴다, 좋았다 나빴어요. 내년부터는 운이 풀릴 것 같은데요.

내담자 3: 어딜 가도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60살까지 고생하고, 60이 넘으면 잘 된다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여자문제가 걱정입니다. 제가 한 20년 이상 혼자 살아 왔어요.

상담자 4: 본인은 젊었을 때 직장생활을 했을 텐데요. 거시기 내가 봤을 때에는 20대 후반에서 30세 전후로 해서 그때는 좀 괜찮았어요. 그때 얼굴에 빛이날 정도로 사회적으로 하는 일들이 잘 됐어요. 신금(申金) 대운에 정관(正官)이 인(印)을 보고 사니까, 이 때는 하는 일마다 잘해서 인정을 받았겠네요.

내담자 4: 네 맞습니다. 말년에 이제는 찬바람도 불고 어떻게 여자 좀 생기지 않을까

까 해서요.

상답자 5: 본인은 서른 둘, 셋, 넷, 다섯, 여섯까지는 여자도 붙어 있고 큰 돈도 벌고 했을 겁니다.

내답자 5: 제가 생각할 때도 그때는 잘 나갔지요. 그 이후부터 돈, 여자 문제가 있어요. 외국에서 오래 살았어요. 돈, 여자 문제, 사회문제로 머리가 아프고 그런 문제들이 아직까지 확 풀어진 것은 없어요.

상답자 6: 네. 앞으로는 풀리고요. 내년에도 괜찮은 여자가 들어와요. 내년부터 정제가 아십니까. 돈, 여자가 들어 오지요.

내답자 6: 그런데 나이는 65세를 먹었지만, 절 좋아하는 여자가 있어요. 젊은 여자예요. 그래 가지고 그 여자와 되겠는지 아니면 안되겠는지 그것을 제가 알 수 있을까요?

상답자 7: 그럼 여자 사주 생·년·월·일을 알아야 내가 보지요.

내답자 7: 70년 3월 13일. 개띠예요. 경술생(庚戌生) 48년 개띠 맞아요. 제가 어릴 적에 여자한테 받은 상처가 너무 커서 혼자 상당히 오래 살았는데, 이젠 애들도 다 커서 시집, 장가도 가고 좋은 직장 다니고, 돈도 많이 벌고 있어요. 그냥 나도 혼자 돈벌이도 하고 있어요. 혼자 사는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제가 골프같은 운동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산에도 같이 가고, 말년에 친구처럼 함께 할 사람이 있었으면 해요.

상답자 8: 몇 월 달이에요? 음력 3월 13일, 12시입니다. 경술, 경진, 무진, 무오. 13일 맞아요? 시는 언제예요?

내답자 8: 난 12시 점심을 먹고 낳았다고 했으니까, 그런데 옛날이니까 정확하진 않습니다. 옛날에 뭐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올릴 수가 있으니까 맞지 않을 수도 있어요. 요즘처럼 시간 맞춰 병원에서 퇴원할 때가 아니라서 말입니다. 이제는 찬 바람도 불고 어떻게 여자 좀 생기지 않을까 해서요. 기름과 물 같은 사이는 아닌지도 알고 싶어요.

상답자 9: 그런데요, 이 여자분은 사람이 괜찮고 재물복도 있어요. 돈 창고가 있어요. 보세요, 진(辰)이 돈창고 아십니까? 또 돈을 쓸 때는 써도, 안 쓸 때는 안써요. 내가 볼 때 사실 45세 이후에 남자 관계가 좋지 않아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을경합(乙庚合) 금(金)을 하면 좋다고 말하는데, 을경합을 하

면 별로 좋지 않아요. 별로예요. 이런 경우에는 남자관계가 좀 복잡해요.
남자 관계로 인해서 좋지는 않아요.

내담자 9: 올해가 48세니까 45세 이후에는 남자가 거의 다 떨어졌는가요?

상담자 10: 남자가 다 떨어졌느냐고요?(하~하) 약간 남자문제로 머리가 아파요. 자
이것이 관(官)이 아닙니까. 정관(正官)이 식신(食神)하고 월간(月干)에 가
서 합(合)을 했던 말이야. 합을 하니까 안 좋아요. 그런데 이 놈이 해수(亥
水) 대운이 되면, 이때는 잘 잡아요. 이때 돈을 많이 벌거니까요. 50세에서
55세에 말입니다. 그때만 버는게 아니라, 이때는 갑목(甲木)도 좋아요.

내담자 10: 지금 이 친구가 저처럼 공인중개사입니다. 작년에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뺏어요. 그런데 남자 관계가 복잡해 가지고, 그것을 지금 정리하느라고 일
을 제대로 못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데리고 나와서 일을 시켜 보려고 하는
데 저는 진심입니다. 저는 부동산 중개를 오래 했기 때문에 잘 하는데, 이
친구는 초보잖아요. 이 친구를 이끌고 나와서 일을 시켜 보려고 합니다.
선생님 보시기에 그 일을 해도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상담자 11: 공인중개사는 해도 괜찮아요. 이 여자분 사주에 땅이 많잖아요.

내담자 11: 잘 아시네요.

상담자 12: 이 여자는 늦복이 있어요. 을경합(乙庚合)의 운이 50이면 끝나거든요. 끝
나고 나면 해수(亥水) 대운부터는 돈이 잘 돌아가요. 왜냐하면 고장지로
돌아가면서 경금(庚金)인 식신(食神)을 살려낸다는 말이에요. 해수(亥水)
를 살려내면 돈이 살아나요.

내담자 12: 그런데 문제는 다른 남자하고 가서 잘 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나
랑 잘 되야지. 다른 놈하고 잘 되면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나는 애쓰게
돈 들여 키워 왔는데, 다른데로 가서 잘 되면 말짱 헛것이 아닙니까. 내
가 그렇게 되는 것이 가능한지 아닌지, 이 친구가 돈을 많이 벌어서 썼어
요. 돈을 많이 벌었는데 어떤 남자한테 13억을 털어 넣었어요. 그런 후
먹고 죽어 버렸는데요. 35세 될 때까지 13억을 그 죽어 버린 남자에게 털
어냈어요. 작년에도 지금도 법에 걸려 가지고 보증을 선 것들이 해결이
안 됩니다.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 매일 경찰서 조사 받으러 다니고, 법
원에 기소되고 그렇게 합니다. 그 친구가 하도 불쌍해 가지고 도와주긴

도와줘야겠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어요. 그 친구가 저를 엄청 좋아하고 따르고 해요. 왜냐면 내가 공인중개사 선배이고, 일도 잘하고 하니까 말입니다.

상담자 13: 가는 데까지는 가보세요.

내담자 13: 가는데까지는 가는 데가 아니라, 내가 떨어줘야 한다니깐요. 나도 없는데요. 이 친구를 키우려면 돈이 들어가야 하니까 문제죠.

상담자 14: 그런데 여자도 본인을 보면, 나이는 차이가 나도 내 남자 노릇을 잘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자기가 마누라 같다는 생각이 들고 하면서 괜찮게 생각을 한다고요. 일주를 보면, 일주가 가을의 목(木)이에요. 여자분은 무토(戊土)란 말이죠. 이 사람이 원래 사주에 관(官)이 없어요. 무관사주입니다. 한마디로 남편 복은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을 만나니까 목극토(木剋土)를 해서 을목(乙木)이 관이란 말이에요. 을목이 무토, 기토(己土) 일간의 여자에게 남편이란 말입니다. 관을 만나긴 잘 만났지요. 그런데 남자의 입장에서 저 여자를 보면 그래도 경제적으로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마음에는 들어요. 마누라 같은 생각이 들고 말이죠.

내담자 14: 뭐 제가 형편이 좋으면 해줄텐데요. 저도 60세 전에 다 털어 먹어가지고 이제야 작년, 재작년에 조금 벌었는데요. 선생님도 말하셨듯이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둘이 먹고 살기도 부족한데 말입니다. 저도 모험을 하는 겁니다. 이 친구를 일으켜 세워서 나까지 갈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안될 것인지 말입니다.

상담자 15: 하지 말아요.

내담자 15: 왜요? 잘 맞는다면서요.

상담자 16: 잘 맞아도 지금 여자한테 돈을 투자해서 언제 받으려고 그래요.

내담자 16: 아~ 50부터 좋다면서요.

상담자 17: 그래도 사주는 사주고요. 인생 선배고 내 경험담을 이야기하면 여자한테 돈 투자해 가지고 되겠어요? 여자에게 퍼주려면 그냥 다 준다고 생각하세요. 보통 그렇게 생각하고 주지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하고 해야지, 뭐 돈이 될 것 같아서 해 볼까? 이런 생각은 절대 하지 말아요.

내담자 17: 그런 생각은 아니고 아직 저의 뜻을 모르시는군요. 이 친구가 공인중개사 경험이 없잖아요. 경험을 할 때까지는 내가 일으켜 세워 준다는 거죠.

상담자 18: 뭐 투자할 것도 없잖아요.

내담자 18: 아니죠 투자를 많이 해야 합니다.

상담자 19: 땅에요?

내담자 19: 아니요. 사람에게 말입니다. 돈으로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투자를 하려는 거예요. 보통 공인 중개사를 바로 따서 땅이 얼마짜리 라고 평가하는 것은 전혀 못합니다. 내가 뭐 평가를 다 하잖아요. 이것은 얼마에 팔아 보라. 혹은 수수료를 먹고 살잖아요. 수수료를 먹고 사는데, 이게 수수료를 받을 때까지 최소한 3년은 걸립니다. 그러면 그때까지 돈이 안 되요. 그 때까지 먹고 살아야 하는데 말입니다. 그걸 투자하겠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사람을 다루는 그런 경력이 없으니까 말이죠. 그래 이런 놈은 이렇게, 저런 놈은 저렇게 다룰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뭐 사람이 이 걸 볼 줄 아는 눈이 있을 때까지는 힘이 드니까요.

상담자 20: 그런데요, 앞으로 여자분의 운은 괜찮아요. 왜냐하면 거시기 이 운은 별로고, 남자문제로 머리가 아파요. 이 을목(乙木) 대운(大運)은 을경합(乙庚合)하죠. 그런데 이 운이 끝나고 해수(亥水) 대운이 오면 식신(食神)이 살아나요. 그러면서 돈문제에 있어서 빚을 좀 질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해수가 고장지로 들어가 버리니까 이럴 때는 땅은 사고 집을 사면서 다 써 버려야 되요. 쓸 돈이니까요.

내담자 20: 각오하고 있습니다. 어디 가서 대출이라도 받으면 되니까요.

상담자 21: 그리고 갑목(甲木) 대운이 오면, 무토(戊土)가 살아나요. 이때부터 살 맛이 나지. 편관(偏官)이잖아요. 남자잖아요. 남자운도 좋아지고, 어떤 놈이 오던간에 술토(戌土) 대운에 진술충(辰戌沖)을 때리면, 이 때는 이사를 간 다든지 사회적 변화가 있어요. 그리고 계수(癸水) 대운은 재운이니깐요. 그래도 괜찮다는 말입니다. 임수(壬水)때 이때도 한방 떠요. 이때도 늦복은 있어서 좋아요.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는 괜찮을 것 같아요. 사람 사이도 괜찮고 말이죠. 그런데 성격적으로 안 맞는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서로의 격인 해수가 진토(辰土) 속으로 들어가 버린단 말이야.

그런데 오히려 본인이 힘들 수 있어요.

내담자 21: 여자는 괜찮다고 하는데, 나는 나이가 든 사람이지만, 이 친구는 아버지 어머니가 다 돌아가시고, 형제자매 중 기댈 때가 나 밖에 없어요. 그래 나한테만 다 해 달라고 기대는 걸요. 실질적으로 그렇잖아요. 나도 혼자서 지금까지 20년을 혼자 살았는데 내가 뭐 떠받들 종노릇을 해야 될 이 유가 없잖아요. 그런 생각을 할 때면 나도 반기를 들죠.

상담자 22: 본인도 멍청한 사람은 아니니까 스스로 관리를 잘해서 본인이 리드해 나가세요.

내담자 22: 리드하려고 해도 말을 안 들어요.

상담자 23: 그래도 이 여자 분하고 보면 본인이 힘들 때가 많아요. 이 여자 분하고 사귀다 보면 말이죠.

내담자 23: 그래 가지고 여자들은 수염이 나지 않는다고 하지요. 여자들은 말을 하면 듣지 않아서 답답해요. 그래서 선생님을 찾아 왔어요.

상담자 24: 이런 사람들은 해수(亥水)가 경신(庚辛) 일간(日干)을 만나면 잘 살아요. 정신적으로 잘 맞고요. 왜냐하면 해수가 신금(辛金)을 보면 돌아가지. 그런데 그렇게 딱 딱 맞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60%정도만 맞으면 되는 것이지. 가는 데까지만 가세요. 그래도 그 여자는 남편으로 생각하거든요.

내담자 24: 그럼 제 수명은 겁니까? 목숨은 길겠느냐는 거예요. 여기서 90인데 여긴 85만 적어 놓으셔서 물어 봅니다.

상담자 25: 두분 모두 명(命)은 길어요.

내담자 25: 저도 명은 길다고 하던데요.

상담자 26: 둘다 죽을 운은 안 보여요. 그럼 사업은 내년부터 하는데 남하고 돈 거래는 안 됩니다. 누구 하고간에 돈 거래는 하지 마세요. 돈을 만지거든요. 지금 빌려준 것은요, 금년까지 끝을 내야죠. 내년으로 이어지면 안 돼요. 안되는 이유는 내년이 무술년(戊戌年)인데, 무계합(戊癸合)이 되면, 일반 철학관에서는 좋다고 말했을 겁니다. 그런데 합은 사합(死合)으로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죽은 거예요. 돈 아니라도 문서, 돈, 그러니까 누구하고도 문서같은 것은 쓰지 말라는 겁니다. 돈 거래도 하지 말고요.

내담자 26: 내가 보증을 섰다가 혼난 사람입니다. 보증 같은 건 서지 않고 또 지금

뛰준 것이 있는데, 받기가 힘들어 가지고요. 작년에 빌려 주었거든요.

상답자 27: 금년에 마무리 해야 되요.

내답자 27: 이 친구는 13억 날린 것을 받아 질까요? 남자를 하나 잘못 만나 가지고 그 남자에게 13억을 넣고 그리고 도장을 찍은 것이 있어요. 경찰에 조사 받으러 매일 가요. 조사는 받았는데, 그것은 무혐의가 되었는데, 경찰에 걸려져 있지요. 서울 법원에 걸려 있어요.

상답자 28: 내년 지나야 들어올 것 같고 무술년 비견운이 오니 돈이 얼마나 돌아오겠어요. 기해년이 되면 해수인 제가 돌아 가니까, 또 해수는 무토로 개방되니까 경자년(庚子年)은 경금(庚金)이 돌아 자수(子水)인 돈이 돌아 가니까 아마도 4년이 지나면 조금 돌아갈 거예요. 사주로는 그래요.

내답자 28: 상담비는 얼마입니까?

상답자 29: 한 사람에 2만원이니까 두명이니 4만원입니다. 앞으로 괜찮아요. 좋아요.

내답자 29: 좋다 좋다 하면서 좋은 걸 느끼지 못하고 살아서 60세가 넘으면 좋다고 했는데 말입니다. 제가 만으로는 63세예요. 우리 나이로는 65세입니다.

상답자 30: 일단은 앞으로 괜찮아요. 늦복이 있어요. 돈 거래는 하면 안 되겠지요. 비견(比肩)도 많고 나에게 축낼 놈이 많거든요. 사람 조심해야 되요. 내가 거기서 방패막이가 되는 거지.

내답자 30: 하지 말라는데 제 말을 안 들어요. 그렇게 말하면 나를 귀찮게 생각해요. 그래서 치워 버리려고 여러번 생각했는데 그게 불쌍해 가지고요.

상답자 31: 그냥 가는 데까지 가세요. 새끼 낳고 사는 년도 떠나는데, 좋을 때까지만 좋아하세요. 너를 딱 구속해서 내사람으로 만들겠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좋게 만나요. 밥도 먹고 술도 먹고 말이죠.

내답자 31: 그렇게 투자하면 아깝잖아요.

상답자 32: 그런데요, 아이 낳고 살던 년도 가는데 그래도 자식이라고 남겼잖아요. 아까운 자식이라도 있잖아요. 그런데 나는요 또 하나 가르쳐 줄게요. 내 사주 보여줄게요.

내답자 32: 선생님! 죽는 이야기는 하지 마세요.

상담자 33: 나 같은 경우는 사람을 만나면 여자가 배신을 해요. 여기가 정재인 내 돈도 되고 사람도 되거든요. 여자도 되고 돈도 되고 마누라도 되고요. 재(財)가 기토(己土)인 상관(傷官)을 본단 말이야. 오히려 무토나 갑목을 보고 해야 재(財)가 살아나는데, 병화(丙火)가 기토(己土)를 보니까 희안하게 배반을 하더라고요. 난 만나는 여자마다 배신을 해요. 왜 그런가 하고 사주를 들어 봤는데 바로 이것 때문이야(자신의 사주를 가리키면서).

내담자 33: 저는 어떻습니까? 저도 계속 여자 때문에 여자한테 당한 아픔이 오래가지고 그리고 그런 아픔 속에서 오랫동안 살았는데, 그런 여자를 만나가지고... 진짜 그런 것은 안하고 싶어요. 어디 괜찮은 여자를 소개시켜 주면 진짜 안하고 싶은데 말이죠. 그런데 막상 보면 불쌍해요.

상담자 34: 그래도 앞으로는 배반하고 가는 일은 별로 없어요.

내담자 34: 이 여자는요?

상담자 35: 이 여자는 나이상으로 너무 차이가 나니까 사주 쪽으로는 맞는데 나이 차이가 나니까, 남자가 너무 깊이 빠져 가면 나중에 나올 때 상처가 커요. 너무 좋아 하면요. 한 발만 들어가요. 무슨 소리인지 이해는 가지요? “너는 내꺼다.”하면서 그냥 쪽 들어 가지 말고, 나중에 무슨 일이 있으면 감당하지 못해요. 여자를 사귀어도 “이젠 갈 여잔데...”하면서요.

내담자 35: 그런데 난 선생님하고는 달라요. 지금은 그렇게 안하고 싶거든요. 내 마음은 그렇죠. 애정결핍증이 어렸을 때부터 있었어요. 제가 7남매 중 네 번째입니다. 어머니 젖을 못 먹고 커왔어요. 어머니에 대한 정을 못 느끼고 살아 가지고요.

상담자 36: 혹시 어렸을 때 부모님한테 문제가 있지는 않았나요?

내담자 36: 어렸을 때 별 문제는 없었습니다. 별 문제는 없었는데 악운(惡運)이 있었지요.

상담자 37: 그때 본인에게 큰 일이 있었을 거예요. 칠, 팔, 구, 십, 십세 쯤예요.

내담자 37: 아 그때 있었습시다. 하도 어머니가 부지깥이 들고 나를 쫓아 다녀 가지고 ‘소막’ 있잖아요. 소 기르는 곳 말이죠. 거기서 내가 자살하려고 한적이 있었어요. 너무 괴로워서요. 어렸을 때, 1, 2학년 때인가 4학년 전인데요. 밧줄로 묶어서 죽으려 했던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어머니가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어머니한테도 문제가 생길 수가 있었어요.

상담자 38: 이게 어머니 자리잖아요. 사화(巳火)가 고장지로 가니까 어머니로 인해서 힘들었겠지.

내담자 38: 많이 힘들진 않았어도 돌아가실 때까지도 힘들었어요. 이런 꿈은 어떻게니까? 꿈에 돌아가신 작은 아버지가 결혼을 하신다고 나타났어요. 꿈에 나는 멋도 모르고 “작은 아버지 축하합니다.”하고 손을 덥석 잡아드렸어요. 그런데 손이 따뜻하더라구요. 평소에 작은 아버지하고 친했어요. 나중에 날 이용해 먹어서 지금은 좋지 않게 생각하죠.

상담자 39: 작은 아버지가 손을 잡아 주셨으니까 뭐 좀 도와주실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어머니 사랑을 못 받아 가지고 어떡했어요?

내담자 39: 그래 우리 집이 시골촌이에요 나는 여기서 살고 야간을 다녔지만 말입니다. 서문시장 앞에 제주 상업 고등학교를 다녔어요. 서문 다리쪽은 찬바람이 엄청 불어요. 낮엔 직장을 다니고 밤에는 학교 다니면서 10시까지 공부합니다. 10시까지 공부하고 집까지 걸어가는데 30분 걸렸죠. 그때는 밥을 해먹고 치우면, 그럭저럭 12시입니다. 그때 잠들면, 다음 날 새벽 6시에 직장을 나가야 돼요. 그런데 저희 어머니는 내가 한 번도 뭘 먹고 다니는지 잠을 자는지 뭘 입고 다니는지 관심을 두신 적이 없었어요. 그때만 해도 사실 16살, 17살로 어린 나이입니다. 16살, 17살에 대한 기억이 한 번도 없어요. 보리 쌀이라도 들고 온 적도 없고, 그리고 어머니한테 용돈 만원을 타 본 적이 없었어요. 모든 것을 나 스스로 알아서 했고, 지금도 저는 빨래도 스스로 잘합니다. 세탁기에 안하고 손빨래를 하는데, 빨래 같은 것도 그 때 다 배웠어요. 이제 요령을 알아요. 손목 언저리하고 발목 같은 곳은 잘 비벼서 빨아야 해요. 그러니까 엄마에 대한 정이 없어요. 여자를 처음에 만났는데, 그런 걸 안 받아 주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여자한테 받은 상처가 너무 컸어요. 지금 한 20년간 여자를 만나지 않다가 이제서야 만났으니 얼마나 기대를 했겠어요.

상담자 40: 너무 빠지지는 마세요.

내담자 40: 빠질 수 있습니까까게. 나는 안 빠져요. 우리는 나이도 있지만, 나이가 벼슬이라고 나이가 드니까 그런 것이 자재가 되더라고요.

상담자 41: 그런데 나는 지금까지 나이를 헛 먹었던 것 같아요. 그래 가지고 그 전에는 좋은 여자 만나면 쪽 빠졌어요. 이상하게 여자와 이별을 하고 나면 상처가 엄청 크더라고요. 그런데 이제는 여자를 만나도 밥이나 먹고 데이트 해도 그냥 너무 깊이 안빠지고 “언젠가는 가겠지!”하고 만나니까, “또 그냥 뭐 또 그 때가 됐구나!”하면서 포기가 돼요. “내게 배신을 때리려고 하는구나!”하고 그런 나쁜 생각은 안들어요. 너와 나 죽을 때까지 같이 한 것도 아닌데 뭐 이렇게 생각하니까 편해요. 가던지 말던지...이것은 내 경험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자한테 너무 빠져 버리면 상처를 받으니까요.

내담자 41: 선생님 이야기가 맞습니다. 맞는 얘기고 저도 그것을 조심하기는 하는데, 뭐 이제 혼인 신고도 하고 살겠다면 어쩔 수 없잖아요. 그냥 친구처럼 지내다가 프리하게 헤어지는 것이고. 뭐 계속 혼인신고를 해 달라고 해요. 재산도 그 친구 이름으로 해 달라고 합니다. “지금 법에 걸린 것도 있으니까 떼고 와라. 그러면 해주겠다.”고 말을 했죠. 지금 그런 입장인데, 뭐 한쪽 발만 들여 놓을 수도 없고요.

상담자 42: 그러니까 혼인신고 안하고 사는게 좋아요. 나중에 호적이 정말 지지분해지니까요. 한 번 호적에 올렸으면 됐지...

내담자 42: 뭐 솔직히 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좋은 건 그냥 좋은 거요, 헤어지든 말든 오늘 무슨 말인지 잘 알겠습니다.

상담자 43: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기분이 상하지 않았어요?

내담자 43: 그건 괜찮습니다. 배우고 가기 때문에요. 나한테 좋은 걸 하지 말라 하는데요.

상담자 44: 그런데요, 그 여자 입장에서는 오랜만에 좋은 남자를 만난 것 같을 거예요. 성질은 나도요. 왜냐하면 을목(乙木) 일주 남자를 만났으니까 무토(戊土)에게 을목은 관(正官)인데, 을목이 들어오니까 좋지요. 그런데 그게 언제까지 가느냐가 문제지.

내담자 44: 언제까지 가느냐는 그 친구하기에 달려 있어요. 인중이 긴 사람치고 절대 배신하는 사람은 없어요. 나는 아직까지 내가 먼저 떠난다거나 하는 어떤 일에도 그런 일은 없었어요.

상담자 45: 본인은 좀 생각이 있어요. 지혜롭게 생각해 가면서, 내 안에 생각이 있어요. 생각이 깊으신 분이예요. 머릿도 잘 돌아가고요. 왜냐하면 해수(亥水)에 계수(癸水)가 많은 사람들은 지혜로워요. 어디가서 절대 피해를 주는 사람도 아니고, 네 맞아요.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예의도 바르고 어디 가서 남한테 당하고 이러지도 않는 사람이예요.

내담자 45: 조금 전에 옆에 분하고 죽는다는 걸 이야기를 하실 때, 저한테는 강하게 들리더라고요. 선생님, 손님한테 죽는 날을 꿈는다느니 그런 것은 이야기 하지 마세요. 죽는 날에 대한 이야기만은요. 그런 이야기는 듣고 싶지 않거든요. 비록 내일 죽는 다고 해도요.

상담자 46: 아~ 미안합니다. 그건 손님 이야기가 아니라, 내 사주이야기고요. 손님이 예를 들어서 손님이 죽게 생겼단 말이에요. 손님한테는 그런 말은 못해요. 사주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절대로 하면 안되죠. 가끔 나이드신 연로하신 부모님 건강을 걱정해서 자녀들이 물으러 온다면, 그럴 때는 “병원에 자주 모시고 다니세요.”라고 말을 해주지요. 그런데 딱 봐서 죽을 때가 보이는 사람도 있어요.

내담자 46: 그럼 선생님 와이프하고 그런 부분은 이런 공부하면서 알게 되신 부분이네요.

상담자 47: 이런 공부를 하다가 보니까 이제는 내 팔자를 잘 알지요. 여자가 떠난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나 같은 경우는 여자한테 정을 잘 안 줘요. 그러니까 여자한테 내 마음을 완전히 주지 않지요. 왜냐하면 내 사주에는 여자복이 없고 여자들이 언젠가는 갈 것이니까, 그걸 아니까...

내담자 47: 우리는 정을 잘 줍니다. 어릴 때 부모에게 정을 못 받아 컸고, 저는 정에 약해요.

상담자 48: 난 정을 안 줘요. 원래 을목(乙木) 일주가 멜랑콜리하다 하지요. 음악도 좋아하고 산도 잘 다니고 말이죠.

내담자 48: 춤은 못 추는데 노래는 잘 부릅니다.

상담자 49: 그리고 재주가 있다니까요. 그런데 을축(乙丑) 일주 이런 분들은 산으로도 많이 다니시고 기도도 해야 해요. 여자 같으면 관고(官庫)를 깔고 있으면 과부(寡婦) 팔자로 좋지 않지만, 남자 사주에 관고에 신금(辛金)이

있으면 내가 관(官)을 잡고 있기 때문에 요직에서 근무를 할 수도 있어요. 남자는 그런대로 괜찮아요.

내담자 49: 그래서 우리는 산을 좋아합니다. 기도하고 빌고 그런 거는 좋아하지 않아도 가끔 천왕산은 한 번씩 갑니다.

상담자 50: 본인은 해수(亥水)가 있기 때문에 술해(戌亥)는 천문(天門)이 열려 있다고 봅니다. 산에 가서 공을 들이거나 기도를 하는 것은 나쁘지 않아요. 괜찮아요.

내담자 50: 감사합니다. 1인당 2만원이라고 하셨나요? 4만원 여기 있습니다.

라. 명리사주분석적 사례개념화를 통한 내담자 이해

1) 건명(乾命)의 명리사주분석

【사례 1】에서 건명인 내담자의 사주팔자를 분석해 보자. 대운상 11-21대 대운은 신유(辛酉), 경신(庚申) 대운으로서 관(官)적인 일은 잘 발달되어 있다. 천간과 지지가 관의 기운은 탄탄하고 간여지동(干如之同)으로 관적인 일, 직장이든 사업이든 탄탄한 직업을 가질 수 있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원래 이 사주의 내담자는 을목(乙木)으로서 편재인 축토(丑土)가 배우자 궁에 잘 위치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주원국과 달리 대운의 지지가 미(未), 오(午), 사(巳)로 흘러 가면서 배우자 궁과 축미(丑未) 형(刑), 축오(丑午) 원진(怨嗔), 사축(巳丑) 삼합(三合) 등이 되기 때문에 배우자 궁의 변화와 변동을 예측할 수 있다.

재성(財星)은 남자에게 여자, 돈, 아버지를 의미하기 때문에 그것에 해당하는 육친과의 인연에 있어서 우여곡절이 따를 수 있는 구조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21 기미(己未) 대운은 편재(偏財)의 대운이다. 정재(正財)가 월급을 벌어들이는 것처럼 정기적이고 규칙적인 돈벌이를 추구한다면, 이와 달리 편재의 성분은 한탕주의처럼 사업적인 마인드를 가질 수 있고, 한꺼번에 많은 재물을 득하고자 하는 성분일 수 있다. 이럴 때는 잘 다니던 직장을 버리고 큰돈을 벌어들이고자 하는 마음이 클 수 있기 때문에 직장을 포기하고 사업을 하려고 한다든지, 돈을 벌고자 하는 욕심이 생길 수도 있다. 대운이 잘 흘러가면 큰 돈을 벌수도 있겠으나, 이 내담자에게 축미형(丑未刑), 축미충(丑未沖)으로 형도 되고 충도 되는 시기가 된다. 이 때는 배우자의 관계에서 이혼 등으로 소송이나 형살이 불거질 수 있어서 그러한 부분의 변동수를 예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31 무오(戊午) 대운은 정재(正財)인 무토(戊土)가 제왕(帝旺)의 위치에 있으므로 결혼생활이 가능한 시기로 볼 수 있으나, 이때도 배우자 궁이 축오원진이 생기게 되므로 명목상의 부부이나 원진살(怨嗔殺)의 여파로 눈을 부랄일 일들이 생기게 되는 상황이 생기거나, 배우자 관계에서 재물 등으로 인한 심리적 피곤함 등 갈등을 유추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배우자 뿐만 아니라, 금전적·재물적인 면에서도 여러 풍파가 있을 것으로 예측이 된다. 재물 부분에서도 여러 갈등이 있을 수 있다. 설상가상(雪上加霜)

으로 월주(月柱)를 무계합(戊癸合)하면, 나의 돈과 계수(癸水)인 편인(正印)이 합을 하여 사합으로 묶이게 되면서 돈과 문서상의 불편함을 느낄 수 있다.

이처럼 내담자는 이러한 상황에서 내담자도 말하고 있듯이 이혼의 경험을 맞보았을 수도 있을 것이다. 천간의 계수(癸水)는 무계합(戊癸合)이 된다. 이러한 상황은 을목(乙木) 일간에게 계수는 편인(偏印)으로 문서나 글과 학문, 어머니로 표현이 가능한데, 계수와 무토(戊土)인 편재(偏財)가 묶이는 사합(死合)의 구조를 갖는다. 사합은 묶여서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현상으로 말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으로는 재산이나 집 등 이혼소송으로 인해 재물을 날리는 상황이 될 수 있다.

내담자는 사주의 구성상 정인(正印)과 편인이 여럿이다. 이렇게 인성(印星)이 많은 사주구조는 모친이 많은 상황이라 볼 수 있다. 부친의 외도로 인해 새 어머니를 맞을 수 있기도 하다. 구체적으로 그러한 가족사를 통해 그의 인생에 있어서 많은 왜곡사가 있었을 법하다. 인성인 어머니가 ‘많다’는 의미는 ‘없다’라고 표현할 수 있다. 혹은 ‘인성이 많다’라는 의미는 부모도 재혼 등을 할 수도 있겠으나, 본인도 그러한 환경으로 갈 수 있는 상황도 될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인성이라는 인자는 나를 돕는 육친으로 설명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이 무리하게 많아서 사주의 주인공인 일간을 극신강(極身強)한 사주로 몰고 간다. 너무나 비대하기 때문에 모친은 그리 좋은 성분이 될 수 없을 것이다. 오히려 인성은 극신강한 나를 오히려 비대하게 하는 주요한 원인으로 서 일간에게 도움이 되는 용신(用神)이 아니라, 좋지 않은 기신(忌神)의 역할을 한다.

정리하면, 사주분석상 재성에 있어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부부이혼 등을 예측할 수 있을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인성이 많아 극신강한 사주구조를 보이므로 모친과 연관된 가족사가 있을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현상들은 모친의 집착이나 너무 과한 관심 등 내담자에게 심리적으로 압박감과 박탈감을 가질 수 있게 할 수 있다. 모친이 너무 간섭이 많거나 반대의 상황으로 전혀 사랑을 받지 못하는 형국이 될 수 있는 것이다. 현재 65세의 나이에 17세 연하의 이성을 받아들여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고민하고 있다. 그러나 이 건명에게 여자복은 크게 발복하기가 어려울 수 있을 것이다. 단지 운이 들어오면 만났다가 운이 나가면 헤어질 수 있는 사주의 구조이기 때문에 백년을 해로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 게다가 2018년 무술년은 재성이 입묘되는 해가 도래하기 때문에 재성에 대한 문제를 예측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숙명론적 해석을 받아들일지 아니면 포기할 것인지는 내담자 자신에

게 달려 있다. 지금 이 내담자는 갈등을 하고 있다. 이것이 나의 인연인지 아닌지 헛갈려하고 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혼의 실패경험, 모친으로 부터의 학대 경험을 통해 이성애에 대한 기대나 희망은 접은지 오래 되었다. 이 내담자는 스스로 자신의 팔자가 외롭고 여복이 없는 팔자임을 알고 있으나, 그래도 한가닥 희망은 남은 여생을 친구처럼 지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 보인다. 그러나 또다시 겪을 반복되는 좌절감과 패배감으로 상처받을 자신의 모습을 바라지 않기 때문에 포기해야만 하는지 이러한 양가감정속에서 우왕좌왕하고 불안해하며 명리상담을 요청하였다.

2) 곤명(坤命)의 명리사주분석

곤명(坤命)인 여명은 무토(戊土) 일간으로 비겁(比劫)이 중중(重重)하고 너무 많다(주미강, 2014). 사주원국 상 관성(官星)에 해당하는 목(木)이 없다. 즉, 무관성(無官星)으로서 남자 복이 없는 사주이다. 목은 무토 일간에게 남편이나 애인에 해당하는 육친이다. 게다가 비견과 겁재가 많다는 의미는 나와 어깨를 나란히 견줄만한 친구나 경쟁자가 많다는 의미이다. 만약 이 여명(女命)이 운에서 인연이 되어 남자가 들어 온다고 해도 워낙 사주원국에도 없기 때문에 관성운(官星運)이 들어오면 이성이 생겼다가 운이 나가면 없어지는 형국이 될 수 있다. 술토(戌土)는 을목(乙木)의 고장지로서 사별도 예측이 가능하다. 소위 “남자 농사가 힘들다.” 관운이 들어 온다고 해도 비겁의 경쟁속에서 빼앗기기가 쉽다.

무진(戊辰) 일주는 그 자체로 홍염살(紅艷殺)이 있어 보지 않아도 콧이 얼굴이 미인이 아니더라도 보면 볼수록 매력이 넘치는 상을 가질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안태욱, 2012 재인용: 388). 비겁이 중중(重重)하기 때문에 이 여명에게 식상인 경금이 용신의 노릇을 할 것 같다. 너무 많으면 일간은 사주의 중화를 위해 부단히 노력을 할 것이기 때문이다. 최근 취득하기 어렵다고 하는 부동산 자격증을 따서 부동산 중개업을 하고 있는 중이다. 무토(戊土) 일간에게 토(土)의 기운은 땅이라 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무리하게 많은 토의 기운은 설기(洩氣) 되어야 하므로 땅을 매매하거나 토목, 건축 등의 일과 인연이 있을 수 있을 것이다.

44 을해(乙亥) 대운에서 천간은 을경합(乙庚合)을 한다. 이는 나의 정관인 남편과 식신인 경금(庚金)이 사합(死合)을 하여 제 역할을 못하고 묶이는 역할을 하니, 그것으로

인한 인생의 굴곡사가 펼쳐질 것으로 예상이 된다. 이러한 사주의 정황상 여자는 사별한 남편과 관련해서 12- 13억의 큰 돈에 보증을 선 관계로 지금까지도 소송중에 있다. 그래도 2018년 기해년에는 천간으로 기토(己土)인 겁재(劫財)가 들어오고, 지지(地支)로는 해수(亥水)가 들어온다. 일지(日支)가 진해(辰亥) 원진(元噴)으로 돈을 가지고 눈을 부랄일 일들이 예상된다. 결과적으로 이 여명도 사실상 ‘남편복이 없는 형상’으로 그것으로 오는 관성의 풍파가 예상이 된다. 자고로 비겁이 많다고 함은 남편이 있어도 남에게 빼앗길 수 있는 상황일 수 있으며, 이혼, 사별 등 여러 번의 인연이 올 수도 있다(남덕, 2004; 김인순, 2014; 남기동, 김만태, 2018). 과유불급(과유불급)이다. 즉, 너무 많으면 없는 것만 못하다. 사주의 중화(中和)를 위해 이 여명은 올 끝은 남편 자리를 찾아 헤매는 신세가 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을 것이다.

2. 명리상담사례에 대한 슈퍼비전(Supervision)

여기서는 앞의 【실제사례 VII- 1】의 명리상담을 바탕으로 서양상담자의 입장에서 느끼는 상담에 필요한 요소들을 파악하고 정교화 하기 위한 작업으로서 슈퍼비전을 할 것이다. 슈퍼비전은 상담자가 자신의 상담사례를 가지고 상위 상담감독자인 슈퍼바이저(Supervisor)에게 상담의 질적 향상을 위해 지휘감독을 받는 일이다. 슈퍼비전을 통해 상담자는 슈퍼바이저로부터 상담에 대한 지식, 이론적 접근, 상담자의 내담자를 바라보는 관점 등 여러 부분에서 조언을 받을 수 있다. 내담자를 심층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상담에 대한 사례개념화, 주요 상담이론을 통한 내담자 이해 명리상담의 장점과 단점 등 슈퍼비전하여 기존 철학관상담이 어떠한 방향성을 가지고 질적 향상을 할 수 있을지 검토해 볼 것이다. 이러한 탐색과정은 ‘명리학 기반 한국형 단기상담 모형’을 구안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가. 서양상담의 사례개념화

사례개념화(caseconceptualization)란 내담자의 주호소 문제와 관련 있는 다양한 정보를 통해 현재까지 내담자의 문제가 지속되는 원인과 경로를 가설적으로 검토한 후, 내담자의 주호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상담전략을 수립하는 일련의 과정이다(이명우 외, 2005). 이는 상담을 하기 위한 설계도면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내담자 문제의 성격과 원인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통해 상담목표와 개입전략 수립에 필요한 방향성을 제시하는데 있다(민병배, 2011).

사례개념화를 위해서 ①상담자가 파악한 내담자 문제의 성격은 무엇인가? ②문제가 생기게 된 경로나 문제의 기원은 있는가? ③내담자의 문제를 지속시키는 ‘내적 역동’은 무엇인가? ④내담자의 문제를 지속시키는 ‘외적 역동’은 무엇인가? ⑤ 문제의 해결이나 극복을 위해 내담자가 필요로 하는 것은 무엇인가? 등의 요소들이 갖추어져야 함을 지적하고 있다(이명우 등, 2011; 권석만 등 역, 2002). 이러한 사례개념화를 위한 요소별로 그 의미를 살펴볼 것이다.

1) 내담자 이해

가) 상담실을 찾아온 이유

이 내담자가 상담실을 찾아온 이유는 이렇다. 그는 지금까지 60-70평생을 살아오면서 여자에 대한 한(恨)이 많았다. 특히 여자들로 부터 받은 상처가 너무 커서 이혼 후 20년 동안 혼자 살아왔다. 그러나 이제 자녀들은 모두 성장하고 시집, 장가도 가고 좋은 직장 다니고, 돈도 많이 벌고 있다. 본인도 혼자 돈벌이로 부동산업을 하면서 지낸다. 여자를 다시 만나면 실패를 거듭할 것이라는 부담감과 쓴 고배를 여러번 되풀이 하면서 마음에 상처가 컸었다. 이젠 그러한 외롭고 쓸쓸한 모습에서 벗어나 좀더 자유롭게 남들처럼 이성과도 좋은 생활도 누리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 그는 늦은 나이이지만 앞으로 남은 여생은 지금까지의 외로움을 떨쳐 버리고 새로운 삶을 찾기를 희망하고 있다. 혼자 사는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골프 같은 운동도 하면서 말년에 친구처럼 함께 할 사람이 생기기를 바라고 있다.

나) 상담자가 보는 내담자의 성격

내담자는 시골에서 자랐다. 그는 학창시절에 낮엔 직장 다니고, 밤에는 학교를 다니는 등 열심히 자수성가를 하며 살아왔다. 밤 12시에 집에 와서 피곤함을 무릅쓰고 손빨래까지 하고, 다음 날 새벽 6시에 직장을 다니면서 성실하게 살아왔다. 내담자는 그렇게 남의 도움 한번 없이 자수성가한 사람이다. 그의 어머니는 한번도 그가 뭘 먹고 다니는지 잠을 자는지, 뭘 입고 다니는지 관심을 준적이 없었다. 그때만 해도 사실 16살, 17살로 너무 어린 나이였기에 그 당시 모친으로부터 정서적 박탈감과 모친에 대한 애정 욕구에 대한 불만족 때문인지, 그 시절에 대한 기억이 없을 정도이다. 그렇게 힘들게 학교로 직장으로 돈을 벌면서 다녔어도, 모친은 보리쌀이라도 들고 와서 보살피주는 일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용돈 만원을 타 본 적이 없었다. 모든 것을 스스로 알아서 해야 했었다. 그런 상황때문에 내담자는 모친에 대한 정(情)이 없다. 그런 아픔을 경험한 내담자는 성격이 온화하고 불쌍한 사람을 못보고 지나간다. 현재 교제중인 여성이 불쌍해 보이며, 사기사건으로 법적 소송에 휘말려 있고 남자관계로 복잡한 그녀를 볼봐 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러나 이 내담자는 이 여자에 대해 안스러움과 함께 측은지심(惻隱之心)을 갖고 있다.

다) 모친의 학대경험으로 인한 ‘애정 결핍에 대한 욕구’

명리상담자가 상담의 결과로서 그리 발전적이고 긍정적인 답변이 아니라, “갈 때까지만 가라”고 직면같은 조언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7세의 내담자는 새로 만난 여성에 대해 미련을 가지고 있다. 또한 지금의 만남이 긍정적인 만남이 될지 아니면 그렇지 않을지 희망과 기대를 하고 있다. 내담자는 성장하는 과정에서 직장과 학업을 병용하면서 용돈을 한번도 집에서 받아 보지 못했다고 하면서 혼자 어렵게 돈도 벌고 손빨래까지 하면서 모친으로부터 애정이라곤 전혀 모르고 살아 왔음을 토로한다. 즉 모친에 대한 결핍된 애정욕구를 말하고 있다. 그와 모친 사이에 형성된 핵심감정은 아마도 현재에도 여성과의 관계속에서 지속될 수 있다.

모자란 모친의 애정을 얻고자 만나는 이성에게 대리만족으로 결핍된 사랑을 늘 그리워 할 수 있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그 이후 결혼을 했는데, 그런 걸 첫 아내가 전혀 받아 주지 않더라고요. 저는 여자한테 받은 상처가 너무 커서, 한 20년 동안 여자를 만나지 않았죠.” 내담자는 고통후에 오랜 기다림을 거쳐서 67세의 나이에 자신의 마음에 드는 새로운 이성을 만난 것이다. 이처럼 성인 애착의 불안 수준이 높은 내담자들은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작동 모델을 가지고 자기비판적이 된다. 그리고 자신의 고통을 과장되게 느끼며 그러한 부정적 경험이 자신에게만 일어난다고 인지의 오류를 갖는 등 낮은 자기자비 수준을 보이게 된다(하진의, 2013).

(1) 내담자의 무의식 속에 나타난 여성상 ‘아니마(Anima)’

이 남자 내담자는 어린 시절의 성장 배경상 모친의 학대경험을 통해 무의식적인 내안의 여성상인 아니마(Anima)에 있어서 왜곡된 여성상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초등학교 때 모친의 학대로 인해 소막인 외양간에서 자살을 시도해 볼 정도로 모친과의 갈등이 심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어떠한 이유로 어린 나이에 자살을 시도하고자 했는지 구체적으로 들여다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내담자를 이해하는 측면에서 ‘구체화를 위한 개방형의 질문’은 필요해 보인다. 왜냐하면 무의식에 자리잡고 있는 아니마는 대체로 모친의 모습을 반영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형성된 아니마의 형상에 따라서 왜곡된 방식으로 여성에 대한 편견이나 가치관이 가질 수 있다.

이 내담자는 무의식 안에 존재하는 여성상인 일그러진 아니마를 갖고 있다. 세상을 바로 보는 것보다는 여성을 보는 눈이 남다를 수 있다. 왜냐하면 이 내담자는 모친으로부터 학대를 받아왔으며, 거절경험, 수용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며 어린시절을 보냈다. 단 한번도 모친의 사랑은 없었다. 죽고 싶을 만큼인 것 같다. 초등학교 때인 9-10살 정도에 자살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길 정도였다. 남자의 무의식 속에 나의 여성에 대한 상인 ‘아니마’는 보통 모친과 연관이 있을 수 있다. 모친의 드세고 강하고 거친 무서움보다 그와 반대의 포근하고 정겹고 편안하게 나를 받아주고 내 안의 상처를 어루만져 줄 여성을 그리워 할 수 있다. 아니마의 왜곡이 지나치면 지나칠수록 자기부정이 강해지고 상대자에 한해서는 그에 반대되는 상대를 끊임없이 원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2) 이성에 대한 불안감(Anxiety)과 불신감

가뜩이나 모친에 대한 애정 결핍과 학대 경험은 첫번째 여성과의 결혼 실패에서 여자에 대한 믿음보다는 ‘불신감’의 심리도식을 갖는 중요한 사건이 되면서 내담자는 거절경험과 패배감을 가질 수 있다. 일반적인 사람들에 비해 심리적인 상처가 클 수 있으며 이성에 대한 불안감(Anxiety)은 높을 수 있다. 이성인 여자와의 관계는 늘 모친에게 느꼈던 유기 도식이나 거절 경험이 되살아 날 가망성이 있으며, 이로 인한 불안증이 도사리고 있을 수 있다. 현재 67세로서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는 ‘무슨 여자를 그 나이에 만나고 싶을까?’하는 의문이 들 수 있다. 20여년을 혼자 살아온 내담자는 나이가 17세 연하의 어린 여성을 맞이 하고 싶은 소망과 욕구는 있다. 그러나 그것에 대해 내담자는 늘 불안하고 위협스럽다고 느끼고 있으며 두려움, 불신감의 심리도식 등 자동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첫번째 결혼도 실패하고 수차례 여자복이 없었고 내가 생각했던 것 만큼 나를 따뜻하게 안아주는 배우자는 단 한번도 없었다. 지속되는 여자에 대한 실패경험은 내담자에게 있어서 좌절과 함께 모친으로부터 거절 경험을 재반복하며 예기불안을 갖고 있다. 내담자 35에서 그는 7남매 중 네 번째로 “어머니에 대한 정을 느끼지 못하고 살았어요.”라고 고백을 한다. 늘 애정결핍이었다. 이러한 심리도식은 평생 내담자를 따라다니며 괴롭힌다. 내담자는 늘 양가감정에 시달리며 살고 있을 것이다.

(3) 투사적 동일시

【실제사례 VIII- 1】에서는 자신의 어릴적 수용받지 못하고 모친으로부터 늘 학대 받아 슬퍼하는 내안의 어린 자아가 있다(오재은, 2004). 내담자는 67세의 나이에 17세 이상 차이가 나는 여자친구를 보면서, 어릴 때 학대를 받고 있으며 소막에서 자살까지 시도를 하려던 아이를 ‘투사적 동일시’하고 있다. 여자 친구는 늘 세파에 시달리며 살아왔다. 돌봐줄 가족하나 피붙이 하나 없는 상황을 가슴 아파하며 연민의 정을 느낀다. 빗 보증을 잘못 서서 10억 이상의 빚을 남긴 상태로 당사자는 사망하였다. 남은 사람은 보증인인 여자 친구뿐이다. 그녀는 여전히 법정소송에 휘말려 있고 경제적 고통을 그대로 지고 살고 있으며, 현재에도 늘 끌려다니는 형국이다. 남자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많은 인연도 있었고 시달려 왔다. 이런식으로 동거녀는 남자문제로 복잡하고 다른 남자들로부터 사기를 당하기도 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내담자는 자신의 모습을 투사하면서 상처를 받고 있는 자신의 모습으로 ‘투사적 동일시’의 감정을 갖는다. 늘 못 남자들로부터 상처를 받고 소외되고 버려진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안스럽게 여자친구를 생각한다. 내안에 버려져 울고 있는 나를 보는 것처럼 느끼고 있다.

그는 67세까지 살아오면서 ‘여자복이 없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다. 내담자 42에서 “뭐, 솔직히 하고 싶은 생각도 없어요.”라고 상담자에게 말한다. 그는 늘 실패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만난 여자 친구도 내 짝이 아닐 것이라는 것을 무의식적으로 알고 있다. 내담자는 자신의 생각이 맞는지 확인하고자 숙명적인 한계를 알고 싶어 조언을 구하고자 상담을 요청했는지도 모른다. 이러한 양가 감정 속에서 그는 헤매고 있고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 혼동을 겪고 있다. 마치 지난 날 내 주위에 아무도 없었던 외로운 아이를 자신이 구해 주어야만 한다는 측은함으로 여자친구를 자신과 ‘투사적 동일시’하고 있는 것이다.

(4) 양가감정

이 건명의 내담자는 두가지 감정을 갖고 있다. 이혼으로 인한 결혼생활의 실패, 나이가 67세임에도 현재 외롭게 살아오는 동안 모친으로부터 받지 못했던 결핍된 애정 욕구를 받아 주지 않았다는 사실을 가지고 있다. 상담 시작시 그는 외로워서 친구를 배우자로 들여야 하는지 묻고 있었으나, 내담자 42에서 말하듯, “뭐 솔직히 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라고 본심을 털어 놓는다. 이번에도 이 여성과의 인연이 긍정적이지 않을 것이라는 암묵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다. 자신의 팔자는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이번만은 진정한 나의 배필이었으면 하는 두개의 감정 사이에 있다. 늘 모친으로부터 받지 못했던 애정 결핍에 대한 욕구를 가지고 이번만은 자신의 판단이 맞지는 않을지 이성을 선택해야만 하는 선택의 기로에서 늘 반복되는 패턴속에서 방황을 하고 있다. 실패할 것이라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그는 사주의 결과를 듣기 위해서 상담실을 찾아왔다. 자신의 양가감정에 조금이라도 쏠리는 상황이라면, 이 내담자는 그 길을 선택할 수 있다(신성만 등 역, 2006, 2015). 이 내담자에게 자신의 숙명적 사주팔자에 대한 명리사주분석은 하나의 조언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새로운 이성을 배필로 맞아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는 이 내담자의 선택에 달려있다.

(5) 자신의 변화 의지

위와 같이 내담자가 부정적인 아니마상을 가지고 있는 경우의 심리적 작용은 현실적으로 배우자를 선택하거나, 이성을 대하는데 있어서 올곧은 판단이나 선택을 하는데 장애물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왜곡된 아니마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내담자는 스스로 자신의 문제를 볼 수 없다. 만약 내담자가 제3의 눈을 가지고 자신의 문제를 통찰할 수 있다면, 한 순간에도 지금까지 살아온 60-70평생 가지고 있었던 인지의 변화과정을 겪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는 지속하는 망상적인 희망에서 자신의 문제를 빨리 알아차리고 허무한 자기상으로 부터 오는 여자에 대한 기대감을 끊어 버릴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 “나는 여복이 없는 남자다.”라고 인정하는 일은 필요하다. 상담에서는 그러한 부분을 다룰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 후에 내려지는 결정은 내담자 스스로에게 달려 있을 것이다. 그 결정이 옳은지 그른지 그 결정에는 비록 내담자가 선부른 선택이라 할지라고 그것에 대한 책임은 내담자에게 있다(문창희, 2008). 그러한 실패의 경험은 훗날 새로운 선택의 기회에서 새로운 눈을 가질 수 있는 큰 경험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6) 자기(Self)의 소리

단순히 숙명적인 사주팔자의 해석과 조언은 소수의 내담자를 위해서 도움이 되지

않는 상담만은 아니다. 그러나 상담의 질적인 면에서 함께 깊이 통찰할 수 있다면 내담자는 혼자서 결정보다 더 지혜로운 판단,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내면의 소리인 Self 소리를 듣는데 한 발 더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물론 모든 내담자가 이러한 상담의 과정을 원하지는 않을 수 있다. 명리상담 【실제사례 VII- 1】 과 같이 단지 자신의 판단 이전에 최종적으로 의사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확인 절차로서 숙명적 운명에 대한 분석을 원한다면 그것은 그 내담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면 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내담자의 바른 선택을 위해 우리는 어떤 상담적 도움을 줄 수 있을까? 바른 선택은 이 내담자에게 어떠한 길을 가는 것이 바른 길인가? 늘 같은 심리도식으로 가는 상황을 발견할 수 있다. 좀더 ‘관찰적인 자기’가 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비록 이것이 인지적인 해석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여자는 나에게 모자라는 애정욕구를 채워주어야만 한다는 사실은 비합리적 도식일 수 있을 것이다. 아마 이 내담자는 일반적으로 모성욕구를 충족시켜준다고 해도 늘 모자라는 상황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 내담자에게 늘 반복되는 실패의 길에 이르는 반복패턴의 단절은 필요하다. 예컨대, 여자를 만나야만 결핍된 애정욕구를 채울 수 있는가? 이러한 식으로 반박을 하는 인지적 접근도 있을 수 있을 것이다. 인지치료는 글자 그대로 나의 비합리적인 사고를 합리적인 사고로 바꾸는 일이다. 이러한 방식이외에도 여러 가지 심리치료는 그 분야가 많다. 내담자에게 적절한 방식을 찾을 수 있도록 상담자의 융통성있는 배려가 필요할 것이다.

2) 내담자의 사례개념도

【실제사례 VII- 1】 내담자의 심리적 작동모델은 아래 그림 VII- 2. 와 같다. 내담자는 이성을 선택하는데 있어서 늘 양가 감정 속에 있다. 그는 첫 결혼의 실패, 지속되는 이성과 만남에서 원활하지 못한 관계들을 통해서 이성과의 만남을 회피해 왔다. 67세의 늦은 나이에 자신이 원하고 바라던 이상형의 이성을 만났고, 그는 다시 양가감정으로 갈등을 하고 있다. 새로운 관계를 갖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헷갈린다. 이제까지의 작동 모델에 의하면, 기존과 같은 패턴으로 이성을 선택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불운하게도 그 만남에서 다시 모친으로부터 박탈되고 학대경험을 보상받고자 하지만 실패를 거듭하게 된다. 그리고 그는 다시 좌절경험을 통해 다시 외롭고 쓸쓸하고 공허한

생활이 될 것이다. 숙명적 명리사주분석을 통해서도 이성에 대한 운이 좋지 않다. 아쉽게도 내담자는 이러한 숙명적인 과정과 절차를 통해 그림 VII- 1.과 같이 늘 반복하는 행동양식을 보일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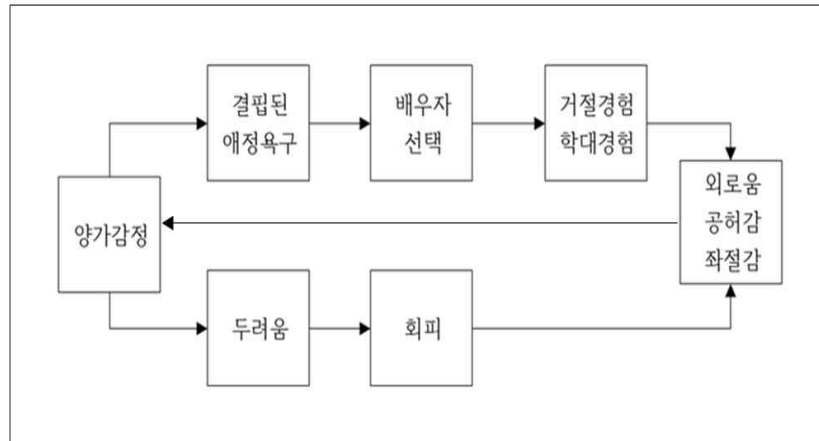


그림 VII- 1. 【실제사례 VII- 1】의 사례개념도

이처럼 내담자는 상담을 하기에 앞서 내담자의 문제를 바탕으로 집을 짓는 설계도면과 같은 사례개념화를 수립해야만 한다. 이러한 작업은 상담이 어떠한 방향성을 가지고 나아가는지를 설명해 줄 수 있다. 여기서는 상담자가 보는 내담자의 성격, 문제의 기원 및 경로, 내담자의 문제를 가속화시키는 ‘내적 역동’, 문제해결을 위한 내담자의 동기 등(이명우, 2011)을 통해 실제 명리상담을 조명해 보았다. 이러한 작업은 단순히 운명적 해석만 하는 상담이 아니라, 내담자를 심층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상담이 되어질 것이다.

나. 서양 상담이론을 통한 내담자의 이해

명리상담에서는 감정이나 불안을 다루기 보다는 답만을 제시하고 있다. 여성과의 결과가 그리 긍정적이지 않고 인연이 오래가지 않음을 단도직입적으로 지적하고 있다. 만약 상담을 좀더 풍부하게 한다면 이러한 서양상담의 사례개념화를 바탕으로 내담자의 감정다루기를 통해 자신의 핵심감정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도록 자기이해 및 통찰 치료를 병행한다면 좀더 상담의 내용면에 있어서 풍부해 질 수 있을 것이다. 서양상담적 관점에서 상담전략을 세워보자. 상담을 풀어 나가기 위해서 다양한 접근들이 있을 것이다. 상담자의 전문적 상담기술과 심리치료 방식, 세상을 바라보는 인식들에 따라 내담자를 이해하는 방법은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보는 방식에 따라서 다양한 접근이 가능하다. 여기서는 주요 서양상담 이론으로서 프로이트의 정신분석적 입장, 인지행동적 입장, 칼 로저스의 인간중심 상담, 게쉬탈트 상담을 바탕으로 【실제사례 VII- 1】의 내담자를 바라보는 상담 전략을 소개할 것이다.

1) 정신분석적 접근

정신역동적 치료자들은 미국 정신의학회에서 발행한 정신장애의 진단 및 통계편람(DSM)에 제시되어 있는 장애의 진단 기준에 따라서 내담자를 이해하지 않는다(권석만 등, 2015). 훌륭한 치료자는 내담자를 복합적인 전체로서 파악한다. 약점 뿐만 아니라, 강점을 지니고 있고, 병리적 증상과 더불어 건강한 측면을 지니고 있으며, 잘못된 현실인식뿐 아니라, 최악의 상황에서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울 만한 현실 판단력을 지니고 있는 존재로서 가슴을 통해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권석만 등 역, 2015). 이렇게 인간인 내담자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연령, 성별, 성적 기호, 인종, 민족, 국적, 교육배경, 병력, 과거의 치료경험, 사회적 경제적 지위, 직업, 주거환경, 책임감, 종교적 신념 등 내담자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를 종합하여 내담자의 심리적 증상이 잘 이해가 될 수 있도록 하나의 줄거리인 사례개념화를 만들 수 있다. 그렇게 사례개념화를 통해 내담자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게 되면, 그것에 따르는 상담전략을 통해 건강함을 되찾을 수 있도록 상담 및 심리치료 방법을 계획할 수 있을 것이다.

가) 정신분석 상담이론

Freud(1856-1939년)에 의하면 인간의 행동은 비합리적이고 생물학적인 동기인 추동(drive)으로서 성적 에너지인 리비도(libido)와 죽음의 본능(thanatos)의해 좌우된다. 정신분석 상담에서 추구하는 건강한 인간은 본능, 즉 리비도가 개인과 종족의 생존추구라는 본연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한다. 동시에 그 본능이 초래할 수 있는 파괴적인 영향을 최소한으로만 받으며 살 수 있는 사람을 의미한다(김계현 등, 2011). 정신분석 상담에서는 인간의 외적인 감정 혹은 생각은 외부환경이 아니라, 인간의 내면적인 것에 원인을 둔다. 정신적으로 건강하다는 의미는 억압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원시적 성욕이나 공격성에 압도되지 않으면서도 만족을 얻도록 잘 조절하는 상태를 말한다.

프로이트는 인간 정신의 구조를 크게 의식(conscious), 전의식(pre-conscious), 무의식(unconscious)으로 나누었다. 의식은 글자 그대로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면 인식할 수 있는 정신의 영역이며, 전의식은 기억의 저장고에 있는 영역으로 쉽게 회상되지 않지만 지속적으로 주의를 기울이면 알 수 있는 정신세계의 영역에 속한다. 마지막으로 무의식은 빙산의 아래 부분처럼 의식 선상에서는 알아차릴 수 없는 정신의 영역이다.

그리고 성격은 원초아(id), 자아(ego), 초자아(superego)로 구분되었다. 원초아는 본능적 욕구에 충실하며 쾌락의 원리(pleasure principle)를 따른다. 원초아는 외부의 현실과 타협을 하지 않고 주관적 현실과 내부의 본능적 욕구에만 충실한다. 이는 무의식의 영역에 있기 때문에 잘 인식되지 않는다. 이에 비해 초자아는 도덕적 자아로 불려 지는데, 이는 사회적 현실에서 도덕적 잣대로서 원초아가 본능적 충동과 대립되는 개념이다. 이러한 이드와 슈퍼 에고의 갈등상황 속에서 에고는 적절하게 현실적인 타협도 하고 인간의 무의식의 영역과 의식의 도덕적 자아가 하는 일을 규제하고 균형을 이루도록 발란스를 유지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한편, 프로이트의 심리·성적(psycosexual) 발달이론에서 인간의 성격발달은 생후 5-6세에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결정론적 세계관을 갖고 있다. 이러한 관점은 평생을 거치면서 사회의 역할과 환경 등, 상호작용을 통해 발달이 이루어진다고 주장한 에릭 에릭슨의 심리사회적(psycosocial) 발달이론과는 사뭇 다르다고 말할 수 있다. 프로이트는 구강기(oral stage: 0-1세), 항문기(annal stage: 1-3세), 남근기(phallic stage: 3-6세), 잠재기(latency stage: 6-12세), 성기기(genital stage: 12-18세)의 단계를 통해 성격이 발달한다고 주장하였다(장미경 등, 2019).

이러한 이론을 바탕으로 상담자는 내담자의 발달과정의 각 단계에서 이루어져야 할 주요 과업을 제대로 이루었는지 아니면 퇴행(regression)을 하여 고착(fixation)되어 심리문제가 발생하지 않는지 탐색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내담자의 갈등과 호소문제의 원인을 발달의 맥락에서 파악하고 내담자의 문제에 영향을 주는 주요 원인에 대해 가설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상담의 설계도면으로 볼 수 있는 사례개념화를 만드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상담자는 중요한 갈등의 지점에서 내담자가 내린 의식적, 무의식적 결정을 탐색하고 그러한 위기의 상황에서 채택한 해결방식을 이해하여 현재의 행동을 이해하는 틀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인간이 경험하고 있는 불안은 다양하다. 이러한 불안함에 대해 스스로 자신을 보호하려는 심리적 기제를 우리는 방어기제(defense mechanism)라고 말한다. 방어기제는 인간이 경험하는 다양한 불안에서 자아(ego)를 보호하려는 심리적 기제인데, 프로이트의 딸인 안나 프로이트(Anna Freud)에 의해 정리되었다. 방어기제는 그 자체로는 부적응적이라 할 수 없고 상황에 맞지 않거나 너무 고착된 형태로 사용될 때에만 부적응적인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박성수, 김창대, 이숙영, 2000). 그리고 불편한 감정을 직면하는 것이 고통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이러한 불편한 감정들을 다른 측면으로 돌려 감정으로 벌어질 수 있는 불편감을 피하기도 한다. 그러나 그것은 자신의 감정을 회피하는 것이므로 억압을 하거나 회피를 하는 것으로 진정한 감정의 해소방법은 아닌 것이다.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라면, 자신이 일부로 희생을 한다든지, 삼각관계를 만들어 이 사람도 저 사람도 실망시키지 않으려고 노력하기도 한다(김용태, 2015).

방어기제의 종류로는 높은 적응수준으로서 이타주의, 자기 주장, 유머, 승화, 억제 등이 있으며, 정신적 억제 수준으로는 전치, 주지화, 감정의 분리, 반동형성, 억압, 복구 등이 있다. 가벼운 이미지 왜곡 수준으로서 평가 절하, 이상화, 진능감 등을 말할 수 있을 것이며, 부인하는 수준은 부인, 투사, 합리화 등이 있다. 주요 이미지 왜곡 수준의 방어기제는 자폐적 공상, 투사적 동일시, 자신이나 타인에 대한 이미지 분열 등이 있으며, 행동 수준의 방어기제는 행동화, 수동 공격성 등으로 말할 수 있다. 고차원적인 방어기제를 쓰는 사람들이 사회에서 성공할 비율이 높다는 하버드대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도 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여러 가지 방어기제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김홍규, 2003).

정신분석 상담의 목표는 내담자의 무의식적 갈등을 자유연상 등의 기법들을 통해

의식의 영역으로 떠올려 내담자로 하여금 통찰하게 하는 것이다(김계현 등, 2011). 가끔 내담자가 살아오는 과정상 권위적인 인물로서 상담자의 행동이나 말, 의사소통 방식, 태도에 전이반응을 일으키기도 한다. 오히려 상담자는 그러한 내담자의 모습을 통해 상담자 자신도 역전이를 하는 등의 관계로 악화될 수도 있다. 그러나 상담자는 이러한 내담자와 상담자 사이에서 벌어질 수 있는 전이와 역전이의 관계를 잘 응용하여 내담자의 무의식적 갈등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방식의 상담이다 보니 내담자는 수동적인 측면이 많고 상담자는 해석, 자유연상, 꿈분석, 내담자의 저항 및 전이에 대한 분석을 하게 된다.

이처럼 방어기제를 파악하는 일은 정신분석 상담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내담자들은 일반적인 상황에서 자신의 방어기제를 자유롭게 사용하며 무의식적인 심리적 불안(Anxiety)을 줄여 나간다. 그러나 과거 성장 과정상 밟아야 하는 각단계에서 제대로 과정을 거치지 못하면, 미해결 문제로 남아서 성격적으로도 퇴행을 하고 고착이 된다. 예컨대 항문기 시기에 제대로 된 과정을 겪지 못한다면 현실에서 그러한 문제로 갈등 소지가 생기게 된다. 이때, 내담자는 자신의 방어기제를 탄력적으로 융통성을 갖지 못하고 경직된 행동을 하게 된다. 이것은 심리적 문제를 일으키게 되며 본인도 모르는 무의식적인 갈등을 통해 그러한 불안감을 여러 가지 증상으로 표현을 하게 된다(이유경, 2001).

나) 【사례 1】의 정신분석적 접근

우리는 늘 불안하다. 불안감의 원인에 대해서 프로이트는 우리가 엄마로부터 분리될 때 ‘불안’을 경험하게 되며 이것 때문에 생기게 된다고 말한바 있다. 엄마의 따뜻한 보살핌 등의 양육환경에서 아기는 자신이 특별하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전능의 환상을 경험한다. 이는 곧 자기애(Narcissism)가 생김을 의미하는데, 자기애는 자신이 특별하고 중요한 사람이라고 느끼는 자기를 사랑하는 감정으로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건강한 자기애는 건강한 성격을 만드는 초석이 된다. 아기가 배가 고파 울고 있을 때, 부모가 신속하게 젖을 주는 환경, 아기가 필요할 때, 원하는 것을 제공받은 아기는 부모와 안정된 애착관계 뿐만 아니라, 최소한 부모와의 관계에서는 건강한 자기애를 형성할 수 있을 것이다. 반대로 양육 초기 경험에서 얻지 못한 자기애는 평생을 따라 다니면서 상대인 대상자에게 그 부족한 애정의 결핍부분을 채우기를 바랄수 있다. 이는

곧 관계에 있어서 건강하지 못할 것이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 그러한 내담자라면 ‘Anxiety-driven-life’라고 불안이 삶 전체를 지배하고 그러한 불안을 떨치기 위해 부단히 안정된 대상자를 찾아 헤매는 삶을 살 수 있다(김용태, 2015).

특히 세상에서 처음 만나는 주 양육자와의 관계속에서 생애초기 아기가 배가 고파 울고 있어도 아무도 뛰어와 주지 않는다면, 세상에 대한 부정적인 심리도식과 같이 불신감을 갖거나, 아기는 자신의 자기애를 획득하지 못하고 오히려 부끄럽고 수치심이 많은 아기가 되어 있을 것이다. 수치심은 엄마로부터 거부당하고 지배당하는 상황을 늘 피하는 아이로 성장하게 한다. 그래서 자신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아이가 아니라 엄마의 가치가 무엇인지에 더 신경을 쓰는 등 남을 위해 사는 아이로 변할 수 있다. 이러한 부류의 아이는 사회에 나와서도 늘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게 될 것이고 그들의 욕구에 집중을 하는 등 예민하고 날카로워 질 수 있다. 나의 가치와 욕구보다는 타인의 의사와 의견에 더 많은 에너지를 쏟아 부을 것이며, 진정한 자기(Self)를 잃어 버린 채 만족스럽지 못한 삶을 살게 된다.

이들은 늘 ‘거짓 감정’에 사로 잡혀 있다. 극단적으로 감정을 억압하고 주지화하면서 아무런 감정도 없는 사람처럼 인지적인 방법으로 소통하는 방법을 택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한 억압된 감정은 오히려 신체화 증상 등 자신의 신체를 공격하는 심인성 결과를 만들어 내기도 한다. 반대로 자신의 감정을 억압하는 것 보다 밖으로 뿜어 내면서 과한 자신의 분노, 화, 수치심의 감정을 폭발하기도 한다. 무의식속에 이러한 분노감이 가득차 있다면 다른 소소한 감정, 좋은 감정 등은 분노감에 가려져 분노감 이외의 감정들은 송h될 것이다. 이러한 작용은 인간관계의 중요한 요소로서 세심함이 줄어들기 때문에 주변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즐거움을 얻는데 제한 받을 수 있다(김용태, 2015).

앞에서도 이미 언급한바 있듯이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문제를 회피하거나 억압하거나 여러 방어기제와 같은 심리적 장치들을 쓰게 된다. 이 내담자는 두 가지 양가 감정을 가지고 있다. 하나는 따뜻함을 받을 수 있는 이성의 배우자와 행복한 결혼생활을 영위하면서 그동안 모친으로부터 받지 못한 애정에 대한 박탈감을 채우려 하는 ‘성인 아이(오재은, 2004)’가 있다. 결혼을 하여도 평균적인 것 보다는 더 많은 애정욕구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배우자인 상대방은 여러 상황에 따라 그러한 결핍된 애정욕구에 대한 내담자의 집착과 같은 행동들이 부담스러울 수도 있고 지친다고 표현을 할 수도

있다. 그것은 극단적인 경우 애정욕구의 결핍을 가져오며, 이혼 등 결혼을 실패로 이르게 만들 수도 있다. 이혼은 다시 이 내담자에게 외로움, 공허함 등의 감정을 낳게 할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이러한 관계가 평생동안 지속되어 오는 관계패턴이기 때문에 【실제 사례 VIII- 1】의 내담자는 이미 두려운 감정이 있다. 감정에는 표면감정, 이면감정, 심층감정이 있다. 이 내담자가 느끼는 외로움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한 표면적 감각일 수 있다. 그 안에 이면적 감정으로 두려움이 있을 수 있고, 더 안에는 무의식적인 갈등을 조장하는 모친의 박탈경험을 통해 얻은 수치심이라는 심층적 감정이 도사리고 있을 수 있다. 정신분석적 접근의 상담이라면 이러한 감정에 있어서도 어떠한 깊은 무의식적 감정상태가 있는지 감정을 탐색해 볼 필요가 있다. 겉 감정만 다루는 것은 내담자에 따라 상담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 그것은 내담자가 진정으로 호소하는 문제라기 보다 속임수 일 수 있다. 심층적 감정을 다루는 일은 내담자의 욕구와 관련이 있을 수 있으므로 중요한 작업이 될 수 있다. 이는 문제를 푸는 열쇠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어떠한 이성과의 교제에서도 성공경험이 없기 때문에 좋은 인연을 만나는 것조차 하지 않고 만남보다는 ‘홀로서기’와 같은 상황으로 20여 년간을 살아왔다. 이러한 선택 역시 고차원의 방어기제는 아닐 것이다. 회피를 통한 만남의 단절은 곧, 외로움, 공허감, 무가치함에 이르게 된다. 어떠한 선택을 하든지 실패를 하게 된다. 늘 이 내담자는 이성을 선택하는 갈림길에서 방황하게 된다. 자신의 진정한 욕구와 바람이 무엇인지 모르는 이유는 감정의 훼손이 큰 몫을 차지 할 것이다.

모친으로부터 받은 박탈감과 수치심과 같은 감정의 상처는 이 내담자가 스스로 자아실현을 하는데 있어서 자기를 바라보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무의식적인 불안(Anxiety)을 야기하게 한다. 이러한 내담자라면 자신의 파괴된 감정을 이해하고 현재의 선택상황에서 올바른 선택을 내릴 수 있도록 내담자의 힘을 탐색해야 할 것이다. 상담은 조언적 기능도 있으나, 내담자 스스로 자신의 문제를 찾고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내적 변화를 일으킬 수 있도록 조력하는 일이다(이형득, 1992). 자유연상, 꿈분석, 주 양육자에게 늘 느끼는 전이의 감정이나 상담자의 역전이 등의 상담기술을 통해 무의식의 의식화를 통한 무의식 속에 내재한 성인 아이의 다친 감정을 알고 자신을 수용하고 통찰할 수 있도록 사례개념화가 필요할 것이다.

이동식(1969, 1974, 1994)은 정신역동 치료에서 ‘핵심 감정’을 말하고 있다. 핵심 감정이란 세상을 바라보는 인식의 틀이다. 어떤 내담자는 최초의 기억이 태내에 있었을 때도 기억이 난다고 한다. 처음 경험할 때 느꼈던 감정 그것이 바로 핵심감정이다. 대체로 가정폭력에 노출되어 성장해 온 내담자라면, 아마도 공포감, 무서움, 두려움 등의 핵심 감정이 들 수 있을 것이다. 내담자의 처해진 맥락과 상황은 제각각 다를 것이다. 외로움, 허탈함, 공허감, 수치심 등 여럿이 있으므로 그러한 핵심감정을 파악하는 일은 무척 중요한 일이다. 왜냐하면, 그렇게 형성된 세상을 보는 감정의 렌즈는 빨갛게 혹은 노랗게 보듯이 현실에서도 자연스럽게 호소문제를 야기하는 잣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자신의 문제를 회피하는 것은 그 주제에 직면해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빼앗아간다. 자신의 문제를 직면한다면 문제를 알기 때문에 자신의 문제를 알고 인정할 수 있으며, 새롭게 변화를 하고자 하는 의지가 생길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은 곧 인격의 성장을 의미한다. 그 반대되는 상황은 성장이 없이 그 자리에서 도태되고 말 것이다.

내담자는 늘 모성적 양육박탈(maternal deprivation) 때문에 나의 가치에 신경을 쓰기 보다는 내 배우자는 나의 모친과는 다르게 모든 일거수 일투족을 나만을 바라보고 사랑해 주는 모습을 갈구할 것이다(김유숙, 2011). 당연히 상대의 배우자는 그러한 자신에 대한 집착에 힘들어 질 수도 있으며 상황에 따라서 결혼생활을 마감할지도 모른다. 오히려 이러한 배우자의 마음의 구조를 이해할 수 있는 배우자도 있겠지만, 그것에 대한 이해가 없는 배우자라면 관계에 있어서 힘들 수 있다. 그럴수록 내담자는 외로워지고 늘 공허하고 쓸쓸하고 자기비하감 등 많은 감정의 기복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사실상 상담장면에서는 내담자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바로 내담자가 가지고 있는 강점ियो, 힘인 경우가 많다. 내담자의 호소문제를 뒤집으면 상담의 목표가 될 수 있다고 말한다(김창대, 2009). 예컨대, 외로움의 감정이 많다는 것은 관계지향적인 사람이 될 수 있다. 【실제사례 VII- 1】에서 67세의 늦은 나이에 새로운 이성을 만나고자 하며 갈등을 하지만, 이러한 부분을 승화시켜서 많은 사람들과의 교류를 통해 외로움을 극복한다던지, 여성들과 함께 하는 일들을 찾는다던지 방법은 여러가지 일 수 있다. 사실상 내 안에 모친으로부터 확대를 받은 나의 또다른 나를 수용하는 일만으로도 삶을 살아가는데 지금보다는 새로운 시각을 가지고 살 수 있을 것이다. 많은 내담자들

은 자신의 편견과 비합리적 사고와 같은 경직된 패턴을 고수하면서 분열된 삶을 살고 있다(김용태, 2015). 내 안에 결코 용서할 수 없고 인정할 수 없는 나를 인정하는 작업은 필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열등감은 자신을 보다 낮은 세계로 향하도록 원동력이 될 수 있다(Adler, 1948).

인간은 모두 단독자들이다(김용태, 2015). 서로 사랑하는 사이여도 두 단독자 사이에는 간격이 존재할 수 밖에 없다. 이 내담자도 정신분석적 방법으로 상담을 이끌어 가야 한다면, 자라온 가정환경에서 펼쳐진 내담자의 핵심감정과 같은 정신역동과 더불어 내담자의 무의식적인 갈등을 줄이려는 노력들로서 방어기제의 이해는 중요한 사항이다. 상담장면에서 이러한 마음의 구조와 패턴들을 탐색하는 작업은 내담자의 힘을 파악하고 내담자 스스로 배우자를 선택하는 갈등상황에서 좌지우지 되는 상황이 아니라, 자신의 욕구를 탐색해서 바른 선택으로 이끌 수 있도록 길을 열게 할 것이다. 자신의 문제에 대한 수용과 통찰은 새로운 인간의 의지와 함께 새로운 방향으로 변화를 시도하게 한다. 명리상담으로 단순히 숙명론적 결과 제시는 내담자의 동기에 방향성은 제시할 수 있겠으나, 이러한 내담자의 심리적 갈등까지 이해할 수 있다면 정보의 전달만이 아니라, 보다 심층적인 상담이 될 수 있을 것이다.

2) 인지행동적 접근(Cognitive-Behavioral Therapies: CBT)

가) 인지행동 이론

인지치료적 접근은 여러 가지 형태가 있다. 그러나 대동소이하게 이들 접근 방법의 핵심은 ‘사고’ 또는 ‘인지’라고 하는 내면의 내현적 과정(Internal covert processes)을 가정하고, 이러한 인지적 사건(cognitive event)이 행동변화를 매개한다는 이론적 관점을 갖는다. 이는 “생각이 행동을 바꿀 수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주요 상담의 목표는 인지와 행동인 것이다. 핵심적으로 CBT는 핵심적인 세가지 명제를 고유하고 있다(김은정, 원성두 역, 2014). 첫째, 인지활동은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둘째, 인지활동은 관찰되고 변화될 수 있다. 셋째, 원하는 행동변화는 인지변화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Kazdin(1987)은 ‘인지 행동 수정’이라는 다소 다른 명칭을 사용하기는 했으나, 그가 말하는 ‘인지 행동 수정’도 사고, 해석, 가정, 반응전략 등을 바꿈으로써, 외현적 행동을 변화시키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인지치료의 역사를 살펴보면, 1950년대와 1960년대 초, 아론 백(Aron T. Beck)과 앨버트 엘리스(Albert Elis) 등을 통해 이미 상담의 치료장면에서 소개되었다. 제1의 인지행동치료(Congnitive Behavior Therapy)는 정신 역동적 이론보다는 자동적 사고로 일어나는 비합리적인 사고에 초점을 둔다. 상담자는 내담자에게 비합리적 사고를 논박(Dispute)하는 과정을 통해서 합리적인 사고로 수정하도록 행동의 변화를 촉진시키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인지치료적 관점은 단기적 증상을 완화시키고 문제해결에 이르는 것이 치료의 핵심일 수 있다.

이어서 제2의 인지치료는 인지의 변화 뿐만 아니라, 행동의 수정을 통한 고통의 완화를 목표로 한다. 도식치료(schema focused therapy)를 발전시킨 제프리 영(J. Young)은 내담자가 자동적 사고 이전에 성장과정에서 생긴 심리도식이 생기며, 그것은 인지 과정에서 필터기능을 한다고 말한다. 초기 부적응적 도식으로 인해 내담자는 세상을 바라보는 인식틀이 생기고, 그것은 여러 가지 역기능적 대처방식을 갖도록 한다. 자동적 사고만을 반박하는 이전 세대의 인지치료 방식은 내담자에게 저항을 가져다줄 수 있는데, 이 시기의 인지치료는 자동적 사고에 영향을 미치고 특정한 방식으로 해석하게 하므로 더 깊은 수준의 심리도식을 치료 장면에서 다루어야 한다는 태도를 취한다.

이렇게 인지치료에서는 사고가 감정과 행동을 유발한다고 말한다. 인지행동치료의 모태가 된 합리적 정서치료(REBT)에서는 이러한 원리를 A-B-C이론으로 설명한다. A-B-C이론은 A는 선행사건(activating event), B는 신념시스템(belief system, 신념), C는 결과(consequences)로 표현할 수 있다. 이러한 원리는 내담자가 경험한 어떤 사건은 내담자의 신념체계인 내적 작동모델(working Model)을 통해 특정한 방식으로 이해가 된다고 말할 수 있다. 그렇게 자신만의 세상을 바라보는 렌즈에 의해서 자신만의 부정적인 감정이나 역기능적 행동을 하게 된다. 이처럼 내담자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지고 있는 비합리적 신념체계를 고집스럽게 유지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의미있고 지속적인 변화를 위해서는 강력한 개입방법이 필요한 것이다.

Elis(1980)는 인지· 행동· 정서 치료(Rational Emotion Behavior Therapy: REBT)에서 “감정이 없는 삶이란 정말 멋이 없고 삭막할 것이다.”라고 주장하였다. 여러 인지 치료 중에서 REBT는 정서를 통제하거나 변화시키므로 인해 내담자의 심리적 장애를 경감시키고 이러한 작업을 통해 위축되고 무감동을 경험하는 사람들에게 좀더 생생한 감정을 더욱 강렬하게 느끼도록 돕고자 하였다. 내담자가 경험하는 부정적인 감정과 행동의 주요로운 책임이 내담자 자신, 즉, 내담자의 사고방식에 있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이것에 대한 논박과정을 다루게 된다.

REBT에서는 지각, 행동, 사고와 감정은 거의 동시에 일어나고 분리를 할 수가 없다고 말하면서 특히, 핵심적인 신념과 그로 인해 파생되고 있는 다양한 비합리적 신념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언급한다. 이 비합리적 신념들은 정서문제와 더불어 역기능적 행동들을 야기한다고 가정한다. 그러므로 REBT는 사고만을 중요시하기 보다는 비합리적 신념이나 사고와 연관된 정서도 중요하게 다룬다. REBT에서 비합리적 신념들을 찾아서 보다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로 대체하는 것은 곧 정서나 감정을 이해하는 일일 수 있는데, 사고는 정서와 늘 함께 상호작용을 하기 때문이다(Ellis, A., & Harper, 1961).

인지치료에서는 특히 비합리적 신념이나 사고를 수정 할 필요가 있다. 만약, 소개팅에서 상대자가 나오지 않았다고 가정을 해보자. 약속장소에 나오지 않은 이유는 무수히 많다. 그러나 “내가 아마도 매력이 없어서 일꺼야!”라고 비약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비약은 자신만이 가지는 세상을 바라보는 틀로서 작용을 한 결과이다. 그 상황에서 상담자가 “상대 파트너가 무슨 일이 있지는 않았을까요?”라고 내담자의 생

각만이 결코 정답은 아니라고 논박을 할 수 있다. 이처럼 상담 장면에서 내담자에게 논박(Dispute)과정을 통해 비합리적 사고를 합리적 사고로 바꾸어 나갈 수 있도록 자극을 줄 수 있다. 예컨대, 상담자가 자동차 사고가 날 수도 있을 것이고, 갑자기 급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담자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각인된 자신의 신념체계를 바꾸는 일은 매우 어려울 수 있다. 그러므로 논박과정과 더불어 치료자는 사고에 대한 자기 감찰, 역할연기, 모델링, 합리적 정서적 심상, 수치심 공격하기, 기술훈련 등 다양한 방법과 기술을 통해 비합리적 신념을 합리적 신념으로 바꾸기 위해 도전을 해야만 한다.

특히, 인지치료에 있어서 Beck(1967)은 우울증을 겪고 있는 내담자들인 경우 절대적이고 부정확한 사고로 인해 우울해 진다고 한다. 이것을 ‘인지삼제(negative cognitive triad)’라고 하는데, 인지삼제는 자기(‘실패자’로서의 자기), 세상(엄격하고 요구적이라서 무기력하게 만드는 세상), 미래(냉혹하고 희망이 없는 미래)에 대한 관점이 손상되었다고 언급한다(Hollon & Beck, 1979). 이러한 비합리적 사고는 그 자신이 처한 실제상황보다 더욱 더 냉혹하고 부정적으로 보려는 경향을 갖게 된다. 이러한 생각은 우울증 등을 동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인지치료에서는 내담자에게 자동적 사고 감찰하기, 인지·정서·행동간의 관계 인식하기, 자동적 사고의 타당성 검증하기, 왜곡된 사고를 더 현실적 인지로 대체하기, 개인에게 잘못된 사고 방식에 몰두하도록 만드는 기저의 신념, 가정 또는 도식을 확인하고 변화시키기 등을 가르치기 위한 구체적 학습경험을 설계하는 것이 포함된다(Kendal & Bemis, 1983).

인지치료적 접근은 우리가 사고하는 방식이나 기본적 가치 또는 신념은 부단한 노력으로 바꿀 수 있다고 말한다. 비록 상황이 바뀌지 않더라도 우리의 사고를 바꿈으로써 그로 인해 발생하는 감정과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다(Meichenbaum, 1977; Beck, 1987; Ellis, 2001a). 이처럼 인지의 왜곡은 심리적인 문제를 야기시키면서 인지 오류를 일으킨다. 이러한 인지오류를 통해 현실을 그대로 직시하기 보다는 자신의 생각에 맞춰 현실을 왜곡해서 세상을 바라보게 된다. 상담자는 이러한 인지왜곡으로 심리적 불편감을 갖는 내담자에게 ‘인지의 재구조화’ 과정을 연출하게 된다. 인간 존중 상담과는 사뭇 다르게 인지치료를 선호하는 상담자는 상담장면에서 지시적일 수 있으며, 적극적 자세로 내담자의 문제를 풀어 가려는 상담자의 역할을 볼 수 있다. 인지왜곡으로는 이분법적인 사고로서 흑백논리(all-or-nothing thinking), 과잉일반화

(overgeneralization), 정신적 여과(mental filtering), 긍정격하, 비약적인 결론, 확대, 축소 등이 있다. 상담자는 내담자의 여러 부정적인 인지왜곡들을 탐색하면서 적극적으로 내담자가 변화할 수 있도록 역동적으로 접근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최근 제3세대의 인지치료는 변화를 우선시하는 것보다 상황을 그냥 바라보는 ‘마음 챙김(Mindfulness)’에 기반을 둔 인지치료가 주목을 받고 있다. 이러한 인지치료의 새로운 동향은 수용-전념치료(Heyes, 2004)인 ACT(Acceptance-Commitment-Therapy)와 관련된다. 이들은 지각적 정확성보다는 상이한 방식의 사고 및 행동의 기능적 유용성에 초점을 두고 있다(서 광 공역, 2012; 김은정, 원성두, 2016). 따라서 CBT에서 말하는 문제해결, 자기통제, 그리고 인지의 재구성 등은 인지 및 행동이 정서적 고통 또는 문제와 관련되어서 인지 및 행동을 평가하고 수정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는 반면, 제3의 인지치료적 접근은 때때로 필요한 변화란 메타인지적 과정으로서 자신의 인지체계가 잘못되었음을 깨닫는 것이라고 제안한다.

메타적 인지의 변화는 직접적인 인지 또는 행동을 변화시킬 필요가 없다. 오히려 현재의 상황에 대한 수용을 통한 받아들임을 강조한다. 이러한 내담자 스스로 성장과 정속에서 얻게 된 비합리적 사고 등의 패턴은 삶의 여러 상황과 조건 속에서 늘 경직된 패턴을 갖게 된다. 그 자체의 심리적 패턴을 알아 차리고 수용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사고나 인지체계를 뜯어 고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사고하고 인지구조의 심리체계를 가졌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할 수 밖에 없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인정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비합리적 사고의 패턴 자체를 뜯어 고치는 일은 어려울 수 있다. 이는 의식적 작용일 수도 있으나 무의식적으로 작용하는 기제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제3의 인지치료의 경향은 동양의 명상수련과 같이 그 자체를 인정하는 방법으로서 하위 개념의 인지개념보다는 더 높은 수준의 ‘메타적 인지’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메타적 인지개념인 ‘수용’을 통해 내담자는 만성적이거나 반복적인 비합리적 신념으로 인한 자동적 사고로부터 자유로워 질 수 있을 것이며, 인지의 탈융합을 이르게 된다. 이는 자극 통제전략으로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인지의 과정을 통해 내담자는 ‘창조적 무망감’(Hayes, 2004)을 할 수 있다.

나) 【실제 사례 VII- 1】의 인지행동 이론적 접근

위의 【실제 사례 VII- 1】의 내담자에 대한 인지치료적 접근을 해보자. 인지행동적 접근의 주된 목표는 내담자의 왜곡된 비합리적 신념을 합리적 신념으로 탈바꿈하게 하는 일이 될 것이다. 아울러 그러한 합리적 신념을 바탕으로 지금까지 내담자의 경직된 행동패턴을 수정하는 일일 것이다.

우선 이 내담자의 비합리적 사고는 무엇일까? 인지삼제를 살펴해보도록 하자. 그는 이혼으로 인한 결혼의 실패와 더불어 지속되는 이성관계의 실패로 인해 20여년을 혼자 살아왔다. 내담자는 엄마의 애정한번 받은 적이 없듯이, “모든 여자들은 나를 보살펴 주지 않는다.”고 자기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세상에는 나를 도와줄 사람도 없고, 나를 사랑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세상에 대한 비관적 사고를 갖고 있으며, “나는 외로운 사람일 수 밖에 없다.”고 하는 미래에 대한 부정적 사고를 통해 비합리적 신념을 가지고 있다. 그로 인해 늘 반복되는 패턴은 마음에 드는 이성이 생겼을지라도 만남을 지속해 보려고 하지 않고 불안해 한다. 명리 상담실을 찾은 이유도 모두 그러한 이유가 클 것으로 예상이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지치료 상담자라면 그가 가지고 있는 비합리적 신념들을 논박할 필요성을 갖게 될 것이다. 예컨대, 내담자가 “모든 여자는 나의 애정 욕구를 충족해 주지 못한다.”고 하는 비합리적 도식을 갖고 있다고 가정을 해보자. 상담자는 “모든 여자를 만나 보셨나요? 여자들은 당신의 애정을 채워 주는 사람인가요? 여자 말고 다른 대상은 없나요? 타인 말고 내가 스스로 채우는 방법은 없을까요?” 등 여러 차원에서 다각적 측면에서 내담자 스스로를 바라볼 수 있도록 탐색을 강행한다. 내담자의 입장에서 이러한 말을 듣는다면 아마도 상담자가 무슨 소리를 하는 것인지 의아한 반응을 보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담자는 내담자의 비합리적 사고를 합리적 사고로 탈바꿈시키기 위해 여러 가지 상담적 접근을 시도한다. 이러한 단계에서 내담자는 일시적으로 자신이 살아오면서 자동적으로 만들어 질 수 밖에 없었던 비합리적 신념이나 사고, 인지체계가 상담자로부터 공격을 받게 되므로 저항감을 지닐 수도 있다.

또한 그러한 경직되고 인정받지 못하고 수용받지 못하는 자기 패배적 신념을 갖고 있는 내담자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도 던질 수 있을 것이다. “당신은 그러한 당신의 비합리적인 사고로 인해 늘 회피를 하며 이성을 만나지 않는군요. 불안해하며 만나지는

않고 두려워만 하네요. 그러한 행동이 지금까지 당신이 인생을 살아오면서 외로움을 극복하는데 있어서 얼마나 도움이 되었을까요?”라고 질문이 가능하다. 물론 이러한 논박과정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충분히 상담자와 내담자 사이에 공감대(Rapport)를 형성해야 만이 접근이 용이해질 것이다.

여러 가지 인지치료적 접근 중 SPSI-R의 5차원 사회문제 해결 모델에서는 내담자가 긍정적 문제지향 차원과 주요 부정적 문제 지향 차원의 문제 지향차원과 함께 합리적 문제해결 양식, 충동성·부주의 해결양식, 회피양식 등의 문제해결 양식이 있다고 한다. 긍정적 문제지향과 합리적 문제해결은 문제해결을 통한 긍정적 결과를 산출할 가능성을 증가시키는 건설적인 차원인 반면, 부정적 문제지향과 충동성 부주의, 회피의 양식은 효과적인 해결을 방해하거나 억제하는 역기능적인 차원이 될 수 있다(D'Zurilla, 2002). 【실제사례 VII- 1】의 내담자는 ‘부정적 문제지향’과 ‘회피’라는 역기능적 차원을 선택하면서 역기능적인 행동 특성을 가지고 있다.

내담자 39에서 “저는 엄마에 대한 정이 없어요. 여자를 처음 만났는데, 그런 걸 안 받아 주더라구요. 여자한테 받은 상처가 너무 커가지고, 지금 한 20년 동안 여자를 만나지 않다가 이제서야 만났으니 얼마나 기대를 했겠어요?”라고 말하고 있다. 엄마에게 모성적 박탈 경험때문에 초등학교 시절 자살시도를 해야만 한 것처럼, 이혼 경험을 통해 세상 여자들에 대해 불신감의 심리도식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서 내담자는 불안해한다. 마음에 드는 이성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행동을 보이지 못하고 의소침해 하며 늘 한 발자국 뒤로 물러나서 관망만 할 뿐이다.

이러한 상황이라면 상담자는 내담자에게 적극적으로 행동을 할 수 있도록 내담자가 할 수 있을 만한 실천적 행동을 제안할 수 있다. 그러한 행동은 내담자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실천 가능한 것들을 선택해야 할 것이며, 구체적인 것으로 세분화시킬 필요도 있을 것이다(고기홍, 김경복, 양정국, 2010). 그것은 상담 종료시 상담목표를 해결했는지, 하지 못했는지 목표달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잣대가 되기 때문이다. 또한 세분화된 목표를 예를 들면, 먼저 전화하기, 한달에 한번 영화보기, 만나면 맛있는 것 먹기, 애정표현을 하루에 한 가지씩 해보기 등 이것 말고도 상담자와 내담자의 여러 성격 특성과 환경, 맥락에 맞도록 여러 행동적 실천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개인이 자신과 자신의 대인관계를 이해하고 개인의 발달을 향상시킬 수 있는 행동을 하도록 만드는 학습과정이라고 정의하였다(임규혁 등, 2015). ‘합리적 문제정서 해

결'이란 문제의 정의 및 공식화, 대안적인 해결책 생성, 의사 결정, 해결책과 검증이라는 네가지 주요한 문제해결 기술을 합리적이고 신중하며 체계적으로 적용하는 것과 관련한 건설적인 문제해결 양식을 의미한다(김은정, 원성두 역, 2016). 특히 비합리적 신념 등은 생각을 감금상태에 빠지도록 몰아가게 한다. 합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은 주의깊고 체계적으로 문제에 대한 사실과 정보를 수집하여 압력과 장애물을 확인한 후, 현실적인 문제해결에 대한 목표를 세울 수 있다. 그리고 가능한 여러 가지 해결책을 생성하여 결과를 예상하고 이러한 대안을 평가하고 비교한 후에 '최적'의 해결책을 선택하여 이에 따른 결과를 주의깊게 관찰하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사례 VII- 1】의 내담자는 위의 상황과는 다른 상황일 수도 있다. 내담자는 여자를 만나서 행동하는 부분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는다. 내담자 42에서 내담자는 “뭐 솔직히 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좋은 건 그냥 좋은 것이고 헤어지든 말든...” 자신의 깊은 마음을 보이고 있다. 상담자 42에서 “혼인신고 안하고 사는 게 좋아요. 나중에 호적이 지지분해 지나가요.”라고 직면적으로 답을 준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 내담자도 자신이 숙명적으로 여자 복이 없음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상담자는 단도직입적으로 새로운 운명은 맞지만, 그 결과가 좋지 않으니 결혼신고를 할 필요는 없다고 직언(直言)을 한다. 굳이 결혼신고를 해서 이력을 남기는 일은 오히려 불필요한 대안이라고 지적을 하고 있다. 내담자가 지금까지 경험한 바로는 숙명적으로 여자와의 인연이 그리 길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은 낮은 수준의 인지구조의 변형을 위한 치료적 접근이나 상담전략 보다는 인지치료의 제3의 동향인 수용전념 치료(ACT)와 같이 '수용'에 기반하여 메타인지의 변화를 시도할 한다면 오히려 좋은 결과를 보일 수 있다. CBT적 관점에서는 생각과 감정의 내용은 역사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직접적인 개입은 이를 더욱 복잡하게 할 수 있다. 반면, 생각과 감정의 기능을 맥락적으로 통제를 통해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가능하다. 수용은 경험에 개방적으로 되는 것, 혹은 현재 순간의 현실을 기꺼이 경험하는 것으로 정의 되어왔다. 그리고 원하는 변화가 곤란하거나 별로 긴박하지 않은 CBT 맥락에 적합하다.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사고, 느낌, 그리고 감각에 대한 노출의 일종이며, 이런 것을 관찰하는 과정을 통해 정서에 대한 두려움이 감소하며 이러한 과정은 변증법적이다. 이처럼 수용은 이전의 도주, 회피, 심각한 반응성 등의 '비수용'의 상황을 변화시키게 되며, 노출로 인해 각성이 감소함에 따라 이러한 변화는 수용을

유도하게 된다. 많은 상황속에서 수용은 변화이며, 고통을 경감시킬 수도 있다 (Fruzzetti & Fruzzetti , 2008)

인지치료의 제1세대는 정신역동적 이론을 거부한다. 인지행동치료는 치료목표와 성과와 같이 직접적 변화전략을 사용하였다. 제2세대는 인지혁명으로 인지내용의 변화를 우선시하면서도 인지 및 행동변화 전략의 결합을 통해 고통의 완화를 가능케 했다. 제3세대는 변화를 우선시하는 것을 폐기하고 변화를 우선시하는 전략을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도전하는 온전한 성장으로서 ‘마음챙김(Mindfulness)’하며 수용할 수 있다. 각성-저대사 상태를 언급한다(김은정, 원성두 역, 2016 재인용). 제3동향으로서 ‘마음챙김’ 접근은 자신의 생각과 느낌의 관계를 변화시키고 생각을 현실이라기보다 생각일 뿐이라고 바라보도록 격려하는 것에 초점을 둔다(Romeo& Orsiilo, 2003). 내담자는 자신의 사고와 느낌이 현실에 적합하게 반영된 것이 아니라 ‘지나가는 사건’ 으로서 바라보게 된다. 마음챙김과 수용이 노출, 인지수정, 자기관리, 이완과 같은 보다 전통적인 CBT 전략과 함께 변화기제를 뒷받침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Teasdale & Williams, 2003).

이처럼 내담자를 바라보는 상담자의 시선에 따라 여러가지 방법으로 응용이 가능할 것이다. 만약 명리상담을 인지치료의 맥락적 안경을 쓰고 바라본다면,宿命론적 절망감으로 불안하고 좌절감과 절망감을 느끼는 내담자에게 작은 희망을 줄 수도 있을 것이다. 상담자 35에서 상담자는 “이젠 갈 여잔데...” 하면서 여자와의 관계가宿命적으로 헤어질 운명임을 지적한다. 상담자는 그로 인해 내담자가 힘들어 질 것을 걱정하고 있다. 그러나 내담자 44에서 내담자는 “인중이 긴 사람치고 절대 배신하는 사람은 없어요. 나는 아직까지 내가 먼저 떠난다거나 하는 일은 없었다.”라고 단호하게 답을 하고 있다. 내담자가 갖고 있는 어떤 일을 해결해 가는데 있어서 원동력이 될 수도 있다. 내담자가 스스로 부적절한 정서의 출처를 이해한다는 것은 곧 새로운 사고의 변화를 갖는데 도움을 준다. 정서가 잘 흘러간다는 것은 인지과정도 유연해짐을 말할 수 있다. 이처럼 정서, 감정의 내면에 깔려있는 내담자의 욕구가 충족될수록 경직된 패턴의 인지구조는 유연하게 변화해 갈 것이다. 이러한 인지적 접근은 절망을 버리고 새롭게 인간의지를 지니고 도약하는 실존하는 인간이 될 수 있는 동기를 제공할 수 있다.

3) 인간중심 상담적 접근

가) 인간중심 상담적 접근

인간중심 상담은 정신분석과 행동주의의 대안적 접근으로 Rogers(1980)에 의해 창시되었다. 이 이론은 인간의 잠재력과 가능성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한다. 인간은 스스로 성장하고자 하는 자기실현의 경향성을 가진 존재라는 점을 강조한다(권대훈, 2015). 꽃은 꽃이어야 하고, 자동차는 자동차여야 자동차 다움을 발휘할 수 있다. 인간도 타고난 대로 자기답게 살아가는 것이 유기체의 장에서 가치로운 것임을 강조한다. 그러므로 인간중심 상담은 내담자가 호소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공감적 이해와 더불어 무조건적 긍정적 존중, 적극적 경청을 근본 원리로 삼기때문에 내담자를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공감하는 비지시적 상담, 혹은 내담자 중심상담(client-centered-counseling)이라고 불려진다.

구체적 문제해결보다는 상담자가 내담자의 호소문제를 자비로운 마음으로 알아주고 들어 주는 것만으로도 내담자에게 큰 치료적 요소를 가질 수 있다고 말한다. 이러한 상담접근은 고맥락 사회의 집단주의 사회의 내담자보다는 개인주의로서 개인의 가치에 보다 의미를 두고 있는 서양인들에게 더욱 적절한 상담이론이 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역기능적인 사고 등 호소 문제가 심한 내담자들인 경우 가정이나 사회에서 충분히 수용을 받는 환경과는 거리가 멀 수 있다. 상담자를 통해 내담자가 수용을 받는다고 한다면 내담자는 상담자를 통해 그동안 받지 못했던 상처를 치유하고 상담자로부터 정서적으로 재양육의 기회를 갖게 될 것이다. 이는 인간중심에서 말하듯이 ‘충분히 기능하는 사람(fully-functioning-person)’으로서 인간이 유기체의 현상학적 장에서 기꺼이 자아실현을 하면서 가치롭게 자신이 하고자 하는 바를 이루며 살아가는 사람을 말한다. 지금-여기에서 진행되는 자신의 자아를 완전히 지각하는 사람으로서 경험에 대한 개방성, 실존적인 삶, 자신의 유기체에 대한 신뢰, 자유로움, 창조성과 연관지을 수 있다.

한편, 인간중심상담은 일치성이 있어야 한다. 일치성은 그냥 언제든지 잘못을 해도 천사같은 얼굴만을 보이는 태도는 아니다. 내담자에게 느끼는 그대로 진실성을 가지고 온전하게 받아들이는 일인 것이다. 이는 ~인체 하는 그런 태도가 아니라, 상담자가 자신의 긍정적, 부정적 감정의 태도를 투명하고 개방적이며 진솔하게 나타내는 것을 말

한다(김계현 등, 2011). 내담자의 입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내담자의 내적 참조틀을 이해 할 수 있어야만 한다. ‘내적 참조틀’은 내담자의 성장 과정에서 만들어질 수 밖에 없었던 세상을 바라보는 렌즈라고 볼 수 있다(김성봉 역, 2016). 즉, 내담자가 현실적으로 나쁜 행동을 통해 좋지 않은 결과를 보였을지라도 상담자는 “그렇게 될 수 밖에 없었겠구나!”하는 내담자를 중심으로 이해하는 일을 말한다.

다른 한편으로 인간중심 상담을 선호하는 상담자는 내담자에 대해 무조건적 긍정적 존중(unconditional regard)의 자세가 필요하다. 이는 내면적, 외면적으로 상담자가 조사, 해석, 비승인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전적으로 내담자를 신뢰하고 수용하는 것이다. 이러한 상담자의 태도를 통해 내담자는 자신이 현상학적 장에서 미처 자기실현을 하지 못하고 성장하면서 받았던 미해결된 감정들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다. 이러한 억압되었던 감정의 표출과정은 성장과정 동안 한번도 수용받지 못했던 상황에서 자기 패배감, 수치심, 적개심 등을 가지고 살아올 수 밖에 없었던 내담자의 경직된 패턴을 파괴하게 한다(이윤주, 양정국 역, 2007). 내담자의 무의식 속에 억압되었던 감정들은 의식밖으로 틈을 발견하게 되고 서서히 하나 둘씩 빠져 나오며 분출하기 시작한다.

마지막으로 인간중심 상담에서 상담자는 정확한 ‘공감적 이해(accurate empathy)’의 상담기술이 필요하다. 공감적 이해란 상대방이 지각하고 현상학적 장으로 들어가서 완전히 거기에 익숙해지고, 그가 경험하고 있는 감정, 변화의 흐름에 순간 순간 민감하게 되는 것이다. 이해를 위해서 상담자는 자기 본연의 자세를 잃지 않고 객관성을 유지해야 할 것이다(김계현 등, 2011). 공감은 언어적 반응 정도가 아니라, 함께 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공감을 통해 내담자는 자각의 가장 자리에 있는 함축된 감정들과 의미를 알 수 있기 때문에 Self를 찾는데 자신의 힘을 집중할 수 있다. Self는 성격의 구조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서 전체적인 현상학적 장 또는 지각의 장에서 분화된 부분으로, 나에 대한 일련의 의식과 가치를 말한다. 그렇게 되면 자신의 신념과 세계관이 명료해질 것이며, 내담자는 스스로 느끼는 고립감과 소외감 등으로 부터 벗어나는 계기를 갖게 될 수 있다. 그것은 곧 내담자 자신의 과거 불운한 경험에서 축적된 경험에 대한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는 기회를 줄 수 있다.

인간중심 상담에서 바라본 심리적 문제는 인간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주요한 타인에게 긍정적 관심을 받기 위해 조건적 가치를 부여 받으며 형성된 자기 개념과 유기체의 현실적 경험간에 조화를 이루지 못하거나 불일치를 일으킬 때 불안이 생기고 심리

적 문제가 발생한다. 공감적 이해의 치료적 효과를 통해서 내담자는 소외와 외로움을 해소할 수 있고, 자신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 가치있다는 느낌을 갖으며, 자신에 대한 존중과 사랑을 높일 수 있다. 더 나아가 내담자는 더이상 자신을 평가, 판단하지 않게 되는데 이는 자기 수용의 가능성을 높히게 한다. 이는 개성과 정체성을 갖게 하며, 자신에 대한 새로운 측면들에 대한 지각을 하게 된다. 곧 ‘자기 변화의 첫 단계’이다(신성만 등 역, 2007).

이처럼 내담자 중심 상담의 핵심개념은 모든 개인이 전체, 통합, 완전성, 자율성의 방향으로 행동하고 스스로를 강화하려고 노력한다는 점이다. 로저스(1980)에 의하면 자아실현 경향은 생물학적으로 결정되지만, 성장가능성의 방향은 문화적으로 부모, 교사, 친구 및 다른 사람에 의해 결정된다고 가정한다. 다시 말하자면, 내담자 중심 상담의 핵심은 개인의 경험인 것이다. 개개인이 지닌 잠재력으로 자신의 경험을 평가하고 자신의 견해를 분명하게 하며, 스스로의 느낌을 통해 통찰력을 얻게 함으로써 변화되는 행동은 개인의 긍정적인 계획과 행동 및 성장을 유발할 것이다(임규혁, 임 옹, 2015).

나) 【실제 사례 VII- 1】의 인간중심 상담적 접근

인간은 늘 존재의 불완전함을 극복하고 더 큰 존재가 되려고 애쓰지 않을 때 비로소 자유로워 질 수 있다(김용태, 2015). 인간중심 상담 상담자는 이러한 개념을 가지고 내담자를 대해야 할 것이며, 이는 상담자가 갖추어야 하는 이상적인 덕목이라고 말할 수 있다. 상담자는 내담자가 현상학적 장에서 인간으로서 태어난 가치를 그대로 자기 실현 하면서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은 공감과 지지를 보낸다. 인간중심 상담 중 내담자는 상담자의 공감적 이해, 진실성, 무조건적 긍정적 존중의 자세를 보면서 내담자 스스로 답을 찾아 갈 수 있도록 돕는다. 【실제사례 VII- 1】에서 상담자의 측면에서 인간중심 상담자의 면모를 살펴보겠다. 반대로 인간중심과 다른 모습도 찾을 수가 있는데, 이는 다른 서양 상담과는 확연하게 다른 한국인 사회에서 가능한 상담방식이 될 수가 있다. 오히려 그러한 대비점은 명리상담만이 가지는 특징이 될 것이다. 이에 대해 탐색해 보자.

우선 【실제사례 VII- 1】에서 상담자의 인간중심적 자세를 살펴보자. 상담자 13에서 상담자는 “하는데까지는 가 보세요.”라고 내담자에게 조언을 한다. 사주팔자상 이 둘

의 남녀관계는 성공적이지 못하다. 남자는 무재성의 팔자이므로 여자복이 없다. 상담자의 뜻은 사귀어 보라는 의미가 아닌 것이다. 때가 되면 만나고 다시 때가 되면 헤어진다는 의미를 품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직언직설(直言直說)은 내담자에 대한 공감적 이해의 장으로 데리고 간다. 지금 시간이 허락하는 한은 만나고 사귀라는 말로 표현이 가능하다. 상담자 15에서도 상담자는 “하지 말아요.”라고 하면서 내담자에게 단호하게 말을 한다. 이러한 직언직설은 서양상담에서는 보기 드문 형식의 조언이다. 그러한 내담자를 향한 조언은 단도직입적이다. 이는 명리상담에서는 미래의 사건에 대한 방향성을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소통방식일 수 있을 것이다(김기승, 2010).

내담자는 이러한 지적에 대해 놀라거나 저항을 하지 않는다. 내담자 스스로도 알고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이다. 내담자 41에서 내담자는 “선생님 이야기가 맞습니다.” 하면서 자신의 숙명적 한계에 대한 상담자의 지적에 대해 순순히 인정을 한다. 비록 강하고 적나라하게 내담자의 숙명적 한계를 지적하였으나 저항을 하지 않는다. 상담은 훈련받는 상담자와 도움이 필요한 내담자 사이에서 형성되는 전문화된 관계(Burks & Steffle, 1979)로서 내담자가 생산적이고 자아만족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행동변화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이다. 이때 상담자가 기본적인 욕구를 이해하고 반응할 때 문제의 해결을 위한 적절한 관계의 형성이 가능하다.

그러면서 내담자는 내담자 42에서 “솔직히 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좋은 건 그냥 좋은 거예요. 헤어지든 말든 오늘 말씀해 주신 내용이 무슨 말인지 잘 알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상담자의 사주팔자에 대한 분석에 대해 수긍을 한다. 그러한 대화속에서 내담자는 자칫 상담자의 말이 강하게 들려 “남의 운명을 가지고 감나라 배나라 하느냐”고 따지고 물을지도 모를 일이지만, 내담자는 순순히 그러한 상담자의 입장을 받아들이고 있다. 깊이 있는 내담자의 마음을 읽어 준다는 것은 얕은 공감이 아니라 심층적 공감적 이해라 볼 수 있다. 깊은 공감적 이해를 받은 내담자는, 상담자가 아무리 거친 조언을 할지라도 저항을 줄이게 한다(하은희, 김성봉, 2019a).

상담자 40에서 상담자는 조심스럽게 “너무 빠지지는 마세요.”라고 진정한 마음을 담아 내담자를 공감적으로 이해하고 있다. 여기서 상담자는 스스로 내담자와 같은 자신의 상황에 대해 자기 개방을 하게 된다. 이는 내담자의 현재 상황을 지지하기 위한 상담자의 태도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숙명적 한계는 어찌할 수 없다는 뜻일 것이다. 상담자는 상담자 41에서 자신도 순탄치 않았던 과거를 회상하면서 여자에게 빠지면

너무 쪽 빠져서 속을 내비칠 정도로 힘들었던 경험을 이야기 한다. 여자에 대한 상처로 인한 기억들을 꺼집어 낸다. 이는 내담자의 경험을 인정하면서 아파할 수 있을 것이라는 예측과 함께 먼저 실패를 경험한 선험자로서의 조언이다. 그러한 자기개방은 내담자의 미래의 계획이나 마음 정리에 밝은 등불처럼 길을 밝혀 줄 수 있을 것이다.

상담자 42에서도 상담자는 “그러니까 혼인신고도 안하고 사는게 좋아요. 나중에 호적이 정말 지지분해 지니까요.”라고 마치 내담자가 살고 있는 상황을 쪽집게 도사처럼 그림을 쳐다보고 말하는 것처럼 말하고 있다. 조금도 주저하거나 망설임이 없다. 이는 인간중심상담의 상담기술로 비유를 하자면 진실성으로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진실성은 내담자의 이야기를 무조건 천사와 같은 고운 마음으로 들어주고 좋은 말만을 하는 상황과는 다른 것이다. 진실성은 상담자도 완전하지 못한 일반인으로서 내담자가 상식에 벗어난 이야기를 하거나 말과 행동이 불일치를 하는 상황에 딱딱뜨릴 때, 상담자가 느끼는 방식대로 느낌, 생각 등, 내담자에게 표현을 하는 일이다. 이러한 진실성은 내담자가 상담자를 신뢰하는 계기를 가져다 줄 수 있기 때문에 인간중심 상담에서는 배제할 수 없는 상담의 기술이다.

상담자 44에서 상담자는 “을목(乙木) 일주 남자를 만났으니까 무토(戊土)일간은 그게 정관(正官)이고 들어오니까 좋지요. 그런데 그게 언제까지 가느냐가 문제지.”라고 서슴없이 내담자와 여자친구의 관계를 표현한다. 이는 내담자의 숙명적 한계에 대해 있는 그대로 보는 자세를 표현한다. 즉, 공감적 이해의 자세를 볼 수 있다. 현상학적장에서 모든 존재는 존재로서 그 가치가 있다. 장미는 장미로써, 새는 새로써, 이 내담자는 배우자 관계가 좋지는 않으나 그러한 특성을 가진 존재로서 가치가 있는 것이다. 비록 운명적 한계 때문에 이성과의 만남의 인연은 길지 않다는 것을 상담자는 이미 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내담자를 있는 그대로 볼 수 밖에 없다. 이러한 실패의 상황들을 상담자는 이미 명리사주분석을 통해 내담자의 상황을 알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인간으로서 마음이 아프기 때문에 더이상 슬프지 않다. 오히려 냉정한 가슴을 가지고 내담자의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는 것이다.

상담자는 상담자 38에서 “사화(巳火)가 고장지로 가니까 어머니로 인해 힘들었겠지.”하면서 명리사주분석을 통해 내담자의 가장 힘들었던 어린 시절에 대해 공감적인 이해를 한다. 그러한 미해결 된 모친과의 상황을 떠올리듯 내담자도 내담자 39에서 자신의 어렵고 힘든 시절, 특히 모친으로부터 학대경험으로 인한 자살경험 등 심리적 외

상을 자연스럽게 꺼집어 내고 있다. 그러한 모친으로 부터 받은 박탈적 경험은 이후 이혼으로 이어지고, 나를 위해 사랑을 해주고 다독여 줄 사람, 모친에게 받지 못한 애정을 채워줄 상대를 늘 갈망한다. 이 내담자는 상대가 많은 애정을 희생하면서 부어 주더라도 한도 끝도 없이 애정에 대한 목마름을 갈구할 수 있을 것이다. 내담자에 대한 사주팔자의 이해를 통해 상담자의 공감적 이해는 내담자의 어린시절 모친에게 받은 학대경험을 지금-여기에 가지고 와서 자연스럽게 토로하게 만들어 준다.

감정을 표현하면 마음이 편안해진다. 마음이 편해지면 삶이 편해지며, 여러가지 삶의 선택 선상에서 자신의 에너지를 집중할 수 있으므로 생산성이 늘어날 수 있다. 현재의 어색하고 거북한 느낌을 방치하지 말고 그 속에서 자신을 지배했던 역사적 사실을 찾는 일은 필요하다. 이는 자신의 심리적 갈등을 푸는 열쇠가 되기 때문이다. 눌린 감정은 아마도 그러한 왜곡된 삶 속에서 내담자가 획득할 수 밖에 없었던 유일한 자신의 보호막이고 방어수단이었을 수 있다. 감정을 표현하면 팽창되어 있는 무의식의 긴장상태를 보다 유연하고 여유있는 공간으로 만든다(이형득, 1992).

이처럼 인간중심의 상담자는 내담자에 대해 공감적 이해, 무조건적 긍정적 존중, 진실성을 가지고 대하게 된다. 이러한 상담자의 깊은 공감은 내담자가 존중 받는다고 느끼게 하기 때문에 다른 대상에서는 말할 수 없는 속 깊은 이야기 일지라도 편안하고 자연스럽게 자신의 문제를 드러낼 수 있는 것이다. 자신의 무거운 감정들을 표현하는 일은 의미가 있는 작업일 것이다. 그것은 자신을 객관적으로 자신의 문제를 들여다 볼 수 있게 하기 때문에 통찰로 이끌 수 있다. 통찰은 무기력한 상황에 처해있는 내담자에게 역동을 일게 하고 무기력한 상태에서 벗어나도록 자극한다. 이처럼 통찰경험을 통한 심리적 역동은 무의식적, 혹은 의식적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무거운 감정의 돌덩이들을 사라지게 한다. 또한, 내담자가 있는 그대로 순수하게 세상을 볼수 있도록 다양한 감정들을 만나게 할 것이다.

4) 게슈탈트(Geschtalt)상담적 접근

가) 게슈탈트(Geschtalt)상담

게슈탈트(Geschtalt)상담은 펄스(Fritz Perls, 1893-1970년)가 창시하였다. 게슈탈트의 의미는 단순히 특정 형태나 모양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의 지각적 전체 또는 패턴화된 전체를 의미하며, 부분이 전체로 통합되는 독특한 지각 형태를 의미한다. 특히, 인간이 어떤 특정한 대상을 지각할 때, 사물의 부분과 부분을 따로 따로 지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의미있는 전체로서 지각을 한다고 말한다. ‘전체는 부분의 합보다 크다.’라는 말이 성립되는 것이다(Perls, 1973; Goetz, Alexander & Ash, 1992). 그러므로 게슈탈트 상담은 인간이 자신이 접촉하여 경험하는 현상을 있는 그대로 매순간 지각을 하여 수용하며 살아간다고 한다. 이처럼 게슈탈트 상담은 정신분석, 유기체 심리학, 장이론, 사이코 드라마, 실존철학, 동양사상 중 도가의 영향을 받아 발달된 상담이론이다.

게슈탈트에서 말하는 인간은 현재 중심으로 과거에 얽매이기 보다는 현재의 환경 속에서 자신의 행동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음을 말한다. 인간의 행동은 육체, 정신, 환경 등이 역동적으로 상호 관련되어 나타내는 하나의 전체로 이해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인간은 자신의 자유로운 선택에 의해 잠재력을 각성할 수 있는 존재라고 본다. 인간중심 상담과 같이 살아있는 유기체는 스스로를 자신의 본질에 일치하는 방향으로 자아실현을 하고자 하는 본래적인 욕구가 있다고 보았다. 장미는 장미여야 하듯이 인간은 인간으로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잠재력을 온전하게 발휘하고자 하는 욕구를 가진다.

게슈탈트는 개체가 자신의 욕구나 감정을 자신이 처한 상황과 환경을 고려하여 그 상황에서 실현 가능한 행동동기로 지각한 것이다. 과거가 현재의 태도나 행동에 중요한 관계를 가질 때, 상담자는 내담자에게 과거를 현재화하여 그 때 경험했던 느낌을 되살리게 한다. 게슈탈트는 지금-여기(Here & Now)를 강조하며, 현재의 순간을 이해하고 경험하며 음미하는 것을 강조한다. 인간은 보통 분노, 격분, 증오, 고통, 불안, 슬픔, 죄의식, 포기 등과 같은 표현하지 못한 감정을 갖게 된다. 회피는 미해결 과제에 직면하거나 미해결 상황과 관련된 불편한 정서에 직면하는 것을 스스로 막는데 사용 되는 수단 중의 하나이다. 내담자는 미해결되었던 감정을 표현함으로써 내적 통합이

되기 시작하고, 성장을 방해했던 장애를 뛰어 넘게 된다(박성수, 김창대, 이숙영, 2019).

게쉬탈트의 주요개념으로 전경과 배경이 있다. 어느 한 순간 가장 중요한 욕구나 감정을 떠올려 게쉬탈트를 형성하는 것을 전경이라 하고, 게쉬탈트가 해소되고 나면 전경에서 사라지게 된다. 이처럼 현재 바로 지금의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전경이고, 덜 중요한 것은 배경이라 한다. 예컨대, 공부를 하는 중에 불이 났다고 가정을 해보자. 원래는 공부가 전경이었으나 일단 불을 꺼야 하는 위험한 상황이 되었으므로 전경이 불을 끄는 일이 되고, 공부는 그 순간 배경으로 사라지게 된다. 건강한 인간은 바뀌는 상황이나 환경에서 자율적으로 자연스럽게 걸림이 없이 전경과 배경의 교체가 잘 이루어 진다. 그러나 과거 미해결 문제와 관련한 상황과 비슷한 환경에 노출되면, 그 기능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지속적으로 배경이 전경으로 나오거나 감정이나 행동을 하는데 있어서 집중을 하지 못한다.

무의식 속에 쌓여있는 화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차 압력이 세지고 밖으로 나오려는 힘이 강해진다. 예컨대, 평소에 얄전하거나 다른 사람들의 비위를 잘 맞추는 사람이 어느 날 화가 나면 이처럼 분노가 화산 폭발하듯 하는데 바로 이러한 이유인 것이다. 반대로 이러한 분노의 에너지가 밖으로 표출되지 못하면 자신을 스스로 공격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우울증의 증상으로 표출되는 경우도 있다(김용태, 2015). 이때 변화하는 장애에 대한 조절 및 상호작용 방식을 변화시킬 수 없게 되었을 때, 신경증이 발생할 수 있다. 게쉬탈트 상담에서는 ‘알아차림(awareness)’과 같은 접촉을 끊임 없이 수행하도록 한다. 현재 일어나는 언행, 생각, 감정 등은 전체 중의 부분이기 때문에 늘 깨어 있는 상태를 강조하게 된다. 지금 나의 감정상태는 전체를 게쉬탈트 하고자 노력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부분의 알아차림을 못하고 있다는 것은 게쉬탈트 상담에서는 큰 의미가 있는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현재 상태와의 접촉은 전경으로 떠오른 게쉬탈트를 해소하기 위해 환경과 상호작용을 하는 행위이며, 에너지를 동원하여 실제의 환경과 만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알아차림은 게쉬탈트 형성을 통해 게쉬탈트의 해소와도 관련을 짓는 일이다. 자연스럽게 게쉬탈트가 전경과 배경으로 서로 교체되어 가면서 ‘게쉬탈트 형성-해소’를 통해 유기체를 생성해내기 때문이다(박성수, 김창대, 이숙영, 2019).

만약, 지금 여기에서 성장 과정상 입은 심리적 상처로 인해 접촉이 불가능한 상태가

된다면, 그것은 에너지가 신체의 한 부분에 집중되는 것으로서 대개 억압된 감정과 관련이 있다. 그 미해결 된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서 현재의 시점으로 과거의 상황이나 사건을 가져오게 한다. 예컨대 모친으로부터 사랑한다는 말을 듣고 싶었던 어떤 내담자가 있다면 과거 모친을 현재로 데리고 와서 빈의자 기법, 부분들과의 대화, 꿈작업 등을 통해 현재에서 그러한 미해결 된 감정을 표현하도록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내담자는 다른 사람에 대한 자신의 감정을 명료화 할 수 있고 새로운 행동을 시험해 볼 수도 있다. 역할을 바꾸어 가면서 대화를 해 봄으로써 상대방의 시각과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한편, 타인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의 억압된 부분 혹은 개발되지 않은 부분과의 접촉도 가능하여 내담자의 내면 세계를 깊이 탐색할 수 있게 된다. 그러므로 게슈탈트 상담에서는 내담자가 욕구와 감정의 자각, 신체 자각, 환경 자각, 언어 자각 등 늘 깨어 있도록 한다. 예컨대, “당신의 신체 감각을 느껴 보세요.”, “당신의 손이 무엇을 말하려고 합니까?” 등 감각의 접촉을 시도하게 한다. 게슈탈트 상담은 정신적 작용과 신체작용이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본다. 상담자는 다양한 기법들을 상담의 과정에서 활용을 한다. 이처럼 상담자는 내담자의 문제를 해석하는 것 보다 지금-여기에서 내담자가 어떻게 경험하는가에 초점을 두게 된다.

나) 【실제 사례 VII- 1】의 게슈탈트 상담전략

내담자 38에서는 모친의 학대 경험을 통해 괴로워 했던 ‘내 안의 어린 아이’(오재은, 2004)가 공포스럽고 무섭고, 학대로 인하여 괴로워하며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게슈탈트(Geschtalt) 상담 치료에서 내담자가 힘을 가지려면, 학대 받고 있었던 내담자를 현재 상담장면으로 데리고 와서 모친의 학대경험과 감정을 충분히 토로하게 하는 등 ‘미해결 과제’를 다루어야만 할 것이다. 모친이 자신을 학대해야만 했는지 내담자는 그 당시는 어린 초등학생으로서 미처 표현하지 못했던 감정을 상담자로부터 충분히 수용 받고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할 것이다. 그러한 억압되고 좌절된 경험들은 ‘미해결 과제’로 무의식에 표류되어서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데 제한을 갖게 한다. Freud는 정신분석 과정에서 무의식과 억압이라는 중요한 개념을 밝혀냈다.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불안이나 두려움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해 감정을 억압한다. 화, 슬픔, 외로움, 수치심같은 부정적 감정을 표현하면 위험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무의식

속에 억압한다. 즉, 불편하고 위험한 ‘진정한 감정’은 속으로 눌러 놓고, 비교적 안전한 ‘가짜 감정’(김용태, 2015)으로 대신한다.

사실 내담자는 자신의 문제의 전문가이다. 그러므로 상담적 치료접근에서 스스로 많은 기여를 하게 된다. 상담자는 그들의 내담자를 개념화와 치료의 과정에서 완전히 개입할 수 있도록 상담자나 심리치료자들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이 내담자는 모친이 돌아가실 때까지도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쌓여진 양금으로 인해 무척 힘들었다고 호소한다. 모친과 얽혀진 상황마다 맺힌 한(恨)이나 감정의 카타르시스(Katharsis)가 필요할 것이다. 최소한 상담장면에서 과거 권위자였던 모친을 대신해서 ‘빈의자 기법’등을 통해 모친의 입장이 되어보기도 하고, 자신의 입장도 들어보는 등 여러 각도로 자신과 상대방을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는 계기가 필요할 것이다. 이런 상황의 재연은 상담자를 통해 과거 모친에게서 받아보지 못한 공감과 수용을 통해 재양육의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다.

또한 내담자 40에서 내담자는 야간 학교를 다니면서 힘겹게 돈을 버는 등 모친으로부터 전혀 수용이나 인정을 받아본 경험이 없다. 내담자들은 권위자로부터 인정을 받고 싶은 욕구도 있을 수 있고, 그러한 환경 속에서 굳세고 성실하게 자신이 맡은 일을 무리가 없이 잘 견뎌온 내담자의 삶의 의지에 대해 ‘공감적 이해’와 더불어 ‘수용’을 얻고자 한다. 상담자로부터 받은 수용과 공감받은 경험은 현재 내담자가 현실을 직시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사주팔자를 볼 줄 모르는 내담자라도 자신의 살아온 삶은 내담자 스스로 더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내담자 41에서 그는 “엄마에 대한 정이 없었다.”고 말한다. 그래서 자신이 만나는 여자로부터 그런 모친에게서 받을 수 없었던 부족분을 채우고 싶었으나, 그런 것을 받아주지 않더라는 것이다. 그런 부분을 받아준 여자들이 없었다고 토로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만나고 있는 여성은 그러한 부분을 채워줄 것처럼 말한다. 그렇게 느끼는 구체적인 상황들, 수용 받는 사건들에 대한 탐색이 필요하다.

예컨대, ‘개방형의 질문’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현재의 여자친구는 어떤가요? 그러한 공허감을 메워 주신다면 어떤 것들이 있나요? 그러한 행동이나 표현들은 나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옵니까? 등으로 충분히 현재 사귀고 있는 이성애에 대한 감정과 욕구와 원함 등을 충분히 탐색할 수 있어야만 한다. 왜냐하면 그러한 자기 이해와 타인 이해는 내담자가 현재 만족스러움과 불만족한 두가지 양가감정에 대해 보다 명확하게

자신을 들여다 보는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계속 이성과의 관계를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숙명적 해석처럼 좋은 결과가 될 수 없으니 관계를 포기하게 될지, 아니면 두 가지 방법을 수용하는 절충안이 필요하다. 상담자 40에서 “너무 빠지지 마세요.”라고 솔직한 심정을 들려주는 조언은 내담자가 상담자의 조언을 따를지에 대한 좀더 깊은 혜안을 가지고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여유를 갖을 것이다. 그것은 곧 수용이요, 자신들이 어떠한 문제에 대해 편향된 지각을 하고 있다는 통찰은 객관적으로 자신을 바라볼 수 있으므로 그 자체만으로도 치료적 효과가 있을 수 있다(김유숙, 2006).

이상으로, 【실제사례 VII- 1】의 명리상담 사례는 내담자에게 숙명적 한계만을 알려주는 기존 철학관 상담방식을 따르고 있다면, 여기서는 내담자를 깊이 있게 이해기 위한 작업으로서 서양상담의 슈퍼비전을 차용하여 서양상담적 차원에서 기존 명리상담 사례를 조명해 보았다. 서양 상담자의 입장에서 내담자의 심리를 이해하고 보다 내담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자신의 가치를 실현하고 스스로 자신의 문제를 통찰하기 위한 상담의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어떠한 방향이든 선택은 내담자에게 달려 있다. 여기서는 서양상담의 주요 이론으로서 정신분석, 인지행동, 인간중심, 게슈탈트 상담의 상담이론과 전략을 소개하였다. 그러나 아무리 훌륭한 상담이론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내담자의 상황, 맥락, 처해진 환경, 욕구 등 현재 무엇을 원하는지에 따라 상담은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날 것이다. 즉, 상담자가 내담자를 바라보는 인식의 틀에 따라서 각기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내담자의 자유의지를 위해서는 여러 측면에서 탐색과정이 필요하다. 앞에서는 서양 상담이론의 주요이론을 중심으로 이론마다 어떠한 느낌인지, 그러한 이론을 통해 어떤 내담자의 강점이나 자원을 발견하고 이끌 낼 수 있을지 살펴 보았다. 상담자는 내담자의 성격 성향과 그것으로 인해 벌어질 수 있는 심리상태, 가족의 역동을 통해 내담자의 가족 내에서의 위치와 역할을 통해 보다 내담자의 심리를 심층적으로 읽어낼 수 있다. 이처럼 표면으로 내담자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상태를 꺼집어 낸다는 것은 스스로 자신을 객관화시켜 자신의 문제를 통찰하고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이처럼 서양 상담기술의 응용은 보다 내담자의 굵직한 삶의 역경과 더불어 심리적인 부분까지도 읽을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시도의 도입은 명리상담의 거듭남을 위한 제안이 될 수 있다.

기존의 명리상담은 무척 어렵고 일반인들이 소화하기가 힘들다. 명리상담 안에 앞서 언급을 한바 있듯이 “내담자가 왜 이곳에 왔을까?”에 대한 물음에 답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명리상담은 생·년·월·일·시만 가지고 상담을 위한 화두를 제시하거나 가장 힘든 상황을 아무 꺼리낌 없이 이야기 할 수 있다는 것은 단기상담을 주장하고 있는 현시대의 상담의 요청을 해소시키는데 일조할 수도 있다. 뿐만 아니라, 상담을 위한 많은 도구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기존의 명리상담을 비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상담에 필요한 좋은 도구를 갖추고 있는 동양 철학으로서 이제는 서양 상담의 기술 및 방법론의 도입을 통해 거듭나야 할 것이다.

예컨대, 서양상담자들은 주기적인 슈퍼비전(Supervision)을 통해 자신의 상담이 잘 된 것인지 상담이 주관적으로 빠질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상위 슈퍼바이저(Supervisor)에게 자문을 구하면서 자신의 상담기법, 상담이론 등이 적절하게 적용되었는지 재정비를 하게 된다. 그것은 상담자에게 의미있는 변화를 준다. 상위 감독자로부터 받는 슈퍼비전은 상담자가 상담 중에 놓칠 수 있는 실수에 대해 객관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고 더 나은 해안과 지혜를 얻게 한다. 이러한 노력은 기존의 명리상담가들의 실력적인 측면의 질적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상담은 숙명적 한계에 대한 결과를 말하는 것 뿐만이 아니라, 내담자 스스로 그러한 한계를 통해 자유의지를 가지고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도록 돕는 활동이어야 한다. 이는 동양철학으로서 일신우일신(日新又日新) 질적으로 거듭나는 명리상담의 발전 가능성을 보여 주는 일일 것이다.

다. 명리상담의 단기상담적 요소

여기서는 명리상담에서 볼 수 있는 단기상담적 요소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내담자는 스스로 자신이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를 가지고 온다. 【실제사례 VII - 1】의 내담자 3과 4에서 내담자는 ‘여자 문제’를 다루고자 하였다. 명리상담은 내담자들이 스스로 자신의 문제를 알고 싶고 개선하고 싶기 때문에 내담자들이 다루고자 하는 문제를 다루면 된다. 여러 가지 문제들 중에 상담의 주제는 내담자가 스스로 선택한 것이므로 내담자가 상담주제에 대해 상담자로부터 답을 듣고 문제가 해결된다면 바로 상담은 종결이 된다. 내담자들은 숙명적 한계라 할지라도 다가올 미래에 대한 불안에 대한 선택권을 가질 수 있다. 명리사주분석을 통한 숙명적인 해석은 그 결과가 좋은 방향이든 그와 반대의 상황이 되든 그것에 대한 선택권은 내담자가 스스로 결정할 것이다. 숙명론적 해석에 대해 그대로 순응하는 내담자도 있을 것이요, 반신반의하면서 참고사항 정도로만 받아 들이는 내담자도 있을 수 있을 것이다.

김계현 등(2011)은 단기상담의 구조 세우기를 위해 내담자는 상담의 주제를 결정할 책임이 있다고 말한다. 예컨대,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할까요?”라고 상담자는 내담자에게 질문하는 방법도 좋을 수 있다. 이처럼 서양의 단기상담에서도 내담자들은 ‘기대 명료화 하기’를 선호하고 있다. 그런 후에 상담목표의 구체화를 위해 상담의 구조를 세우게 된다. 특히 상담의 목표는 구체적으로 세워야 함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이러한 이유는 상담이 종결될 때 상담목표가 달성되었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이다. 너무 허황되거나 추상적인 상담의 목표는 자존감이 떨어지는 내담자인 경우 성취감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내담자가 상담을 통해 힘을 갖게 되는 원동력을 갖게 하기 위해서는 내담자 스스로 실천할 수 있는 목표가 좋을 것이다(이장호, 1991; 박경애, 2000). 그리고 단회기 상담이나 단기상담은 시간이 짧고 정해진 시간에 내담자 스스로도 변화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이유로 상담자는 내담자에게 상담중에도 남은 상담시간에 대한 속도나 목표달성을 위해서 촉구가 필요하다. 회기중에 내담자에게 앞으로 남은 시간을 알려 주거나 다음 시간으로 미루어야 할 것 같다는 이야기를 전해야 한다(이명우 등, 2005).

또한 무의식의 활용을 언설한바 있는 밀튼에릭슨은 내담자가 겪고 있는 심리적으로 경직된 패턴을 깨기 위한 초점 옮기기의 한 방법으로 ‘증상을 세분화하기’라는 상담 기술을 쓰기도 한다. 이는 내담자의 경직된 패턴을 무너뜨리는 작업으로서 ‘개념의 해체’를 의미한다. 증상을 세분화한다는 것은 감정적인 자극에 압도당하는 내담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 문제의 현실은 세분화될 수 있고, 개인의 에너지가 전체보다는 일부분에 전념을 할 때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고 해결책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양정국, 2016). 이는 마치 집체만한 바위를 어떻게 옮길것인가?의 고민을 일소시키게 될 것이다. 힘으로 맞대응을 하기보다는 지렛대의 원리를 이용한다든지 힘의 원리를 이용하여 살살 반동을 이용하다가 균형을 잃은 바위는 전혀 움직이지 않을 것 같지만, 다른 공간으로 위치 이동을 시킬 수 있는 원리와 같다. 이러한 원리로 본다면, 명리상담에서는 내담자 스스로 알고 싶어하는 자신의 문제를 들고 오기 때문에 거기서 부터 상담은 시작이 되는 것이다. 단회기 혹은, 단기상담이어도 바로 당면한 핵심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저항없이 바로 상담은 시작이 될 수 있다.

둘째, 상담자는 내담자의 생·년·월·일·시 만을 묻고 바로 상담의 주제가 결정된다. 이는 단기상담으로 갈 수 있는 최대의 장점으로 볼 수 있다. 서양의 상담에서도 마찬가지로 법칙은 있다. 내담자의 문제는 복잡적이고 다양하다. 심리적 문제와 더불어 현실적인 문제들도 있을 것이다. 내담자의 문제는 이처럼 다양하므로 내담자의 심리문제와 여러 현실적 문제들을 한번에 다루기는 힘이 들 수 있다. 아마도 몇 회기는 힘이 들 것이고, 몇 십회기 혹은 몇 백회기처럼 일생동안 상담을 해도 모자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상담자와 내담자 사이에 상담비용, 시간 등을 고려하여 상담을 위한 목표설정을 하기 마련이다. 상담에서는 내담자가 현재 힘들어 하는 부분을 다루어야만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초기 상담과정에서 내담자가 가지고 있는 현실문제를 상담하기 위한 설계도가 필요할 것이다. 물론 상담자가 바라본 상담의 목표도 있을 것이며, 내담자가 진정으로 바뀌고 싶은 목표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차이는 상담과정 중 내담자와 상담자가 상담목표를 설정하는 과정을 통해 상담종결시 목표의 달성여부를 확인하는데 이용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단회기 상담(Bloom, 1992; 김계현, 1992; 문창희, 2008; 박경애, 2000)은 내담자의 핵심문제를 신속히 파악할 것, 내담자의 강점을 부각시키고 내담자와 함께 인정할

것, 단회기상담이 가능한지 신속히 파악을 할 것, 높은 상담자의 전문성이 필요하며 충분히 내담자 중심의 상담이 될 것을 그 원리로 강조하였다. 이외에 지금-여기에 초점을 두고 단일한 목표를 수립하고 유지해 가면서 적극적 경청과 공감 등으로 상담관계 형성을 신속하게 할 것 등이 단회기 상담의 주요한 원리이다. 공통적이지는 않지만 이것들 이외에도 지금-여기에 초점을 두기, 단일한 상담목표 및 초점유지, 빠른 관계형성, 적극적 경청과 공감, 문제해결에 필요한 자원탐색, 상호 동의한 상담목표 설정, 지시와 조언의 활용 등의 요소들도 단회기와 같은 단기상담의 구성으로서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아래 표는 단회기 상담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표 VII- 1.에서 알 수 있듯이 단회기 혹은 단기상담의 과정은 내담자의 핵심문제의 신속한 파악, 강점부각 및 인정, 단회상담 여부의 신속한 판단, 내담자 중심적 태도, 상담자의 전문성 등을 바탕으로 진행된다(Fisch, Weakland, Segal, 1982; 김계현 등, 2011). 한편, 탈먼(1990)은 상담관계 확립과 문제규명, 문제 해결 시도 노력의 탐색, 측정 가능한 행동목표 수립, 강점 지지 및 상담 중재 실행 등을 통한 상담의 과정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표 VII- 1.을 참고하면 비교하는데 이해가 쉽다.

표 VII- 1. 단회상담의 원리 비교

단회상담의 원리	Bloom	김계현	박경애
핵심문제의 신속한 파악	○	○	○
강점부각 및 인정	○	○	○
단회상담여부의 신속한 판단	○	○	○
내담자 중심적 태도	○	○	○
상담자의 전문성	○	○	○
지금-여기에 초점	○	○	
단일한 상담목표 및 초점유지	○	○	
빠른 관계형성		○	○
적극적 경청과 공감		○	○
문제해결에 필요한 자원탐색	○		
상호 동의한 상담목표설정		○	
지시와 조언의 활용		○	

언급하였듯이 명리학은 인간의 태어난 생·년·월·일·시를 여덟글자로 부호화하여 어떤 육친의 기능이 현재에 좋고 나쁜기인지 그 흐름과 방향성을 예측할 수 있는 학문이다. 명리사주분석을 통해 상담자는 내담자가 가장 힘들어 하는 육친을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내담자가 당면하고 있는 현재문제에 대해 핵심화두를 던질 수 있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분석은 개인의 판단일 수 있어서 이론을 검비한 ‘양인의 칼날’ (김동화, 2011)과 같은 전문성은 필요할 것이다. 그러한 핵심문제를 지금-여기에서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단기상담이 충분히 가능할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핵심 던지기’는 상담의 도구(Tool)로서 위에서 언급한 서양 단기상담의 여러가지 원리들을 함축적으로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상담을 가능하게 한다.

세째, 명리상담만의 핵심기술이 있다. 그러한 핵심기술에는 ‘핵심 던지기’, ‘직면(直面)적 저항 다루기’, ‘직언(直言)을 통한 공감적 이해’, ‘물상론적(物象論的) 바라보기’ 등을 말한다(하은희, 김성봉, 2019a: 858-868). 이러한 명리상담에서만 볼 수 있는 상담기술들은 단기상담을 가능하게 한다. ‘푸는 문화’라 일컫는 한국의 내담자들은 자신의 감정이나 문제에 대해서 먼저 나서서 말하기 보다는 쪽집게 도사처럼 “당신의 문제가 이것이지요?” 라고 ‘핵심 던지기’를 통해 내담자가 가장 고민스러워 할 문제를 직언을 하면 보다 상담은 활기를 띠 수 있다. 또한 가장 핵심문제에 대해 직면시키면 내담자는 깊은 자기탐색을 시도할 수 있으므로 상담은 오히려 쉽게 풀어 나갈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경지에 이르기 위해서는 상담자의 전문성이 필요하다. 명리사주분석을 통해 내담자가 여기에 왜 왔을까?에 대한 답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서양의 경우에 자아실현을 목표로 사는 문화권이기 때문에 내담자의 문제를 상담자가 주도적으로 이끌면서 내담자의 문제를 구속하는 표현은 저항감을 가질 수 있다. 왜냐하면 그들의 심리체계는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감정, 가치, 욕구, 원함, 희망 등 개인의 가치가 무척 중요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당신의 생각이 이것이 아닙니까?”라고 제안을 하는 것은 저항을 가질 수 있으므로 상담을 원활하게 이끌어 나가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부분에 힌트를 얻어 탄생한 것이 로저스의 ‘인간중심’ 상담이다. 인간중심 상담에서 상담자는 단지 내담자의 심리적 어려움에 대한 호소를 적극적인 경청과 공감적인 이해를 해 주는 것만으로도 내담자는 고마워 할 수 있고, 마치 자신의 가치를 충분히 수용받는 느낌을 가질 수 있다. 비록 상담이 내담자에게

문제의 해결에 이르는 변화까지 도달하지 못했어도 내담자에 대한 이해만으로도 훌륭한 상담이 될 수 있다. 상담자로부터 받은 수용은 내담자의 변화 의지를 촉구할 수 있는 계기를 주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한국의 내담자들은 고맥락 사회에서 성장해 왔기 때문에 서양의 인식체계와는 달리 나 자신의 존재보다는 그에 앞서 나의 주변의 환경을 더 우선시한다. 즉, 관계중심 사회에서 내담자는 타인을 먼저 배려하는 성격적 특성을 갖는다. 한국의 내담자들은 타인의 기쁨을 통해 나의 존재가 더 드러나고 타인 속에 늘 함께하는 민족이므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거나, 먼저 자신의 문제를 꺼집어 내는데 제한이 있을 수 있다. 물론 신세대들은 의사소통을 자유롭게 하도록 교육기회도 많고 서양의 교육방식을 접하면서 성장을 해왔기 때문에 기성세대들 보다는 감정 표현에 있어 자유로울 수도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한국 내담자들은 유교적이고 수직적 집단주의에서 성장해온 민족성을 그대로 반영하여 자신을 표현한다. 그러므로 이러한 민족적 특성을 감안한다면, 핵심적인 문제를 알고 다루는 일은 서양인의 인식체계에서는 이해할 수는 없을지 몰라도 한국 내담자에게는 상담의 진행을 보다 빨리 그리고 단기상담의 가능성에 대해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단기상담을 위해 내담자가 스스로 호소문제에 대한 주제를 정하고, 구체적으로 실천가능한 상담의 목표를 정하는 일은 단기상담의 핵심 요소라고 말할 수 있다(박경애, 2000; 송동림, 2006; 민병배, Singer, 1970; Haley, 1987) 내담자의 호소문제를 신속하게 파악해서 사례개념화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상담이론, 상담기법, 심리치료 방법을 선택하면 될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명리상담은 단회기 혹은 단기상담을 위한 답에 효과적일 수 있다. 내담자가 명리사주분석을 통해 현재 어떠한 숙명론적 한계상황에 접해 있는지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즉, 내담자가 상담에 온 이유를 상담자는 이미 알고 있다는 것이다. 그것은 단기상담으로서 갖는 가장 큰 장점이라 볼 수 있다.

라. 명리상담과 감정(feelling), 욕구(desire), 희망(want) 다루기의 관계

명리상담과 감정 다루기, 욕구 다루기, 희망 다루기의 관계에 대해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일반적으로 명리상담에서는 감정을 공감해 주지는 않는다. 명리상담에서는 단도직입적으로 현재 내담자의 현안 문제의 성공과 실패를 예측해서 답을 제시할 수는 있으나, 그것으로 인해 우울이나 심리적 불편감을 호소하는 내담자에 대한 배려의 기술은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상황이라면 명리상담은 서양상담의 기술처럼 인간의 심층적 심리를 읽을 수 있는 상담의 기술이 필요하다. 인간의 심리를 읽어내는 일은 무척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상담의 심층적 기술들이 도입된다면, 명리상담도 보다 유연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예컨대, 명리상담에서도 내담자의 감정을 보다 세세하게 읽어내기 위해 내담자의 이야기를 꺼내어 탐색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질문하기’, ‘공감적 이해’, ‘경청’, ‘생각이나 감정에 대한 반영(Reflection)’, ‘직면’ 등의 기술들을 적용할 수 있다. 이러한 기술들은 내담자가 자신의 문제를 들여다 보기 위해 스스로 노력할 수 있게 한다.

감정 다루기의 중요성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실제사례 VII- 1】의 내담자는 숙명적 한계상황에 대한 현실적 대안을 찾고 있다. 비교적 건강한 내담자로 보인다. 사실상 그런 여자 문제로 인해 불안감은 있으나, 그것으로 인해 심리적 우울감이 있다던지 불안증이 심해 보이진 않는다. 선택의 기로에 서서 갈팡질팡하는 모습이기도 하지만, 자신의 문제를 직시하고 있는 건강한 내담자일 수 있다. 그러나 내담자에게는 감정(feeling), 욕구(desire), 희망(want)이 무엇인지 충분히 파악을 할 필요가 있다(유성경, 이동혁, 2000).

김용태(2015: 53)에 따르면, 뇌의 구조 중에서 전두엽이 감정과 관계된 뇌라고 말하고 있다. 전두엽이 손상된 환자들은 특히나 인지적인 면에서는 문제가 없었으나 감정을 느끼지 못한다고 한다. A가 좋은지, B가 더 좋은지 선택을 하는데 있어서 힘들 수 있다. 이처럼 감정은 우리가 선택과 관련지어 생각할 수 있는데, 스스로 무언가를

하고 싶어 하는 마음은 감정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이다. 내담자의 감정은 모친의 학대 경험을 통해 버려진 내안의 어린 아이에 ‘투사적 동일시’를 하면서 현재 교제 중인 여성에게 보이고 있다. 그것은 답답함, 안타까움, 외로움, 불쌍함 등의 감정으로 표현이 가능하다.

명리상담에서 상담자가 내담자의 감정을 읽어주는 작업이 동반된다면, 내담자의 이해를 위해 상담은 보다 깊이가 더해질 것이다. 예컨대, 내담자 24에서 내담자는 “답답해서 선생님을 찾아왔어요.”라고 자신의 답답한 감정을 털어 놓는다. 이러한 답답함이라는 감정의 상태라면, “무엇이 그렇게 답답하나요? 답답함은 당신에게 무엇을 의미하나요?”라고 내담자에 대한 의지를 탐색하기 위해 ‘개방형의 탐색질문’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단순히 숙명적인 한계나 결과만을 다루고 끝나는 상담보다는 내담자의 마음과 감정을 이해하기 위해서 개방형의 탐색적 질문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내담자가 답답함에 대한 이유나 상황이 있었다면, 이야기를 들어준다던지 서양 상담처럼 인간 중심의 ‘로저리안’이 되는 것도 내담자를 상담함에 있어서 질적 업그레이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감정은 내안의 욕구(Desire)나 희망(Want)과 관련(김용태, 2015)이 있다. 예컨대, 내가 짝사랑하던 사람이 다른 사람과 데이트를 한다고 가정을 해 보자. 그 소식을 듣는 순간 화가나거나 불쾌한 감정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감정이 일어난다는 의미는 감정 이전에 내가 상대를 만나고 싶다고 하는 욕구와 희망이 있었기 때문이다. 만약, 아무런 욕구나 희망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아무런 감정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불편한 감정을 부정하려고 하면 많은 에너지를 엉뚱하게 사용하기 마련이다. 인간은 원래의 불편한 감정에 더해서 이를 감추려고 하는 부분에 에너지를 쓰게 되므로 또 다른 심리적 위축과 함께 불편감을 갖게 된다. 이는 부정적 감정의 끌어안음을 의미한다. 어떤 감정을 느끼든 감정 자체가 나쁜 것만은 아니다. 부정적 감정이든 감정을 느끼게 된 이유가 있고 그 이유는 사람마다 다르다. 감정에 얽매어 왜곡된 삶을 살지 않으려면, 역설적으로 어떠한 감정이라도 환영해주고 돌봐주어야 한다(이홍표 역, 2008). 그러한 내담자가 가진 얽힌 감정의 실타래를 풀어낼 수 있다는 의미는 감정이 정화와 함께 스스로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한 욕구를 알게 된다. 그러한 과정은 내담자가 새로운 결정을 내릴 수 있고, 탄력적으로 자신의 문제를 바라볼 수 있는 여지와 함께 통찰할 수 있는 힘을 제공해줄 것이다. 그런 부정적 감정상태를 가진 나를 안아 주

는 일이다(김철호, 2017).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감정의 실타래가 마구 엉켜진 상태에서 마치 서랍 속에 질서 정연하게 정리가 되는 느낌을 가질 수 있다. 이러한 질서 정연한 감정 정리와 승화는 자신을 통찰하고 현재의 자신의 모습을 즉시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우리는 이러한 방식으로 예전에 잊었던 무의식에 상처들과 만나야만 할 것이다. 일명 우리는 스스로 감정의 수집가(affect junky)가 되어서 감정을 서랍안에 차곡차곡 정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나의 욕구를 찾는데 있어서 소소한 감정들을 제거함으로써 보다 쉽게 욕구와 바램을 찾아낼 수 있게 한다(권석만, 김윤희, 한수정, 김향숙, 김지영 역, 2005). 이처럼 감정을 올바르게 포착하는 일은 중요하다. 내담자가 감정과 행동을 구별할 수 있는지, 감정을 말로 표현이 가능한지, 감정을 어떠한 식으로 방어에 활용을 하는지, 내담자의 문제가 수치심과 관련이 있는지, 죄책감과 관련성이 있는지 다양한 각도에서 탐색을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것은 곧 내담자의 욕구와 바램을 아는 일이기 때문이다.

【실제사례 VII- 1】 내담자 34에서 그는 여자에 대한 불쌍한 감정을 토로한다. 내담자는 여자 때문에 계속 당한 아픔과 시련이 많았고, 그런 아픔으로 인해 20여 년을 혼자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불쌍한 연민의 정을 가지고 있다. 그 안에는 곧 여성과 함께 하고자 하는 얽은 욕구보다 또 버림받을 수 있다는 ‘거절 경험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밑감정이 도사리고 있을 수 있다. 이는 곧 자신에 대한 연민일 수 있다. 상담자는 이러한 빙산의 일각과 같은 내담자의 겉감정보다는 그 안에 있는 내면적인 밑감정을 알아차릴 수 있어야 한다. 더이상 상처받기 싫은 어린 자아를 스스로 보호하고자 하는 심리적 기제가 작용할 수 있다. 심리적 차원으로 접근한다면, 내담자 자신의 버려지고 거절되고 학대받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여성에게 투사시켜 이 내담자에게 무의식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자신에 대한 이러한 상황들을 상담자로부터 수용을 받는다면 감정은 한결 가벼워질 수 있을 것이다. 감정 정화, 혹은 카타르시스(Catarsis)는 내담자가 가지고 있는 욕구불만, 열등감 등 무의식의 공간에 얼어붙은 감정을 자극하고 통제함으로써 언어, 행동, 감정 등으로 분출시키며 해소시킨다(우정애, 김성봉, 박태수, 2012).

감정은 억압이 아니라 소화의 대상이다. 억압이 어둠속에서 부정적으로 감정을 밀어 넣는다면 소화는 긍정적인 의식으로 끌고나와 사라지게 하는 작업이다(김용태, 2015). 이러한 과정이 지나가면, 더 쉬운 삶을 살 수 있다. 내 감정을 타인에게 돌리면 많은

사람들과 다툼이 벌어질 것이다. 그러나 나의 감정을 소화시킬 수 있다면 다른 사람과 아무런 연관을 갖지 않아도 된다. 왜냐하면 나 자신만 바꾸면 되기 때문이다. 그것은 스스로를 인정하는 일이다. 현재 내가 처해있는 상황을 인정하는 일은 문제를 보다 객관적으로 이해하게 만들고 새로운 도전으로 나아가도록 유연성을 갖게 한다.

이러한 모습은 【실제사례 VII- 1】 내담자 36에서 보여준다. 어린 시절 모친의 학대와 애정결핍에 대한 가족사를 개방하고 있다. 모친으로부터 늘 정을 느끼지 못하고 성장해 왔다. 융은 인간의 무의식 속에 ‘아니마(Anima)와 아니무스(Animus)’라고 하는 자신만의 남성상과 여성상을 가지고 있다고 말한다. 아니마는 남자에게 나타나는 여성상을 말하며, 아니무스는 여성의 무의식 속에 가지고 있는 남성상을 의미한다. 이러한 상은 자신의 성장과정을 통해 얻어진 결과로 볼 수 있다. 예컨대, 남녀가 처음 만날 때 “제 눈에 안경”이라는 말처럼 잘 생기고 못생기고를 떠나서 내 눈에만 보이는 ‘무의식의 끌림’이 있을 수 있다. 그러한 이유는 바로 내 안의 남성상이나 여성상과 합치가 될 때 마치 매력적인 끌림을 가질 수 있다(Jung, 1981).

만약, 성장 배경상 엄마로부터 학대경험을 가진 내담자라면 외관상 좋은 것만 끌리는 것이 아니라, 고생한 엄마의 모습을 닮았다던지, 오히려 강함보다는 연약하고 가녀린 모습의 여성상을 원할 수 있다. 혹은 그 반대의 개념으로 모친의 존재가 크고 거대하게 내 안의 무의식에 존재하고 있다면, 순하고 버림받고 늘 타인에게 사기를 맞는 등 힘들어 하고 외톨이로 살아온 여자에게 강한 보호 본능을 주고자 하는 힘이 발현될지도 모를 일이다. 이처럼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말처럼 심리적인 이유는 여러 가지로 해석이 가능하다.

이처럼 감정의 카타르시스를 느끼고 내담자 자신이 “그래서 그랬었구나!”라는 자신의 삶을 통찰하며 자신의 심리적 역동이 왜 그러한 식으로 경직되었는지, 자신의 관계 패턴은 어떠한 특성이 있는지 알게 된다. 이러한 과정은 곧 새로운 선택의 갈림길에서 내담자 스스로 변화의 의지를 갖게 한다. 그러므로 감정을 다룬다는 것은 욕구를 아는 것이다. 자신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진정한 욕구가 무엇인지 알게 된다는 의미는 자아 실천하며 가치롭게 변모하려는 의지를 발견하는 일일 것이다. 그것은 곧 변화의 시작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상담장면에서 감정을 다루는 일은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다.

둘째, 기존의 명리상담은 대체로 1회기로 끝나는 단회기 상담일 수 있으므로 굳이

심리적인 부분까지 다루지 않는다. 서양상담에 비하면 명리상담은 비용은 적을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당락이 판가름 나는 문제들 예컨대, 시험의 합격여부, 재물의 희비, 일의 성사문제, 궁합이 좋은지 나쁜지, 올해의 운의 향방 등 디테일함 보다는 방향성만을 제시하는 것으로 보인다. 내담자들도 심리문제는 심리센터나 정신과를 선호하고 이러한 종류의 문제는 철학관으로 가는 것 같다. 그러나 명리상담은 단기상담에 이를 수 있는 ‘핵심 던지기’와 같이 그날 내담자가 가장 힘들어 할 수 있는 상담의 주제를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담에서 좋은 도구가 될 수 있다. 이러한 부분을 서양상담에 응용을 한다면 점복 문화권의 한국 내담자들의 문화적 특성을 고려하였기 때문에 다문화 상담적 접근으로 말할 수 있다.

그러나 모든 내담자가 자신의 감정이나 욕구나 바램을 드러내기를 원하지는 않을 수 있다. 상담자는 이러한 상황에서 보다 융통성이 있게, 그리고 탄력적으로 상담에 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내담자마다 살아온 삶의 과정과 상황이 모두 다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내담자의 색깔에 맞는 맞춤형의 상담방식과 상담의 기술은 필요할 것이다. ‘동도서기(東道西器)’라고 하여 동양은 사상이나 도(道)와 같은 정신적인 것들이 우위를 차지한다면, 서양은 기술로서 그러한 심오한 정신 문화에 대한 주제들을 쉽게 알아 들을 수 있도록 과학화하고 체계화하여 대중에게 다가서는 기술적 분야에서 큰 두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동, 서양의 차이를 인정한다면, 특히 내담자의 감정을 읽어 주는 일에 있어서는 서양상담의 진보적 기술들을 통한 기술적 보완작업이 필요하다.

심리적 역동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 다음과 같은 작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먼저, 심리치료를 하는데 있어서 상담자는 내담자가 자기(Self)를 확인하는 작업을 다룰 필요가 있다(김창대, 2009). Self는 여러 상담이론에서 그 뜻은 같지만 표현이 다르다. 로저스는 수용개념을 통해 자기 존재에 대한 타당성의 확인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코헛(H. Kohut, 1913-1981)은 자기에라는 개념을 쓰면서 모든 사람은 자기 자신이 온전한 존재로 확인이 되고 타당화되는 경험이 중요함을 강조한다. 이러한 내담자의 자기개념을 확보하기 위해서 상담자는 여러 상담적 접근을 한다. 예컨대, 버텨주기(holding), 충분히 좋은 엄마가 되기(good enough mothering) 등의 기술이 바로 자아

실현 경향성이 있는 참자기(real Self)를 찾게 해 주는 기술이 된다(김창대, 2009; 임은미, 2011). 이러한 기술들을 통해 상담자는 내담자가 현실에서 존재로서 가치로움의 불일치한 상황이나 사건을 경험할 때, Self가 무엇을 원하는지 자기의 목소리, 내면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조력하게 된다. 참자기의 목소리를 듣는 경험은 내담자에게 중요하며, 내담자가 자신의 경험세계에 들어갈 수 있도록 심리적 안전지대를 마련해 준다.

참자기를 만나기 위해 상담자는 여러 가지 방법을 쓰게 된다. 이러한 방법들은 내담자 자신의 내포를 확인하고 외연을 확인하는 일이 될 것이다. 내포를 확인한다는 의미는 상담자가 내담자의 경험세계에 대한 공감과 적극적 경청을 통해서 내담자는 인정과 칭찬을 경험하게 되며, 내담자의 경험을 버텨주기를 통해 과거 충격적인 경험에서 미처 말을 하지 못했던 상황속의 내담자의 상태를 있는 그대로 확인한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상담자의 공감적 이해와 수용은 내담자 자신의 내연 뿐만아니라, 외연을 확인할 수 있게 한다.

외연을 확인한다는 의미는 내담자가 자신과 타인간에 있는 경계(boundary)를 확보한다는 것이다(김계현 등, 2011). 경계를 확보한다는 것은 타인과 나는 전혀 다르기 때문에 내가 타인의 눈치를 볼 필요도 없고 타인도 자신의 가치로운 삶을 살고 있는 존재임을 알게된다는 의미가 된다. 다시 말해서 내담자는 자신의 정서적 불편감을 내가 아닌 타인에게 비난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즉, 타인에게 화가 나거나 비난은 더이상 필요하지 않다. 이는 한 개인이 지금보다 좀더 나은 상태로 옮겨가기 위해서 타인과 나사이에 경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내담자가 타인에게 투사적 동일시를 한다거나 하는 일들을 줄일 수 있게 하며, 타인의 경험이 내담자가 하는 경험과 다를 수 있음을 인정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그리고 내담자는 Self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되면서 주변 환경이나 인물들에 의해 끌려다니는 내가 아니라, 진정한 나로서 Self가 원하는 곳으로 변화를 시도할 수 있다.

다음으로는 진정성이 확보(김창대, 2009)되어야만 한다. 진정성을 유지하는 것은 내담자로 하여금 자신의 경험세계를 뚜렷하게 알아차릴 수있도록 돕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상담 장면에서 내담자가 지금-여기에서 내담자의 경험을 지각하는 일은 무척 중요한 일이다. 그러한 진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상담의 기술로는 공감(인간중심), 버티기(대상관계), 담아내기(containing; 비온), ‘거기 머무르세요’기법(게쉬탈트), 실제

로 해보기(아들러), 대리적 내성(vicarious introspection; 코헛) 외에도 마비된 경험으로 인도하기, 과거의 외상경험으로 인도하기, 그동안 피하고 있던 불안유발 경험의 직면, 공포유발 경험의 직면, 우울 또는 불안과 같은 미분화된 감정의 명료화, 반응(reaction)이나 행동화를 유발하는 공포나 신체 감각의 직면과 분화, 이미지 작업을 통한 정서의 분화 등을 들 수 있다.

마지막으로 자기문제의 반복적 패턴에 대한 통찰 및 수용(김창대, 2009)이 필요하다. 패턴의 통찰 및 수용이란 내담자가 자신도 모르게 반복하는 행동 패턴이나 사고 습관을 자각하고 좀 더 적응적인 방향으로 수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대부분의 상담이론들은 내담자의 지속적이고 반복되는 행동패턴을 만드는 인지체계 대한 개념들을 몇몇 개씩 포함하고 있다. 그러한 반복적 패턴을 설명하는 이론들은 다음과 같다. 정신분석에서는 방어기제, 대상관계이론에서는 표상 혹은 작동모형, 아들러 이론에서는 생활양식과 기본적 오류, 인지상담에서는 비합리적 신념이나 스키마, 행동주의에서는 습관, 게쉬탈트 이론에서는 미해결문제를 추구하려는 다양한 행동들의 유형과 지금-여기를 경험하지 못하게 하는 다양한 방어들, 교류분석에서의 게임, 각본 등이 있는데 이러한 용어들은 내담자의 특정한 행동을 반복하게 하고 지속시키는 기제들이다. 밀튼 에릭슨은 상담자는 이러한 내담자만이 가지고 있는 반복되는 ‘경직된 패턴’을 흔드는데 초점을 두라고 말한다(이운주, 양정국, 2007). 상담자들은 내담자의 심리적, 성격적 문제를 경감시키기 위해 이러한 반복적 패턴과 기제들을 변화시키는 것을 상담의 목표로 삼고 있다. 그 이유는 선택의 기로에 선 내담자에게 변화를 할 수 있는 의지의 원동력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세제, 명리상담에서는 인간의 자유의지와 같은 내담자의 긍정적인 힘에 대한 가능성을 다루지 않는다. 인본주의에서는 동기를 모든 인간존재의 성장과 발달의 원인이 되는 내부적이고 활동적인 힘으로 본다. 즉, 인간은 스스로의 행동을 지시하고 활기를 주는 타고난 발달원리가 내재되어 존재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인본주의의 입장에서 볼 때 동기화되지 않는 내담자는 있을 수 없으며, 상담에서는 내담자의 성장과 발달을 위해 이미 내담자가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경향성을 증진시킬 필요가 있다(임규혁 등, 2015).

사실상 내담자에게 단답형으로 숙명적 한계에 대한 결과를 해석하는 일은 상담을

단조롭게 한다. 예컨대, 앞의 사례에서 상담자는 내담자에게 현재 교체중인 여성과 운명상으로 잘 맞는다고 말하지 않는다. 내담자의 숙명적인 한계를 정확하게 말을 하면서 어떤 희망이라든지 가능성을 위한 노력보다는 완전한 포기를 유도하는 것 같다. 인간에게는 ‘자유의지’라는 부분이 있다. 인간이 삶속에서 경험하는 한계상황은 많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망은 신앙의 단독자요, 한계상황은 끝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가장 실존적인 인간으로서 버티 나갈 수 있는 인간만이 가지는 의지가 있는 것이다. ‘오체투지’와 같이 팔다리가 없다면 다른 방법이라도 그것을 대체할 것들을 찾아내듯이 인간다운 해결 방안을 찾을 수 있다.

암환자들에게 있어서 ‘죽음’이라는 한계가 있기에 생존하는 그날까지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보내야만 하는 이유를 갖는다. 이러한 숙명적 절대상황에 대처하고자 하는 욕구와 바램이나 희망, 그럼에도 불구하고 뛰어 넘을 수 없는 장벽으로 인한 감정 등을 다룰 수 있어야 한다. 그러한 감정을 살피는 과정을 통해 내담자는 내면의 깊은 탐색을 시도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내담자는 인간만이 가지는 자유의지를 가질 수 있는 원동력을 얻는 계기를 얻게 된다. 그러한 의미에서 본다면, 현재 내담자가 느끼는 감정과 욕구와 희망을 살필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명리상담에서는 이러한 상담 기술을 통해 내담자의 의식적, 무의식적인 힘을 확장시킬 대안적 접근을 궁리해야 할 것이다.

‘숙명론적 한계상황의 수용’을 통한 인간의 의지 촉진을 위한 방법을 생각해 보자.

내담자가 일상에서 겪게 되는 문제는 실존적 불안과 관련이 있다. Yalom은 많은 내담자가 그들의 삶에서 피할 수 없는 네가지 궁극적 관심사, 즉, 죽음, 자유, 소외, 무의미성을 직면하게 될 때 실존적 불안이나 실존적 공허감을 경험하며, 이러한 실존적 주제들을 회피하는 삶의 존재방식을 선택할 때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았다(임경수 역, 2007). 실존적 선택과 책임의 수용이란 내담자로 하여금 실존적 태도를 가지고, 중요한 선택과 결정을 스스로 할수 있도록 만들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수용하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실존적 명제에서 나는 독보적인 존재로서 자아실현을 하는 가치가 있는 인간인 것이다. 남탓으로 돌리는 내가 아니라, 인간은 주어진 사주팔자의 숙명적인 한계상황과 맞부닥쳐서 싸울 수 있고, 그것을 통해 한계를 인정하고 인간의 자유의지

를 절대적 상황에서 찾을 수 있는 존재이다. 분리개별화기를 거친 아기의 모습처럼 더 이상 나를 제외한 타인에게 자신의 문제를 전가시키는 나약한 인간이 아니라는 것이다.

사주팔자상 숙명적 한계로서 여자 복이 없었던 내담자로서는 사실상 스스로도 자신의 이런 고민이 헛되다는 것은 이미 알고 있다. 이러한 숙명적 해석을 통해 스스로의 결정에 자신감을 갖기 위해서 상담실을 찾았을지도 모른다. 방문객(Visiter), 불평형(Complainer), 고객형(Costomer)의 내담자도 있을 수 있다(김계현 등, 2011). 상담자 43에서 상담자는 단호하게 “혼인신고도 지지분해 지나까 갈 때까지만 가라.”고 하면서 ‘직면(直面)’같은 조언을 내담자에게 말한다. 그것에 대해 서양의 내담자라면 당신이 내 문제를 이래라 저래라 판단을 하느냐고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이 내담자도 상담자의 명리사주분석에 대한 결론을 잘 수용하고 있다. 내담자는 상담자의 분석에 대해 “뭘, 솔직히 혼인신고할 생각이 없어요.”라고 단호하게 되받는다.

내담자는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알고 여자 복이 없다는 것도 인정을 한다. 그것이 내담자에게 평생 짊어지고 온 과제였기 때문에 그는 오히려 상담자의 직면적인 조언을 수락하고 있다. 그러면서 내담자 45에서 내담자는 “인중이 긴 사람치고 절대 배신을 하는 사람이 없다.”고 말하면서 둘 사이의 관계는 가는 날까지 지속되겠지만, 자신이 무리하게 먼저 관계를 끊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단호하게 말한다. 상담자의 조언처럼 주어진 인연의 시간까지는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 이런 상담자의 단호함 속에서 이미 자신의 상담문제에 대한 목표는 달성된 것이다. 상담은 소기의 목표를 달성하고 1시간 안에 단지 1회기라도 종료될 수 있는 것이다. 다만 명리상담에서는 내담자의 감정이나 불안을 다루기보다는 답만을 제시하고 있다. 명리사주분석을 통해 여성과의 숙명적 해석에 대한 결과가 그리 긍정적이지 않고 인연이 오래가지 않음을 단도직입적으로 지적하고 있다. 감정 다루기는 굳이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내담자 이외에 그러한 숙명적 한계를 통해서 우울이나 심리적 불편감을 갖는 내담자가 있다면, 상담전략을 달리 가야만 할 것이다. 숙명적인 명리사주분석과 함께 서양 상담의 사례개념화를 통해 ‘감정다루기’ 등 자신의 ‘핵심감정’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도록 자기이해 및 통찰치료를 병행한다면 좀더 상담의 내용면에서 질적으로 풍부해질 수 있을 것이다. 상담자는 내담자가 자신의 실존적 제한을 자각하고 자신의 선택에 대한 자유와 이에 대한 책임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한다. 그리고 내담

자에게 제한된 실존과 이를 피하고자 했던 삶의 존재방식에 대해 직면시키는 기법을 활용한다면, 그것은 곧 치료적 접근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김계현 등, 2011).

거듭 강조하면, 상담이란 상담자가 내담자들이 삶의 과정에서 직면한 개인적 문제에 대해 촉진적으로 의사소통을 하도록 만든다. 또한 자신의 문제를 현실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공통적으로 필요한 존재의 용기, 성숙의 의지, 자아관 확립, 창조의 지혜, 수월성 추구와 같은 힘을 기르게 하는 통합적 접근이다(박성수, 김창대, 이숙영, 2000). 위의 【실제사례 VIII- 1】에서는 단순히 숙명론적인 사주분석의 결과만을 운운하고 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숙명적 한계상황에 놓여있지만, 내담자가 반복되는 운명의 갈림길에서 늘 양가감정을 가지고 있다. 이런 부분에 갈등하는 내담자인 경우 변화의지가 생길 수 있다면 내담자는 갈등의 고민속에서 편안한 마음으로 자신을 수용하고 자신의 의지대로 펼쳐나갈 수 있는 내담자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내담자의 긍정적 변화의지를 촉진시키는 일은 중요한 일이다. 그리고 상담자와 내담자 모두에게 의미있는 자기 발견의 여행이라고 말할 수 있다(Vontress, 1986). 상담을 촉진하는 조건으로 자기(Self)의 확인, 진정성의 확보, 패턴의 자각과 수용, 다양한 지식과 기술의 습득, 실존적 선택과 책임의 수용 등을 다룰 수 있어야 할 것이다(김창대, 2009). 이러한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내담자의 심리적 역동에 대한 이해, 감정 다루기, 숙명론적 한계상황의 수용적 측면을 상담에서 충분히 다루어야만 할 것이다.

이와 같은 맥락으로 동양의 정신문화와 서양의 기술적 문화의 통섭과정 속에서 두 체계가 만난다면 새로운 창작물이 탄생될 수 있을 것이다(한형조, 2008: 나경미, 2018; 이은태, 2019). 서로의 것들은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장점과 단점이 되는 부분들을 통섭하면서 새롭게 이끌어 나간다면, 명리상담은 한국적 단기상담을 위한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3. 명리학 기반 한국형 단기상담 모형 제시

앞에서 다루었던 명리학 이론들과 명리상담 사례를 통한 사례개념화, 서양상담의 주요 상담이론적 관점을 통한 슈퍼비전 및 명리상담의 장, 단점 등의 고찰을 통해 본 장에서는 명리학 기반 한국형 단기상담의 모형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모형은 그림 VII-2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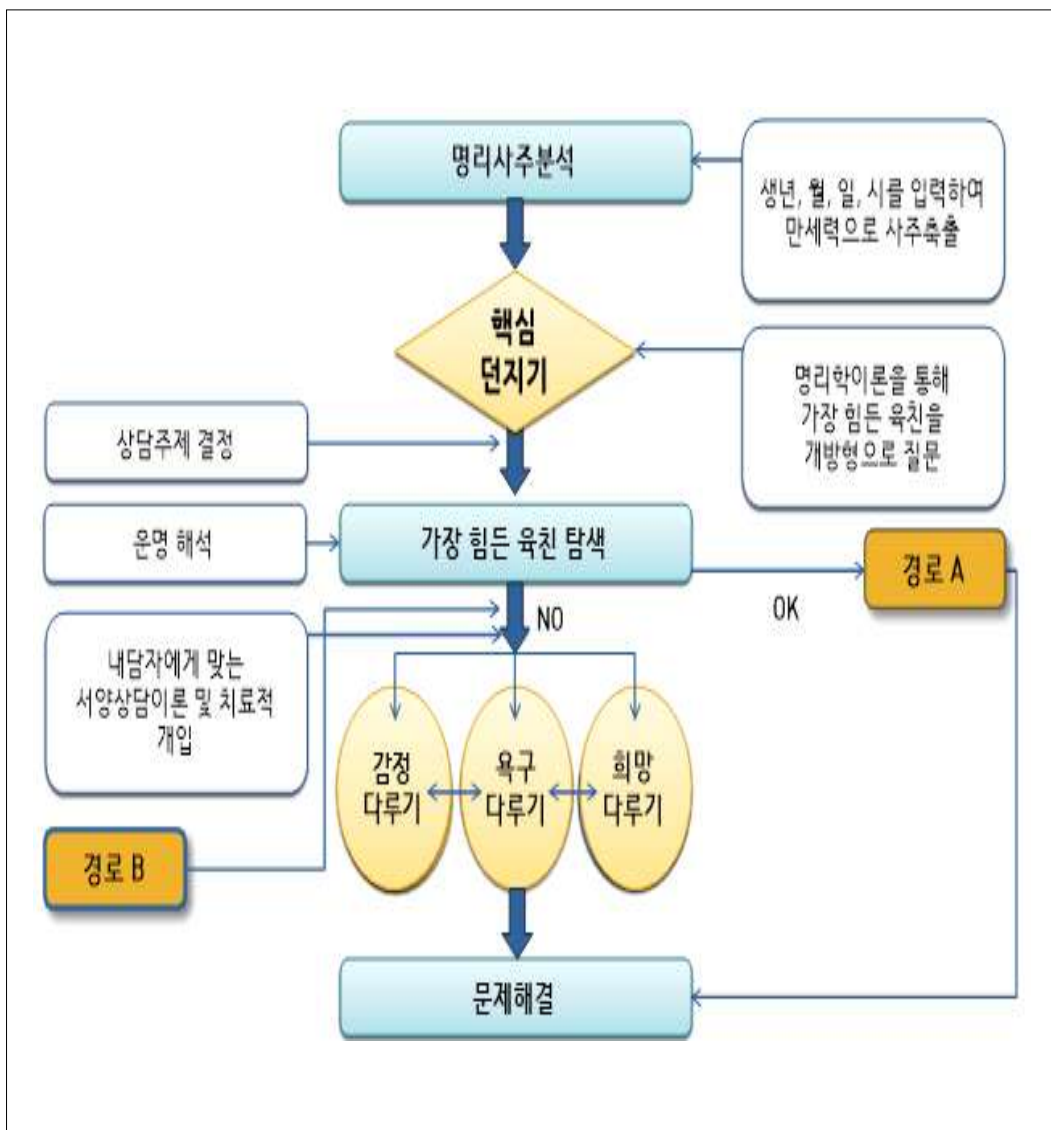


그림 VII- 2. 명리학 기반 한국형 단기상담 모형

가. 명리학 기반 한국적 단기상담 경로A

1) 경로A의 내담자

명리학 기반 한국형 단기상담 경로A는 【실제사례 VII- 1】의 명리상담에서 처럼 명리사주분석을 통한 숙명론적 결과만을 알고자 하는 내담자를 위한 상담모형이다. 여기서 내담자는 비교적 심리적으로 건강한 내담자로서 현재 처해진 상황에서 숙명론적 해석을 통해 현재 힘든 육친이나 상황을 이해하고, 내담자 스스로 자신의 현상황 속에서 문제해결을 위해 조언을 듣고자 상담실을 찾아온 사례라 볼 수 있다. 이러한 절차는 기존의 철학관 상담을 연상하면 이해가 쉬울 것이다. 그러나 기존 철학관 상담과 다른 점은 먼저 단기상담을 위한 전략으로서 ‘핵심 던지기’를 시도한다는 점이다.

2) 경로 A의 상담절차(Procedure)

경로 A의 상담절차는 가) 생·년·월·일·시를 통한 명리사주분석 실시→나) 핵심 던지기→다) 가장 힘든 육친 탐색→라) 문제 해결로 이어진다.

가) 생·년·월·일·시를 통한 명리사주분석 실시

명리사주분석은 생·년·월·일·시를 기준으로 만세력(萬歲曆)에 입각하여 사주팔자를 뽑는다. 년주(年柱), 월주(月柱), 일주(日柱)는 만세력에 명시되어 있는 순서대로 뽑는다. 년주는 입춘(立春)을 기준으로 입춘이 지나지 않았다면 전년도의 년주(띠)를 사용하고, 입춘이 지났으면 그 해의 년주를 사용한다. 월주도 절입일을 기준으로 판단을 하는데, 절입일 전과 후를 살펴 월주를 뽑아야만 한다. 일주는 태어난 날의 일진을 만세력을 통해 확인하여 정한다. 시주(時柱)는 월간 조건표(고순택, 2012)에 따라서 일주를 비교하여 시간을 잡는다. 생월과 생일은 양력이나 음력 중 한가지로 살피고, 반드시 태어난 시를 알아야 한다. 이는 명리사주분석의 정확도와 신뢰도를 위해 필요한 사안이다.

나) 핵심 던지기

‘핵심 던지기’는 기존 철학관 상담과 질적인 차원에서 다르다. 여기서는 단기상담을

위한 전략적 차원으로 도입된 개념으로 말할 수 있다. 이미 앞장에서 소개한 바와 같이 십이운성으로 내담자의 육친의 희비를 판가름해 볼 수 있다. 십이운성을 신살(神殺)이라고 하여 중요하게 생각지 않는 기존의 명리상담자들에게 있어서는 용신론(用神論)과 격국론(格局論)을 통해 육친(六親)의 희비를 찾을 수도 있을 것이다. 사주의 중화를 맞추기 위해서 용신(用神)의 개념이 등장하고, 대운과 세운의 흐름 속에서 내담자에게 무엇이 잘되고 있으며, 무엇이 힘이 드는지 명리사주분석을 통해 해석이 가능하다. 특히 십이운성적 개념(V장 참조, 149-190)으로 내담자의 가장 힘든 부분에 대한 ‘핵심 던지기’를 시도할 수 있다(하은희, 김성봉, 2019a).

여기서 상담자는 가장 힘든 육친에 대해 내담자에게 물어볼 수 있다. 예컨대, 재물적 상황이 가장 힘이 든 내담자의 경우라면, “숙명론적으로 재성이 현재 가장 힘이 들어보입니다. 당신에게 어떠한 일들이 벌어졌나요?”라고 개방형의 질문을 통해 상담은 시작된다. 여기서 개방형의 질문을 하는 부분은 기존 명리상담인 철학관 상담과는 상이한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다. 왜냐하면 철학관 상담은 단도직입적으로 “당신이 가장 힘든 것이 이것이죠!”라고 확인을 하는데에 반해, 명리학 기반 한국형 단기상담 모형은 내담자의 의지와 심리적인 상황들이 많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내담자가 스스로 자신의 의지와 욕구를 들어낼 수 있도록 개방형의 질문(opening question)을 던질 수 있다.

이렇게 개방형의 질문으로 ‘핵심 던지기’를 시도한다는 것은 여러 의미가 있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한 상담자의 질문안에는 많은 함축적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그것은 암묵적으로 단기상담의 목표를 통해 상담자와 내담자가 정해진 상담시간에 다루어야 할 상담 내용을 암묵시키고, 상담의 목표가 정해질 수 있다. 또한, 상담자의 ‘핵심 던지기’기술은 내담자의 저항을 상쇄시키고 바로 저항감을 없앨 수 있기 때문에 상담에서 가장 먼저 다루어야 할 라포(공감대) 형성 문제를 위한 시간을 줄일 수 있다. 또한 상담자와 내담자 사이에서 상담의 목표정하기 등의 시간에 드는 시간상의 소모를 한층 줄일 수 있다.

다) 가장 힘든 육친에 대한 탐색

앞의 십이운성적인 해석을 바탕으로 가장 핵심이 될 수 있는 육친에 대한 탐색을 하는 부분이다. 상담실을 찾는 내담자들은 인생이 힘들기 때문에 오는 경우가 많을 것

이다. 물론 그 반대의 상황으로 인생이 너무 잘나가서 자랑을 하고 싶은 심리때문에 혹은 그러한 상황들을 이해받고자 오는 내담자들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대동소이 내담자들은 삶의 한계를 경험하거나 그것으로 인해 일시적인 불안이나 스트레스 상황도 벌어질 수 있을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심리적으로 우울이나 또다른 심리적 증상에 이르렀을 때 상담실을 찾게 된다. 명리상담에서는 내담자가 힘들어 하는 육친을 부각시켜서 “오늘 상담에서는 바로 그 힘든 부분부터 이야기를 합시다!”라는 의미를 갖는다.

예컨대, 현재 재성이 힘들다고 가정을 해보자. 재성은 흔히, 돈, 여자, 부친으로 말할 수 있는데,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이야기 할 수 있나요? 하며 개방형의 질문과 함께 재물적 부분의 희비를 물어볼 수 있다. 남자에게 재성은 여자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아내와의 관계에 대한 부분도 직언직설로 물을 수 있을 것이다. 불편한 부분은 없을 것인지, 아내에게 불편감이 있어도 그것이 외도문제인지 아내가 병이 들어서 병마와 싸울 수도 있고, 성격적인 문제로 힘들어 질 수도 있듯이 다양한 경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개방형의 질문을 통해 내담자에게 있을 수 있는 문제를 물어야만 할 것이다. 명리사주분석상으로는 다양한 인간의 심리적 상황을 세세하게 읽어내기는 어렵다(김기승, 2010). 물론, 명리상담가의 전문성이나 학문의 깊이에 따라 쪽집게 무속인의 점사(占事)를 능가하는 실력자가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명리사주분석은 좋다, 나쁘다의 방향성만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개방형의 질문은 내담자를 깊이 있게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작업이 될 수 있을 것이다(정하룡, 2010). 만약 개방형의 질문이 되지 않는다면, 내담자는 묻는 말에 단답형으로 폐쇄형의 답변이 되기 때문에 상담은 단지 숙명론적 해석에 대한 결과만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상담은 기존의 철학관식 상담처럼 단조로워 질 수 있다. 만약, 내담자가 힘들어 하는 육친으로 인해 심리적인 문제를 동반하고 있다면, 기존의 철학관식 상담과 다르게 상담자는 개방형의 질문과 더불어 상담의 기술을 통해 내담자의 불편한 부분에 대해 상담적 개입을 할 수 있다.

라) 문제 해결

명리상담을 위해 찾아온 내담자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단회기라도 문제해결이 가능할 수 있다. 그것은 내담자의 상황, 개인의 잠재력이나 내담자의 힘, 상담에 대한 기대

감 등에 따라 상담의 회기수나 상담의 형태는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기존의 철학관식 상담은 대체로 심리상담이 아니기 때문에 단회기 상담이 많다. 내담자들은 숙명론적 한계에 부딪히게 되면, 다시 그러한 문제를 상의하고 자신의 판단을 위한 참고로 듣기 위해 상담실을 찾을런지도 모른다. 여기서의 문제해결은 내담자의 모든 심리적 문제까지 완화시키는 완벽한 상담이 아니다. 내담자가 자신의 숙명론적 한계를 통찰하고 자신의 상황을 맥락적으로 파악을 할 수 있다면 단회기의 상담이라고 할지라도 상담의 종결이 가능하다(de Shazer, 1985).

주의할 점은 단회기로 끝날 것인지 심리적인 증상까지 해결할 것인지는 상담자와 내담자는 상의가 필요할 것이다. ‘핵심 던지기’로 상담이 시작되었다가 심리적 문제와 결합이 된 내담자라면 지속적인 상담으로 가야할 것이다. 그때부터 상담은 종전의 서양상담의 방식으로 가면 된다. 상담자는 내담자의 유형에 따라 정신분석적으로 접근할지, 인지행동적으로 접근이 가능할지, 혹은 인간중심 상담이나 게쉬탈트치료가 필요할지 기타 상담이론과 치료적 접근을 위해 상담의 방향을 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기존의 철학관 상담과 확연히 다른 부분이라 볼 수 있을 것이다. 즉, 단기상담을 위해 명리학의 개념을 통해 ‘핵심 던지기’를 상담의 도구(tool)로 응용을 하고, 그것으로 인한 심리적 문제는 서양상담의 기술로서 내담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러한 내담자는 명리학 기반 한국형 단기상담 경로 B가 적합할 것이다.

나. 명리학 기반 한국형 단기상담 경로 B

1) 경로 B의 내담자

명리학 기반 한국형 단기상담 경로 B는 숙명적 한계상황으로 인해 불안, 우울 등 경미한 심리적 증상을 동반한 내담자로서 비교적 건강한 내담자를 위한 상담모형이다. 명리학 기반 한국형 단기상담 경로 B의 상담절차는 모형 1과 달리 숙명적 한계에 처한 힘든 육친으로 인해서 우울, 불안 등 경미한 심리적 문제를 동반한 내담자를 위한 상담모형이다. 내담자의 심리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존 서양상담의 방식이 차용되어 내담자의 감정, 욕구, 희망을 탐색하고 내담자 스스로 숙명적 한계를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조력하는 상담이다.

2) 명리학 기반 한국형 단기상담 경로 B의 절차

경로 B의 절차는 가) 생·년·월·일·시를 통한 명리사주분석 실시→나) 핵심화 두 던지기→다) 가장 힘든 육친 탐색→라) 감정(feeling) 다루기→마) 욕구(desire), 희망(want) 다루기 → 바) 문제 해결로 이어진다.

가) 생·년·월·일·시를 통한 명리사주분석 실시

명리사주분석은 ‘명리학 기반 한국형 단기상담 경로 A’에서도 이미 언급하였듯이 만세력을 통해 내담자의 생·년·월·일·시를 통해 사주팔자를 뽑는다. 이것은 어떤 명리학의 학파든 대동소이 같은 방법이므로 앞의 방법을 따르면 될 것이다. 주의할 사항은 시주를 뽑을 때는 정확한 태어난 시를 알아야만 한다. 명리학에서 쓰는 시의 개념은 현재 쓰는 24시간의 개념과는 다소 차이가 있는데, 12개의 시간을 적용한다. 자시(子時) 23시-1시, 축시(丑時) 01시-03시, 인시(寅時) 03-05시, 묘시(卯時) 05시- 07시, 진시(辰時) 07-09시, 사시(巳時) 09-11시, 오시(午時) 11-13시, 미시(未時) 13 - 15시, 신시(申時) 15-17시, 유시(酉時) 17-19시, 술시(戌時) 19-21시, 해시(亥時) 21시-23시 등으로 나눌 수 있다.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시간은 일본의 시간을 천문 기준으로 하였기 때문에 실제 천문시간과는 30여분 정도의 차이가 있으므로 30분씩 늦추어 생각하면 될 것이다. 예컨대 자시라면 23-01시이다.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내담자에게는 23시 30분-01시 30분 사이에 태어나면 자시(子時)생으로 말을 할 수 있다.

또한, 과거에 제한적으로 써머타임(일광절약제) 기간 중 태어난 내담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 시기에 해당하는 내담자들은 잘 가려서 정확한 시간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자정 직전인 밤 23시-01시에 태어난 내담자인 경우 전날의 일진을 택할지, 다음날 일진을 택할지 야자시설과 조자시설과의 이론적 대립은 있으나, 여기서는 조자시를 택하겠다(백영관, 2006). 그러한 이유는 이미 23시-01시의 의미는 이미 다음 날의 기운이 이미 도래함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명리학 기반 한국형 단기상담도 기존 명리상담에서 쓰는 전통적 방식을 그대로 차용하면 될 것이다.

나) 핵심 던지기

명리사주분석을 통해 내담자가 가장 힘들어 보이는 육친을 위주로 분석한다. 여기서

는 내담자가 이야기를 하기전에 명리상담자가 ‘핵심 던지기’를 할 수 있다. ‘핵심 던지기’기술은 명리상담자가 용신, 격국론, 육친론, 일주론, 십이운성론 등 명리학 이론들을 근거로 분석한 결과로서 “가장 병(病)이 들고 힘이 들 수 있는 육친을 말하는 일이다.” 혹은 내담자가 특히 듣고자 하는 내용이나 주제에 대해 명리상담자가 학문성을 가지고 전문적 예리함으로 해석을 하는 일이다. 내담자는 즐겁고 행복해서 오는 경우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상담실을 찾을 때에는 힘들고 고통스럽기 때문에 찾아오는 내담자가 더 많을 수 있다. 그러므로 명리상담자는 이를 감안하여 단기상담에 이를 수 있도록 답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러한 부분은 기존 서양 상담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울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기술적 접근은 단기상담의 전략면에서 상담의 목표를 설정시 작게 세분화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수립하는데 참고할 수 있다(김창대, 2009).

‘핵심 던지기’는 암묵적으로 상담의 목표를 결정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이것은 아무런 대안이나 근거가 없이 상담자 마음대로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라, 십이운성이나 대운, 세운의 향방 속에서 내담자의 육친들이 어떤 것은 좋은 환경에 놓여있고, 어떠한 육친은 하향세를 달리고 있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특히, 세운은 운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는 왕(王)과 같은 역할을 한다. 그러므로 세운이 천간과 지지에 어떠한 작용을 하느냐에 따라서도 쉽게 내담자가 가장 힘들어 하고 고통스러워 하는지 알 수 있는 근거를 찾을 수 있다. 이는 내담자가 현재 여기에 왜 왔을까? 에 대한 답을 줄수 있는 것이다. 거기에서 부터 이야기를 하면 되는 것이다. 만약 내담자가 가장 힘든 상황과 그것으로 인한 불편감을 다룰수 있다면, 단지 1회기 상담이라도 명리상담이라고 할 수 있다.

숙명론적 한계상황에 대한 ‘핵심 던지기’는 내담자가 초기 상담시 가질 수 있는 저항감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명리상담가들이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내담자가 힘들 수 있는 부분을 정확히 직면시키는 기술적 측면은 일부 내담자에게는 저항을 부를 수 있을 수도 있으나, 심층적 공감이 될 수 있으므로 저항감이 오히려 줄어들 수 있다. 그리고 내담자는 마치 “나의 치부를 어떻게 알았을까?”하는 생각을 하며, 마치 내담자의 숙명적인 한계를 이미 모두 알고 있는 전지전능(全知全能)한 상담자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이러한 사고는 내담자가 가지고 있는 상담자에 대한 편견들 예컨대,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 상담자는 얼마나 나를 비웃을까?” 혹은 그것으로 부터 오는

수치심과 굴욕감 등에 대한 심리적 불편감이다. 그러나 ‘핵심 던지기’기술은 내담자의 방어체계를 구축하려는 패턴을 흔들어 놓을 수 있다(이운주, 양정국 등 역, 2007). 그러한 결과로 내담자는 저항의 벽을 무너뜨리고 그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명리상담자와 함께 상담에 집중을 할 수 있다.

다) 가장 힘든 육친 탐색

일반적으로 명리상담에서 내담자는 자신이 처한 운명적 상황에 대한 결과의 희미(喜悲)만을 듣기를 원할지 모른다. 예컨대, 진로를 잘 찾을수 있을 것인지 아닌지, 혹은 시험의 합격의 당락, 남편이 외도해서 다른 여자가 있는지, 혹은 집이 팔리는지 말 것인지 등 심리적 문제들 보다는 생활적 부분의 상담주제가 많다. 그러나 현실은 그러한 문제로 인해 내가 고민스럽고 불안이나 우울증도 있을 수 있는 내담자도 있다. 사실상 이러한 상담은 내담자의 숙명론적 결과만을 해석하는 빙산의 일각만을 다루는 표면적인 상담을 하게 된다. 명리상담에서도 내담자의 속심리를 읽을 수 있어야 할 것이다(권석만 등 역, 2005). 진로의 좌절로 인해 벌어질 수 있는 속상함, 안타까움, 서글픔, 화와 분노의 감정 등 그러한 운명적 좌절된 결과로 오는 감정들에 대해 다가설 수 있어야만 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남편의 외도가 내담자에게 있어서 여러 의미로 작용할 수도 있다. 만약 원가족에서 부친의 외도로 인해 화와 분노감을 가지고 살아온 여자가 현재 남편의 외도로 갈등을 한다면, 이 여자는 부친에 대한 분노감과 같은 감정으로 자신의 배우자를 바라볼 수도 있을 것이다. 내담자들은 모두 살아온 맥락과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감정도 여러 가지로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한이 맺힌 감정들은 현재 내가 올바른 선택을 내려야 하는 상황에서 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 감정이라는 돌맹이 때문에 그 감정의 뒷편에 숨은 자신의 욕구(Ⅶ장 참조: 319-322)를 바라보는데 제한이 있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감정의 정화를 통한 자신의 문제를 이해하고 통찰하는 작업은 상담에서 다루어져야만 하는 것이다.

상담은 내담자가 스스로 자신의 무궁부진한 무의식의 잠재력 속에 있는 자신의 힘을 찾고 발견해 낼 수 있도록 조력하는 활동이어야 한다(김정섭, 강승희, 김성봉, 김진아, 윤채영, 이운주, 최현주 역, 2019). 비록 현재 육친중에서 불편함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한 탐색과정은 필요하다. 제기능을 하지 못하는 육친을 통해 어떠한 일들이 발생

하였고, 그것으로 인해 나는 어떠한 감정상태에 놓여있는지를 탐색할 필요가 있다. 내담자는 자신의 문제를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힘이 들 수 있다. ‘객관적 자기’로서 ‘관찰적 자기’(조옥경, 2009)가 된다면, 문제는 쉬워질 수 있다. 자신의 문제를 객관적인 입장에서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은 문제의 해결을 내담자 스스로 갖도록 하는 의지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 그리고 그러한 마음속의 불편한 부분을 밖으로 꺼내어 제3자인 상담자로부터 미러링(mirroring)이 되고 수용받고 이해를 받는 일은 내담자가 자신의 문제를 정리하는데 계기를 마련해 줄 수 있다. 이것은 자신에 대한 통찰이다. 그리고 자신의 문제를 통찰한다는 말은 ‘상황 파악’이며, ‘상황파악’은 곧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평형화(piaset, 1937)시키려는 시작점이 될 수 있다.

라) 감정(feeling)다루기

기존의 철학관상담은 대체로 내담자의 감정을 읽어 준다던지 심리적 문제를 해결하지는 않는다. 이 부분은 안타까운 일인데, 명리상담만이 가질수 있는 ‘핵심 던지기’나 인간의 생노병사 등 여러 차원에서 내담자의 초기 상담에 필요한 자료를 알 수 있다는 점은 명리상담만이 가지는 장점이다. 이렇게 상담에 있어서 좋은 도구(Tool)들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그것으로 인간의 숙명적인 한계의 여부 및 기회 등 결과만을 운운하는 일은 무모하다. 좀더 상담적 차원을 응용한다면, 감정 다루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할 것이다. 서양상담에서 감정을 다루는 일은 무척 중요한 일이다. 감정의 내면에는 내담자의 깃눌린 욕구(Desire)와 희망(Want)(VII장 참조: 318-328)이 있기 때문이다(천성문 등, 2006).

서양의 인간중심상담과는 대조적으로 ‘핵심 던지기’는 명리상담만이 갖고 있는 기술적 전략이다. 이러한 원리는 물상론으로도 해석이 가능할 수 있다. 사주팔자 여덟글자는 모두 상형문자로 되어 있어서 글자 하나하나에 여러 가지 의미와 상징과 속성을 갖는다. 그것을 통해 마치 한쪽의 동양화를 그릴 수 있을 정도로 표현이 가능함을 알 수 있다. 천간과 지지의 글자들은 자연을 그대로 옮겨 놓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다. ‘용광로 속에서 쇠가 녹고 있는 형국’, ‘불타는 사주’, ‘도끼와 쇠파치를 들고 어린 나무를 벨려고 서있는 깡패같은 상관의 무리들’, ‘재성이 감옥에 갇혀 있는 형상’, ‘물속에서 놓인 경금이 녹슬고 있구나!’ 등 명리상담자들은 사주팔자 여덟 글자를 보고 일간인 내담자가 처한 상태를 그림화시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핵심 던지기’는 직언(直言)을 가능케 한다. 내담자의 감정이나 상태를 특별히 고려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한국의 내담자들은 서양의 내담자와는 다르게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생각이나 감정들을 억압하는 경우가 많고 한(恨)의 문화를 가진 민족이기 때문에 상담자가 먼저 내담자의 이야기를 속 시원히 말해주고 꺼내주게 되면 시원하게 느낄 수 있을 것이다(VI장 참조: 255-259). 이는 명리학에 기반한 한국적 단기상담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상담의 핵심기술이다. 그러한 기술에는 ‘핵심 던지기’, ‘직언을 통한 공감적 이해’, ‘직면적 저항다루기’, ‘물상론적 바라보기’가 있다(하은희, 김성봉, 2019a: 858- 868). 이러한 명리상담의 기술들은 내담자가 현재 처해있는 상황에서 감정다루기 등 내담자의 마음을 읽고 수용하는데 있어서 유용하다.

마) 욕구(Desire), 희망(Want)다루기

Murray에 의하면 동기는 인간이 무언가를 필요로 하는 마음으로 욕구(need)와 그러한 마음을 행동으로 나타나게 만드는 힘으로서 추동이라고 말할 수 있다. 욕구는 1차적, 2차적 욕구가 있다. 1차적 욕구는 식욕, 수면 욕구, 배설욕구, 성욕 등 12가지 생리적 욕구를 말하며, 2차적 욕구는 성취욕구, 친애욕구, 지배욕구, 과시욕구, 양호욕구, 유희욕구 등 28가지의 심리적 욕구가 있다. 대부분 인간의 행동은 2차적 동기(욕구)에 의해 활성화된다. 한편 인지주의 이론가인 Weiner(1937-)는 귀인(歸因)이론에서 인지의 원인을 어디에 두는지를 통해서 내적-외적 차원, 안정적-불안적 차원, 통제가능-통제 불가능한 차원에 따라 행동을 하는데 있어서의 동기가 좌우된다고 언설한다(김정섭, 강승희, 김성봉, 김진아, 윤채영, 이은주, 최현주 역, 2019).

인본주의 심리학자로서 Maslow(1943)는 동기 위계 이론을 주장하면서, 인간은 모두 자신의 잠재가능성을 현실화시키려는 무한한 잠재가능성을 언급한다. 인간은 자기실현을 목표로하며 생리적 욕구, 안전욕구, 소속욕구, 인정욕구, 사랑욕구, 자존욕구와 같은 결핍욕구가 이루어지면 욕구의 최종단계로서 자아실현 욕구와 같은 성장욕구를 설정하고 행동으로 이끈다고 말을 한다. 내담자가 처한 상황과 환경은 모두 다를 것이며, 어떠한 욕구 체계와 단계에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다. 인간은 불완전한 인간이지만, 완전한 존재로 거듭나기 위해서 성장하려는 욕구와 동기를 가지고 있다(권대훈, 2015; 이성진, 박성수, 2019). 상담자는 상담의 과정에서 이러한 내담자의 욕구와 동기를 발견해 나갈수 있도록 지지자가 되어야 한다.

변화동기는 개인의 특성이나 성격이 문제가 아니라 상황에 따라, 인간관계적 상호작용에 따라 영향을 받고 달라질 수 있다. 이러한 이유때문에 특히 심리치료 중 동기강화상담적 접근에서는 변화하고자 하는 동기가 있음과 변화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말을 하다보면 행동변화도 뒤따를 수 있다고 말한다(신성만 등 역, 2007). Rogers의 상담이 비지시적 상담이라면, 동기강화상담은 지시적인 내담자-중심 상담이라고 말을 하면서 내담자의 말에 따라가면서 반응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동기를 높이기 위해 목적과 방향을 가지고 선택적으로 반응을 한다고 말하고 있다. 변화동기라는 것은 아마도 내담자의 깊은 자기와 상관이 있을 것이다. 그것은 본질적 가치 혹은 중요하게 간직하고 싶은 무언가와 연결될 것이다.

앞에서 감정다루기의 중요성을 언급하였듯이, 여러 부정적인 감정들은 인간이 살아가면서 수도 없이 관계하면서 얻게 된 마음의 상처들때문에 감정의 돌맹이로 응어리져서 내담자의 참자기가 무엇을 원하고 바라는지 장애물로 존재한다. 그러한 이유때문에 무의식 혹은 의식의 세계내에서 내담자 본연의 가치와 자신이 진정 바라는 욕구와 희망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다. 위의 감정다루기 과정에서는 내담자의 욕구와 희망을 덮고 있던 장애물을 거두는 작업을 마치게 된다. 과거 자라오면서 한(恨)이 서릴 정도로 서럽고, 자신의 욕구를 표현하지 못했던 그리고 힘들었어야만 하는 상황들과의 만남을 통해 내담자들은 상담자로부터 공감적 이해와 더불어 수용을 받게 된다. 이러한 작업들은 자신의 상황을 이해하고 통찰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줄 것이다. 감정 덩어리를 걷어내면 그 때부터 진정한 자기와 만나게 될 것이며, 그것은 곧 자신의 욕구(Desire)와 희망(Want)을 위해 무엇을 해야할지 건설적인 행동변화가 일어나게 된다. 즉, ‘내면적 자기’와 현상학적 장에서 ‘현실적 자기’ 사이의 괴리감과 불일치를 줄이기 위해 내담자는 변화를 시도하기 되는 것이다.

부조화(dissonance) 개념은 자기규제 이론(self-regulation theory)의 주요개념이다. 자기규제 이론에서는 자동 온도조절 장치처럼 사람은 계속 자기 자신을 감시하는 과정에 있다고 보는 것이다. 그래서 현실에 별다른 불만이 없는 한 변화는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나 범위를 벗어나는 가치가 감지되면 변화과정은 시작된다. 열망 혹은 기대하는 이상과 현재의 상태와의 부조화가 상당할 때 변화동기가 생기기 시작하는 것이다. 역설적으로 변화의 동기가 없는 내담자라면, 오히려 부조화를 더욱 발전시키라고 말한다. 이러한 시도는 변화의 중요성을 더 느낄 수 있도록 할 수 있다(Brown, 1998;

Kanfer, 1986; Miller and Brown, 1991; 신성만 등 역, 2006). 이처럼 내면적 동기란 결국, 변화에 대한 개인의 의지가 관건일 수 있다.

그러나 내담자의 변화를 시도하는 일은 무척 어려운 일일 것이다. 그러나 원호대사도 ‘일체유심조’를 터득하는 순간처럼 인간이 가지고 있는 사고의 변화는 찰라의 순간에 다가올 수도 있다. Rogers는 내담자의 변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상담자가 익혀야 할 중요한 기술하여 분명히 제시하고 검증하였다. Rogers가 말한 내담자의 변화를 촉진하는 기술들은 공감적 이해, 무조건적 긍정적 존중인 것이다. 이러한 상담의 기술들은 안전하고 지지하는 분위기에서 내담자는 자신의 문제를 공개적으로 탐색해보고 문제의 해결점에 이를 수 있을 것이다. 상담자로부터 온전하게 수용을 받고, 현재의 상황과 바라는 상황간에 불일치를 느낄 때, 내담자는 그러한 불일치를 줄이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되면 변화의 동기는 시작될 수 있을 것이다.

바) 문제 해결

‘명리학 기반 한국형 단기상담’은 비록 1회기 상담이라도 내담자가 가지고 있는 육친적 문제를 이해하고 그것으로 인해 내담자가 감정을 정화할 수 있고 자신의 숙명론적 상황을 이해하고 통찰을 했다면, 그것으로서 상담은 종료될 수 있다. 내담자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현재의 상황 파악과 함께 내담자 스스로 자신의 문제를 어떠한 식으로 해석하든 변화를 하든 그것은 내담자의 변화의 지에 달려 있다. 상담은 그것으로 마칠 수도 있는 것이다. 나머지 자신의 숙명적 문제의 부정적 결과로 인해 벌어지는 사고, 행동, 감정 등 그때 그때 일어나는 문제들은 내담자 스스로 행동의 실천을 부여할 수 있어야만 하기 때문이다.

일상에서 내담자가 생활하면서 극복하고 변화하는데 무리가 있다면 상담은 아마도 다시 시작될 수 있다. 상담에서는 그러한 변화의지와 동기강화가 될 만한 내담자의 힘을 탐색할 수 있고 도움을 줄 수 있어야만 한다. 그러므로 이러한 상담의 유형은 기존의 명리상담처럼 숙명적 결과만을 운운하는 상담과는 확연한 차이가 있다. 그러한 숙명적 한계상황으로 인한 우울이나 심리적 불편감이 있는 내담자인 경우 1회기로 내담자의 문제를 다룰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한 경우, 내담자의 감정(feeling), 욕구(desire), 희망(want)을 통해 내담자가 자신의 변화의지를 가질 수 있도록 상담은 지속적으로 이어져야만 할 것이다. 그러한 단계는 일반 상담의 과정을 밟게 될 것이며, 내

담자의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적 맥락속에서 상담의 회기는 결정이 될 수 있다.

VIII. 논의 및 제언

본 연구는 ‘명리학 기반 한국형 단기상담 모형’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유교주의 가치관과 집단주의 고맥락 사회에서 성장하여 감정억제 등 한국 내담자의 특성을 반영한 명리학적인 시도였다. 이상의 연구에 기초하여 연구결과와 함께 몇 가지 사안을 논의하고 마지막으로 제언을 남기하고자 하였다.

1. 논의

가. 명리학의 상담에 활용 가능한 초기 접수면접 자료 탐색

첫째, 육친론(六親論)에서는 가족의 역동을, 일주론(日柱論)에서는 성격 성향 및 진로 적성 등을 탐색하였다. 이러한 요소들은 상담에 응용할 초기 접수면접 자료로 쓰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육친론을 통해 사주의 주인공인 일간을 중심으로 서양상담의 ‘가계도’를 차용하여 가족관계의 역동을 탐색하였다. 내담자의 사주팔자를 그림으로 도식화시켜서 육친들과의 관련성, 내담자의 상황을 이해할 수 있다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이는 명리상담계에 처음으로 도입하는 입장이므로 명리상담의 질적 향상을 위한 새로운 제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서양상담에서는 보통, 내담자를 기준으로 친가, 외가 등 3대에 걸쳐 개방형의 질문을 통해 내담자의 이해를 위한 탐색과정을 갖는다.

명리상담에서는 단순한 운명적 해석과 같은 정보를 주기 때문에 이러한 논리가 필요한 사안이 아닐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 말하는 ‘명리학 기반 한국형 단기상담’은 필요시 내담자의 감정까지 다룰 수 있는 상담의 형태이기 때문에 운명적 해석과 더불어 내담자를 보다 이해하는 차원으로 개방형의 질문이 요구된다. 이러한 작업을 통해 내담자도 가계도를 보면서 자기이해 및 통찰을 경험하는 계기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접근은 기존 철학관 상담보다 내담자를 이해하기 위한 명리학의 접근 방법

에 질적인 보완이 될 것으로 보여 연구의 의의가 있다. 이러한 주장은 육친론을 상담으로 활성화 시키고자 했던 연구들(김배성, 2003; 함혜수, 2008; 김동환, 2010; 정재현, 2011; 최은경, 2013; 김용섭, 2014; 김종하, 2014; 강 현, 2016)과 그 뜻을 함께한다.

일반적으로 서양 상담계는 내담자를 이해하기 위해 여러 가지 검사도구를 사용한다. 인간을 이해하기 위해 검사지들은 유용하지만, 하나하나를 쓸 때마다 내담자들은 비싼 외국의 로열티를 지불해야만 하는 번거로움과 경비 지출에 대한 부담감이 많아질 수 있다. 그러나 명리학의 용신론(用神論), 격국론(格局論), 육친론, 일주론은 사주의 주인공인 일간의 성격 성향, 가족역동, 진로 적성 등 여러 가지 다양한 검사지를 대용할 만한 도구들이므로 일석이조(一石二鳥)의 효과를 얻게 한다. 다양한 검사지의 기능을 대체할 수 있다는 관점으로 본다면, 서양 상담계는 ‘통합 질충주의적 접근’으로서 상황과 맥락에 따라 상담의 도구로서 명리사주분석을 통해 내담자의 상황에 따른 도구로서의 활용도를 타진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같은 맥락으로 일주론만으로도 일간의 성격 성향, 직업 적성, 부부관계 등 상담에 필요한 기초자료들을 확보할 수 있다. 명리학에는 육십갑자를 언급한 바 있듯이 60가지의 일주가 있다. 육십갑자는 서양의 상담이론 중 인간의 성격특성을 16가지로 나누어 체계화시킨 MBTI의 성격이론이나 에니어그램 등과 같이 상담의 교육현장에서 응용이 가능하다. 예컨대, 10천간별 혹은 갑자(甲子)에서 계해(癸亥)까지 60개의 일주별로 나누어 분임조 활동을 통해 상담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의 활용은 나의 성격과 더불어 타인의 성격 성향도 알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할 수 있으므로 상담교육 장면에서 그 적용법을 강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생각은 그동안 명리학계에서 성격 성향(정국용, 2004; 김경희, 2008; 정하룡, 2010; 정준범, 2013; 박주현, 2004; 소재학, 2015) 및 진로 적성(구만호, 2000; 이문정, 2007; 김기승, 2010; 박영창, 2011; 박청화, 2015), 부부문제(남 덕, 2004; 김인순, 2014; 주미강, 2014; 나혁진, 2017; 남기동 등, 2018) 등 명리사주분석을 상담에 응용하고자 했던 연구들의 주장을 확인하는 결과일 것이다

둘째, 명리상담의 치료적 의미를 살펴보았다. 명리학의 고전 이론 중 『적천수』, 『삼명통회』, 『연해자평』, 『자평진진 평주』 의에서 말하는 음양론, 중화론을 다루었다. 음양론과 중화론은 단지 숙명론적 한계를 제시하는 운명 결정론적인 입장이 아

나라, 새로운 도약을 위한 지혜를 준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다. 다른 한편으로는 일반인들이 음양오행론과 중화론을 이해하는 일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연구자의 실제 명리학 공부 경험을 통한 체험담을 소개하였다. 특히, 『주역』의 ‘상황점’과 명리학의 ‘운명점’을 비교하면서 어떤 치료적 의미가 있는지 상담장면에서의 응용 가능성을 탐색하였다. 그러한 탐색작업을 통해 명리상담이 숙명론적 한계상황에 처한 내담자들을 위한 치료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명리상담의 철학치료의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기존 명리학계에서는 형이상학적인 측면으로 음양론과 중화론을 위주로 다루었다고 본다면, 본 연구에서는 서양의 실존철학을 중심으로 인간이 극한 상황에서 굽히지 않는 인간의 자유의지를 표현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명리학계에서 새로운 시도일 수 있어서 그 의미와 가치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결과는 숙명적인 한계를 가진 내담자들을 위한 새로운 치료적 접근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명리학 기반 한국형 단기상담’으로서 어떤 내담자가 적당할 것인가? 본 연구에서는 삶의 문제로 인해 우울, 불안 등으로 고민하는 내담자, 숙명적 한계상황에 처한 내담자, 비교적 경미한 심리적 외상을 가진 운명적 한계를 가지고 있는 내담자로 규정하였다. 이러한 관점은 인간의 생로병사 등 삶의 문제를 통해 현재의 우울과 불안을 느끼는 내담자나, 타고난 신체적 결핍을 호소하는 사람 등 인간의 의지 이외에 운명적 한계로 해석할 수 밖에 없는 내담자들에게 새로운 상담적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송지나, 2011: 하은희, 김성봉, 2019b).

생철학의 대표자인 짐멜(G. Simmel, 1858-1918)은 『돈의 철학』에서 적어도 현대인의 삶을 더욱 풍족하게 해 줄 수 있는 가능성은 돈의 양적 논리가 아닌 질적논리에 있다고 언설한 바 있다. 질적논리란 자본주의 체제를 회피하는 부정적 차원이 아니다. 그것은 불평등한 체제 안에서 자신의 영혼과 인격을 분리시키고 자기 고립감을 이겨내고(홍경자, 2014: 273), 참자기를 찾는 일이다. 고유한 인격적 특성이나 능력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사회·경제적 환경은 필요하다. 그러한 환경은 개인의 인격을 사물로부터 분리시키면서 그것들과 일정한 거리를 유지할 수 있게 한다. 이처럼 현실적인 상황에서는 풍요로움이나 행복이란 있을 수 없는 내담자들에게 작은 희망은 새로운 영역에서 기쁨과 삶에 대한 행복감을 찾을 수 있게 한다. 그것이 바로 철학치료(김석수, 2006)가 노리는 부분이다.

운명 결정론자는 세계의 모든 사건이나 인간의 행동이 거역할 수 없는 어떤 힘에 의해서 구속된다고 말한다. 그리고 과거사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에 경험하고 있는 것 그리고 미래에 닥쳐올 모든 상황들이 이미 정해져 있다고 여긴다. 또한宿命론자는 인간에게 주어지는 일이나 상황들이 인간의 힘으로는 어떤 식으로든 회피하거나 변화시킬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키에르케고르(S. Kierkegaard, 1813-1855)에 따르면, 이러한 결정론자와宿命론자는 공통적으로 모든 것이 필연적이라 생각하는 사람들이다. 이 때에 인간은 참자기를 잃어버리고 절망에 빠지며, 자신의 삶을 의지대로 행동할 수 없다. 또한宿命론자는 신(神)의 존재에 대해서 회의를 하며 자기를 상실한다(심은숙, 2018). 절망은 인간의 근원적인 현상을 통해서 인간에게 주어진 과제가 바로 자기를 찾아가는 것이라는 점을 알게 한다.

이처럼 서양의 실존철학을 바탕으로 본다면,宿命적인 한계상황에 처한 내담자들은 그들의 삶에 있어서 막다른 길에 처해 있거나, 고통을 경험하면서 힘들어 하고 있는 중일 수 있다.宿命적 한계에 봉착한 내담자들에게 현실적인 대안은 많지 않다. 이럴 때 우리는 신앞의 단독자가 되듯이 진정한 나와 독대를 하는 순간을 경험하게 된다. 그것은 곧 지금까지 느끼지 못했던 새로운 삶을 향한 실존적 존재로 도약하기 위한 순간이다. “宿命론적 한계상황의 수용”(하은희, 김성봉, 2019b: 1275)은 실존적 인간으로 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조건일 수 있다. 바닥을 쳐보지 못한 자는 절실한 실존적 인간이 될 수 없다. 우리는 이때 종교나 철학을 가까이 하게 된다. 그리고 그 속에서 안락함과 평화를 갈구하게 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명리상담은 운명결정론에 동조하는 학문이 아니라, ‘한계의 미학’(김만태, 2013: 392)으로서 새로운 가능성과 힘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宿命론적 한계상황에 처한 내담자들을 위한 치료적 접근을 가능하게 한다. 이러한 결과는 그동안 철학치료적 접근을 하였던 주장과 그 맥락을 같이 한다(홍수연, 2005; 송지나, 2011; 한국철학상담치료학회, 2012; 박상언, 2014; 서준원, 2013; 신기주, 2015).

나. 한국적 단기상담을 위한 명리상담의 핵심기술

첫째, 명리학의 십이운성론을 활용하여 명리상담의 단기상담적 요소를 고찰하였다. 명리상담가들은 내담자가 현재 겪고 있는 문제들 중에 가장 힘든 부분을 말할 수 있

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예컨대, 2018년 무술년(戊戌年)의 세운(歲運)을 중심으로 내담자에게 운(運)의 희기(喜忌)에 따라 천간과 지지의 작용이 여러 가지로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 예측되었다. 이처럼 명리상담자들은 사주원국과 더불어 세운, 대운의 방향 속에서 내담자가 가장 힘들어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예측이 가능하다. 내담자의 문제를 읽을 수 있는 예측 가능성은 단기상담으로서의 가능성을 확인하는 결과로 볼 수 있다. 핵심 던지기 기술은 내담자가 현재 가장 힘들어 하는 부분을 명리상담자가 먼저 개입을 하면서 “여기서부터 상담을 시작합니다.”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이는 암묵적으로 명리상담과 내담자 사이에서 지금-여기에서 다루어야 할 현안 문제에 대한 타협을 의미하는 일이다. 그러한 작업은 곧 단기상담을 통해서 내담자가 문제해결에 이르도록 만들게 된다.

본 연구자는 십이운성의 개념을 통해 내담자가 현재 가장 힘들어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하여 ‘핵심 던지기’가 가능하다고 주장하였다. 명리학은 천기누설이라고 하여 소소하게 학회에 따라 도제식의 명리학 수업을 받는 경우가 많다. 일반적인 자평명리학, 맹파명리, 이수명리 등 저마다의 해석들을 가지고 접근을 하고 있다. 물론 목적지까지 가는 길은 다르지만, 결과는 같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자평 명리학을 주로 쓰는 명리상담자들은 용신과 격국을 위주로 분석을 하므로 십이신살의 개념으로서 십이운성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십이운성의 개념을 활용한 연구라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미와 가치가 있을 것으로 본다.

안태옥(2012: 44-45)에 의하면, 기존 명리상담계에서 십이운성이나 십이신살(十二神殺)을 선호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언급하였다. 선호하지 않았던 이유가 송(宋)나라 때만 하더라도 자평명리의 효시인 서자평(徐子平)이 『연해자평(淵海子平)』에서 공망(空亡)을 비롯한 십이운성의 운용법에 관해 양순음역(陽順陰逆)법을 적용하였지만, 명(明)나라 때 이르러 유백온(劉伯溫)이 『적천수(適天髓)』에서 신살무용론(神殺無用論)을 주장면서 십이운성의 개념은 자리매김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아울러 청(淸)나라 때 임철초(任鐵蕉) 역시 『적천수정의(適天髓徵義)』에서 생극제화(生剋制化)로만 길흉화복을 논하는 가운데, 진소암(陳素庵)은 『명리약언(命理約言)』에서 운성간법에 동생동사설(同生同死設)을 주장하는 등 십이운성의 활용은 수난을 겪어왔다.

몇몇 명리상담가들은 쉽고 용이하게 십이운성론을 응용해서 쓰고 있다. 그러한 이유는 사주의 용신(用神)과 격국(格局)을 찾는 방법에 있어서 어렵고 한계가 있을 수

있어서 사주분석시 유용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몇몇 유명세를 타고 있는 학자나 명리상담가들은 십이운성의 개념을 터부시하는 것보다는 중요한 이론이므로 주의 깊게 살펴서 사주의 희기(喜忌)를 논해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십이운성의 유용론에 대한 주장은 여러 명리상담자들을 통해 그 중요성을 입증 받고 있다. 일반적으로 용신론, 격국론만을 주장하는 일부 명리학계의 대가들 사이에서는 십이운성이라는 개념을 신살(神殺)의 일종으로 그리 중요한 이론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김성태, 2006; 유경진, 2008, 2011; 안성재, 2011). 단지 사주분석시 내용을 풍부하게 하기 위한 기능 정도로 취급하고 있다. 이러한 생각은 몇몇 학자들이 양생음사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양간(陽干)의 순행(順行)을 인정하지만, 음간(陰干)은 십이운성의 개념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반면, 명리학의 다른 학계에서는 용신(用神)과 격국(格局)이라는 개념은 사주의 중화를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인자로서 음양의 논리를 말하는 바는 중요하지만, 모든 팔자를 해석하는 수단이 될 수 없다고 일침(一針)을 가하고 있다(심귀득, 2011). 박청화(2015)는 사주 속에서 용신과 격국을 갖추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으며, 오히려 용신과 격국을 갖추지 못한 자들이 살기가 버거워서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문점(問占)하러 오는 경우가 많다고 말한다. 그리고 용신과 격국을 갖추지 못한 내담자들은 어떻게 삶을 살 수 있는 것이냐고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실제적으로 여러 명리상담가들이 십이운성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있다. 최근 유튜브로서 유명세를 타는 명리상담가들은 대중이 쉽게 이해하기 쉬운 전략으로서 십이운성의 개념을 활성화시키고 있다. 이렇게 명리학의 몇몇 학자나 이론가들이 실경이를 하는 것은 명리학의 발전에 큰 도움이 될 수 없다(심귀득, 2010). 이러한 노력과 시도는 장시간의 상담비용과 저항으로 힘들 수 있는 한국 내담자들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한편, 명리학 이론들 중 상담을 하는데 있어서 핵심을 던질 수 있는 도구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특히, 십이신살(十二神殺), 무자론(無字論)(황금옥, 2015), 공망(空亡) 등에 대한 지속적 연구가 필요하다. 그러한 이론들은 십이운성으로 ‘핵심 던지기’가 실패하는 경우 내담자의 문제를 읽어줄 수 있는 제2의 도구(Tool)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제2의 도구들은 십이운성의 오류를 줄이고 신뢰도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후속 연구에서 이러한 부분을 보완한다면, 핵심던지기의 정확도를 높힐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미 언급한바 있듯이 십이운성은 ‘핵심 던지기’뿐만 아니라, 일주론에 대

입하면 성격 성향, 직업 적성 및 부부관계 등 일간의 특성을 함축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예컨대, 서양상담의 MBTI, 에니어그램과 같은 상담 프로그램으로서 활용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십이운성론을 도입한 연구로서 명리학계에 새로운 이론해석의 틀을 제공하였기 때문에 연구의 의의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주장은 지금까지 십이운성의 유용론을 주장했던 연구들과 뜻을 같이 할 수 있을 것이다(박재완, 1985; 이석영, 1996; 김동화, 2011; 임한석, 2011; 안태옥, 2012; 심문국, 2012; 박정화, 2015; 강 현, 2016; 석우당, 2018).

둘째, 명리상담의 기술적 요소들을 파악하였다. 서양상담과 다르게 명리상담은 명리상담에서만 볼 수 있는 상담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핵심 던지기’기술이다. 도박중독자의 사주를 블라인드 방식을 통해 명리상담가 8인에게 명리사주분석을 의뢰 후, 이론을 형성하기 위한 방법으로 근거이론을 채택하여 개방코딩, 축코딩, 선택코딩으로 ‘핵심 던지기’로서 무엇을 말할 것인지 살펴보았다. 그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현상학적 해석학으로 명리상담자들의 상담 경험에서 말하는 ‘핵심 던지기’기술에 대한 견해를 살폈다. 명리상담만이 가지는 ‘핵심 던지기’기술은 인간중심을 선호하는 서양 내담자들에게는 직선적이고 강한 표현이 될 수 있으나, 감정을 억압하는 고맥락사회의 한국 내담자에게는 저항감을 줄일 수 있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상담자는 명리사주분석을 통해 내담자가 현재 가장 힘들어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핵심 던지기’를 할 수 있다. 사주원국과 대운, 세운, 월운, 일운을 대입하면 내담자에게 어떤 육친의 기(氣)의 흐름이 좋고 나쁜지 파악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시도는 몇몇 내담자들에게 강하게 들릴 수 있는 직면적 요소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진정한 직면(전요섭, 2008)은 내담자의 방어막을 뚫고 공감적인 이해와 더불어 내담자의 심리적 저항감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미 언급한 바 있듯이 명리학에 대한 전문적이고, 이론적인 예리함은 반드시 수행되어야만 하는 과제가 될 것이다.

‘핵심 던지기’기술은 명리상담만이 가지는 상담기술로서 고맥락 사회의 집단주의의 유교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한국 내담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가족, 친구, 동료 등 타인에 대한 배려와 생각이 많기 때문에 자신의 감정을 세세하게 표현하지 못할 수 있다. 서양인들과는 달리 한국의 내담자들은 누군가 입가에만 뱅뱅돌며 씩스럽거나 어눌할 때, 편안하게 핵심을 짚어서 대신 말을 해준다면, 내

담자는 이를 통해서 방어벽을 허물 수 있고, 내담자 자신의 심리적 문제에 몰입하고 집중하는 기회를 갖을 수 있다. 그러한 기회를 통해 나머지 상담의 내용은 저항없이 개방이 가능할 수 있다.

반면, 이러한 직면적인 ‘핵심 던지기’기술은 내담자가 개인의 치부를 건드리거나, 상담자의 내담자에 대한 판단이나 확인 등을 통해 심리적 위축감이나 전이감정을 느낄 수 있으므로 조심스럽게 다루어져야 한다. 내담자에 대한 충분한 탐색이 전제가 된 후에 상황과 내담자의 특성에 따라 상담을 자연스럽게 이끌어 나아가도 좋다. 그러므로 직면을 통해 내담자가 제2의 심리적 피해가 가지 않도록 다각적 노력이 필요하다. 즉, 명리사주분석과 더불어 서양상담을 절충할 내담자의 유형이나 접근 방법에 대한 고민들이 있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어떤 문제를 다루고자 하는지 내담자에게 선택의 기회를 준다거나, 내담자의 성향에 따라 강하고 센 이야기를 듣고 싶은지 그렇지 않으면 부드럽게 끌여가는 상담을 원할 것인지 상담자의 헤안이 필요할 것이다.

명리 상담자는 숙명론적 결정론자와 같은 인간의 의지를 부정적인 의미로 해석하는 것은 고려해 볼 사안이다. 내담자들은 명리사주분석을 통한 결과에 대해 큰 의미로 받아들일 수도 있다. 마치 명리상담자가 나의 모든 치부를 알고 있을 것 같고 숙명적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으므로 희망적 메시지를 주는 일은 소수 내담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 명리상담에서 상담자가 상담의 주제에 대해 ‘핵심 던지기’를 하는 상담기술은 양면의 칼날처럼 독도 되고 약도 될 수 있다. 그러므로 ‘핵심 던지기’를 할 때, 상황과 맥락에 맞는 상담자의 융통성은 필요할 것이다.

상담자는 명리사주분석을 통해 내담자가 현재 가장 힘들어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핵심 던지기’를 할 수 있다. 이는 사주원국과 대운, 세운, 월운, 일운을 대입하면 내담자에게 어떤 육친의 기(氣)의 흐름이 좋고 나쁜지 파악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시도는 몇몇 내담자들에게 강하게 들릴 수 있는 직면적 요소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진정한 직면은 내담자의 방어막을 뚫고 공감적인 이해와 더불어 내담자의 심리적 저항감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미 언급한 바 있듯이 명리학에 대한 전문적이고, 이론적인 예리함은 반드시 수행되어야만 하는 과제가 될 것이다. 이러한 생각은 양면의 칼날에 비유할 수 있는데, ‘핵심 던지기’의 양면성을 의미한다. 즉, 독(毒)도 되고, 약(藥)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상담자의 헤안이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명리상담에서만 볼 수 있는 명리상담의 기술로서 ‘핵심화두 던지기’, ‘직언직설을 통한

공감적 이해’, ‘직면을 통한 저항 다루기’, ‘물상론적 들여다보기’(하은희, 김성봉, 2019a: 858-868)를 주장했던 연구의 결과와 뜻을 같이 한다.

다. 명리학 기반 한국적 단기상담

앞의 연구결과들을 기초로 하여 ‘명리학 기반 한국형 단기상담 모형’을 제시하였다. 실제로 이루어지는 명리상담의 사례를 소개하고 서양상담의 관점에서 슈퍼비전을 통해 명리상담의 단기상담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축어록 풀기, 상담의 사례개념화와 더불어 서양의 주요 상담이론 중 정신분석, 인지행동, 인간중심, 게슈탈트 상담적 관점으로 명리상담의 사례를 재해석하였다. 이러한 서양 상담이론의 다각적인 분석을 통해 명리상담의 향후 개선점과 더불어 시정되어야 할 부분의 지적과 함께 한국 내담자를 심층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명리학 기반 한국형 단기상담 모형을 제시할 수 있었다. ‘명리학 기반 한국형 단기상담 모형’에 대해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핵심 던지기’기술은 단기상담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명리학 기반 한국형 단기상담은 기존의 철학관 상담과 더불어 서양상담의 기능을 통합한 것으로서 동, 서양의 상담에 있어서 장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접목시켰다. 이러한 시도는 기존의 명리상담과 서양상담의 통섭을 위한 노력을 통해 한국인에게 적합한 한국형 단기상담 모형을 개발하는데 초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명리학 기반 한국형 단기상담’의 모형은 크게 경로 A와 경로 B로 나눌 수 있다. 경로 A는 비교적 건강한 내담자로서 자신이 처한 운명적 해석을 원하는 내담자이다. 경로 B의 내담자는 숙명적 한계상황으로 인하여 현재 심리적 불안이나 우울 및 여러 심리적 증상들을 동반하는 내담자의 경우이다.

상담의 형태적 측면에서 본다면, 기존 철학관 상담과 심리상담이 융합된 형태이다. 특히, 명리학의 단기상담을 위한 새로운 발상으로서 ‘핵심 던지기’를 응용할 수도 있다. 이러한 기술의 도입은 내담자의 핵심문제를 신속히 파악하고 상담을 위한 주제가 바로 정해질 수 있다. 그리고 암묵적으로 내담자의 동의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단기상담에 있어 유용한 개연성을 갖는다. 사실상, 내담자는 이야기하고 싶지 않은 부분은 굳이 이야기 할 필요가 없다. 현재의 문제를 파악하기 위해 서양 상담자들은 내담자가

말하고 싶지 않은 가족사로부터 무의식의 여러 부분을 읽어내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이는 내향적이거나 자신의 문제를 제한 받기를 원하지 않는 내담자에게 저항감을 일으킬 수 있다. 그리고 시간과 상담경비만 낭비할 수 있다. 상담에서는 내담자가 원하는 부분만을 다루어도 좋을 것이다 ‘핵심 던지기’가 단기상담을 촉진시킬 수 있다는 결과는 단기상담 및 단회기 상담을 주장하였던 연구들과 뜻을 같이 한다(김계현, 1992; 박경애, 2000; 문창희, 2008; 강진구 등 역, 2014; Fisch, Weakland & Segal, 1982; Talmon, 1990; Bloom, 1992).

일반적으로 한국 내담자들이 서양상담의 기술이나 방식에 익숙하지 않다. 서양 상담자는 이러한 상담기술들을 가지고 내담자 스스로 자신의 문제를 통찰하도록 여러 각도에서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지만, 한국 내담자들은 어색하게 느낄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은 상담자 측면에서도 같은 상황이다. 백인 40대 중산층의 기호에 맞도록 설계된 상담적 틀로서 한국인을 대한다는 것은 무리가 아닐 수 없다. 점복문화권의 내담자를 위한 접근으로 한국 내담자의 특성을 반영하는 상담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동양오술(東洋五術) 중 명리학에 기반하여 십이운성론 등을 활용하여 내담자의 가장 힘이 들 수 있는 육친에 대한 ‘핵심 던지기’를 언급하였다. 앞에서 이미 언급하였듯이 십이운성론을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육친이 운기가 좋고 나쁜지 그것의 방향성을 알 수 있다. 특히 매년 바뀌는 세운은 내담자가 처한 환경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내담자를 만나는데 있어서 많은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예컨대, 2019년 기해년, 2020년 경자년은 수(水)의 기운이 좋을 수 있다. 만약 수(水)가 나의 공부운이며 문서운에 해당한다면, 특히 목(木) 일간(日干)에게는 인성(印星)이 빛을 발할 시기일 것이며, 그와 반대가 되는 토(土), 화(火)에 해당하는 육친은 절지, 태지를 향할 것이다. 십이운성의 원리를 대입하면, 명리상담자는 내담자가 현재 가장 힘들 수 있는 환경을 예측할 수 있고 단도직입적으로 상담의 방향성을 찾는 일이기 때문에 단기상담을 가능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명리상담자는 필요시 내담자의 감정도 읽어 줄 수 있다. 명리상담계에서는 단순한 숙명론적 해석을 위한 조언이 아니라, 내담자를 깊이 있게 이해하기 위한 전략들의 보완이 필요할 것이다. 예컨대, 기존의 명리상담은 감정을 읽는다든지, 육구, 바램 등을 통해 내담자의 내적 동기 유발 등의 변화의지를 찾는 등 내담자의 심리를 다

루는 데에는 미흡해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풀기 위해 인간의 감정과 심리를 읽을 수 있는 서양상담의 상담기술을 응용하였다. 만약, 명리상담시 내담자의 감정을 다루어야만 하는 상황이라면, 상담에서는 감정문제나 심리적 증상을 다룰 수 있어야만 한다. 단순히 숙명론적 결과만을 운운 한다는 것은 깊이 있는 상담은 아닐 수 있다. 상담은 내담자의 자원을 파악할 수 있고, 내담자의 긍정적 변화를 이끌 수 있어야만 할 것이다. 이처럼 상담자는 융통성과 함께 즉시성이 있어야 한다(고기홍, 김경복, 양정국, 2007). 예컨대, 운명적 한계를 경험하는 내담자라면 내담자에 맞는 상담자의 탄력적인 반응은 중요한 일일 것이다.

그리고 단순히 철학관에 와서 숙명적 한계를 묻는 내담자도 있겠지만, 그러한 문제를 가지고 속상하고 힘든 감정 등도 토로하고자 하는 내담자도 있을 수 있다. 그러한 내담자들은 상담실 밖에 다음 내담자가 준비하게 기다리는 상황에서 충분히 마음을 열고 토로할 여유가 없다. 한국인의 특징으로서 한(恨)의 정서로 일컬어 지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수직적 집단주의에서 수평적 집단주의로 바뀌어가고 있는 실정이며 서구화 된 교육의 영향으로 인해 개인주의 혹은 감정표현도 자유로워지고 있다. 명리학계에서는 그러한 내담자들이 소수에 불과할 지라도 그들의 상담 서비스 차원에서 탄력적인 상담적 대안은 필요하다.

‘핵심 던지기’ 기술은 한(恨)을 담고 있고, “푸는 문화”(주은선 등, 2007: 581)로 그 특징을 말할 수 있는 한국 내담자들에게 새로운 상담기술이 될 수도 있다. 스스로 자신의 감정을 풀기 보다는 누군가 즉집게 도사처럼 내담자의 문제를 진정으로 직면시키면 방어와 저항의 벽은 허물어 질 수 있다. 이러한 생각은 다문화를 이해하고 접근과 시도를 논했던 연구들과 함께하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오진미, 2005; 주은선 등, 2007; 박예선, 하미구, 2008; 김미라 등, 2010; 신순옥, 2018; Atkinson. etc., 1979).

아울러 명리상담계는 서양에서와 같이 상담사례에 대한 수퍼비전을 통해 체계적 사례관리에 대한 제도적 미흡함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감정 다루기, 욕구 다루기, 희망 다루기 등은 서양의 상담적 기술을 차용하였는데, 상담의 깊이를 보다 풍부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명리상담계는 고려할 사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주장은 다문화 배경의 내담자를 위한 전략을 언급하였던 연구들과 그 맥락을 같이 하는 일일 것이다(김기석, 1967; 이동식, 1974; 최상진, 2000; 오진미, 2001; 김영재, 2004; 박은경, 2008; 표인주, 2010; 차현희, 2015; 양준영, 2018; Murase, 1982).

2. 제언

본 연구를 통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명리학 기반 한국형 단기상담 모형’의 개발에 있어서 구체적인 방법론적 고민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다른 연구와 달리 동양의 역학이며 철학으로서 명리학을 서양상담에 활용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론적으로 접근하였기 때문에 후속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자들을 확보하여 일반화에 대한 한계를 극복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한국 내담자의 특징으로서 유교가치관, 집단주의 고맥락 사회에서 비교적 감정을 억제하는 한(恨)의 민족이라는 전제하에 한국적 상담이라는 타이틀을 붙일 수 있었다. 이미 심경섭(2013)은 한국인의 특성과 함께 심리를 다루기 위한 노력으로 유교가치관 척도를 개발한지 오래 되었다. 그러나 본 연구는 한국인의 대표적 특성으로 유교가치관, 집단주의, 감정 억제 등으로 일축시켰다. 이러한 부분은 연구자의 비약적인 해석일 수 있기 때문에 후속 연구에서는 한국인의 특성에 대한 타당화 작업들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과거 한국인들의 성향이 수직적 집단주의에서 현재는 수평적 집단주의로 되어가는 과도기적 단계에 있다. 요즘은 한 해 한 해가 다를 정도로 한국의 신세대들이 가치관이나 감정표현을 하는데 있어서 자유롭다. 그들은 새로운 신교육과 더불어 외국의 문물이나 교육을 받으며 성장해 오고, 가정에서도 부모교육이 저변 확대되고 부모와 자식간에도 충분한 의사소통을 하면서 성장해 왔기 때문이다. 이러한 분위기는 자기의 가치를 우선시하고 자아실현을 목표로 하는 서양 문화의 유입이 가장 큰 역할을 해온 것 같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시대상을 반영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미흡함을 고백한다. 또한, 일반적인 한국인의 개념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 부분도 타당화할 필요가 있다. 각 연령대마다 한국인의 의식구조나 가치관에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변화의 과정에 있으므로 한국적 단기상담을 논하기 전에 이러한 내용이 반영되지 못한 부분은 연구의 한계로 남기고자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명리상담가들은 단기상담을 위한 가장 큰 상담의 도구라고 말할 수 있는 ‘핵심 던지기’를 언급하였다. 본 연구의 참여자였던 8인의 명리 상담가들은 나

이대가 모두 50대, 60대, 70대 등 연령이 높다. 단지 8인의 명리상담가들을 통해 이론을 형성하는데 다소 일반화에 대한 한계가 있다.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후속 연구에서는 참여 대상자의 수를 감안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한편, 신세대 층이 단도직입적으로 자신의 치부를 드러내는 일에 대해 내담자로서 이해하는 일은 어려울 수 있다. 이미 삶의 우여곡절과 세파를 통해 숙명적 한계상황을 겪은 내담자라면 명리상담가들의 일침을 모두 알아듣거나 긍정적으로 이해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청소년이나 미혼 남녀는 아직 미래가 창창하고 희망적으로 자신의 문제를 보기 때문에 불운한 미래를 상담자가 먼저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2차적 저항을 느낄 수 있다. 그러한 부분은 상담시 내담자의 특성을 반영하면서 조절을 해야 하는 사안이 된다.

명리상담만이 가지는 핵심기술은 ‘핵심 던지기’이다. ‘핵심 던지기’기술은 사실상 연령대 별로 다양한 결과가 있을 수 있다. 어떤 연령대에서 이러한 명리상담의 핵심기술들이 적용 가능한지를 검증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이것이 적중한다면, 또다른 내담자들의 기본적 성격, 가치관,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부모와의 애착관계, 종교 등 현재 서양상담계에서 노력하는 연구들처럼 다양한 각도에서 내담자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둘째, 질적연구의 한계를 인정한다. 질적 연구의 해석에 있어서 연구자의 편협된 가치관이나 이론적 분석틀로 인해 실제의 내용보다 과대 해석되거나 축소해석에 대해 인정한다. 이러한 부분은 현상학적 해석학으로 연구자의 주관적인 편견과 새로운 관점으로 해석을 전개하는데 있어서 좁은 이론적 렌즈를 장착한 것으로 인해 편파적인 해석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다.

질적연구에서 이해되는 사회는 ‘의미의 세계’이며 인간은 이 의미의 세계속에서 생활하며, 그러한 의미의 해석에 근거하여 행동을 한다(Blumer, 1962: 김영천, 2016). 이러한 사회세계의 특성때문에 질적 연구에서는 참여자의 관점과 참여자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강조되며, 사회세계는 참여자의 관점과 해석에 의해 설명되고 이해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주어진 상황에 어떠한 중립적이고 외재적인 개념과 언어를 부과하는 노력은 생생한 일상적 경험의 의미를 상실시키고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한 인간은 사회, 정치, 경제, 문화, 가정, 학교, 가치관 등 세계와 연결되어져 있다. 연구자는 세상을 바라보는 좁은 이론적 렌즈를 끼고 연구에 임했으나 독자들에게

다양한 각도로 조명 되었을 것이라 생각한다.

이러한 독단과 편견을 줄이고자 동료검증과 피드백을 통해 객관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은 하였다. 그러나 명리학의 학문 분야에 대한 내용을 검토하는데 있어서 명리학 이론을 알지 못하는 상담계 동료들의 검증은 내용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상담의 내용면에서의 보완점 등은 지도나 조언을 받을 수 있었으나, 명리학과 서양상담을 동시에 아우르는 동료의 부재로 인한 연구자의 독단이 되지 않았을지 걱정스럽다. 그러한 결과들은 상담자들을 인터뷰하고 축어록을 정리하고 주제를 잡아가는 과정에 반영이 된 것 같다.

본 연구의 신뢰도나 타당도를 줄이고자 IV장. 명리상담의 치료적 의미 탐색에서는 연구자 스스로 명리학 공부를 하면서 느꼈고 통찰하는 과정을 말하면서 가독성을 위한 노력을 하였다. 그러한 노력은 명리학 공부 경험을 통해 얻은 감동의 순간을 서양 상담적 측면으로 해석하여 보다 독자의 이해를 높이고자 하였으며 연구자의 ‘주관적 객관성’을 유지하려는 노력의 일환이었다. 이러한 노력은 “가장 주관적인 것이 가장 객관적이다.”라는 말처럼 연구자의 좁은 렌즈로 그것을 바라보는 독자의 제3의 객관적 관찰자의 수준을 통해 새롭게 상담관련 분야에서 울림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연구자의 편협한 생각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였던 것 같다.

또한, 본 연구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으로서 형태적 차원으로 본다면, 문헌적 고찰연구를 통한 이론적 접근과 더불어, 실제 명리상담 장면에서 활용하는 실천적 접근을 볼 수 있다. 내용적 차원으로는 III장 명리상담의 초기자료 탐색에서는 문헌연구를 통해 육친의 개념을 살피고 서양 상담에서의 가계도를 들여다 봄으로써 내담자의 가족역동을 이해하려고 하였다. 또한 일주론을 통해서도 내담자의 성격 성향 및 직업적성을 탐색할 수 있었다. IV장에서는 명리학이라는 학문을 통해 상담에서 일컫는 치료적 의미의 차원을 다루어 보았다. 『삼명통회』, 『적천수』, 『연해자평』, 『자평진전 평주』 등 명리학의 고전문헌 연구를 통해 음양음행론과 중화론을 다루었다. 그리고 독자의 이해를 위해 연구자의 명리학 공부를 통한 통찰 경험을 다루므로써 실제로 삶에서 응용할 수 있는 치료적 의미에 대해 탐색하였다.

V장은 십이운성의 개념을 설명하면서 『공통보감』에서 갑목이 겪는 자연현상을 문헌적으로 들여다 보았다. 그리고 2018년 무술년(戊戌年)의 세운에서 내담자에게 벌어지는 실제사례를 제시하였다. VI장에서는 명리상담가들의 상담경험을 통해 ‘핵심 던

지기'기술에 대한 견해를 살펴보았다. 이러한 노력은 고전문헌이 현재 내담자들에게 실제로 유용한 이론인지 검증하는 작업이었으며, 연구자의 해석에 있어서 주관적 편견을 해소하기 위한 전략으로서 미흡하게나마 질적연구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보완하려는 연구자의 의지였다. 후속연구에서는 발전된 방법론적 고민이 필요할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본 연구는 동양철학인 명리학과 서양상담의 장, 단점을 살펴 동서문화의 통섭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서 한국적 단기상담의 기초를 제공하였다. 본 연구자는 명리상담계가 기존의 틀에만 얽매이지 말고 변화하는 문화의 흐름에 동조할 수 있도록 상담의 질적 향상과 더불어 상담 사례관리를 통한 철학상담으로서 입지를 다져가길 희망한다. 물론 서양의 상담계에서도 단기상담으로서 명리학이라는 학문 속에 많은 상담적 자료가 다양하게 들어 있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통합철충주의적 입장에서 다문화상담으로서 한국 내담자를 위한 상담 전략으로서 활용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이장호, 김정희, 1999).

아울러, 이러한 노력이 새로운 단기상담으로서 바우처 사업에도 좋은 아이디어가 되었으면 한다. 본 연구를 통해 값비싼 상담과 예산이 확정되면 장기상담이든 단기상담이 필요한 내담자들 일률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상담예산에 대한 정확한 시정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한국 내담자의 특성에 맞는 바우처 사업예산의 절감과 활용도 면에서 현실적인 맹점들의 보완과 함께 다양한 한국인들에게 적합한 상담 서비스에 새로운 제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연구자는 명리학 기반 한국형 단기상담 모형을 개발하는데 있어서 주관적인 해석과 더불어 객관적으로 타당화를 하는데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음을 인정한다. 후속 연구에서는 이러한 일반화에 대한 한계를 보완하여 다양하게 한국인을 대표할 수 있는 정서나 가치관에 대해서도 다루기를 바란다. 그러한 노력은 신토불이(身土不二)의 한국 내담자들을 온전히 공감하고 수용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될 것이다.

참고문헌

- 강진령 (2005). 한국 상담의 비교 문화적 고찰을 통한 상담의 활성화 방안연구. **학습자중심교과교육학회지**, 9, 23-42.
- 강 현 (2016). **命理; 운명을 조율하다**. 경기: 들배개.
- 권석만 (2012). **현대 심리치료와 상담 이론**. 서울: 학지사.
- 김계현 (1993). 대학에서 단회상담의 적용. **人間理解**, 第14輯, 11-21.
- 김계현, 김동민, 김봉환, 김창대, 김인규, 권경인, 나운주, 서영석, 손은령, 이상민, 임은미, 최한나, 황매향 등 (2011). **상담심리학**. 서울: 학지사.
- 김계현 (1992). 단회상담의 원리와 기술 1. **학생연구** 27(1), 서울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 김계현, 김창대, 권경인, 황매향, 이상민, 최한나, 서영석, 이운주, 손은령, 김용태, 김봉환, 김인규, 김동민, 임은미 (2011). **상담학개론**. 서울: 학지사.
- 김기석 (1967). **도(道)와 카운슬링**. 학생지도연구, 경북대학교 학생지도연구소.
- 김기승 (2005). **사주명리를 통한 초등학생 영재판별 연구**. 국제문화대학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기승 (2010). **명리이론을 활용한 선천적성도구개발에 관한 연구**. 국제문화대학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기승 (2010). **놀라운 선천지능**. 서울: 창해.
- 김기승 (2013). **격국용신 정해**. 서울: 다산글방. 41-43
- 김경훈 (1996). **한국인의 66가지 얼굴**. 서울: 새로운 사람들.
- 김경희 (2006). **自營業從事者 四柱와 財運의 相關關係研究**. 擘踞大學校 國際文化大學院 석사학위논문.
- 김경희 (2008). **사주명리학 십성의 성격과 에니어그램의 성격심리와의 비교연구**. 동방대학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동화 (2011). <http://www.hongiktv.com> 신묘년 운세풀이.
- 김동환 (2010). **사주명리학 가족상담**. 서울: 동학사.

- 김동환 (2010). **사주명리학 물상론 분석**. 서울: 동학사.
- 김대영, 우옥희 (2016). 교육과정 담론에 나타난 포스트모더니즘 인식론에 대한 비판. **한국교육학연구**, 22(4).
- 김명호 (2010). **무속인 사주의 명리이론 분석연구**. 원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만태 (2008). 「점복신앙의 미학적(美學的) 의미」. 『**종교연구**』, 제52집, 한국종교학회, 154-156.
- 김만태 (2010). **한국 사주명리학의 활용양상과 인식체계**. 안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만태 (2011). **한국 사주명리 연구**. 서울: 민속원. 42-45.
- 김만태 (2013). 사주와 운명론, 그리고 과학의 관계. **원불교사상과 종교문화**, 제55집, 361-398.
- 김만태 (2018). 무라야마 지준(村山智順)의 조선 점복좌에 대한 비판적 고찰. **한국민족문화**, 제66집, 245-272.
- 김미라, 백용매 (2010). 사주경험과 사회적 문제해결, 의존성 및 독립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 **한국동서정신과학회지**, 13(2), 122-151.
- 김배성 (2003). **명리학 정론**. 서울: 도서출판 창해.
- 김배성, 박영창 편저 (2005). **적천수 강독**, 명운당.
- 김상일 (2005). **한의학과 러셀 역설 해의**. 서울: (주)지식산업사.
- 김석수 (2006). 철학, 고통 그리고 치료. **대한철학회 논문집**. 제100집. 181-201.
- 김석진 (2009). 『**大山周易占解**』, 서울: 대유학당.
- 김성봉 (2004). **다중지능이론을 활용한 환경 교수-학습 프로그램 개발의 효과분석**. 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성태 (2006). **格局과 用神**. 서울: 새움.
- 김성준, 김성봉, 박정환 (2009). 오행상담프로그램이 청소년의 대인 관계에 미치는 영향. **원불교사상과 종교문화**, 제42집, 252-255.
- 김영재 (2004). **점복문화 배경의 여성 내담자를 위한 상담전략의 모색: 근거이론적 접근**.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영재 (2004). 역리점복을 경험한 내담자의 체험연구: 역리점복의 상담적 현상에 대한 예비연구. **인간이해 제 4호**, 서강대학교 학생상담생활연구소, 24-49.
- 김영천 (2009). “자료가 스스로 말하게 하라”: 질적 방법으로서의 내러티브 연구법, **한**

국기독교 상담학회지, 제 18호, 1-26.

- 김영천 (2009). **질적연구방법론 I Bricoleur**. 경기 과주: 아카데미프레스.
- 김영천 (2016). **질적연구방법론 I Bricoleur**. 제3판. 경기 과주: 아카데미프레스.
- 김영태 (2010). 관음(觀音)주송(呪誦)과 그 신행적(信行的) 위치. **天台學研究**, 3.
- 김영혜 (2001). **상담과정에서 내담자의 자각과 통찰에 영향을 주는 상담자의 언어 반응**.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영희 (2014). **학업중단을 경험한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과정**. 제주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유숙 (2006). **가족상담 2판**. 서울: 학지사.
- 김인순 (2014). **命理學의 宮合論 比較研究; 宮合論의 論爭點을 중심으로**. 국제뇌교육 종합대학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일권 (2007). **동양 천문사상, 하늘의 역사**. 서울: 예문서원.
- 김용섭 (2014). **命理學 十星에서 官星에 관한 分析**. 대구한의대학교대학원 문학 석사학위 논문.
- 김용태 (2015). **가짜감정**. 서울: Denstory.
- 김정택 (1995). 해결중심적 단기가족치료의 원리와 치료전략. **人間理解**, 第14輯, 1-20.
- 김정호 (2011). **마음챙김 명상 멘토링: 행복을 늘리고 상처를 치유하는 마음의 기술**. 서울: 불광출판사.
- 김재덕 (2017). **四柱命理學의 刑沖會合이론 성립과 적용에 관한 연구**. 국제뇌교육종합대학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재성 (2005). **中小企業CEO의 不況時點에 관한 命理學的 研究: 事業家の 用神·忌神을 中心으로**. 원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종대 (1996). **점복의 역사**. 한국 민속사 입문. 서울: 연구사.
- 김종만 (2006). **육신의 편중에 의한 성격특성 연구**. 경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종하 (2014). **命理學 十星에서 官星에 관한 分析; 公職者와 非公職者의 官星 比較를 中心으로**. 대구한의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중학, 최보영 (2016). 대학생의 부적응적 완벽주의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 분석. **청소년상담학연구**, 24(1), 25- 42.

- 김진숙 (2010). **샤머니즘과 예술치료**. 서울: 학지사. 181-220.
- 김찬동 (2008). **적천수정설**. 서울: 삼한출판사, 389-390.
- 김창대, 권경인, 한영주, 손난희 (2008). 상담성과를 가져오는 한국적 내담자 요인. **상담학 연구**, 9(3), 961-986.
- 김창대 (2009). 인간의 변화를 촉진하는 다섯 가지 조건에 대한 가설: 상담이론의관점에서. **인간이해**, 30, 21-43.
- 김철호 (2017). 마음챙김명상과 심리치료에서의 받아들임(수용)의 의미와 도덕교육 적 가치. **한국 초등 도덕교육학회**, 제57집, 86-88.
- 김충렬 (2010). 한과 콤플렉스의 병리적 비교와 상담적 대안. **신학과 실천**, 28, 471-509.
- 김학목 (2011). 干支와 陰陽五行의 結合時代. **철학논집**, 제25집, 169-194.
- 김홍경 (1989). **동양의학혁명 총론**. 경기 파주: 신농백초
- 김홍규 (2003). **상담심리학**. 서울: 학지사.
- 김희영 (2008). **무라야마 지준의 조선인식에 관한 연구; 일제강점기 민속조사서를 중심으로**. 전남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태곤 (1995). **한국의 점복**. 서울: 민속원.
- 김태희 (2016). 만트라 명상에 대한 고찰. **원불교사상과 종교문화**, 제68집.
- 고 전, 김민호, 서명석, 송재홍 (2015). **교육을 바라보는 시선과 풍경**. 서울: 아카 데미프레스.
- 고순택 (2012). **알기 쉬운 명리학 총론**. 서울: 가림출판사.
- 고순택 (2015). **사주통변**. 서울: 해암출판사.
- 고기홍, 김경복, 양정국 (2010). **밀턴에릭슨과 혁신적 상담**. 서울: 시그마프레스.
- 고영복 (2000). **사회학 사전**. 서울: 사회문화연구소.
- 구만호 (2000). **한국인의 직업선택 요인 연구**. 동국대 교육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권대훈 (2015). **교육심리학의 이론과 실제 3판**. 서울: 학지사.
- 권혜경, 이희경 (2013). 초심상담자와 숙련상담자가 지각하는 내담자 장점과 활용방안에 대한 개념도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5(2), 3 - 424.
- 나경미 (2014). **사주의 심성과 학습몰입과의 상관성연구**. 국제뇌교육 종합대학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나경미 (2018). **사회복지사의 자기효능감과 직무만족의 상관성에 관한 사주명리학 적 연구**. 국제뇌교육 종합대학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나혁진 (2017). **명리 궁합론의 현대적 재해석에 관한 연구**. 국제뇌교육종합대학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남기동, 김만태 (2018), 한국사회 이혼현상에 따른 부부궁합(부부궁합)의 명리학적고찰. **인문사회 21**, 9(2).
- 남 덕 (2004). 궁합(宮合)의 역학적(易學的) 측면과 동·서양(東西洋)의 비교검토. **제5회 한국정신과학 학술대회 논문집**, 288-297.
- 노병한 (2005). **陰陽五行思惟體系論**. 서울: 안암문화사, 119-120.
- 문을식 (2011). 요가명상을 통한 마음 치유 가능성. **동아시아연구**, 17(2).
- 문재호 (2009). **명리학과 운기학의 질병예측 비교연구**. 동방대학원대학교 박사 학위 논문.
- 문창우 (2008). **제주지역 천주교인들의 점복에 대한 경험과 인식**. 제주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문창희 (2008). **현실요법을 적용한 단회학생상담모형 개발**.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민병배 (2011). **심리치료에서의 사례 개념화**. 2011년도 한국임상심리학회 봄 학술대회 심포지움 자료집.
- 박경애 (2000). **단회상담과 그 사례**. 서울: 한국청소년상담원.
- 박상언 (2014). **명리학에 적용된<중>사상에 관한 연구**. 대구한의대학교대학원 박사 학위논문.
- 박상주 (2007). **원효 그의 삶과 사상**. 서울: 한국문화사.
- 박성수, 김창대, 이숙영 (2019). **상담심리학**. 서울: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 박성희 (2012). **四柱命理의 歲運解釋方法에 관한研究; 季節의 週期성과 時差를 考慮 하여**. 동방대학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박성희 (2016). 사주명리학의 형살에 관한 연구. **한국정신과학회 학술대회논문집**, 2016(05).
- 박숙희 (2014). 제3장 한국인의 사주에 관한 의식 및 영향요인 분석. **민족사상**, 8(4), 63-95.

- 박영창, 김배성 (2005). **적천수강독**, 서울: 명운당.
- 박영창 (2011). **격국·용신과 전공 선택과의 상관관계 연구**. 동방대학원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박영창 (2011). **진로지도에 있어서 명리학적 보완 가능성에 관한 연구**. 공주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예선, 하미구 (2008). 한국상담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발전과제.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0(4).
- 박윤정 (2018). 직면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직면 기술의 조건적인 활용 방안의 제안. **복음과 상담**, 26(1), 93-126.
- 박일우 (2003). **삼명통회**. 명문당.
- 박은경 (2008). **점복(占卜)에 대한 태도 척도개발과 점복에 대한 태도에 따른 심리적 특성**.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재범 (2018). **命理學의 滴天髓, 子平眞詮, 窮通寶鑑 用神論 比較 研究**. 국제뇌교육 종합대학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박재완 (1985). 『**명리요강(命理要綱)**』. 서울: 易門官 書友會. p94-95.
- 박주현 (2004). 사주학에서의 심리구조. **한국정신과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4.
- 박주현 (2014). **낭월 사주용어 사전**. 서울: 동학사.
- 박진미 (2014). 한국인의 사주에 관한 의식 및 영향요인 분석. **민족사상**, 8(4), 63 - 97.
- 박청화 (2005). **춘하추동 신사주학 春**. 부산: 청화 학술원.
- 박청화 (2014). **춘하추동 신사주학 秋**. 부산: 청화 학술원.
- 박청화 (2014). **춘하추동 신사주학 冬**. 부산: 청화 학술원.
- 박청화 (2015). **춘하추동 신사주학 夏**. 부산: 청화 학술원.
- 박태수 (2008). 명상을 통한 상담의 가능성 모색. **상담학연구**, 9(3), 1373-1388.
- 변만리 역리연구회 (2011). **변만리 萬里天命**. 서울: 도서출판 자문각, 397-410.
- 배라영, 최지영 (2012). 청소년 내담자의 저항에 대한 초보상담자의 심리적 경험. **상담학연구**, 13(5), 2483-2503.
- 백영관 (2006). **사주정설**. 명문당.
- 서명석 (2003). 산파법(産婆法) 대 선문답(禪問答); 교육적 대화의 일치와 불일치. **韓國**

- 教育, 30(2), 5-28.
- 서명석 (2013). 역점의 현대적 활용: 상담의 관점으로 바라 본 역점의 세계. **교육사상 연구**, 61-74.
- 서명석 (2013). 퇴계교육철학과 현대교육. **교육철학**, 제50집, 61-87.
- 서명석 (2016). 역점의 치료적 성격: 다산역과 수양점의 현대적 응용을 중심으로. **교육사상 연구**, 30(3), 138-141.
- 서명석 (2017). **주역상담과 주역치료: 길을 잃다 묻다 답을 얻다**, 경기 용인: 책인숲.
- 서명석 (2017). **퇴율공부법과 현대교육 비판**. 경기 용인: 책인숲. 135-142.
- 서준원 (2013). **命理學의 中和論 研究**. 공주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석길균, 김복희 (2011). 사주명리학 이론에서의 탁구선수 인성적 특성. **한국교청능력 개발원**, 13(4).
- 설기문 (1993). 多文化主意 입장에서 본 相談의 土着化와 韓國的 相談의 可能性. **學生 研究**, 제21집, 43-61.
- 설기문 (2007). 에릭슨 최면치료의 특성과 활용 기법의 가치. **동방논집**, 제1집, 154-196.
- 성수진, 유순화 (2006). 개인주의-집단주의 및 귀인양식이 대학생의 전문적 도움추구 태도에 미치는 영향. **부산대학교 사대학보 제 45집**, 29-43.
- 소광희 (2003). **하이데거 존재와 시간강의**. 서울: 문예출판사.
- 소재학 (2005). **다시보는 사주학 석하명리**. 하원정명리 학회.
- 소재학 (2008). **五行과 十干十二支理論 成立에 관한研究**. 동방대학원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소재학 (2011). **논리로 푸는 사주명리학 1**. 서울: 하원정.
- 소재학 (2015). 동양미래예측학 '석하명리(奭廈命理)'의 일간(日干) 해석방법에 관한 연구. **선도문화**, 19, 441-500.
- 손난희, 김은정(2007). 한국 사람들의 상담가에 대한 이미지. **상담학 연구**, 8(2), 483-492.
- 송동립 (2006). 단기상담의 과정과 실제, **신학전망**, 152호, 126-144.
- 송병근 (2005). **정신분열에 관한 연구; Scizophrenia와 전광에 대한 사례를 중심으로**. 원광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송유성 (2012). 사주명리학의 조후론 적용에 관한 연구. 대구한의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송지나 (2011). 자평진전에 나타난 인간의 명과 자유의지의 문제. 대전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신기주 (2015). 命理學의 中和的 해석에 관한 研究. 동의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신경림, 조명옥, 양진향 (2004). 질적연구방법론. 서울: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 신기남 (2015). 命理學의 中和的 해석에 관한 研究. 동의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신진욱 (2007). 사띠(Sati: 念) 수행을 통해 본 심리치료에 관한 고찰. 한국선학, 제 17집, 152-162.
- 신상춘 (1991). 사주가 운명과 심리에 미치는 영향과 교육과의 관계. 세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신수진 (1998). 한국의 가족주의 전통과 그 변화.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신순옥 (2018). 고학력 경력단절 중년여성의 사주유형과 자기효능감 및 우울의 관계 분석. 국제뇌교육종합대학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신영대 (2003). 명리학 원리대전. 경기 파주: 백산출판사.
- 신창호 (2012). 유교의 교육학 체계. 서울: 고려대학교 출판부.
- 신혜경 (1991). 상담자와 내담자의 사회문화적 배경에 따른 문제귀인 양식과 상담 효율성 평정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심경섭 (2013). 유교가치관 척도 타당화 연구. 고려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심경호 (1994). 주역: 미래를 가늠하는 관계론. 문화와 나, 제89호, 26-30, 서울: 삼성문화재단.
- 심규철 (2002). 명리학의 연원과 이론체계에 관한 연구. 한국 정신문화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심귀득 (2010). 『동양적성 상담과 치유』, 부산: 살맛출판사.
- 심귀득 (2011). 『주역』 과 命理學의 상관성에 관한 연구; 시중론(時中論)을 중심으로. 동양문화연구, 제21집.
- 심귀득 (2011). 『주역』 과 命理學의 치유적 기능에 관하여; 임상 경험을 중심으로. 동양문화연구, 제8집.

- 심문국 (2012). 十二運星의 命理學的 意味에 관한 研究; 爭點과 事例研究를 中心으로. 공주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심은숙 (2018). 말기암 환자 가족 보호자의 호스피스 돌봄 경험에 대한 질적 연구: Van-Manen의 해석학적 현상학 연구 방법론을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심효침 저, 서락오 평주, 박영창 역 (2007). 『자평진전평주(子平眞全平柱)』, 서울: 청학 출판사. p81.
- 심효침 저, 서상덕 역 (2011). 子平眞全精解. 서울: 관음 출판사.
- 안상호 (2014).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한 명리학의 직업이론 연구. 국제뇌교육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안성재 (2011). 格局用神과 專攻選擇과의 相關關係 研究. 동방대학원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안태옥 (2012). 신살 명리학. 서울: 좋은 땅. 41-168.
- 안희영 (2012). 현대 서구사회에서의 마음챙김 활용; 불교 전통과 현대 마음챙김 접근법을 중심으로. 불교학연구, 33호.
- 안형근 (2002). 한국 문화적 측면에서 바람직한 상담이론의 고찰, 공주영상정보대학 논문집, 제4권.
- 양정국 (2016). Milton Hyland Erickson-상담철학과 개관. 미출간 유인물, 제주: Erickson 연구회.
- 양정은 (2015). 자기성찰이 점복에 대한 태도 및 상담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 제주도민을 중심으로. 제주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양준영 (2018). 중년여성의 명리상담 경험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경성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오진미 (2001). 굿의 治療적 過程을 適用한 相談模型의 具案. 성균관대학교대학원박사학위논문.
- 오진미 (2005). 상담과 굿의 구조와 현상의 비교연구. 學生生活研究所, 第21輯, 1-21.
- 우정애, 김성봉, 박태수 (2012). 식물기르기 체험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상담학연구, 13(4), 2033-2048.
- 유경진 (2005). 실정법 위반에 관한 명리학적 연구. 원광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유경진 (2008). **명리학 용신도출의 방법론에 관한 연구**. 동방대학원 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유경진 (2011). **四柱用神 및 通變論**. 서울: 도서출판 역림관.
- 유성경, 이동혁(2000). 한국인의 상담에 대한 태도에 관한 분석적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2(2).
- 유성경, 유정이 (2000) 집단주의-개인주의 성향과 상담에 대한 태도와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2(1), 23-29.
- 윤민아 (2018). **폴 리콴트의 3중의 미메시스론에 근거한 유아의 내러티브 정체성 형성 연구**. 한국교원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윤현영 (2001). 상담사례-해결중심 단기상담모형에 따른 접근, **학생생활연구**, 28.
- 윤호균 (1982). 정신분석, 인간중심의 상담 및 불교의 비교 1과 2. **임상심리학보**, 3(1), 35-63.
- 윤호균 (1983). **삶·상담·상담자**. 서울: 문지사.
- 원정혜 (2003). 스포츠 바른소리(만트라 요가). **공학교육동향**, 10(2).
- 이남인 (2014). **현상학과 질적연구**. 응용 현상학의 한 지평. 서울: 한길사.
- 이동성 (2019). 자문화기술지의 방법적 이슈와 글쓰기 전략. **질적탐구**, 5(2), 1-28.
- 이동식 (1969). 카운셀링의 철학적 정석. **학생연구(서울대학교)**, 7(1), 20-26.
- 이동식 (1974). **한국인의 주체성과 도**. 서울: 일지사.
- 이동식 (1994). **상담의 동양적 접근**. 대학 상담학회, 서울: 중앙적성출판사.
- 이명우, 박정민, 이문희, 임영선 (2005). 사례개념화교육을 위한 상담전문가의 경험 적 지식 탐색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7(2), 277- 296.
- 이명재 (2009). **명리의 선천 직업적성과 실제 직업유형과의 상관성연구**. 국제문화대학원 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문규 (1997). **고대 중국인의 하늘에 대한 천문학적 이해**. 서울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문정 (2007). **명리이론을 활용한 초등학생 생활지도와 학부모 상담**. 국제문화대학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미선 (1997). **한국적 상담 이론의 필요성에 대한 고찰**. 동국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부영 (2011). **분석심리학**. 서울: 일조각
- 이부영 (2012). **한국의 샤머니즘과 분석심리학**. 경기 파주: (주)도서출판 한길사.
- 이서규 (2002). **삶과 실존철학**. 서울: 서광사.
- 이석영 (1996). **사주첩경**. 한국역학교육학원.
- 이성진, 박성수 (2019). **교육심리학**. 서울: (주) 동국문화.
- 이영분, 김유숙, 정혜정 (2005). **가계도: 사정과 개입**. 서울: 학지사
- 이영희 (1982). 문화와 상담: 문화지향적 상담을 위한 시론. **숙명여대 논문집, 23집**, 119-144.
- 이영일 (2006). **명리학의 사회적 동향에 대한 인식조사 연구**. 국제문화대학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용준 (2004). **사주학의 역사와 격국용신론의 변용과정연구**. 경기대학교 국제문화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유경 (2001). 왜 심층심리학인가?; S. 프로이트에서 C. G. 융으로. **사회이론, 제 19호**, 330-363.
- 이윤주 (2001). **상담사례개념화 요소목록 개발 및 타당성 검증 연구**. 서울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은진, 이지연 (2013). 관계-문화적 이론(RCT: Relation-Cultureal-Theory)의 이해와 국내 상담의 적용가능성에 대한 고찰. **상담학연구, 14(4)**. 2585-2620.
- 이은경, 양난미, 서은경 (2007). 한국에서의 상담에 대한 질적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9(3)**.
- 이은태 (2019). **사회복지 상담의 사주명리학적 적용가능성 연구: 인본주의 상담이론을 중심으로**. 국제뇌교육 종합대학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을로 (2007). 『**궁통보감강해(窮通寶鑑講解)**』. 서울: 동학사.
- 이장영 (1997). **사주와 리더십 자질이론에 관한 연구**. 경희대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장호 (1986). **동양에서의 상담. 심리치료적 접근**. 상담심리학 입문, 박영사.
- 이장호 (1990). 상담지도 이론에 대한 서양적 접근의 비교연구. **한국 심리학회, 3(1)**, 1-6.
- 이장호 (1991). 단기상담의 주요 이론과 접근방법. **한양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제4**

회 학술세미나.

- 이장호, 김정희 (1999). 한국심리학회상담 및 심리치료. 2(1). 1-14.
- 이정은 (2010). 그녀들은 왜 점집에 갔을까? 서울: 리브리언.
- 이정재 (2003). 음양오행론의 형성과 이의 응용연구. 한국의 민속과 문화 7집, 175-200.
- 이종인 (2010). 배우기 쉬운 사주학정론. 서울; 상원문화사.
- 이형득 (1992). 상담이론. 서울: 교육과학사.
- 인 경 (2009). 수용 및 전념치료(ACT)의 명상작업. 명상치료연구, 3. 17-22.
- 임규혁, 임웅 (2015). 교육심리학 2판. 서울: 학지사.
- 임은미 (2011). 단회상담의 원리와 기술 1. 학생연구 27(1), 서울대학교 학생생활연구 소.
- 任鐵樵 增註, 袁樹珊 撰輯, 김기승·김현덕 편역 (2017). 『적천수천미(滴天髓闡微)』. 서울: 다산글방.
- 원복연, 박태수, 허철수, 김성봉 (2013). 현실치료를 적용한 부부관계 향상 프로그램개발 및 효과검증. 상담학 연구, 14(6), 3283-3305.
- 장경화, 조원경 (2018). 마음챙김 자기연민(Mindful Self Compassion)프로그램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 삶의 만족, 긍정적 정서, 부정적 정서를 중심으로. 문화와 융합, 40(6), 205-210.
- 장미경, 정태연, 김근영 (2019). 발달심리. 서울: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 장성숙 (1999). 한국적 상담의 필요성: 현실역동 상담. 한국심리학회지: 상담과 심리치료, 11(2), 19-33.
- 장성숙 (2000). 현실역동상담: 한국인의 특성에 적합한 상담접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2(2). 17-32.
- 장성숙 (2002). 우리 문화의 상담자상,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4(3), 547- 561.
- 장성숙 (2005). 토속신앙과 상담과의 관계: 점복문화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7(3), 738-741.
- 장성숙 (2010). 한국인의 심리상담 이야기. 서울: 학지사.
- 장태진 (2014). 四柱命理學에서의 物象에 관한 研究. 대구한의대학교대학원 철학박

- 사학위논문.
- 전요섭 (2008). 직면에 대한 기독교 상담적 이해와 활용 가능성. **신앙과 학문**, 13(3), 241-265.
- 정국용 (2004). 성격 특성의 예측을 위한 사주명리학의 관한 연구. 동의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정기철 (2012). 리퀘르의 더불어 잘사는 해석학적인 윤리. **범한철학회논문집**, 제66집, 177-205.
- 정기철 (2016). **폴 리퀘르의 철학**. 서울: 철학과 현실사.
- 정병석 (2007). 주역의 치료적 함의. **철학논총** 제48집, 2권.
- 정병석 (2012). 『주역』 상(象)의 실천적 성격; 모종삼(모宗三)의 관점을 중심으로. **철학논총**, 70(4).
- 정상원, 김영천 (2014). 질적연구에서의 현상학적 글쓰기의 전략과 방법의 탐구. **교육문화연구**, 20(3).
- 정옥분 (2014). **발달심리학: 전생애 인간발달**. 서울: 학지사.
- 정의록 (2010). **명리학의 직업이론과 적성에 관한 연구**. 동방대학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정종진 (2014). 주요 개념을 통해서 본 수용전념치료(ACT)의 이론적 기초와 치료방법. **교육연구**, 29(2).
- 정준범 (2013). 에니어그램 성격유형과 사주명리학(四柱命理學)의 성격유형에 관한 연구; 일간을 중심으로. **에니어그램연구**, 10(2), 165-191.
- 정준영, 박성현 (2010). 초기 불교의 사띠(sati)와 현대 심리학의 마음챙김(mindfulness):마음챙김 구성개념 정립을 위한 제언. **한국심리학회지: 상담및 심리치료**, 22(1), 07-12.
- 정진배 (2008). **탈 현대와 동양적 사유논리**. 서울: 차이나하우스.
- 정재현 (2011). 명리학의 육친론 연구. 동방대학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창근 (2002). **장기별 증증질환 증상의 발현과 명리학적 분류에 관한 연구; 명리학적 장기별 질환 예측분석**.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정하룡 (2010). 滴天髓闡微에 나타난 性格分析實例와 用神別 性格에 關한 研究. **東方論叢**, 3(2), 230-239.

- 정하룡 (2010). **명리학의 성격유형 분석연구; MBTI분석을 중심으로**. 동방대학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조규문 (2005). **사주명리학에 적용된 음양오행 연구**. 공주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공호 (1993). 대인평가의 문화간 차이; 대인평가 이원모형의 확대-시론. **한국심리학회지**, 7(1).
- 조공호 (2003). **한국인 이해의 개념틀**. 서울: 나남출판.
- 조공호 (2007). **동아시아 집단주의의 유학사상적 배경**. 서울: (주)지식산업사
- 조수동, 최지승 (2007). 원효의 일미관행과 트랜스퍼스널. **대한철학회 논문집, 철학연구**, 제102집, 345-350.
- 조옥경 (2009). 관찰하는 자기(Observing self)에 관한 고찰; 심리학, 요가, 의식연구 접점의 모색, **요가학 연구, 창간호**, 18-22.
- 조용준 (2012). **사주명리학의 형에 관한 연구**. 동의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정용 (2018). **命理學의 中和論에 관한 研究**. 동의대학교대학원 철학박사학위논문.
- 진성기 (2008). **복을 비는 사람들**. 서울: 도서출판 디딤돌.
- 주광호 (2007). 周敦頤 「太極圖說」의 존재론적 가치론적 함의. **한국철학논집, 제20집**, 7-34.
- 주미강 (2014). **자평사주 궁합론 연구**. 동방대학원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주은선, 이혜경, 주은지 (2007). 한국적 인본주의 상담 모형 탐색; 인본주의 상담자들의 자기-보고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9(3), 569-586.
- 차현희 (2015). 역학(易學)과 예술치료학의 상관성 연구; 까르마 에토스와 동적 가족화 상징의 분석을 중심으로. **정신문화연구**, 38(3).
- 차현희 (2015). 주역(周易)의 팔괘(八卦) 상징과 심리치료의 상관성 연구; 간괘와 산(山)그림의 상징적 의미를 중심으로. **정신문화연구**, 38(4).
- 천성문, 박명숙, 박순득, 박원모, 이영순, 전은주, 정봉희 등 저 (2006). **상담심리학의 이론과 실제(2판)**. 서울: 학지사.
- 천정은 (2016). **호흡명상 체험의 해석학적 현상학 연구**. 동방대학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村山智順, 김희경 옮김 (1991). **조선의 점복과 예언**. 서울: 동문선.
- 최기표 (2009). 천태종의 觀音呪誦과 그 이론적 토대. **동아시아불교문화학회**, 제3집.

53-75.

- 최길성 (1994). **한국 무속의 이해**. 서울: 예전사.
- 최상진 (1997). **한국인의 심리특성: 한국인의 고유 심리에 대한 분석과 한국인 심리학 이론의 구성**. 한국 심리학회 편.
- 최상진 (2000). **한국인의 심리학**. 서울: 중앙대학교 출판부.
- 최성수 (2007). **四柱命理學에 근거한 건축 공간디자인 方法論 研究**. 국민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최왕규 (2014). **명리학의 心理學的 位相에 관한 研究; 프로이트· 융· 아들러의 心理學 中心으로**. 공주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최은경 (2013). **명리학 육친론의 상관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교 동양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찬주 (2013). **명리학의 명과 운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鮑黎明 (1995). **적천수 완전풀이**. 서울: 예원.
- 표인주 (2010). 광주점복(占卜)문화의 실상과 특징. **문화재**, 43(4).
- 하명렬 (2017). **한국 사주명리업 종사자들의 사회 경제조사 및 발전방향**.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하은희 (2015). **진로상담을 위한 명리학의 적용가능성 탐색; 폐업한 자영업자의 재성과 대운· 세운 분석**. 제주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하은희, 김성봉 (2018). 폐업한 자영업자의 재성과 대운· 세운분석을 통한 진로상담 가능성 탐색. **한국산학기술학회 논문지**, 19(10), 64-73.
- 하은희, 김성봉. (2019). 명리상담가들을 통해 바라본 명리학 (命理學) 의 ‘한국적 단기상담’가능성 탐색. **문화와융합**, 41(1), 849-886
- 하은희, 김성봉. (2019). 명리학 (命理學) 공부 경험에서 ‘숙명론적 한계상황의 수용’을 통한 ‘마음 챙김’의 치료적 의미. **문화와융합**, 41(2), 1255-1286.
- 하진의 (2013). 성인 애착 불안이 외상 후 스트레스와 성장에 미치는 영향: 자기자비와 반추의 매개효과. **상담학연구**, 14(6), 3433-3452.
- 한국 철학상담치료학회 (2012). **왜 철학상담인가?** 서울: 학지사.
- 한규석 (1991). 집단주의-개인주의 이론의 현황과 그 전망. **한국심리학회지**, 10(1), 1-19.

- 한규석, 신수진 (1999). 한국인의 선호가치 변화; 수직적 집단주의에서 수평적 개인주의로. **한국심리학회지**, 13(2), 293-310.
- 한동석 (1966). **우주 변화의 원리**. 서울: 대원 출판.
- 한수애 (2010). **十干十二地의 유래와 원리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 문화예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한숙자 (2001). 단기상담 및 심리치료에 관한 연구. **교수논문집**, 5호, 299-325.
- 한영애 (2010). **十干十二支의 由來와 原理에 관한 研究**. 경기대학교 문화예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한지연 (2018). **음양오행과 천간지지의 명리적 적용에 관한 연구**. 대구한의대학교대학원 문학석사학위논문.
- 한형조 (2009). **왜 동양철학인가**. (주)문학동네: 경기 과주
- 함혜수 (2008). **사주의 편중된 심성이 개인의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경기대학교 국제문화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홍미선, 박정환, 조정원 (2014). 청소년 스마트 진로코칭 시스템 설계. **정보과학회논문지: 소프트웨어 및 응용**, 41(4).
- 홍경자 (2014). 행복한 삶과 돈의 의미: 짐멜의 『돈의 철학』 을 중심으로, **현대유럽 철학연구**, 제38집. pp251-277.
- 홍수연 (2005). **운명! 따를 것인가. 바꿀 것인가**. 서울: 북인.
- 홍희기 (2002). **한국적 상담이론의 정립을 위한 탐색적 연구**. 연세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황금옥 (2015). **命理學의 虛字論에 관한 研究**. 원광대학교 동양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황금옥 (2017). 한국 명리학 (命理學) 의 메타분석학적 고찰: 연구동향 분석을 위한 개별논문의 심층분석을 중심으로. **한국학**, 40(1), 73-103.
- 황금옥 (2017). 한국 점복의 산업화 현황과 전망: 역사적 제도주의의 관점에서. **원불교 사상과종교문화**, 73, 475-509.
- 황오석 (2016). **명리상담에 대한 인식조사 연구**. 국제뇌교육종합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Creswell, J. W. (2007). *Qualitative inquiry and research method: Choosing among five approaches*. 조홍식, 정선옥, 김진수, 권지성 역. (2010) **질적연구방법론 2판**. 서울: 학지사.

- David R. Hopkins., POWER vs. FORCE: The Hidden Determinants of Human Behavior, 이종수 역(1997). **의식혁명**. 서울: 한문화 멀티미디어.
- Germer. C. K. & Siegel, R. D., Wisdom and Compassion in Psychotherapy, 서광 스님, 김나연 역 (2012). **심리치료에서 지혜와 자비의 역할**. 서울: 학지사.
- Hanna Levenson 저 (2008). Time-Limited Dynamic Psychotherapy. 정남운, 변은희 역, **단기 역동적 심리치료** (2017). 서울: 학지사.
- Jack H. Presbury· Lennis G. Echterling· J. Edson McKee (2014). Beyond Brief Counseling and Therapy; An Intergrative Approach. 강진구, 전정운, 박선진, 양승민 역. **단기상담의 통합적 접근**. 서울: 학지사.
- Jean Paul Sartre., L'existentialisme est un Humanisme, 박정태 역 (2008). **실존주의는 휴머니즘이다**. 서울: (주)이학사.
- Bradshaw, J. (1992). Homecoming: Reclaiming and championing your inner child. Bantam. 오재은 역 (2004). **상처 받은 내면아이 치유**. 서울: 학지사.
- Jonathan A. Smith, Paul Flowers, Michael Larkin (2009). Inerpretative Phenom enological Analysis. 김미영, 이광석 역, **해석 현상학적분석**(2015). 서울: 도서출판 하누리.
- John W. Santrock. (2018). Educaional Psychology. 김정섭, 강승희, 김성봉, 김진아, 윤채영, 이은주, 최현주 역 (2019). **교육심리학 제6판**. 서울: 시그마 프레스
- Jon Carlson and Matt Englar-Carlson, Series Editors (2012). Brief Dynamic Therapy. 안명희, 권현수 역, **단기 역동적 심리치료(2016)**. 서울: 박영 스토리
- Jung, C. C. and Frenz, M. L. Ed. The Man and his symbol. 이부영 역 (1996). **인간의 무의식과 상징**. 서울: 집문당.
- Keith S. Dobson., Handbook of Congnitive-Behavioral Theraphies, 김은정, 원성두 역 (2014). **인지행동치료 핸드북**. 서울: 학지사.
- Kurt Salamun., Karl Jaspers, 정영도 역 (2011). **카를 야스퍼스**. 지식을 만드는 지식, 111-118.
- Leslie S. Greenberg·Sandra C. Paivi (1986). Working with emotions in Psychotherapy. 이홍표 역 (2008). **심리치료에서 정서를 어떻게 다룰것인가?** 서울: 학지사.

- Milton H. Ericson. A Metaphor and Hypnosis 이윤주, 양정국 역 (2007). **은유와 최면**. 서울: 학지사.
- McWilliams, N. (1999). Psychoanalytic case formulation. Guilford Press. 권석만, 김윤희, 한수정, 김향숙, 김지영 역. **정신분석적 사례이해** (2005). 서울: 학지사.
- Polkinghorne, D. (1983). Methodology for the Human Science: System of Inquiry. University of New York. YN. 김승현, 이경숙, 심미선, 황치성 역 (2001). **사회과학 방법론**. 서울: 일신.
- Peterson, J. B. (1989). Cognitive therapy in practice: A case formulate approach. New York: W. W. Norton & Company. 김지혜, 임기영 역 (2006). **인지치료의 실제**. 서울: 중앙문화사.
- Richard E. Palmer. (1969). HERMENEUYICS, 이한우 역 (1988). **해석학이란 무엇인가**. 서울: 문예출판사.
- Richard Nelson-Jones (2013). Basic Counseling Skills: A Helper's Manual Fourth Edition). 김성봉 역 (2017). **기본 상담기술**. 서울: 시그마프레스, 59-98.
- Garfield, S. L. (1998). The practice of brief psychotherapy. John Wiley & Sons. 권석만, 김정옥, 문형춘, 신희천 역 (2002). **단기심리치료**. 서울: 학지사.
- Garfield, S. L. (1998). The practice of brief psychotherapy. John Wiley & Sons.
- Strauss, A., & Corbin, J. (1990). Basic of qualitative reserch: Grounded theory procedures and techniques. 김수지, 신경림 역 (2000). **근거이론의 이해**. 서울: 한울아카데미.
- William R. Miller, Stephen Rollnick. (2002). Motivational Interviewing: second edition. The Guilford Press. 신성만, 권정옥, 손명자 역 (2006). **제 2판 동기강화상담**. 서울: 시그마프레스.
- William R. Miller, Stephen Rollnick. 신성만, 권정옥, 이상훈 역 (2015). **제3판 동기강화상담**. 서울: 시그마프레스.
- Yalom, I. D. (2007). 실존주의 심리치료 [Existential Psychotherapy].(임경수 역). 서울: 학지사,(원전은 1980년 출판).

『窮通寶鑑』

『三命通會』
『淵海子平』
『子平眞全精解』
『子平眞詮評註』
『滴天髓闡微』
『周易』
『春秋繁露』
『命理眞蹟』
『尙書』
『設文解字』

- 萬民英 (2009). 『三命通會』 . 臺灣: 武陵出版社, 355.
- 萬育吾 (2008). 『三命通會』 . 臺灣: 育林出版社.
- 徐樂吾 (1989). 『子平眞詮平柱』 臺灣: 武陵出版社, p14.
- 徐 升 (1985). 『淵海子平』 券3, 臺灣: 瑞成書房, p1.
- 徐 升 (1985). 『淵海子平』 , 券2, 臺灣: 瑞成書房. 60.
- 徐 升 (1985). 『淵海子平』 , 券3, 臺灣: 瑞成書房. 1.
- 徐 升 (2011). 『연해자평(淵海子平)』 : 臺灣: 武陵出版社.
- 陳心讓 (1979). 『命理眞蹟』 . 臺灣: 三民書房, p468.
- 任鐵樵 (1984). 『適天隨賤微』 券3 臺灣: 五州出版社, p52.
- Adler, A. (1948). *Studies in analytical psychology*. New York: Norton.
- Atkinson, D. R., Morton, G., & Sue, D. W. (1979). *Counseling American minorities: Across-cultural perspectives*, Dubuque, IA: William, C. Brown.
- Atkinson, D. R., & Gim, R. H. (1989). Asian-American cultural identity and attitudes toward mental health service.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6, 219-212.
- Altman, N. (1995). *The analyst in the inner city: Race, class, and culture through a psycho analytic lens*. Hillsdale, NJ: Analytic Press.
- Beck, A. T. (1967). *Depression: Causes and treatment*. Philadelphia: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 Beck, A. T. (1987). *Cognitive therapy*. In J. K. Zeig (Ed.), *The evolution of psychotherapy*(pp. 149-178). New York: Brunner/Mazel.
- Bloom, B. L. (1992). *Planned short-term psychotherapy: A clinical handbook*. Boston: Allyn & Bacon.
- Burks, H. M., & Steffle, B. (1979). *Theories of counseling*. New York: McGraw-Hill Book Co.
- Creswell, J. w. (2003). Reserch design: qualitative inquiry. *Qualitative Inquiry*, 6, 256-265.
- Denzin, N. K. & Lincoln, Y. S. (1996). *Handbook of Qualitative Research*. Sage Publication.
- de Shazer, S. (1985). *Keys to Solution in Brief Therapy*. New York: Norton.
- D' Zurilla, T. J., Nezu, A. M. , & Maydeu-Olivares, A. (2002). *Social Problem-Solving Inventory-Revised: Technical manual*. North Tonawanda, New York: Multi-Helth Systems.
- Elles, T. D.(Ed)(1997, 2010). *Handbook of psychotherapy case formulation*. New York: The Guilford Press.
- Elles, A. (1980). Rational-emotive therapy and cognitive-behavior therapy: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Cognitive Reserch and Therapy*, 4, 325-340.
- Elles A. (Ed) (2001a). *Feeling better, getting better, and staying better*. Atascadero, CA: Impact.
- Elles, A., & Harper, R. (1961a). *A new guide to rational living*.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 Fosha, D. (1995). Technique and taboo in three short-term dynamic psychotherapies. *Journal of psychotherapy Practice and Reserch*, 4, 297-318.
- Fouad, N. A. (1993). Cross-cultural Vocational Assessment. *The Career Development Quaterly*, 42(1), 4-13.
- FruzzettiA. R., & Fruzzetti, A. E. (2008). *Dialectics*. In W. T. O'Donohue & J. E. Fisher (Eds.), *Cognitive behavior therapy: Applying empirically supported*

- techniques in your practice (2nd ed.)*. New York: Wiley.
- Germer, C. K. & Siegel, R. D. (2002). *Wisdom and Compassion in Psychotherapy*. New York: The Guilford Press, pp79-92.
- Goetz, E. T., Alexander, P. A., & Ash, M. J. (1992). *Educational psychology: A classroom perspective*. New York: Macmillan.
- Guba, E., & Lincoln, Y. (1994). *Competing paradigms in qualitative reserch*. In Denzin, N. K. & Lincoln, Y. (Eds). *Handbook of qualitative reserch*, Newbury Park: Sage
- Haley, J. (1987). *Problem-solving therapy (2nd ed.)*. San Francisco: Jossey-Bass.
- Hayes, S. (2004). *Acceptance and commitment therapy and the new behaviortherapies: Mindfulness, acceptance, and relationship*. In S. C. Hayes, V. M. Follette, & M. M. Linehan (Eds.), *Mindfulness and acceptance: Expanding the cognitive-behavioral tradition(pp.1-29)*. New York: Guilford Press.
- Hanson, N. B., & Lambert, M. J. & Forman, E. M. (2002). The psychology dose-response effect and its implications for treatment delivery services. *Clinical psychology: Science and Practice, 9*, 329-343.
- Hanson, N. B., & Lambert, M. J. (2003). An evaluation of the dose-responserelationship in naturalistic treatment settings using survival analysis. *Mental Health Service Reserch, 5*, 1-12.
- Hollon, S. D., Beck, A. T. (1979). *Cognitive therapy of depression*. In P. C.Kendall & S. D. Hollon (Eds.), *Cognitive-behavioral interventions* (pp.153-204). New York: Academic Press.
- Jung, C. C. (1981). *The Collected Works of C. G. Jung. 9-1: The Archetypes and Collective Unconscious*. N. j.: Princeton Univ. Press, 1981.
- Kabat-Zinn, J. (1982). An Outpatient Program in Behavioral Medicine for Chronic Pain Patients Based on the Practice of Minffulness Meditati on: Theoretical Considerrations and Preliminary Result', *General Hospital Psychiatry, 4*
- Kabat-Zinn, J. (1994). *Where You Go, There You Are: Mindfulness Meditation in*

- everyday life*. New York: Hyperion.
- Kadera, S. W., Lambert, M. J., Andrews, A. A. (1996). How much psychotherapy is really enough? *The Journal of Psychotherapy Practice and Research*, 5, 132-151.
- Kalton, M. C. (trans.) (1988). *To Become A Sage*.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 Kazdin, A. E. (1987). *History of behavior modification: Experimental foundations of contemporary research*. Baltimore: University Park Press.
- Kendal, P. C., & Bemis, K. M. (1983). *Thought and action in psychotherapy: The cognitive-behavioral approaches*. In M. Hersen, A. E. Kazdin, & A. D. S. Bellack (Eds.), *The clinical psychology handbook* (pp. 565-592). New York: Pergamon.
- Lather, P. (1986a). Validity in qualitative research. *Harvard Educational Review*, 17(4), 63-84.
- Levenson, H., & Davidovitz, D. (2000). Brief therapy prevalence and training: A national survey of psychologists. *Psychotherapy*, 37, 335-340.
- Linehan, M. M. (1993a). *Cognitive-behavioral treatment of 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 New York: Guilford Press.
- Linton, R. (1936). *The Study of Man*. New York, p.288, cited from Kroeber A. C. & Kluckhohn, C. (1952), *A. Vintage Books*, New York, p.82.
- Mathison, S. (1988). Why triangulate? *Educational Researcher*, 17(2), 13-17.
- Maslow, A. H. (1943). A theory of human motivation. *Psychological Review*, 50, 370-396.
- McGoldrick, M., & Gerson, R., Shellenberger, S. (1999). *Genograms: Assessment and Intervention*. New York: Norton.
- Meichenbaum, D. H. (1977). *Cognitive behavior modification*. New York: Plenum Press.
- Michael Kalton (1998). *To become a Sage: The Ten diagrams on sage learning by Yi Toegy*.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 Michael Kalton, The Contemporary Meaning of T'oegye's Ten Diagramson Sage Learning(Songhaksipdo) (2009), *as a key-note adress at the 22nd International Conference on T'oegye Studies.*
- Mostakas, C. (1994). *Phenomenological Reserch Method.* Sage Publication.
- Murase, T. (1982). *A central value in Japanese psychotherapy.* In A. J. Marsella & G. M. White (Eds). *Cultural conception of mental health and therapy.* pp.317-329. Boston: D Reidel Publishing.
- Neff. K. D. (2003a). Self-Compassion: An alternative conceptualization of ahealthy attitude toward oneself, *Self and Identity, 2,* 85-102.
- Neff. K. D. (2003b). The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 scale to measure self-compassion: *Self and Identity, 2,* 223-250.
- Perls, F. S. (1973). *The geschtalt approach and eye witness to therapy. Science and Behavior Books.*
- Peterson, B. P., & Ivey, A. E. (1993). *Culture-centered counseling and interviewing skills: A practical guide.* Westporrt, CT: Praeger.
- Piaset, J. (1937). *The construction of reality in the child.* New York: Basic Books.
- Ricoeur, P. (1974). *Hermeneutics of symbols & philosophy reflection. in the conflict of inerpretation: Essays in Hermeneutics.* Evanton: Northwestern University.
- Rogers, C. R. (1980). *A way of being.* Boston: Houghton Mifflin Press.
- Romer, L., & Orsiilo, S. (2003). Mindfulness: A promising intervention strategy in need of further study. *Clinical Psychology: Science and Practice, 10,* 172-178.
- Singer, E. (1970). *Key concepts in psychotherapy(2nd ed.).* New York: Basic Books.
- Stein, H. F. (1983). *An anthropological view of family therapy.* In D. Bagarozzi, A. Jurich and R. Jackson (Eds.). *Marital and family therapy.* New York: Human Sciences Press.
- Stiven. C. Hayes, Kirk. D. Strosahl, & Kelly. G. Willson (2012). *Acceptance and*

- Commitment Therapy: The Process and Practice of Mindful Change*, The New York: Guilford Press.
- Hayes, S. C., Strosahl, K. D., & Wilson, K. G. (2011). *Acceptance and commitment Therapy: The process and practice of mindful change*. New York: The Guilford Press.
- Strauss, A., & Corbin, J. (1990). *Basics of qualitative research : Techniques and Procedures for Developing Grounded Theory. (second Edition)*. Sage publications, Inc.
- Strupp, H. H., & Binder, J. L. (1984). *Psychotherapy in a new key: A guide to time-limited dynamic psychotherapy*. New York, NY: Basic Books.
- Sue, D. W. (1976). *Counseling the culturally different: A Conceptual Analysis. Personal and Guidance Journal. March. 422-425.*
- Sue, D. W., & Sue, D. (1977). Barriers to effective cross-cultural counseling.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 24 (5), 420.
- Talmon, M. (1990). *Single-session therapy: Maximizing the effect of the first (and often only) therapeutic encounter* . Jossey-Bass.
- Teasdale, J. D., Segal, Z. V., & Williams, J. M. G. (2003). Mindfulness training and problem formulation. *Clinical Psychology: Science and Practice*, 10, 157-160.
- Thompson, C. L. (1996). *The African-American patient in psychodynamic treatment*. In R. P. Foster, M. Moskowitz, & R. A. Javier(Eds.), *Reaching across boundries of culture and class: Widening thescope of psychotherapy*(pp. 115-142). Northvale, NJ: Aronson.
- Vontress, C. E. (1986). Existential Anxiety: Implications for Counseling. *American Mental Health Counselors Association Journal* , 8 (2), 100-109.
- 임한석의 생활역학 교실; <http://www.saju.or.kr>
- 석우당; <http://www.sukwoodang.com>.
- 선천적성검사 연구소 사이트; <http://www.aatest.co.kr>
- 통계청 (2017). 『2016년 인구동태통계 연보(혼인·이혼편)』 . 대전: 통계청.
- KASI 한국천문연구원 사이트; <http://www.kasi.re.kr>

<Abstract>

A Study on Development of
Korean Short-term Counseling Model based on Meungrihak

Eun-Hee Ha

Department of Educ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Korea

Supervised by Professor Sung-Bong Kim

This study was aimed at proposing a model of Korean short-term counseling based on Meungrihak. What are the 'consultative factors' of it, revealing the core technologies for short-term Korean counseling, and proposing a model of short-term Korean counseling. Research issues to achieve this research objective include:

Research question 1.

What are the 'consultative factors' Meungri counseling?

Research question 2.

What is the 'core technology of Meungri counseling' for short-term Korean counseling?

Research Question 3.

What is the model of Korean Short-term Counseling based on Meungrihak?

For the above research problems, we were able to identify the techniques that only the reputational counselors have by approaching the actual experiences of the renowned practitioners from a practical point of view of the phenomenological interpretation, including the study of literature through the classical literature of the Meungrihak. The literature study covered the technical aspects of counseling from the perspective of the phenomenological interpretation through the actual story of reputational counselors. In proposing a model of short-term counseling in Korea, he made efforts to systemize the process or procedures that should be supplemented in the form of the name consultation. With those new challenges, the following conclusions could be reached.

First, I explored the initial data of the consultation that can be seen in Myeongri counseling. In particular, through the theory of Yukchin, we identified the dynamics of family relations with the main character of Saju. In addition, the theory of Ilsson revealed the Characteristic of of the clint. Through these initial data, the daily life, year, month, day, and hour of birth in Myeongri counseling alone were found to have data to be used for various counseling sessions.

Second, Myeongri counseling was able to identify the therapeutic possibilities of counseling to confirm the possibility of philosophical counseling as an Oriental philosophy, Not just presenting fatalistic limits, but also looking at philosophical and therapeutic implications. The theory of yinyang, the theory of neutralization, was a quest to get a Ideas of the philosophical therapy of the most fundamental of eminence. On the other hand, we introduced the story of the researcher's experience through the study of Meungrihak. because it can be difficult for ordinary people to understand the theory of Meungrihak. While experiencing the study of fame, I explored the possibility of access, especially for those who are at a fatalistic threshold, with some therapeutic meaning, in the counseling scene, in contrast to the context of the main character.

Third, we explored the short-term consultative element of Myeongri counseling. Here, by borrowing the theory of 12-Woonseung from the various theories of

Meungrihak, we were able to conclude that Myeongri counselor can tell the narrator the hardest part of what is going on now. It is the art of 'core throwing'. Myeongri counselors can talk about what may be the most difficult part of a physician in the direction of a great fortune, which was established with the Sajuwonguk and Deawoon(10 years circumstance), Seawoon(1 year circumstance). Myeongri counselors can give answers to "Why did the client come here today?". It means They know the fact that the client is suffering from their problems right now.

Fourth, we explored the technical elements of the Myung-ri counseling. In stark contrast to Western counseling, Myeongri counseling has the art of Myeongri conversation, which can only be found in Myeongri conversation. It was accessible through phenomenological interpretation through stories from the actual counseling experience of eight real name Myeongri counselors. Myeongri counselors's technology enables short-term consultation directly through technologies such as "throwing a key issue," "sympathetic understanding through direct speech," "handling resistance through a straight line," and "taking a look at physical issues." like a picture that he or she was happened(will be happened), in their Past or in the future. It was also possible to conclude that the art of just this talk of fame could be a direct and strong expression for client-centered westerners, but it could reduce resistance for Koreans in a high-pitched society.

Fifth, I wanted to propose a model of short-term counseling in Korea based on Meungrihak. We introduced the case of Myeong-ri counseling, which is actually done, and from the point of view of western counseling, we could see the possibility of short-term counseling of Myeong-ri counseling through Supervision. Here, we reinterpreted the case of Myeongri counseling with psychoanalysis, cognitive behavior, client-centered counseling, like Rogerian style, Gestalt among the major western counseling theories, along with the concept of solving the syllabus and counseling. Through this diverse framework of analysis, I proposed a model of 'Korean short-term counseling based on Meungrihak' to better

understand clint in depth, along with future improvements to the Myeong-ri counseling.

In conclusion, I think this study may have been a new suggestion for providing the basis for Korean counseling to suit Koreans through academic orthodoxy, looking at the eastern philosophy of "nomination," the field of oriental Ideas such as changes of Books, and western counseling. It is hoped that the quality of counseling will be improved and the position of the counseling as a philosophical consultation through the management of counseling cases will be firmly established so that it can be aligned with the changing cultural trend rather than being tied to the existing framework. Of course, considering that there are many counseling materials in the field of fame as short-term counseling in the Western world, I hope that the integrated de-location will establish a strategy for Korean clintas multicultural counseling to suit their taste.

Keyword: Meungrihak, Korean style counseling, short-term counseling, the theory of Yukchin, the theory of Ilsu, the theory of 12-Woonseung, the theory of Yinyang and the theory of chungwha.